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1호 2018.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I 고구려 시기의 말갈

이정빈 ■ 6세기 중·후반 요서말갈(遼西靺鞨)과 돌궐·고구려 6

강인옥 ■ 고고자료로 본 백산말갈과 고구려의 책성 42

김현숙 ■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현황과 과제 80

이종수 ■ 속말말갈의 문화적 특징과 형성과정 고찰 132

특집 II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김기섭 ■ 백제 국가형성사 연구 동향과 과제 174

권오영 ■ 백제와 부여의 계승성 여부에 대한 검토 216

정재운 ■ 중국 요서(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260

논문

한철호 ■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小學校) 지리교과서의 현(縣)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300

함충범 ■ 이선근의 삶의 궤적과 시대 담론, 그리고 역사 인식
– 1950년대를 중심으로 344

홍종욱 ■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 잡지 『국제생활』 기사를 중심으로 374

김인수 ■ 냉전과 지식정치 – 박진환의 *Farm Management Analysis*(1966)의 성립사정을 중심으로 408

서평

김종준 ■ 식민주의 역사학, 극복의 대상인가, 성찰의 대상인가?
– 윤해동(2018),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2』,
소명출판 468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8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Edition I The Malgals in the period of Goguryeo

- Lee Jeongbin ■ Yoseo Malgal and Dolgwo, Goguryeo in the Middle and Late 6th Century 6
- Kang Inuk ■ Archaeological Re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Baishan Mohe and the Governance of Goguryeo in the Tuman River Basin Area 42
- Kim Hyunsook ■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the Mohe in Koguryo History and Remaining Challenges 80
- Lee Jongsu ■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Sumo Mohe Culture 132

Special Edition II The problems of Historical Research on the Early Baekje

- Kim Kiseob ■ Research Trends and Tasks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 Baekje 174
- Kwon Ohyoung ■ Is There Any Inheritance between Buyeo and Baekje? 216
- Chung Jaeyun ■ The Reality of Baekje Shown in the Province of Yoseo in China 260

Articles

- Han Cheolho ■ The Description of Shimane Prefecture's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Dokdo in the Geography Textbooks of Shimane Prefecture's Primary Schools until February 1905 300
- Ham Chungbeom ■ Lee Seon-geun's Life History, Periodic Discourse, and History Recognition: Focusing on the 1950s 344
- Hong Jongwook ■ North Korea's Recognition of the Bandung Conference and the Non-Aligned Movement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Magazine *International Life* 374
- Kim Insoo ■ Knowledge Politics in the Early Cold War Era: Focused on the Historical and the Academic Meaning of The Farm Management Analysis(1966) of Jin-Hwan Park 408

Book Review

- Kim Jongjun ■ Is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Object of Overcoming or Object of Reflection? 468



특집 I

고구려 시기의 말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세기 중·후반 요서말갈(遼西 靺鞨)과 돌궐·고구려

이정빈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 I. 머리말
- II. 6세기 중·후반의 요서말갈
- III. 요서말갈의 형성과 돌궐
- IV. 속말부(粟末部)·백산부(白山部)와 고구려
- V. 맺음말



I. 머리말

6~7세기 말갈은 동북아시아 각처에 널리 거주하였는데, 요서 지역에도 그 중 일부가 거주하였다.¹ 이를 요서말갈(遼西靺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말갈 제부(諸部)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주요 강국에 신속(臣屬)하였는데, 그들의 향방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² 더욱이 요서 지역은 동아시아 주요 강국의 변경이었으므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서 요서말갈의 동향이 갖는 중요성은 한층 커진다고 할 수 있다.³

돌지계(突地稽)와 그 아들 이근행(李謹行)이 이끈 일단(一團)의 말갈이 주목된다. 이른바 돌지계 세력이다. 그들은 요서말갈의 대표적인 세력 중 하나였다.⁴ 이제까지 요서말갈은 돌지계 세력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는데, 주로 수·당에 신속하였기에 친수·친당 성향이 강조되었다. 요서말갈을 이해하는 데 돌지

* 투고: 2018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 1 비록 요서의 의미와 범위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현재의 遼寧省의 서부 지역과 내몽골자치구 남부의 일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동쪽으로 遼河, 북·서쪽으로 시라무렌(Sira-muren), 남·서쪽으로 灤河 및 燕山山脈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해당한다.
- 2 이와 관련한 연구사 검토는 권은주, 2008, 「말갈 연구와 유적현황」, 정병준 외,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6~41쪽; 김현숙, 2018,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61 참조.
- 3 이성제, 2003, 「“말갈문제”를 통해 본 6세기말 요서 정세의 변화」, 『학예지』 1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73~174쪽, 관련 연구는 174쪽 주1 참조.
- 4 專論으로 다음이 주목된다. 日野開三郎, 1991, 「隋唐に歸屬せる粟末靺鞨人突地稽一黨」, 『東洋史學論集 15 - 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局; 노태돈, 1999, 「6세기 중반의 정세변동 - 고구려의 한강 유역 상실의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415~429쪽; 이성제, 2003, 위의 논문; 范恩實, 2003, 「靺鞨與高句麗關係史研究」, 『鞍山師範學院學報』 1; 2011, 「論隋唐營州的靺鞨人」, 『中國邊疆史地研究』 21-1.

계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돌지계 세력과 그의 친수·친당 성향이 강조되면서 간과한 사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요서말갈이 돌지계 세력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돌지계 세력이 이주해 오기 전인 6세기 중반부터 요서말갈의 활동이 확인된다. 돌궐과 고구려에 신속·부속된 요서말갈도 있었다고 보인다.⁵ 그러므로 요서말갈의 동향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과 제부의 동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에서 비교적 소홀하였던 요서말갈과 돌궐·고구려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였을 때 6~7세기 말갈 연구의 기초가 된 『수서』 말갈전의 7부(部)에 대한 종래의 이해도 약간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6세기 중·후반 요서말갈의 형성기에 초점을 맞추어 제부의 동향을 돌궐·고구려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요서말갈의 존재를 확인하고, 물길에서 말갈로의 변화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어 요서말갈의 형성 배경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돌궐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서』 말갈전과 『신당서』 후속말갈전에 보이는 7부 중 속말부(粟末部)·백산부(白山部)를 요서말갈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 그들과 고구려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6세기 중·후반의 요서말갈

현전 문헌사료에서 말갈은 563년부터 찾아볼 수 있다.⁶ 이때 실위·고막해·거란과 함께 북제(北齊, 550~577)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요

5 말갈과 돌궐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전론이 참고된다. 馬一虹, 2003, 「靺鞨與東突厥關係考術」, 『史林』 6, 上海社會科學院.

6 『북제서』 권7, 帝紀7 武成 河清 二年(563). “是歲 室韋·庫莫奚·靺鞨·契丹並遣使朝貢.”

서 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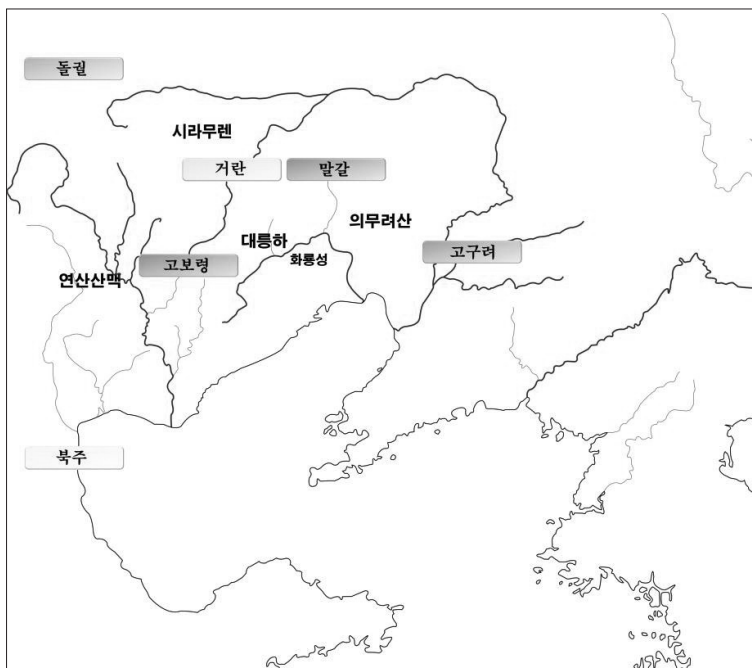
A-1. ① 북주(北周)의 군대가 장차 [북제의] 업성(鄴城)에 이르자 유주행대(幽州行臺) 반자황(潘子晃)은 황룡성(黃龍城)의 군사를 요청하였다. 고보령(高保寧)은 정예병과 함께 계단(契丹)·말갈(靺鞨)의 만여(萬餘)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고자 하였는데, 북평(北平)에 이르러 반자황이 이미 계성(薊城)을 떠났고, 또한 업성을 지킬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귀영(歸營)하였다. 북주의 무제(武帝)가 사신을 보내 [고보령을] 초위(招慰)하였지만 칙서를 받지 않았다. [북제의] 범양왕(范陽王) 고소의(高紹義)는 돌궐 중에 있었는데, [고보령이] 표를 올려 제위에 오르길 권유하였다. 범양왕 [고소의는] 고보령을 승상으로 삼았다. ② 노창기(盧昌期)가 범양성에 웅거하고 군사를 일으키자, 고보령은 고소의를 인도하고 이하병(夷夏兵) 수만 기를 모아 와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였다. 고보령이 로하(潞河)에 이르자 북주의 장수 우문신거(宇文神舉)가 이미 범양성을 함락시킨 것을 알고 황룡성으로 돌아와 웅거하며 끝내 북주에 신속하지 않았다.⁷ (『北齊書』卷41, 열전33 高保寧)

A-2. 태건(太建) 10년(578) 윤6월 신사(16일), 북제의 범양왕 고소의는 북주의 고조(高祖)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의 도움으로 생각하였다. 유주인 노창기가 군사를 일으켜 범양성에 웅거하며 고소의를 맞이하고자 하였다. (중략) 고보령은 이하의 수만 기를 거느리고 범양성을 구원하고자 하였는데, 노수(潞水)에 이르러 노창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룡성으로 돌아와 웅거하였다.⁸ (『資治通

7 “周師將至鄴 幽州行臺潘子晃徵黃龍兵 保寧率驍銳并契丹·靺鞨萬餘騎將赴求 至北平 知子晃已發薊 又聞鄴都不守 便歸營 周帝遣使招慰 不受勅書 范陽王紹義在突厥中 上表勸進 范陽署保寧爲丞相 及盧昌期據范陽城起兵 保寧引紹義 集夷夏兵數萬騎來救之 至潞河 知周將宇文神舉已屠范陽 遽據黃龍 竟不臣周.”

8 “齊范陽王紹義聞周高祖殂 以爲得天助 幽州人盧昌期 起兵據范陽 迎紹義 紹義引突厥兵赴之 周遣柱國東平公神舉將兵討昌期 紹義聞幽州總管出兵在外 欲乘虛襲薊 神舉遣大將軍宇文恩將四千人救之 半爲紹義所殺 會神舉克范陽

위 사료는 북제의 부흥을 도모한 고보령의 활동을 전하고 있다. 사료 A-1-㉠에서 고보령이 북제의 업성을 구원하기 위해 거란·말갈의 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갔다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말갈의 기병이 고보령의 주요 군사력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사료 A-1-㉠과 사료 A-2를 보면 고보령은 578년에도 이하의 수만 기병을 이끌고 출병했는데, 이때의 이병 중에도 말갈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도 1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의 동향

擒昌期 紹義聞之 素衣舉哀 還入突厥 高寶寧帥夷夏數萬騎救范陽 至潞水 聞昌期死 還據和龍.”

고 생각된다.

고보령은 북제의 영주자사(營州刺史)로서 그 치소인 황룡성(또는 화룡성, 현 요령성 조양(朝陽))을 진수하고 있었다.⁹ 이로 보아 그가 이끈 거란병·말갈병은 요서 지역 내지 그 주변에서 동원한 것으로 짐작된다. 요서 지역 내지 그 주변의 말갈이었던 것이다. 563년 북제에 사신을 보낸 말갈 역시 그와 무관치 않았다고 짐작된다.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에서는 말갈이 주요 종족의 하나로 정착해 있었고, 그중 일부가 북제와 교섭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가 참고된다.

B-1. 수의 『북변풍속기(北蕃風俗記)』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처음 개황 연간(581~600) 중에 속말말갈(粟末靺鞨)이 고구려와 싸워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 속말말갈] 궤계부(厥稽部)의 거장 돌지계(渠長 突地稽)란 자가 있어 홀사래부(忽賜來部)·굴돌사부(窟突始部)·열계가부(悅稽蒙部)·월우부(越羽部)·보호뢰부(步護賴部)·파해부(破奚部)·보보관리부(步步括利部)을 비롯한 무릇 8부·승병(勝兵) 수천 명을 거느렸는데, 부여성(扶餘城) 서북에서부터 부락을 정비하고 관(關)으로 향하여 내부(內附)하였으니, 그를 유성(柳城)에 두었다.”¹⁰ (『太平實字記』卷71, 河北道 燕州)

B-2. 속말말갈의 수령 돌지계는 수(隋) 개황 연간에 부락(部落)을 거느리고 귀화(歸化)하였으니, 영주의 경계에 거처하도록 하였다. 양제 8년(612년)에 양제 8년

9 『북제서』 권41, 열전33 高保寧, “高保寧 代人也 不知其所從來 武平末爲營州刺史 鎮黃龍 夷夏重其威信.”; 『수서』 권39, 열전4 陰壽, “時有高寶寧者 齊氏之疏屬也 爲人桀黠 有籌算 在齊久鎮黃龍 及齊滅 周武帝拜爲營州刺史 甚得華夷之心.”

10 “隋北蕃風俗記云 初開皇中 粟來[末]靺鞨與高麗戰不勝 有厥稽部渠長突地稽者 卒[率]忽賜來部·窟突始部·悅稽蒙部·越羽部·步護賴部·破奚部·步步括利部 凡八部勝兵數千人 自扶餘城西北齊部落 向關內附 處之柳城.” 괄호[]는 誤字로 여겨지는 것으로, 다른 여러 史書를 참조해 校訂한 것이다. 번역문은 校訂에 따랐다.

에 요서군(遼西郡)을 설치하고 돌지계를 태수(太守)로 삼았고, 영주 동쪽 200리의 여라성(汝羅城)에 치소를 두었다.¹¹ (『태평환우기』 권69, 河北道 幽州 幽都縣) B-3. 양제(재위: 604~618) 초에 고구려와 더불어 싸워 빈번히 그 무리가 패하니, 거수(渠帥) 도지계(돌지계)度地稽(突地稽)가 그 부를 거느리고 내항(來降)하였다. [돌지계에게] 벼슬을 내려 우광록대부(右光祿大夫)로 삼고, 유성에 거주하도록 하고, 변인(邊人)과 더불어 왕래하도록 하였다.¹² (『수서』 권81, 열전46 동이 말갈)

B-4. 추수(酋帥) 돌지계가 있어 수말(隋末)에 그 부 천여가(千餘家)를 이끌고 내속(內屬)하니, 영주에 거처하도록 하였다. 양제(煬帝)가 돌지계에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요서태수(遼西太守)를 주었다.¹³ (『구당서』 권199하, 열전149하 북적 말갈)

B-5. 이근행은 말갈인이다. 부친 돌지계는 부의 추장(酋長)이었다. 수말에 그 족속 천여를 이끌고 내부하니 영주에 거처하도록 하였고, 금자광록대부·요서태수를 제수하였다.¹⁴ (『신당서』 권110, 열전35 제이변장 李謹行)

B-6. [무덕(武德) 2년(619)] 10월에 말갈 추수 돌지계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돌[지]계는 말갈의 거장이다. 수(隋) 대업(大業) 연간(605~617)에 형 만돌(曠咄)과 더불어 그 부를 이끌고 영주에 내속하였다. 만돌이 죽자 대신 그 무리를 총괄하였다. 요서태수에 제수되었고, 부여후(扶餘侯)에 책봉되었다.¹⁵ (『책부원귀』

11 “栗末靺鞨首領突地稽 當隋開皇中 領部落歸化 處之於營州界 煬帝八年 爲置遼西郡 以突地稽爲太守 治營州東二百里汝羅城.”

12 “煬帝初與高麗戰 頻敗其衆 渠帥度地稽率其部來降 拜爲右光祿大夫 居之柳城 與邊人來往.”

13 “有酋帥突地稽者 隋末率其部千餘家內屬 處之於營州 煬帝授突地稽金紫光祿大夫·遼西太守.”

14 “李謹行 靺鞨人 父突地稽 部酋長也 隋末 率其屬千餘內附 居營州 授金紫光祿大夫·遼西太守.”

15 “十月 靺鞨酋帥突地稽遣使朝貢 突稽者 靺鞨之渠長也 隋大業中 與兄曠咄 率其部內屬於營州 曠咄死 代總其衆 拜遼西太守 封扶餘侯.”

위 사료는 돌지계 세력과 수의 관계를 전하고 있다. 우선 사료 B-1이 주목된다. 이를 보면 속말말갈은 고구려와 싸워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돌지계가 8부·승병 수천인을 거느리고 수(581~618)에 내부하였다고 한다. 사료 B-2에서 돌지계는 속말말갈 수령이었다고 하였다. 두 사료를 종합해 보건대 돌지계를 비롯한 속말말갈이 고구려와 충돌해 패배했고, 그 결과 수에 내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의 시점부터 살펴보자. 사료 B-1·2에서는 이 사건이 개황 연간(581~600)에 발생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료 B-3에서는 양제 재위 초반이었다고 하였고, 사료 B-6에서는 양제 대업 연간(605~617)이었다고 하였다. 사료 B-4·5의 경우 수말이라고 하여 양제 재위 연간처럼 이해된다. 사료에 따라 크게 문제대와 양제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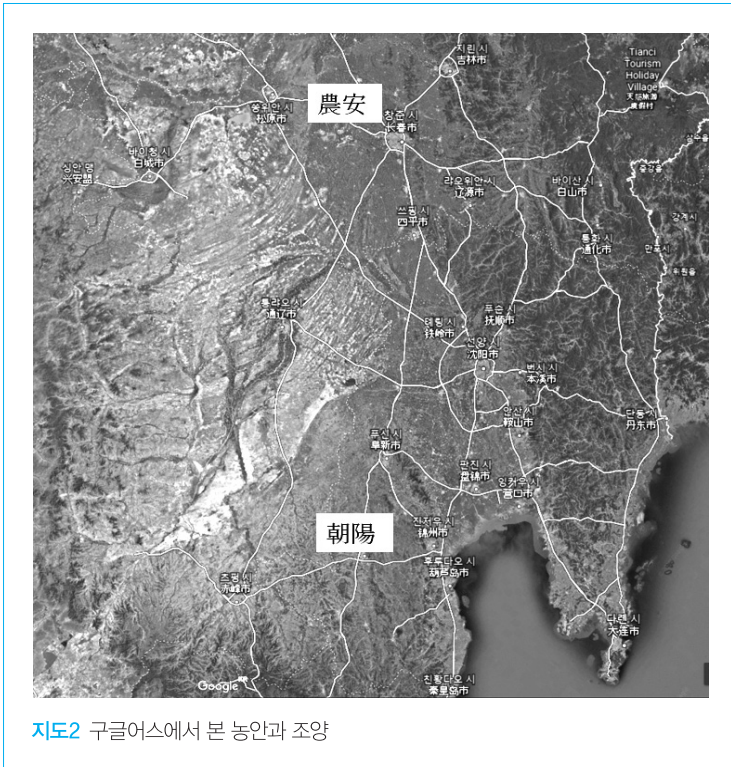
여기서 사료 B-1에서 인용한 『북변풍속기』가 주목된다. 이는 수대에 저술된 『저변풍속기(諸蕃風俗記)』 내지 그와 같은 종류의 『풍속기(風俗記)』를 가리킨다고 이해된다.¹⁶ 그런 만큼 사료 B-1은 여타의 사료보다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돌지계 세력이 수에 내부한 사정 역시 자세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시점은 사료 B-1을 중시해 보아야 하며 문제대 즉 개황 연간이 옳다고 생각한다.¹⁷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자는 사료 B-1과 관련하여 590년 수 문제(재위:

16 『수서』 經籍志(권30, 지28)를 보면 『諸蕃風俗記』 2권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수대의 저술이었고 당 전기까지 유통되었다고 추정된다(李康來, 1998, 「7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 통일기 신라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14, 214~216쪽 및 주37 참조).

17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55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417쪽; 이성제, 2003, 앞의 논문, 176쪽; 임기환,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61쪽. 사료 B-3~6은 曷咄의 사후 돌지계가 수로부터 관직을 받은 시점을 중시한 기록이 아닐까 한다.

581~604)가 고구려의 평원왕(재위: 559~590)에게 보낸 새서(璽書)를 주목했다.¹⁸ 새서를 보면 고구려가 ‘구핍말갈(驅逼靺鞨)’했다고 하는데, 속말말갈과 고구려의 충돌 및 돌지계 세력의 내부가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여겨진 것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이해에 동의한다. 따라서 개황 연간의 구체적인 시점은 580년대 중·후반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지점을 생각해 보자. 후술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속말말갈은 송화강 유역에 거주하였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사료 B-1에 보이는 것처럼

18 이성제, 2003, 앞의 논문, 179쪽; 임기환, 2006, 위의 논문, 62쪽.

림 돌지게 세력은 부여성 서북에서부터 부락을 정비해 내부했다. 이로 보아 돌지게 세력은 부여성 서북쪽에서 고구려와 충돌하였고, 부여성 서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¹⁹ 부여성은 지금의 길림성(吉林省) 농안(農安) 서남쪽에 비정된다.²⁰ 그러므로 580년대 중·후반 돌지게 세력의 거주지는 지금의 농안 서쪽이었다고 파악된다.

수로 내부한 돌지게 세력은 8부·승병 수천인이었다. 수로 내부하지 않은 속말말갈도 있었을 것이다.²¹ 그를 감안해 보면 농안 서쪽의 속말말갈은 상당히 큰 규모였다고 생각된다. 거주지 역시 광대하였다고 생각된다. 농안 서쪽에서 요서 동북부까지 널리 흩어져 살지 않았을까 한다.²² 그렇다고 한다면 사료 B-1을 통해 580년대 중·후반을 전후한 시점에 속말말갈로 구성된 요서말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요서 지역은 의무려산(醫巫閭山)을 중심에 두고 볼 때 대략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세기 중반 북제·북조(557~581)의 세력범위는 그중 서부였다. 동부는 고구려, 북부는 돌궐의 세력범위에 속하였다. 요서의 북부·동부에는 고막해(庫莫奚)와 계단이 거주했는데, 5세기 이후 거란의 일부는 돌궐과 고구려의 압박으로 서부·남부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에서는 거란이 가장 대표적인 종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²³

그와 비교해 말갈은 563년 즉 6세기 중반 이후부터 사료에 보이기 시작했다

19 日野開三郎, 1991, 앞의 책, 28~34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417~419쪽; 김락기, 2013,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景仁文化社, 155~156쪽.

20 和田清, 1955, 『東亞史研究 - 滿洲篇 - 』, 東洋文庫, 42쪽; 李龍範, 1959, 앞의 논문, 56~57쪽; 盧泰敦, 1999, 앞의 책, 497~500쪽; 송기호, 2011, 『발해 사회 문화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94~95쪽.

21 日野開三郎, 1991, 앞의 책, 225쪽.

22 李純根, 1996, 『靺鞨의 種族 正體性에 대한 一研究』, 『論文集』 2,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7~8쪽.

23 5~6세기 거란의 거주지역과 그 확대 과정은 李在成, 1996,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82~89쪽 참조.

는데, 그 전신(前身)은 물길(勿吉)로 이해된다.²⁴ 물길은 속말수(速末水)를 중심으로 분포했다고 한다.²⁵ 흔히 속말수는 현재의 송화강으로 비정된다.²⁶ 그와 함께 여러 문헌 사료와 고고자료를 종합해 보건대, 물길의 중심지는 요하 이동·고구려 이북의 송화강 유역이었다고 이해된다.²⁷

이처럼 6세기 중반까지 거란과 물길의 거주지는 크게 보아 요서와 요동으로 구분된다. 그렇다고 할 때, 말갈의 본격적인 활동이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물길·말갈 연구에서 본거주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돌지게 세력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주지의 이주·확대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⁸ 이와 같은 관점에서 6세기 중반 이후 물길 일파의 이주 가능성이 생각된다.

일찍이 논의된 것처럼 말갈과 물길이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제대인 572년까지 말갈과 물길이 공존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다.²⁹ 다만 7세기 전반부터 말갈과 물길은 동일한 집단으로 인식되었는데,³⁰ 이는 양자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다수의 연구자는 말갈이 물길의 동음이역(同音異

24 『구당서』 권199하, 열전149하 말갈. “[靺鞨] 蓋肅慎之地 後魏謂之勿吉.” 및 『신당서』 흑수말갈(사료 F-2).

25 『위서』 권100, 열전88 勿吉. “國有大水 闊三里餘 名速末水.”

26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東京帝國大學 文科大學, 18쪽.

27 김락기, 2013, 앞의 책, 103~115쪽. 최근 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변화」, 『중앙사론』 47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28 김락기, 2013, 앞의 책, 12쪽.

29 池内宏, 1937,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5,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59~60쪽;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526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74~75쪽 참조.

30 예컨대 7세기 전반 편찬된 『북사』(권94, 열전92)는 勿吉傳으로 立傳하였지만, 그 내용은 『수서』(권81, 열전46) 말갈전과 거의 같다. 이는 『북사』 찬자가 물길과 말갈을 동일시하였음을 말해준다.

譯)으로,³¹ 그 일부(一部)에서부터 성장해서 대표적인 종족 명칭 내지 표기를 대체했다고 본다.³²

물길의 이주와 이를 통한 요서말갈의 형성이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속말갈 같이 주목된다. 속말갈의 속말은 『신당서』 흑수말갈전(黑水靺鞨傳)과 발해전에 보이는 속말수(粟末水)로,³³ 물길이 거주한 속말수(速末水)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된다.³⁴ 그들은 송화강 유역에서 기원하였기에 속말말갈을 칭하였다고 짐작된다.³⁵ 그렇다고 한다면 속말수 물길에서 속말말갈로의 변화가 고려된다. 그리고 요서지역으로 이주한 속말말갈을 중심으로 물길에서 말갈로 대표적인 종족 명칭 내지 표기가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말갈은 6세기 중반부터 문헌사료에 등장하였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요서 지역에서 나타났다. 고보령의 병력으로 활동한 말갈병이 있었고, 돌지계 세력과 같은 속말말갈이 있었다. 6세기 중반까지 요서 지역의 주인공은 거란이었다. 이와 비교해 말갈은 물길의 일파로 본래 속말수 유역에 거주했다. 속말말갈 역시 속말수 물길의 일파로, 물길에서 말갈로 대표적인 종족 명칭이 변

31 韓圭哲, 1988, 「高句麗時代の靺鞨研究」, 『釜山史學』 14·15, 14~15쪽 및 주13; 都興智, 2001, 「略論東北古代族名與山水名の關係」, 『社會科學戰線』 1, 132~133쪽.

32 日野開三郎, 1991, 앞의 책, 106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423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119쪽.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을 유의해 본 최근의 견해(권은주, 2008, 앞의 논문, 37쪽 및 주40 참조)가 눈길을 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신라본기를 보면 이른 시기부터 말갈이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해서 말갈의 기원을 한반도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및 그 전거자료의 찬술 시점과 아울러 물길-말갈의 계통성을 고려하면 백제본기·신라본기의 말갈보다 요서 말갈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3 『신당서』 권219, 열전144 흑수말갈. “其著者曰粟末部 居最南 抵太白山 亦曰徒太山 與高麗接 依粟末水以居 水源於山西 北注它瀾河.”; 『신당서』 권219, 열전144 발해. “又郢·銅·涑三州爲獨奏州 涑州以其近涑沫江 蓋所謂粟末水也.”

34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東京帝國大學 文科大學, 18쪽.

35 이 때문에 速末水 지명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락기, 2013, 앞의 책, 66~67쪽).

화한 데는 그들의 이주가 고려된다. 그러면 이주의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요서말갈의 형성 과정을 생각해 보자.

III. 요서말갈의 형성과 돌궐

요서말갈의 형성과 관련하여 우선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의 정세 변화가 고려된다.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C-1. 천보 3년(552) 춘정월 병신(27일)에 황제가 친히 대군(代郡)에서 고막해를 토벌하여 그를 크게 격파하였다. 잡축(雜畜) 10여 만을 노획해 장사(將士)에게 각기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고, 해구(奚口)는 산둥(山東)에 주어서 민(民)으로 삼았다.³⁶ (『북제서』 권4, 제기4)

C-2. 천보 4년 9월에 거란이 변새를 침범하였다. 문선제(文宣帝)가 친히 군대를 내어 북방으로 토벌(討伐)하였다. 평주(平州)에 이르러 마침내 서쪽으로 장참(長塹)을 넘었다. 조서를 내려 사도(司徒) 반상악(潘相樂)에게 정기(精騎) 5천을 이끌고 동도(東道)에서부터 청산(靑山)에 이르도록 하였다. 다시 조서를 내려 안덕왕 한궤(安德王 韓軌)에게 정기 4천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거란의 도주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황제는 친히 산령(山嶺)을 넘어 분격해 그들을 대파하였다. 포로 10만여 구(口)·잡축(雜畜) 수십만 두(頭)를 노획하였다. [반]상락이 다시 청산에서 거란 별부(別部)를 대파하였다. 노획한 포로는 모두 제주(諸州)에 분치(分置)하였다. 그 이후 다시 돌궐에게 핍박을 받아서 다시 만가(萬家)가 고[구]려에 기거(寄居)하였다.³⁷ (『북사』 권94, 열전82 契丹國)

36 “三年春正月丙申 帝親討庫莫奚於代郡 大破之 獲雜畜十餘萬 分賚將士各有差以奚口付山東爲民.”

37 “天保四年九月 契丹犯塞 文宣帝親戎北討 至平州 遂西趣長塹 詔司徒潘相樂帥精騎五千 自東道趣靑山 復詔安德王韓軌帥精騎四千東趣 斷契丹走路 帝親

C-3. 『삼국전략(三國典略)』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제주(齊主)는 거란이 변새를 침범하므로 친정(親征)하였다. 평주에 이르러 그 서도(西道)를 따라서 곧장 장점(長漸)으로 갔다. 사도 반상락은 정기 5천을 이끌고 동도에서부터 청산에 이르러 백랑성(白狼城)으로 향하였다. 안덕왕 한궤는 정기 4천을 이끌고 그 도주로를 차단하였고, 도망친 적을 추격해 요수(遼水)까지 이르렀다. 제주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벗어가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천여 리를 행군하였다. 오직 고기를 먹고 물을 마셨으니, 기운이 왕성했고 매서웠다. 친히 산령을 넘었는데, 사졸(士卒)의 앞에 있으면서 지휘해 부격(奮擊)하였으니, 그들을 대파하였다. 10만여 구를 노획하였다.”³⁸ (『태평어람』 권326, 兵部57)

위 사료는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의 정세 변화를 보여준다.³⁹ 사료 C-1과 같이 북제의 문선제(550~559)는 552년 고막해를 공격해 대파했다. 그리고 553년 거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⁴⁰ 552년 돌궐의 공격을 받아 쇠퇴한 유연은 거란과 충돌하고 있었는데, 북제는 거란이 변새를 침략했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북방의 정세 변화를 틈타 고막해에 이어 거란까지 제압함으로써 변경지대의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躡山嶺 奮擊大破之 虜十餘萬口·雜畜數十萬頭 相樂又於青山大破契丹別部所虜生口 皆分置諸州 其後復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38 “三國典略曰 齊主以契丹犯塞 親征 至於平州 取其西道 直指長漸 司徒潘相樂率精騎五千 自東道趣青山 向白狼城 安德王韓軌率精騎四千 斷其走路 追奔至於遼水 齊主露髮袒身 晝夜不息 行千餘里 唯食肉飲水 壯氣彌厲 親躡山嶺 爲士卒先 指揮奮擊 大破之 虜獲十萬餘口。”

39 대략적인 이해는 노태돈, 1999, 앞의 책, 404~406쪽;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 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 국학자료원, 142~147쪽; 임기환, 2006, 앞의 논문, 59~60쪽; 金鎮漢, 2010, 〈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01~105쪽; 趙智濱, 2018, 『百濟北伐高句麗與北齊文宣帝營州之行』, 『地域文化研究』2, 77~78쪽 참조.

40 『북제서』 권4, 무기4 文宣 天保 4년(553) 9月 및 冬10月. 거란 공격은 10월에 시작되었다.

『북제서』 제기(帝紀)와 사료 C-3을 통해 보건대 북제의 군대는 백랑성과 창려성(昌黎城)을 경유했다고 보인다.⁴¹ 백랑성은 백랑하(白狼河) 즉 대릉하 유역에 소재하였고,⁴² 창려성 역시 그 일대에 위치하였다고 파악된다.⁴³ 553년 북제는 요서 서남부에서 그 북부의 거란을 공격했던 것이다. 북제의 거란 공격은 사료 C-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치밀했다. 한궈는 거란의 도주로를 차단했다고 하며, 도망친 거란을 쫓아 요수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북제는 요서 서북부의 거란을 공격해 그의 재기가 어려울 만큼 격멸하는 데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북제는 거란 공격의 성과로 10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 제주에 분치했다고 한다. 그 결과 거란 제부는 크게 동요하였을 것이다.⁴⁴ 거란 제부의 동요는 그에 그치지 않고 이후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인다.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D. 사근(挨斤)은 일명 연도이다. (중략) 사근은 다시 서쪽으로 헌달(獻嗟)을 격파하고 동쪽으로 계단을 패주시켰고, 북쪽으로 계골(契骨)을 아울렀으니, 위력으로塞外諸國(塞外諸國)을 복속시켰다. 그 땅은 동쪽으로 요해(遼海) 이서(以西)에 서부터 서쪽으로 서해만리(西海萬里)에 이르렀고, 남쪽으로 사막(沙漠) 이북(以北)에서부터 북쪽으로 북해(北海)에 이르렀으니, 5~6천 리가 모두 [돌궐에] 복속

41 『북제서』 권4, 제기4 天保 4年 冬10月, “辛丑(12일) 至白狼城 壬寅(13일) 經昌黎城,” 『三國典略』에 관해서는 瞿安全, 2002, 『三國典略』略考, 『文憲』3, 國家圖書館 참조.

42 『북사』 권19, 열전7 臧守善集, “天保初 準例降爵爲高陽縣公 拜右光祿大夫 [天保] 二年 從文宣討契丹 還至白狼河 以罪賜死,” 이때 2년은 4년의 오류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하였을 때 白狼水는 北齊軍의 회군로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군로상의 白狼城도 그 水邊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현재 요령성 朝陽 喀左의 黃道營子古城으로 지정된다(王綿厚·李健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94쪽).

43 현재 요령성 朝陽 喀左의 馬家營子 古城으로 지정된다(王綿厚·李健才, 1990, 앞의 책, 94~95쪽).

44 노태돈, 1999, 앞의 책, 405쪽.

하였다.⁴⁵ (『주서』 권50, 열전42 異域下 돌궐)

위 사료는 사근 즉 목한가한(木汗可汗, 재위: 553~572)의 대외 활동과 돌궐의 영역을 전하고 있다. 목한가한이 거란을 패주시키고 요해의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했다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사료 D의 내용은 사료 C-2에서 거란이 돌궐의 압박을 받았다고 한 사실과 통한다. 사료 C-2에서는 돌궐의 압박으로 거란의 만가가 고구려에 기거했다고 하였다. 6세기 중반 돌궐의 흥기와 압박에 따라 거란 제부의 동요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을 대표하던 거란 제부는 북제·돌궐의 공격과 압박으로 연이어 동요했다. 적어도 10만 이상의 거란인이 요서 지역 밖으로 이산(離散)했다. 이에 따라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에는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이해된다. 송화강 유역의 물길 일파가 이주해 요서말갈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공백이 이주의 배경으로 주목된다. 즉 돌궐의 흥기와 거란의 쇠퇴를 배경으로 물길의 일부가 요서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요서말갈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요서말갈의 이주는 돌궐과 무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목한가한은 요해 이서까지 세력범위에 두었다고 하였다. 그를 이은 사발락가한(沙鉢略可汗, 재위: 581~587)은 토둔(吐屯) 반질(潘埴)을 파견하여 거란을 통솔하였다고 했다.⁴⁶ 6세기 중·후반 요서 서부와 거란 제부는 돌궐의 세력범위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⁴⁷ 따라서 거란의 동요를 배경으로 요서말갈의 일

45 “俟斤一名燕都(中略) 俟斤又西破嚙噠 東走契丹 北并契骨 威服塞外諸國 其地東自遼海以西 西至西海萬里 南自沙漠以北 北至北海 五六千里 皆屬焉.”

46 『주서』 권84, 열전49 북적 거란, “突厥沙鉢略可汗遣吐屯潘埴統之.”; 『북사』 권94, 열전82 북적 거란.

47 李龍範, 1959, 앞의 논문, 69쪽. 사발락가한은 他鉢可汗(재위: 572~581)이 즉위한 572년부터 爾伏可汗으로서 돌궐의 東面을 통솔하였다(『주서』 권84, 열전49 북적 거란, “佗鉢以攝圖爲爾伏可汗 統其東面.”). 이로 보아 거란에 토둔이 파견된 것은 사발락가한이 돌궐의 동면을 통솔한 572년 이후였다고 생각된다(李在成,

부가 이주해 왔다고 하면, 이는 돌궐의 후원 내지 묵인 없이는 가능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6세기 중반 말갈의 대북제 교섭이 돌궐의 비호하에 가능하였다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⁴⁸ 실제 요서말갈의 일부는 돌궐과 밀접하였다. 예컨대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말갈의 일부는 고보령 세력을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고보령 세력은 돌궐과 연합하였다.⁴⁹ 이로 미루어 보아 고보령 세력이 동원한 말갈병은 친돌궐 성향이었다고 이해된다. 이와 같은 친돌궐 성향의 말갈이 돌궐의 후원 내지 묵인하에 요서 지역으로 이주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돌궐은 어떠한 이유에서 말갈의 이주를 후원 내지 묵인했을까.

아래의 사료 F-1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수 문제대 말갈은 “서북으로 거란과 상접(相接)하여 자주 서로 위협하고 약탈하였다.”고 하였다. 요서 지역에서 말갈과 거란은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개황 연간 초기 이후,⁵⁰ 보다 구체적으로는 580년대 중반 돌궐이 쇠퇴한 이후의 사정으로 보인다. 수가 거란을 신속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양자가 6세기 중반 이후부터 요서 지역에서 공존했다고 보면, 양자의 경쟁 관계는 그 이전부터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란 제부가 돌궐의 세력 범위에 속하였던 시점에도 양자는 경쟁관계였다고 짐작된다. 이 점에서 돌궐이 말갈의 이주를 후원 내지 묵인하였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거란과 말갈의 경쟁 관계를 유도한 데 있었다고 여겨진다. 돌궐은 말갈을 통해 요서 지역의 거란을 견제·통제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1996, 앞의 책, 204~206쪽).

48 노태돈, 1999, 앞의 책, 425쪽.

49 丁載勳, 2001,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 - 西北民族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 『中國史研究』13, 72~76쪽; 田陽一郎, 2004, 「突闕他鉢可汗と高紹義亡命政權」, 『東洋學報』86-2, 20~25쪽 참조.

50 사료 F-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이하의 기사는 개황 연간 초기 이후의 일로 판단된다.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도 고려된다. 6세기 중반 돌궐은 고구려와 대립하였다.⁵¹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551년 돌궐의 신성(新城) 공격이 양자의 대립관계를 반영한다고 이해된다.⁵² 돌궐은 요서 서부로 진출한 이후 고구려와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사료 B-1이 상기된다. 돌지계 세력을 비롯한 속말말갈의 일부는 반(反)고구려 성향이었다. 그러고 보면 돌지계 세력은 친돌궐 성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⁵³ 돌궐은 친돌궐·반고구려 성향의 말갈이 요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후원 내지 묵인함으로써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였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의 거란 제부는 북제·돌궐의 공격과 압박으로 연이어 동요했다. 그 결과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이 틈에 송화강 유역 친돌궐 성향의 물갈 일파가 이주함으로써 요서말갈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요서말갈의 형성은 돌궐과 밀접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그의 동향은 돌궐의 성쇠와 연동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서 지역에서 돌궐의 세력은 580년대 중반부터 퇴조했다. 583년 수-돌궐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와 더불어 돌궐이 후원하였던 고보령 세력이 몰락했다. 이에 따라 돌궐·고보령 세력을 지지한 친돌궐 성향의 말갈은 고립되었을 것이다. 580년대 중·후반 고구려와 속말말갈의 충돌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였다고 이해된다.⁵⁴

이때 고구려는 자국에 우호적인 말갈 제부를 지원하는 한편, 돌지계 세력처럼 반고구려·친돌궐 성향의 말갈 제부를 공략하였다고 이해된다. 그 결과 돌지계 세력을 위시한 속말말갈의 일부는 수에 내부했고, 요서 동북부에서 유성 방

51 李龍範, 1959, 앞의 논문 및 노태돈, 1999, 앞의 책, 401~403쪽 참조.

52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7년(551) 秋九月, “突厥來圍新城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 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

53 盧泰敦,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11~12쪽.

54 李龍範, 1959, 앞의 논문, 69~70쪽; 日野開三郎, 1991, 앞의 책, 293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425~429쪽; 임기환, 2006, 앞의 논문, 61쪽.

면의 요서 서남부로 이주하였고 보인다.⁵⁵

이로부터 돌지계 세력을 위시한 속말말갈의 일부는 아래의 사료 F와 같이 “매양 고구려의 영역 안을 노략질”하면서 수의 침병과 같이 활동하였다고 보인다.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친돌궐 성향의 말갈 중 일부가 친수 성향의 말갈로 변모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친돌궐 성향이 말갈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E. 그 나라는 모두 십수 개의 부였는데, 각기 추수가 있었다. 혹은 고[구]려에 부속(附屬)되었고, 혹은 돌궐에 신속되었다. (중략) 그 백산부는 본래 고[구]려에 부속되었는데, 평양을 거둔 이후 부중(部衆)의 다수가 중국(中國)으로 들어갔다. 골돌·안거골·호실 등의 부 또한 고[구]려가 격파된 이후 분산되어 미약해졌고, 이후 소식이 없었다. 설령 남은 사람이 있어도 모두 발해(渤海)의 편호(編戶)가 되었다.⁵⁶ (『구당서』 권199하, 열전149下 北狄 靺鞨)

위 사료는 7세기 전·중반 말갈 제부의 동향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보면 말갈 제부 중 일부는 돌궐에 신속되었다고 하였다. 6세기 후반 친돌궐 성향의 말갈 중 일부가 친수 성향으로 변모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친돌궐 성향이 말갈

55 사료 B-1에서는 柳城에 안치하였다고 했는데, 사료 B-2와 같이 營州의 치소가 아닌 境界인 遼西郡 지역에 안치했다고 한 서술이 더욱 정확하다고 판단된다(日野開三郎, 1991, 앞의 책, 347쪽; 이성제, 2003, 앞의 논문, 185쪽). 그러하다고 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거주지는 사료 B-2에 보이는 汝羅故城으로 파악된다(『신당서』 권39, 지29 지리3 河北道 幽州 范陽郡, “隋於營州之境汝羅故城 置遼西郡以處粟末靺鞨降人.” 참조). 일반적으로 여라고성은 현재의 遼寧省 錦州市 義縣 동쪽 王民屯 일대로 지정된다(松井等, 1913, 『隋唐二朝の高句麗遠征の地理』,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滿洲歷史地理』 上, 丸善株式會社, 381~382쪽; 王錦厚, 1986, 『唐“營州至安東”陸路交通地理考實』, 『遼海文物學刊』 1986-1, 76~78쪽).

56 “其國凡爲數十部 各有酋帥 或附於高麗 或臣於突厥 (中略) 其白山部 素附於高麗 因收平壤之後 部衆多入中國 汨咄·安居骨·號室等部 亦因高麗破後奔散微弱 後無聞焉 縱有遺人 並爲渤海編戶.”

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⁷ 위 사료에서 친돌궐 성향의 말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였는지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6세기 중반 이후 돌궐의 주된 세력범위가 요서 서북부였다고 보면, 그 주변의 요서말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위 사료에서는 말갈 제부 중 또 다른 일부는 고구려에 부속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백산부가 그러하다고 하였다. 골돌부·안거골부·호실부의 경우 고구려가 당에 격파된 이후 분산되어 미약해졌다고 했다. 고구려와 성쇠를 같이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골돌부·안거골부·호실부 역시 고구려와 밀접했다고 보인다. 친고구려 성향으로 고구려에 부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⁸ 요서말갈은 어떠하였을까. 이제 요서말갈과 고구려의 관계가 궁금하다.

IV. 속말부(粟末部)·백산부(白山部)와 고구려

6세기 후반 말갈 제부의 동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F-1. ①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다. 읍락(邑落)마다 모두 추장이 있고, 서로 합일되어 있지 않다. 모두 7종이 있다. 첫째 속말부라고 부른다. 고[구]려와 상접해 있다. 승병은 수천으로 용감한 무인이 많다. 매양 고[구]려의 [영역] 안을 노략질하였다. 둘째 백돌부(伯咄部)라고 한다. 속말[부]의 북쪽에 있다. 승병은 7천이다. 셋째 안거골부(安車骨部)라고 한다. 백돌[부]의 동북쪽에 있다. 넷째 불열부

57 馬一虹, 2003, 앞의 논문.

58 小川裕人, 1937, 「靺鞨史研究に於ける諸問題」, 『東洋史研究』 2-5, 77쪽(김현숙, 2018,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朴京哲,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 『韓國史學報』 15, 292쪽;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474쪽; 김영천, 2008, 「靺鞨의 成長과 高句麗의 靺鞨 服屬」, 『高句麗渤海研究』 32, 30~31쪽.

(拂涅部)라고 한다. 백돌[부]의 동쪽에 있다. 다섯째 호실부(號室部)라고 한다. 불열[부]의 동쪽에 있다. 여섯째 흑수부(黑水部)[라고 한다.] 안거골[부]의 서북쪽에 있다. 일곱째 백산부라고 한다. 속말[부]의 동남쪽에 있다. [안거골부부터 백산부까지] 승병은 모두 3천에 불과한데, 오직 흑수부만 가장 경건(勁健)하다. 불열[부]의 동쪽에서부터 화살은 모두 석죽(石楇)으로 곧 고숙신씨(古肅愼氏)의 것이다. 주거지는 산수(山水)에 의지한 것이 많았다. 거수(渠帥)는 대막불만돌(大莫弗瞞咄)이라고 하는데, 동이(東夷) 중의 강국(強國)이다. (중략) ㉠ 개황 연간 초기에 연이어 사신을 보내 공헌(貢獻)하였다. 고조가 조서를 내려 그 사신에게 말하였다. “짐이 듣건대 그 땅의 사람은 대부분 용맹하고 민첩하다고 하던데, 지금 와서 상견하니, 실로 짐의 마음에 부합한다. 짐은 너희를 아들과 같이 보겠으니, 너희는 마땅히 짐을 아버지와 같이 공경하라.” [말갈 사신이] 대답하였다. “신 등은 한 구석에 외진 데 살면서 도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국에 성인(聖人)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와서 조배(朝拜)합니다. 이미 위로와 상사(賞賜)를 받고 직접 성안(聖顏)을 뵈었으니, 저희의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오래도록 노복(奴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그 나라[말갈]는 서북으로 거란과 상접하여 자주 서로 위협하고 약탈하였다. 후에 이를 이유로 그 나라의 사신이 오자 고조(문제)가 그를 훈계하여 말하였다. “내가 거란을 어여뵈 여기는 것은 너와 더불어 다를 것이 없다. 마땅히 각자 토경(土境)을 지킨다면 어찌 안락(安樂)하지 않겠는가? 어찌 빈번이 서로 공격해 심히 나의 뜻에 어긋나는가!” [말갈의] 사신이 사죄하였다. 고조가 이에 그를 두터이 위로하고 어전에서 연음(宴飲)하도록 하였다. [말갈의] 사자가 그 무리와 함께 모두 일어나 춤추었는데, 그 곡절(曲折)에 전투의 모양이 많았다. 황제가 시신(侍臣)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천지 간에 이러한 존재가 있어서 항상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그리도 심할까!” 그러나 그 나라와 수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만 속말부와 백산부만 가까이 있었다.⁵⁹ (『수서』 권81, 열

59 “靺鞨 在高麗之北 邑落俱有酋長 不相總一 凡有七種 其一 號粟末部 與高麗相接 勝兵數千 多驍武 每寇高麗中 其二曰 伯咄部 在粟末之北 勝兵七千 其三曰 安車骨部 在伯咄東北 其四曰 拂涅部 在伯咄東 其五曰 號室部 在拂涅東 其六

전46 동이 말갈)

F-2. 흑수말갈은 숙신(肅愼)의 땅에 거처하였는데, 또는 읍루(挾婁)라고 하였고, 북위 때에는 물길이라고 하였다. 경사(京師)에서 동북쪽 6천 리에 있는데, 동쪽으로 바다에 접하고, 서쪽으로 돌궐과 접하며, 남쪽으로 고[구]려와 [접하고], 북쪽으로 실위(室韋)와 [접한다]. 흠어져 수십 부가 되었는데, 추수가 각기 스스로 다 스린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속말부라고 하는데, 가장 남쪽에 거처하며 태백산(太白山)까지 이른다. [태백산은] 또한 도태산(徒太山)이라고 한다. [속말부는] 고[구]려와 더불어 접하며 속말수에 의거하여 거처한다. [속말]수는 [태백]산의 서쪽에서 발원해서 북쪽 타루하(它漏河)로 들어간다. 약간 동북쪽의 [부를] 골돌부(汨咄部)라고 한다. 또 다음 [동북쪽]은 안거골부(安居骨部)라고 한다. 더 동쪽의 [부를] 불열부라고 한다. [안]거골[부]의 서북쪽[의 부를] 흑수부라고 한다. 속말[부] 동쪽의 [부를] 백산부라고 한다. 부 간에 먼 데는 3~4백 리이고 가까운 데는 2백 리이다.⁶⁰ (『신당서』 권219, 열전144 북적 흑수말갈)

위 사료는 6세기 후반~7세기 중반 말갈 제부의 사정을 전해 준다. 사료 F-1은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것으로, 사료 F-2는 7세기 전·중반의 것으

曰 黑水部 在安車骨西北 其七曰 白山部 在粟末東南 勝兵並不過三千 而黑水部尤爲勁健 自拂涅以東 矢皆石鏃 卽古之肅愼氏也 所居多依山水 渠帥曰 大莫弗瞞咄 夷夷中爲強國 (中略) 開皇初 相率遣使貢獻 高祖詔其使曰 朕聞彼土人庶多能勇捷 今來相見 實副朕懷 朕視爾等如子 爾等宜敬朕如父 對曰 臣等僻處一方 道路悠遠 聞內國有聖人 故來朝拜 旣蒙勞賜 親奉聖顏 下情不勝歡喜 願得長爲奴僕也 其國西北與契丹相接 每相劫掠 後因其使來 高祖誡之曰 我憐念契丹與爾無異 宜各守土境 豈不安樂 何爲輒相攻擊 甚乖我意 使者謝罪 高祖因厚勞之 令宴飲於前 使者與其徒皆起舞 其曲折多戰鬥之容 上顧謂侍臣曰 天地間乃有此物 常作用兵意 何其甚也 然其國與隋懸隔 唯粟末·白山爲近.”

- 60 “黑水靺鞨居肅愼地 亦曰挾婁 元魏時曰勿吉 直京師東北六千里 東瀕海 西屬突厥 南高麗 北室韋 離爲數十部 皆各自治 其著者曰粟末部 居最南 抵太白山 亦曰徒太山 與高麗接 依粟末水以居 水源於山西 北注它漏河 稍東北曰汨咄部 又次曰安居骨部 益東曰拂涅部 居骨之西北曰黑水部 粟末之東曰白山部 部間遠者三四百里 近二百里.”

로 이해된다.⁶¹

우선 사료 F-1-㉠이 주목된다. 이른바 말갈 7부와 그 거주지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일찍부터 이 사료를 통해 말갈 제부의 거주지를 가늠하였다. 특히 F-1-㉠의 속말부가 제부의 거주지 파악에 기준이 되었다.⁶² 속말부의 속말은 지금의 송화강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속말부의 주된 거주지는 송화강 유역, 그중에서 북류 송화강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이다.⁶³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6세기 중·후반 돌지계 세력 등 적지 않은 수의 속말말갈은 요서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러므로 속말말갈의 거주지를 북류 송화강에 한정해 볼 필요가 없다는 데에도 다수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⁶⁴ 사료 F-2가 주의된다. 속말부는 속말수에 의지하여 거주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거주지가 태백산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으로 비정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독정자산(大禿頂子山) 등으로 본 소수설이 있는데,⁶⁵ 다수설과 소수설을 모두 감안해도 6세기 후반~7세기 중반 속말부의 거주지는 상당히 광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속말부의 구성이 주의된다.

사료 B-1에서 돌지계 세력은 궤계부 등의 8부로 구성되었고, 돌지계는 궤계부의 거수였다고 하였다. 이에 돌지계가 궤계부의 거수일 뿐이었다고 보기도 한다.⁶⁶ 그러나 이는 사료 B-2에서 돌지계가 속말말갈의 수령이었다고 한 사실

61 『신당서』 흑수말갈전은 8~9세기 말갈 諸部와 당의 교섭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사료 F-2의 경우 고구려를 기준으로 제부의 거주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7세기 전·중반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2 諸說은 김현숙, 2005, 앞의 책, 448~449쪽 표 1-1·2; 김락기, 2013, 앞의 책, 153쪽의 표 12 참조.

63 日野開三郎, 1991, 앞의 책; 노태돈, 1999, 앞의 책, 417쪽; 김현숙, 2005, 앞의 책, 451쪽.

64 노태돈, 1999, 앞의 책, 416~417쪽; 송기호, 2011, 앞의 책, 88~97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169~175쪽 참조.

65 김락기, 2013, 앞의 책, 68~70쪽; 박노석, 2013, 「6세기 말 7세기 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 『수서』 「말갈전」을 중심으로 - 」, 『만주연구』 15, 109쪽.

66 河上洋, 1983, 「渤海の地方統治體制 - 一つの試論として」, 『東洋史研究』 42 -

을 간과한 견해였다. 두 사료를 종합해 보건대 돌지계는 궤계부의 거수로서 속말말갈 8부를 대표하였다고 생각된다. 사료 B-6에 기술된 것처럼 본래 형이 만돌(대막불만돌) 즉 거수였는데, 그의 사후 돌지계가 궤계부를 비롯한 8부의 대표 지위를 계승하였다고 이해된다. 돌지계 세력은 궤계부를 중심으로 한 속말말갈 소부(小部)의 연맹이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속말말갈이 돌지계 세력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⁶⁷ 오소고부(烏素固部) 등 돌지계 세력과 구분되는 속말말갈의 부명(部名)도 찾아진다.⁶⁸ 사료 F-1-①을 보면 속말부는 고구려와 대립했다고 하지만,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세력처럼 고구려에 부속되었던 속말말갈도 있었다.⁶⁹ 이와 관련하여 583년 4월 돌궐에 대한 공격을 명한 수 문제(文帝, 재위: 581~604)의 조서가 참고된다.⁷⁰ 이 조서를 보면 고구려와 말갈이 돌궐의 리계찰(利稽察)을 대파하였다고 하였다. 고구려·말갈과 돌궐의 전투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돌궐의 세력은 요서 서북부를 중심으로 동방에 침투하였다. 이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돌궐이 신성(新城)을 공격하였다고 하였듯 고구려 서북 변경에서 충돌하였다고 이해된다. 고구려·말갈과 이계찰의 전투 역시 고구려 서북 변경에서 전개되었다고 짐작된다. 그 파장은 요서 동북부에 미쳤을 것이다. 이 점에서 고구려와 함께 돌궐과 싸운 말갈은 요서 동북부의 속말말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서에서는 그 시점을 막연히 왕년(往年)이라고 하였는데, 조서의

2; 임상선 편역, 1991,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98쪽.

67 이에 관해서는 송기호, 2011, 앞의 책, 88~97쪽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68 김락기, 2013, 앞의 책, 137~140쪽 참조.

69 『신당서』 권219, 열전144 北狄 渤海,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70 『수서』 권84, 열전49 북적 돌궐, “天子震怒下詔曰(中略)且彼渠帥 其數凡五 昆季爭長 父叔相猜 外示彌縫 內乖心腹 世行暴虐 家法殘忍 東夷諸國 盡挾私讐 西戎羣長 皆有宿怨 突厥之北 契丹之徒 切齒磨牙 常伺其便 達頭前攻酒泉 其後于闐·波斯·挹怛三國一時即叛 沙鉢略近趣周槃 其部內薄孤束紇羅尋亦翻動 往年利稽察大爲高麗·靺鞨所破 娑毗設又爲紇支可汗所殺 與其爲鄰 皆願誅剿(中略)彼地咎徵祚作 年將一紀(中略).”

전후를 살펴보면 대략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으로 분석된다.⁷¹ 6세기 중·후반 요서 동북부 속말말갈의 제부 중 일부는 친고구려·반돌궐 성향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속말말갈 제부 중에는 돌지계 세력처럼 반고구려·친돌궐 성향이 있었는가 하면, 친고구려·반돌궐 성향도 있었다. 이로 보아 몇몇 소부가 연합하기도 하였지만 제부의 입장과 처지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마저 유동적이었다고 이해된다.⁷² 그러나 『수서』 말갈전과 『신당서』 흑수말갈전이 이와 같은 차이를 세심히 고려하여 서술되었다고 보이진 않는다.⁷³ 가령 사료 F-2 즉 『신당서』 흑수말갈전에서는 수십 개의 부가 있었다고 했지만, 거주지를 설명한 부는 6개에 불과하였다. 『신당서』 흑수말갈전의 6부는 7세기 전·중반의 시점에서 속말부처럼 활동이 두드러진[저자(著者)] 부로서, 특정 소부의 연합을 지칭한다고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이해하고 보면 『수서』 말갈전의 속말부와 『신당서』 흑수말갈전의 속말부, 그리고 여타 문헌사료상의 속말말갈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각 사료에서 지칭한 특정 소부 연합이 달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료 F-1-㉠ 중 “매양 고구려의 영역 안을 노략질하였다.”는 기술이 돌지계 세력의 전언이었다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⁷⁴ 돌지계 세력의 입장이 반영된 기술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속말부만 아니라 여타의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예컨대 사료 F-1-㉠에서 수 문제의 발언 가운데 말갈이 “용맹하고 민첩”하다고 들었다는 대목은 사료 F-1-㉠에 기술된 말갈 7부 중 속말부에 관한 서술

71 이정빈, 2014,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情勢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44, 304~307쪽; 전상우, 2017, 「突厥·高寶寧의 흥기와高句麗의 대응」, 『사학지』 55, 7~8쪽.

72 日野開三郎, 1991, 앞의 책, 182~192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423~426쪽.

73 盧泰敦, 1981, 앞의 논문, 12~13쪽; 1999, 앞의 책, 418쪽.

74 노태돈, 1999, 앞의 책, 418쪽.

과 부합한다.⁷⁵ 당시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도, 사료 F-1-㉔ 즉 개항 연간 초기부터 사신을 보낸 말갈은 반고구려 성향의 돌지계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말갈이 사료 F-1-㉔에서 “서북으로 거란과 상접 사실” 역시 요서 지역 서남부에 위치한 돌지계 세력의 사정을 말해준다고 해석된다.⁷⁶

이와 같은 생각에서 사료 F-1-㉔에서 속말부의 승병이 수천 명이었다고 한 사실이 주의된다. 사료 B-1에서 살펴본 것처럼 돌지계 세력의 승병 역시 수천 명이었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수서』 말갈전 중 속말부는 돌지계 세력을 가리키지 않을까 한다.⁷⁷ 사료 F-1-㉔에서 “그 나라와 수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만 속말부와 백산부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를 보아도 『수서』 말갈전의 속말부는 요서 서남부의 돌지계 세력으로, 그의 속말말갈 소부 연합을 가리킨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하다고 보면 이제 백산부로 관심이 모아진다.

이제까지 백산부는 백산이란 지명을 통해 그 거주지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수서』 말갈전의 속말부가 돌지계 세력을 가리키며, 속말말갈이란 이전의 거주지에서 비롯된 명칭이었다고 하면, 백산부 역시 백산이란 지명에 한정해 거주지를 찾아야 할 당위성은 없다. 비록 백산에서 연원하였다고 하지만, 『수서』 말갈전의 속말부가 요서 서남부에 위치하였다고 보면, 『수서』 말갈전의 백산부는 그 동남쪽인 요서 동남부로 비정할 수 있다. 요서말갈의 하나로 백산부가 상정된다. 다시 말해 『수서』 말갈전의 백산부는 요서말갈의 하나였다고 이해된다.

이상과 같이 6세기 후반~7세기 중반 속말부의 거주지는 상당히 광역이었고, 제소부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제소부는 친돌궐·친수·친고구려 등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였다. 『수서』 말갈전의 속말부는 그중에서 돌지계 세력을 지

75 盧泰敦, 1981, 앞의 논문, 12쪽.

76 島山喜一, 1968,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6쪽(李純根, 1996, 앞의 논문, 8쪽 주31 재인용); 李純根, 1996, 앞의 논문, 8쪽.

77 盧泰敦, 1981, 앞의 논문, 11쪽.

칭한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수서』 말갈전의 백산부는 속말부의 동남쪽에 위치했다고 하므로, 요서말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사료 E에서 백산부는 고구려에 부속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서말갈 중에는 속말말갈의 일부와 백산부가 친고구려 성향으로, 고구려에 부속되었다고 이해된다. 고구려와 요서말갈, 고구려와 속말부·백산부의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사료 B의 돌지계 세력이 상기된다. 사료 B-1에서 돌지계는 수에 내부했다고 하였는데, 사료 B-2~6을 보면 내부와 함께 귀화·내항·내속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사료 E에서는 부속[附]·신속[臣]이 상통하는 표현으로 판단된다.⁷⁸ 대체로 정치적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요서말갈이 고구려에 부속되었다고 하였을 때 그 관계는, 요서말갈과 돌궐·수의 관계와 유사하였다고 짐작된다. 다만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수는 580년대 후반 이후 영주총관부를 설치해 이를 통해 요서말갈 제부를 통제하였다. 돌궐은 6세기 후반 거란 제부에 토둔을 파견했다고 하였다. 8세기 전반 흑수말갈은 돌궐에 토둔을 요청했다고 하였다.⁷⁹ 이로 미루어 보아 돌궐은 요서말갈 제부에 토둔과 같은 감찰관 내지 징세관을 파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⁸⁰ 고구려는 어떠하였을까. 「이타인묘지(李他仁墓誌)」가 참고된다.⁸¹

이를 보면 7세기 중반 이타인은 책성도독겸양병마(柵城都督兼摠兵馬)의 관직을 맡아 고구려의 12주와 함께 말갈의 37부를 총괄하였다고 하는데,⁸² 이는

78 『신당서』 권219, 열전144 북적 흑수말갈. “白山本臣高麗.” 참조.

79 『신당서』 권219, 열전144 북적 발해. “武藝召其下謀曰 黑水始假道於我與唐通異時請吐屯於突厥 皆先告我 今請唐官不吾告 是必與唐腹背攻我也.”

80 馬一虹, 2003, 앞의 논문.

81 尹龍九, 2003,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韓國古代史研究』 32, 307~310쪽;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 소재 고구려 금석문』, 고구려연구재단, 288~290쪽; 余昊奎·李明, 2017, 「高句麗 遺民 〈李他仁 墓誌銘〉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5, 373~379쪽.

82 「李他仁墓誌銘」 “于時授公柵城都督兼摠兵馬 管一十二州高麗 統三十七部靺

책성이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州와 같은 일반행정단위와 함께 말갈 제부를 관할했음을 말해준다. 6~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는 제성(諸城)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제성은 규모와 기능에 따라 대성(大城)·성(城)·소성(小城) 등으로 구분되었고, 그마다 각급의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 상하 통속관계에 있었다.⁸³ 책성은 이 중에서 대성에 해당하였다.⁸⁴

「이타인모지」를 통해 보건대 고구려에 부속된 요서말갈 역시 책성과 같은 대성에서 총괄되었다고 추측된다. 물론 요서 지역에는 대성이 부재하였다. 다만 요서 동부에는 요하 서안의 라(遼)를 비롯해 각종 군사기지가 점점이 설치되었다고 이해된다.⁸⁵ 요하 양안의 교통로를 중심으로 설치된 진(鎭)·봉(烽)·수(戍) 등이 주목되는데,⁸⁶ 이는 소성 또는 그 예하의 성이었다고 파악된다.⁸⁷ 진·봉·수·라 등의 군사기지는 요서 동부에서부터 동서 교통로를 따라 요동 지역 대성과 이어져 있었고, 대성과 상하 통속관계를 맺으며 그 통제를 받았다고 짐작된

鞬.” 이 기사의 시점에 관해서는 김종복, 2005, 「高句麗 멸망 전후의 鞬鞞 동향」, 『북방사논총』 5, 177~178쪽; 余昊奎·李明, 2017, 앞의 논문, 401~408쪽 참조.

83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동이 고려. “外置州縣六十餘城 大城置倭薩一 比都督 諸城置道使 比刺史 其下各有僚佐 分掌曹事.”;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其州縣六十 大城置倭薩一 比都督 餘城置處閭近支 亦號道使 比刺史 有參佐 分幹.”; 『한원』 권30, 변이부 고려. “高麗記曰(中略) 又其諸大城置倭薩 比都督 諸城置處閭區刺史 亦謂之道使 道使治所 名之曰備 諸小城置可邏達 比長史 又城置婁肖 比縣令.”

84 예컨대 「高故墓誌銘」 “祖量 本蕃任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510~511쪽)이라고 한 것처럼 柵城은 都督이 관할하였는데, 도독은 大城의 倭薩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 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38, 92~94쪽 참조.

85 李龍範, 1959, 앞의 논문, 72쪽.

86 李成制, 2017, 「高句麗와 遼西橫斷路 - 遼河 沿邊 交通路와 관리기구 -」, 『韓國史研究』 178, 49~54쪽.

87 특히 小城의 可邏達과 城의 婁肖의 성격 및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세한 사료 검토와 여러 논의에 대해서는 김현숙, 2005, 앞의 책, 348~352쪽 참조.

다. 요동성과 같은 요동의 대성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친고구려 성향의 요서말갈의 제부는 요서 동부의 군사기지를 매개로 고구려와 정치적 주종관계를 맺었다고 이해된다. 물론 요서말갈과 고구려의 관계가 책성 일대 말갈과 고구려의 관계와 동일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일찍이 지적된 것처럼 말갈과 고구려의 관계는 시기별로 또 제부마다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⁸⁸ 다만 제성을 매개한 정치적 주종관계가 말갈-고구려 관계의 기본적인 방식이었고, 이러한 방식이 요서말갈과 고구려의 관계에도 원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V. 맺음말

이상을 통해 6세기 중·후반 요서말갈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와 돌궐·고구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말갈은 6세기 중반부터 문헌사료에 등장하였는데, 그 본격적인 활동은 요서 지역에서 나타났다. 고보령의 병력으로 활동한 말갈병, 돌지계 세력과 같은 속말말갈이 대표적이다. 6세기 중반까지 요서 지역의 주인공은 거란이었다. 이와 비교해 말갈은 물길의 일파로 본래 요하 이동 속말수 즉 송화강 유역에 거주했다. 이로 보아 요서말갈은 6세기 중반 이후 물길이 이주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물길에서 말갈로 대표적인 종족 명칭이 변화한 데도 그들의 이주가 고려된다.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의 거란 제부는 북제·돌궐의 공격과 압박으로 연이어 동요했다. 그 결과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요서말갈의 형성 배경으로 주목된다. 공백을 틈타 송화강 유역 물길의 일파가 이주함으로써 요서말갈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의 거란은 돌궐

88 盧泰敦, 1981, 앞의 논문, 13~16쪽; 韓圭哲, 1988, 앞의 논문, 44쪽; 朴京哲, 2003, 앞의 논문, 303~305쪽.

이 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요서말갈의 형성 역시 돌궐가 밀접했다고 이해된다. 친돌궐 성향의 속말말갈이 요서말갈 형성의 한 축을 구성했다고 판단된다. 돌궐은 요서말갈을 통해 거란을 통제·견제하고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6세기 후반~7세기 중반 속말부의 거주지는 상당히 광역이었고, 제소부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친돌궐·친고구려 등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였다. 『수서』말갈전의 7부는 그중의 대표적인 소부 연맹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속말부의 경우 돌지계 세력의 소부 연맹 지칭한다고 파악된다. 『수서』말갈전에서 백산부는 속말부의 동남쪽에 위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백산부는 요서 동남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서말갈의 하나였던 것이다.

백산부는 고구려에 부속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서말갈 중 속말말갈의 일부와 아울러 백산부가 친고구려 성향으로, 고구려에 부속된 요서말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서말갈의 제소부는 제각기 친돌궐·친수·친고구려 성향을 보였다. 돌궐·수·고구려와 정치적 주종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요서말갈과 고구려는 요서 동부의 군사기지를 매개로 정치적 주종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 소재 고구려 금석문』, 고구려연구재단.
- 김락기, 2013,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景仁文化社.
- 金鎮漢, 2010, 「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역사학회 편, 2006,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 李在成, 1996,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 임상선 편역, 1991,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 정병준 외, 2008,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천, 2008, 『靺鞨의 成長과 高句麗의 靺鞨 服屬』, 『高句麗渤海研究』 32.
- 김종복, 2005, 「高句麗 멸망 전후의 靺鞨 동향」, 『북방사논총』 5.
- 김현숙, 2018, 「고구려에서의 말갈」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61.
- 盧泰敦,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 朴京哲,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 『韓國史學報』 15.
- 박노석, 2013, 「6세기 말 7세기 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수서』 「말갈전」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5.
- 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변화」, 『중앙사론』 47.
- 余昊奎·李明, 2017, 「高句麗 遺民 〈李他仁 墓誌銘〉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5.
- 尹龍九, 2003,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韓國古代史研究』 32.
- 李康來, 1998, 「7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통일기 신라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4.
- 이성제, 2003, 「“말갈문제”를 통해 본 6세기말 요서 정세의 변화」, 『학예지』 10, 육군사

관학교 육군박물관.

_____, 2017, 「高句麗와 遼西橫斷路－遼河 沿邊 交通路와 관리기구－」, 『韓國史研究』 178.

李純根, 1996, 「靺鞨의 種族 正體性에 대한 一研究」, 『論文集』 2,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이정빈, 2014,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情勢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44.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전상우, 2017, 「突厥·高寶寧의 흥기와 高句麗의 대응」, 『사학지』 55.

丁載勳, 2001, 「隋 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西北民族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13.

韓主哲, 1988, 「高句麗時代의 靺鞨研究」, 『釜山史學』 14 · 15.

王綿厚·李健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瞿安全, 2002, 「『三國典略』略孝」, 『文憲』 3, 國家圖書館.

都興智, 2001, 「略論東北古代族名與山水名的關係」, 『社會科學戰線』 1.

馬一虹, 2003, 「靺鞨與東突厥關係考術」, 『史林』 6, 上海社會科學院.

范恩實, 2003, 「靺鞨與高句麗關係史研究」, 『鞍山師範學院學報』 1.

_____, 2011 「論隋唐營州的靺鞨人」, 『中國邊疆史地研究』 21-1.

王錦厚, 1986, 「唐“營州至安東”陸路交通地理考實」, 『遼海文物學刊』 1986-1.

趙智濱, 2018, 「百濟北伐高句麗與北齊文宣帝營州之行」, 『地域文化研究』 2.

日野開三郎, 1991, 『東洋史學論集 15－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局.

和田清, 1955, 『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松井等, 1913, 「隋唐二朝の高句麗遠征の地理」,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滿洲歷史地理』 上, 丸善株式會社.

田陽一郎, 2004, 「突闕他鉢可汗と高紹義亡命政權」, 『東洋學報』 86-2.

池内宏, 1937,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5,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東京帝國大學 文科大学.

6세기 중·후반 요서말갈(遼西靺鞨)과 돌궐·고구려

이정빈

본고는 6세기 중·후반 요서말갈 형성기 제부의 동향을 돌궐·고구려와 관련하여 생각해 본 것이다. 우선 6세기 중·후반 요서말갈의 존재를 확인했다. 말갈은 6세기 중반부터 문헌사료에 등장하였는데, 그 본격적인 활동은 요서 지역에서 나타났다. 고보령(高寶寧)의 말갈병, 돌지계 세력의 속말말갈이 대표적이다. 6세기 중반까지 요서 지역의 주인공은 거란이었다. 이와 비교해 말갈은 물길의 일파로 본래 요하 동쪽 송화강 유역에 거주했다. 이에 요서말갈은 6세기 중반 이후 물길이 이주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다.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의 거란 제부는 복제·돌궐의 공격과 압박으로 연이어 동요했다. 그 결과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요서말갈 형성의 배경이었다. 6세기 중반 요서 지역의 거란은 돌궐이 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요서말갈의 형성 역시 돌궐과 밀접했다고 판단했다. 친돌궐 성향의 속말말갈이 요서말갈 형성의 한 축을 구성했다고 본 것이다. 돌궐은 요서말갈을 통해 거란을 통제·견제하고, 나아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6세기 후반~7세기 중반 속말부의 거주지는 상당히 광역이었고, 제소부(諸小部)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제소부는 친돌궐·친고구려 등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였다. 『수서(隋書)』 말갈전의 7부는 그 중의 대표적인 소부 연맹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속말부의 경우 돌지계 세력의 소부 연맹 지칭한다고 했다. 『수서』 말갈전에서 백산부는 속말부의 동남쪽에 위치하였다고 했다. 그러므로 백산부는 요서 동남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서』 말갈전의 속말부와 백산부를 요서말갈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요서말갈은 고구려와 요서 동부에 설치된 군사기지를 매개로 정치적 주종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제어: 요서말갈, 속말말갈, 백산말갈, 돌궐, 고보령, 돌지계

ABSTRACT

Yoseo Malgal and Dolgwo, Goguryeo in the Middle and Late 6th Century

Lee Jeongbin

This article considers the trend of entire Bu(部) in relation to Dolgwo and Goguryeo in the formation period of Yoseo malgal in the middle and late 6th century. In this period, first of all, the existence of Yoseo malgal is confirmed in this article. Malgal(靺鞨) has appeared in the literature historical material since the middle 6th century, and its full-scale activity has appeared in the area of Yoseo(遼西). Malgal army of Gaobaoning(高寶寧) and Songmal malgal(粟末靺鞨) of Doljigye(突地稽) force are the representatives. Until the middle 6th century, the protagonist of the Yoseo area was Georan(契丹). On the contrary, Malgal was originally one part of Mulgil(勿吉) and located in the Songhuajiang(松花江) basin, east of Yoha(遼河). Thus, Yoseo malgal was thought to have formed by migrating of Mulgil around the middle 6th century.

In the middle 6th century, Georan of Yoseo area was shaken

continuously by the attack and pressure of Beiqi(北齊) and Dolgwo. As a result, a vacuum was created. This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wa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Yoseo Malgal. In the middle 6th century, Georan of Yoseo area was controlled by Dolgwo.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the formation of Yoseo Malgal was also closely related to Dolgwo. It is assumed that the pro-Dolgwo Songmal malgal constitutes one axis of the formation of Yoseo Malgal. Dolgwo tried to control and check Georan through Yoseo Malgal, and furthermore they tried to keep Koguryeo in check.

In the late 6th and early 7th centuries, the residence of Songmal-bu(栗末部) was large area and divided into small bu(小部), and their political stance differed between pro-Dolgwo and pro-Goguryeo. The 7th part of “Biography of Malgal(靺鞨傳)” of the Shi-shu(隋書)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representative 小部 alliance. In the case of the Songmal-bu, it was called the 小部 alliance of Doljigye forces. In the “Biography of Malgal(靺鞨傳)” of the Shi-shu(隋書), it was said that Baeksan-bu(白山部) was located in the southeast of Songmal-bu. Therefore, it was assumed that Baeksan-bu was located in the southeast of Yoseo. It regarded that Songmal-bu and Baeksan-bu of “Biography of Malgal(靺鞨傳)” as a part of Yoseo malgal. Also, it was understood that Yoseo malgal had established a political master-servant relationship with Goguryeo through military bases installed in the east of Yoseo.

Keywords: Yoseo malgal, Songmal malgal, Baeksa malgal, Dolgwo, Gaobaoning, Doljigye

고고자료로 본 백산말갈과 고구려의 책성

강인욱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III. 연변-백산말갈 지역의 고고자료에 대한 일고찰
- IV. 고구려 연변 진출과 말갈세력의 성장과정 추이
- V. 맺음말



I. 머리말

옥저와 읍루로 대표되는 한국 동북한과 연해주 남부지역의 초기 철기시대~중세시기의 고고학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편년적으로 많은 공백이 있다. 즉, 단결 - 크로우노프카문화가 기원 전후에 소멸되고 이후 올라(또는 폴체문화)가 2세기 정도까지 존속한 것이 확인된다.¹ 문제는 말갈문화가 등장하는 5세기까지 적어도 300여 년간의 편년적 공백이 있다. 물론, 이러한 공백을 의식한 학자들은 폴체문화가 그 이후 시기에도 존속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고고학적 문화는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반면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고구려가 책성을 설치하고 연변 일대를 지배하며, 3세기 초반에 관구검의 침입으로 중국의 사서에 동북한 지역의 사정이 알려지는 시점과 맞물린다. 즉, 가장 활발히 사서에 등장하는 시기는 정작 유적 유물의 공백지라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²

책성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의 동해안 복속은 사서에 잘 기록되어 있으며 최근 고고학과 고대사학계에서 이 지역에 주목한 연구 또한 적지 않다. 연변의 고구려 경영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축적되었다.³ 특히 최근 중국 서안에서 발견된 고구려유민 이타인(李他仁)이 책성 출신임이 밝혀져서 관련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⁴ 이러한 고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변과 연해

* 투고: 2018년 5월 11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3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1 강인옥 외,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 강인옥,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3집, 9~41쪽.

3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479쪽; 양시은, 2012,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38집, 101~134쪽;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東北亞歷史論叢』 38집, 동북아역사재단.

4 안정준,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 『목간과문자』,

주 일대에서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유적이나 유물이 거의 없다는 점은 해결되지 못한 의문이었다. 연변지역의 경우 최근 훈춘[琿春] 팔련성(八連成)을 중심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발해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이다. 또한 꾸준히 발굴이 이루어지는 연해주 지역에서도 뚜렷한 고구려의 흔적은 거의 없으며, 5세기 이후 말갈의 존재만 확인될 뿐이다. 고구려 성립 이후 바로 고구려의 책성이 설치되었으며, 한편으로 백산말갈이라는 실체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고고학과 문헌사의 모순은 연변과 연해주 일대의 고대사상을 밝히는 데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기존에 문헌사를 중심을 제시되어온 연변~연해주 일대의 고구려 인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고구려의 동해안 진출과 백산말갈을 중국과 연해주의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II.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 사서에 보이는 책성과 백산말갈

1)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5,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46년(98)]

3월에 왕이 동으로 책성에 순수할때, 책성의 서쪽 계산에 이르러 백록을 잡고 책성에 이르러서는 여러 신화와 연회하고, 책성을 지키는 관리에게 차등을 두어 물품을 주었다. 드디어 산석에 공을 새기고 돌아왔다. 10월에 왕이 책성에서 도작하였다.

11집, 195~195쪽; 余昊奎 & 李明, 2017, 「高句麗 遺民 <李他仁墓誌銘>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5집, 365~413쪽; 이민수, 2017, 「고구려 유민 李他仁의 족원과 책성 욕살 수여 배경에 대한 고찰」, 『대구사학』 128집, 143~178쪽.

(春三月, 王東巡柵城至柵城西麓山獲白鹿及至柵城與羣臣宴飲賜柵城守吏物段有差遂紀功於岩乃還冬十月王至自柵城)

2)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5,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50년(102)]

가을 9월에 사신을 보내 책성을 안무했다.
(秋八月遣使安撫柵城)

3)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6,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4 [산상왕 21년(217)]

8월에 한의 평주 사람 하요가 백성 천 여 호를 이끌고 의탁해오니, 왕이 받아들여 책성에 안치하였다
(秋八月漢平州人夏瑤以百姓一千餘家來投王納之安置柵城)

4) 『신당서(新唐書)』 권219, 「발해전(渤海傳)」

(발해는) 예맥의 옛땅을 동경으로 삼고 용원보 또는 책성부로 불렀다.
(濊貊故地爲東京曰龍原府赤曰柵城府)

이상은 고구려의 책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사 4개이다. 물론, 책성에 관한 모든 기사를 전부 두만강 유역의 책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두만강 유역에 고구려가 설치한 책성이 적어도 문헌상 1세기경에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는 문헌사학계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98년조의 기사를 보면 태조왕이 책성을 순수하여 기석을 하는 등 자신의 영토로 확고히 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217년에는 중국의 한나라 사람이 망명을 하자 그를 책주에 보내기도 했다. 고구려의 책주의 중요성은 후기에도 이어져서, 최근 주목받는 이타인 묘지명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 특히 이타인은 고

구려로부터 사성이씨(賜姓李氏)된 고구려인으로 642년 발발한 연개소문의 정변에 공적을 세워서 책성의 옥살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목된다.⁵ 이렇듯 책성이 1세기 이후 고구려의 멸망까지 약 600여 년간 고구려의 주요한 지방 행정구역이었음은 대부분의 문헌사학자들이 동의하고, 그 상황은 명문자료로도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고구려에 복속된 대표적인 말갈세력으로는 속말말갈과 백산말갈이 있다. 그중 속말말갈의 경우 김락기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락기는 속말말갈을 대체로 영길(永吉) 대해맹(大海猛),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 상층, 영길 사리파(查理巴) 등을 대표로 하는 유적으로 보았다. 이들 말갈 유적의 주요 연대는 영길 대해맹 유적의 탄소연대인 1535 ± 85 을 참고할 때에 6~7세기경으로 편년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말갈 유적을 고구려 말기로 비정한다. 그런데 고구려는 길림시 지역 일대에 이미 장수왕 초기인 5세기 전반에 진출했음은 「모두루묘지명(牟頭婁墓誌銘)」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락기(2010)는 이를 고구려 땅 안에서 거주하는 말갈 부락의 존재를 상정했다. 속말말갈의 경우 발해의 기층 집단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흑수말갈은 발해와 고구려에 가장 적대적인 집단으로 발해의 영역 바깥쪽 흑룡강 유역에 주로 거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표방한다. 나아가서 아무르강 유역 일대의 말갈 관련 고고학적 유적의 분석을 통해서 문헌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발해계통의 주민이 우수리강을 따라서 북상해서 거주했다는 연구도 주목된다(홍형우, 2012). 한마디로, 단순한 문헌에 기록된 말갈의 비정에 그치지 않고,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문헌의 공백을 메우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한편, 고구려의 책성 치소로 꼽히는 연변 및 연해주 일대는 백산말갈의 거주지로 꼽힌다. 그런데 연변지역의 말갈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연구가 있을 뿐 그들의 고고학적 실체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 말갈에 대한 지리적 비정을 한

5 이민수, 2017, 「고구려 유민 李他仁의 족원과 책성 옥살 수여 배경에 대한 고찰」, 『대구사학』 128집, 143~178쪽.

20여 명의 관련 연구자들은 연변 일대를 중심으로 연변일대와 돈화, 백두산 일대로 본다. 한편 김락기는 경박호에서 영안을 잇는 지역을 백산부의 중심으로 본다. 다만(김락기, 2010), 김락기는 말갈 비정에 연해주, 흑룡강 하류, 사할린 등 동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고구려의 관점에서 말갈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역을 중심으로 백산말갈을 비정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청동기시대 이후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은 같은 문화 계통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백산말갈의 동쪽으로 비정되는 어떠한 말갈세력도 없음을 감안하며 연해주 남부 일대까지를 고고학적으로 백산말갈의 맥락에서 이해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

2. 연변지역 고구려 계통 유적의 부재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하면 문헌사와 고고학적 자료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헌사에서는 책성이 주요한 고구려의 행정구역으로 간주되지만, 정작 고고학적으로는 연변의 유적 수 및 고구려-말갈시기의 유적이 지나치게 급감한다. 기존에 많은 연변 지역의 산성 및 성지를 책성 또는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지배한 증거로 간주한 바 있다. 하지만 고구려 유적이라는 것이 실제 유물의 발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표조사로 확인된 산성의 외형적인 특성을 근거로 고구려 시기로 편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유물로 흔히 고구려계 와당을 들지만, 와당의 형식적인 특징만으로 고구려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기존에 고구려계로 간주되는 것도 사실상 고구려 말~발해 초기의 시기에 걸치는 것이어서 600년 책성-백산말갈의 역사를 전혀 대변할 수 없다. 최근까지 알려진 연변지역 655개의 유적에 대한 시기별 분류를 보면 이러한 고구려계통 유물의 공백현상은 두드러진다(표 1). 1세기경부터 고구려 멸망까지 지속적으로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연변 일대에서 고구려의 유적이 발해보다 1/10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순히 발굴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물론 대부분의 유적이 정식 발굴로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적수와는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수십 년간 연변에서 대대적인 문물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적의 비율을 살펴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러한 유적의 편중은 역사기록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1세기 고구려가 책성을 설치하고, 이후 육살이 설치되는 등 주요한 지방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계통의 유적이 거의 없다. 1세기에 책성이 설치된 이래 관구검의 침략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거치는 상황에서 고구려의 멸망까지 고구려의 주요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600여 년간의 역사적 사실이 고고학적으로는 거의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실, 문헌사와 고고학의 불일치는 고구려 책성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묘지명에서 책성출신의 고구려인 ‘이타인’이 나올 정도로 이 지역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지방 치소중 하나로 수백 년간 존속해왔다. 남한의 고구려 관련 유적이 연달아 발견되고, 그 토기상은 고구려 수도에서 출토되는 것을 생각해보자. 일부 군대가 진출하는 남한의 고구려 관련 유적에서는 고고학적 문화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책성의 증거가 이렇게 없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문헌사와 고고학의 괴리를 단순한 유적 조사의 차이로만 풀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고구려 책성지역의 문화적 성격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차례로 출발해야 한다. 연변지역 고구려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보겠다.

〈표 1〉 길림성 문물지에 반영된 시기별 유적분포(김석주 김남신 2011의 표 일부 수정)

시기	유적 및 유물의 수량
석기시대	16
청동기	71
북옥저(단결 - 크로우노프카)	96
고구려	36
발해	227
요/금	172
명나라	9
청나라	28

Ⅲ. 연변-백산말갈 지역의 고고자료에 대한 일고찰

1. 한-러 국경 출토 연희 2년명 출토 토기

필자는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 소재의 아르세니예프 주립박물관에서 유물을 정리하던 중 한-러 국경지역에서 2차대전 후에 주둔한 소련군이 수습한 239년명 중국토기가 있음을 확인했다.⁶ 일찍이 한국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된 바가 있으며(김정배, 1993),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토기의 수입경로가 정확하며 외견상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도 후대의 조작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유물은 그동안 공백시기로 알려져왔던 2~4세기의 양상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 유물은 2차대전 후에 북한에 주둔했었던 군인들이 당시 두만강 건너편(정확히는 북한영토) 지역을 트랙터로 파다가 옛 고분을 발굴했고, 그 안에서 발견된 토기였다고 한다. 이 토기는 상당기간 전쟁 막사에서 놓여있었으며, 이 토기를 발견한 소련 군인들은 동체의 상단부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단에도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토기의 하단부는 석고를 칠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후 이 토기는 1963년에 박물관으로 샤프쿠노프에 의해 박물관으로 귀속되었고, 샤프쿠노프는 이 토기가 239년에 만들어진 고구려토기로 당시 중국의 침략(관구검)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간단한 기록을 남겼을 뿐, 더 이상의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의 사후 이 토기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토기는 유백색의 연질로 물레에서 소성했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면서 평평하게 끝을 마무리했음, 구연부분의 물레 성형자국이 잘 남아있는데, 경부는 직립이며 경부와 견부를 따로 접착한 흔적이 있고 접착부분 바로 위에 미세하게 돌대(또는 접착흔)이 붙어있다. 동체 상단에는 명문과 화상전에서 주로 보이는

6 2014년 2월 필자와 양시은(충북대) 교수와 함께 연해주주립박물관의 막심 야쿠프프씨의 도움으로 이 자료를 실견하고 조사할 수 있었다.



그림 1 연희 2년명 토기의 명문

문양들이 돌아가면서 시문되어 있다. 문양은 기마상, 양산을 들고 있는 사람, 기마귀족인상 등이 일렬로 가는 풍경이다. 맨 앞의 우산 쓰는 종과 기마인이 따르고 그 뒤에 번을 앞세운 종과 기마인이 앞장서고, 그 뒤를 주인공이 나아가는 일종의 행렬도이다. 실제 인물들의 크기도 앞으로 갈수록 작고 뒤로 갈수록 커진다. 토기의 저부는 원저로 3번에 걸쳐서 띠를 둘러서 마무리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군데군데 석회를 붙인 흔적이 있는데, 이는 군인들이 이 토기를 습득한 후 동체 상부의 그림처럼 밑에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발랐던 흔적이다. 동체 저부 근처에는 잘 마연된 흔적이 남아있어 원래 이 토기는 전반적으로 마연되었음을 보여주며 원저부분의 부착흔은 잘 남아있다.

이 그림에는 2.3 x 11.7cm의 장방형으로 구역을 파고 그 안에 도드라지게 글자를 새겼는데, 그 내용은 ‘연희2년조작(延熙2年造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273년에 해당된다. 여기에 새겨진 서체는 실제로 위진남북조 시기의 서체로 보인다.



그림 2 연희 2년명 토기의 그림 세부

이 토기의 연대를 살펴보자. 연희라는 연호는 중국 역사에서 두 번 쓰였다. 한번은 유비의 뒤를 이어 촉의 황제였던 유선의 연호(238~257)가 있고, 후조(後趙)의 석홍(石弘)이 334년에 쓴 바 있다. 하지만 후조의 경우 1년 만에 그 사용을 폐지했기 때문에 연희 2년명은 촉의 연호를 의미함이 틀림없다. 즉, 이 토기의 제작연대는 3세기 전반대인 239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시문된 기마문도 동한대의 화상전과 많은 유사성이 있는 바, 이러한 편년을 방증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호를 새긴 토기는 유사한 예가 중원에서는 없다. 필자가 찾아본 여러 자료에서 연희 2년명 토기가 중국에서 출토된 바가 없다. 중국 내에서 한 대~위진남북조 시기에 장인의 성이나 ‘대부(大夫)’와 같은 직위가 새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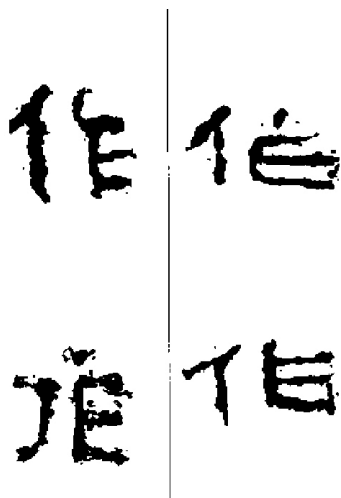


그림 3 연희 2년명 토기의 명문과 유사한 서체 作 (陳建貞, 2001: 88쪽)

경우는 있지만(馬正元, 1992), 이번 경우와 같이 연호가 새겨진 기년명토기는 전혀 없다.⁷ 다만, 보통 한대의 전(磚)에 기년명이 있는 예는 수차례 보인다.⁸

따라서 이 토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며, 우연히 또는 교역으로 이 지역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집단에게 사여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것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이 토기의 용도를 보자. 현재 그 안에 유기물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굳이 도기에 연호를 새겼음은 이 유물이 황실에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도기에 연도를 새겨 넣어서 하사하는 일종의 위신재의 용품이라고 한다면 제사 또는 의식에 사용하는 술을 담은 용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서(漢書)』 「흉노열전」에서 선우(單于)는 중국 정부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누룩으로 빚은 술[麴酒]”과 누룩이 나온다. 당시 흉노는 마유주만 만들었기 때문에 누룩으로 빚은 술은 일종의 위신재로서 기능을 했었다. 흉노의 예를 적용시킨다면 중국에서 만든 고급술은 한-러 국경지역의 옥저에게도 공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239년을 전후해서 당시 동북한 지역과 사천지역의 축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료는 없다. 이 시기 동북한에 영향을 미친 나라는 위나라로, 당시 명제(明帝, 226~239년 즉위)는 238년에 사마의에게 명령하여 요동제현을 정복했다. 그리고 관구검은 동천왕 18~20년대 244~246년 사이에 침략했다.⁹ 이 시기는 위가 삼국통일을 위한 전초작업의 일환으로 그들의 배후에 웅거하였던 공손씨를 비롯하여 여러 세력들을 제거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위가 일으킨 동북아 일대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은 관구검의 기사를 통하여 충분히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도기는 축한의 어용(御用) 토기이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축과의 교류 또는 사여로 이 지역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

7 高明, 1990, 『古陶文汇编』에서 확인함.

8 劉正成, 1992, 『主編』의 도면 164, 182, 210 등 참조.

9 박노서, 2003, 「고구려 동천왕대 관구검의 침입」, 『한국사상과 문화』 제20집.

적으로 보면 축은 사천분지를 중심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와 인접한 위를 거쳐서 책성의 관할이 되는 북옥저로 갔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힘들다. 먼저 이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에 요동지역에서 거주한 공손씨는 경우 오에서 사신을 보내며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권유받았지만, 위나라의 눈치를 보아서 거부했다.¹⁰ 이러한 상황이니 위가 축의 어용 도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이 도기는 축이 고구려(또는 북옥저)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것으로 보고자 한다. 만약에 간접적인 경로로 축의 어용품이 이 지역에 유입된 것이라면 비슷한 토기의 출토예가 사천지역 또는 중원 일대에서 출토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년명은 전에서만 발견되며,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중원 내에서 자체 생산 또는 이웃 국가에 증여를 위해서 이런 도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며, 축 정부에서 북옥저를 위하여 특별히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기에 담아서 물건을 보내는데 북옥저 인들에게 이러한 명문이 새겨진 것이 위신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명문이 새겨진 중원계의 위신재는 동북한 지역에서 전국시대 이래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장백산 팔도구에서 출토된 인상여과(蔘相如戈), 길림 집안(集安) 출토 안양군검(安陽郡劍), 무순시(撫順市) 출토 여불위모(呂不韋矛) 등이 그 좋은 예다.¹¹ 동북한의 산악지대에 출토되는 중국계 유물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조국(趙國)과 같은 중원의 국가가 각 지역의 우두머리가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모피를 공급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위해 적극적으로 위신재를 제공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원거리무역은 모피뿐 아니라 과하마, 반어피 등 동해안 지역의 특산물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책성을 설치하여 북옥저를 일찍이 간접지배 방식으로 통치하고 그 교역의 이(利)를 취하고자 했다.¹² 비록 사천지

10 『진서』 고구려전 참조.

11 강인옥,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제 64집.

12 박경철, 2012, 「延邊地域으로의 高句麗 勢力 浸透 및 支配의 實相」, 『동북아역사

역은 지리적으로 동해안 지역과 교통하기 어렵고, 사서에는 기록된 바가 없다. 하지만 손오(孫吳)와 고구려는 236년까지 외교관계를 지속하며 동예의 과하마를 거래했다.¹³ 또한 242년경에는 고구려가 서안평 지역을 다시 수복하면서 해상교류가 용이해졌다. 2세기 중반 관구검의 침공 이전에는 조위에 대항하여 고구려와 다른 삼국(손과 촉)은 다양한 연대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고구려가 위와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오 역시 촉이 고구려와 교역하는 것을 용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동북한, 연해주 및 연변지역 일대에는 철기시대 이후 말갈문화가 등장하는 사이의 약 300년 공백이 있다. 즉, 연해주는 크로우노프카문화 이후 폴체문화(올가문화)가 1~2세기 정도까지 이어지고 본격적으로 말갈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이후이다. 이 기년명 도기는 3세기대로 고구려의 책성 경영과 말갈문화의 성장에 대한 공백을 메워주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연희 2년명 토기의 발견으로 관구검의 침공에 대한 고고학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문헌사료에 따르면 관구검과 낙랑태수 왕기는 아주 철저하게 북옥저와 숙신의 남쪽까지 토착세력을 절멸시키려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연변/연해주 일대가 고구려의 중요한 배후기지였으며, 중국 내부의 위나라를 넘어서 촉이나 오와 같은 나라와 교역을 하며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축군 기년명 토기는 관구검의 침공 약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관구검의 옥저지역에 대한 침공은 이 도기가 상징하는 옥저와 촉의 교류관계와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관구검의 침략은 단순히 고구려 동천왕을 추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옥저 세력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에 집중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에는 관구검의 침략으로 3천여 인이 희생되었으며 옥저의 읍락이 모두 파괴되었다고 했다. 또한 『북사(北史)』 고구려전에는 242년(정시 3년)에 관구검과 왕

논총』 38집, 15~52쪽.

- 13 Park, Dae Jae, 2013, "The Interchanges between Kogury and Sun - Wu and Under the Fruit Hors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8 No.1.

기(王頎)가 옥저 천여리를 횡단하여 숙신의 남쪽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왕기가 부여에 갔다는 기록이 보인바, 남옥저에서 왕기를 북옥저를 거쳐서 부여로 파견했음이 된다.

관구검과 왕기의 부대가 경략을 한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단결 - 크로우노프카문화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바, 고구려에 복속된 단결 - 크로우노프카문화의 기반이 붕괴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책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변 일대는 동북한 일대의 고구려 지배의 거점지역이었고, 기년명 토기는 한-중-일 국경 일대의 당시 북옥저의 핵심세력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책성을 기반으로 하는 북옥저의 기반을 위나라의 관구검은 철저히 파괴했다. 그 결과 책성 일대에서 북옥저의 세력은 급감하였고, 이는 곧 이 시기 유적 공백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3세기의 공백을 기점으로 이전의 북옥저의 올라문화(옥저계통의 크로우노프카와 읍루계통의 폴체문화가 혼합된 문화)와 이후의 백산말갈의 고고학적 문화로 나뉘는 전환기에 대한 자료가 된다.

2. 연해주 일대 백산말갈문화의 형성

문헌기록을 참고하면 관구검의 침략으로 연변~연해주 일대의 토착 옥저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고고학적으로 보아도 3~4세기 이 지역 유적이 공백이기라는 점으로도 반증된다. 그런데 4세기부터는 다소 편년에 논란이 있지만 말갈 유적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블라고슬로베노예 유적이다. 이들 초기 말갈 유적은 폴체문화의 늦은 단계인 켈토야로프기와 매우 유사하다. 말갈문화가 폴체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백산말갈문화를 만들어낸 주민들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말갈문화는 읍루(폴체문화)와 강한 친연성을 보여주는데, 이미 폴체문화는 연해주 지역으로 기원 전후한 시기에 남하해서 토착화(올가문화)가 된 상태이다. 원래 연해주 일대에서 옥저계문화로 간주되는 크로우노프카문화는 1세기 이후에는 거의 소멸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구검이 침략했을 당시에 옥저계문화

라고 하는 집단들은 폴체계문화를 위주로 하고 옥저계통의 문화가 일부 섞여있는 정도의 물질문화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초기 백산말갈의 양상은 이 시기의 유적이 거의 없는 연변지역보다는 연해주에서 더 쉽게 확인된다. 그리고 그 말갈의 양상은 말갈계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인 ‘말갈관’으로 알 수 있다. 말갈관은 심발형 기형에 외반구연에 동체부가 타원형에 가깝게 넓어지는 평저토기이다. 그 태토에는 사립이 많이 섞인 적갈색계통이며 물레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수제토기이다. 그 표면에는 타날문이 시문된 경우도 있으며, 돌대문이 구연부, 견부에 돌아가며 단사선문이 동체에 시문되기도 한다. 말갈관은 그 형식적인 특징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넓게는 말갈계 문화를 규정하는 표지유물로 역할을 한다. 또한, 그 구연부, 문양, 기형 등 세부적인 형식 들은 말갈 영역 내에서도 뚜렷한 시공적인 범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말갈 내에서도 지역적인 차이(특히, 속말말갈과 흑수말갈)를 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¹⁴ 초기 철기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토기양식에서 말갈관과 가장 유사한 기형은 폴체문화의 토기임은 필자는 물론¹⁵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의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¹⁶ 나팔처럼 벌어지는 구연부, 타날문, 구연 및 견부의 돌대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폴체문화의 마지막 단계(1~3세기)인 쿠켈레보기의 토기와 가장 유사한 토기는 말갈 중에서도 아무르 동쪽(즉, 삼강평원에서 북쪽으로 러시아 경내)에서 주로 존재하는 블라고슬로벤노예 - 나이펠트 그룹으로 이어진다. 말갈관은 크게 4가지의 유형분류가 가능

14 Дьякова О.В. Мохэский могильник Монастырка - 3//Россия и АТР. – 1996. – № 2. – С. 58-65; Дьякова О.В.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Приморья. –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1998. – 318 с; 홍형우, 2012, 「토기를 통해 본 동(東)아무르 지역 중세문화의 전개」, 『고구려발해연구』, 42, 111~138쪽; 劉曉東, 2007, 〈靺鞨文化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15 홍형우·강인욱, 2004, 「러시아 극동지역 철기시대 연구의 제문제 - 빠르게 문화를 중심으로」, 최몽룡·김경택 편저,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주류성.

16 臼杵勲, 2004, 「靺鞨社會の形成」, 『鐵器時代の東北アジア』, 同成社; Дьякова О.В.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Приморья. –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1998. – 318 с

하다. 즉, 나이펠트유형, 트로이츠키유형, 블라고슬로벤노예 - 동인유형, 그리고 아무르강 종류의 미하일로프카유형(실위) 등으로 세분된다.¹⁷ 말갈의 여러 지역문화에서도 특히 블라고슬로벤노예는 가장 이른 4~5세기대로 편년되며 나이펠트가 그 뒤를 잇고, 이후 주변지역으로 확장된다. 즉, 말갈관의 기원은 폴체 문화에서 기원한 블라고슬로벤노예 - 나이펠트유형이며,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가며 각 지역의 지역성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해주 남부 일대의 백산말갈 지역에서 말갈토기는 아브라모프카, 라코프카 유적 등의 출토예가 있다. 이들은 주변의 다른 말갈 지역의 토기와 비교했을 때 말갈관의 특징



그림 4 연해주 말갈 - 아브라모프카 주거지 출토(크리볼라, 2012)

은 날렵한 편이며 동체의 상반부에 2~3열의 단사선문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브라모프카 유적 출토의 말갈관은 무덤 출토이며 발해계통의 영향을

17 강인욱,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3집, 9~41쪽.



받은 흔적이 전혀 없다. 반면에 라코프카 유적에서는 병형 토기 및 물결무늬와 같은 발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인다. 이와 같이 연해주 일대는 무덤 유적을 중심으로 볼 때 5세기 이후 말갈계통의 문화가 성립되어서 발해의 유입 이전까지 독특한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백산말갈과 책성의 치소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2세기경까지 북옥저는 읍루계통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올가문화로 존속했고, 관구검의 침략 이후 기존의 북옥저 계통의 문화가 와해되었다. 이후 4세기이후에 본격적으로 말갈문화가 등장했다. 관구검의 침략은 토착 사회에 큰 위기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기존의 북옥저 계통의 문화(즉, 크로우노프카 계통)가 완전히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잡곡농경에 기반하여 평지에 마을을 이루는 옥저의 마을 대신에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는 말갈계통의 문화가 연해주 전역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취락도 고지에서 방어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물질문화에서도 철제 무기가 급증하여서 새로운 경제와 문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3. 폴체계 문화의 잔존 : 크라스키노 성지 41구역 최하층의 해석

2008~2009년도 크라스키노 발굴에서 이제까지 발굴된 크라스키노 유적에서 가장 최하층이 발굴된 바 있다. 러시아 측에서 2008년도의 발굴에서 문화층의 존재가능성이 확인되었고, 2009년도 필자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그 옆인 41구역의 최하층을 발굴했다. 그 결과 크라스키노에서 확인된 최하인 제 5 문화층(지표하 180cm)에서 유물과 유구의 흔적을 발굴할 수 있었다.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발굴을 했지만 노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거지의 일부분, 도랑, 기둥구멍 등을 발견했다. 하지만 유물들은 별로 없었다. 이 성터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탓도 있었겠고, 워낙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범람이 심해서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씻겨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유물은 몇 점 되지 않지만 이른 시기의 특징은 분명했다. 거친 표면의 갈색토기는 소위 ‘말갈계’(말갈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손으로 만든 토기)이고, 시루토기는 고구려의 특징이 아주 강했다. 이 최하층에서 채집한 표본과 근처에 인접한 37 및 40구역의 최하층에서 채집한 연대시료에 대한 절대연대치는 AD 385, 590, 585, 615 등이 제시되었다(표 2). 발해의 건국보다 훨씬 이른 고구려 시기가 된다. 적어도 6세기대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서 크라스키노 성터는 발해가 건국하기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 2〉 2009년도 AMS 시료 측정결과

구역	깊이	평면	절대레벨	측정연대	보정연대
p-37	level 8	kb B-2	h=-116m	B,P. 1530±50	530AD
p-40	level 4(1)	kb G-17	h=-89m	B,P.1150±40	880AD
p-40	level 5	kb G-14	h=-106m	B,P. 1250±50	780AD
p-41	level 6	kb H-3	h=-83m	B,P. 1570±50	490AD
p-41	level 6	kb k-2	h=-68m	B,P. 1260±60	780AD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는 크라스키노 성지의 발굴로 계

속 증명되고 있다. 2015년 발굴에서도 4~6세기대의 연대치 4점(250~440, 420~550, 310~420, 575~655 AD)이 44구역의 발굴에서 제시되었다.¹⁸ 이로써 크라스키노 최하층의 양상은 바로 연해주와 책성의 고구려 말기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물질 자료가 된다. 크라스키노 최하층 토기들의 양상은 말갈계통의 토기와 고구려 계통 토기가 같이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연해주의 모든 발해 유적은 예외없이 말갈토기의 비중이 높는데, 예외적으로 크라스키노 성터에서는 말갈계통의 토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오직 크라스키노 성지의 고구려 시기에서는 말갈계통과 일면 유사한 토기가 나온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하층 말갈토기의 기형은 기존에 알려진 백산말갈의 기형과 아주 다르다. 구연부에 별다른 부가적인 문양이 없으며, 동체부에는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기형은 말갈보다는 연해주의 초기 철기시대인 올가문화(북옥저와 읍루계통이 섞여서 이루어진 문화)에 가깝다. 즉, 고구려의 중심 연대에



그림 6 크라스키노 성터 서북쪽 4구역 최하층의 평면도(2009년 발굴)

18 김은국, 2017, 「연해주 발해 염주성의 최근 발굴성과와 분석」, 『2017 Asian Archaeology - 최신 발굴자료로 본 유라시아의 고대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13~29쪽.

이 지역은 고구려 계통보다는 이 지역 토착적인 폴체(=올가)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말갈계통의 문화와 공존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4. 부여 또는 전연계 문화의 유입 : 훈춘(琿春) 고성촌(古城村) 기와자료

최근에 고구려 시기의 연변지역에 대한 자료가 중국에서 보고 되었다. 길림성고고연구소(吉林省考古研究所)¹⁹에서 다년간 조사하는 온특혁부성(温特赫部城)의 동쪽으로 200미터에 위치한 바, 온특혁부성 및 배우성과 관련된 유적으로 생각된다. 1995년에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여기에서는 모두 2개의 사지가 조사되었다. 그중 제2호 사지는 발해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1호 사지에서는 발해보다 연대가 대체로 이른 양식의 불상이 출토되었다. 또한, 1996년과



그림 7 크라스키노 41구역 최하층 폴체계로 추정되는 토기 편

19 吉林大学边疆考古研究中心,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 2015, 「吉林琿春古城村1号寺庙址遗物整理简报」, 『文物』11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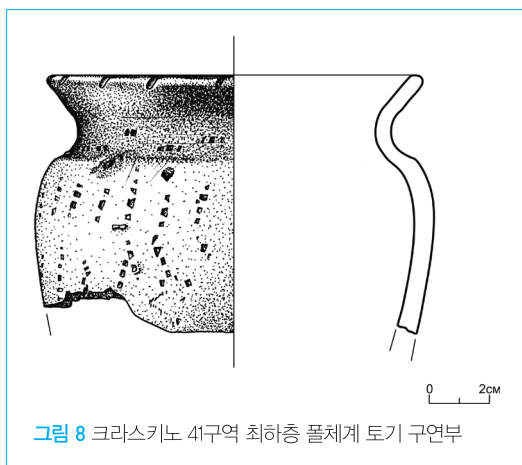


그림 8 크라스키노 4구역 최하층 폴체게 토기 구연부

97년도 출토품 중에서 그물문이 시문된 독특한 기와가 출토되었으나, 당시에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에 보고된 요녕(遼寧) 북표(北票) 금령사(金嶺寺)에서 출토된 화격문으로 명명된 독특한 막새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로써 훈춘 고성촌의 사원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전연이 번성했던 요서지역 계통의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전립곤(田立坤)²⁰은 이 기와의 유입배경을 346년에 전연이 부여를 침략하여 부여왕 현(玄)과 오만여 명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요서지역으로 끌고갔다는 기록과 연결시켰다.²¹ 즉, 이때에 요서지역으로 끌려갔던 부여계의 주민들이 이후 고구려에 복속이 되어서 훈춘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가설을 세웠다. 물론, 전연에 끌려간 부여계 주민이 다시 고구려로 복속된다는 기록은 없지만,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부여계의 주민을 전연에 끌려간 사람으로 해석했다. 송옥빈(宋玉彬)²² 또한 비슷한 견해이다. 한국에서도 이정빈²³ 역시 문

20 田立坤, 2016, 「吉林琿春发现的燕系瓦当之背景」, 『學問』 6期.

21 부여와 북연과의 관련성은 일찍이 1932년에 출판된 부사년의 저서 『동북사강』에 제시되어 있다(부사년, 정지호 역, 2016, 제2장 참조)

22 宋玉彬, 2015, 「试论佛教传入图们江流域的初始时间」, 『文物』 11期.

23 이정빈, 2017, 「모용선비 전연의 고구려 부여의 질자」, 『東北亞歷史論叢』 57집, 동

헌사적관점에서 부여와 고구려의 질자들이 이후 본국으로 복귀해서 태학의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훈춘에서 전연계통의 기와가 출토되었음은 이러한 고구려·부여와 북연의 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4세기 중반에 부여계 주민이 요서지역으로 가서 전연의 불교문화를 흡수하고 다시 고구려의 판도에 편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성촌의 북연계통 기와는 5세기대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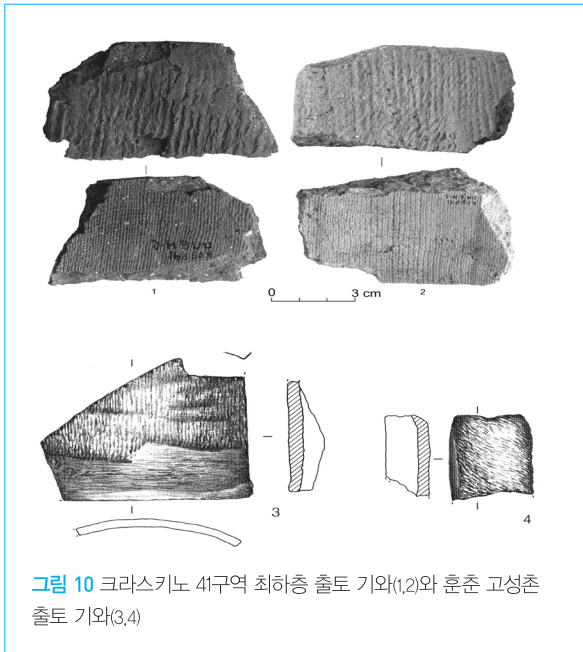
한편, 고성촌의 기와중에는 노끈무늬(승문계)의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윗 장에서 살펴본 크라스키노 41구역 최하층에서 출토된 노끈무늬 기와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에 5~6세기 이 지역에서는 북연에서 있었던 부여계 주민이 고구려 각지로 유입되었고, 그 일부는 책성 일대에서 성지 및 불교사원의 건설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아역사재단.

IV. 고구려 연변 진출과 말갈세력의 성장과정 추이

1. I기 : 옥저세력의 변화와 고구려의 진출



북옥저 세력은 기원전 4~3세기경에는 부여와 관계가 매우 깊었으며, 직접적인 교류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원의 여러 나라와도 교류한 흔적이 있다. 니콜라예프가 출토 칠원일근과 부여계통으로 간주되는 안테나식 동검의 출토가 그 좋은 예이다. 다만, 이 시기에 대한 옥저의 대외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고고학적 자료로만 추정이 가능하다.

이후 기원전 2~1세기에는 이러한 대외관계가 위만조선으로 확대가 되었음은 부조예군 및 사서의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조선의 모피무역은 궁극적으로 연변 및 연해주 일대와 교류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실물 고

고고자료로는 단결유적 출토의 화천(貨泉), 크로우노프카유적 출토의 오수전, 한나라 시기 동축과 유사한 삼익공병식 동축, 한식 철기 등으로 반증된다. 옥저 세력에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은 기원전 1세기 중후반경으로, 연해주 북부에서 우수리강을 따라 진출한 읍루계문화(폴체)의 유입이다. 이 폴체문화는 매우 호전적인 문화였던 바, 점진적으로 옥저문화는 남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구려가 책성을 설치하는 시점은 이렇듯 옥저세력이 큰 변혁을 겪고 위기가 온 시점이다. 연해주 일대에는 1세기경에는 부여 및 고조신과 교류하며 성장했던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가 일차적으로 해체가 되고 폴체계문화가 내려와서 형성된 올가문화로 재구성되는 시점이다. 그러한 혼란기를 이용해서 고구려는 자신들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 지역을 지배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책성이 나무 목책을 의미하며, 북옥저가 바로 ‘치구루’라고 불린 점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구루는 ‘성’이라는 의미로 책성을 고구려말로 음차했다는 연구도 있다.

한편, 기원전 1세기경에 지속적으로 남하하는 읍루계열(폴체) 세력으로 옥저는 동해안을 남하해서 남옥저 지역에 세력을 설치했다. 함흥 일대의 옥저성은 이렇게 남하한 옥저세력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 복속된 북옥저와 달리 이들은 낙랑에 적극적으로 부의하고 세력의 유지를 도모했다. 옥저성이 함흥에 설치되고 부조예군 도장이 발견된 것은 이러한 변동을 반증한다. 나아가서 강원도 일대에서 초기 철기시대의 마을 유적은 대부분 1~2세기 이후라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고구려의 책성 설치의 고고학 문화의 변동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고조신/부여 등의 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옥저 중심의 사회에서 읍루세력의 확장과 고구려의 장악이라는 연변-연해주 일대의 커다란 변동의 결과였고, 이 시기의 유적은 급감하는 것도 이와 연동된다고 생각된다.

2. II기(3~5세기) : 관구검의 침략과 말갈문화의 형성

고구려의 책성 설치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와 두만강 유역 일대에서 1~3세기대

에 고구려 초기의 유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지역이 고구려에게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음은 관구검의 침략으로 잘 증명된다. 246년에 삼국의 위나라의 장군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하자 동천왕은 황급하게 옥저의 땅으로 도망하였고, 위험한 고비에서 충신 밀우와 우유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런데 위나라는 단순히 고구려의 정복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도 아주 먼거리인 함경도 일대의 옥저 세력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며 일일이 옥저세력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관구검의 침략으로 3천여 인이 희생되었으며 옥저의 읍락이 모두 파괴되었다고 했다. 또한 『북사』 「고구려전」에는 242년에 왕기(王頌)가 옥저 천여 리를 횡단하여 숙신의 남쪽에 이르렀다고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왕기가 부여에 갔다는 기록이 보이는 바, 왕기는 남옥저에서 북옥저를 거쳐서 부여로 갔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숙신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북쪽에 위치한 폴체문화로 기원 전후 한 시기가 되면 크로우노프카문화는 남하하는 폴체문화(읍루)에 의해 남쪽으로 후퇴하며, 폴체문화는 대체로 연해주 남부 일대에 분포한다. 함경북도의 철기시대 유적에도 폴체문화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의 토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후한 시기의 숙신이 한려 국경일대까지는 남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⁴ 따라서 고고학자료를 참고한다면 왕기가 비를 세운 숙신의 남쪽은 한중러국경지역 북쪽 어딘가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북옥저 지방에까지 패퇴(敗退)한 동천왕이 책성을 최후의 방어 거점삼아 위(魏)군에 대한 반격(反擊) 작전을 벌이는 거점도시였던 북옥저의 중심지는 ‘치구루(置溝婁)’²⁵로 연해주 남부 일대가 아니라 훈춘 일대

24 회령 오동유적에서도 폴체문화 계통의 토기가 일부 발견되긴 했지만, 이는 전체 문화상에서 극히 일부로 실제 폴체문화의 철기 또는 주거지와 같은 생활흔적은 발견된 바 없다. 강인옥, 2007,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의 편년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4집.

25 박경철, 2012, 「延邊地域으로의 高句麗 勢力 浸透 및 支配의 實相」, 『동북아역사논총』 38집, 15~52쪽.

일 수밖에 없음은 역사기록뿐 아니라 폴채문화의 남진으로도 설명이 된다.

즉, 고구려 책성의 주체는 옥저인들이며 동시에 고구려에 복속된 그들의 거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관구검의 군대가 이렇게 철저하게 옥저인의 거점을 파괴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왕이 5세기경 이후에는 고구려가 직접적인 지배를 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었다고 한다(임기환, 2012).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위관료의 파견으로 대규모의 이민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토착민들은 기존의 문화를 유지하며 살았을 것이다. 수-당과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던 고구려가 동해안 지역으로 무리하게 주민을 이주시킬 이유는 없었다. 바닷가의 특산물(반어피, 해산물, 소금)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두보 정도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내륙지역에 위치했으며 황해지역의 경우 중국 및 여타 세력들과 지속적으로 갈등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금과 해산물의 공급지를 둔다는 것은 고구려로서도 많은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유물이 나오는 시점은 4세기대이며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말갈문화가 형성된다. 이는 곧 관구검의 침략으로 옥저 일대의 문화가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편 과정을 거쳐서 훈춘 일대의 백산말갈 고지에는 적어도 3개 이상의 문화가 혼재한다. 첫 번째로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잘 보이는 말갈계 문화(기층문화), 두 번째로 부여 또는 전연계의 문화(성지 및 사원의 건설 및 사용), 그리고 이 지역의 노착문화인 폴채문화(크라스키노 41구역 최하층) 등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의 혼재는 관구검의 침략 후 폐허화된 이 지역에 고구려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문화를 재건했음을 말한다. 물론, 그것은 고구려의 중심세력 중심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이원화된 지배방식으로 말갈계문화가 크게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정책은 몇 가지 원인으로 해석된다. 첫 번째로 광개토왕 대 이후 속말말갈의 복속, 숙신, 양맥의 정복 등 다른 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산되어야 할 시점이었다. 이미 300여 년간 간접지배체계를 다져서 상당히 고구려화가 된 백산말갈에까지 굳이 대규모 이민을 하는 식으로 할 이유도, 여력도 없었다.

두 번째로 연변 일대의 기후환경 변화로 농업이 불가해졌다. 관구검의 침략 전후한 2~4세기의 송화강 중류 일대의 기후 한랭화와 그에 따른 고고학적 문화의 변화는 누차 언급한 바 있다(강인옥, 2009; 2015). 4세기경 기후환경의 변화로 연변 주변에 인구가 급감했다. 그 결과 백산말갈의 거주지에서 농업의 비중은 급감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백산말갈뿐 아니라 송화강 유역 일대의 공통적인 상황이었다.

3. III기 : 6~7세기 - 성지 및 사원의 건설

이 시기는 훈춘 고성지 1호 사원지와 2호 사원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5세기경의 새로운 문화가 지속적으로 고구려 말기~발해 초기까지 지속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타인(李他仁) 묘지명과 같이 책성 출신의 사람들은 고구려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고구려의 직접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의 거버넌스는 II기와 마찬가지로 토착민의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말갈계 문화로 이어졌고, 사원지와 성지에서는 부여계 유이민으로 추정되는 책성부의 상층부가 거주하며 살았다. 크라스키노 41구역 최하층은 그동안 가설적으로 제시되어온 고구려 말의 연해주 지역 문화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크라스키노 유적은 바닷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성의 북쪽 일부를 제외하면 금방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최하층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1구역의 발굴품은 중요한 근거가 된다. 41구역 최하층에서 출토된 토기에는 특히 고구려의 토기 기법이 많이 보인다. 토기의 형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마연기법) 등 세부적인 기술에서 둘 사이의 계승관계가 뚜렷하다. 그런데 그것은 발해토기의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말갈계 토기의 경우 말갈보다는 연해주의 폴체토기와 유사점을 보여준다. 즉, 책성과 그 일대에서 살았던 사람의 물질문화는 북옥저계통의 문화가 발전되어 형성된 백산말갈의 문화가 일부 고구려계 토기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크라스키노 고구려 시기의 문화층에

서 고구려 수도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고구려 유물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즉, 크라스키노 성지의 가장 이른 시기 유물들은 고구려 시기에 해당하지만 고구려 출토의 전형적인 유물과는 다르다. 고구려는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옥저, 말갈 등 토착세력을 복속시켰던 방법으로 지배했을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기존에 문헌사에서만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책성의 존재와 백산말갈의 문제를 고고학적으로 풀어보고자 했다. 2세기경까지 북옥저는 읍루계통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올가문화로 존속했고, 관구검의 침략 이후 기존의 북옥저계통의 문화가 와해되었다. 이후 4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말갈문화가 등장했다. 관구검의 침략은 토착 사회에 큰 위기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기존의 북옥저계통의 문화(즉, 크로우노프카계통)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갈문화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잡곡농경에 기반하여 평지에 마을을 이루는 옥저의 마을 대신에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는 말갈계통의 문화가 연해주 전역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취락도 고지에서 방어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물질문화에서도 철제 무기가 급증하여서 새로운 경제와 문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여계 이주민을 책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지와 사원지로 옮겨서 거버넌스를 유지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백산말갈은 이 지역 토착민들이 북옥저와 읍루계통의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 성립되었다. 여기에 부여계통의 사민도 한 부분을 이루었다. 그리고 1~7세기間に 고구려의 지배가 되었지만, 직접적인 지배라고 볼 고고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하지만 크라스키노 성지의 최하층이 보여주는 것처럼 행정적인 치소에서 발견되는 토기의 양상은 고구려 계통의 일부 토기와 올가문화(연해주 폴체문화)와 유사점이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바로 말갈계 문화가 일괄적으

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적으로 각자 발달해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고학적 문화상의 변화는 책성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와 연변 일대에서 고구려의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을 설명해준다. 즉,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북옥저 - 백산말갈로 이어지는 토착민의 물질문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타인의 묘지처럼 이러한 토착문화의 강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일부로서 강력한 소속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말갈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문화는 결코 하나의 민족집단이 아니었으며, 또 무조건 고구려/발해와 배치되는 세력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말갈계 고고학적 문화 역시 시대와 공간적 맥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삼강평원의 두막루 - 물길문제에서도 제기된 바, 극동지역의 두 민족 집단의 계통인 부여 - 옥저 - 동예로 이어지는 예맥계와 읍루 - 말갈로 이어지는 통구스계는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 받았다. 비슷한 상황을 책성 - 백산말갈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에서 제시된 주민집단을 도그마화해서 해석에 집착하기보다 계속 증가하는 고고학적 자료와 비교할 때 한반도 북방의 민족사상이 조금 더 체계적이며 명확하게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옥 외,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강인옥, 2007,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의 편년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4집.
- _____,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關係」, 『고구려발해연구』, 33집.
- _____, 2009,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확산과 전파」, 『철기시대 한국과 연해주』, 환동해고고학연구회.
- _____,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제64집.
- _____, 2015,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집.
- 권은주, 2009, 「靺鞨7部の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고구려발해연구』 35집.
- 김석주·김남신, 2011, 「구글어스를 이용한 연변지역의 문화 역사유적 지도화와 분포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1호.
- 김영진, 2008, 「靺鞨의 成長과 高句麗의 靺鞨服屬」, 『고구려발해연구』 32집.
- 김은국, 2017, 「연해주 발해 염주성의 최근 발굴성과와 분석」, 『2017 Asian Archaeology - 최신 발굴자료로 본 유라시아의 고대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정배, 1993, 「북한출토 연희이년명 토기」, 『태동고전연구』 10권.
- 金賢淑, 2000, 「延邊地域의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支配」, 『國史館論叢』 88집.
- 노태돈, 2003,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 122.
- 李成制,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34집.
- 李宗勛, 1998, 「高句麗麗城遺址一考」, 『先史와 古代』 10집, 韓國古代學會.
- 박경철, 2012, 「延邊地域으로의 高句麗 勢力 浸透 및 支配의 實相」, 『동북아역사논총』 38집.
- 박노석, 2003, 「고구려 동천왕대 관구검의 침입」, 『한국사상과 문화』 제20집.

- _____, 2013, 「6세기 말 7세기 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만주연구』 15집.
- 朴龍淵, 1995, 「東北地區의 高句麗長城」, 『중국경내 고구려유적 연구』, 예하.
- 박진석, 2008, 「高句麗柵城遺址三考」, 『東北亞歷史論叢』 20집, 동북아역사재단.
- 방학봉, 1999, 「고구려 책성의 위치에 대한 고찰」, 『京畿史學』 3집, 경기사학회.
- 배근홍, 2010, 「당(唐) 이타인(李他仁) 묘지(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24집.
- 안정준,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 『목간과문자』 11집.
- 양시은, 2012,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38집.
- 余昊奎 & 李明, 2017, 「高句麗 遺民〈李他仁墓誌銘〉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5집.
- 이민수, 2017, 「고구려 유민 李他仁의 족원과 책성 욕살 수여 배경에 대한 고찰」, 『대구사학』 128집.
- 이정빈, 2017, 「모용선비 전연의 고구려 부여의 질자」, 『東北亞歷史論叢』 57집, 동북아역사재단.
-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제70집.
-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東北亞歷史論叢』 38집, 동북아역사재단.
- 정석배, 2009, 「아무르 · 연해주 지역의 말갈 - 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35집.
- _____, 2013, 「연해주 남서부 지역 말갈유적들의 토기」, 『한국전통문화연구』 12집.
- 酒奇雅志, 1997, 「동아시아에 있어서 발해의 국제적 위상 : 일본과 발해 말갈과의 교류 - 동해 오후크크해역권과 선」, 『선사와 고대』 9집, 한국고대학회.
- 한규철, 1988, 「고구려시대의 말갈 연구」, 『역사와경계』 14집.
- _____, 2015, 「三國과 渤海史에서의 靺鞨」, 『한국사학보』 58집.
- 홍형우, 2012, 「토기를 통해 본 동(東) 아무르 지역 중세문화의 전개」, 『고구려발해연구』 42.
- 홍형우 · 강인옥, 2004, 「러시아 극동지역 철기시대 연구의 제문제 - 썰레 문화를 중심으로」, 최몽룡 · 김경택 편저,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주류성.
- 高明, 1990, 『古陶文汇编』, 中华书局.
- 劉正成 主編, 1992, 『中國書法全集 第9卷 秦漢金文陶文』, 新華書店.
- 劉曉東, 2007, 「靺鞨文化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崇智 編著, 1981, 『中国历代年号考』, 中华书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外, 2006, 『海拉爾謝爾塔拉墓地』, 科學出版社.

陳建貢, 2001, 『中国砖瓦陶文大字典』, 中华书局.

白杵勲, 2004, 『靺鞨社會の形成』, 『鐵器時代の東北アジア』同成社.

吉林大学边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 2015, 「吉林琿春古城村1号寺庙址遗迹整理简报」, 『文物』11期.

宋玉彬, 2015, 「试论佛教传入图们江流域的初始时间」, 『文物』11期.

马正元, 1992, 「焦作汉墓出土“山阳”铭文陶器」, 『中原文物』1期.

李强, 1986, 「沃沮、东沃沮考略」, 『北方文物』1.

林沄, 1986, 「肃慎、挹娄和沃沮」, 『辽海文物学刊』1.

田立坤, 2016, 「吉林琿春发现的燕系瓦当之背景」, 『學問』6期.

Park, Dae Jae, 2013, “The Interchanges between Kogury and Sun-Wu and Under the Fruit Hors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8 No.1.

Деревянко Е.И.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на Амуре –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предков тунгусо-маньчжурских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Этногенез народов Северной Азии: Материалы конф. – Новосибирск, 1969. – Вып. 1. – С.

_____.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Среднего Амурс.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Сиб. отд-ние, 1975. – 250 с.

Деревянко Е.И. Троицкий могильник.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Сиб. отд-ние, 1977. – 223 с.

_____. Звериный стиль в искусстве мохэ // Традиции и инновации в быту и культуре народов Сибири. – Новосибирск, 1983. – С.

Дьякова О.В. Мохэский могильник Монастырка-3 // Россия и АТР. – 1996. – № 2. – С. 58-65.

_____.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Приморья. –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1998. – 318 с

Ермаков В.Е. Исследование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Троица-5 и Новоселище-2 в Приморье //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первобытной археологии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АН СССР. ДВО. ИИАЭ. – Препр. – Владивосток, 1987. – С.

Нестеров С.П. Северные шивэй в Приамурье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 Благовещенск, 1995. – С.

_____. Народы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н-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1998. – 184 с.

Ивлиев А.Л., Ключев Н.А. Вглядываясь в прошлое - итог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 изысканий //Россия и АТР, 2006 - Н.2.
- Окладников А.П., Деревянко А.П. Мохэский могильник в пос. Найфельд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Сибири. Древняя Сибирь. – Новосибирск, 1966. – Вып. 2: Сибир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С.
- Медведев В.Е. О традициях скифо-сибирского звериного стиля в искусстве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населения Амура // Скифо-сибирское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Материалы I Всесоюз. археол. конф. – Кемерово, 1980. – С.
- Шавкунов Э.В. Проявление «звериного стиля» в искусстве чжурчженей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 Владивосток, 1978. – С.
- Краминцев В.А. Городище Васильевка-3 новый памятник польщеского времени в Бикинском районе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Материалы VII Годовой итог. сес. Ин-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Дек. 2001 г. – Новосибирск, 2001. – Т. V. – С.
- Бродянский Д. Л. Кроуновского-хуннские параллели, //Древнее Забайкалье и его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1985 Новосибирск
- Дьякова О. В. Коновалов П. Б. Хуннские традиции в средневековом гончарств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Материалы по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связям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ие века,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Владивосток, 1988.
- Журавлёва А. Д. 1994 Соотношение керам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юнну и культур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I тыс до н. э. ,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 в южной сибир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I II Тысячелетии н. э. , Кемерово.
- Ковычев Е.В.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этн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Восточ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в конце 1 тысяч до н.э. - 1 тыс. н.э. //Известия лаборатории древних технологии, вы.4, изд. Иркутск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6.

고고자료로 본 백산말갈과 고구려의 책성

강인욱

문헌사에서는 고구려 성립 초기부터 멸망 직전까지 책성을 중심으로 연변지역으로 경영했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제 연해주와 연변 일대에서 전형적인 고구려의 흔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고고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백산말갈의 형성과 고구려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2세기경까지 북옥저는 읍루계통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올가문화로 존속했고, 관구검의 침략 이후 기존의 북옥저 계통의 문화가 와해되었다. 이후 4세기이후에 본격적으로 말갈문화가 등장했다. 관구검의 침략은 토착 사회에 큰 위기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기존의 북옥저 계통의 문화(=크로우노프카문화)가 완전히 없어지고 고지의 방어성 취락과 철제 무기의 급증 등으로 대표되는 말갈문화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잡곡농경에 기반하여 평지에 마을을 이루는 옥저계 주민들의 생계경제 대신에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는 말갈계통의 문화가 연변과 연해주 전역에 확산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연변지역 진출 초기부터 멸망직전까지 이러한 토착문화의 독자성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한편, 훈춘 고성촌 자료에서 보듯, 이 지역에 부여계 이주민이 들어와서 사원을 건설한 흔적도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 토착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되, 성지, 사원지와 같은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집단은 부여계통의 이주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6~7세기간에 고구려의 지배 과정에 대해서는 필자가 발굴한 크라스키노 성지의 최하 문화층의 발굴로 설명할 수 있다. 크라스키노 성지의 주요 사용 시기는 발해시기이지만, 최하층의 존재로 이미 고구려 시기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크라스키노 최하층에서 출토된 토기의 양상은 말갈계 토기보다는 고구려 계통의 일부 토기와 올가문화(=연해주 폴체문화)와 유사점이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바로 말갈계 문화가 일괄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따라서는 폴체계의 문화계통이 지속적으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희 2년명 토기의 존재로 볼 때 책성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와 연변 일대는 지속적으로 주변지역과 교류를 하며 그 존재를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관구검의 군대가 철저하게 옥저세력을 파괴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독자적으로 북옥저-백산말갈로 이어지는 토착민의 물질문화가 책성지역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타인의 묘지처럼 이러한 토착문화의 강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일부로서 강력한 소속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즉, 말갈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문화는 결코 하나의 민족집단이 아니었으며, 또 무조건 고구려/발해와 배치되는 세력이라 볼 수 없다. 말갈계 고고학적 문화 역시 시대와 공간적 맥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삼강평원의 두막루-물길문제에서도 제기된 바, 극동지역의 두 민족집단의 계통인 부여-옥저-동예로 이어지는 예맥계와 읍루-말갈로 이어지는 통구스계는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 받았다. 비슷한 상황을 책성-백산말갈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에서 제시된 주민집단을 도그마화해서 해석에 집착하기보다 계속 증가하는 고고학적 자료와 비교할 때 한반도 북방의 민족사상이 조금 더 체계적이며 명확하게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책성, 크라스키노, 북옥저, 말갈, 백산말갈, 읍루, 폴체문화, 고구려, 이타인, 부여, 연희2년명토기, 田丘儉(Guanqiu jian)

ABSTRACT

Archaeological Re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Baishan Mohe and the Governance of Goguryeo in the Tuman River Basin Area

Kang Inuk

According to historical documents, it is clear that Goguryeo expanded to the Tuman (or as Tumen) River basin and established Cheksung, a wooden fortress structure, in the early period of Goguryeo. In spite of this record, few traces of Goguryeo were found in the maritime area of Russia and Yanbian. Thus, the author has attempted to offer a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formation of Baeksan Malgal (or Baishan Mohe) and the governance of Goguryeo in this area. According to archaeological researches, Northern Okcho (=Wuji), recognized as the Tuanjie-Krounovka culture, transformed to the Olga culture in the first century CE and existed in to the second century CE. Later, around the fifth century CE, Mohe culture appeared in the far eastern region of Russia and the Yanbian area. Thus, there is a vacuum of three centuries

in archaeological culture. It is worthwhile to notice that this period of discontinuity coincides with the invasion by Guanqiu Jian, who was the general of the Wei dynasty. Under the invasion by Guanqiu Jian indigenous people of this area reformed their livelihoods from intensive cultivation of crops to a mixed economy of hunting, gathering, and stockbreeding. This change could be reflected as the appearance of the Mohe people.

In this period, the Goguryeo administration could be explained by two pieces of archaeological evidence. First, a pottery artifact from the Shu (蜀) dynasty that bears an inscription of the second year of Yianxi (延熙) was found in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Korean War. This shows a long-distance network in the Tuman area in the third century CE. Second, roof tile pieces in the Northern Wei style were recently found at the Guchengcun temple site in Hunchun. This unexpected artefact of the Northern Wei style shows that some hostages returned, and were sent to Northern Wei from Buyeo to construct Buddhist temples in the periphery.

The last period (sixth-seventh century CE) of Goguryeo governance in this area has been traced to the earliest layer of a Kraskino Balhae (or Bohai) fortress, mainly in sector 41 which was excavated by the author in 2009~2010. This layer is believed to date to the pre-Balhae period and revealed some fixed roof tiles and pottery of the Goguryeo type and pottery of the Olga (or poltse) culture.

In this way, governance by Goguryeo in Yanbian and in the far east of Russia was indirect and indigenous people gradually transformed from Okcho to Baishan Mohe. However, Goguryeo also sent some

people to build temples and fortresses, such as Guchengcun and the Kraskino site. Thus, in spite of the flourishing indigenous culture, the Yanbian area could belong to the Goguryeo identity as shown in the epitaphs of Yi Tayin (Li Taren) found in the Xi'an area of China.

Keywords: Central control, Chaekseong (柵城), Kraskino, Northern Okcho (Wuji), Yilou, Baishan Mohe (Baeksan Malgal), Poltche, Goguryeo, Yi Taiyin (李他仁), Buyeo, Yianxi pottery (延熙) second year, and Guanqiu Jian (毋丘儉)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현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I. 머리말
- II. 말갈의 계통성과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 III. 말갈 각부의 위치 및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 IV. 맺음말-‘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중국학계의 동북지역 정치세력 및 종족 집단 연구의 기본 전제와 논의의 방향은 거의 정해져 있다. 중국 고대 소수민족사라는 기본 전제하에 역사적 실체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 예 중의 하나가 말갈에 대한 연구이다.¹ 사서에 나오는 고대 만주지역의 여러 종족들이 이룩한 국가체와 그 역사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일관된 전제는 현재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이들 모두가 중국 고대의 소수민족이고, 그들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전개되는 연구는 당연히 한국 고대사와 인식상 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한중 간 학문적 견해차가 여러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적 견해차는 논거나 논리에 대한 분석과 비판, 새로운 고고자료의 발견 등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접점을 찾아간다. 그러나 중국학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하여 현재 영토 중심, 역사 귀속 중심의 역사연구에 치중하면서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정해진 결론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지역 고대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은 학계의 범위를 벗어나 한중 양국민들 사이에 감정적인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동북지역 고대 종족집단들은 모두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었지만 특히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종족은 예맥계와 숙신계였다. 고대사에 국한해서 논의하자

* 투고: 2018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1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1 권은주는 “근대 이후 중국의 말갈 연구는 중국사 내에서의 동북사, 중화민족사 내에서의 지방소수민족사의 체계적 정리와 위상 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및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발해사의 자국사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권은주, 2008, 「말갈연구와 유적현황」,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4쪽.

면, 이 중 예맥계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저, 예라는 국가체, 혹은 정치세력으로 중국 정사 열전에 이름이 올라갔다. 숙신계는 숙신, 읍루, 물길, 말갈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 예맥계와 숙신계는 지역적으로 겹겹이 있는 존재들이었으므로 역사 전개과정에서 상호 접촉하여 역사적 사건의 행위자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예맥계가 주축이 된 고조선, 부여, 고구려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를 서술할 때 이들 숙신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맥계와 숙신계에 대한 연구의 저변에는 항상 이들 역사의 소속에 대한 관념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런 면은 더 강화되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도 그런 의식이 뿌리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다. 역사의 소속, 즉 중국학계의 어법으로 한다면 역사 귀속 문제는 곧 현재의 국가와 영토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고대 만주지역, 즉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종족, 정치세력, 국가들의 역사를 분석할 때 현재의 관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고의 주제인 ‘고구려사에서의 말갈’을 볼 때에도 사료나 고고학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현재의 관점이 영향을 끼칠 때가 적지 않다. 말갈에 대해 논할 때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핀다거나, 동북지역에 거주했던 대표적인 민족 혹은 정치집단의 하나로 한족을 든다는 것 등에서 그런 면이 잘 드러난다. 최근 발표된 양옥다(梁玉多)의 저서에서는 물길-말갈의 출현에서부터 소멸까지의 긴 역사를 정리했는데, 다원일체화된 중화민족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물길-말갈이 지녔던 역할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물길-말갈 자체의 사회, 정치, 경제, 생활 습속, 종교사상 등 각 방면의 상황에 대해 서술했지만, 물길-말갈과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사안들을 살피는 시각을 견지했다.²

중국 역대 사서상의 동북 지역 종족들은 예맥, 동호, 숙신의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 김육불(金毓黻)이 여기에 한족(漢族)을 포함시켜 동북지역 민족 주체를 한족, 부여(예맥계), 동호, 숙신 네 계통으

2 梁玉多, 2017, 『勿吉-靺鞨民族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로 보는 견해를 제시했다.³ 그는 『동북통사(東北通史)』에서 동북사가 이 네 민족의 상호 경쟁에 따라 전개되었다고 보았다.⁴ 이것은 만주와 중원지역의 역사 문화적 관련성을 부정함으로써, 독자적인 만주사를 구축하고자 했던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에 맞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주장이었다. 즉 중원과 동북지역이 원래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었음을 강조하고자 동북사의 주요 종족으로 전통적인 3개 종족 외에 한족을 더 설정했던 것으로, 현실적 목적의식이 강하게 투영된 주장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김육불의 이런 주장을 오늘날 중국 학자들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이른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의 저변에 김육불의 동북사 인식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김육불은 일제의 만주침탈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이를 막고 동북사를 중국사로서 지켜 내야 하는 특수한 상황 아래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그런데 현대의 동북사 연구자들이 이런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동북지역에서 한족의 역할을 과하게 부각시키고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토착 세력인 예맥계 종족의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역사해석상 오류를 범하는 예가 적지 않다.⁶ 김육불의 동북사 인식은 그가 생존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과학적, 객관적

3 金毓黻, 1941, 『東北通史』; 동북아역사재단 역,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상·하)』.

4 그는 이런 인식에 따라 동북사를 부여계가 동북지구에서 주도권을 잡고 활동하던 고조선부터 고구려시기까지(上古~漢魏)를 1기, 동호와 부여 두 종족의 상호 경쟁 시대(晉~隋初까지)를 2기, 한족의 부흥시대(隋唐代)를 3기, 말갈·거란·여진·몽고의 迭興시대(唐 중엽~元末)를 4기로 구분했다. 동북지역에서의 한족의 활동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던 1기를 한족 개발시대라 하고, 수와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던 시기인 3기를 한족 부흥시대라 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김육불은 토착성과 재지성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적 사건에 함께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족을 동북지역 주요 민족 가운데 하나로 집어넣었다.

5 중국 長春에 있는 東北民族博物館에 게시되고 있는 ‘동북민족계보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

6 이는 발해를 속말말갈의 나라로 규정하고 여진의 금, 만주족의 청으로 계승되었음을 강조하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동북지역의 역사상 주역이 고대로부터 줄곧 한족과 만주족계였던것으로 정리해가는 것이다.

논증과정을 다시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주제인 말갈의 정체성과 계통성에 대한 논의도 중국학계의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비단 중국학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제시기 만주 지역의 역사지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일본학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학계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다. 고대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할 때 오늘날의 인식이 가미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과거 정치세력의 분포나 활동 내용을 현대 국가의 국경선, 현재의 관점에 의거해서 보면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역사에 등장하는 정치세력의 활동구역이나 소속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고구려와 말갈과의 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보려고 한다.

II. 말갈의 계통성과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중국 사서에 의하면 읍루(挾婁), 물길(勿吉), 말갈(靺鞨)은 아주 특징적인 문화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천장의 연기구멍으로 사다리를 통해 출입하는 깊고 큰 반지하식 수혈주거(堅穴住居) 풍습, 인뇨(人尿)를 세면에 이용하는 풍습, 독시(毒矢) 사용 등 세 가지는 이들에게 공통되는 특징이다.⁷ 기본적인 농산물과 저

7 金貞培,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出版部, 77~83쪽; 菊池徹夫, 1979, 「靺鞨とオホク文化」, 『三上次男博士頌壽紀念東洋史・考古學論集』, 442쪽. 한편 三上次男은 이 특징들이古아시아족에게 공통되는 현상이라고 보아肅愼과挾婁族을原古아시아족의 일파라 하였으며, 北魏代의勿吉과隋・唐代의黑水靺鞨이 이들과 같은 종족이라고 보았다.(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234~243쪽.

(猪)·초(貂)의 생산, 궁시(弓矢) 사용 등에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고대 종족인 숙신의 경우 성격상 불분명한 점이 많아 실재하지 않은 존재라고 보기도 하지만, 동북변경에 살았고 고시(楛矢)와 석노(石弩)를 사용하는 미개한 종족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국사서에서는 말갈과 동일계통의 집단으로 간주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정사에서는 숙신-읍루-물길-말갈이라는 전통적인 계보설정이 이루어졌다.⁸

이를 일원적 계통론이라 할 수 있는데, 20세기 초 만주 지배를 도모했던 일본 제국주의 학자들 가운데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⁹, 도리아마 기치(鳥山喜一)¹⁰, 오가와 히로토(小川裕人)¹¹ 등도 이 계통론을 인정했다. 쓰다 소우키치와 도리아마 기치는 물길과 말갈을 여진 민족 중 일부 부락의 이름으로 보았다. 오가와 히로토는 물길과 말갈을 읍루계라고 칭하고 이들이 뒤에 두만강유역으로 갔고 고구려 멸망시에는 강릉 부근까지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원적 계통론은 1980년대 이전까지 중국학계의 보편적인 관점이었고,¹²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³ 중국학계에서는 특

8 ‘靺鞨’이란 部族名은 『北齊書』 武成帝紀 河清2年(563)條의 “是歲 室韋庫莫奚靺鞨契丹 竝遣使朝貢”이란 기사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이후 『수서』 말갈전, 『구당서』 말갈전, 『신당서』 흑수말갈전, 『구오대사』 흑수말갈전, 『신오대사』 흑수말갈전 등 모두 5종의 사서에 열전이 입전되었다. 中國正史에서는 고대의 肅慎에서 말갈의 연원을 찾아, ‘古代의 肅慎→東漢의 挹婁→元魏의 勿吉→隋唐의 靺鞨→金の女眞’이란 계통론을 정설로 삼고 있다.

9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第1, 東京帝國大學 文科大學.

10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7~8쪽.

11 小川裕人, 1937, 「靺鞨史研究に於ける諸問題」, 『東洋史研究』 2-5.

12 梁玉多, 2017, 앞의 책, 1쪽.

13 한규철은 중국에서 동북방 민족의 실상을 비교적 자세히 알게 된 것은 隋·唐代에 가서이며, 동북방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기록에 반영되어 숙신, 읍루, 물길, 말갈 등의 명칭이 ‘호시석노’를 쓰는 등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진 집단들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면서 일원적 계통인식이 생겼을 것으로 보았다. 한규철, 1998, 「숙신·읍루 연구」, 『백산학보』 35; 한규철, 1988, 「고구려시대의 말갈 연구」, 『부산사학』 제

히 1970년대 이후 발해의 건국 주체와 관련하여 말갈의 일원적 계통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¹⁴ 즉 왕승례(王承禮), 진현창(陳顯昌)과 풍계흠(馮繼欽) 등은 숙신 이래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거쳐 말갈이 발해를 세웠다고 주장했다.¹⁵ 이 중 왕승례는 말갈을 발해의 전신으로 상정하고 “발해 지방 봉건 정권의 출현은 장기간 동북방에 거주한 말갈 역사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며, 숙신-읍루-물길-말갈이 “여진족-만주족의 선세(先世)로서 중화민족 대가정의 한 구성원이며 조국 역사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했다.¹⁶ 이는 발해 건국 주체세력으로서의 고구려의 위상을 낮게 평가하고, 발해를 말갈의 역사로 규정하여 발해-금-청으로 이어지는 중국사로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발해를 말갈의 나라로 성격지움으로써 그 역사를 한국사에서 분리하여 중국사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손옥량(孫玉良), 위국충(魏國忠)도 말갈의 일원적 계통설론자에 속한다. 이들은 말갈이 수당 시기에 흑룡강, 송화강 일대와 장백산 지구를 중심으로 거주하며 활동하던 중국 고대민족으로 계통은 위진남북조 시기의 물길이 발전해온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숙신, 읍루, 물길은 서로 혈통을 계승했거나 같은 족계에서 발전했다고 보고, 그 근거로 문헌에서 이들을 계승관계로 기술한 것, 숙신에서 말갈에 이르는 동안 이들의 거주지역¹⁷, 언어와 생활자료의 공통점, 특히 돌화살과 돌화살촉 등을 볼 때 숙신-읍루-물길-말갈을 한 민족으로 볼 수 있다

14·15합집.

- 14 김락기는 이에 대해 다민족통일국가라는 중국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김락기, 2013, 『고구려의 동북방 경역과 물길 말갈』, 경인문화사, 8쪽.
- 15 王承禮, 1979, 「靺鞨的發展和渤海王國的建立」, 『吉林師大學報』1979-3; 陳顯昌, 1983, 「渤海國史概要(一)」, 『齊齊哈爾師範學院學報』1983-1; 馮繼欽, 1982, 「靺鞨族共同體類型及其特征初探」, 『北方文物』1986-2.
- 16 王承禮, 1979, 위의 논문; 孫進己·孫海 主編,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渤海卷(一)』, 哈爾濱出版社, 119쪽.
- 17 馮繼欽, 1986, 「靺鞨族共同體類型及其特征初探」, 『北方文物』제2기.

는 것 등을 들었다.¹⁸

이처럼 숙신부터 말갈까지 일원적 계통설을 주장하는 경우, 읍루는 숙신, 물길은 읍루, 말갈은 물길의 바뀐 이름이라고 본다. 즉 읍루, 물길, 말갈은 같은 존재인데, 시기에 따라 달리 불렸다고 보며, 후자는 전자의 직계 후예라고 본다. 이 경우 왜 시대별로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그 거주지가 주로 산림에 있었기 때문에 읍루가 물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거나¹⁹, 숙신은 이들이 자칭한 것이고, 여진은 숙신의 동음이역(同音異譯)이며, 읍루는 혈거(穴居)를 의미하는 타칭이고, 물길, 말갈은 추장의 칭호가 부락의 이름으로 오인된 것²⁰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숙신과 읍루는 자칭이고, 물길과 말갈은 복조, 수, 당에서 그들을 부른 타칭이라고 본 견해도 나왔다.²¹ 하지만 숙신~말갈로 지칭되는 존재들을 부른 호칭이 시대에 따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게 논리적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 역대 사서에서 이전 시기에 기록한 어느 종족의 언어유통 상황이나 생계수단, 의식주 관습, 그리고 석축(石鐮)과 독시의 사용 풍습들을 다음 시기의 전혀 다른 종족의 열전에 따서 붙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원왕조의 사서 편찬자들은 동북 지역 여러 정치세력과 종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열전에 입전했을 것이다. 중간에 들고 남이 있더라도 적어도 예맥, 동호, 숙신으로 동북 지역 종족들을 크게 구분하고, 읍루, 물길, 말갈을 숙신의 후계로 분류했던 것은 이들 사이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²²

그러나 숙신, 읍루, 물길, 말갈에게 공통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제

18 이에 대해서는 권은주, 2008, 앞의 논문, 28쪽 참조.

19 楊保隆, 1989, 『肅慎挹婁合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34~236쪽.

20 呂思勉, 1987, 『中國民族史』, 東方出版中心, 137쪽.

21 張博泉, 1993, 『女真新論』, 吉林文史出版社, 42~45쪽.

22 김현숙,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의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6, 222쪽 註25.

(葬制)나 복식(服飾) 등의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증원 왕조에서 말갈 등에 관해 접한 정보의 차이나 사서 논저(編者)의 흥미 차이, 더 나아가 민속(民俗)·문화(文化) 그 자체의 시간적 변화로 인해 생긴 차이인지도 모른다 는 지적이 나왔다.²³ 이는 이들뿐 아니라 다른 종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선진 시기부터 금대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고정된 위치에서 동일한 구성원들이 같은 생활습속을 유지하며 계속 존속할 리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이 바뀌고 거주지가 달라지거나, 시간에 따라 생활습속이 변화되는 것은 어느 종족, 어느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갈의 경우 숙신, 읍루, 물길 등에 비해 분포범위도 광범위 하고 생활 풍습도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활동지역과 양상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원적 계통설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²⁴ 이 경우 숙신-읍루-물길-말갈을 계승관계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말갈 7부 자체도 모두 하나의 정치집단이나, 같은 종족계통으로 보지 않는다.

말갈을 하나의 종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먼저 제시한 사람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이다. 그는 읍락마다 장(長)이 있는 등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못한 물길이 고구려 영토를 공략하고 숙신을 복속시키며 부여왕가를 내쫓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물길 지배층과 그 영역 내에 포함된 주민은 주로 부여족이라고 보았다.²⁵ 물길(말갈)을 숙신계통과 다른 종족이라고 본 것이다. 이 견해는 히노 가이사부로(日野開三郎)에 의해 더 확장되고 정리되었다. 그는 만주지역에서 대규모 민족이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백산부는 옥저의 후예, 속말부는 부여의 후예로 보고, 예맥계 말갈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속말과 백산

23 菊池徹夫, 1979, 앞의 논문, 442~447쪽.

24 숙신-읍루-물길-말갈의 일원적 계통론에 대한 의문은 20세기 들어 꾸준히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河上 洋, 2006, 「東北アジア諸民族の民族的系譜について-肅愼から渤海へ-」, 『研究論集』2, 名古屋河合教育研究所 참조.

25 池内宏, 1934, 「勿吉考」,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5; 1951, 『滿鮮史研究』上世 第一冊(재수록), 518~519쪽.

부는 예맥계, 기타 5부는 순통구스계라고 구분하는 말갈의 다원적 계통론을 제시했다.²⁶

우리 학계에서도 말갈의 종족 계통을 분리해보는 설이 나왔다. 권오중은 『수서』와 『구당서』에 기록된 말갈의 거주지가 고구려 영역과 상당히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말갈의 계통을 읍루계와 예맥계로 구분한 이원적 계통론을 내놓았다. 그는 속말말갈, 백산말갈, 안거골말갈, 백돌말갈을 ‘예계 말갈’, 그 외의 말갈을 ‘읍루계 말갈’로 분류했다.²⁷ 박노석도 예맥계 말갈과 숙신계 말갈로 구분하였다. 그는 『수서』 말갈전에 “불열부의 동쪽으로는 화살에 모두 석축을 사용하므로 옛날의 숙신씨이다”라고 나오는 것에 의거, 『수서』 편찬자도 불열부 동쪽과 서쪽의 말갈을 다른 계통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고, 불열부 동쪽의 말갈을 숙신계 말갈로 분류했다.²⁸ 이순근은 고구려 안에는 주로 속말, 백산, 백돌, 안거골 말갈지역에 산재해 있던 숙신부류와, 예맥계로서 고구려에 융합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집단 자치를 유지한 말갈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이 중 고구려 경역 내에 거주하며 군사적으로 기여했던 말갈이 고구려와 동일한 종족계통의 예맥계 일파라고 했다.²⁹

그러나 이와 달리 노태돈은 맥, 예와 말갈 간에는 종족 명칭상 비슷한 점을 찾기 힘들고, 말갈이란 명칭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기에 이들을 굳이 예족으로 파악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³⁰ 말갈 안에 예맥계 말갈이라는

26 日野開三郎, 1948, 「靺鞨七部の前身とその屬種」, 『史淵』 38·39合, 63쪽; 1991, 『東北アジアの民族史(中)』, 三一書房(재수록).

27 권오중, 1980, 「말갈의 종족계통에 관한 시론」, 『진단학보』 49, 21쪽.

28 박노석, 2013, 「6세기 말 7세기 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수서』『말갈전』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5, 114쪽.

29 李純根, 1995, 「靺鞨의 種族 正體性에 대한 一研究」, 『論文集』 2,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14~20쪽. 이에 대해 김락기는 “이 견해는 중국 사가의 말갈에 대한 기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대세론적 측면의 접근이라는 비판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락기, 2013, 앞의 책, 11쪽.

30 盧泰敦, 1985,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남봉우는 숙신 혹은 읍루계 말갈과 예맥계 말갈이 있다고 본 것은 실제 종족상의 구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인이 예맥계 주민의 거주지역까지도 말갈 7부라는 범주에 넣어 파악함으로써 생긴 혼돈이라고 보아 실제와 기록이 다른 것으로 이해했다.³¹

그런 한편 한규철은 말갈을 수당시기 중국인이 동북아시아 이종족을 낮추어 불렀던 범칭이자, 고구려의 일부 피지배 주민을 가리키는 종족명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갈의 어원 고찰을 통해 말갈이란 고구려의 변경민을 일컫는 이름이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³²

중국학자들 중에도 말갈의 일원적 계통론에 부정적인 연구자들이 있다. 숙신, 읍루, 물길, 말갈의 계승성을 부정하고, 말갈 7부 자체도 동일한 정치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설을 제기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손진기(孫進己)다. 그는 풍영겸(馮永謙)과 함께 저술한 책에서 572년(武平 3)에 물길이 마지막으로 조공했는데, 말갈이 563년(北齊 武成帝 河清 2)에 이미 첫 조공을 한 이후 572년까지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았고, 554년에는 숙신이 조공한 기사도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20여 년 사이에 숙신, 물길, 말갈이 각각 복제에 조공을 했다는 점에서 숙신→읍루→물길→말갈이라는 일원적 계통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문제를 『위서』 물길전에 나오는 “읍락에는 각각 거수가 있어 서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기록과 연결시켜 이해했다.³³ 즉 그는 숙신, 읍루, 물길, 말갈의 조공 기록 중에서 물길 시기에 나타나는 숙신의 조공과 말갈시기에 나타나는 물길의 조공 기록을 근거로 이들

會』, 역사학회, 272쪽.

31 南奉佑, 1993, 「對隋唐戰爭을 통해 본 高句麗의 靺鞨支配」,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쪽.

32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2절 「발해국의 주민이 된 고구려말갈」에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33 孫進己·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 제2권, 黑龍江人民出版社, 163~164쪽.

은 서로 계통을 달리하는 정치체라고 결론을 내렸다.³⁴

논지에 약간씩 다른 점이 있지만, 일원적 계통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간지경(干志耿), 손수인(孫秀仁), 동만륜(董萬崙), 위국충(魏國忠), 주국침(朱國忱), 양옥다(梁玉多) 등도 이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숙신이 하나의 큰 족계이고, 그 내부에 다른 민족 혹은 부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숙신, 읍루, 물길은 모두 이 족계 중의 하나의 성원으로, 다른 시기에 존재했던 세력 중 가장 큰 것이 그 족계의 명칭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같은 족계에 속하는 정치세력 중에서 중원정권과 관계를 맺은 경우, 중원정권이 그들의 이름을 이 족계의 이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즉 서한시기에는 이들 중 읍루부가 가장 강대해서 널리 알려지게 됨에 따라 읍루라 불렸고, 남북조시기에는 물길부가 강대해져서 중원정권과 관계를 맺게 되자 자연스럽게 물길이 그 족계의 대칭(代稱)이 되었다는 것이다.³⁵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역시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는 견해들이 있다. 유효동(劉曉東)은 읍루와 물길, 말갈의 관계를 동일한 족계의 다른 시기에 활동한 다른 부락의 이름이거나, 혹은 다른 시기에 동일지역에서 활동한 두 개 민족일 수 있다고 보았다.³⁶ 또 범은실(范恩實)은 상주시기에는 숙신만 있었는데 이들은 요령 서부와 내몽고 동남부 일대에 있었고, 춘추시기에는 장백산 지구로 옮겨갔으며, 그 후 다시 송화강 하류와 흑룡강 하류지구로 옮겨가 숙신이라 칭해진 것으로 보았다.³⁷ 이 두 사람의 입장도 실질상 숙신과 읍루를 동일 족계의 다른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양옥다는 숙신, 읍루, 물길의 동시 존재설을 종합, 정리한 후 “숙신, 읍루, 물길은 동일 족계의 다른 민족 혹은 부족이다. 강성하냐 아니냐와 중원정권에 알려지게 되었냐 아니냐가 원인이었지, 다른 시기에 그들이 개

34 孫進己 著, 林東錫 譯, 1992, 『東北民族源流』 제7장, 東文選.

35 이에 대해서는 梁玉多, 2017, 앞의 책, 2쪽 주2 참조.

36 劉曉東, 2013, 「挹婁, 靺鞨關係의 考古學討論」, 『北方文物』, 2013年 第1期.

37 范恩實, 2002, 「肅慎起源及遷徙地域略考」, 『民族研究』, 2002年 第3期.

별적으로 전체 숙신계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 광의로 말하면 3자는 서로 같은 것이며 모두 숙신족계를 대표한다. 다만 협의상으로 같지 않은데 이는 그들이 각자 다른 민족 혹은 부족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했다.³⁸

한편, 물길과 말갈의 관계에 대해서는 숙신, 읍루, 물길, 말갈의 관계 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다. 숙신으로부터 말갈까지 이어지는 일원적 계통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물길과 말갈은 서로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말갈이 물길의 후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때도 말갈족 전체가 물길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말갈 7부 가운데 특정 부만 물길의 후손이며, 물길과 그를 이은 말갈 모두 다양한 집단들의 결집체라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이것은 말갈 7부 각각의 성격이나 상호 관계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말갈의 근원을 부여의 후예로 보는 견해가 있다. 히노 가이사 부로는 “이통하 유역에 주로 거주하던 부여의 후예가 물길에 복속된 뒤 물길의 중원 왕조로의 조공을 앞장 서 이끌어왔는데, 뒤에 돌궐 세력에 의해 물길이 쫓겨가자 독자적으로 중원왕조에 조공을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높은 문화를 향유하던 부여의 후예이므로 물길이란 이름을 버리고 대표적인 정권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물길 때부터 그들을 접해왔던 중원의 사가들이 별도로 그들을 지칭할 적당한 명칭이 없어 물길의 이역(異譯)인 말갈을 사용했다. 따라서 말갈이란 이름은 주로 이통하(伊通河) 유역에 거주하며 중원왕조와 교류했던 부여의 후예들을 중원인이 임의로 불렀던 것으로, 뒤에 고구려족 이외의 통구스족에 대한 총칭으로 변해갔다”고 했다.³⁹ 히노는 거주지와 대외관계의 일치, 호칭의 잔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⁴⁰ 거주지의 일치란 부여족과 속말부 모두 이통하 유

38 梁玉多, 2017, 앞의 책, 6쪽.

39 日野開三郎, 1946, 「勿吉考」, 『史淵』35; 1988, 『東北アジア民族史(上)』, 三一書房(再收), 526쪽.

40 日野開三郎, 1948, 「靺鞨七部の前身とその屬種」, 『史淵』38統合, 111~113쪽.

역을 기반으로 하여 농안(農安), 장춘(長春), 길림(吉林), 휘발하(輝發河)의 곡지(谷地)를 요지로 했다는 것이고, 대외관계의 일치란 모두 고구려와 돌궐에 나누어 신속했다는 것, 호칭의 잔존은 돌지계(突地稽)에게 수나라에서 부여후(夫餘侯)란 작호를 내린 것, 『구당서(舊唐書)』지리지 진주조(慎州條)에 ‘속말말갈(涑沫靺鞨) 아소고부락(烏素固部落)’이라 한 것을 같은 책 여주조(黎州條)에서는 ‘부유말갈(浮渝靺鞨) 아소고부락(烏素固部落)’으로 기록한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송기호는 속말부를 부여의 후예라 본 것은 혈연적인 계승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것인데, 종족 간의 이합집산이 수시로 일어나는 고대사회에서 혈통은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⁴¹ 속말부를 부여의 후예로 보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⁴² 그는 부여 역사의 흥망성쇠와 물길의 흥기와 이동, 쇠퇴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 정리한 끝에 속말부는 물길의 후신이었으며, 여기에 부여유민들도 일부 속해 있었을 뿐 속말말갈이 곧 부여의 후예였던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⁴³

김락기도 “속말부 안에 부여 유민이, 백산부 안에 옥저 유민이, 경우에 따라 한족(漢族)도 섞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말갈 속말부를 부여후예로, 백산부를 옥저 후예로 간주하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부가 섞여 있든, 주류를 차지하든 스스로 내세우는 정체성이 부여나 옥저가 아닌 이상 종족 계보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두 가지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⁴⁴ 그는 또 “554년 숙신의 조공과 572년 물길의 조공 이후 더

41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41쪽.

42 김락기도 부여의 항복은 물길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부여 지배층 및 부여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집단도 항복한 국왕을 따라 고구려로 옮겨갔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원거주지에 남은 사람들이 물길의 지배하에 생활했음은 틀림없지만 그것과 물길을 부여족의 후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락기, 2013, 앞의 책, 172쪽.

43 송기호, 2003, 「속말말갈의 원류와 부여계 집단 문제」,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44 김락기, 2013, 앞의 책, 11쪽.

이상 이들의 이름으로 조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독자적 정치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갈이 만주 동북지역 대표 종족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물길은 말갈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를 배제하면 대체로 말갈의 속말부와 불열부로 흡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⁴⁵

언어학적 측면에서 살핀 연구들도 나왔다. 중국의 장박천(張博泉)은 『동북고대민족고고여강역(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에서 “물길, 말갈, 발해는 모두 같은 음이 변한 것이다. 물길, 말갈, 발해는 만주어 와집(窩集)으로 ‘삼림(森林)’이란 뜻을 가진 말이다. 또 물길은 물가에 거주하는 사람 즉 ‘강인(江人)’, ‘강민(江民)’을 말한다. ‘길(吉)’과 ‘갈(鞑)’은 모두 ‘인(人)’과 같은 뜻”이라고 했다.⁴⁶ 유효동도 물길과 말갈이란 이름은 동일한 호칭의 전음(轉音)이었다고 했다.⁴⁷ 두 사람은 물길과 말갈이 선후관계에 있었던 같은 부족이었다고 본 것이다.⁴⁸

그러나 이덕산(李德山)은 이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숙신과 예맥족이 융합되어 형성된 새로운 명칭이 물길이며, 이는 원래 ‘맥진(貊震)’인데 북위가 독음할 때 ‘물길’로 발음하면서 전음된 것이라고 했다.⁴⁹ 그는 280년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숙신인 600여 가가 고구려에 의해 사민당하고 6~7개 부락이 항복했던 사례와 매년 고구려를 노략했다는 기사, 북위 시기에 부여가 물길에게 쫓겨난 기사, 고구려의 10부락을 공파한 사건 등을 근거로 들며, 이 과정에서 예

45 김락기, 2013, 앞의 책, 88쪽.

46 張博泉, 1998,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47 劉曉東, 2007, 『靺鞨文化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쪽.

48 물길과 말갈, 음류의 고음, 발음에 대한 분석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핀 글은 국사편찬위원회, 1987, 『譯註 中國正史 朝鮮傳(一)』, 570~572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117~118쪽; 范恩實, 2003, 『靺鞨族稱新考』, 『北方文物』2003-3, 66~70쪽 참조.

49 李德山, 2006, 『六至九世紀東北邊疆民族與中央王朝關係史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0~192쪽; 2008, 『隋唐時期東北邊疆民族與中央王朝關係史研究』, 香港:香港亞洲出版社.

맥계와 숙신계가 상호 융합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구려가 복위 등 선비계에 의해 압박을 받던 시기에 새롭게 숙신계가 대거 남하하여 민족융합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때 송화강 중하류 유역으로 진입한 숙신계 일부가 부여인을 복속시켰고, 옥저 지역으로 남하한 일부는 이들 지역을 장악한 후 각각 그 지역의 예맥계와 그 이전 시기에 남하했던 숙신인들과 융합하면서 숙신이 주체가 된 새로운 민족인 ‘물갈’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는 또 주루(紇婁)가 전환된 것이 읍루이고, 읍루는 숙신과 같은 단어라며, 숙신 내의 읍루가 성장하여 범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⁵⁰

한편, 말갈의 계통과 어원에 대한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설⁵¹과 달리 말갈의 어원을 고구려, 신라, 백제와 관련지어 살핀 논문이 나와 주목을 끈다.⁵² 범은실은 말갈이란 명칭이 한반도에서 먼저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말갈이란 단어는 말갈족의 보석에서 온 것으로 숙신계 민족의 석호(石櫛)를 말한다고 했다. 그는 “백산부는 399년에 고구려에 신복한 숙신부족이고 이들은 이전에 백제, 신라를 공격했던 말갈인들이다. 고구려가 그들을 정복한 후 백제, 신라인들이 그들을 부른 말갈이라는 호칭을 접수하였고, 그 후 고구려에서도 숙신 대신 말갈이라고 기재했다”는 새로운 설을 내놓았다. 그는 말갈이란 명칭이 중원에 전해진 것은 바로 백산말갈 때문이라고 했다.⁵³

범은실은 자신의 설을 재차 정리하여 “말갈은 신라, 백제인들이 반도지구에 진입한 호시석노를 사용하는 숙신인들을 부른 칭호였다. 이후 이 숙신인이 고구려에 귀부하게 되면서 중원사서에 백산부로 기재되었다. 그 명칭을 고구려가 접

50 李德山, 1996, 앞의 논문, 313~318쪽. 이에 대해서는 권은주, 2008, 앞의 논문, 36쪽 주 37 참조.

51 말갈의 계통과 어원에 대한 중국학계의 학설은 권은주, 2008, 앞의 논문, 28~32쪽 참조.

52 范恩實, 2003, 「靺鞨族屬及渤海建國前的靺鞨與周邊關係」,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王小甫, 主編), 北京大學盛唐研究叢書, 上海辭書出版社.

53 范恩實, 2003, 「靺鞨’族称新考」, 『北方文物』2003-3, 68~69쪽.

수한 것이다. 복제시에 이르러 고구려와 중원관계가 강해졌을 때 백산부가 중원에 입공하였고, 그 명칭을 중원인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구려가 중원정권과 동북지구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으므로 말갈이란 이름이 물길을 대체해서 숙신민족을 통칭하게 되었다.”고 했다.⁵⁴ 이 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이른 시기부터 나오는 말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함경남북도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말갈이라고 보았다. 즉 만주지역에 거주하던 숙신인 일부가 주변 외족들의 압력을 받아 동북방으로 옮겼는데, 일부는 연변지구로 들어갔고, 일부는 백두산을 넘어 자연조건이 훨씬 좋은 남쪽으로 내려가 원주민의 힘이 약한 옥저지구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자주 침략을 당하던 백제와 신라가 호시와 석노를 사용하는 그들을 ‘말갈’이라 칭했다며, 호태왕 8년(399) 무술에 병사를 보내 조공논사하도록 했던 식신토곡(息愼土谷)의 식신이 바로 백산말갈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과의 전쟁에서 당군에 포위된 안시성을 구하러 출동했다가 항복했던 남부옥살 고혜진이 바로 백산말갈인이며, 백산말갈의 거주지는 길림 연변지구가 아닌 함경남북도 지구라고 했다.

한반도 지역에서 물길을 말갈로 처음 불렀을 가능성은 이덕산 등도 제기했다. 이 경우 『삼국사기』에 물길이란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해 동북민족과 삼국민이 물길을 그 전음인 말갈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남북조 시기에 숙신이 점차 물길로 대체되어 불리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백산부가 4세기 말경 고구려에 부용되면서 물길의 전음이던 말갈이 점차 족칭으로 받아들여져 중원에 전래되었으리라 보는 것이다.⁵⁵

고고학적으로 말갈의 계통성 문제를 살핀 연구도 있다. 유효동은 고고학문화의 분포와 시기별 변천에 따라 읍루와 말갈의 관계를 추론해보면 동일족계 다른 부락의 명칭이 다른 시기 혹은 다른 시기에 활동한 동일지역의 두 민족으로

54 范恩實, 2003, 위의 논문, 70쪽.

55 권은주, 2008, 앞의 논문, 38쪽.

기록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다.⁵⁶ 그리고 이종수는 삼강평원의 초기 철기시대 고고문화로 폴체-완연하(蜿蜒河)문화, 곤토령(滾琿嶺)문화, 봉림(鳳林)문화, 동인(同仁)1기문화 등이 있는데, 폴체-완연하문화와 곤토령문화의 연대는 대략 BC.2~AD.2세기까지이고, 봉림문화는 AD.2~AD.5세기까지, 동인1기문화는 4~7세기까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칠성하구역은 곤토령문화에서 봉림문화로 이어지고 있고, 흑룡강 중류와 송화강하류 지역은 폴체-완연하문화에서 동인1기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문화유형의 내용을 분석하여 폴체-완연하문화와 곤토령문화는 읍루계 문화전통을 공유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집단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곤토령문화를 영유한 집단은 이후 물길의 문화인 봉림문화를 거쳐 제2송화강구역의 속말말갈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물길의 남진과 관련된 유적으로 구태(九台)시 상하만진(上河灣鎮) 보루군을 들고, 폴체-완연하문화를 영유한 집단은 후에 동인1기 문화를 이룩한 흑수말갈로 발전했다고 정리했다.⁵⁷

56 劉曉東, 2013, 앞의 논문.

57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 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高句麗渤海研究』 41, 9~36쪽.

III. 말갈 각부의 위치 및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 말갈 7부의 위치에 대한 논의

말갈 7부의 위치는 『수서(隋書)』 말갈전⁵⁸과 『구당서(舊唐書)』 말갈전⁵⁹, 『신당서』 흑수말갈전(黑水靺鞨傳)⁶⁰에 나오는 기사를 기준으로 대략 추정해왔다. 그런데 이 사료들에는 각부 말갈의 위치가 매우 불분명하게 적혀있다. 따라서 학자들의 위치비정도 이설(異說)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선행(先學)들의 위치비정은 주로 수·당대의 말갈 7부에 대해 이루어졌다.⁶¹

일본학계의 이케우치 히로시는 속말부는 길림 중심 북류송화강(北流松花江) 중류역(中流域), 백돌부는 백도눌(伯都訥)을 중심으로 한 지방, 안거골부(安車骨部)는 아룩초객하(阿勒楚喀河) 유역, 불열부는 유수구(榆樹溝) 부근 유수

58 말갈은 고려의 북쪽에 있다. 읍락에는 모두 주장이 있으나 하나로 합해지지는 않았고 7종이 있다. 그 첫 번째는 粟末部로 고려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勝兵은 수 천이고 모두 용감하여 매번 고려를 노략질한다. 두 번째는 伯咄部로 속말의 북쪽에 있다. 승병은 7천이다. 세 번째는 安車骨部로 백돌의 동북쪽에 있다. 네 번째는 拂涅部로 백돌의 동쪽에 있다. 다섯 번째는 號室部로 불열의 동쪽에 있다. 여섯 번째는 黑水部로 안거골 서북쪽에 있다. 일곱 번째는 白山部로 속말의 동남쪽에 있다. 승병은 모두 3천을 넘지 않으나 흑수부가 더욱 강건하다. 불열부 동쪽에서는 화살에 모두 석축을 사용하는데 옛 肅慎氏이다. (『隋書』靺鞨傳)

59 말갈은 동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로는 돌궐, 남으로는 고려, 북으로는 실위와 접하고 수심부로 나뉘어 있었고 혹은 고려에 부용하며 혹은 돌궐에 신속되었다. (『舊唐書』권199 하 열전 제149하 北狄靺鞨)

60 속말부가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太白山 혹은 徒太山에서 고구려와 접하고 粟末水에 의지하며 거주한다. (中略) 속말의 동쪽이 백산부이고 부 사이의 거리는 먼 것은 3~4백리, 가까운 것은 200리라고 하였다. (『新唐書』권 219 열전 제144 北狄 黑水靺鞨)

61 權五重, 1980, 「靺鞨의 種族系統에 관한 試論」, 『震檀學報』 49; 傅朗云·楊陽, 1983, 『東北民族史略』, 吉林人民出版社; 王承禮著, 宋基豪譯, 1987, 『발해의 역사』,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金廷學, 1958, 「北方亞細亞民族考(二)」, 『亞細亞研究』 1, No.2; 李龍範, 1975, 「大陸關係史: 古代篇(上·下)」, 『白山學報』 18·19; 盧泰敦,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榆樹) 및 오상(五常)을 포함한 지방, 호실부는 영고(寧古) 및 둔화(敦化)포함 호이객하(瑚爾喀河) 유역, 흑수부는 삼성이동(三姓以東) 부극금이서(富克錦以西) 송화강(松花江) 연안, 백산부는 연길(延吉) 중심 간도(間島)지방으로 비정했다. 오가와 히로토는 속말부는 길림·오납가(烏拉街) 중심 북류송화강(北流松花江) 유역, 백돌부는 백도눌 지방, 안거골부는 아십하(阿什河) 유역, 불열부는 영안(寧安)의 삼림지대, 호실부는 훈춘(琿春), 흑수부는 의란(依蘭) 이동(以東) 송화강하류역(松花江下流域) 흑룡강(黑龍江)지방, 백산부는 둔화(敦化)로 비정했다. 히노 가이사부로는 속말부는 휘발하 유역 길림 오납 중심 송화강유지 농안 중심 이통하 유역, 백돌부는 농안 중심 속말말갈의 북부에서 동서로 걸쳐 있었고, 안거골부는 아록초객하 유역 전체, 불열부는 장광재령(長廣才嶺) 이동(以東)의 삼림지대, 서로는 호이객하 포함, 호실부는 흑룡강 하류역(일부는 우수리강까지 남하), 흑수부는 흑룡강과의 합류점에 이르는 송화강 유역일대, 백산부는 둔화·간도방면부터 함경남도 방면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비정했다.⁶²

한국학계의 노태돈은 속말부는 북류송화강 휘발하 유역 부여성 서북, 백돌부는 납림하(拉林河) 유역, 안거골부는 아록초객 중심 평원지대, 불열부와 호실부는 납림하 유역 동쪽방면, 흑수부는 동류송화강 하류(東流松花江 下流) 일대, 백산부는 백두산 부근 일대로 보았다.⁶³ 김정학은 안거골부는 아록초객, 백돌부는 납림하 동쪽, 백산부는 둔화와 훈춘으로 비정했다. 이용범은 속말부는 북류송화강 유역, 백돌부는 백도눌, 안거골부는 아록초객 유역, 불열부는 목단강(牡丹江) 유역 영고탑(寧古塔)~삼성, 호실부는 삼성동방(三姓東方)~동류(東流) 송화강 하류, 흑수부는 흑룡강 유역, 백산부는 백두산으로 보았다.

김락기는 북류 송화강이 길림시를 지나 북쪽으로 흐르다 서쪽으로 방향을

62 日野開三郎, 1946, 「勿吉考」, 『史淵』 35; 1988, 『東北アジア民族史(上)』, 三一書房(再收), 524~526쪽; 1948, 「靺鞨七部の前身とその屬種」, 『史淵』 38·39合; 1991, 『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房(再收), 123~128쪽.

63 노태돈, 1985,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틀어 흐르는 곳에서 송화강에 합류하는 이통하, 무개하, 음마하, 목석하 일대에 속말부가 분포했고, 그 중에서 이통하 유역 거주민이 주로 고구려와 상쟁했다고 보았다. 속말부의 북쪽에 위치하였다는 백돌부는 청대 백도놀인 부여현을 중심으로 남림하 이북의 흑룡강성 쌍성시 부근으로, 백돌부의 동북쪽에 있는 안거골 부는 아십하 중·하류에 해당하는 흑룡강성 아성시와 하얼빈시 중심 구역, 호란 하가 동류 송화강에 합류하는 하얼빈시 호란구 일대를 포함한 지역으로 보았다. 불열부는 속말부의 동쪽에 위치한 남림하 중류의 오상일대와 망우하 부근, 좀 더 넓게 보면 오상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상지시 일대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불열부의 동쪽에 있다고 한 호실부는 장광재령과 과회산 사이의 목단강 중하류와 과회산 동쪽의 임구현 일대로 보았다.⁶⁴ 그리고 흑수부는 대략 동류 송화강과 목단강이 합류하는 의란현에서부터 흑룡강과 송화강이 합류하는 동강시 일대에 매우 넓게 퍼져 있었다고 보았고, 백산부는 영안에서 경박호를 거쳐 돈화에 이르는 목단강 상류의 대독정자산 동남쪽 지역으로 비정했다.

김락기가 가장 중점을 두고 살핀 것은 물길의 도태산이다. 도태산은 백두산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김락기는 대독정자산으로 보았다. 이 산은 주봉 높이가 1,690m로서 흑룡강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겨울에는 눈이 숲 속에 가득 차 7개월 이상 가고 2m 이상의 적설량을 보여 중국 제일 설향이라 불리며, 오상과 영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다.⁶⁵ 그는 위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백산이 도태산이고 이는 곧 대독정자산이므로 백산부는 영안에서 경박호를 거쳐 돈화에 이르는 목단강 상류의 대독정자산 동남쪽 지역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⁶⁶ 즉 그는 말갈의 거주지는 대략 홍개호를 동쪽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는 동류 송화강 하류, 서쪽으로 북류 송화강과 눈강이 만나는 현재의 부여현, 조원일대, 남쪽

64 김락기, 2010, 「6~7세기 말갈제부의 내부구성과 중심지」, 『고구려발해연구』 36.

65 김락기, 2009, 「5~6세기 물길의 중심지와 도태산」, 『한국고대사연구』 53; 2013, 앞의 책, 52~70쪽.

66 김락기, 2013, 앞의 책, 165~166쪽.

으로는 돈화 동북방 목단강 중류의 경박호, 영안일대에 걸쳐 있었다고 보았다.⁶⁷

그러나 김현숙은 백산말갈이 위치하던 곳에 선주한 사람들이 옥저인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옥저인의 후손과 말갈이 함께 거주하거나 혼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많지만 중심은 읍루계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한반도 동북부 쪽으로 많이 내려 온 곳에 백산말갈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백두산에 가까운 연길, 훈춘을 중심으로 한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쪽에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⁶⁸

박노석은 속말말갈은 북류송화강 유역이 아니라 농안의 서북쪽에서 그 위치를 찾아야 하며, 이를 기초로 다른 6부의 위치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고구려 말기 부여현은 고구려의 영역이었으므로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백돌부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며, 속말부가 이곳의 서북쪽에 있었으므로 백돌부는 부여현의 북쪽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호실부가 가장 동쪽인데 동으로 바다에 이른다고 하였으므로 바닷가까지가 이들의 영역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안거골부의 서북쪽에 위치한 흑수부는 동류 송화강과 목단강이 합류하는 의란현에서 흑룡강과 송화강이 합류하는 동강시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백산부는 속말부와 인접해 있으면서 동시에 수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으로 보는 가운데, 백산부의 백산을 태백산, 즉 도태산이라고 보는 김락기의 설⁶⁹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백산말갈의 위치를 대독정자산 동남쪽 또는 동쪽 지역으로 비정했다.⁷⁰

한편 담기양(譚其驤)이 주편한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의 수대(隋代) 지도⁷¹에는 속말부를 북류송화강 유역, 백돌부를 눈강(嫩江)과 북류송화

67 김락기, 2013, 앞의 책, 166쪽.

68 김현숙,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 『한국고대사연구』 6.

69 김락기, 2009, 「5~6세기 물길의 중심지와 도태산」, 『한국고대사연구』 53.

70 박노석, 2013, 앞의 논문, 112~113쪽.

71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강의 합류지점, 안거골부는 동류송화강 부근, 불열부(拂涅部)는 목단강 유역, 호실부는 우수리강 유역, 흑수부(黑水部)는 흑룡강 연안, 백산부는 백두산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⁷² 『길림통지(吉林通志)』에는 속말부는 길림부, 백돌부는 백도늘, 안거골부는 아록초객 오상청(五常廳) 정내, 불열부는 영고탑, 호실부는 영고탑 이동 삼성 이남, 흑수부는 삼성 동북 부극금(富克錦) 좌우(左右) 지역(地域), 백산부는 돈화현 및 훈춘 서경으로 비정했다. 이학지(李學智)는 속말부는 휘발하와 송화강이 합류하는 소밀성(蘇密城)지방, 백돌부는 목단강 상류 경백호(鏡白湖)부근, 안거골부는 송화강하류 계목사(桂木斯)·부금현남(富錦縣南), 흥개호북(興凱湖北) 혹은 서북모지(西北某地), 불열부는 흥개호(興凱湖), 흑수부는 의란현(依蘭縣) (삼성) 이동의 송화강하류 연안으로 비정했다. 전량운(傳郎云)·양양(楊陽)은 속말부는 송화강하류, 백돌부는 길림성 부여현일대, 안거골부는 아십하 유역, 불열부는 목단강 유역 영안현(寧安縣)일대, 호실부는 흑룡강 의란현, 흑수부는 흑룡강 중하류, 백산부는 백두산 송화강 발원처로 보았다.

왕승례(王承禮)는 속말부는 길림시 중심, 송화강 중류지역, 백돌부는 길림성 서란현(舒蘭縣)과 흑룡강성 오상(五尙)일대 안거골부는 흑룡강성 영안-목단강시 중심 단강유역, 불열부는 흥개호일대, 호실부는 연해주(沿海州), 흑수부는 흑룡강과 송화강의 합류지점과 흑룡강하류, 백산부는 연길, 훈춘 중심,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비정했다. 이진복(李殿福)·손옥량(孫玉良)은 『수서』 말갈전에 나오는 말갈 7개 부가 곧 『북사(北史)』에 나오는 물길 7부라고 보고 각 부의 위치를 속말부는 오늘날 송화강 상류, 백돌부는 속말부의 북쪽, 오늘날 부여현 일대, 안거골부는 백돌부 동북쪽, 오늘날의 송화강 중류 지역, 불열부는 백돌부 동쪽, 오늘날 흥개호 근처, 호실부는 불열부 동쪽, 오늘날 우수리강 동쪽 해안 지역, 흑수부는 안거골부 서북쪽, 오늘날 흑룡강 하류 양안의 넓은 지역, 백산부는 속

72 박노석, 2013, 앞의 논문, 109쪽.

말부 동남쪽, 오늘날 길림성 연변 동부 지역으로 비정했다.⁷³

물길 - 말갈은 여러 민족이 융합한 것이라고 보는 양옥다는 속말부의 본거지는 영안현 동강유지에 있었고 목단강 중류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남북조시기에 목단강을 거슬러 서남으로 향해 확장하여 목단강 원류에 도달한 후 서쪽으로 가 고준한 위호령(威虎嶺)으로 가서 속말수(濛濛水) 중류지부로 진입한 후 이곳의 물길인과 당지 부여인이 융합하여 속말부를 형성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물길인과 북옥저인이 융합하여 호실부를 이루었다고 보고, 동으로 대해, 북으로 흥개호, 서로 노야령(老爺嶺), 남으로 도문강(圖們江) 유역에 이르는 지역으로 보았다. 백산부는 숙신어와 예맥어족이 융합하여 형성한 새로운 민족 공동체인데 남옥저가 있던 한반도 동북부 함경남북도 연해지구에 분포해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백돌부는 지금의 부여, 유수(楡樹) 일대, 안거골부는 아십하 일대, 흑수부는 흑룡강 유역, 불열부는 목단강 중하류에서 흥개호에 이르는 일대에 있었다고 보았다.⁷⁴

중국학자들의 위치비정은 대체로 비슷한데, 백산말갈의 위치에 대해 전혀 다르게 보는 연구가 있다. 동만윤(董萬崙)은 철령(鐵嶺)과 함관령(咸關嶺)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는 『수서』 말갈전의 기사와 『신당서(新唐書)』 흑수말갈전 기사를 근거로 삼아 이런 결론을 내렸다. 즉 『신당서』 흑수말갈전에 “속말지동(粟末之東)”, 『북사』와 『수서』에 “속말동남”에 있다고 나오는 백산말갈의 거주지가 장백산의 동남쪽에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가리키는 방위는 연변지구가 아니라 한반도 동북부라고 본 것이다. 그는 백산말갈이 곧 부조옥저 - 불내에가 변화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러·당 전쟁 당시에 당은 요서 영주로 내사(內徙)한 속말말갈을 파견했고, 고구려는 백산말갈을 보냈는데, 이 백산말갈이 철령 - 함관령 사이에 있다가 파견되어 간 부조옥저 - 불내에라고 했다.⁷⁵

73 李殿福·孫玉良, 1987, 『渤海國』, 文物出版社.

74 梁玉多, 2017, 앞의 책, 54~59쪽.

75 董萬崙, 2001, 「朝鮮半島境內“靺鞨”人再研究」, 『世界歷史』, 中國社會科學院

위에서 살펴 본 연구자들의 말갈 7부의 위치비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⁶

〈표 1〉 말갈 7부에 대한 연구자들의 위치비정

	粟末部	伯咄部	安車骨部	拂涅部	號室部	黑水部	白山部
吉林通志	吉林府	伯都訥	阿勒楚喀 五常廳境	寧古塔	寧古塔 以東 三姓 以南	三姓東北 및 富克錦 左右地域	敦化縣 및 琿春 西境
小川裕人	吉林·烏拉街 중심 北流松花江 유역	伯都訥 지방	阿什河 유역	寧安의 삼림지대	琿春	依蘭 以東 松花江 하류지역 黑龍江 지방	敦化 지방
日野開 三郎	輝發河 유역 吉林, 烏拉 松花江 流地 農安 중심 伊通河 유역	農安 부근	阿勒楚喀河 유역	長廣才領 東의 삼림 지대, 瑚爾喀河 포함	黑龍江 下流 유역	黑龍江과의 합류 지점에 이르는 松 花江 유역 일대	敦化, 間島, 함경남도 방면
池內宏	吉林 중심 北流松 花江 中流域	伯都訥	阿勒楚喀河 유역	榆樹溝 부근 榆樹 및 五常 포함 지방	寧古 및 敦化 부근 瑚爾喀 河 유역	三姓 以東 富克錦 以西 松花江 연안	延吉 중심 間島 지방

歷史研究所, 72~74쪽.

- 76 이 표는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448~449쪽의 표를 보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출간되었던 저서의 경우, 필자가 참고한 국내 번역본 출간연대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表 작성시 참고한 論著는 다음과 같다. 『吉林通志』; 小川裕人, 1937, 앞의 논문; 日野開三郎, 1947, 앞의 논문; 池內宏, 1951, 앞의 논문; 金廷鶴, 1958, 「北方亞細亞民族考(二)」, 『亞細亞研究』 1, No.2; 李學智, 1964, 「黑龍江與隋唐兩代之黑水靺鞨」, 『邊疆論文集』 1; 李龍範, 1975, 「大陸關係史 古代篇(上·下)」, 『白山學報』 18·19; 盧泰敦, 1981, 앞의 논문; 傅朗云·楊腸, 1983, 앞의 책; 干志耿·孫秀仁, 1986, 『黑龍江古代民族史綱』, 黑龍江人民出版社; 王承禮著·宋基豪譯, 1987, 『발해의 역사』,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李殿福·孫玉良, 1987, 『渤海國』, 文物出版社; 孫進己·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 黑龍江人民出版社; 董萬崙, 1989, 「關於粟末靺鞨幾個問題的探討」, 『黑河學刊』 1989年 1期; 張泰湘·吳英才·李亞斌, 1992, 「勿吉-靺鞨文化研究」, 『北朝研究』 1992년 1期; 李澍田, 1993, 『中國東北通史』, 吉林文社出版社; 에.뵈.샤브꾸노프 역음, 송기호·정석배 옮김, 1996,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 역사』; 王禹浪, 1997, 「靺鞨黑水部地理分布初探」, 『北方文物』 1997-1; 장국중(사회과학원), 2001, 앞의 책; 김각기, 2010, 「6~7세기 말갈제부의 내부구성과 중심지」, 『고구려발해연구』 36; 박노석, 2013, 「6세기 말 7세기 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 『수서』 「말갈전」을 중심으로 - 」, 『만주연구』 15.

金廷鶴			阿勒楚喀	拉林河 동쪽			敦化, 琿春
李學智	輝發河와 松花江 이 합류하는 蘇密 城 지방	牧丹江 上流 鏡白湖 부근	桂木斯, 富 錦南, 興凱湖北	興凱湖		依蘭縣(三姓) 以東의 松花江 下 流沿岸	
李龍範	北流松花江유역	伯都訥	阿勒楚喀 유역	牧丹江 유역, 寧古塔~ 三姓	三姓~東流 松花江 하류	黑龍江유역	白頭山
盧泰敦	北流松花江輝發 河유역夫餘省西北	拉林河유역	阿勒楚喀중 심평원지대	拉林河 유역 동쪽 방면	拉林河유역 동쪽방면	東流松花江 下流일대	長白山일대
傅郎云· 楊賜	松花江上流	吉林省 夫餘縣일 대	阿什河유역	牧丹江 유역 寧安縣	黑龍江依蘭	黑龍江中下流	白頭山松花 江발원처
干志耿· 孫秀仁	吉林市 이하의 松 花江 북류단 양안	扶余, 榆樹, 双城, 五常	阿什河 유역	長廣才峪 以東 牧 丹江유역	綏芬河유역	黑龍江 양안	吉林省 延邊지구
王承禮	吉林市 중심, 松花 江중류지역	舒蘭, 五尙	黑龍江省寧 安-牧丹江 市	興凱湖 일대	沿海州	黑龍江과 松花江 의 합류지점, 黑龍江하류	延吉, 琿春 延邊지구
李殿福· 孫玉浪	松花江상류	扶余縣일 대	松花江중류	興凱湖 일대	烏蘇里江 동 북해안지역	黑龍江하류	延邊동부지 방
孫進己· 馮永謙	길림시부근松花江 유역(長春~樺甸~ 舒蘭, 蛟河)	榆樹, 德惠, 九台	阿什河유역	拉林河 유역 五常 부근	寧安	黑龍江과 松花江 이 합쳐지는 일대	延邊일대
董萬崙	제2松花江중류 吉林市일대	榆樹, 双城, 五常일대	阿什河일대	牧丹江 중류, 興凱 湖일대	烏蘇里江 중 류일대	松花江口 및 그 이북지대	長白山동쪽 반도동북부
張泰湘· 吳英才· 李亞斌	松花江하류지역	伯都訥, 榆樹	阿什河유역	東寧縣, 興凱 湖以東, 蘇 聯南濱海 지구	密山縣, 興凱 湖以東, 蘇聯 濱海지구 부일대	黑龍江중하류, W烏蘇里江, 松花江하류일대	長白山일대
李樹田	吉林市	扶余, 榆樹, 双城, 五常	阿什河유역	興凱湖 일대	烏蘇里江 중 류일대	松花江口와 烏蘇 里江口 일대	延邊, 한반도 동북부 지방
에.웨. 샤브꾸 노프	松花江상류 粟末水연안	拉林河유역	阿什河와 螞蟻河 사이	沿海州 서부	沿海州서부	穆陵河유역, 우쑤 리스크강 상류	長白山기슭
王禹浪	樺甸, 舒蘭, 榆樹, 九台, 德惠 일대	扶余縣境, 拉林河유 역, 五常市 북경 포괄 한 松花江 일대	阿什河 유역	螞蟻河 유역 (牧丹江, 海浪河 유역, 興凱 湖일대)	牧丹江중, 상 류유역의 東 寧縣	黑龍江省 肇州, 肇源, 肇東지구, 松花江 中流左岸	安圖縣남부 및 撫松縣, 靖宇縣, 臨江 市일대
장국중 (사회과학 원)	부여(농안) 이웃지역	부여, 伯都訥	拉林河유역, 五尙일대, 阿什河 유역	拉林河 유역의 五尙일대 와 阿什 河 유역	寧安 근처	하바롭스크부근	白頭山근처

김락기	이통하, 무개하, 음마하, 목석하 일대	부여 중심 남립하 이북 쌍성 부근	아성시와 하열빈시 중심 구역, 하열빈시 호란구 일대	오상일대, 망우하 부근, 상지 일대 포함	목단강 중하류와 임구현 일대	의란~동강 일대	영안에서 경박호를 거쳐 돈화에 이르는 목단강 상류의 대독정 자산 동남쪽 지역
박노석	동안 서북쪽	부여현 북쪽			동쪽 바닷가 까지	의란~동강 일대	대독정자산 동남쪽 또는 동쪽지역

2.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에 대한 논의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당대의 말갈 7부 중 일부 또는 많은 부가 고구려의 지배 아래 들어 있었다고 보는 데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말갈 7부 가운데 어떤 부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고, 어떤 부는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구려의 지배 아래 들어간 말갈 부의 경우에도 고구려 안에서의 존재양상과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수·당과의 전쟁과정에서 고구려군과 함께 싸운 말갈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단편적으로 관심이 기울여졌다. 이 경우 말갈을 단순히 고구려에 부용되어 동원된 자들이나 용병으로 보는 경우와 속민으로 보는 경우, 고구려민으로서 고구려 군에 속하는 특수부대로 편성되어 참전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나뉘었다. 최근에는 말갈이 고구려와 함께 발해를 건국했고, 고구려 계승국임을 자임한 것에 주목하여,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및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문제와 관련하여 말갈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말갈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활발히 벌임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하여 고고학적 성과와 문헌기록을 종합하여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하기로 하겠다.

『수서』와 『당서』에 나타나는 말갈 7부는 수·당대 존재했던 말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유력부락이다. 이 말갈 7부와 관련하여 고구려 세력이 미친 범위와 지

배내옹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다. 말갈 7부 가운데 고구려의 지배권 혹은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

일본의 마츠이 도(松井等)은 속말부·백산부는 확실히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고, 그의 백돌부·안거골부·불열부·호실부 등은 고구려 영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복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⁷⁷ 오가와 히로토 역시 흑수부 외의 6부가 수 개황(開皇) 말경부터는 고구려의 세력 범위에 들었던 것으로 보았다.⁷⁸ 또 한규철(韓圭哲)·박경철(朴京哲), 김현숙 등도 흑수부를 제외한 6부는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 들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⁷⁹

그러나 권오중(權五重)은 백산부는 고구려에 완전히 신속해 있었고 속말·백돌·안거골 등의 예계(濊系) 말갈은 고구려에 부속하였다고 보았다.⁸⁰ 노태돈(盧泰敦)도 속말부는 완전히 고구려의 지배권 아래 귀속되었고, 백산·안거골·호실부 등은 고구려의 지배 또는 강한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보았다. 권오중과 노태돈은 불열부와 흑수부가 고구려 영향권 밖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⁸¹ 히노 가이사부로는 속말부와 백산부는 고구려의 직할령이었고, 백돌부·안거골부·불열부 등은 고구려의 기미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⁸²

이와 달리 일부 말갈족만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전내궁(箭內恆)은 고구려 세력이 수·당대에 백도놀 이남의 송화강 유역에까지 미쳐 장백산맥에서 말갈과 접하고 있었다고만 거론함으로써 고구려의 본격적인 말

77 松井等, 1913, 『滿洲歴史地理』1, 431쪽.

78 小川裕人, 1937, 「靺鞨史研究に於ける諸問題」, 『東洋史研究』2-5, 77쪽.

79 韓圭哲, 1994,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62~63쪽; 朴京哲, 1988, 「高句麗軍士力량의 再檢討」, 『白山學報』35, 144~174쪽; 김현숙,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의 考察」, 『한국고대사연구』6; 김현숙, 2003, 「6~7세기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강좌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80 權五重, 1980, 「靺鞨의 種族系統에 관한 試論」, 『震檀學報』49, 20쪽.

81 盧泰敦, 1981, 앞의 논문, 13~15쪽.

82 日野開三郎, 1949, 「粟末靺鞨の對外關係(その二)-靺鞨七部考 第三章」, 『史淵』42, 54~55쪽.

갈 지배는 상정치 않았다.⁸³ 또 이케우치 히로시는 수·당대 고구려의 서북경은 휘발하 유역이고, 북으로는 송화강과 묵단강의 분수령인 묵단령(牧丹嶺)·합이파령(哈爾巴嶺)·노송령(老松嶺)으로하여 묵단강 유역의 호실부와 접하고 있었다고 보았다.⁸⁴ 그리고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은 백산부 말갈만 고구려의 지배를 받은 것⁸⁵으로 보았다.⁸⁶

그러나 중국사서에 의하면 ‘말갈족’은 3세기 이래 송화강-연해주-흑룡강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었고, 고구려도 5세기경에는 서쪽으로는 요하(遼河, 요동반도 포함), 서북쪽으로는 심양(瀋陽)·개원(開原) 등을 포함하는 지역, 북으로는 길림지역을 포함, 개원과 영안을 잇는 선, 동쪽으로는 훈춘-영안선, 남쪽은 아산만(牙山灣)에서 조령(鳥嶺)-영일만(迎日灣)을 잇는 선까지 영역화했으므로 말갈의 거주지와 고구려의 영역이 만주일원에서 일정 기간 서로 겹치고 있다.⁸⁷

또 『구당서』 말갈전에 나오는 기사⁸⁸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이후 백산부·백돌부·안거골부·호실부 등이 정치적인 힘을 잃고 ‘분산미약(奔散微弱)’해져, 후에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발해가 성립되자 점차 발해로 편입되었는데, 오직 흑수부만이 전성(全盛)했다고 한다. 고구려 멸망 이후 말갈부락들의 이러한 변화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치세력의 몰락 후 구심점을 잃고 분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고구려와의 관계가 말갈부락들의 존립에 영향을 끼칠 만큼 밀접했다는 것을 이 기사는 보여준다. 6, 7세기대 중

83 箭內恆, 『史學雜誌』24, 594쪽.

84 池内宏, 1934,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5, 50~52쪽.

85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洲地理歷史研究報告』1, 25~30쪽.

86 고구려의 말갈지배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는 김현숙, 2003, 앞의 논문 참조.

87 千寛宇, 1979, 「廣開土王碑文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論叢』, 562~566쪽; 韓圭哲, 1988, 「高句麗時代의 靺鞨研究」, 『釜大史學』14·15합집, 31~32쪽.

88 “其白山部 素附於高麗 因收平壤之後 部衆多入中國 汨咄安居骨(號)室等部 亦因高麗破後 奔散微弱 後無聞焉 縱有遺人 竝爲渤海便戶 有黑水部全盛 分爲十六部”(『舊唐書』卷199 下 列傳149 下 北狄靺鞨傳)

국 사서와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군대와 말갈 군대의 활동상을 보면, 양적인 측면이나 내용면에서 결코 소규모거나 일시적 체제가 아닌, 대규모이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⁹⁾ 이런 점에서 김현숙은 수·당대 말갈 7부 중 백산부와 속말부는 5세기 이후 완전한 고구려민으로 존재했고, 그 외는 6세기 이후 고구려 세력권에 편입된 것으로 보았다.

김락기는 속말부가 존속기간 내내 일부는 고구려와 상쟁하고 일부는 복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돌지계집단이 이탈한 6세기 후반 개황연간(581~600)에는 고구려가 이통하 유역의 농안현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여 속말부 전체를 복속시켰을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고구려 북부여성주(北扶餘城州)가 농안에 위치했다고 보는 견해⁹⁰⁾와 연결된다. 김락기는 속말부 거주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북부여성주는 고구려 서북방에서 북방 종족을 견제하고 지배하는 중요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⁹¹⁾ 그는 백산부를 일찍부터 고구려에 신속하며 일종의 공동운명체적인 역할을 한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백산부의 전신으로 가장 유력한 존재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숙신(肅愼) 혹은 백신(帛愼)을 지목했다.

그는 554년 북제에의 조공을 마지막으로 사서에서 숙신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그 시기를 전후해 고구려에 신하로 복종했다는 백산부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며, 백산말갈의 전신은 고구려에 의해 5세기까지 숙신이라 불리던 영안지방의 거주민이며, 백산부의 거주지 역시 그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구려군의 일원으로 말갈병이 지속적으로 전투에 참전한 것도 그들의 거주지 이동을 생각해 한다면 경박호~영안 방면에 거주하던 백산부

89 『隋書』卷60 列傳25 段文振傳; 같은 책, 卷81 東夷 高麗傳; 같은 책, 卷84 突厥傳;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嬰陽王 9년·23년; 같은 책, 寶藏王 2년·3년·13년·14년·20년조 참조.

90 노태돈, 1996,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 8;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재수록, 232쪽.

91 김락기, 2013, 앞의 책, 175쪽.

역시 돈화를 비롯한 고구려 내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⁹²

김영천은 고구려가 기원전 28년 북옥저 지방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장백산 일대에 거주하던 백산부 말갈을 세력권 아래 두게 되었고, 이후 책성을 군사거점으로 삼아 백산부 및 불열부 말갈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기지로 활용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280년 휘발하 유역을 따라 송화강 유역으로 세력확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속말부 말갈의 여러 세력을 제압하고 이들에 대한 사민, 부용화정 책을 시행했고, 영락 8년(398) 광개토왕이 모용씨, 백제, 거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수행하던 중 이미 상당세력이 고구려의 지배권 안에 포섭되어 있던 영고탑 이남의 백산부 말갈과 불열부 말갈에 대해 군사작전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권을 확고히 했다고 보았다.⁹³

그리고 5세기 후반 부여를 두고 고구려와 쟁패하다가 494년 부여를 축출하여 마침내 농안 지역 일대를 점령한 물길은 안거골부 말갈이라고 보았다. 그 뒤 고구려는 594년경에 농안 일대를 재차 탈환하고 부여성 일대를 점령했으며, 이후 북으로 더욱 팽창하여 북류 송화강 하류 지역을 장악하고, 백도늘 일대와 님림하 유역에 있던 백돌부 말갈을 세력권 아래 두었다고 했다. 그 결과 이통하 및 북류송화강 유역 일대를 포괄하는 요새망을 구축하고, 속말부, 백돌부, 안거골부 말갈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여 580년대 이후로는 소위 말갈 7부 중 흑수부를 제외한 6부 등 동북 만주족의 대부분을 지배 하에 두게 되었다고 보았다.⁹⁴

범은실은 말갈과 고구려 관계사를 속말말갈, 백산말갈, 흑수말갈을 나누어 살폈다. 속말말갈은 목단강 동북지구에서 송화강유역으로 이주한 읍루인, 280년 고구려에 의해 남쪽 휘발하 유역으로 이주한 600여 가가 속말말갈의 선인이라고 보았다. 속말말갈은 그 후 고구려가 선비에 타격을 받자 고구려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장했으며, 이후 상호 대립과정에서 수대에 돌지계가 서쪽으로

92 김락기, 2013, 앞의 책, 178~179쪽.

93 김영천, 2008, 「靺鞨의 成長과 高句麗의 靺鞨服屬」, 『高句麗渤海研究』 32, 27~29쪽.

94 김영천, 2008, 앞의 논문, 29~31쪽.

이탈한 뒤 잔존세력이 고구려와 결맹하여 당에 대항했고, 고구려 멸망 후 영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와 흑수부는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342년 고구려가 모용씨의 공격을 받으면서 북옥저 지구에 대한 세력이 약화되자 이 지역을 흑수부가 장악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무구점의 고구려 침범으로 옥저 지역에 세력공백이 발생하자 숙신계가 이곳으로 진출하여 원래 이주해 있던 숙신부락과 융합하여 백산부를 형성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또 이들이 고구려에 신속하게 된 것은 영락8년(399) 식신토곡에 군대를 보내 굴복시켰기 때문이며, 이후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중원에 조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백산부를 공제한 후에도 고구려가 그 지역으로 완전히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백산부 지역에 고구려의 유적유물이 매우 적고, 일부 지역에 집중된 고구려성도 신라, 백제에 대한 방어용일 뿐이고, 군사활동 양상에서 말갈이 매우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⁹⁵ 그는 말갈과 고구려의 정치적 관계를 최소화하되, 백산부만은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그러면서도 상당히 독립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와 다른 측면에서 백산말갈이 고구려민이 되었다고 본 연구자들도 있다. 선석열은 백산말갈을 북옥저 후손들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보았다. 즉 원고구려인과 그 주변에 살던 예맥인을 나누어 호칭하였으며 원고구려인이 아닌 예맥족에 대한 비칭이 말갈이라는 것이다.⁹⁶ 이는 흑수말갈을 제외한 말갈은 대개 고구려 변방주민들을 낮추어 부른 것이고, 당시 백산, 속말말갈 등은 고구려에 정치적으로 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족적으로도 고구려의 별종이었던 ‘고구려말갈’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 한규철의 설⁹⁷과 유사점이 있는 견해다.

고구려의 지배를 받거나 그 세력권 아래 들어온 말갈에 대한 지배방식에 대

95 范恩實, 2003, 『靺鞨族屬及渤海建國前的靺鞨與周邊關係』,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王小甫, 主編), 北京大學盛唐研究叢書, 上海辭書出版社.

96 선석열, 2010, 『중국정사의 말갈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고구려발해연구』 37.

97 한규철, 2007, 『발해인이 된 고구려 말갈』, 『고구려연구』 26집.

한 연구로는 고구려가 속말부와 백산부를 직할령에 편입시켜 본토의 일부로서 원고구려민과 마찬가지로 부, 주, 성 제도하에서 통치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말갈의 전통적 제도인 대소부제(大小部制)에 의한 자치를 용인하면서 이를 부주제(部州制) 안으로 포용했다는 히노 가이사부로의 연구가 그것이다.⁹⁸ 이 견해는 속말부와 백산부가 각각 부여와 옥저의 후예로서 고구려와 같은 예맥족이라고 보는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말갈의 전통적인 대소부제를 고구려의 부주제 안으로 어떻게 포용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어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⁹⁹

김현숙은 말갈족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정도는 복속된 시기와 위치, 지역적 중요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다. 고구려와 인접해 있고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말갈에게는 고구려의 기본 지방통치 방식인 성-촌 지배체제를 적용시켰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의 생활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부락 단위로 간접지배와 직접지배를 병행하는 식으로 통치했다고 본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아 성-촌 지배체제 아래에서 행해진 특수한 종족 지배 형태였다고 규정했다.

김락기는 백산부의 거주지와 접했던 둔화를 포함한 현재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일대가 고구려 때에도 하나의 지방행정단위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또 『삼국사기』 지리지에 당이 파악한 고구려 최상급 행정단위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주가 성곽 자체의 크기나 전략상의 위치, 역사적 내력 등의 면에서 다른 성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일정한 권역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성이었다는 견해¹⁰⁰와 연결하여, 연변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단위를 이 지역의 대표적인 성명을 따서 ‘책성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¹⁰¹

98 日野開三郎, 1949·1950, 「粟末靺鞨の對外關係」, 『史淵』 41·42·43·44; 1991, 『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房(再收), 204쪽.

99 김락기, 2013, 앞의 책, 175쪽.

100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241~242쪽.

101 김락기, 2013, 앞의 책, 181쪽.

김현숙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 들어온 말갈의 고구려 안에서의 존재양상에 대해 고구려의 직접 통치권 아래 들어온 말갈의 경우에는 일반 고구려민과 동일한 고구려민이었고, 그렇지 않고 영향권에 속했을 뿐 직접 통치를 받는 단계는 아닌 경우 고구려 안에서의 위상이 속민집단, 혹은 부용집단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고구려민으로 전입된 말갈족에 대해 고구려 정부에서는 그 종족적 성격에 맞게 군사적 부담을 지우는 대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소량의 세금만 부과했을 것으로 보았다. 즉 고구려 중앙정부에서 말갈족의 종족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5세기 말 이후 이들을 국왕에게 직속된 특수부대로 편제하여 정복전쟁에 활용했다고 본 것이다.

말갈 특수부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수·당과의 전쟁 때로 국왕 직속 군대로 편제된 말갈족은 호전적이고 민첩한 종족적 성격에 걸맞게 고구려 멸망기와 부흥운동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활동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경우 말갈족들은 고구려 주민의 일원으로서 외부의 적을 맞아 나라를 지키는 고구려군으로 활동했다고 본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말갈족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과 훗날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는 발해 건국에 적극 참여한 것도 결국 그들이 고구려인으로 살았고 스스로도 고구려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현숙은 이처럼 완전한 고구려인으로서 활동했던 말갈족이 바로 수·당대 말갈 7부 가운데 속말말갈과 백산말갈이라고 보았다.¹⁰²

고구려가 말갈을 군사적으로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박노석도 인정했다. 그는 고구려에서는 북쪽에 있던 다른 부여주 등 주요 거점에서도 북방에 있던 말갈을 관할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고구려에서 동원한 말갈병의 주력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수서』에 기록된 말갈병은 고구려에 복속되지 않고 저항하던 말갈이었을 것이라고 했다.¹⁰³

말갈 각 집단과 유적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현숙은 속말부의

102 김현숙, 1992, 앞의 논문; 2003, 앞의 논문.

103 박노석, 2013, 앞의 논문, 121쪽.

대표적 유적으로 영길(永吉) 양둔(楊屯) 대해맹(大海猛) 유적 상충문화, 길림(吉林) 유수노하심(榆樹老河深) 유적의 상충 부분, 길림 영길 사리파(查理巴) 고분군, 구태시(仇台市) 산채(山寨) 7좌유적, 화진(樺甸)과 덕혜(德惠)의 주거지와 무덤 등을 속말부의 유적이라고 보았다.¹⁰⁴ 그는 흑룡강성 수빈(綏濱) 동인유지(同仁遺址) 하충과 몽북(夢北) 단결묘장(團結墓葬)은 남북조와 수·당 사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러시아 경내의 흑룡강 중, 하류 연안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이진기(李陳奇)의 연구¹⁰⁵에 의거하여 이를 흑수말갈 유적으로 보았다. 석광묘 혹은 장방형의 석실 봉토무덤인 서석강 유적은 안거골말갈(安車骨靺鞨)의 유적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백산말갈 유적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백산말갈이 대당 전쟁과 부흥운동 과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 멸망 후 상당수의 백산말갈인들이 중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시 백산말갈인들이 고구려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낮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 등이 거의 고구려화되어 있었다는 것 등을 백산말갈의 유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했다.¹⁰⁶

김영천은 속말부의 대표적인 유적은 길림 영길 양둔 대해맹유적, 유수 노하심유적, 길림 영길현 사리파고분군 등이고, 흑수부 유적은 러시아 원동지구 흑룡강 중하류 지역에 있는 나이펠드고분군, 코치코바트카고분군, 코르사코보 고분군, 트로이츠크예고분군, 수빈 동인유적, 몽북 단결고분군 등이라고 했다. 아십하유역에 있던 안거골부의 대표유적은 아십하 하류의 황가외자, 황산 남북산 성자, 목리가와고대자 등이고, 백산부와 백돌부의 유적은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고, 불열부는 영안시 발해진의 서석강고분군, 호실부는 연해주에 있는 미하일로브까 유적, 아브라모브까 유적, 라꼬브까 유적과 까므이 쇼브까 유적, 루자노브까 유적 등과 수분하 유역의 동쪽 동녕 전창(磚廠) 유적이 관련이 있는

104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 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451쪽.

105 李陳奇, 1999, 『靺鞨 - 渤海考古學的新進展』, 『北方文物』1999年 第1期, 38쪽.

106 김현숙, 2003, 앞의 논문.

것으로 보았다.¹⁰⁷

권은주는 말갈토기가 제1송화강 중하류 지역과 목단강, 흑룡강 유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두고 5세기 중엽 이후 남하한 물길에 의해 원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속말갈갈 유적이 만들어지면서 제2송화강 중류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표적 유적지는 영길 양둔, 대해맹 상층(3기)과 우수 노하심 상층(3기), 영길 사리와 유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말갈 각 집단과 유적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유적 발굴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속말갈갈 외 다른 말갈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적과의 관련성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향후 유적 발굴 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보고서들이 더 제출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 사서에서는 6세기 이후 상황을 보여주는 『수서』에서부터 말갈이 등장하지만, 『삼국사기』에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말갈이란 존재가 나오기 시작한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와 갈등을 빚거나,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노태돈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말갈 기사를 검토한 후 백제와 신라의 북변을 빈번히 침구하였거나 고구려에 의해 동원되어 나제 양국을 침공했던 말갈의 실체는 동예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동예는 임진강 유역 일부와 영서지역 그리고 원산만 일대에서 영일만 북단에까지 이르는 동해안 지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백제본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말갈의 침략 기사에서 침공한 지역과 루트 등을 살펴보면 말갈이 곧 동예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국 통일전쟁기에 한반도에 등장했던 말갈은 원주지가 만주였던 읍루-물길-말갈로 이어지는 집단이었고, 그 이전에 한반도에 등장한 말갈은 동예를 후대에 개서한 것인데, 동예를 말갈로 개서한 시기는 통일 신라기 이후 어느 시기였을 것으로 보았다. 『삼국사기』에 기술된 말갈의 면모는 북변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단위로 초락을 일삼거나 때로는 대국 고구려의 부용병으로 전

107 김영천, 2008, 앞의 논문, 15~20쪽.

선에 투입되기도 하는 집단인데, 이런 면모와 유사한 양태로 실제 말갈이 신라와 고려의 북변에 거주하였음을 지적했다.

즉 흑수, 철리, 달고 등의 말갈계 부족들이 8세기 중반 신라의 동북정에 연접한 함경도 남부 지역에 강제 이주되어 거주했는데, 이들은 신라 하대에 신라와 교섭을 시도하기도 했고, 때로는 북변 지역을 초락하기도 하고 고려 건국 이후 그 영향 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래서 후삼국 통일전쟁의 최후 결전인 일리천 전투 때에는 흑수, 철리, 달고 등 9천 5백기가 고려군으로 참전하였다. 이 이후 고려 전기에 말갈-여진은 여전히 북변에 접하여 거주하면서 초락, 래투, 조공을 반복하며 소규모 단위로 생활하였다. 노태돈은 신라 말기 이래로 이런 말갈-여진의 양태를 익숙히 인지하고 있던 이들이 고기에 전해지는 동예 관련 기사를 접했을 때, 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양자를 연결하여 같은 실체로 여기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¹⁰⁸

그러나 김현숙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는 나오는 ‘위말갈(僞靺鞨)’은 대개 ‘예(滅)계(系)’였지만, 신라본기에 나오는 말갈 관계기사 가운데 신라본기(新羅本紀)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11년조에 나오는 기사는 그 이전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른바 ‘진말갈’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말갈이 고구려와 연계하여 군사활동을 한 것이 고구려본기에 나오는 것은 이 기사가 최초인데, 이는 단지 부용세력으로 사주되어 주변을 공격하던 것과는 달리 고구려에서 군사조직으로 일정하게 재편한 후 작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한 규모있고 조직적인 군사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수·당과의 전쟁시 ‘진말갈’을 대규모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전부터 이들을 조직화하고 활용했던 결과이지 결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시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수왕 56년의 이 기사가 말갈족을 고구려군으로 활용

108 노태돈, 2003,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말갈의 실체』,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81~299쪽.

하기 시작한 시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해한 것이다.¹⁰⁹

선석열은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보이는 말갈기록을 검토하여 4세기부터 백제를 공격한 말갈은 고구려의 위임통치집단인 낙랑과 연합한 것이고, 5세기 전후에 신라를 공격한 말갈은 고구려와 연합한 것으로 보았다. 양국 본기를 통해 보면 이들 말갈은 함경도에서 추가령지구대를 넘거나 동해안으로 백제와 신라를 공격했으므로 만주지역에 거주한 집단이 아니고, 1세기 중엽 태조왕 때부터 고구려의 예속하에 있었던 함경도 지역의 동예와 동옥저로 고구려에 의해 동원된 것이라고 했다.¹¹⁰ 그는 상고시기에 중국은 북방 유목민족들의 명칭을 사용할 때 말(靺)이나 갈(靺) 또는 갈(羯)이라는 한자로 표기하였다고 하며, 6세기 중엽 이후 중국은 만주지역의 잡다한 종족집단에 대한 명칭으로서 앞의 단어들을 합성하여 말갈이라 했고, 고구려도 4세기 이후 자신의 지배 아래 있던 동북지방의 예맥족을 말갈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불렀던 것으로 보았다.¹¹¹

중국의 양군(楊軍)은 『삼국사기』와 중국사서의 기사를 상호 대조하고 지리 방위도 살핀 후, 고구려본기의 말갈 기사는 중국 고적에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신라본기, 백제본기 같은 사료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한반도 북부의 예인을 말갈이라 칭한 것은 신라 혹은 백제 고적의 특징이었으며, 고구려인에게 내려온 사적은 중원사서와 같이 모두 그들을 ‘예인(穢人)’이라 서술했다는 것이다. 그는 『삼국사기』 중 598년 이전 기사에 나오는 말갈은 모두 한반도 북부의 예인을 가리키는데, 598년 이후 기사에서는 어떤 것은 예인, 어떤 것은 숙신족계인 말갈인을 가리킨다며, 『삼국사기』 기사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¹¹²

109 김현숙, 2003, 앞의 논문.

110 선석열, 2010, 「중국정사의 말갈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高句麗渤海研究』 37, 30쪽.

111 선석열, 2010, 위의 논문, 32쪽.

112 楊軍, 2008, 「朝鮮史書《三國史記》所載“靺鞨”考」, 『中國邊疆史地研究』 第18卷

IV. 맺음말 -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

고구려 시기에 활동한 말갈 관련 연구성과들을 정리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가장 치중했던 연구는 말갈의 계보, 말갈 7부의 위치, 고구려와 관계를 맺은 말갈 부와 그 관계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다. 이 선행연구들과 최근 20~3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말갈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불투명했던 말갈의 존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말갈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그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다. 선행연구들에 보이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문제점은 한중 양국 학계의 기본적인 선입견이 말갈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말갈은 수·당대에 수·당과 고구려와의 전쟁과정에서 양측에 각각 대규모로 투입되어 활약했다. 특히 고구려군과 함께 활동한 말갈은 당 태종의 고구려 침공시 황제에 맞섰다고 해서 3,000명이나 생매장 당할 정도로 전쟁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그들은 여(麗)·수(隋), 여(麗)·당(唐) 전쟁동안 가장 선두에 서서 군사활동을 전개했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보장왕과 공모하여 고구려 복국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고구려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발해 건국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그런데 말갈은 이후 여진족으로 되었고 뒤에는 만주족으로 불리며 금, 청을 건국하여 중국사의 주축이 되면서 한국사에서 이탈했다. 이런 이유로 말갈은 분명히 6~7세기 고구려사에서 눈에 띄는 활동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에서 그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조명을 받지도 못했다. 그에 따라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과 다수의 말갈인이 결합해서 세운 나라로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면서, 말갈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으로 보는 모순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第4期, 80쪽.

깊이 각인되어 있는 ‘단일민족’이라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 속의 말갈, 고구려사 속의 말갈에 대해 지금까지도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들이 한국사 속 고구려사 안에서 차지할 공간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런 한편, 그들의 거주지와 활동지역이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존재한다는 것과 발해사와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취급하는 중국학계의 시각이 고구려인으로서의 말갈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발해 건국 전 말갈민족과 중앙왕조와의 관계를 대변하고 발해 왕국의 연원을 이해하며, 말갈민족과 고구려민족과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데 중요하다”는 이덕산의 언급¹¹³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학계에서는 말갈의 역사를 시종 중앙(중원)왕조에 신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말갈의 역사적 존재를 처음부터 규정하고 그들의 역사를 분석해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¹⁴ 이로 인해 고구려시기에 고구려민이었던 말갈인들이 남긴 유적·유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길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되었다. 현재 중국학계의 접근방식에 의하면 결국 고구려에서 활동한 말갈은 고고학적 증거물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발해 시기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게 된 것으로 된다.

한중학계 모두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식과 접근방식들로 인해 고구려사에서의 말갈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은 상태다. 한중학계 모두 자민족중심주의적 시각으로 말갈이란 존재를 봄으로써, 역사의 실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관점이 과거 역사에 투영됨으로써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말갈을 바라보는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동북지역에서의 고고학적 현상을 볼 때, 말갈계

113 이덕산, 2006, 앞의 학위논문, 198쪽.

114 권은주, 2008, 앞의 논문, 38쪽.

혹은 속신계로 분류되는 종족집단의 흔적이 일정 시기, 일정 지역에서 공통성을 보이며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맥계, 동호계와는 생활습관이나 종족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종족 집단이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적들 가운데에는 부여에 예속되어 가혹한 수탈에 힘들어했던 읍루의 물질문화로 판단되는 것도 있고, 이보다 뒤 시기에 이전보다 세를 불러 넓은 지역범위에서 활동하며 물질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한 집단이 남긴 유적들도 있다. 6~7세기에는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말갈유적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속신, 읍루, 물질, 말갈로 사서에 기록된 이들은 서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서로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발해 이전까지 부락별로 나뉘져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 결집하지도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세운 적도 없다. 그래도 이들은 문화적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을 속신계로 부르든, 말갈계로 부르든 일단 예맥계, 동호계와는 다른 종족집단이 고대 동북 지역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은 하나의 종족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일 뿐 거주지역이나 구성원의 성격이 시종 동일한 집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일원적 계통으로 엮어 역사적 계보를 그리는 것은 과학성이 부족하고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물질의 경우 346년경에 장광재령에서 길림으로 넘어온 세력으로서 고구려 10부락을 함락시키고, 뒤에 부여를 축출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 물질은 속말말갈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 속말말갈과 물질은 문화적으로나 종족 명칭상이나 서로 전후로 연결되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속말말갈에는 물질만이 아니라 부여의 후손들도 속해 있었다. 물론 속말말갈의 주축은 물질이었고, 사서에 부유말갈이라고 나오는 부여계는 일부였다. 따라서 물질-말갈의 연결성은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이 둘을 예맥과 완전히 다른 계통으로서 서로 계승관계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속말말갈 등을 하나의 정치체,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그들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를 근거로 역사귀속을 논하는 것은 큰 오

류라고 지적한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¹¹⁵

선행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그 이후 시기에 말갈에게 일어난 변화를 동태적으로 살피지 않고 각 시기별로 정제적, 단절적, 기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빚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관점과 목적이 들어간 자민족 중심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문제점이 깔려 있다.

말갈계 종족집단이 별도로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다양한 집단이 이합집산하면서 이들을 형성했다. 말갈은 단일 세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형성된 종족집단이었다. 중국과 한국 사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활동영역이 고구려의 세력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한중 양국에서 역사 지도를 그릴 때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그린 지도의 경우 말갈의 범위가 매우 넓게 그려짐에 따라 고구려의 세력범위가 축소되기도 했다.

말갈과 고구려의 역사영역이 겹쳐지는 경우 실상은 어떠했다고 보아야 할까? 당시 국가를 성립시켰을 뿐 아니라 국력이 강성해져서 중원세력과 군사적 대결을 벌일 정도의 수준에 있던 고구려와 독자적인 세력결집을 하지 못하고 사회발전 수준도 높지 않았던 말갈의 활동영역이 겹쳤다면 그때 겹쳐진 부분에 거주하던 말갈 부락들은 고구려의 지배권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가 될 것이다. 즉 이들은 고구려 영토에 포함되어 고구려인으로 살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이들이 수·당과의 전쟁에 군사로 집단 동원되고,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과 복국을 도모하고, 고구려 계승을 주장하는 발해를 건국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순조롭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을 말갈과 고구려를 분리함으로써 지도상에서 역사적 상황을 잘못 그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발해 건국시 말갈이 구성원의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15 송기호, 2003, 앞의 논문.

고구려인들을 지배층으로 두고 고구려 계승을 주장하며,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말갈과 고구려는 별개의 존재이고 이들의 거주 지역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한다고 보는 강한 선입견은 일부 한국학계의 연구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 타인묘지는 그런 시각이 오류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 묘지명에 의하면 이타인은 고구려 지방관으로서 책성일대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고구려 12주와 말갈 37부를 관장하는 지방관이었다.¹¹⁶ 이타인이 다스린 말갈 37개 부가 서천왕대에 점령한 말갈 6~7개 부와 이후에 점령한 다른 말갈이었을 것이라고 본 견해가 있다.¹¹⁷ 이것은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거주했다”고 중국 사서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에 지나치게 매몰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구려 영역과 말갈의 거주범위는 별개인데 이타인이 고구려와 말갈 부를 함께 관할했다고 하므로 이때의 말갈은 고구려가 정복해서 고구려 영역 안으로 사민한 존재들이 분명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고구려는 예맥족의 나라이고 말갈은 이종족이니까 고구려인이 아니라는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처음 압록강 중류지역에서 예맥족이 중심이 되어 건국했지만, 발전과정에서 요동, 옛 부여지역, 두만강~연해주 일대, 한강 이남 지역까지 영역으로 편입했다.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여기 살던 주민들을 모두 축출하고 고구려인들을 사민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4세기 이후 고구려 영역 안에는 다양한 종족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계통이 달랐지만 같은 고구려인으로 거주했다. 물론 성격에 따라 고구려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차이는 있었고 고구려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인식에도 구별과 차별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고구려인이었다.

116 김종복은 이타인이 지배한 말갈 37부를 백산말갈이라고 보았다. 김종복, 2005, 「고구려 멸망 전후의 말갈동향」, 『북방사논총』 5, 178쪽.

117 박노석, 2013, 앞의 논문.

고구려는 다종족 국가였다. 따라서 고구려 영토와 말갈의 거주범위가 겹쳐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압록강 중류유역 고구려 유적과 성격이 다른 유적들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들을 고구려인이 아닌 별개의 정치집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고구려는 영역확대 과정에서 차지한 지역에 사민을 하거나 자신들의 문화를 강제이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헌사료를 통해 고구려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에 고구려 중심부의 특징적인 유적·유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말갈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고구려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속에 독특한 존재들이 만든 성격이 다른 문화도 존재했었다. 고고학적 측면에서 고구려사를 바라볼 때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

- 강인옥 외, 2007, 『연해주와 인접지역의 고고학 자료로 본 옥저』, 동북아역사재단.
김락기, 2013,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경인문화사.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문안식, 2003, 『한국 고대사와 말갈』, 혜안.

〈중국〉

- 郭素美, 2015, 『渤海靺鞨民族源流研究』,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馬一虹, 2011, 『靺鞨, 渤海與周邊國家, 部族關係史研究』,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范恩實, 2014, 『靺鞨與嬾史研究:以族群發展, 演化爲中心』, 哈爾濱:黑龍江教育出版社.
傅朗云·楊暘, 1983, 『東北民族史略』, 吉林人民出版社.
사회과학원, 2001, 『발해국과 말갈족』, 서울:중심.
梁玉多, 2017, 『勿吉-靺鞨民族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李德山, 2008, 『隋唐時期東北邊疆民族與中央王朝關係史研究』, 香港:香港亞洲出版社.
정영진, 2003, 『高句麗渤海靺鞨墓葬比較研究』, 延吉:延邊大學出版社.

〈일본〉

- 白鳥庫吉, 1970, 『塞外民族史研究』, 岩波書店.

논문

〈한국〉

- 강인옥, 2009, 「말갈문화의 형성과 2~4세기 읍루·선비·부여계문화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3.
_____, 2015, 「삼강평원 곤토령·봉림문화의 형성과 물질·두마루·말갈의 출현」, 『고구려

발해연구』52.

孔錫龜, 1991, 「高句麗의 領域擴張에 대한 研究－四世紀를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6.

권오중, 1980, 「靺鞨의 種族系統에 관한 試論」, 『震檀學報』49.

권은주, 2008, 「말갈연구와 유적현황」,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09, 「靺鞨 7部の 實體와 渤海와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35.

김기섭, 1991, 『삼국사기』백제본기에 보이는 말갈과 낙랑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청제사학』8.

김락기, 1995, 「6~7세기 靺鞨 諸部の 내부 구성과 거주지」, 학연문화사.

_____, 2009, 「5~6세기 물길의 중심지와 도태산」, 『한국고대사연구』53.

_____, 2010, 「6~7세기 말갈제부의 내부구성과 중심지」, 『高句麗渤海研究』36.

김병남, 2000,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말갈에 대한 재검토, 『전북사학』23.

김선옥, 1985, 「고구려의 수당관계연구－말갈을 중심으로－」, 『백제연구』16.

김영천, 2008, 「靺鞨의 成長과 高句麗의 靺鞨服屬」, 『高句麗渤海研究』32.

김종복, 2005, 「高句麗 멸망 전후의 靺鞨 동향」, 『북방사논총』5.

김진광, 1995, 『三國史記』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고구려발해연구』35.

김택균, 1997,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實體, 『고구려발해연구』, 학연문화사.

김현숙,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 『한국고대사연구』6.

_____, 2003, 「6~7세기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강좌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노태돈, 1985,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일조각.

_____, 2003,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말갈의 실체,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문안식, 1988, 「三國史記」羅·濟本紀의 靺鞨 史料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_____,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낙랑, 말갈사료에 관한 검토－동해안로를 통한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토착세력의 재지기반의 운동력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5,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_____, 2000, 「삼국시대 영서지역 토착세력의 추이-『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말갈세력을 중심으로 -, 『충북학』 2,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연구소.
- 박노석, 2004, 「고구려 서천왕대 숙신 점령에 대한 고찰」, 『전주사학』 9.
- _____, 2013, 「6세기 말 7세기 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수서』 「말갈전」을 중심으로 -, 『만주연구』 15.
- 선석열, 2010, 「중국정사의 말갈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高句麗渤海研究』 37.
- 송기호, 2003, 「粟末靺鞨의 원류와 扶餘系 집단 문제」,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안정준, 2013, 「“이타인묘지명”에 나타난 이타인의 생애와 족원-고구려에서 활동했던 책성지역 말갈인의 사례 -, 『목간과 문자』 11.
- 유원재, 1979, 「삼국사기 위말갈고」, 『사학연구』 29, 한국사학회.
- 이강래, 1985,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의 군사활동」, 『영토문제연구』 2, 고려대학교 영토문제연구소.
- _____, 1999, 「『三國史記』의 靺鞨 認識」, 『백산학보』 제52호(신형식박사 회갑기념논총 신라사의 재조명), 白山學會.
- 이동휘, 2003, 「『삼국사기』말갈의 활동범위와 성격」, 『부대사학』 27, 부산대 사학회.
- 이순근, 1996, 「말갈의 종족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 『논문집』 2, 가톨릭대 성심교정.
-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高句麗渤海研究』 41.
- 이흥중, 1998, 「『三國史記』 ‘靺鞨’기사의 고고학적 접근」, 나남출판.
- 정석배, 2009, 「아무르, 연해주 지역의 말갈-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35.
- 한규철, 1988, 「고구려시대의 말갈 연구」, 『부산사학』 14 · 15합, 부산사학회.
- _____, 2007, 「발해인이 된 고구려 말갈」, 『고구려연구』 26집.
- _____, 2013, 「『삼국사기』의 말갈문제」, 『인문학논총』 31-2,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중국〉

- 高福順, 1979, 「粟末靺鞨史跡考」, 哈爾濱市郵局.
- 喬梁, 2014, 「關於靺鞨族源的考古學觀察與思考」, 吉林大學.
- 董万崑, 2001, 「朝鮮半島境內“靺鞨”人再研究」, 『世界歷史』,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 范恩實, 2002, 「肅慎起源及遷徙地域略考」, 『民族研究』2002-3.
- _____, 2003, 「“靺鞨”族稱新考」, 『北方文物』2003-3.
- _____, 2003, 「靺鞨與高句麗關系史研究」, 『鞍山師範學院學報』2003-1.
- _____, 2010, 「勿吉與亡史探微」, 『北方論叢』2010-1.
- _____, 2016, 「論七世紀中后期靺鞨的發展及其建國的內外因」, 『東北史地』2016-4.
- 楊軍, 1980, 「靺鞨人的遷徙與渤海國」, 哈爾濱市郵局.
- _____, 2008, 「朝鮮史書《三國史記》所載“靺鞨”考」, 『中國邊疆史地研究』第18卷 第4期.
- 王樂文, 2009, 「挹婁、勿吉、靺鞨三族關係的考古學觀察」, 『民族研究』2009年 第4期.
- 魏國忠, 1979, 「渤海國號初稱“靺鞨”再考」, 牡丹江師範學院學報編輯部.
- 魏存成, 1956, 「靺鞨族起源發展的考古學觀察」, 史學集刊編輯委員會.
- _____, 1998, 「第二松花江中游地區的靺鞨、渤海墓葬」, 『北方文物』1998年 第1期.
- 張全超, 1956, 「靺鞨人種考」, 史學集刊編輯委員會.

〈일본〉

- 菊池徹夫, 1979, 「靺鞨とオホソク文化」, 『三上次男博士頌壽紀念東洋史・考古學論集』.
- 池內宏, 1951, 「勿吉考」, 『滿鮮史研究』上世篇 第1冊.
- 小川裕人, 1937, 「靺鞨史研究に於ける諸問題」, 『東洋史研究』2-5.
- 日野開三郎, 1946, 「勿吉考」, 『史淵』35.
- _____, 1948, 「靺鞨七部の前身とその屬種」, 『史淵』38・39合.
- _____, 1949, 「粟末靺鞨の對外關係(その二)-靺鞨七部考 第三章」, 『史淵』42.
- 池內宏, 1934,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5.
-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洲地理歷史研究報告』1.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현숙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는 주로 말갈의 계보, 말갈 7부의 위치, 고구려의 지배 정도와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중국정사(中國正史)에서는 숙신-읍루-물길-말갈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이런 일원적 계통론은 1980년대 이전까지 중국 학계의 보편적인 관점이었고, 지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견해들도 꾸준히 나왔다. 요즘은 이 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당대의 말갈 7부 중 일부 또는 다수의 부가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부가 고구려 지배를 받았는지, 고구려 안에서 말갈은 어떤 존재였는지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최근 말갈 유적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말갈의 실체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역사를 봄으로써 정확한 사실규명과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갈집단에게 일어난 변화를 동태적으로 살피지 않고 각 시기별로 정체적, 단절적, 기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을 잘못 파악하기도 한다. 말갈은 역사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다양한 집

단이 이합집산하면서 형성되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다. 4세기 이후 고구려 영역 안에는 다양한 종족집단이 거주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영역을 확대하면서 차지한 지역에 사민(徙民)을 하거나 자신들의 문화를 강제이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구려 영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고구려 중심부의 특징적인 유적·유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말갈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인식한 가운데 고고학 자료와 문헌사료를 보아야 정확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 말갈과 고구려를 바라보는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주제어: 고구려, 숙신, 읍루, 물길, 말갈, 일원적 계통론, 말갈7부, 동북공정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the Mohe in Koguryo History and Remaining Challenges

Kim Hyunsook

Research on the Mohe (Malgal) in Koguryo history has focused on their lineage, the location(s) of their seven tribes, and to what degree and how Koguryo controlled them. According to official Chinese history, the order of descent proceeds from Sushen (Suksin) to Yilou (Eumnu) to Wuji (Mulgil), and then to Mohe. This unitary lineage is still generally acknowledged in Chinese academia. However, opinions against such a lineage have continuously been suggested, as well. Regarding the Mohe's relations with Koguryo, some or a majority of the Mohe's seven tribe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under Koguryo's control during the Sui-Tang period. Yet, the specific method and range of such control has not been studied sufficiently. The Mohe formed as bands of people dispersed and regrouped throughout the course of history. This was no different from Koguryo. Since the fourth century, a diversity of tribes

resided within Koguryo territory. And as Koguryo expanded it did not attempt to forcibly relocate the indigenous people in areas it had taken over nor did it culturally convert them. These factor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tudying archaeological or written sources in order to draw closer to accurate facts. Looking into the past from viewpoints of the present makes it difficult to accurately ascertain or understand the facts, which is why the Mohe and Koguryo need to be perceived more objectively.

Keywords: Koguryo (高句麗), Sushen (肅慎), Yilou (挹婁), Wuji (勿吉), Mohe (靺鞨), notion of unitary lineage (一元的系統論), the Seven Mohe tribes (靺鞨7部), Northeast Project (東北工程)

속말말갈의 문화적 특징과 형성과정 고찰

이종수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유적현황과 특징
- III. 문화속성 분석
- IV. 속말말갈 문화의 기원과 형성과정
- V. 맺음말



I. 머리말

말갈(靺鞨)이란 명칭은 북제서(北齊書) 무성제(武帝) 하청(河清) 2년(563년)에 처음 등장하며, 이전 시기에는 숙신(肅愼)¹, 읍루(挹婁), 물길(勿吉) 등으로 불리고 있다. 말갈은 백산부(白山部), 속말부(粟末部), 백돌부(伯咄部), 안거골부(安車骨部), 불열부(拂涅部), 호실부(號室部), 흑수부(黑水部) 등 모두 7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² 이들 중 우리 역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속말부와 백산부이다. 속말부의 위치는 과거 부여의 고지인 북류송화강(北流松花江)³ 중류 일대로 비정되고, 백산부는 옥저의 고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이들 두 말갈을 예맥계 내지 부여·고구려·옥저계통으로 파악하고 있다.

속말말갈이 거주하던 북류송화강 일대는 원래 부여의 고지였다. 부여는 기원전 2세기 초에 건립되어 기원후 3세기까지 주변국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동북아의 강국이었다. 3세기 이후 읍루의 반란과 모용선비·고구려 등의

* 투고: 2018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9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1 중국 문헌에 기록된 숙신이란 명칭을 읍루·물길·말갈의 선대로 인식하게 된 배경은 『三國志』 저술 과정에서 발행한 오류와 현재의 ‘중화민족통일론’에 입각해 체계화된 학설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양재영, 2004, 「古代 肅愼에 관한 研究」, 『中國史研究』 32집, 중국사연구회; 임찬경, 2010, 「중국 東北史의 肅愼 認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 14, 한국국학진흥원; 이종수, 2014, 「黑龍江省 東部지역의 先史文化와 肅愼」, 『동양고전연구』 57호, 동양고전학회.

2 『隋書』, 靺鞨傳.

3 북류송화강은 제2송화강이라고도 불렸는데, 중국에서는 이 명칭을 일제의 잔재로 파악하여 1988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서류송화강이라 명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북류송화강이란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본문에서도 북류송화강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다. 북류송화강은 한위(漢魏)시기 속말수(速末水), 수당(隋唐)시기에는 속말수(粟末水)라 불리었다.

공격으로 점차 세력이 약화된 후, 494년 물길의 압박으로 그 왕과 처자가 고구려에 투항하면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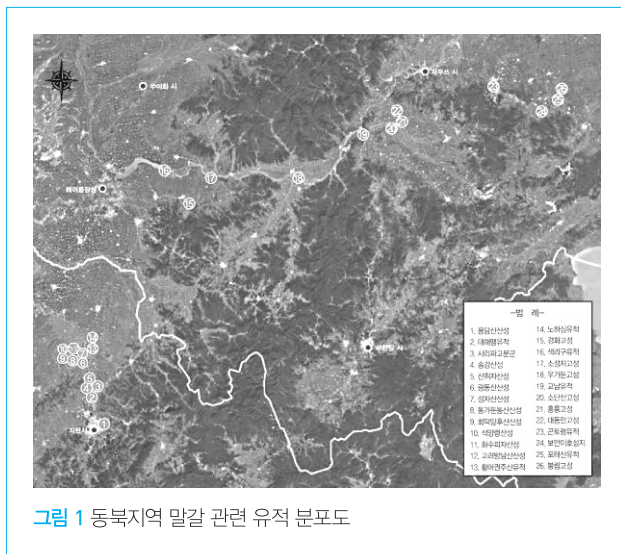
고고학적으로 북류송화강 일대에서 삼강평원 일대의 범말갈문화⁴ 흔적이 확인되는 것은 부여 멸망기인 4~5세기경부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남방한계선이 길림합달령(吉林哈達嶺) 이북에 한정되며, 고구려 문화 역시 그 북방한계선이 길림합달령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4세기 이후 고구려가 북류송화강 일대의 지배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속말갈 세력은 독자적인 문화를 영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속말갈이 고구려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르다. 대수당 전쟁에서 전위부대 역할을 담당하여 용맹을 떨쳤으며, 발해를 건국한 고구려 장수 대조영 역시 속말갈 출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속말갈이 한국고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족계통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과,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로 인해 그 연구 성과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속말갈을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소수민족 중 하나이자 발해를 건국한 주체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숙신-읍루-물길-말갈-발해로 이어지는 계통성에 의거하여 고구려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발해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반대 논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속말갈은 고구려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한 종족이었고, 발해 역시도 고구려 계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말갈에 대한 우리 학계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속말갈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속말갈 유적의 문화적 특징을 정리하고, 그 문화기원과 계통 그리고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류송화강 중류 일대의 관련 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문화적 특징을

4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말갈문화”는 주로 통형관이 사용되고 있는 삼강평원과 묵단강 하류 일대의 읍루·물길·말갈문화를 통칭하며 부른 명칭이다.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 또한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그 문화적 기원과 계통을 검토해 보고, 속말말갈 문화의 형성과정과 정체성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II. 유적현황과 특징

지금까지 북류송화강 중류일대에서 확인된 범말갈문화 관련 유적으로는 우수(榆樹) 노하심(老河深)유적 상충고분군(이하 노하심), 영길(永吉) 양둔(楊屯) 대해맹(大海猛) 상충고분군(이하 대해맹), 사리파(查里巴)고분군(이하 사리파)과 상하만진(上河灣鎮) 일대의 소형 보루(堡壘)군 등이 있다. 분포범위는 대략 길림시 영길현과 우수시 일원의 북류송화강 유역과 대흑산맥(大黑山山脈) 북단지역에 해당된다.

1. 무덤유적

북류송화강 중류 유역의 범말갈문화 무덤은 대부분 강안의 낮은 구릉사면부에 입지해 있다. 지금까지 노하심에서 37기⁵, 대해맹 70여 기,⁶ 사리파 47기⁷ 등 대략 150여 기가 조사되었다.

1) 토광묘

토광묘는 노하심에서 23기⁸, 대해맹에서 29기⁹, 사리파에서 4기가 확인되었다. 노하심 토광묘의 경우 묘광 형태는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상관하착(上寬下窄)형, 장방형, 사다리꼴로 구분된다. 규모는 일반적으로 길이 2~3m, 폭 0.8~1.2m, 깊이는 0.5~0.8m 내외이다. 대해맹의 경우 묘광의 형태는 장방형, 말각방형, 불규칙한 타원형으로 구분된다. 장방형은 일반적으로 길이 1.6~2.6m, 넓이 1m 내외이다. 방형은 한 변의 길이가 1~1.5m 정도이다. 일부 무덤에서는 철제관정이 출토되고 있다.¹⁰ 사리파 토광묘는 묘광이 모두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3m로 일정하지 않다. 단인일차장과 다인일차장이 사용

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6 劉振華, 1973, 「永吉楊屯遺址試掘簡報」, 『文物』8期; 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永吉楊屯大海猛遺址」, 『考古學集刊』5輯; 吉林省文物工作隊等, 1982, 「吉林永吉楊屯遺址第三次發掘」, 『考古學集刊』7輯.

7 尹郁山, 1990, 「吉林 永吉縣 查里巴村 發見 二座 渤海墓」, 『考古』6期;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 「吉林 永吉 查里巴 靺鞨墓地」, 『文物』9期.

8 노하심보고서 본문 내용에는 토광묘 23기, 목관묘 7기, 석관묘 7기로 기록되어 있으나(92쪽), 부록4 “上層靺鞨墓葬登記表”에는 토광묘 24기, 목관묘 6기, 석관묘 7기로 표기되어 있어(165쪽), 본문에서는 〈부록4〉 표의 내용을 따랐다.

9 보고서에는 모두 토광묘로 기록되어 있으나, 단인장 무덤의 경우 내부에서 철제 관정과 목탄흔이 확인되고 있어 목관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가 간보 형태로 발간되어 전체 무덤의 목관 사용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0 일부 무덤의 경우 목관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철정만 출토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차장시에 묘광 내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吉林省文物工作隊等, 1982, 「吉林永吉楊屯遺址第三次發掘」, 『考古學集刊』7輯.

되고 있으며, 화장 흔적도 일부 확인된다. M15의 경우 묘광 안에 말머리가 매납되어 있다.

토광묘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며, 매장방식은 단인일차장과 다인일차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단인일차장은 평면 형태가 장방형인 무덤에서 주로 확인되며, 다인일차장은 평면이 말각방형인 무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무덤에서는 화장 흔적도 확인된다. 두향은 대부분 서쪽을 향해 있으며, 극소수만 남쪽 혹은 동쪽을 향해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사리파고분군 M15 내부에서 인골 2구와 함께 말머리가 매납되어 있어 당시에 동물순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2 토광묘 평면도)

	노하심	대해맹 2차	대해맹 3차	사리파
장방형	 M18	 M19	 M24	 M43
상관하협형	 M9			
사다리형	 M13			
말각방형	 M39			
불규칙타원형				

그림 2 토광묘 형식별 분류

2) 목관묘

목관묘는 노하심에서 6기, 사리파에서 39기가 조사되었다. 대해맹에서도 목관묘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정확한 수량은 확인할 수 없다. 노하심 출

토 6기의 목관묘 중 5기는 관이 불에 타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관재는 소나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목재의 가공 형태에 따라 관재형과 원통형으로 나눌 수 있다. 관재형은 다시 목관 형태에 따라 장방형과 사다리꼴로 나눌 수 있다. 두께는 0.5~0.6m이며, 구조는 세로 방향이 가로 방향보다 약간 돌출되어 있다.(그림3 M17 참조) 바닥과 덮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통형 목관은 원형 목재를 쌓아 올려 제작하였다. 역시 관의 덮개는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관의 바닥에는 자작나무껍질이 깔려 있다. 목관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길이 2m 내외, 폭 0.6m 정도이다.

사리파 목관묘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목관은 대부분 불에 타 그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관재는 가공한 원목과 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께는 5~10cm 정도이고, 관정이 사용되고 있다. 관 덮개와 바닥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관의 구조는 단순 목관과 부곽이 달린 목관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목관이 다수를 차지하며, 규모는 길이 2.5~3m, 넓이 1.3~1.5m 정도가 일반적이다. 부곽이 달린 목관은 길이 2.8~3.6m, 넓이 1.5~1.8m 좌우로 단순 목관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이밖에도 일부 목관 바닥에 포문편직물이나 자갈돌이 깔려 있다.

목관묘의 관은 소나무를 판재 혹은 원통형으로 가공하여 제작하고 있다. 대부분 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으나 노하심 M30만 원통형 목재를 사용하여 관을 만들고 있다. 목관의 형태는 장방형이 대부분이며, 가로 방향 판재를 세로 방향 판재에 결구하는 방법으로 쌓아 올리고 있다. 다만 사리파고분군 M14의 경우 노하심과는 반대로 결구되어 있다. 대해맹과 사리파에서는 철제 관정을 사용하여 목관을 결구하고 있다. 관의 덮개와 바닥판은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바닥면에 화수피, 포문편직물, 자갈돌 등이 깔려 있다. 사리파의 경우 부곽이 달린 목관묘가 사용되고 있다. 목관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에 탄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으로 목관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화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3 목관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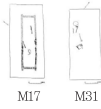
	노하심	대해맹 2차	대해맹 3차	사리파
장방형	 M17 M31	 M21	 M29	 M31 M14
상관하협형	 M2			
원통형	 M30			
부곽형				 M10

그림 3 목관묘 형식별 분류

3) 석축묘

석축묘는 축조 방법에 따라 석관묘와 석실묘로 나눌 수 있다. 석관묘는 노하심에서 7기, 대해맹에서 1기가 조사되었으며, 석실묘 4기 모두 사리파에서 발견되었다. 노하심 석관묘는 그 축조방법에 따라 4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기의 석관을 연결하여 축조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격벽을 쌓아 구분하고 있다. 벽면은 모두 불규칙한 잡석으로 쌓고 있으며, 덮개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규모는 길이 1.6~2.4m, 너비 0.4~0.9m로 일정하지 않으며, 무덤 내부에서 철갑편과 인골 일부가 출토되었다. 두 번째는 묘광의 앞과 뒤쪽에 몇 개의 잡석을 놓아 둔 형태로 양 벽면은 생토이고, 덮개석과 바닥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무덤 내부에 두개골과 골격 일부가 남아 있다. 세 번째는 장방형 묘광의 네 벽면에 잡석을 쌓아 올린 형태로 벽면 석축 높이는 일정하지 않다. 역시 덮개돌과 바닥석이 확인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타원형 묘광 주변으로 돌을 쌓은 형태이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으로 덮개돌과 바닥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해맹에서는 석관묘 1기(M22)만 확인되었는데, 길이 3.1m, 너비 1m로 지

금까지 조사된 것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벽석은 단층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구간만 2층으로 쌓여 있다. 사리파는 모두 석실묘로 석실 사면은 불규칙한 화강암을 쌓아 조성하고 있다. 묘실 바닥은 백회를 칠하거나 자갈돌을 평평하게 한 층 깔고 있으며, 상부는 흙으로 덮고 있다. 평면 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3m 내외로 매우 큰 편이다. M42의 경우 석실 내부에 관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다. 묘실 내부에 7구에서 2구 이상의 인골이 매납되어 있는 이차합장 무덤이다. 인골은 대부분 묘실 중앙에 위치해 있다. M1의 경우 5구는 두향이 서쪽을 향해 있으며, 2구는 동쪽을 향해 있다. 일부 무덤은 인골이 상하 두 층으로 매납되어 있다. 부장유물은 없거나 소량의 토기와 철제 무기류, 장식품 등이 있다.

석관묘는 화강암 괴석으로 네 벽면을 한 층 혹은 두 층으로 쌓은 유형, 양쪽 단벽만 쌓은 유형, 무덤 내부 혹은 주변에 석재를 불규칙하게 배치한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덮개돌과 바닥석은 제작하지 않고 있다. 석관묘는 대부분 단인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2인 이상 매납된 경우는 묘광 평면이 타원형에 가깝고 무덤 내부에 석재가 불규칙하게 놓여 있는 유형으로 국한된다. 석실묘는 사리파에서만 확인된다. 석실 사면은 불규칙한 화강암 잡석을 쌓아 올려 만들고 있다. 묘실 바닥은 백회를 칠하거나 자갈돌을 평평하게 한 층 깔고 있으며, 상부는 흙으로 덮고 있다. 평면 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3m 내외로 매우 큰 편이다. 일부는 관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이차합장묘로 묘실 내부에 다수의 인골이 매납되어 있다.(그림4 석관묘 및 석실묘 평면도)

종합해 보면 비교적 이른 시기의 노하심과 대해맹에서는 주로 토광묘와 목관묘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가장 늦은 시기인 사리파의 경우 토광묘는 4기에 불과하고, 대부분 목관묘와 석축묘가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노하심	대해맹 2차	사리파
장방형	 M5, M6		
전후형	 M22		
사면형	 M24	 M22	
불규칙형	 M15		
석실			 M1  M42

그림 4 석축묘(석관, 석실) 평면도

2. 보루유적

보루유적은 대부분 구태시(九台市) 상하만진 일대에 위치해 있어 일반적으로 상하만진 보루군이라 불리운다. 이들 보루는 1959년 길림성 문화국에서 실시한 문물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다.¹¹ 대표유적으로는 회덕당(懷德堂) 후산(後山)보루, 석양령보루(石羊嶺堡壘), 동가둔(董家屯) 동산(東山)보루, 고려방(高麗房) 남산보루, 화수취자(樺樹嘴子) 서산(西山)보루, 송강(松江)보루 등이 있다.

회덕당 후산보루는 불규칙한 장방형으로 동서 길이가 102m, 남북 너비가 66m이다. 성벽은 동벽과 북벽의 경우 토석혼축이며, 남벽은 자연 절벽을 그대

11 吉林省文化局群眾文化處, 1961, 『吉林九台上河灣考古調查』, 『考古』3期.

로 이용하고 있고, 서벽은 급경사면을 이용하여 석축으로 성벽을 쌓고 있다. 성 내부는 중앙이 높고, 북쪽은 평탄하며, 남쪽은 낮게 경사져 있다. 보루 내에 원형 수혈구덩이가 50여 기가 밀집 분포되어 있다. 지표상에서 홍갈색에 굵은 모래가 비집된 토기편과 더불어 회색계통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석양령보루는 회덕당 후산보루와 같은 능선의 북쪽 끝자락 산봉우리에 위치해 있다. 평면은 불규칙한 타원형이며, 남북 길이가 37m, 동서 너비가 36m이다. 성벽은 토석혼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 내부에서 높이는 1m, 바깥쪽에서 높이는 5m 정도이다. 보루 바깥쪽에는 2~3m 너비의 환도(環道)가 동글게 돌려져 있다. 내부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모두 18개의 수혈구덩이가 확인되었다. 규모는 대략 일정하며, 성벽 둘레에 13개, 내부에 5개가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동가둔 동산보루는 회덕당 후산보루와 동서로 마주보고 있다. 평면이 말각 방형으로, 남북 길이 37m, 동서 너비 21m이다. 성벽은 석재를 쌓아 축조하고 있으며, 빈 공간은 진흙으로 메워 보강하고 있다. 성벽 안쪽의 높이는 1m, 바깥쪽의 높이는 5m 정도이다. 바깥쪽에 2~3m 너비의 환도가 돌아가고 있으며, 내부 중앙에 10개의 수혈구덩이가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여섯 개의 손잡이가 달린 철술, 철화살촉,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화수취자 서산보루는 상하만진의 동남쪽 화수촌 서쪽 구릉상에 위치해 있다. 동가둔 동산보루가 자리한 구릉의 동쪽 끝자락에 해당되며, 구릉 중간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능선 정상부에는 고려방 남산보루가 위치해 있다. 평면은 불규칙한 장방형이며, 동서 길이가 36m, 남북 너비가 21m이다. 성벽의 서쪽은 암반을 기초로 하여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토석혼축으로 축조되어 있다. 성벽 잔존 높이는 내부가 1m 내외, 외부 3~4m 정도이다. 성벽 바깥쪽에 너비 2m 내외의 환도가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서 수혈구덩이가 17개가 조사되었는데, 성벽 둘레로 13개, 중앙에 동서방향으로 4개가 배치되어 있다. 수습 유물로는 홍갈색에 굵은 모래가 비집된 두형토기 손잡이 1점, 다량의 무문토기편, 여섯 개의 손잡이가 달린 철술, 능형과 삼형태의 철화살촉, 회색 관(罐),

완(碗), 접시(盤) 등이 있다.

송강보루는 망잡향(莽卡鄉) 송강촌(松江村) 소금주둔(小綿州屯) 서쪽의 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보루 남동쪽으로 북류송화강이 흐르고 있다. 평면은 방형으로 동서 26m, 남북 25m이다. 동쪽 성벽에 폭 9m의 성문이 나 있다. 성벽은 판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성의 서쪽과 북쪽 성벽 바깥쪽에는 두 줄의 환호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비 4m, 간격은 1m 정도이다. 한 점의 회색 세니질 소면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상하만진 일대 보루들은 입지적으로 북류송화강을 중심으로 그 서쪽의 구룡성 산지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보루가 상하만진의 남쪽 대흑산산맥 최북단 산악지대에 위치하며, 두 곳의 보루만 대흑산산맥 동쪽 끝자락에 분포해 있다. 이들 보루 주변에서 모두 말갈 관련 유적이 확인되는 특징도 나타난다. 즉 상하만진 보루군의 동쪽 북류송화강 건너편에는 노하십과 황어권주산유적이 위치해 있으며, 산취자보루와 송강보루의 동쪽 강 건너편에는 사리파와 대해맹이 자리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들 보루는 속말말갈 취락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교통로 주변에 설치했던 방어시설로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규모는 전체 둘레가 200~300m 내외인 소형이 대부분이며, 평면은 타원형이 다수이나 일부 불규칙 장방형 혹은 원형도 확인된다. 성벽은 토축, 토석혼축, 석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벽 둘레에 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모든 보루의 내부에서 원형의 수혈구덩이가 발견되는데, 병사들이 사용하던 숙영지로 추정된다. 보루 내부에서는 굵은 모래가 섞인 갈색 토기편, 진흙질의 회색 토기편, 정족(鼎足), 력족(鬲足), 철제화살촉, 돌도끼 등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들 보루들은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성시기와 성격 등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지닌 보루들이 삼강평원 지역에서 다수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해 온 삼

강평원 이주민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²

〈표 1〉 북류송화강 중류일대 보루형 산성 일람표

번호	명칭	위치	형태	축성방법	규모	시설물	출토유물
1	후산산성	九台市六台鄉大溝村前 黃土崖子屯西北400m	타원형	토석혼축	남북120m 동서50m	환도(還道)	협조사갈도편, 교상이
2	동산산성	九台市六台鄉大溝村黃 土崖子屯東南500m	원형	토석혼축	주장94m 직경30m		
3	석양령 산성	九台市上河灣鎮石羊村 石羊嶺屯南500m	불규칙 타원형	토석혼축	남북37m 동서36m	수혈구덩이18, 환도	
4	회덕당 후산산성	九台市上河灣鎮紅榮溝 村懷德堂村南300m	불규칙 장방형	토석혼축	동서102m 남북66m	수혈구덩이50	협조사갈도편, 니질회도편
5	동가둔 동산산성	九台市上河灣鎮石羊村 董家屯西北400m	말각 장방형	토석혼축	남북37m 동서21m	수혈구덩이10	협사갈도편, 철촉
6	고려방 남산산성	九台市上河灣鎮雙合村 高麗房屯南500m	타원형	토석혼축	남북50m, 동서40m 잔고0.5m	성문1, 환도, 수혈 구덩이	
7	화수취자 서산산성	九台市上河灣鎮樺樹村 樺樹嘴子屯西北500m	불규칙 장방형	토석혼축	동서36m 남북21m 잔고3m	수혈구덩이17	협조사갈도편, 철촉, 니질회도편
8	성자산 산성	九台市三台鄉于家店村 西南1.5km	타원형	토석혼축	남북60m 동서40m	수혈구덩이3, 환 도	
9	광동산 산성	九台市三台鄉西溝村孟 家溝屯東南500m	삼각형	토석혼축	주장310m 내고0.4m	환도	회색포문와
10	산취자 산성	九台市莽卡鄉邱家村山 嘴子屯南500	타원형	토축	주장100m 잔고2~3m	해자	협사갈도편
11	송강산성	九台市莽卡鄉松江村小 錦州屯西南1km	장방형	토축	동서26m 남북25m	성문1 해자2줄	니질회도편

3. 출토유물의 특징

지금까지 조사된 154기의 속말말갈 무덤 중 124기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전체 수량은 대략 2,000여 점에 이르며, 기능에 따라 실용적인 생활용기, 생산공구, 무기류, 장식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무덤마다 부장품의 수량에 차

12 Mark Edward Byington, 2016, “The Ancient State of Puyō in Northeast Asi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이가 있는데, 많은 것은 100여 점에서 적은 것은 1~2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매납되어 있다.

노하십에서는 4기를 제외한 모든 무덤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수량은 모두 180여 점으로 종류로는 토기, 철제무기류, 청동제 장식품, 석제 장식품, 석기 등이 있다. 토기는 54점이 출토되었는데 기종은 다수가 통형관(筒形罐)이며, 소량이긴 하나 쌍이관(雙耳罐), 고복관(鼓腹罐), 완(碗) 등도 일부 확인된다. 철기는 모두 105점으로 종류로는 도(刀), 화살촉, 철갑편, 바클, 철제가위, 철제고리 등이 있다. 청동 제품은 모두 8점으로 바클, 포식(泡飾), 십자형 장식품, 팔찌, 반지, 오행대포(五行大布) 동전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은제 팔찌와 반지, 옥벽(玉璧), 마노(瑪瑙), 유리 재질의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대해맹에서는 2차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1,36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모두 165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통형관을 비롯하여 고복관, 단경호(短頸壺), 우(盂), 쌍이관, 개(盖)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는 758점으로 종류로는 도끼, 낫, 톱날, 창, 도, 철화살촉 등의 무기류와 말재갈, 재갈멈치, 등자(鎧子), 쇠사슬 등의 마구류, 바클 등의 허리장식품, 철갑편, 회갑(盔甲), 철정(鐵釘) 등이 있다. 청동기는 대부분 장식품으로 패식(牌飾), 바클 등의 허리띠장식, 팔찌, 둥근 고리장식 등이 대표적이다. 특징적으로 개원통보(開元通寶) 1매가 M17에서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은제 팔찌와 귀걸이, 옥벽, 마노, 녹송석(綠松石)으로 제작된 구슬 장식 등이 있다.

사리파에서는 모두 36기의 무덤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 종류로는 통형관, 고복관, 단경호, 발(鉢), 우, 병(瓶), 배(杯) 등이 있으며, 통형관과 단경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철기 종류로는 도, 창, 철화살촉 등의 무기류와 말방울, 등자와 같은 거마구, 허리띠 장식, 철정 등이 있다. 청동기는 대부분 장식품으로 패식, 허리띠와 바클, 팔찌, 십자형 청동장식품, 비녀 등과 더불어 개원통보 1점이 M27에서 출토되었다. 이밖에도 은제 팔찌와 방울, 옥벽, 마노구슬, 유리구슬, 뼈로 만든 비녀 등이 있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중 범말갈 문화를 대표하는 표지적 유물은 통형관이

다. 흔히 말갈관으로도 불리는 통형관은 석영 혹은 운모가 비집된 태토를 사용하여 손으로 제작하고 있다. 소성온도가 비교적 낮은 관계로 연질이 대부분이나 노하심 통형관의 경우 소성온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흑갈색·황갈색·회갈색·홍갈색 등 갈색계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노천요에서 소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양은 다수의 토기가 무문이며, 소량의 토기는 구연부와 견부에 현문(弦紋), 암문(暗紋), 각획문(刻劃紋), 압인문(壓印紋), 부가퇴문(附加堆紋) 등의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통형관은 말갈문화를 대표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형식분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¹³ 형식분류는 정확한 기준과 발전 모식, 그리고 공반유물과 출토 유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주변지역 유물과의 비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형식분류는 토기 기형의 변화 양상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식분류 자료를 토대로 각 유적에서 출토된 통형관을 무덤의 형식과 장법, 공반유물과 비교 검토하였다. 무덤의 조영시기를 알 수 있는 오행대포가 출토된 노하심 M33에서 공반 출토된 통형관(M33:12)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이른 시기의 통형관은 구연부가 나팔형으로 벌어져 있고, 문양이 많이 장식되어 있는 반면, 후대로 갈수록 구연부와 저부의 크기가 거의 같고, 무문에 복부가 날렵해지는 심복통형관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무덤 조영 시기가 가장 늦은 것으로 파악되는 사리파에서는 나팔형 구연부와 다양한 형태의 문양을 가진 통형관이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5 통형관 시기구분도)

13 喬梁, 1994, 「靺鞨陶器分期初探」, 『北方文物』2期; 林棟, 2008, 「靺鞨文化陶器的區系探索」,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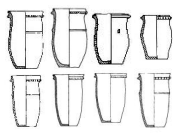
	노하심	대해맹 2차	대해맹 3차	사리파
조기				
중기				
만기				

그림 5 통형관 시기구분도

쌍이관은 복부에 두 개의 가로방향 손잡이가 달린 토기로 니질(泥質)에 흑갈색 혹은 회색을 띠고 있다. 노하심 출토품은 수제이며, 대해맹은 손으로 성형한 후 물레로 수리를 거치고 있다. 복부에 한 줄 혹은 두 줄의 현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일부는 두 줄의 현문 사이에 원점으로 사선 모양을 장식하고 있다. 사리파에서 출토된 쌍이관(M5:1)은 회갈색에 물레를 사용하여 성형하고 있다. 고복관은 모두 운모나 석영이 비집된 태토를 사용하여 손으로 성형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복부가 볼록하게 꺾이는 것이 특징이다. 문양은 무문이 다수이다. 단경호는 모두 니질 태토에 물레 성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흑갈색, 회갈색, 굴황색 등을 띠고 있으며, 소성온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일부는 복부에 현문이 새겨져 있으며, 현문 사이에 비점문(篋点紋) 혹은 물결문이 장식되어 있다. 토기 바닥에 승문(繩紋) 혹은 전(田)자, 미(米), 일(日)자 등의 부호가 찍혀져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단경호는 선비문화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6 토기 기종별 분류표)

철기는 대부분 단조로 제작되어 있으며, 주조는 소량에 불과하다. 종류로는 병기·마구·대금구·갓옷 편 등이 주를 이루며, 생산공구는 소량에 불과하다. 청동기는 대부분 장식품과 패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구(鉤具) 중 일부는 도금

처리된 것도 있으며, 일부는 옷칠이 되어 있다. 허리띠의 두 끝을 마주 걸어 잠그는 자물 단추인 과(鈎)와 받침인 탁(托) 사이는 청동 못을 사용하여 붙이고 있다. 허리띠의 끝 부분에 달린 대단금구(帶端金具)에서 허리띠에 사용된 가죽 흔적이 확인된다. 이밖에도 옥벽, 마노주, 유리구슬, 뼈비녀, 뼈구슬, 뼈화살촉, 납덩이 등이 발견되었다.

	노하심	대해맹 2차	대해맹 3차	사리파
쌍이관				
고북관				
단경호				

그림 6 토기 기종별 분류표

Ⅲ. 문화속성 분석

1. 장제적 특징

하나의 집단, 국가 혹은 민족은 각자 그들의 계통과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의례를 남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죽은 자를 처리하는 상(喪)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경우 그 현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매장행위인 장(葬)은 그 행위가 무덤이라는 물질적 잔존물에 남겨지게 된다는 점에서 무덤을 통해

당시 무덤 조영 집단의 계통과 기원을 일정 정도나마 파악할 수 있다.¹⁴

무덤에 나타나는 장제적 특징은 무덤의 배치와 방향의 규칙성, 무덤의 구조와 형태, 시신 매납 방법, 부장품의 위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하심의 경우 매장자의 머리 방향은 절대다수가 서향 혹은 서북향이다. 매장방식은 모두 이차장에 화장 흔적은 주로 목관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화장이 이루어진 목관의 경우 관재는 불에 탄 반면 인골에는 소성흔이 없다는 점에서 목관 매납 바로 전에 화장이 이루어졌고, 곧바로 흙을 덮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장품의 위치 역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데, 토기는 두개골 상부 혹은 발치 하부에, 철화살촉과 허리띠 등 철기는 허리 혹은 대퇴부 주변에 놓고 있다.

대해맹 무덤의 머리 방향은 대부분 서향이며, 일부만 남쪽 혹은 북쪽을 향해 있다. 매장방식은 일차장과 이차장, 화장이 모두 확인되며, 일부 무덤은 일차장과 이차장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일차장은 단인장과 2인 합장이 절대다수이며, 이차장은 단인장부터 많을 경우 11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시신의 자세는 양신직지가 다수이며, 우측 혹은 좌측 굴지도 일부 확인된다. 부장품의 위치에 관해서는 관의 상부에 토기를 매납하는 현상이 확인되며, 두개골 상부에는 토기와 옥벽, 허리부분에 철도, 철화살촉, 철창, 청동허리띠, 철갑편 등이 안치되어 있다. 일부 무덤에는 어깨 부분에 활과 활주머니, 화살촉 등이 세트로 구비되어 있다.

사리파의 무덤 방향은 동-서향이 대부분이며, 일부만 남-북쪽을 향해 있다. 머리 방향도 서쪽으로 향한 것이 대부분이며, 서남향은 소수에 불과하다. 매장방식은 단인장과 다인합장이 확인되는데, 단인장은 26기이고, 다인장은 2인장 8기, 3인장 4기, 4인장 3기,¹⁵ 7인장 2기 등이다. 단인장의 경우 대부분 양신직지 위주이며, 16기의 무덤에서는 이차장이 확인된다. M10의 경우 상부에

14 권오영, 2000, 「고대 한국의 상장의례」, 『한국고대사연구』 20, 한국고대사학회.

15 M10의 경우 상부 두층으로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부에 1구, 하부에 3구가 매납되어 있다.

1구, 하부에 3구가 안치되어 있다. 화장 흔적이 확인되는 무덤도 33기에 이른다. 부장품은 머리 상부에 통형관, 옥벽 등이 놓이며, 팔과 허리 주변에 동환, 팔찌, 허리띠, 마노주 등의 장식품이 안치되어 있다. 하반신 혹은 부관에는 철제 무기류와 마구류, 소형 청동제 장식품, 토기 등이 놓여 있다. 일부 무덤에는 말 두개골이 매납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속말말갈의 장제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무덤의 방향은 절대다수가 동-서 방향이고, 머리 방향은 서쪽을 향해 있다. 둘째, 매장 방식은 이차장과 화장 위주이며, 소수이지만 일차장과 일·이차장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화장 현상은 목관묘에서 주로 확인된다. 일차장은 단인장과 2인 합장이 주를 이루며, 이차장은 1명부터 11명까지 다양한 인원이 매장되어 있다. 일차장의 경우 시신의 자세는 앙신직지가 대다수이며, 우측 혹은 좌측 굴지장도 일부 확인된다. 셋째, 유물의 매납 위치에 일정한 규칙이 확인되는데 두개골 상부에는 토기와 옥벽, 허리 중앙에는 철제 무기류와 평상시 착용하던 장식품 패용 위치에 놓여 있으며, 발치와 부관에는 마구류, 소형 청동제 장식품, 토기 등이 위치해 있다. 넷째 무덤에 말 두개골을 매납하는 동물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유적의 편년

일반적으로 유적의 연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절대연대 측정법과 상대연대 측정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속말말갈 고분군의 경우 목탄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이 이루어져 절대연대가 확인되었다. 노하심은 A.D. 431~637년, 대해맹은 인골의 측정값을 제외하면 A.D. 415~645년, 사리파는 A.D. 428~643년으로 이들 고분군은 대략 5~7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측정값은 유적의 대략적인 사용 시기를 설명해 줄 뿐, 고분군 내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각 고분군의 문화 변화양상과 속말말갈의 전체적인 문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연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2〉 북류송화강유역 고분군 C14연대 측정값

유적명	내용	측정 물질	유구명	C14연대		나이테교정연대	비 고
				1차	2차		
노하심		목탄 (WB83-52)	M10	1550±65 (AD400)	1510±65 (AD440)	AD 431-637	
대해맹 ¹⁶		목탄 (ZK-0808)	T1	1580±85 (AD370)	1540±85 (AD410)	AD 415-636	
		목탄 (ZK-0809)	T1	1505±70 (AD445)	1460±70 (AD490)	AD 538-645	
사리파		목탄 (ZK-2248)	M10	1545±95 (AD405)	1500±95 (AD450)	AD 428-643	

노하심의 문화 흐름을 밝혀 줄 상대연대 자료는 대략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M33 충진토에서 출토된 오행대포(五行大布) 동전이다. 오행대포는 남북조시기 우문각(宇文覺)이 서위(西魏)를 대신하여 북주(北周)를 건립한 이후에 발행한 화폐이다.¹⁷ 이 동전의 출토는 M33의 조성 연대가 577년을 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두 번째는 고분군 내에서 확인되는 무덤 간 중복 관계이다. 예를 들면 목관묘 M23이 석관묘 M24의 동남쪽 모서리를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다. 더불어 이 두 무덤의 묘제와 머리 방향(M23 320°, M24 140°)이 다르다는 점에서 무덤 간에 시간적 서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 대부분이 수제(手製)로 모래 비집된 갈색계통이라는 점이다. 이는 니질에 물레 성형한 회색계열 토기가 발견되는 대해맹이나 사리파에 비해 노하심이 좀 더 일찍 조영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발굴보고서에는 발해 초기(早期)로 파악하고 있으나, 출토유물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고려해 보면 늦어도 5세기에 조영되어 7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해맹의 경우 M17에서 출토된 개원통보가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개원통보는 당 고조 이연(李淵)이 나라를 세우고 재위 3년이 되던 621년에 새롭게

16 대해맹유적의 경우 M19에서 출토된 인골(ZK-1196)의 측정값이 AD 980~1150으로 보고되었으나 목탄의 연대값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습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혹은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20쪽.

발행한 동전으로 이를 통해 이 고분군의 대략적인 조영연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해맹에서는 여섯 곳에서 중복 관계가 확인되는데, M19가 M24를 파괴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M17은 M22와 중복되어 있다. M18의 경우는 M20과 M21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다. M20 역시 M21을 파괴하고 있으며, 동시에 M26과 중복되어 있다. M7과 M5 역시 중복관계에 있다. 이 고분군은 다른 유적에 비해 중복관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고분군의 사용시기가 비교적 길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고분군의 연대는 대략 6~8세기로 추정된다.

사리파는 M27에서 출토된 개원통보를 통해 대략적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M8과 M12, M16과 M3이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어 고분군의 사용시기와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분군 내에서 대형 석실묘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은 이 고분군이 다른 곳에 비해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묘제의 출현은 고분군 위상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묘제별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면, 토광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관곽을 갖춘 목관묘가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석축묘가 출현하고 있는데, 석관묘가 먼저 채용되고 이후 석실묘로 발전하고 있다. 장식에서는 단인일차장이 주로 사용되다가 점차 다인일차장과 화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IV. 속말말갈 문화의 기원과 형성과정

1. 속말말갈 문화의 기원

속말말갈의 종족적 계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읍루·물길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쌍이관 등 일부 부여계 속성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통형관

을 지표로 하는 읍루·물길 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속말말갈의 출자로 인식되는 읍루와 물길은 주로 삼강평원 일대에 거주했던 족속으로 이들이 활동하던 시점의 물질문화는 곤토령(滾兔嶺)문화와 봉림(鳳林)문화로 대표된다. 곤토령문화는 쌍암산시(雙鴨山市) 곤토령유적을 대표로, 봉림문화는 우의현(友誼縣) 봉림성지 7성구(城區) 만기(晩期)문화층을 대표로 하여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 두 문화가 한 유적의 상층(봉림문화)과 하층(곤토령문화)에서 함께 확인된다는 점과 보루, 주거지, 토기 등 표지적 문화속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고학문화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고고학문화를 곤토령-봉림문화로 명명하고자 하며, 전기의 곤토령유형과 후기의 봉림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곤토령-봉림문화 유적은 지금까지 대략 600여 곳이 확인되었으며, 분포범위는 칠성하(七星河)유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우수리강 유역, 서쪽으로 장광재령(張廣才嶺) 이동, 남쪽으로 계서(鷄西)·임구(林口) 일대, 북쪽으로는 동류송화강을 넘지 않는다.¹⁹ 시간적 범위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5세기까지로 비정되며, 곤토령유형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까지, 봉림유형은 기원후 2세기에서 기원후 5세기로 볼 수 있다. 곤토령-봉림문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그 계통과 기원, 문화내용상의 특징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²⁰

18 송기호, 2003, 「속말말갈의 원류와 부여계 집단문제」,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七星河-三江平原古代遺址調查與勘測報告』, 科學出版社.

20 田禾, 2004, 「鳳林文化淺析」, 『北方文物』1期; 趙永軍, 2006, 「試論滾兔嶺文化」, 『北方文物』1期; 張國強·霍東峰·華陽, 2006, 「鳳林文化芻議」, 『北方文物』2期; 강인옥, 2009, 「靺鞨文化의 형성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문화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33집, 고구려발해학회;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41, 고구려발해학회; 강인옥, 2015,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52집, 고구려발해학회.

속말말갈 문화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있어 곤토령-봉림문화의 보루, 무덤, 토기 등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삼강평원일대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보루는 300여 곳에 이른다. 보루는 강가 혹은 하천 주변의 구릉 혹은 나지막한 산의 정상부에 입지해 있다. 형태는 불규칙한 원형 혹은 타원형이며, 벽체는 성벽 둘레로 호를 파서 쌓아 올리고 있다. 보루 중앙에 높은 토대를 조성하고 그 주변으로 원형 수혈이 밀집 배치되어 있다. 봉림유형 단계에 들어서면 보루의 규모가 커져 성벽에 성문, 각루, 치 등이 설치되면서 성곽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북류송화강 상하만진일대 보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입지와 형태, 규모, 성내 시설물, 축성 방법 등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류송화강 일대 보루의 출자는 삼강평원일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덤은 종족과 물질문화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제는 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통성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조사된 곤토령-봉림문화의 무덤은 소팔랑유적에서 조사된 3기가 전부이다. 무덤은 모두 토광묘로 단인일차장에 양신직지를 취하고 있으며, 유물은 갈돌, 귀걸이, 철제 팔찌, 오수전(五銖錢) 등이 출토되었다. 무덤에 돼지 턱뼈와 두개골이 매납되어 있는 것 역시 이 무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²¹ 소팔랑유적 무덤에서 확인되는 장제 양상이 매우 단편적이고 속말말갈 무덤과 시간적 간극이 크기 때문에 두 무덤을 직접 비교하여 문화적 계통성을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삼강평원 일대에서 속말말갈의 무덤과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말갈계 무덤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문화적 계통성 여부를 풀어보고자 한다.

5~6세기 삼강평원지역을 대표하는 말갈 무덤으로는 나북현(羅北縣) 단결(團結)고분군을 들 수 있다. 단결고분군에서는 모두 10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는

21 黑龍江省佳木斯市文物管理站, 2002, 「黑龍江樺南縣小八浪遺址的發掘」, 『考古』7期.

데, 9기의 무덤이 동-서 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머리는 동쪽 혹은 동남쪽을 향해 있다. 무덤 형식은 장방형의 토광묘로 규모는 일정하지 않다. 장식은 단인일차장으로 양신직지를 취하고 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M1만 남-북 방향으로 2인 이차장이 사용되고 있다. 관을 사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무덤에서 목탄이 확인되고 있어 화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장품의 위치는 토기의 경우 묘광의 한쪽 면에 생토면을 이단으로 조성하여 그 위에 토기를 안치하거나 혹은 묘광 네 모서리에 하나씩 안치하고 있다. 기타 유물은 인골 주변에 흩어져 있다. 일부 무덤에는 돼지 머리뼈를 매납하고 있다. 유물은 토기, 철제 무기류, 마구류, 철갑편, 석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통형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²²

삼강평원지역 말갈계 무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평면 장방형의 순수토광묘로 매장방식은 단인일차장과 더불어 화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머리 방향은 동쪽 혹은 동남쪽을 향해 있고, 토기는 초기에 매납되지 않다가 후기에 오면 생토면을 이단으로 조성하여 그 위에 안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돼지뼈를 매납하는 동물순생 풍속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들을 속말말갈 무덤과 비교해 보면 묘제에서 삼강평원의 경우 순수토광묘가 대부분인 반면 속말말갈은 순수토광묘와 더불어 목관묘와 석축묘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장식에서도 삼강평원은 단인일차장 위주인 반면 속말말갈은 다인이차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화장현상은 두 지역에서 모두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머리 방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삼강평원은 동쪽 혹은 동남쪽을 향해 있는 반면, 속말말갈은 서쪽 혹은 서북쪽을 향해 있다. 동물순생 풍속 역시 삼강평원은 돼지뼈가 매납되고 있는 반면, 속말말갈에는 말뼈가 매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놓고 볼 때, 삼강평원지역의 읍루·물갈·말갈계 무덤과 속말말갈 무덤 사이에는 장제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갈문화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2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黑龍江蘿北縣團結墓葬發掘』, 『考古』8期.

유물이 통형관이다. 그러나 곤토령유형 유적에서는 통형관이 출토되지 않는다. 곤토령유형 토기는 소량의 홍의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홍갈 혹은 회갈색의 협사도 계통으로 동체부에 뿔모양 손잡이가 달려 있고 문양은 무문이 대다수이다. 주요 기종으로는 파수부호, 홍의호, 심복완(深腹碗), 단이배(單耳杯), 사구완, 원통형 토기 등이 있다.²³ 봉림유형 단계에 들어서면 협사도 이외에도 니질의 회색계통 토기와 흑색마연 토기가 출현하고 있다. 여전히 뿔 모양 손잡이와 돌기모양 손잡이가 유행하고 있으며, 문양은 무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량의 토기에 지두압인문, 물결문, 침선문 등이 시문되고 있다. 바닥은 평저(平底) 외에도 권족기(圈足器)와 가권족기(假圈足器)가 출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기존의 곤토령유형 토기와 더불어 말갈문화를 대표하는 통형관과 옥저문화를 대표하는 두형토기, 분형다공증, 심복분 등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 이는 봉림유형 단계에 들어서면 주변지역과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 해준다. 더불어 통형관의 출현은 동류송화강 이북 지역의 폴체-완정하문화(蜿蜒河文化)와 일정한 문화적 교류가 있음을 시사하고, 두형토기와 분형다공증 등은 옥저계 단결문화가 이 지역에 유입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²⁴

최근 곤토령유형의 사용집단을 옥저계 주민집단이 북상하여 남하한 폴체계 집단 일부와 융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²⁵가 제기되었다. 곤토령-봉림 문화 문화내용상에 말갈계 문화요소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옥저계에서 기원을 찾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선사시대 삼강평원 일대의 문화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 지역은 신석기문화 단계에서 청동기문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초기철기문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²⁶ 기원전 2세기경 초기철기문화인 곤토령-봉림문화가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데, 초기 유적의 문화 내용에 홍의도

23 趙永軍, 2004, 「黑龍江東部地區漢魏時期文化遺存研究」, 『邊疆考古研究』 3輯, 162쪽.

24 이종수, 2011, 앞의 논문.

25 강인옥, 2015, 앞의 논문.

26 이종수, 2014, 앞의 논문.

와 채색토기 등 한서이기문화의 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초기철기 문화 형성에 한서이기문화가 일정정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세기경이 되면 연해주지역의 단결문화와 흑룡강유역의 폴체-완정하문화 요소가 이 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면서 봉림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문화의 사용집단을 곤토령유형은 읍루로, 봉림유형은 물길로 파악한 바 있다.²⁷ 읍루가 언제 출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 읍루조에 “3세기 초반 부여의 무거운 세금과 부여에 반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부여가 복속시키지 못하였다”²⁸는 내용을 통해 볼 때, 3세기 초반(220~226년)에 부여의 동북쪽에 읍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길이란 명칭은 『위서(魏書)』 물길전의 “延興中, 遣使乙力支朝獻”이란 기록에서 처음 확인된다. 『책부원구(冊府元龜)』에는 효문제(孝文帝) 연흥(延興) 5년(475년)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물길 관련 기록은 572년 북제에 대한 조공을 끝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물길의 출현 시점은 226년에서 475년 사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봉림문화의 출현시점과 대략 일치한다는 점에서 곤토령-봉림문화를 읍루-물길의 물질문화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곤토령-봉림 문화의 서진과 속말말갈 문화의 형성

곤토령-봉림문화의 서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여-읍루 간 교통로상에 관련 유적이 분포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곤토령-봉림문화의 중심지인 쌍압산시 일대에서 북류송화강 중류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추정해 보면, 우선 쌍압산일대에서 동류송화강을 따라 서쪽으로 의란(依蘭)을 지나

27 이종수, 2011, 앞의 논문.

28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鄰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방정(方正)에 이르면 두 방향으로 갈라지게 된다. 하나는 동류송화강을 따라 계속 서진하다 흥룡강성 빈현(賓縣) 일대에서 남하하여 아성(阿城)과 유수(榆樹)를 거쳐 북류송화강 중류에 이르는 선이다. 다른 하나는 방정에서 마정하(蚂蚁河)를 따라 연수(延壽)에 이르고 다시 상지(尙志)와 오상(五常)을 거쳐 북류송화강 중류에 이르는 선이다.

현재 이 교통로 상에서 확인되는 곤토령-봉림문화 유적은 많지 않으나 최근 구제발굴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고 있다. 쌍압산과 인접한 의란현의 경우 목단강하류 왜궁하(倭肯河)유역에서 소단산(小團山)보루, 대동안(大東安)보루, 흥룡(興隆)보루 등 다수의 보루유적이 발견된 바 있다.²⁹ 방정현에서도 최근 우가둔(于家屯)고성이 발견되어 두 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졌다.³⁰ 우가둔고성은 동류송화강 남안의 평탄 대지상에 위치해 있다. 발굴결과 주거지 11기, 수혈구덩이 3기, 무덤 4기가 조사되었는데, 문화내용상 경화고성과 곤토령-봉림문화의 속성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이 당시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¹ 방정에서 빈현-아성-유수를 거쳐 북류송화강에 이르는 노선에서 곤토령-봉림문화의 서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소성자(小城子)고성, 성자산(城子山)보루, 성자구(城子溝)보루, 황대성자산(黃大城子山)보루 등의 소형 보루군³²과 더불어 색리구(索離溝)유적,³³ 노산두(老山頭)유적, 과원서강(果園西崗)유적³⁴ 등이 있다. 방정에서 연수-상지-오상을 거치는 노선에서

29 依蘭縣博物館 팸플릿(pamphlet) 참조.

30 田禾, 2009, 「方正縣于家屯早期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2008, 文物出版社; 2010, 「方正縣于家屯兩漢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鑑』2009, 文物出版社.

31 이종수, 2013, 「부여의 대외교류와 교통로 연구」, 『백산학보』96호, 백산학회.

3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8, 「黑龍江賓縣慶華遺址發掘簡報」, 『考古』7.

33 李硯鐵, 2008, 「賓縣索離溝早期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2007, 文物出版社;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0, 「黑龍江省賓縣索離溝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1.

34 張偉, 2008, 「賓縣索離溝早期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2007, 文物

는 최근에 발굴이 이루어진 오상 백기(白旗)유적³⁵이 대표적이다.

곤토령 - 봉림문화는 이러한 교통로를 따라 점차 서진하여 늦어도 5세기경에는 북류송화강 중류 일대에 터전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류송화강 중류 유역에 안착한 곤토령 - 봉림문화 집단은 이 지역의 토착세력인 부여문화인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속말말갈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속말말갈 문화에 나타나는 부여문화 요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여와 속말말갈의 장제적 특징을 비교해 보면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부여의 중심 묘제인 목관묘가 속말말갈 무덤에도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점, 노하심 중층고분군에서 목관에 타다 남은 소성흔이 확인되고 있는데 속말말갈 목관묘에도 불에 탄 소성흔이 발견되고 있는 점, 소수이기는 하나 토기를 관 상부에 매납하는 점, 사자의 머리 방향이 모두 서쪽을 향해 있는 점, 무덤에 말뼈나 말머리를 매장하는 동물순생 풍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부여문화의 표지적 유물인 쌍이관이 속말말갈의 모든 고분군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여문화의 전통이 속말말갈 문화에 폭넓게 유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6 참조) 이밖에도 속말말갈 문화내용에는 고구려적 요소도 일부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이 석축묘로 특히 석실분은 고구려의 봉토석실분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발해 성립 이후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⁶

이러한 속말말갈의 문화 성립 과정은 문헌에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읍루조의 기록을 통해 보면, 220~226년경에 읍루는 부여의 지배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읍루를 신속시켰던 부여는 285년 모용외의 침략과 346년 “백제”의 침입, 같은해 전연 모용황의 침입으로 국왕 현 이하 5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出版社.

35 張春風·姜曉宇, 2010, 「五常市白旗兩漢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鑑 2009』, 文物出版社.

36 고성옥, 2018, 「발해 육정산고분군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잡혀가는 국가 붕괴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구려와 선비의 공격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부여는 물질의 압박으로 494년 부여왕과 그 처자가 고구려에 항복함으로써 멸망하게 된다.³⁷ 물질은 부여의 세력이 약해지는 3세기 후반에 점차 서진을 시작하여 4세기 중반에 이미 부여의 동북쪽 일대까지 진출하고 늦어도 5세경에는 북류송화강 중류 유역에 기반을 잡고 있다. 이 시기에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강력한 세력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당시 부여의 중심지인 길림시 일대를 차지한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상하만진 일대에 보루형 산성을 축조하고 있다. 점차 세력을 확장한 물질은 5세기 후반에는 부여를 압박하여 북류송화강 일대에서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독자적인 세력을 영위하던 물질은 6세기 후반(572년경)에 고구려에게 복속되면서 정치세력으로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 지역에 거주하던 물질인들은 정치적으로는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 중국왕조에서는 고구려와 구별하기 위해 말갈계에 포함시켜 속말말갈로 불리게 되었다.

속말말갈 문화는 삼강평원 일대의 곤토령-봉림문화 사용집단이 북류송화강 중류 일대로 이동해 오면서 이 지역의 부여문화와 결합하여 새롭게 형성된 고고학 문화라 할 수 있다. 곤토령-봉림문화는 한서이기문화의 기반 위에 옥저계 단결문화와 폴체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점차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북류송화강 중류지역에 이르게 된다. 이후 토착계통의 부여문화를 흡수하고 더불어 고구려 문화 요소도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속말말갈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속말말갈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말갈문화의 계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한다면³⁸ 이번 연구를 통해 속말말갈 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말갈계 문화와는 차이가 있는 곤토령-봉림문화를 기반으로 부여와 고구려 문

37 이종수, 2004, 〈夫餘文化研究〉,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4쪽.

38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형적인 말갈계 문화는 폴체-완정하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인문화이며, 이 문화의 사용집단은 후속말갈에 해당된다.

화 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문화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구당서·말갈전(舊唐書·靺鞨傳)』에 기록된 “死者穿地葬之, 以身襯土, 無棺斂之具, 殺所乘馬于尸前設祭”란 내용은 당시 말갈 전체의 장제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속말말갈에서 행해지던 상장의례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북류송화강유역 속말말갈 관련 유적의 문화내용상 특징과 그 기원과 계통, 문화 성립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류송화강 중류의 속말말갈을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우수 노하심유적 상층고분군, 양둔 대해맹 상층고분군, 사리파고분군과 상하만진 일대의 소형 보루군 등이 있다. 속말말갈의 묘제는 토광묘, 목관묘, 석축묘로 구분되며, 토광묘와 목관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토광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되고 이후 목관묘와 석축묘가 출현하고 있다. 상하만진 일대의 산성은 대략 10여 곳이 확인되었는데, 북류송화강 서쪽의 구룡성 산지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산성들은 주변 취락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로상에 설치한 방어시설로 볼 수 있다. 유물은 토기, 철기, 장신구 등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토기 기종으로는 통형관, 쌍이관, 고복관, 단경호 등이 있는데, 통형관이 수량도 가장 많고 특징적이다.

속말말갈 무덤의 장제적 특징은 무덤 방향이 동-서향이고, 사자의 머리 방향은 서쪽을 향해 있다. 장식은 단인일차장에서 다인이차장과 화장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화장은 목관묘에서 주로 확인된다. 유물의 매납 위치에 일정한 규칙이 확인되며, 말 두개골을 매납하는 동물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덤의 편년은 노하심의 경우 5~6세기, 대해맹과 사리파는 6~8세기대로 볼 수 있다.

속말말갈의 문화적 기원은 삼강평원 지역의 곤토령-봉림문화로 볼 수 있다. 기원전 2세기경에 곤토령유형이 처음 출현하고 있는데, 한서이기문화의 영향이 일부 확인된다. 2세기경이 되면 연해주지역의 단결문화와 흑룡강 유역의

폴체-완정하문화 요소가 이 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면서 봉림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문화의 사용집단은 곧토령유형은 읍루, 봉림유형은 물길로 비정할 수 있다.

곧토령-봉림문화는 그 중심지인 쌍압산시일대에서 점차 서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류송화강을 따라 의란과 방정을 거쳐 두 갈래 방향으로 북류송화강 중류 유역에 터전을 잡고 있다. 이러한 서진 과정은 교통로상에서 입지한 보루형 산성과 곧토령-봉림문화 내용을 가진 우가둔고성, 색리구유적, 백기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세기경에 북류송화강 유역에 안착한 곧토령-봉림문화 사용집단은 이 지역의 토착문화인 부여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속말말갈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다. 목관묘의 사용, 목관묘에 보이는 화장흔, 토기를 관 상부에 매납하는 행위, 머리 방향이 모두 서쪽을 향해 있고, 쌍이관이 출토되고 있는 점과 말뼈가 매납되는 순생행위 등은 부여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석축묘는 고구려 봉토석실분의 영향을 받아 축조되고 있다.

속말말갈 문화는 삼강평원 일대의 곧토령-봉림문화 사용집단이 북류송화강 중류 일대로 이동해 오면서 이 지역의 부여문화를 흡수하고 고구려문화 요소도 받아들여 새롭게 형성한 고고학 문화이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헌기록에 3세기 초반 읍루는 부여의 신속하에 있었는데 반란을 통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일정시점에 물길로 대체되게 된다. 이후 물길은 부여는 세력이 약해지는 3세기 후반에 점차 서진을 시작하여 4세기 중반에 부여의 동북쪽 일대까지 진출하고, 늦어도 5세기에는 북류송화강 중류유역에 기반을 잡고 있다. 이 시기에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강력한 세력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당시 부여의 중심지인 길림시 일대를 차지한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상하만진 일대에 보루형 산성을 축조하고 있다. 점차 세력을 확장한 물길은 5세기 후반에는 부여를 압박하여 북류송화강 일대에서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독자적인 세력을 영위하던 물길은 6세기 후반(572년경)에 고구려에 완전하게 복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속말말갈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말갈문화의 계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속말말갈 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말갈계 문화와는 차이가 있는 곤토령-봉림문화를 기반으로 부여와 고구려 문화 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문화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당서(舊唐書)·말갈전(靺鞨傳)』에 기록된 말갈의 상장의례 내용은 말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속말말갈에서 행해지던 장례의식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 강인옥, 2009, 「靺鞨文化의 형성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문화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3집, 고구려발해학회.
- _____, 2015,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집, 고구려발해학회.
- 권오영, 2000, 「고대 한국의 상장의례」, 『한국고대사연구』 20, 한국고대사학회.
- 권오중, 1980, 「말갈의 종족계통에 관한 시론」, 『진단학보』 49기, 진단학회.
- 권은주, 2008, 「말갈연구와 유적현황」, 『중국학계의 북방민족, 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 「말갈 7부의 실체와 발해와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5, 고구려발해학회.
- 김락기, 2007, 〈5-7세기 고구려의 동북방 경역과 물질·말갈〉, 인하대학교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5-6세기 물질의 중심지와 도태산」, 『한국고대사연구』 53, 한국고대사학회.
- 김영천, 2008, 「말갈의 성장과 고구려의 말갈 복속」, 『고구려발해연구』 32, 고구려발해학회.
- 김현숙, 1993, 「고구려의 말갈지배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 한국고대사학회.
- 송기호, 2003, 「속말말갈의 원류와 부여계 집단문제」,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8,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북방 경계선」, 『한국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41, 고구려발해학회.
- _____, 2013, 「부여의 대외교류와 교통로 연구」, 『백산학보』 96호, 백산학회.
- _____, 2014, 「黑龍江省 東部지역의 先史文化와 肅慎」, 『동양고전연구』 57호, 동양고전학회.
- 한규철, 1988, 「고구려시대의 말갈연구」, 『부산사학』 14.15합집, 부산경남사학회.
- _____, 1988, 「숙신·읍루 연구」, 『백산학보』 35, 백산학회.

中国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 喬 梁, 1994,「靺鞨陶器分期初探」,『北方文物』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吉林永吉查里巴靺鞨墓地」,『文物』9.
- 吉林省文物工作隊, 1985,「吉林舒蘭黃魚圈珠山遺址清理簡報」,『考古』4.
- 吉林省文化局群眾文化處, 1961,「吉林九台上河灣考古調查」,『考古』3期.
- 吉林市博物館, 1987,「吉林永吉楊屯大海猛遺址」,『考古學集刊』第5集, 科學出版社.
- , 1991,「吉林永吉楊屯大海猛遺址3次發掘」,『考古學集刊』第7集, 科學出版社.
- 譚英杰·趙虹光, 1990,「靺鞨故地上的探索—試論黑水靺鞨與粟末靺鞨物質文化的區別」,『北方文物』2.
- 劉振華, 1973,「永吉楊屯遺址試掘簡報」,『文物』8.
- 劉曉東, 2007,「靺鞨文化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李英魁, 1989,「黑龍江省蘿北團結墓葬清理簡報」,『北方文物』1.
- 李陳奇, 1999,「靺鞨—渤海考古學的新進展」,『北方文物』1.
- 林 棟, 2008,「靺鞨文化陶器的區系探索」,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範恩實, 2003,「靺鞨族及渤海建國前的靺鞨與周邊關係」,『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北京大學盛唐研究叢書, 上海辭典出版社.
- 孫進己·于志耿·庄嚴, 1985,「勿吉和靺鞨的物質文化」,『博物館研究』1.
- 楊保隆, 1985,「勿吉地域西南部邊至考」,『北方文物』4.
- 王成玉, 2006,「黑水靺鞨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魏國忠, 1994,「關於勿吉族的幾個問題」,『東北民族史研究(二)』, 中州古籍出版社.
- 魏存成, 1998,「第二松花江中流地區的靺鞨·渤海墓葬」,『北方文物』1.
- 尹郁山, 1990,「吉林永吉縣查里巴村發二座渤海墓」,『考古』6.
- 李硯鐵, 2008,「賓縣索离溝早期鐵器時代遺址」,『中國考古學年鑑』2007, 文物出版社.
- 張國強·霍東峰·華陽, 2006,「鳳林文化芻議」,『北方文物』2期.
- 張偉, 2008,「賓縣索离溝早期鐵器時代遺址」,『中國考古學年鑑』2007, 文物出版社.

- 張春風·姜曉宇, 2010, 「五常市白旗兩漢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鑑 2009』, 文物出版社.
- 張泰湘, 1995, 「勿吉—靺鞨文化研究」, 『東北考古研究』, 中州古籍出版社.
- 田 禾, 2004, 「鳳林文化淺析」, 『北方文物』1期.
- _____, 2009, 「方正縣于家屯早期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2008, 文物出版社.
- _____, 2010, 「方正縣于家屯兩漢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鑑』2009, 文物出版社.
- 趙善桐, 1962, 「黑龍江濱縣老山頭遺址探掘簡報」, 『考古』3.
- 趙永軍, 2004, 「黑龍江東部地區漢魏時期文化遺存研究」, 『邊疆考古研究』3輯.
- _____, 2006, 「試論滾屯嶺文化」, 『北方文物』1期.
- 朱 泓, 1993, 「靺鞨人種研究」, 『青果集』, 吉林大學出版社.
- 馮繼欽, 1986, 「靺鞨族共同體類型及其特點初探」, 『北方文物』2.
- 馮恩學, 2005, 「黑龍江中遊地區靺鞨文化的區域性及族屬探討」,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3.
- 黑龍江省佳木斯市文物管理站, 2002, 「黑龍江樺南縣小八浪遺址的發掘」, 『考古』7期.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七星河—三江平原古代遺址調查與勘測報告』, 科學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黑龍江蘿北縣團結墓群發掘」, 『考古』8期.
- _____, 2010, 「黑龍江省賓縣索離溝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1.
- _____, 2009, 「黑龍江方正于家屯漢代遺址發掘簡報」, 『文物』4期, 2009.

기타

- Mark Edward Byington, 2016, “The Ancient State of Puyō in Northeast Asi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속말말갈의 문화적 특징과 성립과정 고찰

이종수

이 글은 북류송화강유역 속말말갈 유적의 문화내용상 특징과 기원 그리고 성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대표 유적으로는 노하심 상층고분군, 대해맹 상층고분군, 사리파고분군, 상하만진 보루군 등이 있다. 무덤 형식은 토광묘, 목관묘, 석축묘로 구분되며, 토광묘와 목관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토광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되고 이후 목관묘와 석축묘가 출현하고 있다. 상하만진 일대 보루군은 북류송화강 서쪽의 구릉성 산지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루들은 주변 취락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로에 설치한 방어시설로 볼 수 있다. 유물은 토기, 철기, 장신구 등 다양하게 출토되는데, 통형관이 수량도 가장 많고 특징적이다.

속말말갈 무덤의 장제적 특징은 무덤 방향이 동-서향에 머리는 서쪽을 향해 있다. 장식은 단인일차장에서 다인이차장과 화장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화장은 목관묘에서 주로 확인된다. 유물의 매납 위치에 일정한 규칙이 확인되며, 말 두개골을 매납하는 동물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덤의 편년은 노하심 5~6세기, 대해맹과 사리파는 6~8세기로 볼 수 있다.

속말말갈의 문화적 기원은 삼강평원 지역의 곤토령-봉림문화이다. 기원전

2세기경 한서이기문화의 영향으로 곤토령유형이 출현하고 있으며, 2세기경에는 옥저계 단결문화와 풀체-완정하문화 요소가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봉림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문화의 사용집단은 곤토령유형은 읍루, 봉림유형은 물길로 비정할 수 있다.

곤토령-봉림문화는 그 중심지인 쌍압산시 일대에서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여 5세기경에 북류송화강 유역에 안착하고 있다. 곤토령-봉림문화 사용집단은 이 지역의 토착문화인 부여문화를 흡수하고 고구려문화 요소도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속말말갈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강력한 세력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5세기 후반에는 부여를 압박하여 멸망시키고 있다. 이렇게 독자적인 세력을 영위하던 물길은 6세기 후반(572년경)에 고구려에 복속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속말말갈 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말갈계 문화와는 차이가 있는 곤토령-봉림문화를 기반으로 부여와 고구려 문화 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문화유형이며, 또한 『구당서·말갈전』의 상장의례 내용은 당시 속말말갈에서 행해지던 장례의식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주제어: 속말말갈, 문화형성, 부여, 읍루, 물길, 고분군, 보루, 상장의례, 곤토령-봉림문화

ABSTRACT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Sumo Mohe Culture

Lee Jongsu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rigin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cultural contents of Sumo Mohe ruins in the North Songhua River Basin. The representative ruins include Laoheshen Upper class ancient tombs, Chaliba ancient tombs, Dahaimeng Upper class ancient tombs and Shanghewanzhen Bastions. The types of the tombs are divided into Pit tombs, Wooden coffin tombs and Stone tombs, and a majority of them is Pit tombs and Wooden coffin tombs. In time, the Pit Tombs are used in the earliest stages and Wooden Coffin Tombs and Stone Tombs are emerging. Shanghewanzhen Bastions is densely distributed in the hills west of North Songwha River. The mountain fortresses are bastion facilities installed on a traffic route to defend the surrounding settlements. Various relics are excavated, such as earthenware, ironware and accessories, and most of them are cylindrical pots, which is the most

characteristic.

Sumo Mohe tombs' funeral ritual characteristics include, the tombs' direction is from the east to the west, and they focus on the second burial and cremation in Yangshen Zhizhi (Literally, the bodies had been laid in extended supine position, with heads towards the north). Certain rules are found in the burial of the relics, and the phenomenon of Shunsheng (Burial of the living with the dead) in which horse bones were buried. As for the period, Laoheshen is dated about the 5th - 6th century, and Dahaimeng and Chaliba, about the 6th - 8th century.

The cultural origin of Sumo Mohe is Guntuling-Fenglin culture in the Sanjiang Plain.

Around the 2nd century B.C, With the influence of Han Shu culture, the Guntuling type is emerging. Around the 2nd century, the Woju-based Tuanjie culture and polche cultural elements were introduced to the region, and they are developing into the fenglin type. The Gunturing type may be Yilou, and the Fenglin type may be Wuji.

The Sumo Mohe culture originated from the Gunturing-Fenglin culture around the Sangang Plain region. Influenced by the Han Shu 2qi culture in the 2nd century B.C., the Gunturing type emerged, whilst the influx of the Woju-style Tuanjie and Wantinghe components around the 2nd century into this region underpinned the development of the Fenglin type. The Yilou and Wuji tribes are deemed to have been the users of the Gunturing and Fenglin types of culture, respectively.

The Gunturing-Fenglin culture moved gradually westward from its center in Shuangyashansi, settling in the north-flowing Songhua River basin around the 5th century.

The tribes using the Gunturing-Fenglin culture absorbed the native

Buyeo culture and partly accepted Goguryeo's cultural components to engender the new Sumo Mohe culture. Growing their force through a direct exchange with China in the late 5th century, they oppressed and destroyed Buyeo. After wielding a relentless force, the Wuji were subjugated by Goguryeo in the late 6th century (around 572).

The findings highlight that the Sumo Mohe culture differed from the Mohe-style culture as is generally known but was a new type of culture combining Buyeo's and Goguryeo's cultural components based on the Gunturing-Fenglin culture, and that the funeral ritual described in 『The Book of Tang - Mohe』 was the practice performed in the then Sumo Mohe culture.

Keywords: Sumo Mohe, Culture Formation, Buyeo, Yilou, Wuji, Ancient tombs, Bastions, Funeral ritual, Gunturing-Fenglin Cultur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집 II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제 국가형성사 연구 동향과 과제

김기섭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국가형성 시기 연구 동향과 논점
- III. 건국 중심세력 연구 동향과 논점
- IV. 맺음말-과제와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한국고대사학계에서 백제사 연구만큼 짧은 기간에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한 분야도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20년간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 7월에는 웅진·사비도읍기의 왕도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등 한성도읍기의 왕도유적은 빠져 있다. 문화재적 가치를 잘 보존하지 못한 탓만은 아니다. 백제 건국 및 문화기반에 관한 학계의 연구성과가 아직 미흡하기에 문화재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탓이 더 크다.

백제의 국가형성에 관한 연구는 그간 2가지의 논쟁점을 만들었다. 하나는 언제 국가를 형성시켰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국가형성을 주도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가형성시기 문제는 『삼국지』의 마한 관련 기사와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리고 문헌자료로 추론한 바를 그간 유적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고고자료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국가형성 주도세력 문제는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공통점 내지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중요하다.

『삼국지』한전에 따르면, 3세기 중·후엽에 한반도 남반부는 마한·진한·변한 3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¹ 삼한은 단일한 정치체가 아니어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마한은 50여 개국, 동쪽의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한 50여 국 중 하나인 백제국(伯濟國)이 나중에 백제(百濟)로 성장하고, 진한 12개국 중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이 나중에 신라(新羅)로 성장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 투고: 2018년 5월 11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2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1 『三國志』권30, 「魏書」烏丸鮮卑東夷傳, 韓.

한편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는 북쪽 졸본부여에서 내려온 온조 일행이 전한 홍가 3년(18BCE) 하남위례성에서 세운 나라이다.² 백제는 온조왕 13년(6BCE)에 이미 북쪽으로는 패하, 남쪽으로는 웅천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한 것으로 적혀 있다.³ 전래의 지명 연혁에 따라 패하를 대동강, 웅천을 금강으로 고증한다면 국가 초기부터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패하를 예성강, 웅천을 안성천으로 조정해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백제가 기원 전 후한 무렵, 나라를 세운지 13년만에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바깥까지 모두 영토로 만들었다는 해석은 『삼국지』 기록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은 온조를 비롯한 건국세력이 말을 잘 부리는 북방계통의 기마집단이기에 빠른 속도로 정복하고 한강유역에서 정착했다고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온조왕 26년(8CE)에 백제가 마한을 병탄했다는 기사처럼 도저히 믿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을 대폭 수정한다. 그만큼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록에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백제의 건국시기와 초기 왕실계보 및 각종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밝힌 기록은 『삼국사기』가 유일하다. 만약 『삼국지』를 기준으로 백제의 건국시기와 국가발전과정을 추론한다면 백제의 시조왕이 누구인지, 언제 백제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실린 약 2백여 년의 본기(本紀) 기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설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계는 지난 수십 년간, 더 나아가서는 1백 년 가까이 나름대로 끈질기게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의 흐름을 쫓아가보면 문제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만큼 답을 찾는 일도 쉬워질 것이다.

2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즉위년)

3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域 北至溟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II. 국가형성 시기 연구 동향과 논점

백제 시조 온조왕이 전한 성제의 홍가 3년(18BCE)에 나라를 세웠다는 『삼국사기』 기록에 대해, 대한제국기까지는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일제 때 츠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가 『일본서기』 기록을 근거로 시조 온조왕부터 제12대 계왕(344~346)까지의 왕실계보를 전설이라고 주장한⁴ 이후 일본인 사학자들이 『삼국사기』의 신빙성을 본격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했다. 대신 그들은 『삼국지』 한전에 주목하였다.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삼국지』 한전의 백제국을 근거로 백제의 기원을 3세기말경으로 추정하였으며, 4세기의 백제 역사에 대해서도 『삼국사기』보다는 『일본서기』와 광개토왕비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재구성하려 했다.⁵ 『삼국사기』에는 『일본서기』와 달리 4~5세기 백제와 왜(倭) 사이에서 일어난 중요한 역사 사실이 모두 빠져 있으므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본인 학자들의 『삼국사기』에 대한 불신은 백제의 국가형성과정을 몇몇 간단한 중국 사료로만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오타 료(太田亮)는 『삼국사기』의 백제 왕실계보가 조작되었다는 전제하에 제8대 고이왕부터 제12대 계왕까지의 이른바 고이왕계는 왕이 아닌 왕족이며 제13대 근초고왕(346~375) 이전 왕들의 재위년수는 근초고왕부터 제19대 구이신왕(420~427)까지의 재위년수를 기초로 조작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는 북쪽 부여족의 일파가 4세기 초엽 남쪽으로 내려와 옛 대방군 땅에서 백제를 세운 것이 아닐까 추정하였다.⁷ 285년경 모용씨(慕容氏)가 부여를 격파하자 동쪽으로 도망갔던 일파가 대방군이 멸망한 뒤 종족 대이동 시기에 집단 이주해서

4 津田左右吉, 1921, 「百濟に関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8, 東京帝国大学文学部.

5 今西龍, 1929, 「百濟略史」, 『朝鮮及滿洲』 1929-6; 1934,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6 太田亮, 1928, 『日本古代史新研究』, 磯部甲陽堂.

7 稻葉岩吉·矢野仁一, 1935, 『世界歴史大系11-朝鮮・滿洲史-』, 平凡社.

나라를 새로 세웠다는 것이다.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의 추론도 비슷하다. 그는 285년경 모용씨가 부여를 격파하자 부여의 왕족 일부가 무리를 이끌고 옥저로 피신했다가 4세기 초에 남쪽으로 내려와 옛 대방군 땅에서 한의 백제국과 연합함으로써 백제를 만들었다고 추론하였다.⁸ 모두 중국사서 『진서(晉書)』·『위서(魏書)』·『주서(周書)』·『수서(隋書)』·『북사(北史)』 등의 동이전 기록과 시대 정황을 참작해 백제 건국과정을 논리적으로 추정한 것이며, 『삼국사기』 기록과 왕실계보는 무시하였다.

4세기 초까지의 백제사를 아예 거론하지 않거나 생략한 일본인 연구자들도 있다.⁹ 이들은 한결같이 중국사서에 기재된 중국왕조와 동이의 교섭기사에 주목하고 그를 통해 백제 역사를 전설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었다. 역사시대는 중국사서에 이름이 처음 나오는 근초고왕을 시작 기준으로 삼았다. 『삼국사기』에 실린 백제 왕실계보 중 근초고왕 이전 부분은 『구삼국사』 등의 전설적 계보에 따른 허구라는 기존의 사료 인식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독립적인 『삼국사기』 사료 비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일관계사를 통해 일본의 왕실계보와 왜인의 활동상을 복원하려는 연구방법론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일제 때부터 활동한 이병도의 사료분석방법도 일본인 학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시각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어서 제8대 고이왕(234~286)을 사실상의 백제왕실 시조로 간주하였다. 그는 『주서』를 비롯한 중국사서에 백제의 시조로 적혀 있는 인물 구태(仇台)의 옛 음이 고이(古尔)와 같으므로 고이왕이야말로 백제의 실질적 시조라고 주장하였다. 246년에 한이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자 낙랑군과 대방군이 함께 한을 토벌했다는 『삼국

8 白鳥庫吉, 1947, 「百濟の起源について」, 『歴史』創刊號; 1970, 『朝鮮史研究 - 白鳥庫吉全集3 -』, 岩波書店.

9 井上秀雄, 1972, 『古代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 笠井倭人, 1975, 「中國史書における百濟王統譜」, 『日本書紀研究』8, 塙書房; 坂元義種, 1978, 『百濟史の研究』, 塙書房.

지』의 기록¹⁰은 고이왕 13년(246)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를 치는 사이 백제가 낙랑의 변방주민을 잡아왔다가 낙랑태수가 분노하자 돌려주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¹¹과 같은 사건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고이왕 27년조에 실린 6좌평·16관품 제정 기사는 이때 백제 국가조직이 정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¹² 이와 같은 이병도의 사료관은 이후 한국고대사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백제 고이왕이 기리영 침공 주체였다는 해석은 백제가 늦어도 3세기 중엽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시각으로 이어졌다.¹³

이기백은 문화인류학의 상속이론을 백제의 왕실계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병도의 사료관을 입증하려 하였다. 백제왕실계보에서 제8대 고이왕을 제5대 초고왕의 아우라고 한 점에 주목하여, 제8대 고이왕부터 제12대 계왕까지는 형제상속으로 왕위가 계승되었고, 제13대 근초고왕부터 제17대 아신왕까지는 과도기이며, 제18대 전지왕부터 부자상속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인류의 보편적인 사회진화론에 부합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부자상속으로 왕위를 계승했다고 기록된 시조 온조왕부터 제6대 구수왕까지의 계보는 조작되었을 개

10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幘沾韓 忿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 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三國志』 권30, 「魏書」東夷傳 韓)

11 秋八月 魏幽州刺史毌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眞忠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古爾王 13년)

12 李丙燾, 1936,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檀學報』 6, 진단학회;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3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李基東, 1990, 「百濟國의 成長과 馬韓併合」, 『百濟論叢』 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李基白, 1996, 「3세기 東아시아 諸國의 政治의 發展」,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李賢惠, 1997, 「3世紀 馬韓과 百濟」,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馬韓史研究』,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鄭載潤, 2001, 「魏의 對韓政策과 崎離營 전투」, 『中原文化論叢』 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¹⁴ 신라의 초기 왕실계보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던 김철준¹⁵도 이러한 시각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2~3세기경 부여·고구려방면에서 유이민이 남하하여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시대상황 속에서 추론해보는 것으로 백제 건국과정을 설명하려 하였다.¹⁶

한편, 이에 앞서 1948년 일본에서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가 이른바 기마민족설을 제기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¹⁷ 기마민족 일본정복설이라고도 하는 이 학설의 주요 내용은 4세기경 북방의 통구스족계통 기마민족이 남쪽으로 정복활동을 시작해 한반도를 휩쓴 뒤 일본열도로 건너가 마침내 야마토[大和]국가를 세웠다는 것인데, 일제 때 이미 이나바·시라토리 등이 제기한 종족 이동설을 확대·발전시킨 논리이지만, 광대한 범위의 고고자료와 인류학의 문화전파론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어서 한동안 상당한 논란을 낳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동조하였다.

북방 기마민족의 운동성과 정복활동을 강조한 시각은 백제 왕실계보를 왕실 교대론에 입각해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¹⁸ 이기동은 고이왕이 재위하던 3세기 중엽에 마한족의 백제국이 성읍국가에서 연맹왕국 단계로 비약하였고, 4세기 무렵에는 다시 고구려계통의 온조집단이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국을 정복하였다고 추론하였다.¹⁹ 이러한 해석은 나중에 이도학에게 영향을 미쳐 이른바 만주백제설이 나오는 배경이 되었다. 이도학은 백제가 정복국가적 성격을 띠었

14 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역사학회.

15 金哲垞, 1952,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상)·(하)」, 『歷史學報』 1·2, 역사학회.

16 金哲垞, 1982, 「百濟建國考」, 『百濟研究』 특집호,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7 江上波夫, 1967, 『騎馬民族國家』, 中央公論社.

18 李基東, 1987,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 1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 李基東, 1981, 「百濟 王室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5, 「백제의 건국」, 『백제의 역사』,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으며 1세기경과 4세기경 2차례에 걸쳐 정복세력이 국가를 세우고 왕실을 교체했다고 추론하였다. 특히 4세기에는 아직 만주지역에 남아있던 일파가 남쪽으로 이동해 백제의 새로운 왕실로 거듭났다고 추정했는데, 부여의 일파가 이주하여 백제를 건국했다는 견해는 일제 때 일본학자들의 시각과 같지만, 백제가 만주지역에서 한동안 활동한 증거로서 『송서』 등에 실린 요서경략 관련 자료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²⁰

일본인 학자들과 달리 한국인 학자들이 백제의 건국시기를 3세기 중엽 고이왕대로 조정한 것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논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구방법이 같고 주로 이용하는 사료도 다르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관점에서 문화 인류학의 국가발전단계론을 배합한 정도의 작은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일제 때의 문화재 조사와 해방 이후의 도시개발 및 문화재 정비에 힘입어 고고학적 역사 분석 및 연구방법론이 점차 역사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김원룡은 몇몇 고고자료를 근거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되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신뢰하고자 했다.²¹ 그는 낙랑군과 대방군의 세력범위를 종래 과대평가했다면서 낙랑군 영역을 대동강유역에 한정하였다. 낙랑군·대방군 때문에 삼국이 빨리 성장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단순추정은 잘못되었으며, 서울 풍납토성 안에서 무문토기가 다량 출토되었으므로 성벽 축조시기를 기원 전후까지 올려볼 수 있는데, 백제의 수도 부근에 있던 둘레 3.5km의 평지토성이 기원 전후에 쌓은 것이라면 기원전 18년에 건국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못 믿을 이유도 없다는 논리이다. 낙랑군·대방군의 영역 및 문화 특징에 관한 자료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분히 민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물질자료 분석·검토였으므로 검증보다 가설과 주장이 앞선 측면이 있었

20 李道學, 1990, 「百濟의 起源과 國家形成에 관한 再검토」,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21 金元龍, 1967,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 동아문화연구소.

으나, 이후 한국 역사학과 고고학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한국 고고학계의 경우, 최몽룡·권오영이 『삼국사기』 기록을 입증하려는 관점에서 백제 건국과정과 초기 영역을 추론하였으며,²²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풍납토성발굴조사단은 김원룡의 관점과 주장을 입증하려는 듯 1999년 풍납토성 성벽 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백제건국시기에 대한 강력한 논쟁점을 만들어냈다.²³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한국 고고학계의 긍정적인 태도는 문헌사학계의 연구방법론과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천관우였는데, 그는 김원룡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신빙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해석할 때 에가미의 기마민족설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삼국사기』의 온조왕대 영역 획정기사²⁴를 사실로서 입증하려 하였으며, 왕실교대론적 관점에서 백제의 왕실 계보를 우태(優台) - 비류(沸流) - 고이(古爾)계와 주몽(朱蒙) - 온조(溫祚) - 초고(肖古)계 두 집단으로 나누는 다음 왕실이 교체되었거나 경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였다.²⁵ 천관우의 주장은 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데, 이에 힘입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연대관과 건국설화의 구성논리에 따라 백제는 물론 왜국의 국가형성까지 대담하

22 崔夢龍·權五榮, 1985,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崔夢龍, 1985,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震檀學報』 60, 진단학회; 權五榮, 1986, 「初期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一考察」, 『韓國史論』 1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다만, 권오영은 이후 기존의 입장을 바꿔 3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伯濟國이 비약하고 4세기에 百濟로 성장했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권오영, 2001, 「백제국(伯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풍납토성Ⅱ - 동벽 발굴조사보고서 -』; 신희권, 2002, 「風納土城 발굴조사를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 『鄉土서울』 6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4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域 北至溟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溫祚王 13년)

25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一志社.

게 재구성한 김성호의 추론이 시중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²⁶ 모두 예가미의 기마민족설이 만들어낸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온조왕 때의 강역이 지금의 경기 지역을 넘어섰으며, 백제의 기마병과 새로운 철기문화가 국가 급성장의 기반이었다는 논리는 이후 박찬규²⁷·김병남²⁸에게로 이어졌으며, 박현숙²⁹·최범호³⁰·오순제³¹·이용빈³² 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문화인류학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편년을 입증하려는 학자도 있었다. 이종욱은 문화인류학의 신진화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발전단계론에 따라 기원전 1세기에 부여·고구려 방면에서 이주해온 온조집단이 한강 유역에 자리잡아 십제(十濟)를 건국하였으며 이후 미추홀의 소국을 병합한 뒤 백제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거느리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고 해석하였다.³³ 『삼국지』 한전의 편년과 내용이 『삼국사기』와 다른 것은 『삼국지』의 찬자 진수가 지닌 중화주의가 삼국시대 초기의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⁴ 그리고 대동강유역의 낙랑군과 황해도 지역의 대방군이 한강유역 백제의 국가형성 및 국가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고, 한군현(漢郡縣) 때문에 오히려 삼한지역에서 국가가 더 빨리 성장했다고 주장하였다. 한군현이 백제의 국가성장을 촉진했다는 관점에는 신행

26 金聖昊, 1982,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 기원」, 지문사.

27 朴燦圭, 1995, 「백제의 마한정복과정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 金秉南, 2001, 「백제 영토 변천사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9 朴賢淑, 1997,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 崔汜鎬, 2001, 「백제 온조왕대의 부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吳舜濟, 2001, 「백제 한성시기의 도성체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李容彬, 2002, 「백제 지방통치제도 연구」, 서경문화사.

33 李鍾旭, 1976, 「百濟의 國家形成」, 『大丘史學』 11, 대구사학회; 1977, 「百濟王國의 成長」, 『大丘史學』 12·13, 대구사학회.

34 李鍾旭, 1996, 「『三國志』韓傳 정치관계 기록의 사료적 가치와 그 한계」,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식이 동의하였다.³⁵

이처럼 1980년대까지 백제의 국가형성 및 성장과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연구자들의 사료관은 두 쪽으로 뚜렷하게 갈라졌다. 하나는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삼고 『삼국지』 한전 기사의 편년이 편파적이거나 무성의했다고 의심하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삼국지』의 3세기 시대상을 기준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의심하고 사료 이용을 최소화하려는 관점이다. 양쪽 모두 고고학적 물질자료를 의식하거나 활용하며 추론하였는데, 영남지역의 신라·가야고고학과 달리 서울·경기·충청지역의 백제고고학은 대체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몽촌토성과 석촌동고분군을 비롯한 서울 잠실부근의 백제 왕도관련 유적들이 대거 발굴 조사되기 시작하면서 유적의 편년과 『삼국사기』 기록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각종 고고자료의 편년은 오히려 『삼국지』 기록과 더 잘 어울렸다. 이에 노중국은 고고학의 발굴성과와 인류학의 문화진화론을 참조하여 일종의 사료해석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삼국지』와 『삼국사기』가 각기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인류학에서 널리 쓰이는 국가발전단계론에 따라 두 사서의 내용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읍락단계→소국단계→소국연맹단계→부체제단계→고대국가단계라는 발전과정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재편성하였다.³⁶ 스스로 『삼국사기』 분해론이라고 부른 이 사료해석법은 인류학의 문화진화론, 국가발전단계론이 우리 학계에서 이제 상당히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인류학의 사회진화론, 문화진화론은 19세기 말에 이미 한국사회에 수용

35 신형식, 1992, 『백제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百濟前期社會의 性格」,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36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된 이론으로서 일제 때에도 꾸준히 유행하였다.³⁷ 한국고대사 분야에서는 김철준, 이기백, 천관우, 이종욱, 김정배³⁸ 등이 진화론을 나름의 방식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던 만큼 얼마든지 자의적 변용이 가능한 이론임을 『삼국사기』 분해론을 통해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노중국의 『삼국사기』 분해론은 많은 이의 동조를 얻었다. 앞서 소개한 이도학을 비롯해 김기섭³⁹, 문안식⁴⁰, 강종원⁴¹ 등이 『삼국지』를 근간으로 삼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여기에는 다분히 고고자료를 크게 의식한 측면이 있었다.

고고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국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도 깊어졌다. 1970~1980년대에 사회인류학의 신진화주의 관점에 따라 chiefdom을 군장사회, 추장사회, 성읍국가, 읍락국가 등으로 번역함으로써 종래의 부족국가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state를 고대국가, 영역국가, 연맹국가 등으로 번역하여 이후 시대의 국가단계와 구분하려는 논의가 꽃을 피웠는데, 과연 국가 정치체의 규모와 수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그리하여 일정한 영역을 지배하는 영역화, 관료·군대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화, 율령 등의 기준을 갖춘 제도화, 조세·공납 등의 수취체계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나, 문자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지만, 중국의 삼국시대와 공존했던 삼한사회의 소국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수준이나 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평가·판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다. 고대사회의 발전단계를 상정할 때 생기는 이러한 한계점은 백제사 연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37 박성진, 2003,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선인, 32~43쪽.

38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학교 출판부.

39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40 文安植, 2002, 『百濟의 領域擴張과 地方統治』, 신서원.

41 강종원, 2002,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여하튼 『삼국사기』 분해론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뢰하려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료 속의 편년과 사건을 분리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종욱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삼국지』 동이전은 편찬 동기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삼국사기』에서는 초기 백제사의 줄거리를 취하고 『삼국지』에서는 한반도의 사회상과 마한·백제가 중국과 교류한 외교관계사를 취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자고 제안하였다.⁴² 분해론적 시각이 『삼국지』를 편년 기준으로 삼아 『삼국사기』 기사 내용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삼국지』 속의 사회상황을 참작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재운은 『삼국사기』의 유력귀족 세력인 북부의 진씨(眞氏)는 본래 임진강유역의 파주 육계토성에 기반을 둔 독립 정치체로서 백제와는 연합관계였으나 점차 백제에 흡수되어 대표적 중앙귀족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⁴³ 양기석은 백제의 국호 변천에 따른 발전과정을 십제→백제국→백제 3단계로 설정하였다.⁴⁴

사료에 대한 해석 기준과 이용방법이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해지자 고고학 분야에서의 고고자료 해석방식도 조금 더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편년을 맞춰 보려던 기존의 자료 분석 태도와 사뭇 다르게 한강유역에서의 백제 출발점을 대략 3세기 무렵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생겼다.⁴⁵ 무엇보다 백제의 왕실묘역으로 추정되는 석촌동고분군에서 3세기 이전으로 편년할만한

42 李鍾旭, 1986, 「百濟 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0~31쪽.

43 鄭載潤, 2001, 「魏의 對韓政策과 崎離營 전투」, 『中原文化論叢』 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정재운, 2007, 「初期百濟의 成長과 眞氏勢力의 動向」, 『歷史學研究』 29, 호남사학회.

44 양기석,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20쪽.

45 林永珍, 1995, 「백제 한성시대 고분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成正鏞, 2000, 「중서부 마한지역의 백제영역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운환, 2013, 「백제 초기 한강 중·하류역에 위치한 정치체의 존재양상」, 『고문화』 8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돌무지무덤[積石塚]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였다. 고고자료 검토범위를 조금 더 넓혀 춘천 중도, 양평 문호리, 제천 양평리·도화리 등 한강 유역 전체에 분포한 돌무지무덤의 편년을 감안하더라도 유적의 중심연대는 2~3세기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졌다. 이에 연천 삼곶리⁴⁶, 학곡리⁴⁷, 횡산리⁴⁸ 등지의 돌무지무덤과 파주 주월리의 육계토성에 주목하고, 백제 주축세력 중 고구려문화에 기반을 둔 집단이 2~3세기경 임진강유역에 머물다가 한강유역으로 이동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⁴⁹ 그러나 경기도박물관의 4차례에 걸친 육계토성 긴급조사 성과⁵⁰를 종합해보면, 육계토성은 4세기경 백제가 쌓은 군사적 목적의 토성이므로,⁵¹ 백제 건국과정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편, 백제의 건국설화 시조전승을 분석함으로써 국가형성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김두진과 이종태가 백제의 온조·비류 중심 시조전승이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을 모티브로 한 부여·고구려계 신화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⁵² 이를 근거로 문창로는 기원전 1세기 말경부터 철기문화를 소개한 북방계 유이민 집단이 한강유역 일대로 유입하였고, 그 행적이 비류·온조 시

46 金聖範, 1992, 「軍事保護地區內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 - 京畿道 漣川郡編」, 『文化財』 2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발굴조사보고서』.

47 경기문화재연구원, 2004, 『연천 학곡리 적석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8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횡산리적석총』.

49 文安植, 1995, 「百濟 聯盟王國 形成期の 對中國 郡縣關係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林永珍,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50 경기도박물관, 1999, 『파주 주월리유적』; 2006, 『파주 육계토성』.

51 김기섭·이경자·윤수희, 2007, 『파주 육계토성 조사연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52 김두진, 1999,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이종태, 1997,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전승으로 남았다고 추론하였다.⁵³

근래에는 구태설화를 근거로 삼아 백제의 건국과정을 추론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김성한은 2세기 말~3세기 초 요동 부근에 있던 부여족 일파가 공손씨 정권과 혼인을 통해 건국했다가 이후 한강유역으로 이동했으며 4세기 초부터 백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손탁(?~204)의 종녀와 혼인한 백제 시조 구태는 『삼국지』 부여전에 실린 부여왕 위구태(尉仇台)와 같은 인물로서 비류설화에서는 우태, 백제 왕실계보에서는 구수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정리되었다고 추정하였다. 구태가 낙랑군 서쪽의 요동 가까이에 위치한 대방 땅에서 처음 나라를 세웠으나 한강유역에서 백제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사실상의 건국주는 아들인 비류왕(304~344)이므로 백제는 ‘시조=건국주의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구태를 시조로 추앙하였는데, 이러한 백제의 시조관념을 중국사서 편찬자가 잘못 이해하여 구태를 ‘시조=건국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494년에 부여가 멸망하자 백제왕실의 방계인 동성왕계가 부여의 정종(正宗)임을 자처하기 위해 우태-비류계보가 아닌 동명-온조계보로 왕통을 교체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이 온조왕-다루왕-기루왕 및 고이왕-책계왕-분서왕으로 이어지는 왕실계보와 국가 기틀 정비 업적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⁴

이장웅은 구태를 고구려 벼슬인 우태(于台)가 의인화한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공격해 대소왕을 죽이자, 대소왕의 사촌아우는 1만여 명을 이끌고 항복해 고구려의 연나부에 편입하였고, 대소왕의 막내아우는 도망해 갈사국을 세웠다가 손자인 도두가 고구려에 복속하여 우태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이 2세기 말~3세기 초 고구려에서 산상왕이 즉위한 뒤 발기(拔奇:發岐)와 연노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담하였다가 공손씨 정권과의 연계 속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잠시 임진강유역에 자리잡았고, 3세기 중엽에는 한강유역으로

53 문창로, 2010, 「백제 시조전승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학논총』 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54 김성한, 2014, 「백제의 건국과 구태」, 『역사학연구』 56, 호남사학회.

이동하여 북부여-졸본부여계인 동명-온조집단과 연합하며 백제 왕위를 차지했다고 추론하였다. 이후 동부여계열의 해부루-우태(구태)-비류 집단과 북부여계열의 동명(해모수)-온조 집단 사이를 형제관계로 설정하는 설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⁵⁵

조영광은 이장웅의 추론을 이어받아 더욱 과감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세기 후반 고구려 내부에서 부여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던 비류부 세력이 고구려 산상왕의 즉위에 반대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마한 백제국의 옛 왕족인 온조-초고계와 연합해 고이계 왕실을 축출하고 왕권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왕위에 오른 비류왕은 고구려계 유이민인 자신과 가계의 정통성을 보장하고 초고계와의 결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초고계의 시조인 온조 아래로 자기 선조들의 계보를 보입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뒤이어 3세기 후반 모용외의 침입을 피해 낙랑·대방지역에 정착했다가 다시 백제로 이주하였거나 비류집단처럼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부여계 집단의 근초고왕이 중국 선진문화에 익숙한 점을 무기로 삼아 4세기 중엽 고이계에게 밀리던 초고계-비류계(고구려계)와 연합해 왕위를 차지하고 초고계 복원을 천명하였으며, 세력 증대를 위해 부여 지향성을 가진 집단들을 모두 규합해 강력한 부여씨 왕실을 구축했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중국학자 강유공·조지빈도 과감한 추론을 제시하였다. 285년 선비족의 모용씨가 부여를 침략했을 때 옥저로 도망갔던 부여왕실의 일파가 독립하여 백제를 세우고 부여와 경쟁하다가 349~350년경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패배하자 옥저지역을 포기하고 남쪽 동예지역을 거쳐 한강유역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였다. 한강유역은 대방군의 관할 하에서 부유하지만 강대한 세력이 없는 지역이었으므로 백제가 군현세력이 이미 축조해놓은 풍납토성 등을 근거로

55 이장웅, 2016, 「백제 시조 구태·비류 전승의 성립과 고구려·공손씨 관계」, 『백제문화』 5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7, 『신화 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141~189쪽.

56 조영광, 2017,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선사와 고대』 53, 한국고대학회.

짧은 기간에 안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제시조 구태는 『삼국지』의 부여왕 위구태와 같은 인물로서 『삼국사기』의 구수왕에 해당하며, 346년 근초고왕이 즉위한 뒤 실질적으로는 아들 근구수가 한강유역 정착과 국가 재건을 주도했으므로 이후 실질적인 왕실 시조로서 추앙되어 후손들이 해마다 제사지냈던 것인데, 중국 사가들이 부여왕 위구태와 혼동하여 『수서』 등에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⁷ 이러한 주장은 서진 말 요동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모용씨와 고구려가 격렬하게 충돌하자 중국왕조와 우호적이었던 환인지역의 졸본부여가 남쪽으로 내려가 대방군지역에서 백제를 세웠으며, 북방에 남아있던 일부 세력은 나중에 요서를 정략하기도 했다는 강유공·강유동의 견해⁵⁸를 다소 수정한 것이며, 3세기 말~4세기 초 북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 옥저지역에서 독립했다가 고구려에 격파된 뒤 4세기 중엽 동예지역을 거쳐 한강유역의 대방고지로 이주했다는 조지빈의 견해⁵⁹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최근 구태설화를 통해 백제 건국과정을 추론한 견해들의 공통점은 임진강·한강유역에 분포한 분묘·관방유적의 편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록을 비판·불신·해체하였으며 북방 부여 또는 고구려에서 분리된 정치세력의 남하 및 정권수립이라는 문화전파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뜻 보면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들의 『삼국사기』 불신론 및 만주중심 문화전파론, 그리고 기마민족설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문헌사료 속 설화 내용의 상징성, 국명·인명 등에 반영된 언어유사성, 표지적 분묘·관방유적의 지역간 유사성, 정치·군사적 세력충돌에 따른 종족이동 등 인류학적 추론을 『삼국사기』 사료 분석에 앞세우기 때문인 듯하다. 몇가지

57 姜維公·趙智濱, 2016, 『百濟歷史編年』, 科學出版社, 9~26쪽.

58 姜維公·姜維東, 2007, 「高句麗百濟起源新論」, 『東北亞研究論叢』 2007-1, 47~55쪽.

59 趙智濱, 2013, 「百濟起源及南遷帶方新考」, 『東北亞研究論叢』 2013-5.

자료의 인상적 요소를 강조하고 종족집단의 이동 및 국가건설을 사변적으로 추론함으로써 결국 사료 부족 및 자의적 해석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가령, 강유공·조지빈은 「백제기원문제탐구(百濟起源問題探究)」에서 “『삼국사기』 고이왕기에는 234년 백제 구수왕이 병에 걸려서 그 아우 고이왕이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한다. 구수왕의 이름과 그가 살던 곳의 연대 판단에 따르면 그 원형은 위구태이고 고이왕의 원형은 위거이며, 『삼국사기』가 비교적 굴곡적으로 이 부분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이왕을 초고왕(구수왕의 아버지)의 모제(母弟)라고 설명한 『삼국사기』 기록⁶⁰을 잘못 인용했을 뿐더러 『삼국지』에 실린 부여왕 위구태와 간위거·위거 사이의 일화를 일방적으로 백제 왕실계보에 적용하고 동일시한 무모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구태설화는 6세기 중엽의 사실을 전하는 『주서』에 처음 나타나며, 이후 『수서』·『북사』 등 북조계 사서에서만 전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⁶¹ 이 때문에 6세기 중엽 백제 성왕이 사비천도 후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부여계승의식을 강조할 때 중국적 예제에 입각하여 종묘를 구성하며 구태(부여왕 위구태)를 태조로 추존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² 구태설화는 고구려와의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부여출자설 및 부여계승의식, 무령왕계의 집권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국제도 수용 등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이 어우러져 성립한 것일 수 있다.⁶³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백제 건국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6세기경 백제 사람들의 건국관념에 맞춰 백제 초기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에 다름 아니며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고대설화를 지나치게 실증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된다.

60 蓋婁王之第二子也 仇首王在位二十一年薨 長子沙伴嗣位 而幼少不能爲政 肖古王母弟古余卽位.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고이왕 즉위년

61 정재운, 2008, 「구태 시조설의 성립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51, 한국고대사학회, 61쪽.

62 김병곤, 2007, 「중국사서에 나타난 백제 始祖觀과 始國者 仇台」, 『한국고대사연구』 46, 182쪽.

63 정재운, 2008, 앞의 논문, 73쪽.

돌이켜보면, 백제 건국시기 문제는 인류학의 문화전파론적 시각과 문화진화론적 시각이 『삼국사기』와 『삼국지』라는 주요사료를 매개로 충돌해온 지점에 놓여있었다. 대체로 북방 유이민, 만주의 부여·고구려 또는 예맥의 종족이동, 기마문화, 왕실교대 등을 주요 변인으로 삼은 문화전파론적 시각에 입각하였지만, 성읍국가론으로 상징되는 문화진화론적 시각도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백제 건국시기 문제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편년을 다소 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분해론적 시각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찬찬히 되짚어보아야 하는 것은 3세기와 4세기의 백제문화가 서로 얼마나 다른 것이며 왜 다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여전히 궁색하고 웅색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 내부의 정치변동, 문화변동만이 아니라 백제 건국시기의 기준과도 연계되어 있다. 만주지역으로부터 부여계 유이민이 대거 남하함으로써 백제가 형성되었다는 시각에는 마한 50여 개 소국 중 하나였던 백제국과 그 주민들의 정치·문화활동을 과소평가하고 한반도 북부지역의 낙랑군과 만주지역의 부여·고구려를 문화중심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4세기 무렵 동아시아의 정치적 격변과 문화 발전을 문화중심부로부터의 종족이동, 정복활동이 만들어낸 문화전파, 문화변동이라고 단순화시킨 틀 안에서 여전히 백제 건국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으로써 마한 백제국과 삼국 백제의 연계를 억지로 차단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Ⅲ. 건국 중심세력 연구 동향과 논점

누가 백제 건국을 주도했는가 하는 문제는 건국시기에 비해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개 부여·고구려계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웠다고 표현하는데, 그 근거랄 수 있는 문헌자료와 고고자료가 적지 않은 편이다.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건국설화에서 시조 온조왕은 졸본부여 주몽의 아들이라고 하였다.⁶⁴ ②부여 출신 구태가 대방고지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중국 기록도 있다.⁶⁵ ③472년에 백제 개로왕이 북위로 보낸 表文에서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였다.⁶⁶ ④『삼국유사』에는 백제의 세계(世系)가 부여에서 나왔으며 왕실 성씨가 해씨(解氏)였다는 기록이 있다.⁶⁷ ⑤백제 왕실의 성은 부여의 국명과 같은 부여씨(扶餘氏)이다. ⑥538년에 백제가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바꾸었다.⁶⁸ ⑦위덕왕이 아직 왕자일 때 고구려군과 교전하기 전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구려와 성이 같다고 말하였다.⁶⁹ ⑧중국기록에는 백제의 언어와 복장이 고구려와 같다고 되어 있다.⁷⁰ ⑨서울시 송파구 석촌동·가락동 일대에는 고구려 무덤을 닮은 돌무지무덤이 분포한다.

사실 백제의 건국 중심세력 문제는 학계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북부여 출신이라는 건국설화에 의거하여 부여와 고구려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하나의 종족단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관우와 이기동이 백제의 왕실교대론을 제기하자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다. 백제의 건국집단을 건국설화 내용에 따라 비류계와 온조계로 나누고 비류를 우태(북부여), 온조를 주몽(졸본부여;고구려)에 각각 연결한 뒤 왕실 교체를 상정하였으므로, 이제는 비류와 온조의 종족적 정체성, 문화기반 차이 등을 설명해야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긴 것이다.

64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즉위년.

65 『周書』 권49, 「異域傳」 百濟; 『隋書』 권81, 「東夷傳」 百濟.

66 『魏書』 권100, 「列傳」 百濟國.

67 『三國遺事』 권1, 「紀異」 南扶餘 前百濟.

6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聖王 16년.

69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14년.

70 『梁書』 권54, 「諸夷傳」 東夷 百濟; 『周書』 권49, 「異域傳」 百濟; 『隋書』 권81, 「東夷傳」 百濟.

원래 부여에 살던 사람들은 흔히 예맥(濊貊)으로 불리었다. 고대 중국에서 예맥은 기본적으로 고조선방면의 종족을 가리키지만,⁷¹ 대개 예족 계통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⁷² 중국에서는 예족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흔히 부여를 꼽았다. 부여왕은 예성(濊城)에서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고 새겨진 인장을 지니고 살았다고 하는데,⁷³ 이는 기원전 2세기 후엽 고조선과 한(漢)나라의 갈등이 깊어지자 기원전 128년경 예군(濊君) 남려가 무리 28만 명을 이끌고 한나라에 자진 예속한 이후에 생긴 전통으로 보인다.⁷⁴ 부여는 2세기에 강성한 국력을 자랑하였으나, 3세기에 들어와 오랫동안 부여에 신속해온 읍루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으며,⁷⁵ 급기야 285년에는 모용씨의 공격을 받고 대패하여 왕이 자살하고 왕자를 비롯한 왕족 일부가 옥저로 달아나 겨우 목숨만 보전했다가 서진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나라를 되찾았다고 한다.⁷⁶ 부여는 이후 근거지를 서쪽으로 옮겼다가 346년에 또 모용씨(전연)의 공격을 받아 왕을 비롯한 5만 명이 사로잡히기도 하였다.⁷⁷ 이에 285년경 부여왕자 의라가 옥저로 피신했다가 돌아와 나라를 재건할 때 일부가 옥저에 그대로 남아 독자세력을 구축한 것이 동부여라고 보기도 하고,⁷⁸ 346년 부여왕 현(玄)이 전연으로 잡혀갈 때 일부가 동쪽으로 이

71 김정배, 1986,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출판부, 4~24쪽;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62쪽.

72 三品彰英, 1953, 「濊貊族小考」, 『朝鮮學報』 4, 6~8쪽;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82쪽.

73 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 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以也, (『삼국지』 권30, 「동이전」 夫餘); 其王印文稱穢王之印 國中有古穢城 本穢貊之城也, (『晉書』 권97, 「四夷傳」 夫餘)

74 김기섭, 2008, 「부여족의 분산과 이동」,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66쪽.

75 『삼국지』 권30, 「동이전」 挹婁.

76 『晉書』 권97, 「四夷傳」 夫餘國.

77 『資治通鑑』 권97, 「晉紀」 穆帝 永和 2년 및 『진서』 권109, 「載記」 慕容皝.

78 노태돈, 1989, 「부여국의 경역과 그 변천」, 『국사관논총』 4;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16~517쪽; 공석구, 1990, 「광개토왕릉비의 동부여에 대한 고찰」,

주해 나라를 재건하였기에 동부여로 불렸다고 보기도 한다.⁷⁹ 동부여의 위치에 대해서는 흔히 두만강 하류의 혼춘방면으로 추정한다.⁸⁰

부여의 역사를 관찰하면, 3세기부터 5세기까지 주변 나라로부터 침탈을 많이 받아 부여 주민이 자주 대규모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285년 사건에서 보듯이 상당수는 동쪽 옥저방면으로 집단 이주하였는데, 그것은 옥저지역이 그동안 부여의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옥저 사람들이 종족적으로 예족의 범주에 속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평양 정백동 1호 무덤에서 출토된 ‘부조예군(夫租歲君)’ 은도장이 이를 방증한다. 부조는 낙랑군에 속한 현의 이름으로서 『삼국지』에 실린 이름 옥저를 가리킨다는 것이 통설이다.⁸¹ 후한이 옥저를 비롯한 동해안지역에 있던 동부도위를 폐지한 뒤 현후(縣侯)를 두었을 때 불내예후(不耐濊侯)의 휘하 관인이 모두 예인(濊人)이었다는 기록도 있다.⁸² 247년, 불내예후가 위(魏)나라에 조공하자, 위나라는 불내예후를 불내예왕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⁸³

옥저 남쪽에도 예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특히 동해안의 주민들이 그러한데, 3세기 무렵 동예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말했다고 한다.⁸⁴ 이는 동예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원래 예족계통이던 고구려가 후한 이후에 맥으로 불리게 되면서 마치 부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8~19쪽.

79 김기섭, 2008, 앞의 논문, 72쪽.

80 申采浩, 1931, 『朝鮮上古史』; 박기봉역, 2006,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 1, 55~57쪽; 千寬宇, 1982, 「광개토왕릉비문 재론」, 『전해중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462~463쪽.

81 리순진, 1974, 「부여예군무덤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岡崎敬, 1968, 「夫租歲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김기홍, 1985, 「부조예군에 대한 고찰」, 『한국사론』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82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東沃沮.

83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濊.

84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濊.

여와 종족계통이 다른 양 오해가 생겼기⁸⁵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 기사에서 백제를 자주 침공하는 말갈을 예족으로 보는 연구자가 많다.⁸⁶ 동예를 단서로 삼아 예족이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나뉘어 분포했다고 전제하고 영동예, 영서예로 부르는가 하면,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 및 황해도 일대의 말갈=예를 한북예, 함경도지역의 예를 동북예로 이름붙이기도 한다.⁸⁷

이처럼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3세기 무렵까지 예맥 또는 예족 관련 종족의 분포 범위를 상정해보면, 그리고 이른바 예족의 대표적인 부여의 유민사(流民史)랄지 유민사(遺民史)를 감안하면, 백제 주민 중 상당수를 부여출신이라고 한 『삼국사기』 기록은 당연해보이기도 한다. 백제 건국설화의 원형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비류전승은 시조 비류왕(沸流王)의 아버지 우태가 북부여의 왕 해부루라고 하였다.⁸⁸ 그것은 위의 ②·③·④·⑤·⑥과도 통한다. 그런 점에서 온조왕 때 족부인 을음이 죽자 뒤이어 우보에 오른 해루가 본래 부여사람이라는 기사⁸⁹는 백제 건국기에 부여계통 주민이 차지한 위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노중국은 ④『삼국유사』 기록을 근거로 다루-기루-개루를 백제 초기 부여계 해씨 왕실의 계보로 추론하기도 하였다.⁹⁰

그런데 문화적 측면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관성이 더 부각된다. 건국설화에서 온조전승, 비류전승, 도모(都慕)전승⁹¹은 모두 백제 건국시조를 고구려

85 여호규, 2014, 앞의 책, 80~87쪽.

86 문안식, 2003, 『한국고대사와 말갈』, 해안; 노중국, 2007, 「백제의 성씨와 귀족 가문의 출자」, 『대구사학』 89, 66쪽.

87 노중국, 2007, 위의 논문, 70쪽 및 90쪽.

88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즉위년 細注.

89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41년.

90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71~74쪽.

91 『續日本紀』 권40, 延暦 8년 春正月; 『續日本紀』 권40, 延暦 9년 秋七月; 『新撰姓氏錄』, 「右京諸藩下」 百濟; 『新撰姓氏錄』, 「左京諸藩下」 百濟.

건국시조 주몽과 연관시켰다. 고구려 역시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고는 하지만, 혼인풍습·무덤양식 등은 다소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⑦·⑧·⑨에서 두드러지듯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문화적 유사성 내지 친연성이 상당하였던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의 언어·복장이 같고 무덤양식이 같다는 것은 두 나라 지배층의 종족계통과 문화기반이 같다는 뜻이다.

서울시 송파구의 석촌동고분군은 고구려 무덤의 특징인 ‘돌을 쌓아 덮는다’(積石爲封)⁹²를 한강유역에서 백제방식으로 구현한 유적이다. 지금은 불과 6기 정도만 지상에 흔적을 남기고 있지만, 1917년경에는 가락동·방이동 일대까지 약 290여 기의 고층 고분이 밀집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⁹³ 그중 돌무지무덤(積石塚;乙塚) 66기와 흙무지무덤(封土墳;甲塚) 23기가 『조선고적도보』에 간략히 소개되었는데,⁹⁴ 한강유역의 돌무지무덤이 압록강유역의 고구려 돌무지무덤을 시기·형태적으로 모방·계승했으므로 백제 지배층의 종족계통을 고구려와 연관시키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워졌다.⁹⁵

그런데 1970년대에 송파 잠실일대를 도시개발하게 되고, 그 여파로 1980년대까지 석촌동 부근의 무덤들을 발굴조사하게 되면서 백제의 무덤양식이 꽤 복잡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석촌동·가락동 일대에는 돌무지무덤뿐 아니라 흙무지무덤도 많았는데, 그중 상당수는 땅을 전혀 파지 않고 흙을 쌓은 뒤 시체를 안치하는 매장주체시설을 만들었으며, 한 무덤에 여러 사람을 묻는 다장(多葬)이고 따로따로 묻는 이혈합장(異穴合葬)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를 보통의 움무덤(土壙墓)과 구분하여 토축묘라고 부르며 영산강유역 및 양자강유역의 묘제와 연관 짓는 견해가 제출되었다.⁹⁶ 이러한 흙무지무

92 『삼국지』 권30, 「위서」동이전 高句麗.

93 이병호, 2011, 「일제강점기 백제 고지에 대한 고적조사사업」, 『한국고대사연구』 61, 한국고대사학회.

94 『朝鮮古蹟圖譜』第三冊(1916) 704~706圖.

95 김원룡, 1981,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96 姜仁求, 1984, 「漢江流域의 土築墓」, 『三國時代墳丘墓研究』, 영남대학교 출

덤과 돌무지무덤의 공존에 대해 임영진은 해양문화계통의 토착 선주민(韓)과 기마문화계통의 고구려계 이주민이 결합하였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석촌동 1·2호분을 제시하였다.⁹⁷ 그렇다면 토착 선주민과 이주민의 결합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 것일까? 추상적인 문헌자료와 달리 물질에 기반한 고고자료는 훨씬 더 복잡한 해석을 요구한다.

석촌동고분군의 무덤이 모두 고구려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강인구는 석촌동일대에 흙무지무덤[土築墓]과 옹무덤이 널리 분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중 옹무덤을 중국의 우수 노하심유적⁹⁸으로 대표되는 북방 부여의 무덤양식과 연관지으려 하였다.⁹⁹ 이러한 해석은 백제의 건국신화 속 온조집단(백제왕실)은 고구려 왕실에 대응하는 부여계 별개 집단이라는 해석에 영향을 주었다.¹⁰⁰ 강인구의 해석에 자극받은 이도학은 부여족의 일파가 한때 만주지역에서 백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가정하에 백제의 고구려식 돌무지무덤 축조는 무령왕대 중국식 벽돌무덤[塼築墳]을 축조한 것처럼 단순한 기술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⁰¹ 박순발은 더 대담한 주장을 폈다. 서로 대등한 정치체 사이에는 전쟁뿐 아니라 비물질문화의 전이와 기술혁신의 전달 현상이 나타난다는 인류학자 콜린 렌프류(Colin Renfrew)의 가설을 원용하여, 부여계 주민인 백제 건국세력이 고구려와 경쟁하던 중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부여계의 적통임을 표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구려의 왕실묘제인 돌무지무덤을 채용했다는 것이

판부.

- 97 林永珍, 1987, 「石村洞一帶 積石塚系와 土塋墓系 墓制의 性格」,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1994, 「漢城時代 百濟의 建國과 漢江流域 百濟古墳」, 『百濟論叢』4,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9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 99 姜仁求, 1989, 「漢江流域 百濟古墳의 再檢討」, 『韓國考古學報』22.
- 100 金杜珍, 1990, 「百濟 建國神話의 復元試論」, 『國史館論叢』13, 국사편찬위원회; 1999,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일조각.
- 101 李道學, 1991, 「百濟의 起源과 國家發展過程에 관한 檢討」, 『韓國學論集』19,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71쪽; 1995, 『百濟古代國家研究』, 일지사, 109쪽.

다.¹⁰² 최근에는 4세기 중엽 백제가 고구려와의 경쟁의식 속에서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무덤과 같은 큰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상정한 견해도 있다.¹⁰³ 무덤은 보수적인 문화이며 전통성이 강하다는 고고학계의 상식을 뒤집은 추론이기에 파장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이종수는 우수 노하심, 모아산고분군, 학고촌고분 등 중국 길림지역에 분포한 부여 무덤과 3세기 말~4세기 초 전연에 예측된 상태에서 부여유민이 요녕지역에 조영한 라마동고분군을 기준으로 석촌동고분군의 움무덤 21기를 비교·검토하였는데, 서로 장제적 유사성이 있으나 그것은 당시 유행한 북방계 초원문화의 공통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영시기에 3~4세기의 간극이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¹⁰⁴ 그에 따르면 부여계 문화전통은 오히려 김포 운양동출토 금속유물, 오성출토 동병철검 등 서울 주변지역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백제 왕실묘역을 북방 부여 묘제와 직접 관련짓는 것도 간단치 않다.

고구려의 특징적인 돌무지무덤은 지상에 돌을 깔아서 매장주체시설을 만들고 그 위로 돌을 덮어 무덤을 완성한다. 땅을 파지 않고 평지에 돌을 깔고 덮어서 무덤을 만든다는 발상에 주목하면, 한강유역의 돌무지무덤은 고구려 묘제문화의 파생일 수 있으며, 그 요소가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에까지 연결된다.¹⁰⁵ 그런데 고구려 돌무지무덤을 닮은 무덤이 서울을 비롯해 연천·춘천·양평·제천·평창 등 한강·임진강유역에 널리 분포하며 출토유물도 제각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덤 축조 배경을 단선적,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진

102 朴淳發, 1996, 「百濟의 國家形成과 百濟土器」, 『제2회 百濟史 定立을 위한 學術 세미나』, 백제문화개발연구원; 2001, 앞의 책, 214쪽.

103 강현숙, 2017, 「고구려 석실계단적석총과 비교해 본 석촌동 적석총의 원형 추론」,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박물관.

104 이종수, 2017, 「석촌동 토광묘의 기원과 부여고분」,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박물관 학술회의 요지문.

105 姜仁求, 1981, 「신라 積石封土墳의 구조와 계통」, 『韓國史論』 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三國時代 墳丘墓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다. 한강 중상류지역의 돌무지무덤을 석촌동고분군의 영향 아래 축조된 것으로 보는가 하면,¹⁰⁶ 압록강유역 고구려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 석촌동 부근에 정착하기 전 조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⁰⁷ 그런데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석촌동고분군의 돌무지무덤은 대개 4세기 이후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초기 왕도유적의 편년은 아직 불안정하며 복잡한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최근 재개된 석촌동고분군 발굴조사 결과는 1980년대에 파악한 무덤 분포 양상과 구조 및 편년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미 1912년경에 작성한 『조선고적도보』의 약도와 1917년경 작성한 고분분포도를 현재 지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1912년 약도의 갑충과 을충 구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지만,¹⁰⁸ 석촌동의 돌무지무덤만 놓고 보더라도 무덤을 만든 재료와 축조방식이 서로 다른데,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상관성을 언급하기에는 어딘가 선부른 감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무덤이라는 물질자료의 구성요소와 현상을 기준으로 경쟁의식에 따른 적국의 무덤 채용이라는 기발한 정치사상적 해석을 감행하기에는 아직 고고학과 역사학의 융합방식과 이론 검증방식이 미흡하고 불안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석촌동고분군의 백제 돌무지무덤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흙을 다져쌓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지금까지 석촌동고분군에서 조사된 움무덤이 20여 기에 달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석촌동의 움무덤을 북방 부여의 무덤양식과 관련지을만한 요소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석촌동에는 움무덤 외에도 흙무지무덤이 상당수 분포했다는 점 등과 연계해보면 단순히 북방의 무덤양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한강유역 특유의 무덤양식 또는 마한지역 특유의 무

106 심재연, 2010, 「한성백제기 한강 중·상류지역의 적석총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4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07 林永珍, 1995,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108 조가영, 2012, 「석촌동고분군의 축조양상 검토 - 고분 분포를 중심으로 -」, 『한국상고사학보』 75, 한국상고사학회.

덤양식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양직공도』는 백제가 “옛 동이 마한에 속하던 나라”라는 글로 시작한다.¹⁰⁹ 『양서』에는 “그 선조가 동이로서 3개의 한국이 있는데, 첫째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이다. 변한과 진한은 각기 12국이며, 마한은 54국이 있다. 큰 나라는 만여 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이며, 모두 합쳐 10만여 호였다. 백제는 그중 하나였는데, 나중에 점점 강대해져 여러 작은 나라를 아울렀다”는 기록이 있다.¹¹⁰ 『남사』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¹¹¹ 중국 북조계통의 역사서인 『주서』에도 “백제는 그 선조가 대체로 마한에 속한 나라로서 부여의 별종인데, 구태라는 사람이 처음에 대방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¹¹² 『북사』도 백제를 마한계통이라고 하였다.¹¹³ 백제와 교류하던 중국 여러 나라의 사서에 백제의 선조를 마한계통으로 분류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백제 지배층이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다는 뜻일 수 있다.

3세기 말에 편찬된 중국사서 『삼국지』 「동이전」의 마한 50여 개국 중 8번째로 적힌 백제국이 고대국가 백제의 전신이라면, 백제 주민의 다수는 마한의 한인(韓人)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삼한시기 한인의 종족계통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있었지만, 한의 연원을 고조선에서 찾은 신채호와 천관우의 연구가 돋보인다. 신채호는 삼한이 이두의 신(眞=辰)조선, 불(番=弁)조선, 말(莫=馬)조선 등 3조선의 왕을 가리킨 말이라고 하였다. 3조선이 중국 동북방 만주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 각각 위치하다가 연(燕)나라 소왕(311~279BCE)이 장군 진개를 보내 조선을 공격하여 2천여 리를 빼앗고 만변한에까지 이르자, 말조선의 준왕은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전북 익산방면에 정착하고, 신조선과 불조선의

109 百濟 舊東夷馬韓之屬 晉末駒麗略有遼東 樂浪亦有遼西晉平縣 自晉已來常修蕃貢.(『양직공도』 百濟國使).

110 『梁書』 권54, 「諸夷傳」 百濟.

111 『南史』 권79, 「夷貊傳」 百濟.

112 『周書』 권49, 「異域傳」 百濟.

113 『北史』 권94, 「百濟傳」.

유민도 경상도방면으로 각각 이주해 나라를 재건하였으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3조선이 결국 백제·신라·가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방에 있던 3조선을 전삼한,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발전한 단계를 후삼한으로 칭하였다.¹¹⁴ 천관우도 『삼국지』 동이전을 근거로 조선과 예맥, 예맥과 한은 잘 연결되지 않는데 조선과 한은 잘 연결된다면서 한을 고조선과 같은 계통으로 간주하였다.¹¹⁵

그렇다면 백제의 건국설화조차 굳이 부여·고구려로만 연결시킬 것도 아니다. 북방에서 남방으로의 대규모 주민 이동은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기원전 2세기 초엽 이래 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경험이 나중에 부여계 또는 고구려계 주민 이동과 맞물려 혼동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가정에 부합하는 물질자료를 지금으로선 찾기 어렵다. 그래서 석기시대 이래로 장구한 기간 동안 정착해온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상호 융합하며 개성적인 면모를 띠게 되었고, 이를 나중에 중국인들이 한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¹⁶

백제의 국가형성 및 왕도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한 또는 마한의 문화요소를 분명히 짚어내는 일은 아직 어려운 일이다. 고고학적으로 마한 문화의 특징을 명확히 밝혀냈다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래 사주식(四柱式) 주거지, 도랑 돌린 움무덤(周溝土壙墓), 분구묘 등 한반도 중서부 또는 서남해안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가지 고고학적 지표를 한 또는 마한의 문화요소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성 고금산유적, 화성 석우리 먹실유적 등의 사주식 주거지 내부에서 흔히 예계 문화요소로 분류하는 경질무문토기가 발견되기도 하여, 물질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화의 지역성과 종족성에 대해서는 조

114 申采浩, 1925, 『前後三韓考』; 1931, 『朝鮮上古史』; 2007, 『단재신채호전집』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15 천관우, 1975, 「삼한의 성립과정」, 『사학연구』 26, 한국사학회.

116 노태돈, 2009,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138쪽.

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414년 고구려 왕도에 세워진 광개토왕비에는 왕실 무덤을 지키고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국연(國煙) 30호, 간연(看煙) 300호로서 국연 1호당 간연 10호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는데, 국연은 무덤을 직접 지키며 관리하는 사람이고 간연은 국연의 생계부담을 나누어지는 사람이라는 견해, 국연은 본래 각 지역에서 지배층이었던 사람이고 간연은 그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견해, 국연은 도시에 거주하며 수공업에 종사한 무덤 관리인이고 간연은 농업·어업에 종사하며 국연의 수묘활동을 지원했다는 견해 등 다양하다. 수묘인으로 거론된 사람들은 출신지를 기준으로 개인이 아닌 가족단위로 계산하였는데, 적어도 22개의 출신지가 영락 6년 백제를 공격해서 빼앗은 지역 이름과 같으므로 백제출신 포로라고 할 수 있다.

광개토왕비에는 백제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새로 온 한예[新來韓穢]라고 적혀있다. 사수성, 모루성, 두비압잡한, 구모객두, 구저한, 사조성한예, 고모야라성, 경고성, 객현한, 아단성, 잡진성, 파노성한, 구모로성, 각모로성, 모수성, 간저리성, 미추성, 야리성, 두노성, 오리성, 수추성, 백잔 남쪽의 거한[百殘南居韓], 태산한성, 농매성, 윤노성, 고모루성, 전성, 미성, 취자성, 삼양성, 산나성, 나단성, 구모성, 어리성, 비리성, 세성 등이 그에 해당한다. 6곳의 이름 끝에 한(韓)이라는 종족 특징을 특별히 밝혀놓았고, 그중 1곳에는 예족도 함께 밝혀놓았다. ‘백잔 남쪽의 거한’은 ‘백제 남쪽에 거주하는 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거(居)’한이 ‘진(辰)’한 또는 ‘마(馬)’한의 글자 모양과 비슷하므로 글자를 잘못 새겨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아마도 백제에 억류되어 있다가 396년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항복하며 남녀 생구(生口) 1천 명을 바칠 때 고구려에 다시 전리품으로 바쳐졌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백제가 마한을 흡수할 때 노예로 전락한 마한 사람일 수도 있다.¹¹⁷

117 김기섭, 2014, 「백제가 미워서 나라 이름조차 바꿔버린 역사기록, 광개토왕비」, 『금석문으로 백제를 읽다』, 학연문화사, 98~100쪽.

한편, 흔히 백제에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 어라하와 건길지로 계층에 따라 달랐다는 『주서』 기록¹¹⁸을 근거로 부여·고구려계 이주민은 상층, 한계(韓系) 선주민은 하층을 주로 형성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어라하와 건길지가 후대의 ‘임금님’ ‘상감마마’ ‘전하’ ‘상(上)’처럼 말하는 사람의 지위와 입장에 따른 단순한 표현 차이어거나 지역별 언어 차이를 중국인들이 오해한 것이라면 한계 주민을 하층민 또는 피지배층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고구려·부여어와 한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¹¹⁹

4세기 무렵 백제는 적어도 오늘날의 경기지역 전부와 황해·충청지역의 대부분, 그리고 강원도의 일부를 차지한 대규모의 집권적 고대국가였다. 따라서 옛 마한 50여 개 소국 중 상당수를 이미 영역으로 흡수한 상태였는데, 그 지역의 장법(葬法)와 주거문화 등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보면 “활·방패·창과 노를 잘 쓰며, 비록 싸우고 전쟁을 할지라도 굴복한 상대는 귀하게 대한다”¹²⁰는 마한문화의 포용성을 백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백제가 마한 소국들을 병합할 때 단순히 무력에만 의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화성 왕림리와 당하리의 생활유적을 들 수 있다. 한때 백제의 접경지대였던 이곳에서는 화재주거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백제가 문화가 다른 이웃 집단을 통합할 때 전쟁이 아닌 상호 우호적인 방법으로 흡수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²¹ 부여·고구려계 이주민, 낙랑·대방계 이주민 등에 대한 마한 백제국의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흡수 및 공존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118 王姓夫餘氏 號於羅暇 民呼為鞬吉支 夏言竝王也 妻號於陸 夏言妃也. (『周書』 권49, 「異域傳」 百濟)

119 노태돈, 2009, 앞의 책, 146쪽.

120 善用弓楯矛櫓 雖有鬪爭攻戰 而貴相屈服. (『晉書』 권97, 「四夷列傳」 東夷 馬韓)

121 숭실대학교박물관, 2004, 『화성 왕림리유적』,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화성 당하리유적』, 한국철도시설공단.

IV. 맺음말 – 과제와 전망

어느 덧 백제의 국가형성 문제는 학계에서 식상한 주제가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그런데도 분명한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기초자료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어우러진 탓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고고학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자료증대는 참 고무적이며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고고자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은 문헌자료의 편년 시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기존 역사학의 연구성과를 지나치게 의식해 고고자료 자체의 과학적 요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일시적 또는 인상적 논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못 아쉽다.

백제 왕실은 언제 어떻게 한강유역에서 부동의 권위를 확보했으며, 그들의 종족·문화적 계통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삼국사기』와 석촌동고분군을 주요 근거로 삼아 이루어졌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해서는 불신론, 신료론, 분해론으로 갈라져 논쟁하였고, 석촌동고분군의 무덤양식에 대해서는 돌무지무덤의 조형방식과 배경을 두고 논쟁하였다. 양쪽 모두 자료의 편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백제의 국가형성에 관한 편년은 문헌 분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헌자료에만 기댄 과감한 추론이 제출되기도 한다. 그중 일부는 일제 때의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다분하다. 한국고고학, 동양고고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역사학의 해석 논리가 빈약한 고고자료를 징검다리 삼아 종종 인류학적 논리 비약을 감행하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 역사학의 해묵은 논쟁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학계는 고고자료의 자연과학적 특성을 조금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고고자료는 어느 한 시기의 광범위한 문화상, 또는 어느 한 지역의 장구한 문화상을 비교연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그런 점에서 거시적 역사연구를 위해 고고학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고고학의 특성상 삼한~삼국시대처럼 문화현상이 복잡하던 시기의 안정적 편년안을 설정

하고 그 변화상의 사회적 의미까지 추론해내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국가 및 종족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 분·초를 다투는 현대인의 감각으로 만든 사회평가지표를 과감하게 적용, 구획·구분하기에는 아직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흡하다.

앞으로 고고학적 문화지표와 편년체계를 문헌자료와 안정적으로 접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더욱 정밀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학계의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문헌사학이 근대학문으로서의 과학적 공신력을 얻으려면 고고학 자료를 활용하기에 앞서 사료 자체의 논리적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그간 백제사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료 비판 및 검증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백제 초기사에 대한 한국학계의 일반적 인식과 중국·일본학계의 인식 사이에 발생하는 큰 간극은 대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기인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우리 학계가 상황논리에 따른 긍정적, 낭만적 사료 해석보다 비판적 사료 해석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

- 姜維公·趙智濱, 2016, 『百濟歷史編年』, 科學出版社.
- 姜仁求, 1984, 『三國時代墳丘墓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 강종원, 2002,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 김두진, 1999,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 金聖昊, 1982,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 기원』, 지문사.
- 김정배, 1986,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 노태돈, 2009,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 文安植, 2002, 『百濟의 領域擴張과 地方統治』, 신서원.
- _____, 2003, 『한국고대사와 말갈』, 혜안.
-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 박성진, 2003,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선인.
-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 申采浩, 2007, 『단재신채호전집』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양기석,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容彬, 2002, 『백제 지방통치제도 연구』, 서경문화사.
- 이장웅, 2017, 『신화 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연구』, 지식산업사.
-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 강인규, 1989, 「漢江流域 百濟古墳의 再檢討」, 『韓國考古學報』 22.
- 공석구, 1990, 「광개토왕릉비의 동부여에 대한 고찰」,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 權五榮, 1986, 「初期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一考察」, 『韓國史論』 15,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권오영, 2001, 「백제국(百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今西龍, 1929, 「百濟略史」, 『朝鮮及滿洲』 1929-6

——, 1934,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金元龍, 1967,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 동아문화연구소.

金哲堧, 1952,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상) · (하)」, 『歷史學報』 1 · 2, 역사학회.

——, 1982, 「百濟建國考」, 『百濟研究』 특집호,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김기섭, 2008, 「부여족의 분산과 이동」,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김기흥, 1985, 「부조예군에 대한 고찰」, 『한국사론』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병곤, 2007, 「중국사서에 나타난 백제 始祖觀과 始國者 仇台」, 『한국고대사연구』 46.

김성환, 2014, 「백제의 건국과 구태」, 『역사학연구』 56, 호남사학회.

김수태, 1998, 「3세기 중 · 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馬韓史研究』,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김원룡 · 이희준, 1987, 「서울 석촌동3호분의 연대」,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노중국, 2007, 「백제의 성씨와 귀족가문의 출자」, 『대구사학』 89, 대구사학회.

리순진, 1974, 「부여예군무덤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百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문창로, 2010, 「백제 시조전승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학논총』 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朴燦圭, 1995, 「백제의 마한정복과정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朴賢淑, 1997,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成正鏞, 2000, 「중서부 마한지역의 백제영역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형식, 2003, 「百濟前期社會의 性格」,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신희권, 2002, 「風納土城 발굴조사를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 『鄉土서울』 62, 서울시

사편찬위원회.

심재연, 2010, 「한성백제기 한강 중·상류지역의 적석층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4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윤용구, 2004, 「仇台의 백제건국기사에 대한 재검토」, 『백제연구』 3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李基東, 1981, 「百濟 王室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1990, 「百濟國의 成長과 馬韓 併合」, 『百濟論叢』 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역사학회.

_____, 1996, 「3세기 東아시아 諸國의 政治的 發展」,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李道學, 1990, 「百濟의 起源과 國家形成에 관한 재검토」,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이병호, 2011, 「일제강점기 백제 고지에 대한 고적조사사업」, 『한국고대사연구』 61, 한국고대사학회.

이종수, 2017, 「석촌동 토광묘의 기원과 부여고분」,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박물관 학술회의 요지문.

李鍾旭, 1976, 「百濟의 國家形成」, 『大丘史學』 11, 대구사학회.

_____, 1986, 「百濟 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1996, 『三國志』 韓傳 정치관계 기록의 사료적 가치와 그 한계』, 『吉玄益教授 停年紀念史學論叢』.

이종태, 1997,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혜, 1991, 「마한 백제국의 형성과 지배집단의 출자」, 『백제연구』 2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林永珍, 1987, 「石村洞一帶 積石塚系와 土壙墓系 墓制의 性格」,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임영진, 1994, 「漢城時代 百濟의 建國과 漢江流域 百濟古墳」, 『百濟論叢』 4, 백제문화개발연구원.

_____,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 정재운, 2007, 「初期百濟의 成長과 眞氏勢力의 動向」, 『歷史學研究』 29, 호남사학회.
- , 2008, 「구태 시조설의 성립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51, 한국고대사학회.
- 조가영, 2012, 「석촌동고분군의 축조양상 검토—고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75, 한국상고사학회.
- 차운환, 2013, 「백제초기 한강 중·하류역에 위치한 정치체의 존재양상」, 『고문화』 8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천관우, 1975, 「삼한의 성립과정」, 『사학연구』 26, 한국사학회.
-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一志社.
- 崔夢龍, 1985,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震檀學報』 60, 진단학회.
- 崔夢龍·權五榮, 1985,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選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중국〉

- 江上波夫, 1967, 『騎馬民族國家』, 中央公論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일본〉

- 岡崎敬, 1968, 「夫租歲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 稻葉岩吉·矢野仁一, 1935, 『世界歴史大系11—朝鮮·滿洲史—』, 平凡社.
- 井上秀雄, 1972, 『古代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
- 津田左右吉, 1921, 「百濟に関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8, 東京帝国大学文学部.
- 太田亮, 1928, 『日本古代史新研究』, 磯部甲陽堂.
- 坂元義種, 1978, 『百濟史の研究』, 塙書房.
- 白鳥庫吉, 1947, 「百濟の起源について」, 『歴史』 創刊號
- 白鳥庫吉, 1970, 『朝鮮史研究—白鳥庫吉全集3—』, 岩波書店.
- 三品彰英, 1953, 「濊貊族小考」, 『朝鮮學報』 4.
- 笠井倭人, 1975, 「中國史書における百濟王統譜」, 『日本書紀研究』 8, 塙書房.

K.J.H. Gardiner, 1969, *The Early History of Kore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백제 국가형성사 연구 동향과 과제

김기섭

백제 국가형성 문제에 대해 역사학계는 인류학의 문화전파론적 시각과 문화진화론적 시각을 원용하며 『삼국사기』와 『삼국지』의 기록을 분석하였다. 대체로 북방 유이민, 만주의 부여·고구려 또는 예맥(濊貊)의 종족이동, 기마(騎馬)문화, 왕실교대 등을 주요 변인으로 삼은 문화전파론적 시각에 입각하면서도 성읍 국가에서 영역국가로의 발전이라는 문화진화론적 시각도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백제 건국시기 문제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편년을 다소 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분해론적 시각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기록의 구태설화를 근거로 삼아 2~4세기경 부여 또는 고구려에서 이탈한 세력집단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백제를 건국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런데 구태설화는 6세기 중엽의 사실을 전하는 『주서(周書)』에 처음 나타나며, 이후 중국의 북조계 역사서에 실린 설화이다. 그러므로 구태설화를 기준으로 백제 건국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6세기경 백제 사람들의 건국관념에 맞춰 백제 초기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이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3~4세기에 한강유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만주지역으로부터 부여계 유이민이 대거 남하함으로써 백제가 형성되었다는 시각에는 마한 50여 개 소국 중 하나였던 백제국(伯濟國)과 그 주민들의 정치·문화활동을 과소평가하고 한반도 북부지역의 낙랑군과 만주지역의 부여·고구려를 문화중심으로 간주하는 편견이 깔려 있다. 4세기 무렵 동아시아의 정치적 격변과 문화 발전을 문화중심부로부터의 종족이동, 정복활동이 만들어낸 문화전파, 문화변동이라고 단순화시킨 틀 안에서 여전히 백제 건국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결과적으로 마한 백제국(伯濟國)과 삼국 백제(百濟)의 연계를 차단하고 있다.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학계 논란을 조금 더 줄여야 한다. 그리고 고고자료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거시적이어야 한다.

주제어: 국가형성, 건국, 부여, 고구려, 마한, 이주민, 백제국, 백제, 온조, 비류, 구태

ABSTRACT

Research Trends and Tasks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 Baekje

Kim Kiseob

Regarding the formation of the Baekje state, historians have analyzed the *Samguksagi*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Samgukji*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in China), citing the cultural propagation view of anthropology and cultural evolution. In general, the cultural propagation view focuses on the movement of migrants from the northern region, Manchuria, Buyeo, or Goguryeo, and also the horsemen culture and the relocations of the state. The cultural evolution view focuses on the transition from a city-state country to a regional country.

Recently, based on the legend of Gutae in Chinese records, many scholars argue that a group of forces that fled from Buyeo or Goguryeo migrated to the south and founded Baekje. However, the legend of Gutae first appeared in a text which conveys facts regarding the mid-sixth-century. Later, that text was understood to be a tale from history

books in northern China. Therefore, explaining the founding process of Baekje based on old tales would be a reconstruction of the early history of Baekje according to the philosophy of the Baekje people around the sixth century.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happened in the Han River basin in the third and fourth centuries. In the view that Baekje was formed due to a large number of migrants from Manchuria, the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Mahan people were underestimated. This view eventually disconnects the link between Mahan and the Baekje Kingdom. In order to escape prejudice, the academic controversies regarding the early records in the *Samguk sagi* should be further reduced. And the interpretation of archaeological data should be more macroscopic.

Keywords: formation of the state, Buyeo, Goguryeo, Mahan, migrants, city-state country, Baekje, Onjo, Biryu, Gutae

백제와 부여의 계승성 여부에 대한 검토

권오영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백제 왕실의 부여 기원설에 대한 검토
- III. 백제의 물질문화와 부여의 관련성 여부
- IV. 중도유형 문화론에 대한 검토
- V. 맺음말-국가와 종족, 영역과 문화권



I. 머리말

백제 국가의 출현, 백제 왕실의 계보, 건국신화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부여와의 계승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여의 역사와 문화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23년 전에 백제의 국가형성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¹ 양자의 관계를 논하였으나 지금 보면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고 수정할 부분도 많이 보인다.

최근 부여에 대한 전문 연구 서적이² 출간되고 부여, 옥저, 예, 읍루 및 이와 유관한 동북지방의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서³ 많은 성과가 축적되고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글은 국가 형성기의 백제와 부여의 계승성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가 왕실과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었거나 고고학적 정황증거에 대한 무시, 혹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많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필자의 견해를 일부나마 피력하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투고: 2018년 5월 14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13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1 권오영, 1995, 「백제의 기원」, 『한국사 6 -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 백제 -』, 국사편찬위원회.

2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3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아래의 글을 들 수 있다.

고구려발해학회·경희대학교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2016, 『선비와 고구려, 부여』;
유은식, 2017a, 「부여, 옥저 그리고 읍루의 고고학」,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상고사』,
한국상고사학회.

II. 백제 왕실의 부여 기원설에 대한 검토

백제 왕실의 기원에 대한 문헌적 검토는 건국설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삼국사기』 온조왕조 본문에는 온조가 북부여 출신 주몽과 졸본부여 왕의 딸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삼국유사』 왕력(王曆), 기이(紀異), 남부여전백제조(南扶餘前百濟條) 등에서 답습되고 있다. 『삼국사기』 온조왕조 세주(細注)에는 보다 상세하게 북부여왕 해부루(解夫婁)의 서손(庶孫)인 우태(優台)와 졸본인(卒本人) 연타발(延陀勃)의 딸인 소서노(召西奴) 사이에서 온조와 비류가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 측 기록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위서(魏書)』에서는 백제 왕실을 부여계라고 하였으며, 『주서(周書)』에서는 부여의 별종인 구태(仇台)의 후예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수서(隋書)』와 『북사(北史)』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속일본기(續日本記)』에서는 백제 왕실의 시조를 도모(都慕)라고 하였다. 이는 동명(東明)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외 사서들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부계인지 모계인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백제 왕실이 부여계임을 인정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백제 왕실이 부여계라는 주장은 정설적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⁴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사실이 추가되었다.

우선 백제 왕실의 성(姓)에 대하여 『삼국사기』는 부여씨(扶餘氏), 『삼국유사』는 해씨(解氏)라고 하였다. 부여씨는 말할 것도 없고 해씨도 해부루, 해모수 등을 근거로 부여계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왕성에 대한 기사 역시 백제 왕실이 부여계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용되었다.⁵

4 조영광, 2017,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선사와 고대』 53.

5 고구려 왕실 역시 해씨를 칭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씨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씨가 반드시 좁은 의미의 부여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편 『진서(晉書)』에 의하면 372년 동진(東晉)에 사신을 보낸 근초고왕은 공식적으로 여씨(餘氏), 즉 부여씨를 칭하고 있다. 개로왕대 복위에 보낸 국서에서 백제 왕실은 스스로를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후 국호를 남부여(南夫餘)로 바꾼 사실, 고구려 장수와의 전투를 앞두고 백제 왕자 창(昌)이 스스로를 고구려와 성이 같다고 주장한 사실도 힘을 더하였다.⁶

백제에서 왕을 부를 때 어라하(於羅瑕)라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건길지(健吉之)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백제 언어의 이원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자주 인용되었고, 그 이원성은 왕실이 한계(韓系)가 아닌 북방의 부여계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동명신화의 범부여족 의식을 강조하거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등장하는 왕들의 동명묘(東明廟) 배알을 주목하는 이유 역시 백제 왕실이 부여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이다.

백제 왕실의 기원을 넘어서서 백제 국가의 성장을 부여족의 남하와 연결짓는 경향은 기마민족 정복왕조설로 정리된다. 예가미 나미오(江上波夫)의 일본 열도 기마민족 정복왕조설과 상당히 닮아 있는 이 논리는 레드야드에서 시작되어 이기동,⁷ 이도학을⁸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이들의 견해는 불연속성 내지 단절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 핵심은 『삼국지』 한조에 나타난 마한소국으로서의 백제국(伯濟國)과 4세기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고대국가 백제는 무관한 존재이며, 후자는 부여에서 남하한 기마민족에 의한 정복왕조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강

백제 왕실을 부여계로 간주하고자 하는 논자들에게는 해씨의 부여계적 속성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 6 昌의 주장은 때로는 백제와 고구려의 친연성을, 때로는 백제와 부여의 친연성을 설명할 때에 임의로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 7 이기동, 1982, 「백제왕실 교대론에 대하여」, 『백제연구』, 특집호; 1990, 「百濟建國史의 二, 三의 問題」, 『백제연구』 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8 이도학, 1990, 「백제의 기원과 국가형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社; 1991, 「백제 집권국가형성 과정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 의문을 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천황가, 신라의 적석목곽분 축조세력, 금관가야의 지배세력에 이어 백제 왕족까지도 북방, 혹은 부여계가 되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는 고분시대 중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거듭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북방의 영향, 특히 마구와 갑주, 금공품이 5세기 이후 일본열도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통구스계통의 기마민족이 일본열도를 정복하고 천황가의 기원이 되었다는 에가미설을 더 이상 추종하는 전문 연구자는 없다.

금관가야의 경우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보듯이 선형 분묘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새롭게 축조되는 통나무를 이용한 이른바 Ⅱ류 목곽묘는 새로운 금관가야 왕족의 무덤이며 그들은 3세기 후반 무렵 부여에서 남하하였다는 논지이다.

신라의 적석목곽분은 그 특이한 구조와 부장품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주목받았는데 중앙 유라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쿠르간 문화의 일부가 경주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럴 경우 적석목곽분을 묘제로 채택한 마립간기 김씨 왕족은 북방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백제 왕실도 부여계라고 한다면 동북아시아의 고대 왕조들은 모두 부여, 혹은 북방에 그 계보를 둔 셈이다. 왕실의 계보에 국한시키진, 국가 형성의 거대 동력으로서 주목하긴 백제와 부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백제의 기원을 부여에서 찾는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헌을 통한 고대사 연구자란 점이다. 19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한 고고학적 자료, 특히 백제 국가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고고학을 통한 백제 국가형성론과 문헌을 통한 그것은 방법론과 결과에서 평행선을 그리게 되었다.

Ⅲ. 백제의 물질문화와 부여의 관련성 여부

1. 부여의 물질문화

1) 부여 중심부의 양상 – 서단산(西團山)문화와 포자연(泡子沿) 상층문화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통해 부여와 백제의 계승성을 추적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개의 국가 사이의 계승성을 따진다는 작업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여 왕실과 백제 왕실의 계승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터이지만 이는 역사 기록이나 신화, 전승에서 가능하지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통해서서는 쉽지 않다.

게다가 기원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기원후 3세기 무렵까지 백제와 부여의 물질문화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부여의 경우는 소수나마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존재하지만 백제의 경우는 왕도인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기원후 3세기 이전의 유적이 확인된 것은 없다. 인접한 인천, 경기지역으로 시야를 넓히면 이 시기의 유적이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지의 전통이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지 백제 건국집단의 출자를 해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백제의 4세기 중엽의 기단식적석총을 부여와 연결지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묘제를 비롯한 고고학적 물질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부여와 백제의 계보적 친연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두 가지 유물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만 유구와 유물에서 보이는 단편적 유사성이 과연 양자의⁹ 계승관계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부여의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는 비파형동검문화의 지역형인 서단산문화부터 시작된다(그림 1). 길림성(吉林省) 길림시(吉林市) 서단산 일대에 분포하는 석

9 이 경우도 왕실인지 국가인지, 수적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관묘유적에서 명명된 이 문화의 주체가 훗날 부여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부여의 건국신화인 동명신화에 나타나는 탁리[橐離(橐離, 索離)]를 부여에 앞서 실재한 것으로 보고 그 위치를 길림시 북편의 동류송화강(東流松花江)과嫩江(嫩江) 일대의 송눈평원(松嫩平原)에 비정하는 견해가 중국 학계와 한국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¹⁰ 즉 송눈평원에서 발전한 백금보(白金寶)-한서(漢書) 하층 문화 및 이를 발전시킨 한서 상층-망해둔(望海屯)문화를 고리국과 연결짓는 것이다.¹¹



10 송호정, 1997, 「부여의 성립」,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이종수, 2013, 「부여의 대외교류와 교통로 연구」, 『백산학보』 96, 백산학회, 101쪽.

11 송호정, 1999,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기원과 그 성장과정」,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456쪽.

이러한 견해는 동명신화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간주하여 기원전 3세기 이후 고리국의 중심부인 한서 상층-만해둔 문화를 영위하던 세력 일부가 길림시로 이주해서 예계(濊系) 주민들을 융합해 발전한 것이 부여의 건국이라는 견해로 이어졌다.¹² 그런데 부여의 동명신화와 고구려의 주몽신화에서 보이는 난생(卵生), 궁시(弓矢), 어별부교(魚鼈浮橋) 등의 모티프를 북방 종족집단 사이에서 공유하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¹³ 동명신화의 탁리(濛離)를 부여에 앞서 실재한 것으로 보고, 고리-부여-고구려의 순서로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논리는 매우 어색하다. 동명과 주몽의 건국신화가 북방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화라는 논리를 따른다면 이 내용에 집착하여 고리국의 위치를 부여(길림시)의 북방 어딘가에 굳이 비정하려는 논리는 불필요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백금보문화와 한서 2기 문화가 동명설화의 탁리국(濛離國)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¹⁴

부여의 국가형성 시점은 늦어도 기원전 3세기, 즉 서단산문화의 종말 시점으로 잡는 견해가¹⁵ 유력하며, 부여라는 실체와 직접 연결된 문화는 서단산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포자연 전산(前山)유적으로 대표되는 포자연문화라고 한다.¹⁶ 포자연 전산유적은 하층과 상층으로 나뉘며 상층이 전국(戰國)-전한(前漢)에 해당된다.¹⁷ 포자연문화는 기원후 2세기 무렵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

12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 - 예맥족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27, 동북아역사재단.

13 조영광, 2010, 위의 글, 186쪽.

14 송기호, 2005, 「부여사 연구의 쟁점과 자료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46~47쪽; 박양진, 2005, 「考古學에서 본 夫餘」,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72~73쪽.

15 李基東, 2005, 「韓國民族史에서 본 夫餘」,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9쪽; 董學增, 1984, 『西團山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376쪽.

16 吉林省博物館, 1985,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 1985-6; 張立明, 1986, 「吉林泡子沿遺址及其相關問題」, 『北方文物』 1986-2.

17 오영찬, 1999, 「楡樹 老河深 유적을 통해 본 부여 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482쪽.

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유적은 길림 동단산(東團山), 용담산(龍潭山), 학고동산(學古東山), 양둔(楊屯) 대해맹(大海猛), 서란(舒蘭) 황어권주산(黃魚圈珠山), 농안(農安) 전가타자(田家坨子) 등이다.¹⁸ 한편 길림 화전현(樺甸縣) 횡도하자(橫道河子) 서황산(西荒山)의 암광묘(岩壙墓)에서는 T자형 검파가 붙은 비파형 동검, 축각식 검파가 붙은 세형동검과 유리제 대롱구슬 등이 출토되었는데¹⁹ 그 시기는 전국 만기-서한(西漢) 초기에 해당되며 서단산문화와 포자연문화를 연결짓는 부여의 무덤으로 이해된다.²⁰

한대(漢代) 이후 부여의 무덤으로 자주 거론되는 유적은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과²¹ 길림(吉林) 모아산(帽兒山)유적이²² 대표적이다.²³ 모아산유적은 동단산 및 남성자(南城子)유적의 동편에 위치하며, 한대에 속하고 총 기수가 7-8천 기에 이르므로 부여 중심 집단의 묘역으로 추정되지만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묘제는 토광목곽묘, 토광묘, 토광목관묘, 토광적석묘, 토광석광묘 등으로 분류되는데²⁴ 주류는 평면 묘자 모양의 목곽묘로서 단곽(單槨), 쌍곽(雙槨), 삼곽(三槨) 등의 변이를 보인다고 한다. 묘역의 위치와 무덤의 등급을 고려할 때, 이 유적은 부여의 왕족, 귀족의 묘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⁵

역시 한대에 속하는 노하심 2기 문화는 제2 송화강유역에 한정 분포한다. 유수 노하심유적은 부여의 중심인 길림시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중

18 송호정, 2015, 앞의 책, 150~154쪽; 박양진, 2005, 앞의 글, 74쪽.

19 吉林省博物館編, 1988, 『吉林省博物館 - 中國の博物館 第二期 第3卷 -』, 講談社・文物出版社, 160~161쪽.

20 董學增, 1984, 앞의 책, 377~378쪽.

2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22 吉林市博物館, 1988, 『吉林市帽兒山漢代木槨墓』, 『遼海文物學刊』1988-2.

23 박양진, 2005, 앞의 글, 61~63쪽.

24 송기호, 2005, 앞의 글, 37쪽.

25 박양진, 1998b, 「族屬 추정과 夫餘 및 鮮卑 고고학 자료의 비교 분석」, 『韓國考古學報』29, 韓國考古學會, 32~33쪽.

양의 묘역은 아니다. 축조세력을 선비족과 관련짓는 견해도 있으나 그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이미 이루어졌다. 부여의 경역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대규모 선비 무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비 묘제의 구조적 특징 중의 하나인 두광축협[頭廣足狹: 전대후소(前大後小)]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주요 논거이다.²⁶ 보고가 이루어진 129기의 평면은 장방형, 구조는 수혈토광묘인데 순수 토광묘와 목관묘가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연대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이외에 길림성 영길현(永吉縣) 학고(學古)에서 발견된 장방형 수혈 토광묘에는 남녀가 합장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시기는 기원전 1세기 무렵으로 추정되므로 부여와 연결된다.²⁷

따라서 부여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하면 생활유적으로는 왕성 및 그 주변부로 추정되는 길림시 동단산, 남성자, 용담산성(龍潭山城) 일대, 취락인 길림 포자연전산 상층, 영길 양둔 대해맹 중층, 학고동산 상층, 동풍(東豐) 대가산(大架山) 상층을 들 수 있다.²⁸ 부여의 무덤으로 간주하여 큰 이론이 없는 유적은 노하심, 모아산, 학고 등이다.²⁹

한편 부여의 유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유적으로는 요녕성(遼寧省)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유적, 길림성 동요현(東遼縣) 석역향(石驛鄉) 채남(彩嵐)유적 등이 있다.³⁰ 여기에 요령성 북표(北票) 라마동(喇嘛洞)유적도 부여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³¹ 이를 반박하고 이상의 유적들을 모두 요동오환(遼東烏桓)으로 보는 견해가³² 제기된 바 있다.

26 오영찬, 1999, 앞의 글, 488~489쪽.

27 박양진, 2005, 앞의 글, 65쪽.

28 박양진, 2005, 앞의 글, 57~60쪽.

29 박양진, 1998b, 앞의 글, 45쪽.

30 송기호, 2005, 앞의 글, 38쪽.

31 田立坤, 2003, 「關於北票喇嘛洞三燕文化墓地的幾個問題」, 『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32 송기호, 2005, 앞의 글, 44쪽.

2) 주변 지역과의 비교

부여의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취락, 일상 생활용품, 무덤과 장제, 부장품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여의 경역이 분명치 않고 주변 종족과의 변별이 어려운 경우도 잦다. 따라서 백제와 부여의 물질문화를 비교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서 부여 주변의 다양한 종족과 부여의 물질문화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만 비교 대상이 되는 종족 중에는 유목을 주 생업으로 삼았던 경우도 있어서 주거지나 일상 생활용품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묘제와 장제, 그리고 부장품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여다운” 물질문화의 양상이 어렴풋이나마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1) 흉노와의 비교

『사기(史記)』에 의하면 흉노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관곽(棺槨)과 금은(金銀), 의구(衣裘)는 있으나 봉수(封樹)와³³ 상복(喪服)은 없다. 근행(近幸)과 신첩(臣妾) 중 따라 죽는 자가 많으면 수천백 인에 이른다.”고³⁴ 한다. 유라시아에서 확인된 13,000여 기의 흉노 무덤 중 몽골에서만 10,000기 이상이 확인되는데 기본적으로 적석목곽의 매장주체부, 지표면의 방형과 원형(혹은 고리형) 적석부를 공통적인 특징으로 삼는다.³⁵

부여와 흉노의 묘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지하식 목관, 목곽이라는 공통성이 있으나 직접적인 비교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서차구유적의 피장자 군을 흉노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 유적을 흉노와 직접 연결짓기보다는, 석역공사(石驛公社)유적과 함께 부여의 외곽에 위치하며 흉노와 관련성이 일부 있는

33 封은 封土, 樹는 담장, 곧 陵牆이나 무덤 앞에 세우는 석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史記』 권110, 匈奴列傳, “其送死 有棺槨金銀衣裘 而無封樹喪服 近幸臣妾從死者 多至數千百人”

35 에렉젠, 2009,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G. 에렉젠·양시은, 2017, 『흉노』, 진인진.

것으로 보는 것이³⁶ 합리적이다. 다만 고분 부장품에서 보이는 동복(銅鍔), 동물형 허리띠장식 등은 부여와 흉노가 공통적이다.

(2) 오환, 선비와의 비교

오환의 묘제와 장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선비의 무덤 구조와 부장품의 양상은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³⁷ 내몽고 일대는 토광직장, 혹은 목관이나 목곽을 사용한 경우가 주류이다.³⁸ 장법으로는 단인장과 다인장의³⁹ 공존, 이차장의 확인, 동물순장, 두관축협(頭寬足狹) 목관의 사용 등이 특징이다.⁴⁰

유수 노하심에서는 목관묘와 목곽묘가 주류여서 선비 무덤과 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다만 부여가 일차장과 단인장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반면, 선비는 이차장, 다인장, 동물순장, 두관축협 목관의 사용 등이 특징이다.⁴¹ 모아산 1호묘는 목곽 3기가 나란히 배치된 모습이다. 노하심에서도 다인장 무덤으로서 남녀 동형합장묘 3기가 확인되었고⁴² 학고의 토광묘에서도 남녀 합장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단인장 무덤과 다인장 무덤이 공존하는 점은 부여와 선비가 동일하지만, 선비에서 다인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부여의 무덤에서는 북방문화와 중원문화의 영향이 공존하는데,⁴³ 이것이야

36 오영찬, 1999, 앞의 글, 485~486쪽.

37 박양진, 2000, 「중국 동북지방의 선비무덤 연구」, 『백제연구』 3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38 魏堅 主編, 2004, 『內蒙古地區鮮卑墓葬的發現與研究』,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39 대표적인 무덤은 完工 M1B호묘로서 장방형 목곽 내부에 다수의 인골이 안치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차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40 박양진, 2005, 앞의 글, 75쪽.

41 박양진, 2005, 앞의 글, 75쪽.

42 박양진, 1998b, 앞의 글, 43쪽.

43 오영찬, 1999, 앞의 글, 483~484쪽.

말로 부여문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원과 교섭한 증거는 한경(漢鏡)과 오수전, 북방 유목민족과 접촉한 증거는 동북, 금속제 장신구를 들 수 있다.⁴⁴ 특히 동북은 흉노와 부여, 선비가 공유하는 양상을 보여준다.⁴⁵ 부장품의 양상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동물 순장에서 선비가 조금 더 유목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철제 농기구의 유무 등이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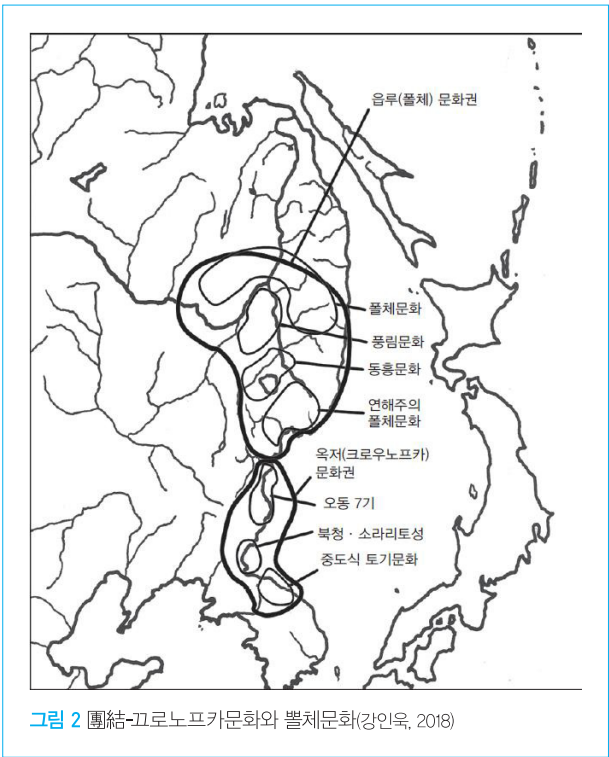


그림 2 團結-크로노프카문화와 별체문화(강인욱, 2018)

44 박양진, 2005, 앞의 글, 69쪽; 오영찬, 1999, 앞의 글, 483~484쪽.

45 박양진, 1998b, 앞의 글, 43쪽.

부여와 선비의 물질문화의 차이는 토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기종과 기형, 제작기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완공(完工)이나 찰퇴낙이(擦退落耳)와 같은 전형적인 선비 묘장 출토 토기가 길림지역과 다른 점은 매우 주목된다.

(3) 옥저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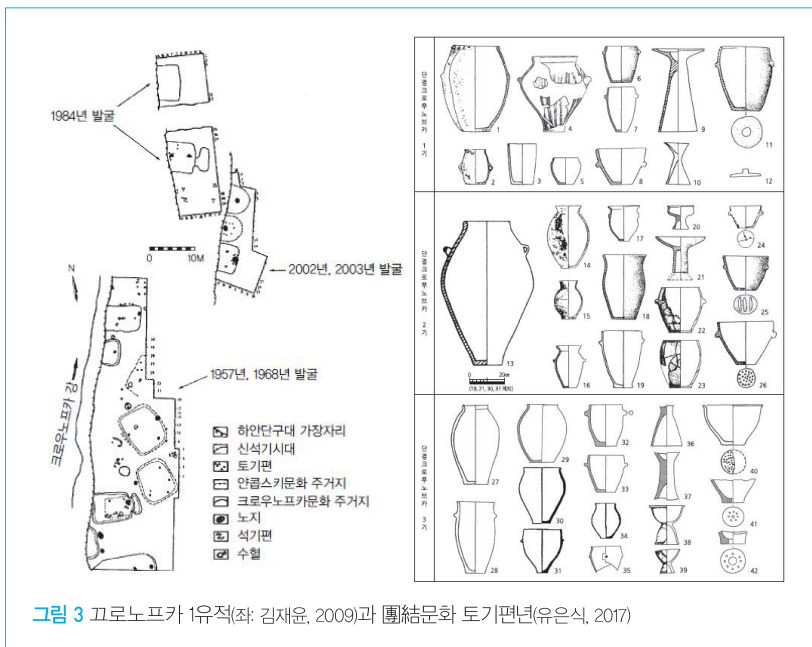


그림 3 크로노프카 1유적(좌: 김재윤, 2009)과 團結문화 토기편년(유은식, 2017)

옥저는 서북쪽으로 노야령(老爺嶺)을 경계로 읍루와 접하고, 북쪽 경계는 흥개호(興凱湖), 남쪽은 개마고원 마천령, 동은 연해주이며 두만강을 경계로 북옥저와 남옥저로 구분된다.⁴⁶ 『삼국지』 동이전에는 동옥저의 묘제와 장제에 대하

46 鄭永振, 1991, 『沃沮, 北沃沮疆域考』, 『한국상고사학보』 7, 한국상고사학회, 89~91쪽.

여 장방형 목곽의 사용, 이차장, 가족장의 실시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옥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은 연길(延吉) 신화려(新華閭), 부흥려(復興閭) 고분군 정도이다.⁴⁷

옥저와 관련된 문화는 두만강-연해주 지역에서 발전한 단결(團結)-끄로노프카문화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⁴⁸ 기원전 4~3세기 무렵부터 이미 중원지역과 교섭하였음이 밝혀졌다.⁴⁹ 단결-끄로노프카문화의 분포권역은 남으로는 함경남도, 북으로는 수분하(綏芬河) 중상류, 서로는 장백산 이동, 동으로는 연해주까지로 이해된다(그림 2).⁵⁰ 목단강(牡丹江)유역의 동강(東康), 동승(東升)유적에 대해서는 단결문화에 포함시키는 견해와⁵¹ 별도의 문화로 보는 견해로⁵² 양분되어 있다.

단결문화의 무덤으로서 제대로 조사된 것은 없고, 세형동검이 부장된 이즈웨스토프카유적과 시코토프카유적이 후보가 된다.⁵³ 반면 주거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단결-끄로노프카문화는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기원후 1세기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림 3의 우).⁵⁴ 연해주 남부의 세형동검문화는 옥저인들이

47 정영진 외, 1988,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인민출판사.

48 林沄,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 1985-1.

49 강인옥, 2018, 「기원전 4-3세기 초기 옥저문화권의 성장과 대외교류」, 『한국상고사학보』 99, 한국상고사학회, 83쪽.

50 송호정, 2008, 「두만강 유역의 고대문화와 정치집단의 성장」, 『역사와 담론』 50, 호서사학회, 34쪽.

51 楊志軍, 1982, 「牡丹江地區原始文化試論」, 『黑龍江文物叢刊』 82-3.

52 송호정, 2008, 앞의 글, 44쪽.

53 강인옥, 2009, 「동아시아 고고학·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옥저·음루 문화권의 계기를 중심으로-」,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34쪽; N.A. 클류예프, 2009, 「러시아 연해주 남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연구현황」,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50~151쪽.

54 大貫靜夫, 2009, 「挹婁の考古學」,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國立歷史民俗博物館, 136쪽.

한반도 및 부여지역과 교섭하여 형성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통화(通化) - 길장(吉長)지구의 영향도 있었다는 최근 연구 성과를⁵⁵ 참조할 때, 옥저지역을 섬처럼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통화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여와 한반도를 연결짓는 매개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고구려와의 비교

고구려의 묘제는 “돌을 쌓아 봉(封)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줄지어 심었다.”⁵⁶는 『삼국지』의 기사에 압축되었듯이, 지상에 적석분구하는 방식이 최대의 특징이다. 압록강과 그 지류 일대에는 수많은 적석총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집안지역의 정형화된 적석총과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비주류 적석총도 존재한다. 원형 평면에 연접축조를 특징으로 하는 장백현(長白縣) 간구자(干溝子), 전방후원형의 평면을 띠는 초산 운평리고분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간구자에서는 비록 발굴품은 아니지만 축각식 동검이 채집되었다. 이 유물이 부여와 관련되었다는 주장⁵⁷ 따를 경우, 초기 적석총에 부여계 유물이 유입된 양상을 그려볼 수 있다. 나아가 적석총과는 판연히 다른 토광묘계통의 무덤이 존재하는 점도 주목된다. 통화 만발발자(萬發撥子)유적⁵⁸ 신석기 시대부터 명말(明末)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유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1호묘는 전국 중만기보다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⁵⁹ 길이 16.5m, 너비 2.3m 되는 장방형 토광 내부에서 총 35구의 인골이 매장된 채 발견되었다.

집안(集安) 오도령구문(五道嶺溝門)이나 환인(桓仁) 망강루(望江樓)유적에서 보듯 통화-환인-집안 지역에서 초기 적석총이 등장한 이후에도 의연히 남아 있

55 강인욱, 2018, 앞의 글, 87쪽.

56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高句麗條, 積石爲封 列種松柏.

57 강인욱, 2018, 앞의 글, 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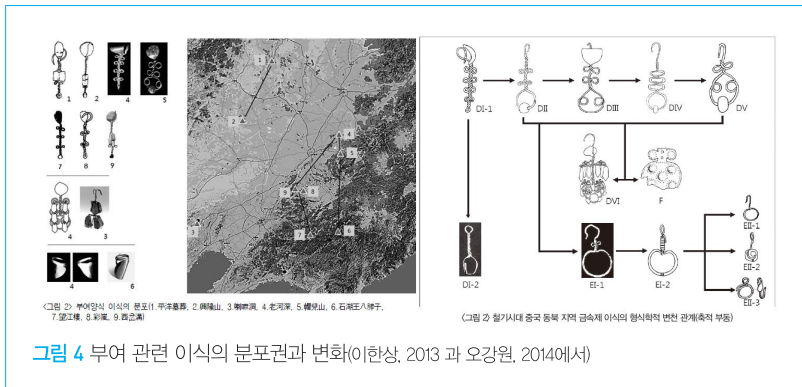
5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3, 「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二十一號墓的發掘」, 『考古』2003-8.

5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3, 위의 글.

는 만발발자 대형 토광묘의 피장자는 목관(곽)묘 전통의 부여계 인물일까? 만약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유적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이식이 출토되었다. 나선 모양의 선과 구부린 판으로 구성된 금속제 이식은 좁게는 부여, 넓게는 선비를 포함한 유라시아 동부의 특징적인 장신구이다(그림 4).⁶⁰ 이러한 이식은 만발발자 이외에도 환인 망강루, 백제의 풍납토성과 김포 운양동 분구묘에서도 발견되었다.

환인 망강루의 선비-부여계 귀걸이, 집안 오도령구문의 도끼날형 철촉, 동모 등을 유수 노하심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 유적을 남긴 주민집단을 부여계로 특정하는 견해도 있다.⁶¹ 적석총인 오도령구문은 부여계로 보기 어렵지만 만발발자는 확실히 고구려의 묘제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환인-통화-집안 일대에서 아직 분명한 부여계 묘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하에 위치하는 부여 묘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상의 적석묘에 집중된 현재의 조사방법으로는 설혹 부여계 묘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점에서 통화 만발발자유적이 주목되는 것이다.



60 오강원, 2014, 「철기시대 중국 동북지역 금속제 이식의 시공간성과 제작 방식」, 『호남고고학보』 48.

61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 -예맥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 동북아역사재단, 206~207쪽.

(5) 읍루와의 비교

읍루의 위치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할 때, 부여의 동북, 옥저의 북에 해당된다. 부여와 읍루의 경계는 장광재령(長廣才嶺)으로 보인다.⁶² 서단산문화를 계승한 부여와 달리, 읍루는 동강,⁶³ 완연하(蜿蜒河), 파이채(波爾采), 곤토령(滾兔嶺)⁶⁴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⁶⁵ 아무르(흑룡)강 중하류와 삼강평원(三江平原) 일대에 퍼져있던 이 문화를 러시아에서는 뽕체문화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완연하 유형이라고도 부른다.⁶⁶ 뽕체문화는 기원전 5~기원후 3세기 무렵까지 오랫동안 지속된 철기문화로서,⁶⁷ 토기 기종은 호와 심발이 주류를 이루지만 부여나 옥저권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경광구호(有頸廣口壺)의 발전에서 보듯이 외반구연이 큰 특징이다.⁶⁸

삼강평원의 곤토령문화(전한~후한)는 봉림(鳳林)문화(위진)를 거쳐 동인(同仁)문화(남북조)로 이어진다.⁶⁹ 한위(漢魏) 시기에 목단강 상류에서 발달한 동강문화, 중류역의 동흥(東興)문화는 단결문화와 유사한 점도 많으나 외줄구들이 없는 점에서⁷⁰ 오히려 읍루와 연결지을 수 있다.

『진서』 숙신씨조(肅愼氏條)에는 숙신(肅愼)이 곧 읍루라고 전제하고 “사람이

62 송기호, 2003, 앞의 글, 334~335쪽.

63 東康문화와 團結문화를 별개의 문화로 간주하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의 글에 상세하다. 김재운, 2016, 「한중러 접경지역 철기시대 團結 - 꼬로노프카 문화범위에 대한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3, 한국상고사학회.

64 村上恭通, 2000, 「團結文化と滾兔嶺文化」, 『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65 오영찬, 1999, 앞의 글, 480쪽.

66 大貫靜夫, 2009, 앞의 글, 131쪽.

67 홍형우·강인옥, 2004, 「러시아 극동지역 철기시대 연구의 제문제 - 뽕체 문화를 중심으로 -」, 최몽룡·김경택·홍형우 편저,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주류성.

68 유은식, 2017a, 「동북아시아 초기철기문화의 병행관계와 교류양상」, 『한국상고사학보』 96, 한국상고사학회, 93쪽.

69 大貫靜夫, 앞의 글, 141쪽.

70 鄭永振, 1991, 앞의 글, 87쪽.

죽으면 그날로 들판에 매장하고 나무를 교차시켜 작은 곽(槨)을 만들고 돼지를 죽여 그 위에 쌓아, 죽은 자의 식량으로 삼는다.”고⁷¹ 하였다. 따라서 읍루의 묘제도 기본적으로는 목곽묘란 점에서,⁷² 선비-부여-읍루-옥저는 공통적이다. 다만 그 공통성은 목곽의 사용이란 점에 국한될 뿐, 묘장제에서는 차별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2. 부여와 백제 초기 물질문화의 비교

백제의 국가형성 과정을 설명해 줄 만한 자료가 드물었던 1980년대까지는 문헌적 연구에서 도달하였던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이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런데 불완전한 발굴이었지만 몽촌토성과 석촌동고분군 등 백제 중앙의 유적이 조사되었음에도 백제 왕실이 부여계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고구려의 경우 계루부가 압록강유역의 전통적인 나집단(那集團)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제에서 이러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계루집단이 정복자가 아니라 토착세력과 연결, 융합하면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⁷³ 이러한 견해를 백제에도 적용시키게 되면 백제 초기 물질문화에서 부여와 고구려의 요소를 찾아내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1990년대 이후 마한, 혹은 백제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 곳곳에서 수많은 발굴 조사를 거쳐 엄청난 양의 자료가 확보되면서 연구의 방향은 “기원”, “계보”가 아니라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백제 왕실, 혹은 국가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기원하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71 『晉書』권97, 肅愼氏條, “肅愼氏一名挹婁 - - - 死者其日即葬之於野 交木作小槨 殺猪積其上 以爲死者之糧”.

72 楊保隆, 1989, 『肅愼挹婁合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11쪽.

73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332쪽.

그 배경에는 백제 유적의 조사 건수에 비해 부여와 관련된 유적의 조사 건수가 크게 미흡하였던 사정도 있다. 자연스럽게 경기, 충청, 전라지역에서 지역정치체의 형성과정,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성장한 백제와의 교섭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각되었다.

게다가 고고학적으로 고대국가의 판별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통일된 토기양식의 성립, 지배자의 거대한 무덤, 지배층을 위한 성(城)의 출현 등 세 가지를 운위하게 되면서, 백제의 국가 형성 시점은 아무리 올려도 서력기원 3세기 중반을 상회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간적으로도 문헌사학계와 고고학계의 괴리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삼국사기』 초기 기사의 신빙성 문제, 『삼국지』와 『삼국사기』 기사의 가치 판단문제, 삼국의 국가형성 시점, 고대국가의 특성과 판별 기준 등 다방면으로 파급될 폭발력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까지 확보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백제 왕실의 기원이 부여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고구려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그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묘제, 토기, 무기와 마구, 장신구 중 논자에게 유리한 대상을 임의로 선택,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석촌동의 적석총과 공존하거나 일부 선행하는 토광묘를 가지고 토광묘라는 용어의 공통성을 근거로 부여와 연결지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는 불가하다. 김해지역의 3세기 후반 이후 통나무 목곽묘를 부여와 연결짓는 견해도 부여의 묘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 나온 주장은 아닌 것 같다. 토광묘는 가장 보편적인 묘제이지만, 토광 내부의 장구(葬具)에 따라 목관묘 혹은 목곽묘, 그리고 순수토광묘로 나뉜다. 목관과 목곽의 종류, 구조, 결구방식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이루어지므로 토광묘라는 공통성만으로 백제 왕족이 부여계라고 추단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토광묘의 존재로 인하여 부여계 아닌 집단이 없게 되어 버린다.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전체상을 기초로 삼지 못한 상태에서 부여와 백제, 혹은 가야의 계보적 친연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청주 오송의 한 무덤에서 청동제 병부(柄部)에 철제 검신(檢身)이 결합된 동병철검(銅柄鐵劍)이 발견되었다. 서차구와 노하심에서 발견된 동병철검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이 유물을 부여의 유물로 간주하고, 나아가 백제와 부여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려는 경향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동병철검은 한대 철검이 넓게 확산되면서 서차구와 노하심과 같은 지역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오송 출토 동병철검이 부여계인지, 광의의 한계(漢系)인지는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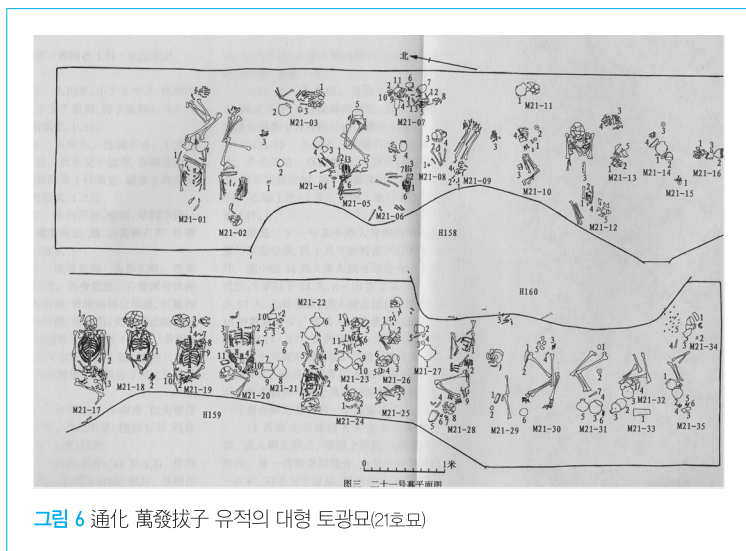
그 다음은 나선모양의 선과 구부린 판으로 구성된 선비-부여계 이식의 존재이다. 풍납토성과 김포 운양동 분구묘에서도 출토된 이 유물은 앞에서 보았듯이 유라시아 동부의 특징적인 장신구이다. 환인 망강루, 통화 만발발자에서도



그림 5 서울 석촌동 3호분 동쪽 대형 토광묘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므로⁷⁴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견된 사실 자체는 분명 의미가 크다. 다만 부여계 주민의 이주보다는 원거리 교역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서울 석촌동 3호분 동쪽 대형 토광묘(그림 5)의 존재이다. 외형상 통화 만발발자 21호묘(그림 6)와⁷⁵ 흡사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대형 장방형 묘광의 굴착, 집단장, 다인장이란 공통성이 있다. 만발발자 21호묘는 초기 고구려 묘제와 아주 이질적이다. 석촌동 대형 토광묘의 경우 역시 일반적인 마한의 목관묘(주구토광묘), 주구묘, 분구묘나 백제 적석총과 이질적이다.



74 이한상, 2013, 「이식으로 본 고대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의 교류」, 『백제문화』 49; 오강원, 2014, 앞의 글.

7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3, 앞의 글.

만일 만발발자 21호묘의 피장자를 고구려 사회에 존재한 부여계 인물로 본다면 석촌동 3호분 동쪽 대형 토광묘의 피장자 역시 부여계라는 논리도 가능해진다. 백제 초기 사회에 존재하던 부여계 집단을 밝혀내는 작업인 셈이다. 이러한 추론이 옳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사민된 것인가?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등 의문이 이어진다.

주변지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계 주민집단이 무리를 이루어 일본열도 곳곳에 정착한 흔적은 문헌, 전승, 고고학적 자료 모두에서 뒷받침된다. 특히 키나이(畿内)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이른바 도래계(渡來系, 이주민계) 취락에서는 주거지의 형태와 조리방식, 조리기의 기종과 기형을 한반도 남부의 그것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이주민 1세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환경에 정착하여 재지화하는 모습도 그려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토기, 주거지, 그리고 무덤이다.

부여 전기 문화인 서단산문화에 속하는 주거지 중에서는 후석산(猴石山) 86F1, 황어권주산 81F6, 대해맹 79F1 등 출입구가 달린 경우가 확인된다.⁷⁶ 출입구가 달려서 횡방향으로 출입이 이루어지는 주거지는 단결문화, 그리고 한반도 중부의 이른바 중도유형문화에서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부여의 토기로 인정되는 것은 포자연식호(泡子沿式壺)라고도 불리는 쌍이호(雙耳壺), 단경호, 완(盥), 반(盤), 두(豆), 시루 등이다(그림 7).⁷⁷ 백제 토기와 부여 토기의 본격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나 양자는 기종, 기형, 제작기술 면에서 상이하다. 쌍이호라는 기종 자체가 백제토기에서는 생소한 기종이며 나머지 기종 역시 기형이 상이하다. 오히려 선비 토기와 부여 토기는 마광(磨光), 암문(暗文)이라는 공통성을 지니며, 부여 토기와 고구려 토기는 파수를 붙인 토기가 많다는 공통성이 인정된다. 백제 토기는 중부지역 원삼국 토기

76 董學增, 1984, 앞의 책, 312~314쪽.

77 유은식, 2016, 「前期 扶餘 土器文化의 變遷과 擴散」, 『韓國考古學報』100, 韓國考古學會.

분기	쌍이호A	쌍이호B	호	완	반	주상두형토기	시루	기타
I기 BC 2C								
II기 BC1~ AD 3C초								
III기 AD 3~4C								

그림 7 부여의 토기변화(유은식, 2016)

와의 계승성, 그리고 새롭게 외래 기종의 영향이 보이지만 이는 부여나 고구려가 아니라 한대 도기와 육조(六朝) 자기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토기를 통하여 부여와 백제의 계승성을 확인하려는 작업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백제 초기의 주구토광묘, 분구묘, 무기단식(증석식) 적석총이 부여의 무덤과 상이하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결국 묘제와 토기상에서 부여와 백제의 계승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여의 주거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양자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주거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한다.

IV. 중도유형 문화론에 대한 검토

백제 초기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기반을 예(濊)와 연결지으려는 시도가 국내 고고학계에서 나타났고, 현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고대사학계에서는 부여의 종족을 예족(濊族)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인 만큼, 백제와 예의 관련성 검토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1. 중도유형 문화론에 대한 비판

백제 국가형성 및 왕실의 기원에 대한 고고학계의 연구에서 커다란 획기가 마련된 것은 이른바 중도유형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한반도 중부지역의 원삼국기 문화를 중도유형문화라 부르고 그 종족을 예, 혹은 예계집단으로 간주하는 견해가⁷⁸ 1990년대에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고고학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고대사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영서지역의 종족집단을 영서예(嶺西濊)라고 부르거나,⁷⁹ 혹은 예족의 범주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⁸⁰ 나타났다(그림 8). 예, 맥(貊), 한(韓) 등의 동이족이 북중국에서 이동하여 왔다는 이 동설은⁸¹ 진작 부정되었으나, “부여인의 종족적 계통은 예족이며, 예족은 북류송화강과 두만강유역, 영일만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과 영서 지역의 일부에 걸쳐 생활하였다.”는 견해는⁸² 현재 학계의 예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⁸³ 부여는 예족이며 백제의 기층문화인 이른바 중도유형문화의 종족이 예족(예계)이라는 주장 모두가 인정된다면 부여=예=백제 기층이란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부여를 예족으로 간주하는 고대사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동해안도 예,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도 예

78 朴淳發, 1996, 「漢城百濟 基層文化의 性格 - 中島類型文化의 性格을 중심으로 -」, 『百濟研究』 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79 文安植, 1996, 「嶺西濊文化圈의 設定과 歷史地理의 背景」, 『東國史學』 30, 東國史學會.

80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韓國古代史研究』 51, 한국고대사학회.

81 金庠基, 1948, 「韓, 濊, 貊 移動考」, 『史海』 창간호(1974, 『東方史論叢』 재수록).

82 노태돈, 2014, 『한국고대사』, 경세원, 55쪽.

83 濊族이 압록강, 홍강, 함경도, 강원도, 경기도 등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며 경북 영일지역에까지 그 분포가 미친다는 견해(이현혜, 1997, 「동예와 옥저」,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236~237쪽)도 동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계로 인정하게 되면 예족의 분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나아가 백제 건국 이전의 한반도 중부는 예족의 전통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마한은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이미 오래전에 한반도 중부지역의 백제 기층 문화를 예계로 보는 입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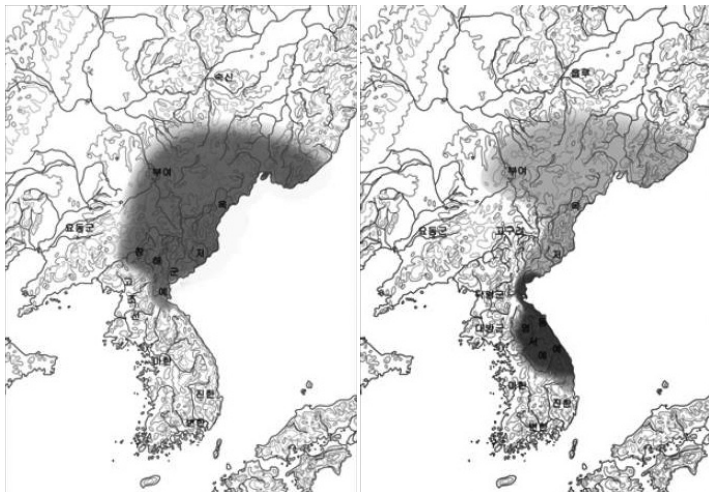


그림 8 濊族의 분포범위에 대한 인식(김창석, 2008)

소위 원삼국기 한반도 중부 이남의 수혈주거지는 다양한 형태로 세분되지만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부지역은 출입이 횡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상하로 이루어지는 여타 지역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출입시설을 제외한 주 주거공간의 평면형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중하류, 그리고 한강 하류역

84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중부고고학회; 권오영, 2010, 「마한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에서는 육각형을 띠지만, 영동지역에서는 육각형이 보이지 않는다. 육각형 주거지의 분포는 서해안을 무대로 성행하는 사주식(四柱式) 주거지와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영동과 영서에서 주거공간의 형태차이(육각형 주거지의 유무)가 선명함을 고려하면 중도유형문화론의 근거 중 하나인 중부지역 주거구조의 공통성이란 전제는 부정된다.

무덤도 마찬가지이다. 예족의 분포지임에 이론이 없는 영동지역에서는 신라세력이 진출하기 이전까지 가시적인 분묘가 발견된 바 없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옥저의 묘장제를 고려하면 (반)지상식의 대형 목곽묘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원 영서와 임진강유역, 남한강유역에서는 무기단식 적석총이 종종 발견되지만 영동에는 전무하다. 따라서 영서와 영동의 예, 옥저는 묘제에서 이질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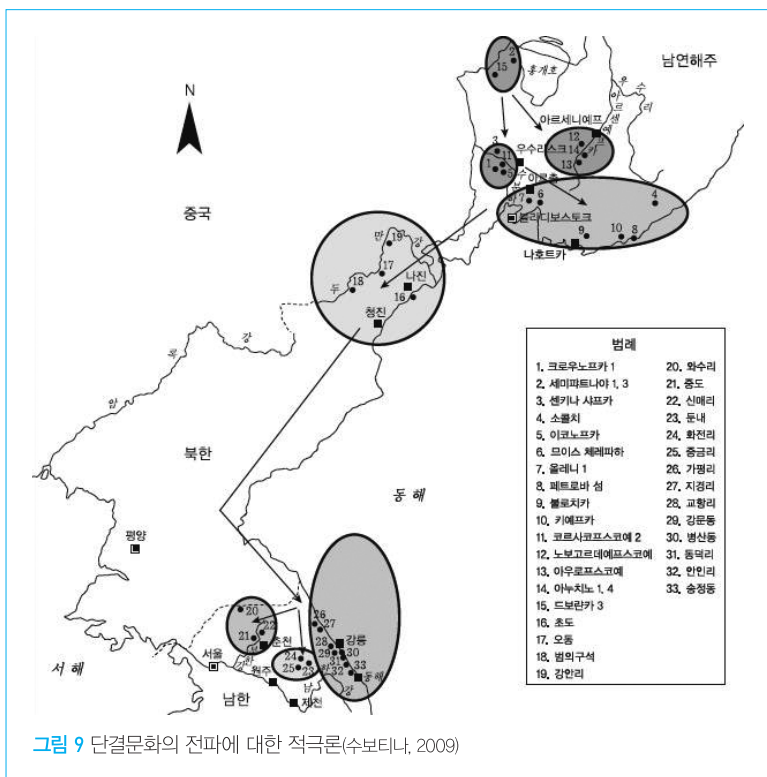
결국 영동과 영서가 공유하는 고고학적 지표는 이른바 중도식 경질무문토기만 남게 된다. 하지만 적갈색을 띠고 노천 소성된 조질, 연질의 조리용 토기는 한반도 중부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충청, 전라지역에서도 확인되며 넓게 보면 한식(漢式) 도기(陶器) 제도법의⁸⁵ 영향이 미치기 이전 유라시아 동부에 널리 분포한다. 흉노 토기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경기와 강원 영서를 영동과 한 묶음으로 예족의 단일 분포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곳은 한(韓)과 예의 접경, 혹은 양자가 중첩되는 곳으로서 한과 예를 준별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이었다.

다만 4세기 이전 중부지역의 주거구조, 조리용기의 구성과 형태가 단결문화와⁸⁶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단결문화 주거지는 평면이 장방형·방형·려자형(呂字形)·철자형(凸字形)을 띠고(그림 3의 좌), 내부에 벽을 따라서 설치된 구들시설과 부뚜막, 주상(柱狀) 파수가 부착된 심발, 호, 시루, 두

85 특히 밀폐된 등요가 여기에 해당된다.

86 이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결 - 꼬로노프카문화를 줄여서 단결문화라고 칭한다.



(豆) 등의 토기를 특징으로 한다.⁸⁷ 입구가 경사지게 마련된 점도⁸⁸ 특징적이다.

주거지의 구조와 토기 기종, 기형면에서 단결문화와 한반도 중부지역은 유사하다. 이른바 중도유형문화의 중도식 토기, 즉 경질무문토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함경도와 연해주지역을 주목한 견해가⁸⁹ 제기되었다. 기원전 4~3세기 무

87 김재운, 2009, 「동북한과 중국 연변지구의 초기 철기시대 문화 - 단결·크로노프카 문화의 계통적 성격 -」,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85쪽.

88 鄭永振, 1991, 앞의 글, 86쪽.

89 盧赫眞, 2004, 「中島式土器의 由來에 대한 一考」, 『호남고고학보』 19, 호남고고학회; 유은식, 2006, 「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와 중부지방 원삼국 문화」, 『승실사

렵 남연해주에서 일어난 기후와 해수면의 강하, 그에 따른 농경자원의 부족, 그리고 동시기 빨체문화 주민들이 아무르강 하류역에서 남연해주로 진출함에 따른 크로노프카 주민과 군사적 충돌의 결과, 크로노프카 주민과 경질무문토기 문화가 한반도로 이주하였다(그림 9)는 적극론도⁹⁰ 나타났다. 빨체문화 주민을 읍루로, 크로노프카 주민을 옥저로 치환하면 결국 읍루에 밀린 옥저의 남하로 인하여 한반도 중부, 정확히는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에서 중도식 문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주민의 직접적인 이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 일부 문화의 전파로 국한시켜 해석하는 경향도⁹¹ 보이지만 단결문화와 한반도 중부지역의 공통성은 부정할 수 없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285년 모용선비의 부여 침공과 국왕의 자살로 인해, 부여 왕실이 북옥저 방면으로 피신한 사건, 남옥저인(南沃沮人) 구파해(仇頗解, 해씨?) 등 20여 가(家)가 이주하여 백제에 편입되었다는 『삼국사기』 온조왕기 기사를 함께 연결지으면 부여문화가 단결문화를 매개로 하여 중부지역과 연결되었을 희미한 가능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2. 예와 맥, 그리고 한(韓)과 왜(倭)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예와 맥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부여, 고구려, 백제를 모두 예맥계(濊貊系)로 간주하면서⁹² 전국 - 서한에 해당되는 한서 2기 - 백금보 3기 문화(탁리국)는 맥족, 서단산문화 권역은 예족의 지역으로서 탁리국 세력이 서단산문화 권역에 들어와 예와 맥이 융합되었다는 주장이 발표된 바 있

학』 19, 숭실사학회.

90 A.L.수보티나, 2009, 「한반도의 중도식 토기문화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비교」,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50~252쪽.

91 심재연, 2008, 「江原 嶺東地域 鐵器時代 上限과 下限」, 『동북아문화연구』 16, 39~43쪽.

92 송호정, 1997, 앞의 글, 150쪽.

다.⁹³ 이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가 모두 예맥계 고대국가라는 전제 위에서,⁹⁴ 부여족은 예맥족의 한 종족,⁹⁵ 혹은 예맥은 예와 맥이 융합하여 형성되었다는 입장이다.⁹⁶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와 맥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춘천은 맥, 강릉은 예라는 학계 일각의 인식을 연상시킨다.

중국인들이 “동이(東夷)”라고 부른 여러 집단들을 단일한 하나의 종족, 민족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현대 한민족과 직결시키는 전문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韓), 예, 맥에 대해서는 각각 단일한 종족이며 그 정체성이 수백년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와 맥을 고정된 하나의 종족집단으로 인지한 결과 고조선의 종족을 예나, 맥, 혹은 제3의 조선 중 하나에 대응시키려는 1960년대의 연구 방법론이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고대 문헌에 동일하게 “맥”이라고 기술된 대상이 실제로 특정한 하나의 종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지적되었다.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의 시간이 경과하여도 예와 맥이라는 종족은 삼투압이 이루어지지 않는 껍질처럼 굳건히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는 인식은 한민족이 태고시절에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등장하여 현대로 이어졌다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식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읍루, 옥저, 동예의 주민집단에 대한 진전된 연구는 불가능하고 수십 년 전으로 회귀할 위험성이 높다. 동이라는 용어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 그리고 부르는 주체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짐을 인정해야만 하듯이 예, 맥, 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자세가 필요하다.

93 송호정, 2015, 앞의 책, 141~149쪽.

94 송호정, 2015, 앞의 책, 37쪽.

95 송호정, 1999, 앞의 글, 441쪽.

96 송호정, 2015, 앞의 책, 49쪽.

97 노태돈, 1999, 앞의 글, 316쪽.

전(傳) 포항 영일 마조리출토 진솔선예백장인(晉率善穢伯長印)을 근거로 예족의 분포가 영일만까지 미쳤음이 운위되지만⁹⁸ 고고학적 자료를 볼 때, 흥해 옥성리유적이 예족과 관련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목곽묘의 구조, 부장품의 양상을 볼 때, 이 무덤을 축조한 세력은 진한의 일부이다. 중국인이 영일지역의 주민들을 예족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실체는 진한의 일부일 뿐이며, 문화적으로 가장 유사한 집단은 경주의 사로국이다.

왜(倭)의 경우도, 중국 사서에서는 일본열도에 거주하던 주민을 일관되게 왜로 표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모두 동일한 종족은 아니다. 야요이(彌生)시대는 물론이고 코훈(古墳)시대에 들어와서도 큐슈(九州) 남부에서부터 토후쿠(東北)지방의 주민 모두를 동일한 종족으로 볼 근거는 없다.

3세기 이후 전방후원분이 키나이(畿内)를 기점으로 일본 열도 전체로 확산되면서 고대 야마토(大和)왕권, 즉 왜국(倭國)이 단일한 문화(전방후원분체제)를 기반으로 광역의 영역을 확보하였다는 주장이 현재 일본 학계의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나, 6세기 초까지 일본열도에는 에미시(蝦夷), 하야토(隼人)를 제외하더라도 큐슈, 산잉(山陰), 오카야마(岡山), 키나이, 칸토(關東) 등 적어도 5개의 왕권이 공존하였으며, 그 관계는 엄격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기껏해야 동맹적인 관계였다고 한다.⁹⁹ 왜라고 하는 단일 종족명이 주는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98 노태돈, 1999, 앞의 글, 284쪽.

99 白石太一郎, 2002, 「古墳」, 『古墳時代』, 日本考古學事典, 三省堂.

V. 맺음말—국가와 종족, 영역과 문화권

1. 용어와 실재의 괴리

왜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요하 이동의 종족집단은 한, 예, 맥이라는 3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는 중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변민족에 대한 단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례는 말갈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사에서는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 주민들을 말갈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명되었다. 대개는 후대의 말갈과는 별개의 집단으로서 예족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세분하여 백제본기에 나타나는 말갈의 활동범위는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로서 이들은 맥계이며 적석총을 남긴 것으로 보고, 신라본기의 말갈은 강릉 이북의 예계라는 견해도 있다.¹⁰⁰

이들이 훗날 발해의 기층을 이루는 말갈족과 동일한 실체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 부여의 주민이 말갈로 전환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부여의 고지에 5세기 이후 말갈족이 들어온 점을 근거로 부여=말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 있다.¹⁰¹

『삼국사기』 찬자의 입장에서는 강원도, 함경도 지역의 주민들을 무어라 지칭할 것인지 고심하였을 것이다. 종족이나 정치체로서 읍루, 마한, 진한, 변한에 속하지 않고, 국명으로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아닌 이들을 부르기 위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제한된 현실에서 교육지책으로 사용한 용어가 말갈이라고 본다.¹⁰² 이 말갈이 고구려 후기의 말갈과 동일한 실체일 수가 없다.

100 김택균, 1997,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의 실체」, 『고구려발해연구』 3, 고구려발해학회.

101 노태돈, 2003, 앞의 글, 300~303쪽.

102 보다 구체적으로 “신라의 북변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단위로 노략질을 하고 때로는 고구려의 부용병으로 동원되던 집단”이라는 공통성으로 인해 신라 통일기 이후 어

예와 맥, 한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다. 3자는 유동적 존재이다. 과거의 통설처럼 갑자기, 혹은 태초부터 예, 맥, 한 3자가 등장하고 이후 이들 간 융합이 시작되면서 한민족의 모태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예, 맥, 한이라고 불리는 종족이 존재하였다면 그들은 그 이전부터 면면히 진행된 집단간 융합의 산물이자 변해가는 과정이다.

선진(先秦)시기에는 맥이라는 용어가 흉노를 지칭하거나 혹은 북방민족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었음을¹⁰³ 고려할 때, 용어의 동일함이 실체의 동일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고구려를 구성한 맥족이 선진시기의 貊과 무관함¹⁰⁴ 역시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예, 맥, 한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중국에서 집단적으로 이주해 왔다는 과거의 인식은 이제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이 3자는 각각 하나의 종족이 아니라 다양한 종족집단이 융합한 결과이며 그 융합은 3세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한반도 중부 이남에 빠짐없이 촘촘히 삼한 제국(諸國)의 이름을 대응시키는 작업도 불가능하다. 한으로도 예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집단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넓은 공백이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마한과 진한, 변한, 그리고 옥저와 동예, 부여와 고구려를 지도 위에 선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한과 예, 맥,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이란 단위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인식주체의 차이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자신의 종족적 정체성, 자신이 인식하는 바, 그리고 타자의 인식, 이 3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말갈과 왜의 사례에서 절감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지역의 초기철기문화만 하더라도 한서문화, 형가점

느 시점에 濊를 말갈로 개서하였다는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노태돈, 2003, 앞의 글, 306~307쪽.

103 조영광, 2010, 앞의 글, 176~179쪽.

104 조영광, 2010, 앞의 글, 185쪽.

(邢家店)유형, 전가타자유형, 관마산(關馬山)유형, 대해맹유형, 사가가(謝家街)유형, 서차구유형, 대사탄(大沙灘)유형, 유가초(劉家哨)유형, 윤가촌(尹家村)유형, 대전자(大甸子)유형, 찰피락이(扎賚諾裏)유형, 경화(慶華)유형, 포자연유형, 단결-크로노프카문화, 망강루유형, 완연하-뽕체문화 등 매우 다양함을¹⁰⁵ 고려할 때 역사학에서 이야기되는 종족을 고고학적 문화에 정확히 1:1로 대응시키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훗날 말갈이라고 통칭되는 집단 내부에서도 문화적인 내용이 많이 다른¹⁰⁶ 배경에는 이러한 다양성이 깔려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수 노하심유적의 경우도 완전히 부여 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엄존하며¹⁰⁷ 다른 유적들 역시 역사적 실체인 부여와 연결짓는 작업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¹⁰⁸ 부여의 강역이 유동적이며 선으로 획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중심과 주변의 차이가 엄존하며, 주변 문화권과의 중복, 혹은 공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비단 부여만이 아니라 고대의 정치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부여의 물질문화 역시 전형, 영향을 받은 경우, 영향을 준 경우, 주변과의 공통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부여와 고구려, 부여와 백제, 고구려와 백제의 물질문화 비교는 각 정치체의 중심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지방문화, 지역형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부여와 읍루, 옥저와 동예 등의 물질문화의 경계는 실선으로 뚜렷이 그려지는 것이기보다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벌어지고, 접경지에서는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105 오강원, 2017, 「초기철기시대 동요하 중상류역 - 제2송화강 하류역 남안 장각두형 토기 공반 문화의 출현과 배경」, 『동북아 철기시대 토기 제작의 전통과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 26~27쪽.

106 송기호, 2003, 앞의 글, 326쪽.

107 송호정, 1997, 앞의 글, 162의 각주48.

108 林溪, 2000, 「西岔溝型銅柄鐵劍と老河深,彩嵐墓地の族屬」, 『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95쪽.

2.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부여와 백제의 계승관계, 혹은 백제 왕실의 기원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주제와 방법론 개발이란 측면에서 한계를 맞이하였다. 고고학적 성과에 의지하려 하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다. 현재까지 축적된 고고자료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자료의 부족과 미공개, 연구자와 연구 성과의 부족, 연구시각과 방법론의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고고학 연구자와 고대사 연구자 사이에 문제의식 공유가 미흡하였고, 종족과 영역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 없었다는 점도 추가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고학적으로 판별되는 물질 문화의 분포권을 기초로 종족이나 국가를 논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한국 고고학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부정론¹⁰⁹은 주로 선사고고학 연구자, 그리고 구미 고고학계의 성과와 세계사적 일반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긍정론은¹¹⁰ 한국 고고학, 고대사 연구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의 고유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백제 국가의 국민 절대 다수는 경기-충청-전라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이후 장기간 성장한 주민집단이란 점이다. 고구려의 기원을 고찰하면서 맥족 이동설을 부정하고 고구려의 등장을 압록강 중류지역과 혼강유역에서 적석총을 조영하며 생활해 왔던 토착민 사회의 성장을 중시하는 견해

109 김종일, 2008, 「고고학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족주의사학과 한국고대사연구』, 제10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자료집; 성춘택, 2017, 「고고학과 물질문화의 기원과 계통: 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02, 한국고고학회.

110 박양진, 1998b, 앞의 글; 이성주, 2016, 「유형설정에 관련된 고고학의 설명논리」, 『時, 空, 形態, 그리고 量』, 진인진; 박순발, 2006, 「한국고대사에서 종족성의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44, 한국고대사학회.

는¹¹¹ 백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를 준다. 설령 부여나 고구려에서 소수의 주민이 이주하여 백제 왕실 구성에 일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백제인의 주축이 재지계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한강유역의 재래 집단에 고구려계, 부여계, 옥저계, 예계 주민이 합류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지만, 이에 못지않게 신라계, 가야계, 중국계¹¹² 주민도¹¹³ 고려되어야 한다. 왜인들이 한반도 서남부, 그리고 공주와 부여 일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음도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백제사회는 고대의 다문화 사회였던 셈이다. 따라서 백제의 기원이 부여나 고구려나 하는 질문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백제 왕실의 기원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깊이 있는 연구를 어렵게 한다.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한 답변이 결코 정답은 아닐 것이다. 실은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영원히 해명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111 노태돈, 1999, 앞의 글, 360쪽.

112 이 경우에도 낙랑, 대방계, 서진과 남북조계 등 다양한 면모를 보일 것이다.

113 중국계 내지 고조선-낙랑계 주민이 백제의 주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後漢 桓帝·靈帝代에 “民多流入韓國”이란 『三國志』의 표현이 가장 적확하다.

참고문헌

국문

- 고구려발해학회 · 경희대학교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2016, 『선비와 고구려, 부여』.
- 노태돈, 2014, 『한국고대사』, 경세원.
-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 에릭젠, G. · 양시은, 2017, 『흉노』, 진인진.
- 정영진 외, 1988, 『연변문화유물약편』, 연변인민출판사.
- 강인욱, 2009, 「동아시아 고고학 · 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옥저 · 읍루 문화권의 제기를 중심으로-」,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8, 「기원전 4-3세기 초기 옥저문화권의 성장과 대외교류」, 『한국상고사학보』 99, 한국상고사학회.
- 권오영, 1995, 「백제의 기원」, 『한국사 6-삼국의 정치와 사회 II 백제-』,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중부고고학회.
- _____, 2010, 「마한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 金庠基, 1948, 「韓, 濊, 貊 移動考」, 『史海』 창간호(1974, 『東方史論叢』 재수록).
- 김재운, 2009, 「동북한과 중국 연변지구의 초기 철기시대 문화-단결 ·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계통적 성격-」,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6, 「한중러 접경지역 철기시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범위에 대한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3, 한국상고사학회.
- 김종일, 2008, 「고고학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족주의사학과 한국고대사연구』, 제10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자료집.
-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韓國古代史研究』 51, 한국고대사학회.
- 김택균, 1997,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의 실체」, 『고구려발해연구』 3, 고구려발해학회.

-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3,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말갈의 실체」,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 盧赫眞, 2004, 「中島式土器의 由來에 대한 一考」, 『호남고고학보』 19, 호남고고학회.
- 文安植, 1996, 「嶺西藏文化圈의 設定과 歷史地理的 背景」, 『東國史學』 30, 東國史學會.
- 朴淳發, 1996, 「漢城百濟 基層文化의 性格－中島類型文化의 性格을 중심으로－」, 『百濟研究』 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박순발, 2006, 「한국고대사에서 종족성의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44, 한국고대사학회.
- 박양진, 1998a, 「墓葬 資料의 社會的 分析과 楡樹 老河深墓地의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 29,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1998b, 「族屬 추정과 夫餘 및 鮮卑 고고학자료의 비교 분석」, 『韓國考古學報』 39,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0, 「중국 동북지방의 선비무덤 연구」, 『백제연구』 3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_____, 2005, 「考古學에서 본 夫餘」,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 성춘택, 2017, 「고고학과 물질문화의 기원과 계통: 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02, 한국고고학회.
- 송기호, 2003, 「속말말갈의 원류와 부여계 집단문제」,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 _____, 2005, 「부여사 연구의 쟁점과 자료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 송호정, 1997, 「부여의 성립」,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9,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기원과 그 성장과정」,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8, 「두만강유역의 고대문화와 정치집단의 성장」, 『역사와 담론』 50, 호서사학회.
- 수보티나, A. L., 2009, 「한반도의 중도식 토기문화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비교」,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심재연, 2008, 「江原 嶺東地域 鐵器時代 上限과 下限」, 『동북아 문화연구』 16.
- 에렉젠, 2009,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 오강원, 2014, 「철기시대 중국 동북지역 금속제 이식의 시공간성과 제작 방식」, 『호남고고학보』 48.
- _____, 2017, 「초기철기시대 동요하 중상류역-제2송화강 하류역 남안 장각두형토기 공반 문화의 출현과 배경」, 『동북아 철기시대 토기 제작의 전통과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
- 오영찬, 1999, 「榆樹 老河深 유적을 통해 본 부여 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은식, 2006, 「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와 중부지방 원삼국 문화」, 『송실사학』 19, 송실사학회.
- _____, 2016, 「前期 扶餘 土器文化의 變遷과 擴散」, 『韓國考古學報』 100,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7a, 「동북아시아 초기철기문화의 병행관계와 교류양상」, 『한국상고사학보』 96,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7b, 「扶餘, 沃沮, 그리고 挹婁의 고고학 문화」,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상고사』, 한국상고사학회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 이기동, 1982, 「백제왕실 교대론에 대하여」, 『백제연구』 특집호.
- _____, 1990, 「百濟建國史의 二,三의 問題」, 『백제연구』 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_____, 2005, 「韓國民族史에서 본 夫餘」,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 이도학, 1990, 「백제의 기원과 국가형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 _____, 1991, 「백제 집권국가형성 과정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주, 2016, 「유형설정에 관련된 고고학의 설명논리」, 『時, 空, 形態, 그리고 量』, 진인진.
- 이종수, 2013, 「부여의 대외교류와 교통로 연구」, 『백산학보』 96, 백산학회.
- 이한상, 2013, 「이식으로 본 고대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의 교류」, 『백제문화』 49.
- 이현혜, 1997, 「동예와 옥저」,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鄭永振, 1991, 「沃沮, 北沃沮疆域考」, 『한국상고사학보』 7, 한국상고사학회.
-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예맥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7,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선사와 고대』 53.

클류예프, N. A., 2009, 「러시아 연해주 남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연구현황」,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홍형우·강인옥, 2004, 「러시아 극동지역 철기시대 연구의 제문제－뿔채 문화를 중심으로－」, 최몽룡·김경택·홍형우 편저,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주류성.

中文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吉林省博物館編, 1988, 『吉林省博物館－中國的博物館 第二期 第3卷－』, 講談社·文物出版社.

董學增, 1984, 『西團山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楊保隆, 1989, 『肅慎挹婁合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魏堅 主編, 2004, 『內蒙古地區鮮卑墓葬的發現與研究』,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3, 「吉林通化市萬發拔子遺址二十一號墓的發掘」, 『考古』2003-8.

吉林省博物館, 1985,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1985-6.

吉林市博物館, 1988, 「吉林市帽兒山漢代木槨墓」, 『遼海文物學刊』1988-2.

林沅,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1985-1.

楊志軍, 1982, 「牧丹江地區原始文化試論」, 『黑龍江文物叢刊』82-3.

張立明, 1986, 「吉林泡子沿遺址及其相關問題」, 『北方文物』1986-2.

田立坤, 2003, 「關於北票喇嘛洞三燕文化墓地的幾個問題」, 『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日文

大貫靜夫, 2009, 「挹婁の考古學」,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51, 國立歷史民俗博物館.

林滢, 2000, 「西岔溝型銅柄鐵劍と老河深, 彩嵐墓地の族屬」, 『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白石太一郎, 2002, 「古墳」, 『古墳時代』, 日本考古學事典, 三省堂.

村上恭通, 2000, 「團結文化と滾兔嶺文化」, 『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백제와 부여의 계승성 여부에 대한 검토

권오영

백제의 왕실이 부여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는 각종 사서에 나타난 기록을 통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백제와 부여의 물질문화의 비교를 통하여 입증된 것은 아니다. 부여의 물질문화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으나 중국 길림성 길림시를 중심으로 삼은 포자연문화로 추정되며 모아산유적과 노하심유적 등 대규모 고분군이 여기에 속한다.

무덤과 주거지의 구조, 토기의 종류와 형태 등을 비교할 때 부여와 백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통하여 부여와 백제의 계승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반면 두만강유역과 연해주 일대에서 발전한 단결-끄로노프카 문화의 주거지 구조와 토기의 형태는 한반도 중부지역과 닮아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근거로 주민집단의 이주를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인접한 지역간 문화적 공통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백제국가를 구성한 절대 다수의 주민은 청동기시대 이후 경기-충청-전라 지역에서 성장해 온 집단이다. 소수의 왕실에만 주목하여 이들이 멀리 만주에서

이동하였는지에 메달리기보다는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정치체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국가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제어: 부여, 백제, 모아산유적, 포자연문화, 노하심유적, 단결-끄로노프카 문화, 별체 문화, 중도 문화

Is There Any Inheritance between Buyeo and Baekje?

Kwon Ohyoung

The view that the royal family of Baekje originated from Buyeo is based on various records. However, this was not proven by comparing the material cultures of Baekje and Buyeo. Although many issues are unclear regarding the material culture of Buyeo, it is believed that the Paoziyan Culture in Jirin, China was the most important, and includes large tomb sites such as the Maoershan Site and the Laoheshen Site.

When comparing the structure of the tomb, the structure of the dwelling, and the type and shape of the pottery,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direct connection between Buyeo and Baekje. We cannot accept the continuity of Buyeo and Baekje through the archaeological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he structure of the residence and the type of pottery developed in the Duanjie-Krounovka Culture area, which developed in the Duman River basin and the Primorsky region, resemble those of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is

common ground may be a case for the migration of residents, it is more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it reflects the cultural commonalities between neighboring region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residents of Baekje lived since the Bronze Age in areas of the central and southern Korean peninsula that today are now called Gyeonggi Province, Chungcheo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a handful of royal families who moved far away from Manchuria,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track the emergence, growth, and state formation of politics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Buyeo, Baekje, Maoershan Site, Paoziyan Culture, Laoheshen Site, Duanjie-Krounovka Culture, Poltse Culture, Joongdo Culture

중국 요서(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정재윤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진서(晉書)』慕容皝載記(慕容皝載記)에 보이는 백제
- III. 부여계(夫餘系)의 활약과 백제의 부여씨 사용
- IV. 『송서(宋書)』백제전 약유요서(略有遼西)의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백제는 고대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존재한 나라로 삼국의 한 축을 담당한 나라였다. 당시 연안항로 항해 상 교통로의 요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반도 - 일본열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¹을 하였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국 사서(史書)에는 백제를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의 실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우리에게 요서 경략설로 알려진 백제의 중국 대륙 실제 여부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크게 백제의 요서 경략을 신뢰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²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왜 백제의 요서 경략이 중국 사서에 기술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선 요서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요서 경략설의 실체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진서(晋書)』 모용황재기 봉유(慕容皝載記 封裕) 상소문에 보이는 백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보이는 백제를 상호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사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상황적 판단을 통해 백제로 볼 수 있는가를 우선 검토하고, 백제가 맞지 않다면 왜 백제로 표기되었는지도 아울러 밝혀낼 것이다. 다음으로, 요서 지역에서 활동한 여씨의 실체와 백제가 왕성(王姓)으로 (부)여씨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구명하고자 한다.

* 투고: 2018년 5월 15일, 심사: 2018년 8월 5일, 재심사: 2018년 8월 13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1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 중의 하나도 문화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공유문화의 형성에 일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201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 『百濟文化』 54) 참조.

2 본고 4장에서 후술하겠다.

이에 여씨라는 성씨의 사용 시기가 우선 파악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백제 왕성의 여씨 사용 의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4장에서는 『송서(宋書)』 백제전(百濟傳)에 ‘약유요서(略有遼西)’가 왜 기술되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요서 경략설에 대한 사가(史家)의 인식과 실체를 구별함으로써 당시 백제의 요서 지역 진출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백제의 대외 관계와 정책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진서』 모용황재기에 보이는 백제

백제의 요서 지역 활동상을 살펴보려면 우선 요서 지역의 패자였던 나라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지역의 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나라는 전연(前燕)이라 할 수 있다. 전연은 요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변 나라와 세력 다툼을 벌였으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원에 진출하여 한때 북중국의 패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연의 팽창 과정이 요서 지역의 동향 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진서』 모용황재기에는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주목된다.

A. 황(號)의 기실참군(記室參軍)인 봉유(封裕)가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略…) 고구려와 백제 및 宇文·段部の 사람은 모두 전쟁의 기세로 옮겨온 것이며, 중국의 의를 사모한 것 같지는 않아 모두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戶가 십만에 달해 도성을 비좁게 할 지경입니다. 아마도 장차 국가의 해가 될까 두려우니 마땅히 그 형제와 종족들을 나누어 서쪽 경계의 여러 성으로 옮겨 은혜로서 위무하며, 법으로서 단속하십시오(『晉書』109, 載記9 慕容皝條).

위의 상소문은 전연 군주 모용황의 책사인 봉유(封裕)가 영화(永和) 원년(345) 간언한 부국강병책 중 일부이다. 당시 전연의 군주 모용황은 4세기 초반

이웃 나라인 후조(後趙)와 우문부(宇文部)·단부(段部) 및 고구려·부여를 제압하며 중원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연은 정복 지역 주민의 사민(徙民)을 통해 국력을 배가시키려 하였다. 그 과정에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위의 사료 A에 보이는 것처럼 고구려·백제·우문·단부 주민은 전쟁의 기세로 옮겨온 것이며, 수가 상당수에 달해 이들이 장차 국가에 해가 될지도 모르니 서쪽 변경지역으로 사민을 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봉유 상소문의 일부일 뿐이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백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북중국의 상황은 주변 국가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민의 유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생산력의 증대와 국부(國富)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유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거나 사민을 통해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전연 또한 처음에는 적극적인 도성으로의 인구유입책을 펼쳤으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소요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봉유 상소문의 핵심은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수시 시설의 확충 등 경제적 안정화 정책이며, 더불어 사민 정책을 통해서 도성의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의도도 있었다.³

이를 고려하면 전연 도성의 인구 증가는 사민의 경우와 유민(流民)들의 유입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듯싶다. 먼저, 백제는 위의 사료 A에 보이는 것처럼 고구려와 우문·단부와 같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그런데 고구려·우문부·단부는 전연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사민으로 볼 수 있다. 전쟁의 기세로 옮겨왔다는 표현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백제를 이들과 똑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가이다. 백제를 요서 지역에 있는 정치체로 인정하는 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백제가 요서 지역에 없었다면 전연과 영토가 맞닿지 않았고,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지

3 최진열, 2015, 「16국시대 요서(遼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157쪽.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나라의 사민과는 다른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백제인들이 전연의 도성에 거주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의 사료 A에 보이는 백제를 부여의 혼용으로 보는 견해⁴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비슷한 시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래의 자료에서도 다시 백제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B. 처음에 부여는 녹산(鹿山)에 거주하였는데, 백제의 침략을 받아 부락이 쇠약해져서 서쪽으로 옮겨 연나라 가까이 갔으나 방비를 하지 않았다. 연왕 황은 세자 준(儺)에게 모용군(慕容軍)·모용각(慕容恪)·모여근(慕輿根) 등 3명의 장군과 17,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부여를 습격하게 하였다. 준은 중도에 있으면서 지휘를 하고 군사는 모두 모용각에게 위임하였다. 드디어 부여를 멸하여 그 왕 현(玄) 및 부락 5만여 구를 사로잡아 귀환하였다. 황은 현을 진동장군(鎭東將軍)으로, 그 딸을 부인으로 삼았다(『資治通鑑』 97, 孝宗穆皇帝 永和二年條).

위의 사료에 보이는 영화 2년은 346년으로, 1년의 편차를 두고 다시 백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역사가들에 의해 분명 백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만 후대에 정리된 기록인가, 당대의 사실에 의한 기록인가 여부가 진위 논란의 핵심이 된다 하겠다. 특히 후대의 기록에만 보이는 경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위의 사료 B를 분석하기 전 앞의 사료 A를 후대에 정리된 『자치통감』에서는 어떻게 기술하였는가를 비교하여 보자. 이를 보면 후대의 『자치통감』에만 보이는 사료 B의 기술 방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사료 A는 『진서』 모용황조를 인용한 것으로, 『자치통감』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맥

4 方善柱, 1971,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11, 21~22쪽; 關尾史郎, 1981, 「前燕政權(337-370년)成立の前提」, 『歷史學研究』 488, 19~21쪽; 余昊奎,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재검토-4세기 후반 扶餘系 人物의 동향과 관련하여-」, 『震檀學報』 91, 4쪽.

락은 비슷하지만 원문에 없던 문구가 새로 첨가되거나 저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이 달라진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진서』에서는 모용황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동멸구려(東滅句麗)’라는 매우 과장된 표현을 하였으나, 『자치통감』에서는 ‘동겸고구려(東兼高句麗)’라는 서술을 하여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게 서술하려 하였다. ‘구려’라는 명칭 대신에 ‘고구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자치통감』의 서술 원칙에 따른 일관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⁵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치통감』은 편찬자가 원 사료를 바탕으로 윤색을 하였으며, 따라서 『자치통감』의 기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접근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사료 B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구명하여 보자. 먼저, 사료 B에는 부여가 백제에 밀려 본거지에서 요서지역인 전연 부근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를 이용하여 모용황은 부여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있다. 문제는 한 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백제가 과연 부여 근거지를 공격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이를 앞의 사료 A와 연결시키면 백제가 이 무렵 요서 지역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료 A와 B를 근거로 당시 백제가 요서 지역에 위치하였고, 이후 한강 유역으로 이동하였다는 백제 이동설을 주장하는 견해⁶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백제가 이 지역에 있다가 4세기 중엽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중원 왕조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만주 백제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⁷

후자의 주장은 전자와 비슷하게 이동설의 입장을 취했지만 정치적 해석을 하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독자적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이에 따르면 앞의 사료 B를 근거로 요서 지역에 위치한 백제는 처음 옥저의

5 강종훈, 2015, 「4세기 전반 백제군(百濟軍)의 요하(遼河) 일대에서의 활동에 관한 기사의 검토」,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350~354쪽.

6 李道學, 1991, 「百濟 集權國家形成過程 研究」, 漢陽大 博士學位論文, 52~54쪽.

7 姜維公·趙智濱, 2016, 『百濟 歷史編年』, 科學出版社.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가 3세기 말~4세기 초 부여 정권에서 갈라져 나와 독립된 정권을 세웠다 한다. 이어 사료 A와 『송서』 백제조(百濟條)의 ‘백제약유요서(百濟略有遼西)’ 기사를 근거로 중국 동북 지역의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가 4세기 중반 대방고지(帶方故地)의 수도인 서울로 남하하였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는 서울의 풍납토성을 들고 있으며, 이를 대방군치(帶方郡治)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동설과 유사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한강으로 이동한 백제는 한국사에 속하지만, 요서 지역에 위치한 초기 백제는 중국사의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어 백제 멸망기의 웅진도독부까지 예시하며 백제의 역사가 중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었다.⁸

옥저를 백제와 관련시키는 주장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미 일본학자들에 의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⁹ 285년 부여의 옥저로의 피신 사실과 『삼국지(三國志)』 한조(韓條)의 백제국(伯濟國), 『수서(隋書)』 백제전(百濟傳)에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연결시켜 체계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부여의 옥저로의 피신과 옥저와 대방군과의 지리적 연결을 꾀함으로써 옥저가 한 때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옥저는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의 예속을 받았으며,¹⁰ 최소한 낙랑군과 대방군이 퇴각한 이후에는 고구려의 관할권 아래 놓여 있었다. 옥저에서의 대규모 이동도 이미 고구려가 성장한 이후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백제

8 姜維公·趙智濱, 2016, 위의 책, 16~26쪽.

9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稻葉岩吉 外, 1941, 「朝鮮滿洲史」, 『世界歷史大系』 11, 平凡社, 52쪽; 白鳥庫吉, 1947, 「百濟の起源について」, 『歷史』 創刊號; 1970, 『白鳥庫吉全集』 3, 485~499쪽; 末松保和, 1954,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35쪽.

10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 때 위나라가 옥저를 부여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견해(姜維公·趙智濱, 2016, 앞의 책, 13~15쪽)도 있으나 고구려에 신속하였다는 기사(『三國志』 30 東沃沮條)가 있고, 북옥저와 남옥저로 나뉘 정도로 옥저의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동천왕이 북옥저로 달아났다는 기사 등을 고려하면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또한 근초고왕 때 대방고지로 진출하지만 대방에서 건국한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국외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Ledyard는 전연 모용씨(慕容氏)의 압박에 못이긴 부여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동하여 마한 땅을 점령함으로써 백제가 건국하였고, 그 시기는慕容氏가 제국을 선포한 352년부터 백제와 동진의 교류가 시작된 372년 사이라고 추정하였다.¹¹ 다만 이 관점은 문제점이 노정된 옥저 대신 부여와 연결시킨 이동설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백제 이동설을 체계화한 이도학은 앞의 사료 A와 B에 보이는 백제를 사실로 받아들여 백제가 만주 내륙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¹² 하지만 이를 인정한다 하여도 요서 지역에 존재한 백제의 거점 지배가 주요 교통로를 기반으로 한다면 국가 규모의 이동이 쉽지 않았다는 반론¹³도 있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사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한국학계에서 옥저 대신 고구려의 분열에 주목하는 견해가 잇달아 제기되었으나¹⁴ 여전히 추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강유공(姜維公)의 논고 또한 이미 폐기된 옥저 이동설을 요서 지역의 백제 기사와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견해처럼 보이거나 실상 기존의 견해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백제가 옥저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하나 전혀 근거가 없다. 물론 백제의 백과 말·물·무·부는 음운이 같고 물길은 시기에 따라 옥저와

11 Gari K. Ledyard, 1975, "Gallop Along With the Horseriders; Looking for the Founding of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 No. 2, pp. 234~235; 李基東, 1981, 「百濟 王室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 60~62쪽에서 재인용.

12 李道學,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112~114쪽.

13 김수태, 2002, 「백제의 만주기원설 검토」, 『百濟研究』 35, 16~17쪽.

14 이장웅, 2016, 「百濟 始祖 仇台·沸流 傳承의 성립과 高句麗·公孫氏 관계」, 『百濟文化』 55, 21~28쪽; 조영광, 2017,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先史와 古代』 53, 178~187쪽.

백제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백제와 옥저는 같은 음의 다른 표기라 하나 이러한 음운학적 근거가 성립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또한 백제가 기존의 부여를 침략하여 요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강대한 나라한 나라였다는 것도 논증을 해야만 성립된다. 모두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백제가 이동하였다면 원 옥저 지역에 거주한 옥저 주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¹⁵ 이미 폐기된 옥저 이동설은 차치하고, 요서 지역에 위치한 백제 이동설 또한 기존의 비판을 설명해야 성립이 가능하다. 이상을 살펴볼 때 백제 이동설은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의 사료 B에 보이는 백제를 부정하고 고구려의 착오로 보는 견해¹⁶도 일찍부터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 위치상 부여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다면 응당 북쪽으로 옮겨야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상하다.¹⁷ 이에 부여가 피난하였다면 서쪽이 아닌 북쪽 방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물길, 구제적으로는 백돌말갈을 가리킨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⁸ 물론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역시 백돌말갈과 부여와의 전쟁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입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부여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85년 부여왕 의려(依慮)는 선비 모용외(慕容廆)가 침입하였을 때 자살하였다. 의라(依羅)는 옥저로 망명하였다가 모용외가 물러나자 부여로 돌아와 영토를 수복하기 위하여 진나라 동이교위(東夷校尉) 하감(何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하감이 부장(部將) 가심(賈沈)을 보내 군사적 지원을 해주어 의라는 부여의

15 이에 대해서는 옥저로 피난한 부여를 동부여, 원래 부여 지역에 있던 부여를 부여(북부여)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노태돈, 1989, 「扶餘의 경역과 그 변천」, 『國史館論叢』 4, 45~47쪽).

16 日夜開三郎, 1949, 「夫餘國考」, 『史淵』 34, 37쪽;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21쪽.

17 孫進己, 1989, 『東北歷史地理』 2, 49쪽.

18 송호정, 1997, 『부여, 한국사』 4, 178~180쪽.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부여는 이미 3세기 후반 선비족(후의 전연)과 영토를 맞대고 있는 것이다.¹⁹ 이를 고려하면 전연의 건국 이후 부여가 서쪽으로 옮기고 쇠약해져서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연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쇠약해진 것은 전반적으로 정황상 수긍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평가이다. 또한 서쪽으로 옮긴 것은 4세기 중반의 상황만이 아닌 부여의 이동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연 백제가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부여의 근거지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백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백제가 부여를 공격하기 위해선 고구려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사료 B에 등장한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부여의 근거지를 압박할 수 있는 나라는 고구려가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는 부여와 인접한 나라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앞서 제기된 것처럼 고구려의 위치와 부여의 이동 방향을 고려하면 고구려의 팽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고구려의 침략으로 부여가 서쪽으로 이동한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부여가 고구려의 침략을 피해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가 아닌 백제로 기술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는 미심쩍어 보인다. 무언가 사료의 편찬 과정에 이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서는 『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이다. 이는 북위 말기의 사관인 최홍(崔鴻)의 저술로, 100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서이다. 『위서(魏書)』 최홍전에 의하면 그는 전조(前趙)를 세운 유연(劉淵),

19 부여는 『三國志』에서는 고구려와 남쪽으로 경계를 접하였다고 기술되었으나 『晉書』에서는 남으로 선비와 접하였다고 기술되었다. 이는 요동 지역까지 이른 선비와 부여가 국경을 접한 사실을 반영한 기록으로 이해된다(국사편찬위원회, 1990,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一, 326쪽).

후조(後趙)를 세운 석륵(石勒), 전진(前秦)을 세운 부견(苻健), 전연의 황제를 칭한 모용준(慕容皝), 후연(後燕)을 세운 모용수(慕容垂) 등 전연의 전성기에 보이는 인물들이 포함된 십육국사를 저술²⁰하였다 한다. 독자적인 십육국사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으나 이 책은 아쉽게도 북송시대(北宋時代)에 망실되었다. 다만 『태평어람(太平御覽)』 등에 그 기록이 인용되고 있어 일부 이용이 가능하다.²¹

다음으로 『자치통감』은 북송시대인 1065~1084년에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하였기 때문에 편찬 당시에 『십육국춘추』가 잔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실의 주요한 요인으로 전쟁을 꼽을 수 있고, 금(金)에 의한 개봉(開封) 함락이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의 침략 이전에는 잔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북송 초기에 편찬된 『태평어람』에 『십육국춘추』가 인용되는 것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앞의 사료 B가 사료 A와 달리 『진서』 등에 보이지 않은 것은 이 사료가 『십육국춘추』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보완하였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아울러 『자치통감』의 찬자는 사료 A를 그의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처럼 사료 B 또한 그가 이해한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여가 쇠약해진 이유로 백제의 침략을 들고 있는 기술은 찬자의 착각으로 무언가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서 찬자의 인식과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생긴다. 사료 B에서 백제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은 착각이지만 부여가 쇠약해진 것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백제가 언급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백제가 쇠약해진 부여와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백제는 372년과 373년 연이어 동진과 통교를 하였다. 잘 알려진 것

20 『魏書』 67, 列傳 55 崔鴻傳.

21 川村昂昭, 2015, 「十六國春秋 書前提要訳註稿」, 『大東文化大學中國學論集』 33, 57쪽.

처럼 당시 중국으로 이르는 길이 연안항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 기착지로써 부여왕 현이 사민된 요서 지역 부근만큼 적당한 지점이 없었을 것이다.²² 중국 왕조가 안정이 되었을 경우 공식적인 교류가 허용된다면 항해가 어렵지 않았지만 혼란기에는 남조와 통교를 하려면 백제가 스스로 중간 기점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중간 거점이 없었다면 남진(南遷)한 동진과의 통교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앞의 사료 B는 부여인들이 사민된 요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교류한 백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백제와 부여의 연관성을 보여주지만 백제의 침략을 받았다는 사실은 찬자 인식의 오류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반면 앞의 사료 A에 보이는 백제는 당대의 사료라는 점에서 사료 B와 차별성이 있다. 사료 B에서도 백제를 기술하는 등 부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없는 한 백제로 보는 것이 순리이다. 사료를 자의적으로 변개하는 것보다 오히려 왜 백제로 표기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백제인들을 고구려 등 전연의 주변 나라처럼 전쟁의 기세로 옮겨왔다고 보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이다. 자구를 중시하면 전연과 전쟁한 주변 나라들을 언급해야 하며, 따라서 부여의 오기로 보는 것이 정황상 맞다. 물론 사료 B에 보이는 부여인 5만여 구를 이주시킨 것과 연관시킬 수도 있지만 봉유가 상소를 한 이후의 시점이어서 시간적 순서가 어긋난다.²³ 그렇다면 전쟁의 기세로 옮겨갔다는 표현은 연이 팽창하면서 당시 도성에 사민된 주변 민족들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백제는 주변 나라의 경우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료를 중시하면 왜 백제가 기술되고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의 사료 A에 보이는 백제는 345년 당시 연의 도성에 거주하였던 백제인들이라고 생각된다. 백제는 쇠약해진 부여 및 부여의 이주

22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23 같은 『晉書』慕容皝載記에서 뒤를 이어 부여를 언급하고 있는데, 군이 이 부분에서만 백제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견해(강종훈, 2015, 앞의 논문, 362쪽)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민들과 통교를 하면서 요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전연의 수도에까지 이르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앞의 사료 A는 백제인들이 요서 지역에 진출하여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²⁴ 전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류는 문제를 삼을 만한 사안도 아니며 경제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묵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구가 급격히 팽창되자 사료 A에 보이는 것처럼 전연 내부에서도 식량 부족과 폭동의 가능성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제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료 A의 기사라고 생각된다.

III. 부여계(夫餘系)의 활약과 백제의 부여씨 사용

백제의 요서 지역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지역에 부여 계통의 이주민들이 사민되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지 부여를 멸망시킨 전연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 요서 지역을 둘러싼 전쟁이 계속될 때마다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래의 자료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이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C. 무인(戊寅), 연나라의 산기시랑 여율(散騎侍郎 餘蔚)이 부여와 고구려 및 상당(上黨)의 인질 5백여 명을 거느리고 밤에 업(鄴)의 북문을 열어 전진(前秦) 병사를 불러들이니, 연나라 왕 위(曄)와 상용왕 평(上庸王 評), 낙안왕 장(樂安王 臧), 정양왕(定讓王) 연(淵) 좌위장군(左衛將軍) 맹고(孟高), 전중장군(殿中將軍) 애랑(艾郎) 등이 용성(龍城)으로 달아났다. 신사(辛巳), 전진의 견(堅)이 업

24 이와 관련하여 참조가 되는 것은 廉斯鏞 설화이다. 『三國志』韓條에 의하면 戶來 등 漢人 1,500명이 별채하다가 韓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였다는 기사(『三國志』 30, 東夷傳 韓條)가 나온다. 이를 참조하면 교역을 하거나 혹은 잡혀서 前燕의 도성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에 입공하였다(『資治通鑑』102, 晉紀 24 海西公 太和 5年 11月條).

위의 기사는 전연의 수도인 업의 함락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시기는 태화(太和) 5년이 370년이기 때문에 백제 근초고왕 재위 25년에 해당한다. 이듬 해 백제의 근초고왕은 고구려와의 평양 전투에서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시켜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위의 사료에서 언급되는 여율은 『진서』 모용황재기에는 서율(徐蔚)로 되어 있으나 『십육국춘추집보(十六國春秋輯補)』에는 여율로 되어 있다. 『자치통감』의 편찬자는 『진서』와 『십육국춘추』를 참조하여 그를 여씨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찬자의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료에 보이는 여율은 산기시랑직에 있으면서 부여, 고구려 및 상당의 인질 500여 명을 이끌고 부견(符堅)의 전진군(前秦軍)을 맞아들어 전연을 패망으로 이끌었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연의 수도에 인질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부여계 인물들이 인질로 수도에 있다는 것²⁵은 바로 다른 아민 이들이 아직도 연에 위협이 되거나 최소한 이들을 통제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부여계의 동향은 이 지역의 통치에 변수가 되고 있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부여 계통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지역적 기반을 갖고 고위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먼저, 부여왕인 여현(餘玄)은 전연에서 진동장군 직을 맡았다. 384년 후연을 세운 모용수는 낙양에서 동쪽으로 이르러 옛 부여왕 여율을 滎陽太守로 삼았다.²⁶ 호삼성(胡三省)이 여율을 부여의 왕자라고 주석²⁷한 것을 참조하면 여율은 부여 왕족 출신으로 연의 도성에 사민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어 모용수는 바로 형양에서 연왕으로 즉위하니 여율이 얼마나 후

25 池培善,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 - 慕容王國史 - 』, 一潮閣, 204쪽.

26 『資治通鑑』105, 晉紀 27 孝武帝太元九年條.

27 『資治通鑑』102, 晉紀 24 海西公太和五年條.

연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여율은 후연의 건국에 기여하면서 392년 우광록대부(右光祿大夫)에서 좌복야(左僕射)에 임명되었다. 이어 그가 국가 원로인 태부직(太傅職)까지 오른 점을 보면 그의 개인적인 역량에 부여 계열의 대표자라는 후광도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이렇듯 후연에서는 여엄(餘嚴)이 건절장군(建節將軍)을, 여숭(餘崇)은 건위장군(建威將軍), 여숭(餘嵩)이 진동장군, 여초(餘超)가 산기상시(散騎常侍) 직을 역임하였다. 아울러 남연(南燕)에서도 서치(餘熾)가 수광후(壽光侯), 여울(餘鬱)이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 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동선을 보면 모두 황하 중하류에 있다. 이는 전연이 황하 중하류 지역을 정복한 후 이들을 요서 지역에서 중원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보인다.²⁸ 여울의 예처럼 부여왕을 칭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부여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모용농(慕容農)이 열인현(列人縣)에서 거병하였을 때 합류한 동이여화(東夷餘和)의 경우 부여계일 수도 있으나 ‘동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부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표기한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백제계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부여계 인물이 이 지역에서 활약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부여계의 세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여율이 후연 정권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광개토왕 연간에 고구려 일파인 고운(高雲)이 북연(北燕)의 왕으로 추대되는 점을 참조하면 현재의 민족적 개념보다는 얼마나 해당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느냐 여부가 정치력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부여계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부여계의 집단 사민을 들 수 있다. 모용황(慕容皝)은 부여왕 현을 사민시켜 다른 주변 민족들처럼 그들의 기반으로 삼았지만 결국 봉유의 상소처럼 국가의 해가 되는 결정적 행위를 한 것이다.

전연의 뒤를 이어 중원의 패자가 된 전진 정권 역시 각 종족들이 집단으로

28 최진열, 2015, 앞의 글, 179~180쪽.

참여했기 때문에 반란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380년 전진의 부견은 유주사 부락(符洛)을 익주목(益州牧)으로 진출시켰다. 이에 불만을 품은 부락은 오환(烏丸), 선비, 고구려, 백제, 설라(薛羅), 휴인(休忍)에서 군대를 징발하여 계(薊)에 주둔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부락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²⁹ 흥미로운 점은 고구려, 백제와 더불어 설라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설라는 신라를 지칭하는 말로, 실제 『자치통감』에서는 신라(新羅)로 기술하였다. 『자치통감』의 기술이 원 사료와 다른 점이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여암의 반란 사건이다. 후연의 건절장군 여암은 385년 7월 무읍(武邑)에서 반란을 일으켜 중요한 거점인 계에 이르고, 이어 습支까지 점령하였다. 이에 모용농(慕容農)은 영지를 공격하여 여암 형제를 제압함으로써 반란을 진압하였다.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것은 여암이 비록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했지만 그가 후연의 건절장군에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여계로 추정되는 건절장군 여송, 진동장군 여송, 산기상시 여초 등과 같이 이들이 부여계 이주민들을 기반으로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가졌음을 말해준다.

그가 무읍에서 유주(幽州)를 거쳐 영지까지 이동한 것은 부여계의 밀집 지역인 요서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지는 난하의 하구로 필요한 경우 서해로 이를 수 있어 도망가거나 다른 세력과의 연대도 가능한 위치이다. 더욱이 여암의 반란이 일으킨 한 달 전 고구려 고국양왕이 요동 지역을 점령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연대를 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연대는 고구려도 가능하지만 백제와 부여의 친연성을 고려하고, 백제인들이 요서 지역에 진출하였다면 백제와의 연합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구려의 요동 점령과 여암의 반란이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점도 흥미롭다.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백제의 요서 진출을 순차적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이 사건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남조 역사가들이 부여 계통인 여암

29 『晉書』113 符堅載紀 上條.

의 반란을 백제의 요서 진출로 착각하였다는 견해³⁰도 제기되었다. 그 옹거한 위치나 시기로 보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조 사가들이 부여계와 백제계 인물을 착각하였다는 점은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다. 앞의 사료 B에 보이는 백제는 고구려의 착오로 보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여화의 경우 분명 동이라고 표기하며, 백제의 명칭도 등장하는 등 당대의 기록에 부여와 백제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사가들이 백제의 요서 진출 사실과 부여계 인물의 정치적 동향을 착각해서 기록하였다면, 이 사건을 떠나 기록 전체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암의 반란은 혼자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백제·동진과 연결되었으며, 이 사건이 바로 백제의 요서 진출로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³¹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침류왕(枕流王)의 사망을 백제의 요서 진출과 연결시킨 점³² 등은 지나친 비약으로 좀 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실제 요서 지역에서 일정 정도 세력 기반을 가진 부여계의 동향과 백제의 요서 진출과의 상관성을 논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³³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졌을 때 언제든지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백제왕의 성씨가 이 무렵 여씨로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근초고왕은 재위 27년(372) 동진과 통교하였으며, 이듬 해 동진에서는 사신을 보내 백제왕 여구(餘句)를 진동장군영낙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

30 余昊奎, 2001, 앞의 글, 18~24쪽.

31 강중훈, 2003, 「4세기 백제의 遼西 지역 진출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0, 14~30쪽.

32 강중훈, 2003, 위의 글, 31~33쪽.

33 余昊奎(2001, 앞의 글, 24쪽 주 115)는 380년 부락의 반란 때 백제를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그러할 개연성도 상정하였지만 반란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에서 실제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강중훈(2003, 앞의 글, 29쪽 주 40)은 실제 반란의 시간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여암의 반란군이 난하 하구인 영지까지 이른 점을 주목하면 이들이 강과 바다를 통해 백제와의 연계를 꾀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백제와 부여계와의 연계 시도는 인정해도 좋을 듯하다.

로 임명하였다.³⁴ 이후 백제왕의 성이 일관되게 여씨(餘氏)로 기술되어 중국의 성씨 관념으로 보면 왕성이 여씨임을 나타내준다.

백제왕이 어느 시기부터 여씨 성을 취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시조 온조왕 기록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로서 씨(氏)를 삼았다는 내용이 보인다.³⁵ 이를 검토하여 보면 건국 당시부터 성씨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부여씨가 여씨로 표기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단성으로 표기되었다고 보인다.³⁶ 타당한 지적이며, 때문에 중국과의 교섭이 활발해진 시기가 사용 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여씨 성을 사용한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의 계통은 낙랑·대방계 인물로 보이며,³⁷ 역사 관련 서적인 서기를 편찬할 당시 왕의 계보와 출자 등에 대한 기록이나 구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무렵 여씨 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³⁸ 그렇다면 온조왕 때 부여씨 기사는 근초고왕 때의 사실이 소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의 출신지 혹은 국가를 성씨로 사용한 예가 북방 유목 민족국가에 보인다는 점이다. 흉노족의 호연씨(呼衍氏), 선비족의 울지씨(蔚遲氏)가 그 좋은 예이다. 백제도 이처럼 나라 이름을 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시기에 부여 출자의식이 강조되면서 성씨 사용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쇠락한 부여 왕실을 대신하여 자신을 부여족의 대표로 표방하

34 『晉書』9, 簡文帝 咸安 2年條.

35 『三國史記』23, 百濟本紀 1 始祖溫祚王 元年條.

36 노중국, 2010, 「성씨집단과 그 出自」,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104쪽. 도수희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문화에 순응해서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여’씨로 단성화하였다고 보았다(도수희, 2005, 『百濟語 研究』, 제이앤씨, 40쪽).

37 李弘植, 1971, 「百濟人名考」,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358쪽.

38 鄭載潤, 2008, 「백제의 부여 계승의식과 그 의미」,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198쪽.

고자 부여씨를 성씨로 삼았다는 견해³⁹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백제에서 부여 계승의식이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또한 부여족의 대표라는 인식은 남부여라는 국가 명칭의 사용과도 연결되며, 이 무렵 부여가 멸망하였다는 점에서 무령왕과 성왕 때의 상황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백제에서는 부여 출자의식뿐만 아니라 고구려 출자의식도 상존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고구려를 의식한 부여씨 사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⁴⁰ 이를 감안하면 근초고왕 때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고구려와 다투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 시점부터 출자를 부여로 천명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⁴¹ 백제가 부여에서 유래하였지만 부여씨의 사용은 별개로, 정치적 목적상 그 출자의식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으로 하필이면 근초고왕 때 부여 성씨를 사용한 것은 부여와의 관련성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요서 지역에서 활약한 부여계 인물들은 여씨 성을 사용하였고, 이들은 부여 왕족의 후예로 왕족이라는 자부심도 가졌다.⁴² 전연 모용황에 의해 사민된 여현(餘玄)이 진동장군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미 346년 무렵부터 부여왕은 부여씨 성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앞의 사료 C에

39 오택현, 2013, 「백제 복성(複姓)의 출현과 그 정치적 배경」, 『역사와 현실』 88, 180~182쪽.

40 鄭載潤, 2008, 앞의 글, 198~199쪽.

41 백제의 부여 출자설은 『魏書』百濟國條, 『周書』百濟條, 『舊唐書』百濟國條 등 여러 사서에서 보인다. 특히 고구려의 정벌을 요청한 개로왕 때 부여 출자설을 강조하는 것은 부여 출자설을 통해 부여의 정통 계승자임을 강조하여 고구려와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하는 것도 그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근초고왕 때 부여성을 사용한 것은 부여 출자설의 시작이며, 이는 고구려와 경쟁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42 부여왕은 의라, 의려 등의 이름을 볼 때 여씨 성을 사용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사민된 부여왕 현 등 부여계 인물들은 오히려 여씨 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여씨 성의 사용이 부여계 이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보이는 것처럼 370년 전연 멸망 당시에 여울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70년을 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하여 여울 등이 부여라는 족성(族姓)을 사용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으로 당시 보편적 선진문화였던 한화(漢化)의 표현이라는 견해⁴³가 제시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백제왕의 부여 성씨 사용은 부여와의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요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부여계 이주민들과 같은 종족이라는 의식을 형성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송서』 백제조 약유요서의 의미

백제의 요서 지역 동향과 관련된 논의는 백제의 요서 경략설과도 직결된다. 때문에 백제의 요서 경략설이 과연 실재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혹은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지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은 것이다.

- D-1. 백제국은 본래 고려(고구려; 필자 주)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여 리에 있었다. 그 후 고려가 요동을 경략하였고, 백제도 요서를 경략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은 진평(晋平)군 진평현(晋平縣)이라 한다(『宋書』 97 列傳 57 夷蠻 東夷 百濟國條).
- 2. 백제는 예로부터 내방한 오랑캐로, 마한에 속하였다. 진나라 말엽 구려(고구려; 필자 주)가 요동을 경략하자 낙랑(백제; 필자 주) 또한 요서·진평현을 점유하였 다(『梁職貢圖』).
- 3. 그 나라(백제; 필자 주)는 본래 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으나 진나라 때 구려가 이미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또한 요서·진평 2군의 땅을 점거하였

43 조영광, 2017, 앞의 글, 186~187쪽.

고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梁書』54, 列傳 48 諸夷 東夷 百濟國條).

백제의 요서지역 진출에 관한 기사는 위의 사료에 보이는 것처럼 『송서』에 최초로 기록되었다. 이후 남조(南朝) 계통의 사서에 보이며,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장에서 살펴본 요서 지역의 백제 기사를 신뢰하느냐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이 『삼국사기(三國史記)』나 북조(北朝) 계통의 사서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제의 요서 진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띠었다. 이는 백제의 국력이 과연 가능하였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사료를 부정하는 입장과 기록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백제가 요서 지역의 혼란 시기에 충분히 진출하였을 가능성을 두는 긍정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긍정론은 일시적인 점유 가능성을 두는 강종훈⁴⁴의 견해, 『남제서(南齊書)』의 책봉요청(冊封要請) 기사와 연결시켜 백제가 6세기 무렵까지 요서지역을 지배하였다는 견해(金庠基,⁴⁵ 김세익,⁴⁶ 方善柱⁴⁷), 상업 기지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 견해(李明揆,⁴⁸ 신형식,⁴⁹ 李熙眞⁵⁰), 교역로 확보 차원으로 보는 정재운의 견해⁵¹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부정론은 남조의 북조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보는 이

44 강종훈, 2003, 앞의 글; 강종훈, 2015, 앞의 글.

45 金庠基, 1967, 「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 『白山學報』 3.

46 김세익, 1967, 「중국 료서지방에 있었던 백제의 군에 대하여」, 『력사과학』 1.

47 方善柱, 1971, 앞의 글.

48 李明揆, 1983, 「百濟對外關係에 관한 一試論」, 『史學研究』 37.

49 신형식, 1992, 「百濟의 遼西進出問題」, 『百濟史』.

50 李熙眞, 1999, 「백제의 대륙식민지 건설에 대하여」, 『STRATEGY』 2-2.

51 정재운, 2005, 「中國 史書에 보이는 百濟의 遼西進出에 대한 고찰」, 『漢城百濟史料 研究』, 경기문화재단.

케우치 히로시의 견해,⁵² 고구려(高句麗)와 혼동한 것으로 보는 와다 하카토코(和田博徳)의 견해,⁵³ 부여와 혼동한 것으로 보는 여호규(余昊奎)의 견해⁵⁴, 낙랑(樂浪)·대방(帶方)의 혼동으로 보는 유원재(俞元載)⁵⁵와 김기섭(金起燮)의 견해⁵⁶가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지만 그간의 논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접점이 발생하고, 부여계의 동향에 주목하는 등 논의가 좁혀지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백제를 부여의 오기로 보느냐, 아니면 백제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긍정론과 부정론의 잣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사료 자체의 신뢰성 여부는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논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요서 진출에 대한 연구가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는 백제의 요서 진출에 대한 사실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에 대한 의미 파악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기록의 사실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왜 이러한 기사가 기술되었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소홀한 감도 없지 않다.

앞장에서 백제의 요서 지역 활동을 보여주는 사료의 신뢰성 여부를 집중 조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북조 계통의 사료에 보이지 않아 의문이 되었으나 당시 백제와 교류가 가능하였던 연(燕) 계열의 기록은 『십육국춘추』 등을 통하여 백제의 활동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북조 계통 사료의 누락으로 백제의 요서 진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이 누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서의 편찬 때 찬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느냐가 서술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실제 상황과 인식을 구별하

52 池内宏, 1947, 『日本上代の一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53 和田博徳, 1951, 「百濟の遼西領有説について」, 『史學』25-1.

54 余昊奎, 2001, 앞의 글.

55 俞元載, 1994, 『中國正史 百濟傳 研究』, 學研文化社.

56 金起燮, 1997, 「百濟의 遼西經略說 再檢討: 4세기를 중심으로」, 『韓國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앞의 사료 D-2와 D-3이다. D-2의 『양직공도(梁職貢圖)』에 의하면 요서 경략설의 주체를 낙랑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보다 뒤에 편찬된 『양서(梁書)』에서는 백제로 주체를 수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백제의 낙랑 및 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남북조시대의 백제와 낙랑·대방에 관한 관념에 의해, 낙랑·대방의 요서 이동을 백제의 요서 점유로 혼동하였다고 보는 견해⁵⁷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양직공도』에서 백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낙랑의 요서 진출을 언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후 편찬된 『양서』는 『양직공도』를 기본으로 하여 약간의 편찬 상 기술적인 보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⁸ 그렇다면 국가의 공식 사서인 『양서』의 편찬자는 『양직공도』를 저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보충할 사안이 있는 경우 개삭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양서』 편찬 단계에서 편찬자는 요서 진출의 주체를 낙랑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백제로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혼용은 근초고왕이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영낙랑태수’라는 작을 받았다는 사실⁵⁹과 관련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근초고왕의 동진 견사에 중국계 백제 관료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⁶⁰ 근초고왕이 처음 견사하면서 ‘진동장군’과 ‘영낙랑태수’라는 작을 받은 것도 이들의 역할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당연히 371년 고구려와의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등 백제의 승리를 널리 알렸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백제의 격에 맞는 관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영낙랑태수’라는 작이다. 낙랑태수는 한 무제(漢武帝)가 고

57 俞元載, 1994, 앞의 책, 216~226쪽.

58 李弘植, 1971, 앞의 글, 396~408쪽.

59 『晉書』9, 帝紀6 簡文帝2年6月條.

60 정재윤, 2012,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史叢』77, 18쪽.

조선을 멸망시키고 평양에 설치한 낙랑군의 수장이다. 처음 4군이 설치되었으나 얼마 뒤에 다른 3개의 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낙랑태수는 황제의 명을 받아 한반도를 대신 통치하는 대리자이다. 따라서 백제왕이 중국으로부터 낙랑태수라는 작을 받았다는 것은 한반도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이는 강국인 고구려를 격파했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백제는 중국계 백제관료를 외교 분야에 등용함으로써 국제 정세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였다. 동진과의 교섭 때 ‘백제(百濟)’라는 국호가 처음 확인되는 것도 이들의 활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낙랑이 313년 장통(張統)의 인솔로 요서의 대릉하(大陵河 방면으로 옮긴 것도 주목된다. 이는 백제가 받은 낙랑태수직과 요서 지역으로 옮긴 낙랑과 혼신을 빚을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낙랑태수호를 고구려에 대한 억지력과 낙랑 유민에 대한 친화력의 근간으로 이용하려는 백제의 움직임이 남조 사가들에게 낙랑 교군(僑郡)에 대한 영유권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해 백제의 요서 경략설이 등장하였다고 보기도 한다.⁶¹

하지만 씨도 남조 측의 단순한 착오라기보다는 해상 활동을 통해 낙랑 교군과 활발히 교류하며 연계를 과시하는 백제의 과장된 제스처가 남조 측에 각인되었다고 보는 것⁶²처럼 사실과 인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백제가 근초고왕 때 낙랑태수작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상징성 때문에 백제를 낙랑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백제의 활동을 낙랑으로 오인하였다면 백제가 낙랑 교군이 위치한 요서 지역과 교류를 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백제와 부여계 이주민과의 교류도 충분히 가능하다.

낙랑의 명기도 교군과의 착오 때문에 『양서』 단계에서는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명칭과 세력 범위를 착오한 것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부락의 반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을 동원하려 하였다는 것은 중

61 金起燮, 1997, 앞의 글, 336~337쪽.

62 金起燮, 1997, 앞의 글, 337~338쪽.

국에서 백제와 신라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⁶³ 마찬가지로 부여와 백제에 대한 착오도 찬자가 얼마나 백제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여울의 경우 이미 부여 왕자라고 표기할 정도로 부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였지만 여화의 경우 ‘동이’라고 하여 부여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찬자가 정확한 정보에 의지하여 기술하려는 태도를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시 백제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백제를 부여와 혼동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료의 취신 과정과 노력에 대한 저평가이며, 사료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의 사료 A에 보이는 백제는 나름의 정보와 인식에 의존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의 요서 지역 동향과 관련해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지역명이 붙은 태수가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신으로 파견된 이들의 직함이 중국계 지명이 붙은 태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요서 경략설과 관련시키는 견해⁶⁴도 있다. 하지만 태수로 임명된 자들이 모두 사신에 국한되는 것을 볼 때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다.⁶⁵ 이에 대해서는 한인계(漢人系) 사신의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⁶⁶ 중국 내 백제계 거류민 지역⁶⁷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들의 사신 파견은 현지 사정에 정통하거나 그 지역 출신⁶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63 『晉書』符堅載記에서 薛羅로 표기한 것은 찬자가 신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資治通鑑』에서 이를 신라로 정정한 것은 이미 신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설라와 신라가 동일하다면 인식의 차이가 기술에 영향을 준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64 方善柱, 1971, 앞의 글, 5~10쪽.

65 鄭載潤, 1992, 「熊津·泗泚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學報』10, 512쪽.

66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389~396쪽; 梁起錫, 1984, 「五世紀 百濟의 王·侯·太守制에 대하여」, 『史學研究』38, 77쪽.

67 강중훈, 2007, 「백제의 중국대륙진출」, 『漢城都邑期の百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30~231쪽.

68 李永植, 1988, 「五世紀 倭國王의 爵號에 보이는 韓南部諸國名의 意味」, 『史叢』34, 28~32쪽; 정재윤, 2012, 앞의 글, 23쪽.

활용하여 성과를 내려는 백제의 노력으로 보인다. 이들의 등용은 백제 근초고왕 때 낙랑·대방군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일 가능성이 많지만⁶⁹ 백제가 요서 지역과 교류할 때 귀부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개연성을 두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백제는 낙랑과 대방군의 퇴각 이후 이들 지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패권을 다투었다. 371년 평양성 전투는 두 나라 전쟁이 정점임을 보여준다. 두 나라의 다툼은 한반도 내에서 끝나지 않고 중국의 요하 지역에서도 재현되었다. 앞의 사료 D의 요서 경략에 백제가 고구려와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이는 백제의 요서경략 인식이 다분히 고구려를 대상으로 성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쟁 의식이 발로되었다면 과장된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맨 먼저 언급한 사료 D-1의 『송서』 단계에서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D-2의 『양직공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진나라 말엽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반면 D-3 『양서』에서는 진나라 때라고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진나라 때임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상 진나라 말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이후 요서 지역의 각축 시대가 끝나고 북위가 북중국을 통일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송나라는 동진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진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요서 지역에 설치한 행정명이 진평군 진평현이라 하여 진과 관련된 시기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진조(晉朝)를 관칭한 군현을 진조 회복의 기치를 걸고 한인(漢人) 유이민 집단을 모으기 위한 명분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⁷⁰이다. 이에 의하면 백제는 중국 내지 한인 집단의 내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이민 집단의 ‘군’ 단위 출신지를 만들어 통제·관리하였다 한다.

69 西本昌弘, 1989, 「樂浪·帶方二郡の興亡と漢人遺民の行方」, 『古代文化』 41-10, 22쪽.

70 백길남, 2017, 「百濟略有遼西」記事의 기술배경과 漢人 유이민 집단, 『韓國古代史研究』 86, 22~24쪽.

하지만 385년 한인이 대거 요서 지역에서 백제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추정
에 불과하며, 백제 내 요서군과 진평군을 설치하였다는 것도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 백제가 이미 4세기 말 군현제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백제의 지방통치체
제 시행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서 지역과 백제의 상시적인 교류가 있
었다고 주장한다면 요서 지역에서 요서군과 진평군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그런데 『송서』는 전적으로 당시의 대외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며, 전대(前代)
의 사서를 인용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상의 서술이 없다.⁷¹ 이를 감안하면 『송서』
기사의 신뢰성은 높은 편이며, 요서 경략설을 먼저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요서 지역은 송나라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전
대의 기록 혹은 전언(傳言)에 의해 알려졌을 것이며, 이것이 찬자의 인식을 거쳐
기술되었을 것이다. 다만 관할 지역인 북조 계통의 사서에 보이지 않고, 망실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십육국춘추』 등에도 보이지 않
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점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영역을 지배할 정도
면 최소한 백제에 관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십육국춘추』 등에 그 흔적이 남겨졌
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송서』에서는 진평군과 진평현 등 진조를 관칭한다는 점에서 가장 진나
라에 가까운 상황임을 말해준다. 『양직공도』에서는 요서라는 지명도 함께 등장
하며, 이후 사서에서는 이 둘의 명칭을 병기하고 있다. 진조의 관칭은 진나라를
의식한 명칭임을 상기하면 진나라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다.

아울러 요서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지명이 『양직
공도』 찬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상 무언가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이 경우 『십육국춘추』 등과 같이 요서 지역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사서

71 高柄翊, 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大出版部, 26~27쪽.

를 참조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송서』에서 이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따라서 요서라는 명칭은 양대(梁代)에 채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누군가가 양나라 때 동진시대 백제의 요서 경략을 이야기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백제의 요서 경략설은 후대에 계속해서 확대 생산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남북조의 대치 상황에서 북중국의 땅은 남조의 영역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실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남조의 입장에서 요서 지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인정은 북조와 백제의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이다. 백제의 입장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백제의 국력을 과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양자의 입장이 일치하여 백제의 요서 경략은 일정 정도 시대에 맞게 재생산된 것으로 보인다.⁷²

또한 백제가 고구려를 의식하여 요서 경략을 주장하는 것은 남북조 대치 상황에서 남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되어 남조 국가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을 수 있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를 의식하여 백제는 고구려와의 대치 상황으로 몰아갔고, 이러한 점이 역사가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고구려의 요동 경략과 대구(對句)하여 백제의 요서 경략이 인정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가들의 상황 인식에 따른 기술이며, 실제의 상황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백제의 요서 지역 진출에 대한 실체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백제의 요서 진출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자. 백제는 앞의 사료 A에 보이는 것처럼 345년 당시 요서 지역에서 그 실체가 확인된다. 또한 사료 B는 요서 지역의 부여계 이주민들과 백제인들이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⁷³

72 이러한 면에서 백제의 사신이 중국계 지명이 붙은 태수직을 관청하고, 571년 북제가 위덕왕을 東靑州刺史로 삼은(『北齊書』 8, 帝紀 8 後主條)것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73 요서 지역에서 백제가 존재한 고고학적 증거도 현재 찾을 수 없다. 다만 직구단경호와 직구광견호 등의 기종은 요서 및 요동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인적

이와 같이 백제가 요서 지역에 이른 것은 서진의 패망과 낙랑·대방군의 퇴각 이후 중국과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낙랑·대방의 문화를 접한 백제는 이들의 발달한 선진문물에 매료되었으며, 이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본거지인 중국에까지 이르러 직접 수용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고구려 또한 요동 지역으로의 진출과 낙랑·대방으로의 남하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처럼 백제와 고구려는 양 방향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이러한 두 나라의 대립의식은 요서 경략이 생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을 접한 2단계에 이르러서는 근초고왕 때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백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계 인물들을 관료로 등용하여 마침내 동진과 통교할 수 있었다. 백제가 동진과 직접 통교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지점인 요서 지역에 거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당시 요서 지역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제는 요서 지역과의 교류 차원을 넘어 상시적인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요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여계 왕족들과 동족 의식을 형성하고, 왕의 성도 부여씨로 하는 등 부여계 이주민들을 활용하였다. 부여계 이주민들의 거점은 보다 안정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부여계 이주민들에게도 고구려와 라이벌인 백제의 접근은 환영할 만했다. 동진과의 교류가 가능하였던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강력한 북위의 등장과 연나라의 분열은 점차 요서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고구려는 광개토왕의 등장 이후 백제를 압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의 거점 마련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백제가 요서 지역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부여와의 친연성을 바탕으로 부여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 그리고 전연과 전진, 후연으로 분열

왕래는 충분히 상정된다는 견해(박순발, 2015, 「고고학적으로 본 요서(遼西)지역,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67쪽)를 참조하면 조심스럽게 교류의 물질적 증거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되는 시기에 백제는 요서 지역에 거점을 마련했다고는 보인다. 그 목적도 북중국과의 교류와 궁극적으로는 남조와의 교류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백제의 요서 지역 진출에 대한 실상과는 별개로 남조와의 통교 때 백제는 사신을 통해 이 상황을 전달하였다고 생각된다. 『양직공도』에서 백제의 방소국(旁小國)으로 신라 등이 기술된 것처럼 이를 전달하는 백제 측의 입장에 의해 사실이 과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요서 지역에 진출한 백제인들의 모습이 과장되어 마치 고구려와 대비되어 요서 지역을 경략한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백제와 낙랑이 혼용될 소지가 있는 점과 남조 중심의 세계관에 의해 이러한 주장은 역사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이들의 기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상을 고려하면 백제의 요서 경략설의 실상과 인식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백제가 요서 지역과 교류를 하였으며, 거점을 마련한 것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⁷⁴ 백제는 선진 문물과 제도 수입의 필요성 때문에 요서 지역의 부여계 세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통교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제까지 필자는 중국 요서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백제가 요서 지역과 교류를 하였고, 일정 시점에 거점까지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진서』모용황재기의 봉유 상소문은 345년의 내용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백

74 점유는 ‘경략’처럼 일정 정도 영역을 확보한 것을 뜻한다. 거점은 교류의 근거가 되는 지점을 확보하였다는 의미에서 영역 확보와는 다르며,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제를 지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46년 상황을 전하는 『자치통감』 기사에만 나오는 백제는 여러 시기의 사실이 섞여 있으며, 백제와 요서 지역에 사민(徙民)된 부여계 이주민들이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십육국춘추』 등 당시의 사료를 참조하여 찬자의 인식을 통해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요서 지역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지역에 부여 계통의 이주민들이 활동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울은 부여 왕자로서 전연의 멸망과 후연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부여씨를 칭한 것은 요서 지역으로 사민된 부여왕 여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울을 통해 최소한 370년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385년 여암의 반란도 부여계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백제가 동진과 통교하면서 왕이 부여씨를 칭하였다는 사실이다. 백제가 동진과 통교가 가능한 것은 우선 중간 기착지인 요서 지역에 거점이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제의 부여씨 사용은 근초고왕 때 무렵이며, 이 무렵 부여씨 출자를 강조한 것은 고구려를 의식한 표방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요서 지역에 있는 부여계 이주민과의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동족 의식과 고구려에 대항한다는 유대감의 형성은 부여계의 도움을 받아 요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의 요서 경략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서 경략설은 『송서』에 처음 기술되었고, 때문에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이후 『양직공도』에서 요서 경략의 주체를 낙랑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이며, 백제가 낙랑군(樂浪僑郡)과 교류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부여계 이주민과의 교류도 충분히 가능하다. 백제에서 중국 지명이 붙은 태수직의 사신 파견도 이들의 출신지를 관창하였다면 요서 지역과의 관련성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찬자의 착각은 실제와 인식의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요서 경략에 관한 사료를 분석한 결과 요서 경략설은 진나라 말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요서군이라는 명칭의 등장은 후대에도 계속 요서 경략설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 실체는 4세기 중반에 백제는 요서

지역에 사민된 부여계 이주민과 교류를 하였고, 일부가 연의 도성에까지 이르렀던 모습을 말해준다. 이는 서진의 패망 이후 백제가 중국과의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낙랑과 대방군의 퇴각 이후 이들 지역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요하를 경계로 둔 요서 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이처럼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요서 경략설이 생성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다음으로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백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중국계 백제 관료들에 의해 동진과의 교섭이 이루어졌고, 이는 요서 지역에 거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백제는 요서 진출의 실체와는 별개로 남조와의 교류 때 이러한 상황을 과장하게 전달하였다고 보인다. 『양직공도』에 나오는 방소국처럼 이해되는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백제가 요서 지역과 교류를 한 것은 분명하고, 거점 마련도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체와는 별도로 점유로 인식될 정도로 과장된 정보가 계속 사신을 통해 남조에 전달되었고, 남조 역사가들은 그들의 이해와 인식,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요서 경략설을 기술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姜維公, 2016, 『百濟 歷史編年』, 科學出版社.
- 白鳥庫吉, 1970, 『白鳥庫吉全集』3.
- 孫進己, 1989, 『東北歷史地理』2.
- 송호정, 1997, 『부여, 한국사』4.
- 俞元載, 1994, 『中國正史 百濟傳 研究』, 學研文化社.
- 李道學,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 池內宏, 1947, 『日本上代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 池培善,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강중훈, 2003, 「4세기 백제의遼西 지역 진출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30.
- _____, 2015, 「4세기 전반 백제군(百濟軍)의 요하(遼河) 일대에서의 활동에 관한 기사
의 검토」,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 高柄翊, 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출판부.
- 關尾史郎, 1981, 「前燕政權(337-370년)成立の前提」, 『歷史學研究』488.
- 金起燮, 1997, 「百濟의 遼西經略說 再檢討: 4세기를 중심으로」, 『韓國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 金庠基, 1967, 「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 『白山學報』3.
- 김세익, 1967, 「중국 료서지방에 있었던 백제의 군에 대하여」, 『력사과학』1.
- 김수태, 2002, 「백제의 만주기원설 검토」, 『百濟研究』35.
- 노중국, 2010, 「성씨집단과 그 출자」,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 노태돈, 1989, 「扶餘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4.
- 稻葉岩吉 外, 1941, 「朝鮮滿洲史」, 『世界歷史大系』11, 平凡社.
- 末松保和, 1954, 「新羅建國考」, 『新羅史의 諸問題』.
- 方善柱, 1971,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11.
- 백길남, 2017, 「百濟略有遼西」記事의 기술배경과 漢人 유이민 집단」, 『韓國古代史研
究』86.

- 白鳥庫吉, 1947, 「百濟の起源について」, 『歴史』 創刊號
- 西本昌弘, 1989, 「樂浪, 帶方二郡の興亡と漢人遺民の行方」, 『古代文化』 41-10.
- 신형식, 1992, 「百濟의 遼西進出問題」, 『百濟史』.
- 梁起錫, 1984, 「五世紀 百濟의 王·侯·太守制에 대하여」, 『史學研究』 38.
- 余昊奎,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재검토-4세기 후반 扶餘系 人物의 동향과 관련 하여-」, 『震檀學報』 91.
- 오택현, 2013, 「백제 복성(復姓)의 출현과 그 정치적 배경」, 『역사와 현실』 88.
- 李基東, 1981, 「百濟 王室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
- 李道學, 1991, 「百濟 集權國家形成過程 研究」, 漢陽大 博士學位論文.
- 李明揆, 1983, 「百濟對外關係에 관한 一試論」, 『史學研究』 37.
- 李永植, 1988, 「五世紀 倭國王의 爵號에 보이는 韓南部諸國名의 意味」, 『史叢』 34.
- 이장웅, 2016, 「百濟 始祖 仇台·沸流 傳承의 성립과 高句麗·公孫氏 관계」, 『百濟文化』 55.
- 李弘植, 1971, 「百濟人名考」,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 李熙眞, 1999, 「백제의 대륙식민지 건설에 대하여」, 『STRATEGY』 2-2.
- 日夜開三郎, 1949, 「夫餘國考」, 『史淵』 34.
- 鄭載潤, 1992, 「웅진·사비시대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韓國上古史學報』 10.
- _____, 2005, 「中國 史書에 보이는 百濟의 遼西進出에 대한 고찰」, 『漢城百濟 史料研究』, 경기문화재단.
- _____, 2008, 「백제의 부여 계승의식과 그 의미」,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2, 「중국제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史叢』 77.
- _____, 201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 『百濟文化』 54.
- 조영광, 2017,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선사와 고대』 53.
- 川村昂昭, 2015, 「十六國春秋 書前提要訳註稿」, 『大東文化大學中國學論集』 33.
- 최진열, 2015, 「16국시대 요서(遼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한성백제박물관 편,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 和田博徳, 1951, 「百濟の遼西領有說について」, 『史學』 25.
- Gari K. Ledyard, 1975, "Gallop Along With the Horseriders; Looking for the Founding of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 No. 2.

중국 요서(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정재윤

본고의 목적은 중국 요서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진서』 모용황재기의 봉유 상소문과 346년 『자치통감』 기사, 그리고 백제의 요서 경략설의 사료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345년 『진서』 모용황재기의 봉유 상소문은 검토한 결과 실제 백제와 관련된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46년 상황을 전하는 『자치통감』 기사는 여러 시기의 사실이 섞여 있으며, 백제와 요서 지역에 徙民된 부여계 이주민이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백제의 요서 지역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활동한 부여계통의 이주민들이다. 특히 여울은 부여 왕자로서 전연의 멸망과 후연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부여씨를 칭한 것은 요서 지역으로 사민된 부여왕 여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울을 통해 최소한 370년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385년 여암의 반란도 부여계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백제가 동진과 통교하면서 왕이 부여씨를 칭하였다는 사실이다. 백제가 동진과 통교가 가능한 것은 우선 중간 기착지인 요서 지역에 거점이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제의 부여씨 사용은 근초고왕 때 무렵이며,

이 무렵 부여씨 출자를 강조한 것은 고구려를 의식한 표방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요서 지역에 있는 부여계 이주민과의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동족 의식과 고구려에 대항한다는 유대감의 형성은 부여계의 도움을 받아 요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의 요서 경략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서 경략설은 『송서』에 처음 기술되었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이후 『양직공도』에서 요서 경략의 주체를 낙랑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이며, 백제와 부여계 이주민과의 교류를 보여준다. 백제에서 중국 지명이 붙은 태수직의 사신 파견도 이들의 출신지를 관청하였다면 요서 지역과의 관련성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끝으로, 요서 경략에 관한 사료를 분석한 결과 요서 경략설의 생성은 진나라 말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요서군이라는 명칭의 등장은 후대에도 계속 요서 경략설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 실체는 4세기 중반에 백제는 요서 지역에 사민된 부여계 이주민과 교류를 하였고, 일부가 연의 도성에까지 이르렀던 모습을 말해준다. 이는 서진의 패망 이후 중국과의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낙랑과 대방군의 퇴각 이후 이들 지역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요하를 경계로 둔 요서 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이처럼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요서 경략설이 생성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다음으로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백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중국계 백제 관료들에 의해 동진과의 교섭이 이루어졌고, 이는 요서 지역에 거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백제는 요서 진출의 실체와는 별개로 남조와의 교류 때 이러한 상황을 과장하게 전달하였다고 보인다. 이상을 살펴보면 백제가 요서 지역과 교류를 한 것은 분명하고, 거점 마련도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체와는 별도로 점유로 인식될 정도로 과장된 정보가 계속 사신을 통해 남조에 전달되었고, 남조 역사가들은 그들의 이해와 인식,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요서 경략설을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요서, 요서 경략설, 백제, 부여씨, 부여계 이주민, 부여, 고구려

The Reality of Baekje Shown in the Province of Yoseo in China

Chung Jaey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bstance of Baekje in the Yoseo area of China.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it was found that Bongyu's (封裕) public appeal, "Moyong hwangjaegi" (慕容皝載記) in the *Book of Jin* (晉書) in 345, is an entry that is actually related to Baekje. In addition, facts regarding Baekje in various periods in the text "Zizhi Tongjian" (資治通鑑) in 346 were mixed, and it was judged that Baekje contacted the group of Buyeo immigrants that moved to the Yoseo area.

What may be noted with regard to the trend of Baekje's attitude towards the Yoseo area is that the Buyeo-descent migrants there were active. In particular, Yeoul (餘蔚) was a prince of Buyeo who played a great role in the subversion of Former Yan (前燕) and in the foundation of Later Yan (後燕). It is noted that they named the descent group as Buyeo at least before 370 through Yeoul. An interesting point is the fact

that in 372, as Baekje made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Eastern Jin, the king named the clan as Buyeo. It seems that Baekje was able to establish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Eastern Jin because, first, the base was prepared in the middle stopover, that is, the Yoseo area. Baekje's use of the Buyeo descent group occurred around the reign of King Geunchogo, and an emphasis of the Buyeo descent group around this time seems to be a claim, conscious of Goguryeo. Second, it also sought to emphasize the affinity with the Buyeo immigrants' group in the Yoseo area.

A theory of the attack on Yoseo (遼西經略說) was written for the first time in the *Song shu* (宋書), and this entry has high value as historical material. Later, in *Yangjik gong do* (梁職工圖) was written the attack on Yoseo as the Lolang Commandery, which was a misunderstanding, and this shows the exchange between Baekje and the Buyeo immigrant groups. If in Baekje, the dispatch of an envoy holding a Taesu position (太守職) with a Chinese nomination named their hometown, then this is material through which the correlation with the Yoseo area can also be seen.

Lastly,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historical records regarding the attack on Yoseo, a theory of the attack on Yoseo was reproduced in later generations. The data shows that Baekje's exchange with the Buyeo immigrant groups moved to the Yoseo area in the mid-fourth century. It seems that it was necessary for Baekje to engage in exchange with China after the defeat of the Western Jin. Moreover, after the retreat of the Lolang Commandery and the Daifang Commandery, the confrontation between Baekje and Goguryeo in the surrounding areas developed also in the Yoseo area with the Liaoho River as a

boundary. In this way, the confrontation between Baekje and Goguryeo became part of the background of the production of the theory of the attack on Yoseo.

Next, in 371, as Baekje won the battle of Pyongyang Castle, it gained an international reputation. Taking this opportunity, negotiation with Eastern Jin was undertaken by Chinese Baekje bureaucrats, and it was possible for the base to be prepared in the Yoseo area. Baekje exaggeratedly passed on this situation in its exchange with the Southern Dynasties separately from the actual entry into Yoseo.

Through the above, it is clear that Baekje conducted exchanges with the Yoseo area, and it is very likely that a base would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separate from this context, information was exaggerated such that the situation could be recognized as an occupation that was continuously passed on to the Southern Dynasties through envoys, and historians of the Southern Dynasties developed a theory of the attack on Yoseo according to their understanding, recognition, and realistic needs.

Keywords: Yoseo, theory of the attack on Yoseo, Baekje, Buyeo descent group, the Buyeo immigrants' group, Buyeo, Goguryeo

논문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小學校) 지리교과서의 현(縣)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한철호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 II. 자유발행(1872~1880) 교과서의 오키 서술 내용과 독도 인지
- III. 조사(1880~1883)·인가(1883~1885) 교과서의 시마네현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 IV. 검정(1886~1903)·국정(1904~1905) 교과서의 시마네현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 V. 맺음말

I. 머리말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 개정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 금년 3월 고교학습지도요령에서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내용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하였다. 문부과학성뿐만 아니라 내각관방 산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도 지난해 11월 누리집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 자료를 게시하였다. 이 자료는 사이타마현(埼玉縣)과 시마네현(島根縣)의 자치단체가 제작한 보충교재로 “독도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확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마네현에서 만든 「竹島학습리플렛」에는 1696년 당시 돗토리번(鳥取藩)의 고타니 이헤이(小谷伊兵衛)가 에도 막부에 제출한 울릉도지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圖)와 1930년대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서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사진 등이 실려 있다. 「竹嶋之繪圖」는 당시 돗토리번의 에도 연락관이었던 고타니가 막부의 조사 지시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답변과 함께 제출한 것이다. 일본은 당시 독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독도가 이전부터 일본의 관할 아래 있었다는 주장-‘고유영토론’-을 펼치고 있지만, 막부가 이를 근거로 일본인의 ‘다케시마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내렸기 때문에, 이 지도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1930년대 일본 어민들의 독도 강치를 사냥하는 사진은 이른바 무주지선점론에 기반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서로 모순된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에 입각해 독도

* 투고: 2018년 3월 14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7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竹島)가 일본의 영토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대외적으로 근대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논리로 그 모순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고유영토론을 스스로 부정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1877) 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유영토론을 부정할 경우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논리가 더욱 명확해지는 탓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1905년 2월 이전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을까? 특히 시마네현은 독도 편입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독도를 현의 관할지역에 속하는 섬이라고 가르쳤을까? 그 여부는 당시 시마네현 소재 소학교에서 사용했던 지리교과서에 시마네현 혹은 오키(隠岐)의 관할 지역과 지세·위치 등에서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살펴보면 잘 드러날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메이지시대 소학교에서 사용한 지리교과서와 부도를 정리·분석한 연구 성과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¹ 또 일본의 지리교과서와 지도·부도에 나타난 독도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1877년 태정관지령 이후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강점 이전까지 일본 지리교과서와 부도에는

1 倉澤剛, 1963, 『小學校の歴史』, ジャパンライブラリービューロー; 海後宗臣 編纂, 1966, 『地理教科書總解説』, 『日本教科書大系』17, 近代編 地理(3), 講談社; 文部省, 1972, 『學制百年史』, 帝國地方行政學會; 中川浩一, 1978, 『近代地理教育の源流』, 古今書院; 海後宗臣·仲新, 1979, 『近代日本教科書總説 解説篇』, 講談社;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近代教科書の變遷 - 東京書籍七十年史 -』, 東京書籍株式會社; 岡田俊裕, 1992, 『近現代日本地理學思想史 - 個人史的研究 -』, 古今書院; 2000, 『日本地理學史論 - 個人史的研究 -』, 古今書院; 2002, 『地理學史 - 人物と論争 -』, 古今書院; 2011, 『日本地理學人物事典 近代編1』, 原書房; 中山修一, 1997, 『近・現代日本における地誌と地理教育の展開』, 広島大學總合地誌研究資料センター; 川村博忠, 2003, 『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 『總合人間科學』3; 島津俊之, 2005, 『明治前期の郷土概念と郷土地理教育』, 『和歌山地理』25 등 참조.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² 그럼에도 막상 독도와 직접 관련 있는 시마네현에서 사용했던 지리교과서 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마네현 소재 소학교에서 사용했던 지리교과서 7종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1905년 2월까지 시마네현 혹은 오키의 관할지역에 대한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도와 관련된 최초의 시마네현 소학교 지리교과서인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에서 오키와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1880년 이후 일본 문부성이 조사(調査)·인가(認可)·검정(檢定)을 거쳐 국정(國定)으로 소학교 교과서 발행제도를 점차 감독·통제하는 상황에서 시마네현 소학교 지리교과서에 시마네현의 관할지역과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자유발행(1872~1880) 교과서의 오키 서술 내용과 독도 인지

1872년 8월 일본에서는 「학제(學制)」 공포로 근대적인 학교제도가 실시되었지만, 교과서가 소학교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민간에서도 교과서를 자유롭게 출판하는 자유발행제가 시행되었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
- 2 윤소영, 2005, 「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인식」, 『독도연구』 1; 2013, 「근대 일본 관찬 지지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정보, 2017,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의 고찰」, 『독도연구』 23; 한철호, 2017a, 「明治期 야마카미(山上萬次郎)의 일본 지리교과서·부도 집필과 독도 인식」, 『도서문화』 50; 2018, 「일본 메이지시기 오카무라 마스타로(岡本増太郎)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독도연구』 24.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소학교의 대표적인 일본 지리교과서는 사범학교에서 편집하고 문부성(文部省)이 1874년에 출판한 『日本地誌略』이었다. 이 교과서는 오쓰키 슈지(大槻修二)가 그 직전에 태정관(太政官)의 정원(正院) 지지과(地誌課)에서 편찬한 『日本地誌提要』를 근간으로 삼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地誌略』은 전국의 부현에서 번각본(翻刻本)을 간행했던 만큼, 시마네현 소학교에서도 이 책이 지리교과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³

잘 알려져 있듯이, 『日本地誌提要』와 『日本地誌略』에는 ‘오키(隱岐)의 소도(小島)’가 소개된 다음, “또한 서북방으로 松島, 竹島의 두 섬이 있다. 예부터 민간에 전해진다고 한다[土俗相傳], 오치군(隱地郡) 후쿠우라항(福浦港)에서 松島에 이르는 해로 약 69리 34정, 竹島에 이르는 해로 약 100리 4정 여, 조선까지는 해로 약 136리 30정”⁴이라거나, “또한 西北 洋中에 松島와 竹島가 있다”⁵고 각각 서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와 해석이 이루어져왔다. 하나는 松島(독도)와 竹島(울릉도)가 179개의 ‘오키의 소도’와 따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오키의 소도’인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키의 해양상 위치를 설명하려고 적은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⁶ 다른 하나는 오키에는 ‘오키의 소도’ 외에 그 서북방에 松島 · 竹島 두 섬이 있으며, 竹島를 일본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 조선까지 해로를 약

3 海後宗臣 編, 1961, 「所收教科書解題」, 『日本教科書大系』15, 近代編 地理(1), 講談社, 625~626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10~17, 48~50, 143쪽; 윤소영, 2013, 앞의 글, 370~374쪽.

4 正院地誌課 編, 1878, 『日本地誌提要』50, 日報社, 10~11쪽.

5 師範學校 編輯, 1874, 『日本地誌略』3, 文部省, 14쪽.

6 박병섭, 2007,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다케시마=독도 인식」, 『일본 독도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논문집』,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42~43쪽[朴炳涉, 2008,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28, 33~35쪽]; 유미림·최은석, 2010, 앞의 책, 124~125쪽; 윤소영, 2013, 앞의 글, 373~382쪽.

136리 30정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⁷ 요컨대, 松島·竹島가 ‘오키의 소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소속 여부는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1874년 8월 개정’된 『日本地誌略』 1과 ‘1877년 1월 개정’된 『改正日本地誌略』 1에 실린 ‘日本全圖’에는 일본영토가 국별(國別)로 색칠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은 점,⁸ 『改正日本地誌略』 3의 「山陰道之圖」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⁹ 따라서 『日本地誌略』의 松島와 竹島는 일본영토로 간주되었다기보다 오키의 해양상 위치 혹은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의 소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지리를 배우는 전단계로 지방지(地方誌)를 가르쳤는데,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관내의 ‘풍토(風土)’와 ‘물건(物件)’을 편성한 지방지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면서 부현 단위의 지지고과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875년 가와카미 히로키(川上廣樹)의 『下野地誌略』과 아키타(秋田)사범학교의 『秋田地誌略』, 1876년 사쿠라이 게이초(櫻井敬長)의 『사토의 시루베(里のしるべ)』 등을 비롯해 1878~1879년경부터 부현 별로 지리고과서가 널리 출판되었던 것이다.¹⁰ 이들 가운데 『사토의 시루베』에 실려 있는 「日本全圖」에는 隱岐만 표시되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¹¹

당시 대부분의 지방지 교과서는 관내 지지략의 형태를 취했으며, 『日本地誌略』의 체재와 내용을 본떠서 부현과 그 관내에 있는 國別 혹은 郡内の 지지

7 下條正男, 2009, 「朴炳涉氏の「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號)を駁す」, Web竹島問題研究所.

8 師範學校 編輯, 1874, 『改正日本地誌略』 1, 文部省; 1878, 『改正日本地誌略』 1, 文部省, 文心堂.

9 師範學校 編輯, 1878, 『改正日本地誌略』 3, 文部省.

10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93~96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150쪽.

11 櫻井敬長, 1876, 『里のしるべ』, 九里忠兵衛.

를 기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교과서 이름도 『○○縣地誌略』이나 『○○國地誌略』 등이었다. 그 내용도 관내를 國으로 나누어 각각의 國內 구획을 명확하게 밝혀 全縣을 개관하고, 다시 國을 郡으로 구분해 각 군마다 위치·지세·인구 등으로 내용을 서술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지방지 교과서는 현별 지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별 지지의 성격을 띠었다.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이 단행되었지만 여전히 그 개폐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별로 지지를 기술하는 방법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¹²

시마네현에서도 1878년부터 야마구치현(山口縣) 사족(士族)인 시미즈 세이타로(清水清太郎)가 『島根縣管内 出雲國地誌略』·『島根縣管内 伯耆國地誌略』·『因幡國地誌略』에 이어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1879년 4월 판권면허, 1880년 7월 간행) 등 국별 지리교과서를 잇달아 출판하였다. 이들은 최초로 간행된 시마네현 ‘小學校用 郷土讀本’으로 알려져 있다.¹³ 이 책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日本地誌略』을 모범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은 「오키국(隱岐國)」에 대한 총설과 군별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오키국에 관해서는 “이즈모(出雲)의 正北 大洋 중에 있다. 동북의 1島를 도고(島後)라고 부르며, 서남의 3도를 도젠(島前)이라고 부른다.……前後島의 거리는 해상 직경 3리 남짓이다. 땅은 대부분 礫确해서 평야는 백분의 2, 3이다. 연해는 암초가 서로 접해서 거의 2백 여에 이른다. 이를 총칭해서 오키의 소도라고 부른다”고 개설하였다.¹⁴ 여기에서 ‘오키의 소도’가 거의 2백 여 개라는 것은 『日本地誌提要』의 179개와 다르다.

스키군(周吉郡)에 관해서는 “도고의 남부에 위치하며, 동남으로부터 이서는

12 海後宗臣 編纂, 1996, 앞의 글, 596~597쪽;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97~101쪽.

13 文部省, 1878, 「明治11年 小學教科書一覽表」, 『文部省第6年報 明治11年』, 文部省, 422쪽; 高木利太, 1927, 『家藏日本地誌目録 續篇』, 442쪽; 中川浩一, 1978, 위의 책, 97쪽.

14 清水清太郎, 1880,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 清水清太郎, 1~2쪽.

일본해에 면하며, 서북은 오치(隱地)에 背한다”고 서술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키군의 북쪽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북에 白島綺가 있으며, 中村에 속한다. 이를 본군 東北의 極隅로 한다. 해상에 斗出한 拾壹町 부근에 수십 개의 小嶼가 있다. 대체적으로 白島라고 칭한다. 가장 기이한 것[最奇]은 赤帆掛라고 부른다.……바다를 빙빙 돌아서 북방에 小泊·大泊을 거쳐 瀬落灘에 도착하면, 매우 가파른 낭떠러지[峭壁]가 위험해 사람으로 하여금 寒心하게 만든다. 2 小池가 있다. 서북에 松嶋의 窟이 있으며, 허다한 海鹿이 여기에 棲息한다.¹⁵

요컨대, 스키군에서 ‘동북의 極隅’인 白島綺는 中村에 속하며, 그 해상에 수십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서북쪽에 수많은 ‘海鹿’이 棲息하는 ‘松嶋의 窟’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海鹿’은 ‘아메후라시(アメフラシ, 雨虎 혹은 雨降), 즉 연체동물로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와 비슷하게 생겨 ‘바다달팽이’라고도 부르는 ‘군소’일 수도 있지만, ‘굴’에서 ‘서식’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아시카(アシカ, 海驢), 즉 강치라고 판단된다.

또 ‘松嶋’는 ‘독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맥상 스키군 ‘동북의 極隅’인 白島綺와 그 해상에 있는 수십 개의 小嶼로 이루어진 ‘白島’를 설명하는 도중에 언급된 만큼, 白島綺 앞에 위치한 ‘白島’ 중의 하나인 ‘松島’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독도는 오키에서 최단거리로 따져도 87km가 넘게 떨어져 있으므로 스키군 ‘동북의 極隅’인 白島綺와 白島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독도의 위치나 지세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부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스키군의 또 다른 ‘松島’에 관해 “군의 西南隅 蛸木村의 해안에서 2정 여 떨어져 있다. 주위는 4百間이고 耕地가 있다. 이 사이에 海水가 灣에 들어와서 본군 오치의 경계

15 清水清太郎, 1880, 위의 책, 7~8쪽.

를 이룬다”고 서술한 것으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¹⁶

한편 독도와 관련 있는 오키군의 후쿠우라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후쿠우라항은 군의 서북에 있다. 동서 13町, 남북 9정, 깊이 10여 尋. 港中の 소도에 辨財天女の 神祠가 있다. 예부터 민간에 전하기를[土俗相傳], ‘2백 년 전 伯耆 米子人 모씨가 막부에 청해 매년 竹島로 항해하는데 반드시 여기에서 출항 차비를 해 배를 댄다. 그 신사 앞의 華表는 당시 그 섬에서 갖고 돌아온 목재이다. 竹島는 서북 70여 리에 있다’고 한다.¹⁷

여기에서 ‘竹島’는 확실히 울릉도이다. 『日本地誌提要』와 마찬가지로 “예부터 민간에 전한다”는 서술 구조를 취했으나 竹島까지 거리는 오히려 松島까지 거리인 ‘70여 리’로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은 『日本地誌提要』와 달리, 200년 전인 막부 시대 호키(伯耆)의 요나고인(米子人) 모씨가 해마다 竹島로 건너갔으며, 출항 때 제사를 지낸 辨財天女의 신사에 관해서 기술되었다. 즉, 1620년경 전후부터 1696년 막부의 다케시마도해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요나고의 무라카와(村川)·오야(大谷) 양가(兩家) 사람들이 울릉도(‘竹島’)로 출항했던 사실을 기록했던 것이다.¹⁸

그러나 시미즈는 1696년 막부의 다케시마도해금지령으로 무라카와·오야 양가 사람들이 竹島로 출항하지 못한 사실, 1836년 하마다번(濱田藩)의 아이즈

16 清水清太郎, 1880, 위의 책, 8쪽.

17 清水清太郎, 1880, 위의 책, 11쪽.

18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37~54쪽;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關係史—』, 中央公論新社, 40~63쪽; 나이트 세이쥬 저, 권오엽·권정 역, 2005, 『독도와 竹島』, 제이앤씨, 59~79쪽; 다케우치 다케시 저, 송휘영·김수희 역, 2013,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선인, 39~50쪽.

야 하치에몽(會津屋八右衛門)이 도해금지령을 어기고 울릉도로 밀항했다가 적발되어 처형당한 사실[덴포 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 그리고 1877년 일본 정부가 ‘竹島’와 ‘松島’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태정관지령을 시마네현에 내린 사실 등에 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 막부 혹은 정부 차원에서 ‘竹島’·‘松島’를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천명한 조치들에 대해 과연 시미즈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부터 민간에 전한다[土俗相傳]”는 형식으로 막부시대 무라카와·오야 양가 사람들의 竹島 출항만을 거론한 것으로 미루어, 그가 200년 전부터 당시까지 그 누구도 竹島로 건너 간 적이 없었거나 건너갈 수 없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시미즈는 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 『日本地誌提要』와 『日本地誌略』에 기술된 松島에 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竹島와 松島를 하나의 세트 혹은 松島를 竹島의 부속섬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시미즈는 竹島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松島 역시 竹島와 더불어 오키의 범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竹島’와 ‘松島’에 대한 인식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면, 태정관지령이 점차 알려지는 시기의 시마네현 소학교 지리교과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Ⅲ. 조사(1880~1883)·인가(1883~1885) 교과서의 시마네현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1879년 9월 「교육령(教育令)」이 반포되면서 1872년의 「학제」는 폐지되었다. 이 「교육령」은 소학교의 설치와 운영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자유교육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교과서에 대한 문부성의 통제·감독은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880년 3월 문부성은 편집국을 설치해 새로운 교과서를 편집하는 데 착수했으며, 교과서취조괘(取調掛)를 두고 소학교칙 중의 교과서 조사(調査)를 개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는 그해 8월과 9월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문부성은 부

적당하다고 인정한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1880년 12월에는 「개정교육령」이 공포됨으로써 다시 강력한 방침으로 학교의 설치와 취학을 독촉했으며, 이에 기초해 1881년 5월에 제정된 「소학교교칙강령(小學校敎則綱領)」에 의해 교과서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즉, 교과서는 소학교의 교칙에 따르며, 문부성에 문의함과 동시에 일정한 서식에 의거해 보고해야 한다고 부현에 포달했던 것이다. 이 보고에 근거해 부적당한 교과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사용금지 혹은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지시받은 교과서가 채용되지 않도록 압력이 가해졌다. 나아가 1883년 7월부터는 문부성에 문의해서 인가를 받은 후에 교과서를 사용토록 하는 인가제도가 시행되었다. 문부성이 모든 교과서를 인가함으로써 교과서 행정의 방식이 일단 중앙집권화의 형태를 띠었고, 교과서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력해졌던 것이다. 전국의 부현 등 지방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¹⁹

한편 1881년의 「소학교교칙강령」에서 지리는 ‘학교 근방의 지형’, 즉 “학생이 몸소 목격할 수 있는 바의 山·谷·河·海 등” 향토의 경관부터 출발해 지리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향토의 지리를 취급하는 지방 지지교과서가 많이 출현하였다. 지방 지지교과서에는 개인이 편집한 것이 적지 않았지만, 부현 사범학교 혹은 부현 학무과편집의 것도 많았다. 당시 소학교에서는 향토의 지지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부현마다 매우 통일되어 있었다. 또 편집방침으로는 여전히 『日本地誌略』을 모범으로 삼아 그 형식에 의해 지방의 지지를 취급하고, 그 명칭도 대부분 『○○縣地誌略』이었다. 또 부현 뿐 아니라 군시별 지방교과서도 많이 출판되었다.²⁰

이러한 조사·인가제 아래 시마네현에서 사용된 교과서는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사족인 구라하시 겐스케(倉橋健助)가 1884년에 집필해 판권면허를 얻은 『(新選)嶋根縣地誌略』이다. 구라하시는 “島根縣地誌는 이미 세상에 간행된 것

19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108~113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18, 28, 52~54쪽.

20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위의 책, 151~154쪽.

이 여러 중 있어 부족하지 않지만, 혹은 어구가 고상하거나 社寺에 편중되어 地誌의 本旨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 적어둔 바가 舊說에만 얽매어 그 바름[正]을 잃어버려서 小學의 학생에게 적당한 것이 매우 적다”는 판단 아래 새로 교과서를 저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이미 간행된 ‘여러 종의 島根縣地誌’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시미즈의 『島根縣管内地誌略 隱岐國地誌略』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또 “이 책은 우리 縣下에서 소학교과서 중의 일본지지와 合用하는 것으로, 體裁도 역시 그 책과 평균을 얻기 위해 어구는 힘써 華縵·高尚을 피하고 簡明·平易에 의거해 단지 管解하기 쉬움을 주로 삼”았으며, ‘改正地誌’에 근거하고 각 군의 조회를 거쳐 완성되었다.²¹

『(新選)嶋根縣地誌略』은 ‘總論’과 ‘國郡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론’에서는 “시마네현은 산인도(山陰道)의 극서에 위치한 이즈모(出雲)·이와미(石見) 및 오키의 3국으로, 서남은 야마구치 및 히로시마(廣島) 2현에 접하고, 동은 돗토리현(鳥取縣)에 이웃하며, 북 일면은 外洋에 瀕한다”고 시마네현의 위치를 비롯해 지세와 면적 등이 소개되었다. 이어 ‘국군지’에서는 國 관할지역의 경위도가 기재된 사실이 눈에 띈다. 예컨대, 이즈모국은 북위 34도 56분~35도 35분과 서경 6도 26분~7도 12분이며, 이와미국은 북위 34도 18분~35도 16분과 서경 7도 2분~8도 6분이다.²² 오키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키국은 北海에 고립한 小嶋로서, 동북의 1嶋를 도고라고 부르고, 서남의 3嶋를 도젠이라고 부른다. 북위는 35도 59분에서 시작되어 36도 19분에서 그친다. 서경은 6도 24분에서 시작되어 6도 50분에서 그친다. 지세는 대개 礪确해서 沃野가 매우 적다. 동서 10리, 남북 5리, 全嶋를 대별해서 4군으로 하며, 또 이를 소별하면 3정 50촌으로 한다. 군역소를 西郷 中町에 두고 이를 총합한다. 全嶋의

21 倉橋健助, 1884, 『新選嶋根縣地誌略』, 川岡清助·園山喜三右衛門, 「緒言」, 1~2쪽. 겉표지에는 『新選嶋根縣地誌略』이지만, 본문의 첫 쪽에는 『嶋根縣地誌略』이라고 쓰여 있다.

22 倉橋健助, 1884, 위의 책, 1~2, 18쪽.

근해에 礁嶼가 나열한다. 이를 오키의 소도라고 부른다.²³

요컨대, 오키국의 관할지역은 북위 35도 59분부터 36도 19분까지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도를 제외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키국을 비롯한 이즈모·이와미국의 관할지역 경위도는 『島根縣統計表(1882)』의 위치 내 ‘天度’와 일치한다. 『島根縣統計表』는 시마네현이 일본 내무성의 주관 아래 현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항목별로 수집해서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인데, 『島根縣一覽概表』(1873~1879)·『島根縣統計表』(1880~1882)를 거쳐 1884년부터 『島根縣統計書』로 거의 해마다 간행되었다. 이들 통계서에는 시마네현이 현의 관할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세’·‘관할지’·‘위치’ 등의 항목과 「島根縣全圖」도 들어 있다.²⁴ 따라서 구라하시는 『島根縣統計書』 등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오키국의 ‘스키지(周吉誌)’에는 “○ 瀬落灘은 매우 위험하며, 小池가 있다. 그리고 서북에 松嶋의 窟이 있으며, 허다한 海鹿이 여기에 棲息한다”고 서술되었다. 이 내용은 『島根縣管内地誌略 隱岐國地誌略』과 거의 비슷하다. 이로써 ‘松嶋의 窟’이 독도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 ‘오키지’에서 “○ 후쿠우라항은 군의 서북에 있다. 港中の 소도에 辨財天女의 神祠가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되었다.²⁵ 이 내용은 『島根縣管内地誌略 隱岐國地誌略』과 비슷한데, “예부터 민간에 전해진다”는 ‘竹島’ 관련 부분은 전부 빠져 있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竹島가 태정관지령으로 오키국의 관할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구라하시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서 구라하시가 「緒言」에서 ‘改正地誌’에 근거해 『(新選)嶋根縣地誌略』을 집필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이름이 비슷한 사

23 倉橋健助, 1884, 위의 책, 29쪽.

24 한철호, 2017b, 「1905년 2월 이전 島根縣의 관할지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 - 『島根縣統計書』를 중심으로 - 」, 『독도연구』 23 참조.

25 倉橋健助, 1884, 앞의 책, 31~32쪽.

실로도 알 수 있듯이, 이 ‘개정지지’는 사범대학 편찬의 『改正日本地誌略』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1877년 1월 개정’된 『日本地誌略』에는 “西北洋中에 松島와 竹島가 있다”고 기술되었지만, ‘일본전도’와 「山陰道之圖」에는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고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구라하시는 松島와 竹島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시마네현의 관할지역 혹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新選)嶋根縣地誌略』에서 두 섬을 전혀 서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위도상으로도 오키국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구라하시가 이 교과서의 내용을 각 군에 조회해서 완성했다고 밝힌 만큼, 松島와 竹島가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각 군에서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IV. 김정(1886~1903)·국정(1904~1905) 교과서의 시마네현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1886년 4월 소학교 교과서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받는다는 「소학교령(小學校令)」이 공포되고, 그 다음달에 「교과용도서검정조례(教科用圖書檢定條例)」가 마련됨으로써 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1887년에는 이 조례가 폐지되고 검정제 교과서는 관보에 공시한다는 「교과용도서검정규칙(教科用圖書檢定規則)」이 만들어졌다. 교과서는 ‘문부성검정제(文部省檢定濟)’라는 도장을 받아야만 출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890년 10월 개정된 「소학교령」에 근거해 1891년 11월에 마련된 「소학교교칙대강(小學校敎則大綱)」에서는 애국심의 양성이 강화되었으며, 1892년 3월 「교과용도서검정규칙」도 개정되면서 교과서의 내용마저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 8월 「소학교령」의 개정과 「소학교령시행규칙(小學校令施行規則)」의 시행으로 지리는 일본 전체의 지리교재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 세워졌고, 그 목

적도 애국심의 양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개인의 생활보다 국가본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어 1902년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수뢰가 벌어졌던 이른바 교과서의옥(疑獄) 사건을 빌미로 국민교육의 입장에서 소학교 교과서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통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끝에, 1903년 「소학교령」의 개정으로 국정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검정제도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또 검정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1887년 3월 「공사립소학교교과용도서채정방법(公私立小學校教科用圖書採定方法)」이 제정되어 지방장관이 결정한 심사위원이 채택하는 제도가 운영되었다. 1890년에는 「소학교령」 개정으로 소학교 교과용도서는 문부대신이 검정한 것에 대해 소학교도서심사위원이 심사해 부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됨으로써 검정제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부현지사(지방장관)가 임명한 심사위원에는 처음에 심상사범학교교장·교원과 소학교 교원, 지방경제의 정황에 정통한 자들이 참여했지만, 점차 민간인이 제외되면서 1900년 「소학교령」 개정 후 소학교교원마저 빠지고 부현의 관리들이 늘어남으로써 관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²⁶

한편 검정제도 아래에서도 부현지사령 등 지방의 지지를 주로 다루었던 교과서는 전국의 모든 부현에서 출판되었다. 이는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에서 “지리는 학교 근방의 지형, 그 향토 군구(郡區)”부터 시작하며, 또 「소학교교칙 대강」에서도 “향토의 지형, 방위 등 아동이 일상에서 목격하는 사물에 대해 단서”를 연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지지교과서도 문부성의 검정을 받게 되었다. 지방 지지교과서는 부현별로 만들어졌는데, 일본지리를 학습하기 전에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⁷

26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166~175, 177~178, 244~246, 330~333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30~38, 57~59쪽.

27 海後宗臣 編纂, 1966, 앞의 글, 611쪽; 中川浩一, 1978, 위의 책, 210~213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위의 책, 160쪽.

1. 蘆谷重教·渡部寛一郎, 『島根縣地理小學』

『島根縣地理小學』은 도치기현(栃木縣)의 평민 아시아 시게노리(蘆谷重教)와 시마네현의 사족 와타나베 간이치로(渡部寛一郎)가 1887년에 발행한 지리교과서이다. 이들 중 와타나베는 단순한 사족이 아니라 시마네현의 대표적인 교육자였다. 그는 1854년 이즈모국 마쓰에(松江)에서 태어나 1865년 松江藩校인 修道館에서 수학하고 皇漢學寮長心得에 임명되었다. 維新 후 학제 공포로 그는 雜賀小學校教員(1872)·大原郡의 木次小學校 초대 교장(1874)에 이어 關嶺廣島師範學校에 입학해 교육자로서 처음으로 정식 교육을 받았으며, 1875년 졸업 후 松江師範學校·松江中學校에 부임하였다. 1882년 그는 시마네현의 學校取調委員으로 선발되어 1년간 東京師範學校에서 공부했는데, 재학 중 東京體操傳習所에 입학해 학교체육을 배우기도 하였다.

1883년 시마네현으로 돌아온 와타나베는 松江師範學校·松江中學校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으나 부당한 인사 조치로 1884년 사임했다가 1년 만에 복직했으며, 1887년 개명된 尋常師範學校·尋常中學校에 근무하다가 1888년 10월 사직하고 進取學館을 창립하면서 시마네현의 사립으로는 최초로 女子科를 설치하였다. 이 학관은 1890년 10월에 松江義塾과 합병되어 私立尋常中學 修道館으로 바뀌었다가 1907년 縣立工業學校를 설립하기 위해 校舎를 양도하고 폐교되었다. 이해 그는 浜田高等女學校 校長으로 부임해 1916년까지 재직했으며, 松江市教育會長과 島根縣會議員 등을 역임하였다.²⁸ 요컨대, 그는 시마네현의 대표적인 교육자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島根縣地理小學』에 그는 ‘시마네현 사족’으로 소개되었지만, 당시 松江師範學校와 松江中學校 재직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28 樋野俊晴, 1999, 「明治を動かした教育者 渡部寛一郎先生」, 『研究紀要』10(島根縣立松江東高等學校); 日外アソシエーツ, 2004, 『20世紀日本人名事典』, <https://kotobank.jp/word/%E6%B8%A1%E9%83%A8+%E5%AF%9B%E4%B8%80%E9%83%8E-1658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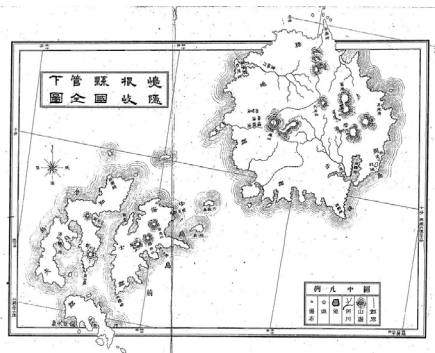
아시아와 와타나베는 기존에 시미즈와 구라하시의 시마네현지지가 “편찬의 次序 모두 通常의 地誌體여서 開發的 教授의 실용에 適當하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 『島根縣地理小學』을 편찬하였다. 또 그들은 “대체로 지지를 가르치는 데 설문법에 의거해 먼저 지도를 연구토록 해 대략 관념을 만든 연후에 각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의 순서에 따라 구술시켜야 한다”거나 “지도는 수업할 때 항상 이를 열어놓고 본서와 대조해 지리상의 관념을 공고하게 할 것이다”고 지도의 활용을 매우 중시하였다.²⁹

이러한 집필방침에 충실한 듯 『島根縣地理小學』은 ‘總論’과 國別 地誌로 구성되었는데, ‘총론’ 앞에는 「島根縣全圖」, 국별 지지 앞에는 ‘○○國地名略表’와 「島根縣管下○○國全圖」가 각각 실려 있다. 우선 ‘총론’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시마네현은 산인도 중의 서부에 위치하는 이즈모, 이와미, 오키의 3국을 관할한다. 서남은 야마구치 및 히로시마 2현에 접하고, 동은 돗토리현에 이웃하며, 북방 일대는 일본해에 면한다. 위도는 적도로부터 북 34도 18분에서 시작되어 36도



지도 1 「島根縣全圖」



지도 2 「島根縣管下隱岐國全圖」(『島根縣地理小學』)

29 蘆谷重教·渡部寛一郎, 1887, 『島根縣地理小學』, 鈴木吉蔵, 「緒言」, 1~2쪽.

19분에서 끝난다. 경도는 東京城으로부터 서 6도 24분에서 시작되어 8도 6분에
서 그친다.³⁰

위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新選)嶋根縣地誌略』과 비교해보면, “북 일면
은 外洋에 瀕한다”가 “북방 일대는 일본해에 면한다”로 바뀌었을 뿐 시마네현
의 관할지역 경위도는 일치한다. 즉, 시마네현의 북쪽 위도는 36도 19분으로,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嶋根縣全圖」에도 이 내용에 상응해서 오키까지만 그
려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되었다.

‘隱岐誌’의 ‘위치’는 “北海에 孤立된 島國으로 東北에 있는 1도를 도고라
고 부르며, 서남에 있는 3도를 도젠이라고 부른다”고, ‘島嶼’는 “松島·大森島
는 도젠·도고 사이에 있으며 小島들 중 稍大한 것이다”고, ‘港灣’은 “오키군의
서북에 福浦港이 있다”고만 각각 간단하게 서술되었을 뿐이다. 여기에서 ‘도서’
의 ‘松島’는 도젠과 도고 사이에 있는 섬으로 독도가 아니다. 시마네현의 관할
지역 범주에서 제외된 울릉도와 독도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다.³¹ 이 내
용과 부합해서 「嶋根縣管下隱岐國全圖」에도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다. 따라서
「序言」에 의거해 지도와 본문을 대조하면, 자연스럽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
토 혹은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교과서의 「序言」 오른쪽 날개에 ‘明治20년 2월 26일 內務省交
付’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날짜는 교과서가 발행된 직후
라고 여겨진다. 즉, 독도가 시마네현 관할지역에서 경위도상으로 제외되고 「島
根縣全圖」와 「嶋根縣管下隱岐國全圖」에도 그려져 있지 않은 『嶋根縣地理小
學』은 판권면허를 얻어 발행된 직후에 내무성에 교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
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마네현뿐 아니라 이를 행정관할하고 있던
내무성도 인정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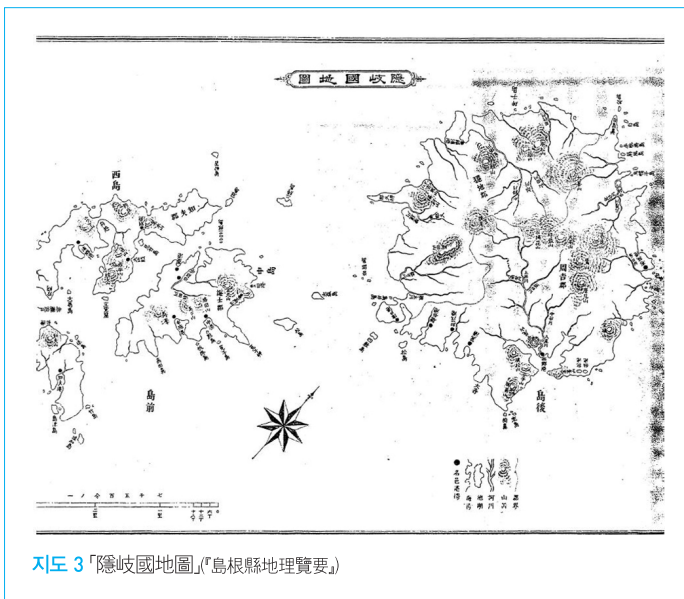
30 蘆谷重教·渡部寛一郎, 1887, 위의 책, 1쪽.

31 蘆谷重教·渡部寛一郎, 1887, 위의 책, 20~21쪽.

2. 林定治, 『島根縣地理覽要』

『島根縣地理覽要』는 島根縣 邑智郡 川戶小學校의 訓導 하야시 사다하루(林定治)가 1887년에 집필하고, 전 島根縣 제2중학교 1등 敎諭 오카 데쓰(大岡哲)가 校閱한 지리교과서이다. 하야시는 1886년에 구라하시의 『(新選)嶋根縣地誌略』을 해설한 『新選島根縣地誌略詳解』를 집필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그는 ‘隱岐의 小島’에 대해 “隱岐 全島를 가리켜서 말하는 고대의 명칭이다. 본문 근해에 있는 소도를 말하는 것 같은 것은 아마 오류일 것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놓았다.³²

하야시는 “島根縣地誌는 이미 선배의 저술이 있는 것이 몇 종 있지만, 모두 다른 縣人의 撰으로 나온” 탓에 오류가 적지 않아서 부득이 『島根縣地理覽要』를 집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出雲·石見·隱岐地誌略 및 新選島根



지도 3 「隱岐國地圖」(『島根縣地理覽要』)

32 林定治, 1886, 『新選島根縣地誌略詳解』, 林定治, 「序言」1쪽, 11쪽.

縣地誌略, 島根縣一覽概表, 日本地誌提要, 兵要日本地理小誌 등”을 참작해 초고를 작성하고, 또 이를 각 군의 교육자에게 訂正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地理小學을 모방해 제목을 붙이고 그 사실을 기록했지만, 관계있는 것은 제목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附記”했으며, “國郡의 형세 및 산천·名邑의 위치 등을 본문과 대조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지도를 삽입하였다.³³

『島根縣地理覽要』도 ‘總論’과 國別 地誌로 구성되었는데, 국별 지지 뒤에 「○○國地圖」가 실렸고, 附錄으로 ‘出雲國驛路表’·‘石見國驛路表’가 들어 있다. 먼저 ‘총론’의 ‘경계·구획’에는 “시마네현은 산인도의 극서에 위치한다. 이즈모·이와미·오키의 3국으로 이루어진다. 서남은 야마구치 및 히로시마 2현에 접하고, 동은 돗토리현에 이웃하며, 북은 外洋에 枕한다”고 서술됨으로써 기존 교과서와 비슷하다. 국별 지지에서 국의 관할지역 경위도를 기술했는데, 이즈모국은 북위 34도 56분~35도 35분과 서경 6도 26분~7도 12분, 이와미국은 북위 34도 18분~35도 16분과 서경 7도 2분~8도 6분으로 『(新選)嶋根縣地誌略』과 동일하다.³⁴ 오키국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오키국은 이즈모국 시마네군의 北方海中에 고립한 小島로서 동북의 1도를 도고라고 부르고, 서남의 3도를 도젠이라고 부른다. 북위 35도 59분 30초에서 시작된다. 36도 20분 11초에서 그친다. 서경은 6도 21분 38초에서 시작된다. 6도 48분 1초에서 그친다. 본국의 屬島 179[개]가 있다. 이를 총칭해서 오키의 소도라고 부른다.³⁵

33 林定治, 1887, 『島根縣地理覽要』, 林定治, 「序言」1~2쪽.

34 林定治, 1887, 위의 책, ‘出雲國’ 1쪽; ‘石見國’ 1쪽.

35 林定治, 1887, 위의 책, ‘隱岐國’ 1쪽.

오키국의 관할지역 경위도는 북위 35도 59분 30초~36도 20분 11초로 초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이는 『(新選)嶋根縣地誌略』과 다르지만, 물론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隱地郡’의 ‘항만’에는 “후쿠우라항은 서북에 있다. 2심 반부터 8심 여에 이른다”고 서술되었고, ‘島嶼’에는 大森島·四敷島·鳥井島·音部島·神子島 등만 소개되었다.³⁶ 이에 상응해서 『隱岐國地圖』에도 시마네현의 관할지역 범주 밖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요컨대, 하야시 역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하야시가 『島根縣地理覽要』를 집필하면서 참고했던 책들 가운데 이미 살펴본 『出雲·石見·隱岐地誌略』·『(新選)島根縣地誌略』·『日本地誌提要』 외에 『島根縣一覽概表』·『兵要日本地理小誌』·『地理小學』 등에는 과연 독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 우선 『島根縣一覽概表』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시마네현에서 1873~1879년간에 발행한 통계서이다. 『島根縣一覽概表』에는 관할지역이 명기된 지리 항목의 ‘疆域’ 중 ‘天度’ 등과 『島根縣管內略圖』가 있는데, 경위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적은 전혀 없다. 하야시가 『島根縣地理覽要』를 집필했던 당시에는 『島根縣統計表』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는데, 여기에도 『島根縣一覽概表』와 마찬가지로 시마네현 관할지역의 경위도에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1877년 3월에 시마네현에 내려진 태정관지령이 정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단, 그가 왜 『島根縣統計表』가 아니라 『島根縣一覽概表』를 참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³⁷

다음으로 『兵要日本地理小誌』는 陸軍兵學寮가 1873년에 발행한 지지로, 전략·작전에 관련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전 준비용으로 편찬되었다. 이 책 1에 수록된 「兵要日本地理小誌全圖」 혹은 「大日本全國圖」에는 「樺太州全圖」·「北海道東北隅千島諸島之圖」·「小笠原群島總圖」·「琉球諸島」 등을 비

36 林定治, 1887, 위의 책, ‘隱岐國’ 1, 6쪽.

37 한철호, 2017b, 앞의 글, 22~23, 25~26, 28~32, 38~41쪽.

롯데 자그마한 섬까지 일본의 전 지역이 총망라되어 지역별로 채색되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³⁸ 또한 『兵要日本地理小誌』 3의 ‘山陰道總論’에도 오키를 서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와 짝해서 「山陰道之圖」에도 오키까지만 그려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³⁹ 『兵要日本地理小誌』는 1875년에 개정되어 그 개정판이 민간출판사에 서도 간행되어 소학교 지리교과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야시가 참고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⁰

마지막으로 『地理小學』은 와카바야시 도라사부로(若林虎三郎)가 1883년에 집필한 것으로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지리교과서이다. 『地理小學』 1에 실린 「大日本全圖」에는 부현마다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한 빨간색의 ‘府縣界’선이 선명하게 표시되었는데, 시마네현은 오키 바로 위까지만 그어져 있다. 이 전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아예 그려져 있지 않다.⁴¹ 그가 지리를 학습할 때 지도의 중요성을 주장해 수업시간의 반을 지도를 공부하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했던 점으로 미루어, 「大日本全圖」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地理小學』 2의 ‘山陰道及山陽道’에 있는 ‘해안’ 항목에서도 “도서는 오키 외에 기재할 만한 것이 없다. 오키는 4개의 도서로 이루어졌는데, 그 북방의 일대도를 도고라고 칭하고, 그 서남 3도 [知夫里島・中島・西島]를 도젠이라고 칭한다”고 서술되었다. 이에 짝하는 「山陰道及山陽道地圖」에도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되었다.⁴² 한마디로, 하야시가 참고했던 『地理小學』 등의 모든 도서들에도 독도를

38 陸軍兵學寮, 1873, 『兵要日本地理小誌』 1, 陸軍兵學寮.

39 陸軍兵學寮, 1873, 위의 책 3, 12~13쪽.

40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64~66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144쪽.

41 若林虎三郎, 1883, 1886(재판), 『地理小學』 1, 普及舍, 10~11쪽 사이.

42 若林虎三郎, 1883, 『地理小學』 2, 普及舍, 28쪽; 海後宗臣 編, 1965, 「所收教科書解題」, 『日本教科書大系』 16, 近代編 地理(2), 講談社, 665~666쪽; 中川

가르치거나 배울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3. 渡部寛一郎, 『小學校用 島根縣地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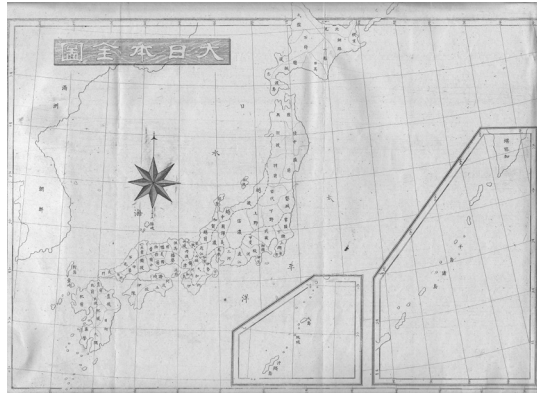
시마네현 사족 와타나베(渡部寛一郎)는 공저인 『島根縣地理小學』에 이어 단독으로 1890년 『小學校用 島根縣地誌』를 내놓았다. 앞에서 살펴본것과, 당시 그는 進取學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책은 島根縣·出雲國·石見國·隱岐國·結末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 마지막에 「地圖演習」과 함께 지도를 실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시마네현에는 「大日本全圖」, 국별로 「○○國全圖」, 마지막 부분에 「島根縣管内全圖」가 들어 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과 지도들을 서로 비교하면, 와타나베가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알 수 있다.

「島根縣」항목에는 ‘位置’·‘縣廳’·‘分割’ 등이 간단하게 서술되었다. ‘위치’에는 “시마네현은 산인도의 서부에 위치하며, 이즈모, 이와미, 오키의 3국을 占한다”고 기술되었을 뿐이며, ‘분획’ 역시 3국에 속한 군의 이름만 적혀 있다. 「大日本全圖」를 근거로 삼은 「지도연습」은 “(1) 시마네현의 위치를 묻는다. (2) 그 경계를 말한다. (3) 산인도의 위치를 묻는다. (4) 시마네현은 몇 개 國으로 이루어졌는가?”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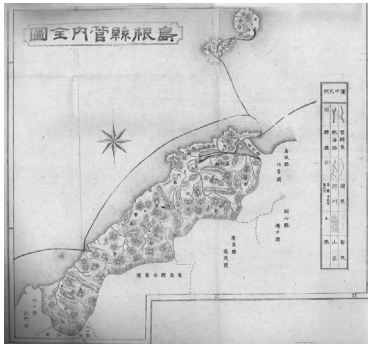
그 해당지도인 「大日本全圖」를 보면, 동해안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채 아르고노트섬과 울릉도 위치에 섬이 그려져 있는데, 비록 경위도는 부정확하지만 울릉도와 독도라고 판단된다. 이는 와타나베가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선의 해안 부근에는 두 섬 외에 제주도 등 다른 섬들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섬이 일본영토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隱岐’를 비롯해 ‘對馬’와 ‘佐渡’에는 명칭이 쓰였고, 일본의 국경 끝인 ‘千島

浩一, 1978, 앞의 책, 149~153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152~1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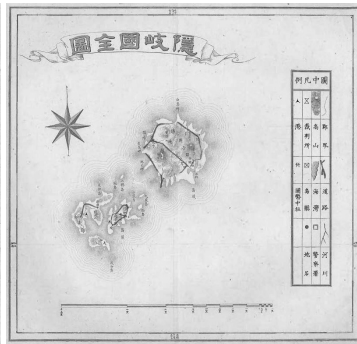
諸島'와 '沖繩島'는 별도의 부분도로 그려지면서 역시 명칭이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명칭이 표기되지 않은 두 섬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도만으로 근거하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⁴³ 하지만 와타나베가 그 이전에 공동으로 저술했던 『島根縣地理小



지도 4 「大日本全圖」(『小學校用 島根縣地誌』)



지도 5 「島根縣管内全圖」



지도 6 「隱岐國全圖」(『小學校用 島根縣地誌』)

43 渡部寛一郎 編輯, 坪井仙次郎 校閲, 1890, 『小學校用 島根縣地誌』, 川岡清助, 1~3쪽.

學』에서 시마네현의 극북을 36도 19분이라고 기록한 사실로 보건대, 그 극북의 위쪽에 그려진 두 섬을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오키국은 ‘西郷’·‘島前’·‘島後’로 나누어 기술되었다. 독도와 관련된 ‘島後’의 ‘위치’에는 “도고는 도젠의 동북에 있다. 오키국의 大島이다. 동부를 스키 군으로 하고, 서부를 오키군으로 한다”고, ‘해안’에는 “많이 출입해서 갑만이 적지 않다. 西郷港·布施港·福浦港이 있다. 白崎鼻·白島岬·那久岬·長尾岬이 있다”고 각각 서술되었을 뿐이다. 여기에는 ‘島前’에 있는 ‘도서’ 항목도 없기 때문에, ‘松島’(독도)는 당연히 거론되지 않았다.⁴⁴

「隱岐國全圖」에 대한 질문인 「隱岐國地圖演習」에는 “(1) 도고의 위치, 경계를 묻는다. (2) 분획을 보여준다.(周吉郡, 隱地郡)”에 이어 岬·港·山 등과 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隱岐國全圖」에는 경위도상으로 보더라도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즉, 오키국에 대한 본문 내용과 「隱岐國全圖」에는 학생들이 독도를 배우거나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⁴⁵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結末’은 시마네현 전체를 개괄하는 ‘면적인구’·‘지세’·‘산’·‘하’·‘해안’·‘海湖’·‘교통’·‘기후’·‘생업’·‘물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오키에 관해서는 “島嶼로 토지가 磽确, 연해 지역에서 약간 평탄하다”(지세), “근해는 魚介가 군집해서 어업의 이익이 막대하다”(해안), “해상에 기선의 항로가 있다.……그 항로는 모두 돛토리현 호키국 사카이항(境港)을 中點으로 삼아,……또 오키국으로 통한다”(항로), “연해 지역의 民은 대개 어업에 종사한다”(생업) 등의 내용이 각각 서술되었다. 독도는 본문에서 전혀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말’에도 등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⁶

「島根縣의 地圖 및 統計表演習」에는 ‘결말’에 관련된 면적·인구·지방세·

44 渡部寛一郎 編輯, 1890, 위의 책, 25~28쪽.

45 渡部寛一郎 編輯, 1890, 위의 책, 28, 28~29쪽 사이.

46 渡部寛一郎 編輯, 1890, 위의 책, 29~32쪽.

주요 물산과 향로 등을 묻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이에 짝하는 「島根縣管内全圖」에는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다. 이처럼 독도가 본문은 물론 「大日本全圖」·「隱岐國全圖」·「島根縣管内全圖」 등의 지도에 전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와타나베는 독도를 시마네현 혹은 일본의 관할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미 그는 이전에 저술했던 『島根縣地理小學』에서 시마네현의 극북이 36도 19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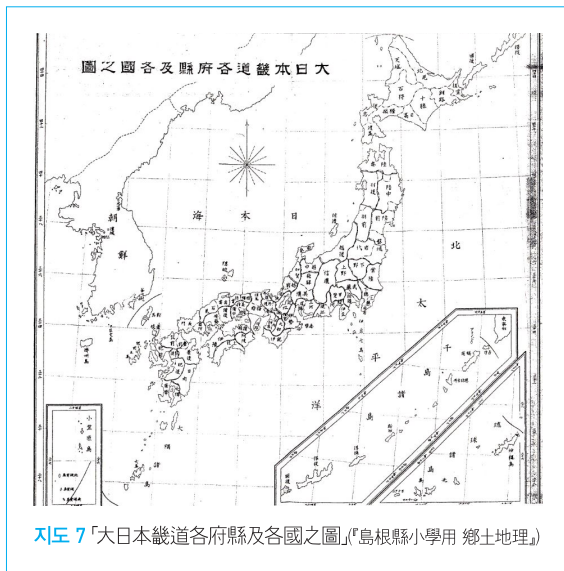
4. 渡邊盈作·増野介臣,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는 시마네현 尋常師範學校 教諭와 訓導로 근무하고 있던 효고현(兵庫縣) 사족 와타나베 에이사쿠(渡邊盈作)와 시마네현 평민 마스노 가이야쓰코(増野介臣)가 1893년에 공동으로 저술한 검정교과서이다. 이들 가운데 와타나베는 1860년 효고현의 사족으로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農事修學場(1876~1879)에서 공부하고 1881년 문부성 직할 체조전습 체육과를 졸업한 뒤 京都府 학무과 등에 근무하면서 체조와 동물학에 관련된 글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1890년 10월 시마네현 심상사범학교 教諭로 임명되었으며, 곧이어 심상중학교 教諭를 겸임하고, 1892년 9월부터 1896년 4월까지 심상사범학교 舍監을 맡았다. 시마네현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시마네현사립교육회에서 편집이사·常議員 등의 간부로 『島根縣私立教育會雜誌』를 발간하거나 집필·강연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는 1896년 4월 사범학교 학생들의 동맹 퇴교사건으로 시마네현을 떠난 뒤 야마구치현과 오사카부(大阪府)의 중학교 등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마스노 역시 와타나베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시마네현사립교육회의 상의원으로 활동하였다.⁴⁷

47 井山明·野津幸夫, 2017, 「博物學の黎明期に多大な影響を與えた教師, 渡邊盈作その著作および關連年表 - 体操傳習所を巢立った「体育・遊戯法」先覺者の明治期島根縣生物教育界への功績 -」, 『ホシザキグリーン財団研究報告』20, 285~314쪽.

이 교과서의「緒言」에 의하면, 이 교과서는 “소학교교칙대강의 旨意에 기반해, 우리 島根縣 下の 소학생들에게 향토지리의 대요를 알도록 하기 위해 편술”되었다. “본과를 교수하는 처음에는 우선 학교 근방의 現象에 대해 지리학상 각개 명칭을 實地에서 이해시키며, 卷首의 地理名稱圖 및 地理用語解와 대비해 居村 근방의 지리에서 충분한 관념을 갖도록 하고, 그런 다음 본문의 교수로 넘어가기를 요한다”는 방침은 “향토의 지형, 방위 등 아동이 일상에서 목격하는 사물에 대해 단서”를 연다는 「소학교교칙대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책의 체제는 “우선 학교 근방의 現象에 대해 지리학상 각개 명칭을 實地에서 이해”시키고 “居村 근방의 지리에서 충분한 관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앞부분에 ‘地理名稱圖’와 ‘地理用語解’를 두었다. 본문은 고등·심상 두 소학에서 통용할 목적으로 綱目體로 기술되었다. 심상소학에서는 綱領만을, 고등소학 및 심상소학 補修科에서는 다시 細目을 가르쳐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하는 법을 취했던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되도록 간략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이를



지도 7 「大日本鐵道各府縣及各國之圖」(『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

보완하기 위해 강령의 위쪽 날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추가로 설명하고, 항마다 이와 인연 있는 역사를 적은 ‘史談’을 말미에 부기함으로써 그 관념을 지리와 연결하는 요소로 삼았으며, 권말에는 부록이 실려 있다.⁴⁸

우선 이 교과서의 맨 앞에 실린 「大日本畿道各府縣及各國之圖」에는 일본 영토의 극단에 위치한 小笠原島・千島諸島・琉球諸島 등이 별도의 지도로 표시됨으로써 국경의 위치와 범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해상에는 오키만 표기되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지도만 볼 경우, 학생들은 독도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다.

본문의 ‘위치’ 강령에는, “시마네현은 산인도의 서부에 있으며, 이즈모・이와미 및 오키의 3국으로 한다”고, ‘경계’에는 “동은 돗토리현에 접하고, 남은 히로시마현에 이웃하며, 서는 야마구치현에 경계를 이루고, 북 일대는 일본해에 면하며, 오키는 그 海中에 있는 島嶼國이다.[……오키는 이즈모의 正北, 일본해 중에 있는 4도 및 79의 소도로 이루어진다. 그 동북의 最大島를 도고라고 부르며, 그 남서의 3도를 도젠(동에 있는 것을 나카노시마[中ノ島], 서에 있는 것을 니시노시마[西ノ島], 남에 있는 것을 치부리지마[知夫島]라고 부른다.)이라고 칭한다.]”고 기술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위치’의 위쪽 날개에 “○ 북위 34도 20분(石見, 鹿足郡, 藏木村)에서 시작되어, 36도 21분(隱岐, 周吉郡, 西村)에서 그친다. 서경 6도 17분(出雲, 島根郡, 美保關)에서 시작되어, 8도 6분(石見, 鹿足郡, 畑ヶ迫村)에서 끝난다”고 추가로 설명된 내용이다.⁴⁹ 즉, 시마네현의 북단을 ‘36도 21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현의 관할지역 범주밖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혔던 것이다. 이는 독도가 隱岐의 小島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본영토에도 소속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大日本畿道各府縣及各國之圖」

48 渡辺盈作・増野介臣 共編, 1893,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 川岡清助, 「緒言」, 1쪽.

49 渡辺盈作・増野介臣 共編, 1893, 위의 책, 1쪽.

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안’ 강령과 세목에도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오키의 주위는 港浦가 매우 많다. 西郷·菱浦·浦港 등은 모두 佳港이다. 특히 西郷港은 일본해 중의 良港이라고 칭한다.[……오키는 원래 島國으로 연안은 굴곡이 심해서 岬灣이 적지 않다. 해상에는 크고 작은 79[개]의 도서가 산포해 십 수리에 걸쳐 있다. 松島·大森島는 그 큰 것이다. 도고의 동남으로 돌출한 것은 西郷岬인데, 서로 향한 것은 那久岬이고, 북으로 돌출해서 동에 있는 것을 白鳥岬이며 서에 있는 것을 長尾崎라고 한다.……후쿠우라항은 重栖川口로서 長尾崎가 그 앞을 둘러안아서 小佳港을 이룬다.……]”는 내용뿐이다. 위에서 언급된 ‘松島’는 독도가 아니라 도젠과 도고 사이에 있는 섬이다.⁵⁰

이처럼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의 「大日本畿道各府縣及各國之圖」와 본문의 내용을 대조·종합해보면, 독도는 오키국 혹은 일본영토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와타나베 등은 “이 책은 처음에 草按에 대해 縣下 교육가의 비평을 청해 그 의견을 採酌·수정”해서 완성했다고 밝혔다.⁵¹ 즉, 지도상이나 경위도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에서 제외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저자들의 비평을 의뢰받은 시마네현 내 교육가들도 아무런 이의나 수정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마네현에 근무하는 교육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는 문무성의 검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고, 현에서도 정식으로 소학교교과서로 정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지만 현내에서는 이 교과서를 채택·사용한 소학교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이는 그 다음해인 1894년 9월에 이 책의 ‘訂正再版’이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간접적으로나마

50 渡辺盈作·増野介臣 共編, 1893, 위의 책, 8~10쪽.

51 渡辺盈作·増野介臣 共編, 1893, 위의 책, 「緒言」1쪽.

입증된다.⁵² 와타나베 등이 심상사범학교와 심상중학교 敎諭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시마네현사립교육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현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5. 後藤藏四郎·足立鋤太郎,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은 고토 구라시로(後藤藏四郎)와 아다치 구와타로(足立鋤太郎)가 1894년에 집필한 지리교과서이다. 이 책의 판권에는 두 사람 모두 마쓰에시에 거주하는 것으로만 소개되었다. 그런데 고토가 1893년 시마네현사립교육회에서 常議員으로 활동했던 점으로 미루어,⁵³ 그 역시 이 교과서를 출판할 당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아다치 역시 고토와 마찬가지로 교사였기 때문에 집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지지와 역사를 합쳐 서술한 교과서이다. 이처럼 지지만 아니라 그 토지의 연혁과 역대 번주(藩主)의 사항 등에 대한 역사교재를 추가한 향토지리역사 교과서는 18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이러한 교과서는 지방지 위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부가된 교재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 역시 이와 체재와 내용이 비슷하다.⁵⁴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은 이즈모국·이와미국·오키국 등 국별로 나누어 서술된 뒤 그 마지막에 국별 지도가 실렸으며, 이어 ‘島根縣約說’로 전체를 개관하고 마지막에 ‘附錄’이 들어 있다. 「山陰山陽ノ諸國」에는 오키까지만 그려졌으며, 이에 대한 ‘지도상의 질문’ 중 산인도에 대해서는 “시마네현은 어느

52 島根縣教育廳總務課 編, 1978, 『島根縣近代教育史』 1, 島根縣教育委員會, 522쪽; 井山明·野津幸夫, 2017, 앞의 글, 300, 308, 312쪽.

53 井山明·野津幸夫, 2017, 위의 글, 300쪽.

54 海後宗臣 編纂, 1966, 앞의 글, 597쪽; 中川浩一, 1978, 앞의 책, 211~213쪽;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160쪽.

道에 속하는가? 산인도의 북에 있는 바다를 말하라. 남에 있는 도의 이름. 산인도의 國 이름” 등이 제시되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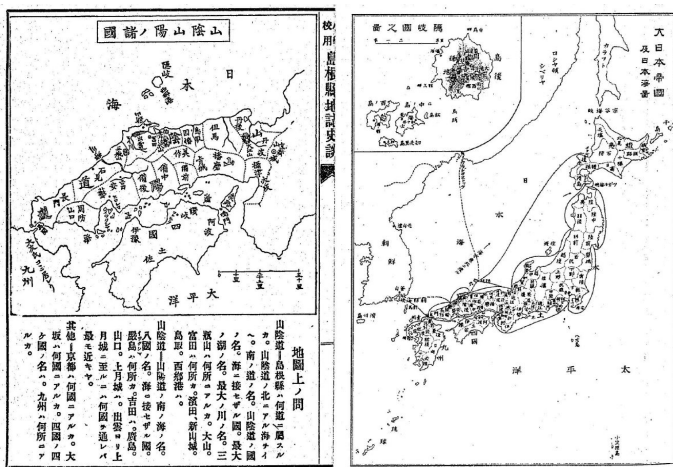
‘隱岐國’은 ‘西郷港’·‘隱岐의 지세’·‘後鳥羽上皇 後醍醐天皇’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西郷港’에는 “隱岐의 인민은 주로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다. 그 중에도 오징어가 유명한 것으로, 隱岐鰯라는 이름이 멀리 해외에 알려졌고, 대규모로 청국에 수출한다”고 서술되었다. ‘오키의 지세’에는 “오키는 4도로 이루어진다. 그 북에 있는 大島를 도고라고 칭하며, 남에 있는 3도를 도젠이라고 칭한다. 기타 小島가 다수 있다. 4군으로 나뉘는데, 周吉·隱地·海士·知夫 등이다”고 서술됨으로써 독도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실린 「大日本帝國及日本海圖」에는 오키는 표시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지도 내 왼쪽 상단에는 「隱岐國之圖」가 있는데, 역시 가장 북쪽은 도고의 白島岬이 표기되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⁵⁶

‘島根縣約說’의 ‘位置區劃’에는 “시마네현은 산인도의 서부에 있고, 이즈모·이와미·오키국으로 이루어진다. 동은 돗토리현에, 남은 히로시마현에, 서남은 아마구치현에 경계를 접하며, 북은 일대가 일본해에 임하고, 오키는 그 해중에 있는 島國이다”고 간략하게 서술되었다. ‘지세, 교통’에서도 오키에 관해서는 “오키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내지에 산이 많아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地味, 생업, 물산’에서는 “오키는 미맥을 생산하지만, 이로써 그 인구를 부양하기는 부족하다. 단 수산물이 풍부해 오징어, 고등어로 얻는 바가 십만 원에 이른다”고 기술되었다.⁵⁷

55 後藤藏四郎·足立楸太郎, 1894, 1897(정정재판),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 川岡清助, 5쪽. 책 표지에 ‘明治28年2月5日 文部省檢定済’라고 적혀 있다.

56 後藤藏四郎·足立楸太郎, 1897, 위의 책, 17, 19쪽.

57 後藤藏四郎·足立楸太郎, 1897, 위의 책, 21, 23쪽.



지도 8 「山陰山陽ノ諸國」

지도 9 「大日本帝國及日本海圖」, 「隱岐國之圖」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

6. 文部省, 『小學地理』

검정제도는 학년의 진행과 학생의 발달에 호응해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이면서 새로운 체제의 근대적 교과서를 전국의 소학교에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00년 이후 검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현저하게 늘어나면서 지방에서 출판하는 교과서가 급속히 감소해갔다. 도쿄의 대형 교과서출판사가 검정교과서의 대부분을 만들면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더군다나 1900년 「소학교령」의 개정 등으로 개인이나 지방이 아니라 국가위주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왔던 수많은 부현 지지교과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간 결과, 지방에 한정되어 사용된 지방교과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⁵⁸ 시마네현의 소학교 지리교과서도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을 마지막

58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앞의 책, 30~31, 60~61쪽.

으로 더 이상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1903년에는 국정교과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검정교과서 자체의 발행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해에 문무성은 『小學日本地理』·『小學萬國地理』·『小學補習地理』 등을 합쳐 최초의 국정 지리교과서인 『小學地理』를 발행하였다. 『小學地理』는 1904년부터 일본 전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시마네현도 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⁵⁹ 『小學地理』 1의 ‘總論’에는 “우리 일본제국은 많은 섬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그 가운데 특히 큰 것은 本州, 四國, 九州, 北海道, 臺灣의 5개이다”고 청일전쟁으로 획득한 대만을 일본영토로 포함해 기술하였다.⁶⁰

『小學地理』 2의 ‘中國地方’에는 “본주의 서부로, 近畿지방의 西에 잇닿는다. 그 중에는 因幡·伯耆·出雲·石見·隱岐……長門의 12국이 있다. 이것을 행정상 岡山·廣島·山口·鳥取·島根의 5현으로 나눈다. 이 지방에서는 일련의 산맥이 동서로 걸쳐 있어서 지세를 山陰·山陽의 兩面으로 나눈다”라고 中國地方의 위치와 구성, 지세 등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었다. 그리고 ‘島根縣(出雲, 石見, 隱岐)’에는 “隱岐는 일본해 중에 있고, 도젠·도고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오징어가 많이 난다. 도고에 西郷港이 있다”고 간략하게 서술되었을 뿐이다.⁶¹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小學地理』에 각 지방과 현별로 그 관할지역에 해당되는 지도가 실려 있다는 점이다. ‘中國地方’에 관한 지도를 보면, 오키를 포함한 12국이 국별로 경계가 표시되었는데, 독도는 오키의 범주를 표시한 등심선에 포함되지도 않고 별도의 지도로도 그려져 있지 않다. 「島根縣(出雲, 石見, 隱岐)」에도 오키의 도젠과 도고 주변까지만 등심선이 그려져 있을 뿐 울릉도

59 海後宗臣 編, 1965, 앞의 글, 673~675쪽.

60 文部省, 1903, 『小學地理』 1, 文部省, 1쪽.

61 文部省, 1903, 『小學地理』 2, 文部省, 20~21, 30쪽; 윤소영, 2013, 앞의 글, 390~392쪽.



지도 10 '中國地方'

지도 11 「島根縣(出雲, 石見, 隱岐)」(『小學地理』)

와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⁶² 따라서 본문의 내용과 두 지도를 종합해 살펴보면,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에 포함된 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V. 맺음말

일본 정부는 무주지선점론과 모순되는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신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62 文部省, 1903, 위의 책 2, 20, 28쪽.

태정관지령(1877) 등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와 지도·해도뿐 아니라 문부성의 검정 등을 거친 지리교과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의 독도 강점 이전 시마네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소학교 지리교과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05년 2월 이전에 시마네현에서 사용된 소학교 지리교과서 7종을 발굴해 시마네현 혹은 오키의 관할지역과 지세·위치 등에서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분석해보았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새롭게 밝힌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시마네현 지리교과서들 가운데 최초인 시미즈의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1880)에는 유일하게 ‘竹島’(울릉도)가 서술되었지만 ‘松島’(독도)는 거론되지 않았다. 200년 전 막부시대에 요나고의 무라카와·오야 양가 사람들이 ‘竹島’로 출항할 때 辨財天女の神祠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예부터 민간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미즈는 1696년 막부의 竹島渡海禁止令으로 더 이상 竹島 출항이 이뤄지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竹島’·‘松島’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태정관지령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참고했던 『日本地誌略』에 기술된 松島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松島를 竹島의 부속섬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改正日本地誌略』 등을 근거로 집필된 구라하시의 『(新選)嶋根縣地誌略』(1884) 등 나머지 모든 시마네현 지리교과서들의 본문에서 松島와 竹島가 전혀 기술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둘째, 시마네현 지리교과서들에는 시마네현 혹은 오키의 관할지역을 경위도상으로 규정하면서 독도를 분명하게 제외하였다. 시마네현과 오키의 극북 위도가 구라하시의 『(新選)嶋根縣地誌略』과 아시아·와타나베의 『島根縣地理小學』(1887)에는 36도 19분으로, 하야시의 『島根縣地理覽要』(1887)에는 36도 20분 11초로 각각 기재되었던 것이다. 특히 와타나베·마스노의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1893)에는 위도와 함께 해당 지명이 36도 21분(隱岐, 周吉郡, 西村)으로 서술됨으로써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지역 범주밖에 있다는 사실을 확

실하게 밝혀놓았다. 이러한 시마네현 혹은 오키의 관할지역 경위도는 당시 시마네현에서 거의 해마다 간행한 『島根縣一覽概表』·『島根縣統計表』·『島根縣統計書』 등을 참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시마네현 지리교과서들에 실린 隱岐國·島根縣·日本全圖 등의 지도에는 관할지역의 경계가 표시되었는데,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島根縣地理小學』의 「島根縣全圖」와 「島根縣管下 隱岐國全圖」, 『島根縣地理覽要』의 「隱岐國全圖」, 와타나베의 『小學校用 島根縣地誌』(1890)에 실린 「隱岐國全圖」과 「島根縣管内全圖」, 고토·아다치의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1894) 내 「山陰山陽의 諸國」과 「隱岐國之圖」 등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의 「大日本畿道各府縣及各國之圖」,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의 「大日本帝國及日本海圖」에도 일본영토의 극단인 千島諸島 등이 그려져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 단, 『小學校用 島根縣地誌』의 「大日本全圖」에는 울릉도와 독도로 여겨지는 두 섬이 그려져 있는데 이름은 기재되지 않은 반면, 일본영토의 경계인 섬들에는 명칭이 쓰여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교과서에 실린 「隱岐國全圖」·「島根縣管内全圖」와 본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두 섬을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지리교과서 집필자들은 주로 시마네현 소재 소·중·사범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었다. 신분이 사족으로 소개된 사람들도 현직 교사로 확인되며, 혹 교사가 아니더라도 학교 교육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들 중에는 학교를 창립하거나 시마네현사립교육회 등 교육단체의 간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계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마네현의 대표적인 교육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집필자들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마네현 소재 학교나 관청에 근무하는 교사·관리들에게 초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정해서 완성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마네현의 교육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文部省이 편찬·발행한 최초의 국정 지리교과서인 『小學地理』 2에도 오키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되었을 뿐 독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中國地方’과 「島根縣(出雲, 石見, 隱岐)」 등의 지도가 실려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中國地方’에는 隱岐를 포함한 12국이 국별로 경계가 표시되었고 「島根縣(出雲, 石見, 隱岐)」에도 隱岐의 島前과 島後 주변까지만 등심선이 그려져 있지만, 모두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과 두 지도를 종합해 보면,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에 포함된 섬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에서 사용되었던 소학교 지리교과서에는 본문뿐 아니라 지도에서 모두 독도가 일본영토 혹은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특히 시마네현과 오키의 관할지역 범주를 경위도상으로 명기하면서 독도를 분명하게 포함하지 않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시마네현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사들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할 수 없었고, 학생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배울 수 없었다. 더욱이 시마네현 소학교 지리교과서는 교사들 사이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거나 일본 문부성의 엄격한 조사·인가·검정을 거쳐 발행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발행된 국정교과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시마네현에서 사용된 지리교과서는 시마네현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참고문헌

저서

- 나이토 세이쥬 저, 권오엽·권정 역, 2005, 『독도와 竹島』, 제이앤씨.
- 다케우치 다케시 저, 송휘영·김수희 역, 2013,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선인.
- 岡田俊裕, 1992, 『近現代日本地理學思想史—一個人史的研究—』, 古今書院.
- _____, 2000, 『日本地理學史論—一個人史的研究—』, 古今書院.
- _____, 2002, 『地理學史—人物と論争—』, 古今書院.
- _____, 2011, 『日本地理學人物事典 近代編1』, 原書房.
- 島根縣教育廳總務課 編, 1978, 『島根縣近代教育史』1, 島根縣教育委員會.
-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1980, 『近代教科書の變遷—東京書籍七十年史—』, 東京書籍株式會社.
- 文部省, 1972, 『學制百年史』, 帝國地方行政學會.
- 中山修一, 1997, 『近・現代日本における地誌と地理教育の展開』, 広島大學總合地誌研究資料センター.
- 中川浩一, 1978, 『近代地理教育の源流』, 古今書院.
- 池內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 _____,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關係史—』, 中央公論新社.
- 倉澤剛, 1963, 『小學校の歴史』, ジャパンライブラリービューロー.
- 海後宗臣·仲新, 1979, 『近代日本教科書總說 解説篇』, 講談社.

논문

- 박병설, 2007,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다케시마=독도 인식」, 『일본 독도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논문집』,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회[朴炳涉, 2008,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28].
- 심정보, 2017,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의 고찰」, 『독도 연구』23.

-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윤소영, 2005, 「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인식」, 『독도연구』 1.
- _____, 2013, 「근대 일본 관찬 지지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 한철호, 2017a, 「明治期 아마카미(山上萬次郎)의 일본 지리교과서·부도 집필과 독도 인식」, 『도서문화』 50.
- _____, 2017b, 「1905년 2월 이전 島根縣의 관할지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島根縣統計書』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23.
- _____, 2018, 「일본 메이지시기 오카무라 마스타로(岡本増太郎)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독도연구』 24.
- 島津俊之, 2005, 「明治前期の郷土概念と郷土地理教育」, 『和歌山地理』 25.
- 井山明·野津幸夫, 2017, 「博物學の黎明期に多大な影響を與えた教師, 渡邊盈作その著作および關連年表-体操傳習所を巢立った「体育・遊戲法」先覺者の明治期島根縣生物教育界への功績-」, 『ホシザキグリーン財団研究報告』 20.
- 下條正男, 2009, 「朴炳涉氏の「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號)を駁す」, Web竹島問題研究所.
- 海後宗臣 編纂, 1966, 「地理教科書總解説」, 『日本教科書大系』 17, 近代編 地理(3), 講談社.

자료

- 蘆谷重教·渡部寛一郎, 1887, 『島根縣地理小學』, 鈴木吉藏.
- 渡部寛一郎, 1890, 『小學校用 島根縣地誌』, 川岡清助.
- 渡邊盈作·増野介臣, 1893,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 川岡清助.
- 林定治, 1886, 『新選島根縣地誌略詳解』, 林定治.
- 倉橋健助, 1884, 『新選嶋根縣地誌略』, 川岡清助·園山喜三右衛門.
- 清水清太郎, 1880,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 清水清太郎.
- 後藤藏四郎·足立鍬太郎, 1894, 1897,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 川岡清助.
- 文部省, 1903, 『小學地理』 1-2, 文部省.
- 師範學校 編輯, 1874, 『日本地誌略』 3, 文部省.

師範學校 編輯, 1874, 『改正日本地誌略』1, 文部省.
_____, 1878, 『改正日本地誌略』1-3, 文部省, 文心堂.
若林虎三郎, 1883, 1886, 『地理小學』1-2, 普及舎.
正院地誌課 編, 1878, 『日本地誌提要』50, 日報社.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小學校) 지리 교과서의 현(縣)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한철호

일본 정부는 무주지선점론과 모순되는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신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독도 강점 이전 시마네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소학교 지리교과서에도 잘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 소학교 지리교과서 7종을 발굴해 시마네현·오키의 관할지역을 분석하고 독도 인식을 살펴보았다.

시마네현 지리교과서들 가운데 최초인 시미즈의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에는 유일하게 ‘竹島’(울릉도)가 서술되었지만 ‘松島’(독도)는 거론되지 않았다. 200년 전 막부시대에 요나고의 무라카와·오야 양가 사람들이 ‘竹島’로 출항했던 사실만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그는 1696년 막부의 竹島渡海禁止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의 모든 시마네현 지리교과서들에는 松島와 竹島가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시마네현 지리교과서들에는 시마네현·오키의 관할지역을 경위도상 최대 36도 21분으로 규정하면서 독도를 분명하게 제외하였다. 이러한 시마네현·오

키의 관할지역 경위도는 당시 시마네현에서 간행한 『島根縣一覽概表』·『島根縣統計書』 등을 참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마네현 지리교과서의 오키·시마네현·일본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된 적이 없다. 단, 『小學校用 島根縣地誌』의 「大日本全圖」에는 울릉도·독도로 여겨지는 두 섬이 이름은 기재되지 않은 반면, 일본의 경계에 해당되는 섬들에는 명칭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의 오키·시마네현전도와 본문에 울릉도·독도가 없기 때문에, 두 섬을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리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주로 시마네현의 소·중·사범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를 창립하거나 교육단체의 간부로 적극 활동하였다. 집필자들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시마네현의 교사·관리들에게 초고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은 시마네현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문부성이 편찬·발행한 최초의 국정 지리교과서인 『小學地理』에도 독도는 서술되지 않았고, 中國地方과 「島根縣」 등의 지도에도 오키의 주변까지만 등심선이 그려져 있다. 이처럼 본문과 두 지도에서는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에 포함된 섬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에서 사용되었던 소학교 지리교과서에는 본문뿐 아니라 지도에서 모두 독도가 일본영토 혹은 시마네현의 관할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정교과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교사들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할 수 없었고, 학생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배울 수 없었다.

주제어: 독도(‘松島’), 울릉도(‘竹島’), 시마네현, 일본지리교과서,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1880), 『(新選)嶋根縣地誌略』(1884), 『島根縣地理小學』(1887), 『小學校用 島根縣地誌』(1890), 『島根縣地理覽要』(1887),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1893),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1894), 『小學地理』(1903)

ABSTRACT

The Description of Shimane Prefecture's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Dokdo in the Geography Textbooks of Shimane Prefecture's Primary Schools until February 1905

Han Cheolho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describe Dokdo as Japanese territory in the textbooks for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s the description of the prefecture's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of Dokdo in the geography textbooks of Shimane Prefecture's primary schools until February 1905.

“Takeshima” (Ulleungdo) was written only in the *Shimane-ken kannai Oki-kuni chishiryaku*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 1880), by Shimizu. But the fact that Murakawa and Oya had gone to Takeshima by boat 200 years earlier supports that he knew of the Order Banning Passage to Takeshima (1696). “Matsushima” (Dokdo) and “Takeshima” were not written in other geography textbooks.

The coordinates of extreme north of Shimane Prefecture were

36°21' North Latitude in the geography textbooks. However, Dokdo was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prefecture. It is certain that the writers of geography textbooks referred to *Shimane-ken Ichiran gaihyō* (島根縣一覽概表), the *Shimane-ken Tōkeihyō* (島根縣統計表), and other materials.

Dokdo and Ulleungdo were not drawn on the maps of the Geography Textbooks of Shimane Prefecture's primary schools. Dokdo and Ulleungdo were drawn only on the maps of Japan, such as *Dai-Nihon zenzu* (『大日本全圖』) in *Shōgaku kōyō Shimane-ken chishi* (小學校用 島根縣地誌, 1890), but were not considered as a Japanese territory.

The writers of geography textbooks were teachers in Shimane Prefecture's primary and middle education schools. Therefore, they must have been aware of the fact that Dokdo was not part of Japanese territory. The fact that these geography textbooks were authoriz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shows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recognize Ulleungdo an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before February 1905.

Keywords: Dokdo (Matsushima), Ulleungdo (Takeshima), Oki (隱岐), Shimane Prefecture, Japanese Geography Textbook, *Shimane-ken kannai Oki-kuni chishiryaku* (島根縣管内 隱岐國地誌略, 1880), (*Shinsen*) *Shimane-ken chishiryaku* [(新選) 島根縣地誌略, 1884], *Shimane-ken chiri shōgaku* (島根縣地理小學, 1887), *Shōgaku kōyō Shimane-ken chishi* (小學校用 島根縣地誌, 1890), *Shimane-ken chiriran yō* (島根縣地理覽要, 1887), *Shimane-ken shōgaku yō Kyōdo chiri* (島根縣小學用 郷土地理, 1893), *Shōgaku yō Shimane-ken chishi shidan* (小學校用 島根縣地誌史談, 1894), *Shōgaku chiri* (小學地理, 1903)

이선근의 삶의 궤적과 시대 담론, 그리고 역사 인식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함충범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이승만 정권의 '충실한 일원'으로서 이선근의 50년대
- III.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시대 담론'의 발신
- IV. 근대사에 관한 연구 활동과 '혁신적 민족주의'에의 가치 부여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근현대 한국사학자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이선근이다. 1905년생으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격변의 세월을 몸소 겪으면서도 1983년 숨을 거둘 때까지 80세에 가깝게 생을 이어 갔다는 점도 그러하거니와,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공직과 총장직, 기관장 등을 많은 횟수에 걸쳐 두루 거쳤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일제시기 이후 대학에서 최근세사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자”라는 점에서¹ 그는 한국 역사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이에, 지금까지 한국사학계에서는 이선근에 관한 연구가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하여 관련 논문들이 발표됨으로써 괄목할 만한 연구 진척이 이루어진 바 있다.

박찬승은 구양근(1994)과 로버트 오펜하임(Robert Oppenheim, 2001)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들이 다루지 못한 지점에 관해 논하였다. 즉, 이선근의 전 생애를 시야에 넣고 그의 최근세사 연구의 동향과 그 역사적 관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민족사관’으로 귀결되는 “그의 한국사 체계”에 대해 규명하였다.²

박찬승이 해방 이후 이선근의 정치 활동의 기저를 이룬 역사관을 ‘화랑도’ 연구에서 찾았던 데 비해, 허은과 손수범은 공통적으로 1970년대 이선근의 관변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허은은 당시 이선근이 ‘역사학자이자 이데올로그로

* 투고: 2018년 2월 10일, 심사: 2018년 5월 10일, 재심사: 2018년 8월 5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1 박찬승, 2006,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와 역사관』,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3』, 아연출판부, 193쪽.

2 박찬승, 2006, 위의 글, 194쪽.

서' 박정희(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안보위기론'을 주창하고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역사 인식의 퇴행을 보"였음을 지적하였다.³ 손수범의 경우, "사학자이면서도 동시에 교육자인" 이선근의 저서 『한민족의 국난극복사』(1978)에 집약되어 있는 그의 역사 인식이 1974년부터 도입된 중·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였다.⁴

한편, 후지이 다케시는 1950년대 중반 이승만 정권하 교육 현장에서 "반공 교재가 출현하게 되는 역사적 맥락"과 그 정치적 성향의 중심에 당시 문교부장관으로 있던 이선근을 위치시키고 이에 관한 심층적 고찰을 시도하였다.⁵ 또한 박성현은 1970년대 유신 정권기 화랑도 교육에 관한 '내용의 연원과 관철의 방식'을 다루면서 당대 "화랑도 교육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역시 이선근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충실한 '이데올로기 제공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⁶

이렇듯 이선근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관변 사학자, 교육자, 공직자, 기관장으로서의 그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많은 경우 박정희 정권기, 그중에서도 1970년대 유신체제기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시기가 있으니, 바로 1950년대 이승만 정권기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역사학자 이외의 일들을 경험해 오던 그가 대학 교수와 총장, 장관과 각종 단체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권력의 편에 다가선 시기였기에 그러하다. 동시에 당시는 이선근이 본인의 위치에서 각종 논단을 통해 시대

3 허은, 2008, 「안보위기론의 주창자, 이선근」, 『내일을여는역사』 31집, 내일을여는역사, 116, 119쪽.

4 손수범, 2009, 「이선근의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사교과서」, 『역사와역사교육』 19집, 웅진사학회, 88쪽. 한편,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표된 동일 저자의 학위논문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손수범, 2009, 「이선근 저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연구 : 국사교과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5 후지이 다케시, 2013, 「1950년대 반공 교재의 정치학」, 『역사문제연구』 30호, 역사문제연구소, 53쪽.

6 박성현, 2015, 「박정희 정권의 '화랑도(花郎道)' 교육 : 내용의 연원과 관철의 방식」, 『역사와현실』 96집, 한국역사연구회, 66쪽.

담론을 강화하는 한편 기저에서 자신의 역사 인식을 명분화하는 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은 1960년대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박정희 정권하 그의 관변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이선근의 1950년대 삶에 주목한 것으로는 후지이 다케시의 학술논문 정도에 불과하며 이 역시도 이선근이 문교 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반일·반공 교육 활동에 천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50년대 이선근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가 주창하던 시대 담론에 관해 탐구하며, 기저에 깔려 있던 역사 인식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도 그 범주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한다. 또한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당대 신문 기사들을 정리·해독함을, 시대 정신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그의 주요 저작들을 분석·해석함을 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 삼고자 한다.⁷

II. 이승만 정권의 ‘충실한 일원’으로서 이선근의 50년대

1905년 경기도 개풍군 홍교면에서 태어난 이선근은 1922년 휘문고보를, 1929년 와세다(早稻田)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논문은 「대원군 시대의 쇄국과 개국(大院君時代の鎖國と開國)」이며, 이를 계기로 ‘근대사’는 향후 이선근의 학문적 기반으로 자리 잡는다. 박찬승은, 이때까지의 ‘소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이선근 인생의 제1기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제2기는 이선근의 조선일보 정치부장 및 편집국장 시절(~1931),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사 시절

7 1950년대 이선근의 시대 담론과 역사 인식의 내용 및 흐름을 파악하는 데 1952년부터 대한지방행정협회에서 발행된 『지방행정』에 실린 글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유용해 보인다. 분량 제한이 있는 월간지라는 특성상 그의 논지를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잡지의 성격 자체가 행정관료(출신)로서의 그의 입장과 태도에 부합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1934), 한성도서주식회사 상무 시절(~1937) 등이 포함된 ‘국내 언론·교육 활동기’이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해방 시점까지는 제3기 ‘만주 활동기’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이선근은 학교 교장, 협회 의원, 책 기고자 등의 역할을 행하며 일제의 만주 정책에 적극 협력한 전력을 지닌다.⁸

해방 후 그의 행보는 보다 활성화된다. 1945년 12월 조선청년동맹 책임위원과 조선청년당 위원장을 겸하는 한편 삼척시멘트 사장까지 맡았고, 1946년 1월에는 반탁학생연맹 고문에, 동년 11월에는 한성일보사 주필에 이름을 올렸으며, 1947년 9월에는 대동청년단 부단장 겸 훈련원장직을 수행하였다. 또한 동년 11월에는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주임교수와 학생처장을 겸직하였다.⁹ 그 이면에는, 미군정이 그를 좌익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책임자로 여겼다는 내막이 자리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선근은 1950년 2월 국방부 정훈국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¹⁰ 더욱 커다란 변신을 보였다. 아울러,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동년 7월에는 대한학도의용대 총지휘관직을 겸하게 되었다.¹¹ 국방부 정훈국의 주 업무는 대북 공작과 대민 선전에 있었고,¹² 1·4 후퇴 이후에는 주로 “군인들의 정신 무장과 교양 훈련에 비중”이 두어졌다.¹³

박찬승은 해방(1945)부터 5·16군사정변(1961)까지를 이선근 인생의 제4기인 ‘우익청년단, 교수, 군인, 관료 활동기’로 나누는데, 세밀하게 보면 이 시기는

8 박찬승, 2006, 앞의 글, 194~199쪽 참조.

9 1949년 2월에는 서울법대 학장 서리까지 맡게 되었다.

10 1950년 3월 15일부로 정훈국에서 이선근을 육군 대령에 임명하였다는 기사가 남아 있다. “정훈국 이선근 씨 육군 대령에 임명”, 『조선일보』, 1950. 3. 17, 2면.

11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에 정오 정훈국에서는 “25일 조효(早曉)부터 38선 전역에 걸쳐 이북 괴뢰 집단이 대거 불법 남침하여 와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담화를 내놓았는데, 이를 발표한 이가 바로 이선근이었다. “이북 괴뢰 불법 남침 25일 조효 38 전역에 걸쳐”, 『조선일보』, 1950. 6. 26, 1면.

12 이러한 공을 인정 받아, 이선근은 인천상륙작전(1950. 9. 15) 이후 한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한 직후인 1950년 10월 20일 장성으로 승진하였다. “이선근 대령 준장으로 승급”, 『조선일보』, 1950. 10. 24, 2면.

13 박찬승, 2006, 앞의 글, 200쪽 참조.

다시 그의 예편 시점을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재구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현대사라는 거시적 관점에 따른다면, 이는 각기 휴전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 속에 포함될 만하다.

당대 신문 기사에 의하면, 육군 준장 이선근의 예편은 다른 아님 그의 부상 때문이었다. 1952년 1월 14일 기자단 회견에서 그는 “작년 6월 29일 두 번째의 부상을 당한 이래 5개월 넘어 병원에 있었”다는 것과 퇴원 후에도 “좀처럼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부득이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이 자리에서 그가 ‘멸공성전(滅共聖戰)’을 위해 “사학도의 천직에 돌아가 총력전의 일원으로 봉사할 작정”임을 천명하였다는 사실이다.¹⁴ 실제로 그는 예편 뒤 서울대 문리대 주임교수로 복직하고, 또 얼마 안 되어 1952년 11월 24일부로 단국대 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¹⁵ 1953년에는 한국정치학회 회장과 재향군인회 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정훈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국민사상계몽 강연자로 전국을 누빈 적도 있었다.¹⁶ 1954년 들어서도 이선근의 대외 활동은 계속되었다. 1월에는 최남선, 이병도 등과 함께 전시군인연합대학 교수진으로 참여하였고,¹⁷ 2월에는 정훈장교 연석회의에 정치경제계 대표 중 일인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¹⁸

그리고 1954년 4월 21일 이선근은 문교부장관으로 임명되어¹⁹ 취임일인 다음날로부터 약 2년여 동안 공직에 몸담게 된다.²⁰ 문교부 장관 재직 시절인

14 “총력전에 봉사 이 정훈국장 이임담”, 『경향신문』, 1952. 1. 17, 2면.

15 단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참조.

16 “지방순회강연 국민사상연구원서”, 『동아일보』, 1953. 4. 5, 2면.

17 “전시군인연합대학 25일 개강식”, 『경향신문』, 1954. 1. 23, 2면.

18 “정치경제계 대표와 정훈장교 연석회의”, 『경향신문』, 1954. 2. 16, 2면.

19 “문교부장관에 이선근 씨 임명”, 『조선일보』, 1954. 4. 23, 1면.

20 1949년 3월부터 1965년 1월까지의 문교부장관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던 바, 이선근의 역시 장관 재임 시절 국사관장을 겸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참조.

1954년부터 1956년까지의 1950년대 중반은, 이승만 정권의 추종자이자 자유당의 핵심적 인력으로서의 그의 행보가 가장 두드러진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단적으로, 1954년 시점에서 이선근은 문교부장관으로서 중앙학도호국단 단장을 겸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유당의 당무위원 직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²¹

이선근의 문교부장관 임명은, 1954년 3월 26일 이승만의 의지로 현행 한글 맞춤법이 불편한 까닭에 그것을 간소화하겠다는 담화가 발표된 후 일어난 이른바 ‘한글 파동’을 거치며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김법린이 2월 5일 사의를 표한 뒤 70여 일 만에 생긴 일이었다.²² 이선근은 6월 26일 3원칙에 입각한 ‘한글 간소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학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거세었으며 결국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되었던 바, 결국 7월 13일 이승만이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일방적인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²³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의 추종자이자 자유당의 핵심적 인력으로서의 이선근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는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이후 이선근은 더욱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 활동을 펼쳐 간다. 1955년 8월

21 “학도호국단 설립 제5주년 서울운동장서 기념식 성대”, 『경향신문』, 1954. 4. 23, 2면.

22 이승만은 이미 1949년 10월 9일 한글날 담화를 통해 한글의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1950년 2월 3일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1953년 4월 11일에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부 문서 및 교과서만이라도 연음법 등 예전 철자법을 사용할 것을 지시한 후 4월 27일 총리 훈령을 내린 바 있었다. 강준만, 2014,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178~179쪽 참조.

23 “파란의 갑오 국내 십대 뉴-스”, 『경향신문』, 1954. 12. 22, 1면.

24 1955년 1월 31자 경향신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 일부는 문교부장관 이선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과거의 자유당은 아닌 게 아니라 감투의 정당으로 향하는 대합실이었다. 5·20 공천 바람이 불 때는 정당의 현관에 숨 막히는 돈 냄새가 그칠 사이 없었고 이선근 씨 같은 이도 문교장관실에 도달하기 전에 잠시 대합실을 거친 일이 있다.” “신춘 정당 순례”, 『경향신문』, 1955. 1. 31, 1면.

설치된 자유당 훈련원의 중앙정책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²⁵ 1956년 3월 6일 폐막된 자유당 임시 전당대회에서는 이기붕, 조경규, 이재학, 이중재와 함께 의장단에 속하였다.²⁶ 이 대회에서 동년 5월 15일 치러질 제3대 정·부통령(이승만·이기붕)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당시 자유당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의 입지를 엿보는 일도 무리는 아닐 터이다. 이어서 그는 조경규, 이재학, 이중재와 더불어 자유당 정·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²⁷

사실, 이선근이 문교부장관으로 부임한 1954년에는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가 있는 후 9월 7일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폐지를 핵심적인 골자로 하는²⁸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결국 11월 29일(투표일은 이를 전) 이른바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로 그것이 가결되는 과정을 통과하며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 공작이 기획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그는 관변 사학자, 공직자 정도가 아닌 자유당의 중추적 인물 중 한 명으로서 (부정)선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야당 측은 물론 사회 일각에서는 문교부장관인 이선근의 무분별한 선거 개입에 대한 비상식성 및 불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뿜어져 나왔다. 더구나 그는 선거 기간 중 “학생은 수하를 막론하고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각 학교에 단속 지시를 하겠다”고 공표하는 한편,²⁹ 무소속으로 부통령 후보에 출마한 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이자 동국대 총장이던 백성욱에게 “입후보 사퇴 내지 동국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구설수에

25 “자유당 훈련원 설치”, 『경향신문』, 1955. 8. 10, 1면.

26 “정·부통령을 지명 자유당 임시전당대회 폐막”, 『경향신문』, 1956. 3. 6, 1면.

27 “자유당 선거대위 상무위원을 선정”, 『경향신문』, 1956. 3. 15, 1면.

28 이와 함께 “대통령 중임제,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자동 승계제, 중대 사항 국민투표제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 강준만, 2014, 앞의 책, 202~203쪽.

29 “학도의 선거 운동과 문교장관의 특권”, 『경향신문』, 1956. 4. 12, 3면.

오른 적도 있었다.³⁰ 나아가 1956년 4월 20일에는 대전시 각 중교에서, 4월 25일에는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에서 격한 말투로 이승만과 이기붕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선근은 1956년 4월 23일 공보실장 갈홍기와 함께 민주당 대선 후보 신익희의 선거 사무장 이영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³¹ 결국 이는 그가 문교부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³² 물론, 유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면이라는 결과로 선거가 끝난 뒤인 7월 3일 그는 소환장을 받고 검찰에 출두하였으나,³³ 상투적인 자기 변호 끝에³⁴ 8월 18일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³⁵

이후에도 이선근은 1957년 3월 28일 개최된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임시 집행부의 원외 대표로 선출되고³⁶ 이를 뒤에 열린 당무회에서는 정책 부문의 원외 상임위원에 이름을 올리는³⁷ 식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 나갔다. 5월에는 “국회 폐회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할 지방 유세 공작을” 위해 자유당 선전위원회에서 조직된 각도별 연설행 가운데 경기도를 담당하였다.³⁸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는 대한중석광업회사의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하였는데,³⁹ 결국 1957년 10월 22일 성균관대 총장에 부임함으로써 다시금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

30 “공명선거에 경중”, 『경향신문』, 1956. 4. 19, 1면.

31 “이 문교부장관·갈 공보실장을 제소”, 『동아일보』, 1956. 4. 25, 3면.

32 그의 불신임안은 1956년 6월 5일 정중섭 의원에 의해 제출되었다. “풍파와 소란의 연속”, 『경향신문』, 1957. 6. 9, 3면 참조.

33 “이선근 씨에 소환장 선거법 위반 혐의”, 『동아일보』, 1956. 7. 1, 3면.

34 ““선거운동이 아니라 강연” 이선근 씨, 검찰청서 경위 진술”, 『조선일보』, 1956. 7. 4, 2면.

35 “이선근 씨는 혐의무 지검서 불기소”, 『경향신문』, 1956. 8. 20, 3면.

36 “자유당 전당대회 개막”, 『경향신문』, 1957. 3. 29, 1면.

37 “육 상임부위장 선출 자유당 당무회”, 『경향신문』, 1957. 4. 1, 1면.

38 “지방 유세 공작 논의 8일 자유당 선전위”, 『경향신문』, 1957. 5. 10, 1면.

39 “자유당 간부진 물망 대한중석 사장 후임”, 『경향신문』, 1957. 8. 11, 1면.

다.⁴⁰

하지만 취임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반대가 있었고, 이에 이선근은 “정치 운동에서는 완전히 발을 뺐다”면서 민심에 호소하였다.⁴¹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정치계와 끈을 이어가게 된다. 내무부가 인선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발되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⁴² 야당 등의 반발 탓이었는지,⁴³ 이후 그의 정치적 행동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러다가 그는 1959년 11월 26일 상무회 회장에 취임하였는데,⁴⁴ 이후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 또 다시 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이선근의 삶의 행로는 자유당 정권과 ‘동고동락’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정치적이었다. 최상의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대학 총장, 그리고 각종 관련 단체 및 조직들의 수장을 역임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친정부, 친자유당, 친이승만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지속적으로 정권의 편에 서서 권력과의 밀착을 이룬 채 본인의 활동 반경을 넓혀 가며 주창한 바는 무엇이었을 까. 다음 장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Ⅲ.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시대 담론’의 발신

1950년대 이선근의 사회적 삶의 궤적을 되짚어 보노라면, 크게 두 부분의 변곡점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1952년 1월 그가 국방부 정훈국장직을 내려놓고

40 “「성대」 총장에 이선근 씨 승인”, 『경향신문』, 1957. 10. 23, 1면.

41 “화제의 인물 1분 면담 이선근 씨 성대 총장 분규”, 『동아일보』, 1957. 11. 4, 3면.

42 “중앙선위 인선 완료”, 『동아일보』, 1958. 3. 20, 1면.

43 그의 선임 직후 민주당은 성명까지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었다. “덕망 없는 선거위원 교체 민주당서 요청 성명”, 『동아일보』, 1958. 3. 28, 1면.

44 “이선근 씨를 임명 상무회장 경질”, 『동아일보』, 1959. 11. 26, 1면.

서울대 교수로 복귀한 시점이고 또 다른 지점은 1956년 6월 문교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성균관대 총장에 오른 때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일관적으로 자신의 순수한 학구열과 교육열을 발산하며 타인의 지지나 호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지 혹은 의도는 대개 기자회견이나 개별 인터뷰 등의 형식으로 ‘언표’되었다.

아울러 이에 머물지 않고, 이선근은 자신의 주 전공이자 특기인 글을 쓰는 방식을 통해 본인의 이념과 사상을 설파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공무원들의 안정된 삶과 노후를 설계하는 공익복지기관으로서”⁴⁵ 1952년 설립된 대한지방행정협회(1975년부터 ‘대한지방공제회’로 개편)에서 발행된 『지방행정』이라는 잡지에 비교적 짧은 원고들을 꾸준히 실었다.

먼저, 군복을 벗고 다시 상아탑으로 돌아온 그가 쓴 글로는 「8·15」 7주년과 공무원이 가질 각오(1952)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건국이념」(1952)과 「휴전성립과 정치회담에 제하여 : 우리국민의 각오」(1953)가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건국이념」은 ‘머리말, 1. 조국의 재건, 2. 명시된 건국이념, 3. 유구한 역사와 전통, 4. 3·1정신의 계승, 5. 결론’으로, 「휴전성립과 정치회담에 제하여 : 우리국민의 각오」는 ‘머리말, 1. 휴전조약 성립까지, 2. UN총회와 정치회담전망, 3. 우리민족의 각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국이념」에서 이선근은 ‘조국(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기초”를 “위대한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선양”한 3·1운동으로부터 찾고 있다.⁴⁶ 그리고 그 건국이념은 당대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것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한다.⁴⁷ 이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일연의 『삼

4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홈페이지(<http://www.poba.or.kr>).

46 이선근, 1952, 「우리나라 건국이념」, 『지방행정』 1권9호, 대한지방행정협회, 2쪽.

47 “(첫째) 우리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이라는 것 (둘째) 대한민국은 3·1정신을 계승하여 재건된 조국이라는 것 (셋째)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견고히 하여야 된다는 것 (넷째)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다섯째)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여섯째) 이러한 조

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강용(强勇)하고 근후(勤厚)하되 남을 침해(侵害)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⁸ 그리고 3·1운동의 주도 세력과 그 사상적 지도(指導)를 구명함으로써 건국이념의 모체로서의 ‘3·1정신’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3·1운동의 두 주체는 천도교 계열과 기독교 계열인데, 전자는 화랑도를 계승하여 자유사상과 독립정신을 간직해 왔고 후자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 지사들과 1890년대 독립협회 지사들에 의해 발현된 독립운동과 민주사상을 발전시켰다.⁴⁹ ‘화랑도 - 갑신정변 · 독립협회 - 3·1운동’을 기축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확고히 정립하려는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논리이다.

「휴전성립과 정치회담에 제하여 : 우리국민의 각오」의 경우, 글 속에는 정전협정 조인과 한미 정치회담 성사에 대한 이선근의 입장과 태도가 명확히 들어가 있다. 그는 휴전 성립의 요인을 크게 미국에서의 대선 결과로 벌어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의 당선과 공화당의 집권, 그리고 소련에서의 스탈린(Joseph Stalin) 사망 등 외부 상황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타협안이 1953년 6월 8일 UN에서 조인된 일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한편, 이로부터 열흘 뒤 있었던 이승만의 반공 포로 석방 조치에 적극 동조한다. 그의 주장은 글의 마지막 장에 집약되어 있다. 즉, “자유민주 세계의 후진국가가 아니라 이미 그 선진국가임을 자신하”여 “멸공통일! 멸공구세의 일로에도 매진”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는 “원자탄이던 수소탄이던 미국이 소유한 전무기를 통털어 적을 분쇄하라”고 하였다는 미국 고병(古兵)들의 말을 인용하며, “위대한 국가요 위대한 국민이라는 자각 아래 우리들은 남다른 결말과 남다른 실천”을 거두기 위해 “마음의 원자탄부터 든든히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⁵⁰

국의 이상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자손만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기함에 있다는 것이다.” 이선근, 1952, 위의 글, 4쪽.

48 이선근, 1952, 위의 글, 5쪽.

49 이선근, 1952, 위의 글, 6쪽.

50 이선근, 1953, 「휴전성립과 정치회담에 제하여 : 우리국민의 각오」, 『지방행정』 2권 4호, 대한지방행정학회, 18쪽.

이러한 이선근의 생각은 이미 「우리나라 건국이념」의 머리말 부분에도 개진되어 있는 바,⁵¹ 이는 한국전쟁의 장기화와 정전협정 체결이라는 역사적 배경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라야 할 ‘시대 담론’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만하다. 물론, 그 핵심적이고도 당위적인 내용은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승은 이선근의 “세계관 내지는 사상적 기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⁵² 여기서 반공주의는 반탁운동과 반소운동을 ‘애국적인 저항운동’으로 본 그의 시각에, 국가주의는 분단되고 휴전 중인 대한민국을 둘러싼 특수 환경에서 개인의 자유나 인권보다는 국가에의 충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신념에 투영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박찬승의 설명대로, 이는 이선근이 쓴 선우기성 작 『한국청년운동사』(1973)의 서문 등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그의 인생행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즉, 반공주의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사에서의 안재홍과의 교류, 다방면의 친일 경력, 해방 후 우익청년운동 활동 등으로부터,⁵³ 국가주의에 대해서는 1930년대 이후 영향 받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 중심적 통치 스타일로부터⁵⁴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듯 거대한 역사적 조류와 개인 경험의 자취 속에서 뿌리 깊게 형성되어 왔던 이선근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그의 정치적, 사회적 경력이 보다 다양해진 1950년대 중후반에 쓰인 글 안에서도 진하게 묻어난다.

해당 글들의 제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란해진 사회도덕과 정신무장의 긴급성」(1957), 「민주주의와 선거 : 5·2 총선거를 앞두고」(1958), 「국기(태극

51 “따라서 가장 심각한 사상전으로서의 이 멸공성전을 승리로 완수하자면 우리들은 저 공산독재주의를 못뜨를 수 있는 사상의 무기로서 우리들의 건국이념을 줄터 군세계 파악하며 명확하게 체득하여야 될 것이니 (...)” 이선근, 1952, 앞의 글, 2쪽.

52 박찬승, 2006, 앞의 글, 231쪽.

53 박찬승, 2006, 위의 글, 233쪽 참조.

54 박찬승, 2006, 위의 글, 236쪽 참조.

기)에 대한 고찰』(1959). 첫 번째는 이선근이 문교부장관을 그만둔 이후, 두 번째는 ‘중앙선거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세 번째는 성균관대 총장 겸 사학자라는 직함하에서 게재되었음이 확인된다. 3편 모두 별도의 내부 목차명 없이 숫자 표기로만 단원이 구분되어 있는 바, 전체적인 내용은 글의 제목과 문장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문란해진 사회도덕과 정신무장의 긴급성」을 읽어보자. 이 글에서 이선근은 1차 대전 이후의 이탈리아와 독일, 2차 대전 이후의 대만과 일본의 예를 들며 전쟁의 승리와 패배에 상관없이 전후 사회 불안과 혼란은 “전 국민의 정신과 노력 여하에 지배되는 것이며 경제와 군사와 외교에서 좌우되는 것이요 나아가 국제적 환경 여하로 크게 영향하는 것”임을 지적한다.⁵⁵ 또한 “『나만이』 교육을 알고 『나만이』 애국자이며 『나만이』 민주주의의 신봉자요 『나만이』 정치인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한다.⁵⁶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문란해진 사회상”에 긴장감을 주어 “날치기에 깡패며 서종삼이도 숨죽”이게 할 방안으로 다른 아닌 “멸공통일예의 정신무장”의 “재정비”를 제시한다.⁵⁷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반공을 이용하여 사회 정화와 국론 일체를 도모하려 한 당시 그의 정치적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와 선거 : 5·2 총선거를 앞두고」는 1958년 제4대 민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선근이 중앙선거위원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여기서 그는 ‘군주정치’나 ‘독재정치’와는 상반되는 ‘민주정치’에 관해 설명한 후, 그것이 ‘전제정치’와 대립되긴 하나 ‘대의정치’와도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면서 대의정치(의회정치) 체제하 “선거가 민주정치를 행하는데 있어서의 생명”임

55 이선근, 1957, 「문란해진 사회도덕과 정신무장의 긴급성」, 『지방행정』 6권7호, 대한지방행정학회, 5쪽.

56 이선근, 1957, 위의 글, 6쪽.

57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국토통일의 지상과업을 위하여 차라리 일전의 구안(苟安)을 단념하고 결전의 각오와 결전의 태세를 다시금 갖추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선근, 1957, 위의 글, 7쪽.

을 강조한다.⁵⁸ 그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용어 및 선거 제도가 있으나, 여기에는 자유와 평등이 결여 혹은 제한되어 있기에 그 “질과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⁵⁹ 이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민은 권리와 의무 모두를 가지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 행사에 능동성을 보이고 전근대적인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 부연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선거민이 민주주의 사상에 밝지 못한 사람 사리사욕을 제1 의로 아는 사람 또는 국가보다도 자기 당의 이해와 권리만을 아는 사람들을 선출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불충이요 동시에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⁶⁰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와중에도 공산권의 경우를 대비시켜 국가주의를 강화하려는 그의 욕망이 결들여져 있는 것이다.⁶¹

셋째, 「국기(태극기)에 대한 고찰」이다. 이 글은 이선근이 1958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미국과 유럽 각국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다. 아울러 그가 군인 신분으로 있던 1950년 11월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행된 『국기 제정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와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글을 통해 이선근은 태극기의 제정 연대와 도안 해설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바로 잡는 한편 국기 제정의 유래와 국기 문제의 발단과 그 제정 사용 및 반포에 관해 논의를 펼친다. 그는 태극기의 도안이 의미하는 바를 “고대 인류 공통의 우주관을 상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보이며, 이에 대한 “역학적 해석”이나 “심오한 철학”, “무서운 미신”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⁶²

58 이선근, 1958, 「민주주의와 선거 : 5.2 총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 7권56호, 대한지방행정협회, 15쪽.

59 이선근, 1958, 위의 글, 16쪽.

60 이선근, 1958, 위의 글, 17쪽.

61 한편, 이선근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한국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민주주의의 역사성이 박약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정당정치와 미비 문제이다.”, “셋째 정치인의 질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넷째 선거체제의 불합리 문제이다.” 이선근, 1958, 위의 글, 18쪽.

62 이선근, 1959, 「국기(태극기)에 대한 고찰」, 『지방행정』 8권73호, 대한지방행정협

살펴본 바대로, 1950년대에 걸쳐 이선근은 대한지방행정협회에서 나온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자신의 시대 담론을 직설적이고 적극적으로 발신하였다. 또한 여기에 담겨 있는 그의 이념과 사상은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로 요약된다. 물론, 이러한 그의 논리는 고위 공직자, 여당의 일원, 사회 단체장, 대학 교수 및 총장 등으로 활동한 동시기 자신의 이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⁶³ 그런데 이선근은 본래 역사 학도이자 학자였던 바, 가장 중요한 그의 이념적, 사상적 토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역사관을 분석하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IV. 근대사에 관한 연구 활동과 ‘혁신적 민족주의’에의 가치 부여

1950년대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는, 지금으로 치면 주로 근대사 분야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찬승의 논의를 참고하건대,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의 영역은 ‘최근세사’ 연구와 ‘화랑도’ 연구로 크게 이등분을 이룬다. 그런데 50년대만을 놓고 볼 때, 전자와 관련해서는 『한국독립운동사』(상문사,

회, 101쪽.

- 63 예를 들어보자. 이선근의 문교부장관 재임 시절이던 1955년 8월 1일 ‘제1차 교과과정’이 공포되는데, 여기에는 ‘반공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때 “반공교육은 하나의 교과목이 아닌 전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중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배”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당시에는 『애국독본』이나 『반공교본』 등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를 담은 교재들이 전국의 교육 현장에 보급된 상태였다. 조건, 2016, 「제1차 교육과정 성립기 문교부 조직과 반공 교육정책」, 『역사와교육』 22집,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178쪽. 한편,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1959년 8월 14일 이선근은 이병도, 주기용, 신의섭, 신석호 등과 함께 문교부 편수국장실에 모여 “국기 해설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태극기가 ‘평화’, ‘창조’, ‘발전’ 등 세 가지 정신을 상징한다는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다. “평화·창조·발전의 뜻 국기 도안 상징에 정의”, 『동아일보』, 1959. 8. 14, 1면.

1956)가 발간되었던 데 반해⁶⁴ 후자와 연관된 단행본은 출판되지 않았다. 이는 그의 학위논문과도 관계성을 맺고 있다.

허은, 손수범, 이택휘 등 선행연구들은 하나같이 이선근의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화랑도 연구’로 지목한다.⁶⁵ 그러나 당대 신문 기사에는 분명 ‘조선최근세사(연구)’로 기록되어 있다.⁶⁶ 한국전쟁 직전 시기에 이선근이 『화랑도연구』(해동문화사, 1949)와 『조선최근정치사』(정음사, 1950)를 발표하였다는 사실부터 출발해보자.⁶⁷ 1956년 시점에 『한국독립운동사』가 출판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였을 터, 상식적으로도 이선근의 서울대 박사논문 주제는 화랑도가 아닌 최근세사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할 만하다.

이는 『한국독립운동사』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사항이다.

64 후지이 다케시의 논문을 참고하건대, 이 책은 1953년 국방부에서 정훈교재로 쓰인 『정훈교정13 한국독립운동사』를 원본으로 하여 발간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후지이 다케시, 2013, 앞의 글, 72쪽 참조.

65 허은, 2008, 앞의 글, 116쪽; 손수범, 2009, 앞의 글, 89쪽; 이택휘, 2010, 「한국의 역사가 이선근, 『한국사 시민강좌』 46집, 일조각, 195쪽 참조.

66 관련 기사의 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교수 이선근 씨에게 19일부로 문학박사 학위가 수여되었다는데 동씨 논문은 조선최근세사였다고 한다.” “이선근 씨에 문교 박사학위”, 『조선일보』, 1953. 3. 23, 2면. / “서울대학 교수 이선근 씨에 지난 19일부로 문학박사 학위가 수여되었다. 연구 논문은 조선최근세사로서 특히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한 연구라고 한다.” “이선근 씨에 문박학위”, 『동아일보』, 1953. 3. 23, 2면. / “서울대학교에서는 금번 또 다시 3교수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되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오는 28일 동 대학교 금년도 졸업식 석상에서 앞서 대학원 논문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운재 남기용 이선근 교수에게 각각 해당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되었다는데 전기 3교수의 학위 종별과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이선근 문리과대학 교수 문학박사 “조선 최근정치사연구” “박사학위를 수여”, 『동아일보』, 1953. 3. 28, 2면. / 한편,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에서도 이선근의 박사논문 제목은 “조선근세사연구(朝鮮最近世史研究)”로 기록되어 있다.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 참조.

67 최근세사 연구와 관련된 이선근의 이전 단행본은 『조선최근세사』(1931, 유성사서점)가 있었으며, 이 책은 1945년 정음사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한편, 화랑도 관련 저서는 1949년에 나온 『화랑도연구』가 최초였고, 이 역시 동명으로 1954년 동국문화사에서 재출간되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 시기는 1876년 개항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이다. 『조선최근세사』와 『조선최근정치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1894년 동학운동 이후의 시기가 새롭게 범주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⁸ 현존하는 신문 자료만으로 이선근의 박사학위논문 내용을 확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선최근세사』와 『조선최근정치사』에는 없던 내용이 『한국독립운동사』 상에 보충된 경위와 서로 간의 원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추정 가능한 것은 1950년대 그의 한국사 연구의 관심사 및 활동 범위가 전체적으로 ‘최근세사’(근대사)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본고의 3장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건국이념」(1952)에서 이선근은 화랑도 관련 내용 또한 중요하게 다루지만 갑신정변, 독립협회, 무엇보다 3·1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의의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그가 문교부장관이 되기 얼마 전인 1954년 3월 1일에는 3.1운동을 회고한 글이 신문 지상에 실리기도 하였다.⁶⁹ 1957년 11월 성균관대 총장 취임 즈음에 가진 기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그는 ‘민족의 수난기’를 다룬 ‘우리나라 최근세사’를 집필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⁷⁰ 또한 1958년 1월 14일부터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국제 도서전시회 출품 도서로 선정된 229종의 책들 가운데 이선근의 『한국독립운동사』가 목록에 들어가 있었던 바, 이를 통해서도 근대사 분야에서는 그의 학문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유추 가능하다.⁷¹ 1958년 12월 10일에는 김상기, 이홍직, 신석호, 이병직 등과 함께 이승만의 초청으로 경무대를 방문하여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밝히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이선근이 담당

68 ‘제4장 동학란과 갑오경장, 제5장 열강의 각축과 독립협회운동, 제6장 을사보호조약과 항일투쟁, 제7장 민족의 쫓겨 기미독립운동’으로 구성을 이룬다.

69 이선근의 학위논문 자료는 현재 그 실체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을 통해서도 관련 기록조차 발견되지 않는다.(검색일 및 문의일 : 2018. 8. 31)

70 “화제의 인물 1분 면담 이선근 씨 성대 총장 분규”, 『동아일보』, 1957. 11. 4, 3면 참조.

71 “국제 도서전시회 출품 도서”, 『경향신문』, 1957. 11. 29, 1면 참조.

하게 된 시대는 고종에서 해방 이전에 이르는 ‘최근세’ 시기였다.⁷²

그렇다면 이선근의 근대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 서술은 어떠한 태도 및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박찬승의 분석에 의하면, 그는 동학 및 동학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평가를, 갑오개혁에 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또한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시각을 견지한 반면, 대한제국의 성립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점을 내비쳤다. 2·8선언과 3·1운동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주변 인물들의 경험을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⁷³ 이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의 경우와도 상당 부분 논조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시기 이선근은 「갑오년사 : 동학난과 그 결과」(1954)라는 글과 「대원군 시대의 대 구미관계 연구」(1958)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해당 시기 한국사에 관한 나름의 연구 성과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먼저 「갑오년사 : 동학난과 그 결과」를 보건대, 이 글은 ‘1. 사상(史上)의 삼 갑오년’, ‘2. 갑오동학란과 그 경과’, ‘무서울 외환과 청·일전쟁’ 등 크게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한국 역사 중 주목되는 세 지점의 갑오년을 제시한다. 그리고 고려 성종 13년(994년) 거란의 소손녕과 서희가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확보한 사건과 조선 효종 5년 청국을 도와 조선군이 러시아군을 흑룡강에서 격퇴시킨 ‘나선정벌’ 등 글의 핵심을 차지하는 ‘동학운동’에 앞서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2장에서는 동학운동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3장에서는 이후에 전개된 청일전쟁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설명한다. 글의 말미에서 이선근은, 동학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부여한다.

갑오동학란 그 자체만은 역사적으로 재검토하여 볼 때 일종의 농민전쟁이요 사회 혁명이며 척왜(斥倭)구국의 민족○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초래한 것은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양대 강련의 외환이요 일제의 군사적인 침략으로 나타나고 말

72 “왜곡 사기 시정”, 『동아일보』, 1959. 1. 16, 1면.

73 박찬승, 2006, 앞의 글, 213~215쪽 참조.

았다. 역사의 인과란 그 진행 도중에서 언제나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60년 전의동학란이 불란 집에 강도나 다름없는 일제에게 저같이 이용될 줄이야 뉘라서 뜻하였으랴?⁷⁴

‘농민전쟁’이자 ‘사회혁명’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학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반면, 예측할 수 없었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하나 청일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불러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계로서 지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대원군 시대의 대 구미관계 연구」는 ‘머리말’과 세 개의 본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 ‘제1장 제로(帝露)의 남하와 천주교 대탄압’, ‘제2장 선교사 학살과 불함(佛艦) 내침’, ‘제3장 대미 관계와 미함(美艦) 내침’을 단원명으로 두었다. 목차 이름에 반영된 바대로, 내용은 대원군 집권 10년(1863~1873) 동안의 시간적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다. 즉, 1장에서는 초기, 2장에서는 병인양요(1866)를 전후한 중기, 3장에서는 신미양요(1871)를 전후한 후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갑오년사 : 동학난과 그 결과」에서 드러나는 역사에 대한 이선근의 양가적인 태도가 대원군 시대에 관한 연구에도 일정 부분 공유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논문 전체의 논지를 담은 머리말 부분을 독해해보자. 그는 이전의 ‘세도정치’ 시기에 비해 대원군 집권기는 “과감한 혁신정치를 단행하”는 한편 “쾌도난마(원문에는 ‘快力亂麻’로 표기)의 태도로 묘당(廟堂)에 임하였다”면서, 그렇기에 “내정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세계지식에 너무도 색맹이었기 때문”에 “불행과 혼란을 초래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한

74 이선근, 1954, 「갑오년사 : 동학난과 그 결과」, 『지방행정』 3권1호, 대한지방행정협회, 17쪽.

다.⁷⁵ 사실 「대원군 시대의 대 구미관계 연구」는 이러한 대원군의 ‘외교적 실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갑오년사 : 동학난과 그 결과」와는 그 기본적인 입장이 상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조에 있어서는 동학운동에 대해 그러하였던 것 같이, 대원군의 정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요컨대, 이선근의 1950년대 한국사 연구는 대체로 근대사에 집중되었으며, 그는 대원군의 정치, 갑신정변, 동학운동, 독립협회, 3·1운동 등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개혁적, 혁명적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역사관에 대해 박찬승은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명명한 바 있는데,⁷⁶ 1950년대만을 놓고 보자면 이선근의 역사 인식은 그 안에서도 ‘혁신적 민족주의’라고 칭할 만하다. 그 ‘주체’를 막론하고, 권력층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 조치, 신흥 엘리트 세력이 주도한 급진적 혁명 사건, 사회 하층민들이 참여한 반봉건적, 반외세적 항거, 거국적인 반식민적 민족 운동 모두를 주목하며 여기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혁신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외국의 압력에 대한 위기 의식이 본인의 시대 담론과 삶의 궤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이자 실천적 수단으로 변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대원군의 정치에 대한 옹호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연상시키고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침략의 역사가 북한의 도발 정세와 중첩을 이룬다고 한다

75 이선근, 1958, 「대원군 시대의 대 구미관계 연구」, 『논문집』 1집, 경희대학교, 599쪽.

76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해, 박찬승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유물사관의 방법론을 차용한 내재적 발전론 2. 해방 직후 손진태, 안재홍 등에 의해 주창된 신민족주의 사학의 계승론 3. 신채호, 박은식 등 일제시기 민족주의 역사학의 계승론. 3번째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3-1) 강단 민족주의사학, (3-2) 관변 민족주의사학 (3-3) 재야 국수주의사학. 박찬승에 의하면, 이 가운데 이선근은 (3-2)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박찬승, 2006, 앞의 글, 224쪽.

먼 지나친 비약일까. 1950년대에 이선근이 한국사 연구의 방향과 성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동시기 그의 언행을 관찰하건대 자신의 안위와 신념을 위해 학문을 전유하고 이를 교육 현장으로 파급 시킨(시키려 한) 정황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⁷⁷

V. 맺음말

지금까지 이선근의 삶의 궤적과 시대 담론,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해 195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육군 준장 계급의 국방부 정훈국장, 문교부장관 겸 국사편찬위원장, 주요 대학의 교수와 총장, 여러 단체와 조직의 요직을 거친 그의 화려한 이력을 염두에 둘 때, 적어도 1950년대에서만큼은 단지 한 명의 ‘(관변)사학자’라는 타이틀만으로 그를 평가하기란 당연히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당대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이선근의 연대기적 삶의 궤적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당시 발표된 여러 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펼친 시대 담론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본업인 사학자로서의 그의 연구 활동 및 기여에 놓여 있던 역사 인식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간과되어 왔던 사료적 증거들을 정리·해독하여 구체성과 실증성을 확보하고 당대 문헌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해석 과정의 타당성과 체계성을 고양시키려 하였다.

77 이러한 면에서, 이선근이 “문교부 장관으로 기용된” 이유가 “이승만이 반공과 동시에 반일을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는 후지이 다케시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그는 이선근이 “‘전통사상’으로 화랑도를 거론하”였던 것도 “민족의 이름으로 개개인을 규율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후지이 다케시, 2013, 앞의 글, 59쪽. / 이러한 영향으로, 이선근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학교용 및 중고등학교용 『반공독본』(1954)과 중고등학교용 『애국교본』(1955) 등 ‘학교용 반공 교재’를 통해 반공 및 애국 교육을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후지이 다케시, 2013, 위의 글 참조.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의 충실한 일원으로 살아간 1950년대 이선근의 행적의 이면에는 매우 견고한 반공주의적, 국가주의적 이념과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기저에 깔려 있던 것은 다소 혁신적인 민족주의 사관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그의 삶의 궤적과 시대 담론과 역사 인식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성을 띤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자취가 향후 그의 인생 족적과 유사한 궤도를 보이면서 하나의 좌표처럼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이후의 양상을 들여다보자. 1960년 3·15부정선거 과정에서도 이선근은 자유당의 정·부통령선거 중앙대책위원회의 지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활동하였다.⁷⁸ 그러다가 4·19혁명 직후 성균관대 총장 자리에서 내려 왔고,⁷⁹ 1961년 들어서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긴급 구속되기에 이른다.⁸⁰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61년 10월 11일 그는 ‘혁명재판부’로부터 ‘첫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다음날 석방되는데,⁸¹ 그 이유는 “과거 반공전선에 세운 공로와 혁명에 학구적 역군으로”서의 역할에 두어졌다.⁸²

군사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부여받은 이선근은 다시 학계로 복귀하며 활동을 재개한다. 1960년대 전반기에는 특히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일에 집중하는 모

78 “범여 선거대위 발족”, 『동아일보』, 1960. 1. 22, 1면; “불만한 『뽕·계임』 주관”, 『동아일보』, 1960. 2. 4, 1면 참조.

79 “성균관대학 총장 이 씨 사의 표명”, 『동아일보』, 1960. 5. 2, 3면 참조.

80 “이선근을 긴급 구속”, 『경향신문』, 1961. 2. 14, 1면 참조.

81 “이선근에 선고유예 정대천은 3년에 5년 집유”, 『경향신문』, 1961. 10. 11, 3면 참조.

82 “혁명, 첫 선고유예 판결”, 『동아일보』, 1961. 10. 12, 1면.

습을 보이면서⁸³ 여러 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⁸⁴ 다분히 이는 초기 박정희 정권이 한창 공을 들이고 있던 한일국교정상화(1965)를 향한 한일회담 등을 염두에 둔 행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체계가 가시적으로 가동되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관변 사학자로서의 그의 행보가 본격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술한 바대로, 일제강점기 한국사를 전공한 이선근은 일본 열도와 한반도와 만주 대륙을 오가며 언론계, 교육계, 출판계, 산업계 등에서 (친일) 이력을 쌓다가 해방을 계기로 각종 우익 단체와 국립 서울대학교, 군 조직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간 바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60년대 이후에는 자신의 전공인 역사학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가장 든든한 이론적 지지자가 되었다. 바로 이 두 시기 사이에 이승만 정권하 고위직 행정 관료와 대학 총장 등을 거치며 반공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학문 분야에 유효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최고조로 올려놓았던 그의 1950년대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선근의 시류 영합적, 권력 지향적 행동들에 대해,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한국근대(정치사) 연구 영역의 ‘선두주자’,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그의 학문적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 일각에서 나오기도 한다.⁸⁵

83 예를 들면, 이선근은 1963년 8월 3일 ‘5월 동지회’ 주관으로 열린 월요교양강좌에서 ‘한일관계의 역사적 고찰과 비판’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바 있었고, (“강습강좌”, 『경향신문』, 1963. 8. 3, 5면) 동년 9월 24일에는 한일 문제를 다룬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한일관계의 역사적 회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일문제 심포지움 24일 시민회관서”, 『동아일보』, 1963. 9. 21, 5면)

84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선근, 1963, 「경진 수신사 김홍집과 황준헌 저『조선책략』에 관한 재검토 : 김홍집 자필 사본 「조선책략」을 보며, 『동아논총』 1집, 동아대학교; 이선근, 1964, 「노일전쟁이후 일제 대한침략의 기본방향 : 한일의정서와 을사조약체결의 경위, 『사학연구』 18집, 한국사학회; 이선근, 1966, 「기결했던 개화승 이동인의 업적과 생애, 『동아논총』 3집, 동아대학교 등.

85 예를 들면, 이택휘는 1956년에 발간된 『한국독립운동사』의 집필 “동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연구성과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다”면서 이선근을 “한국 근대사 연구 및 한국 근대정치사 연구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높이 평가한다. 이택휘, 2010, 앞의 글, 201쪽.

물론 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특수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의해 그 역시 열심히 할 일을 하였다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진실한 사상을 왜곡하”고 “허위를 진리로 둔갑시키”며 세계를 “지배자의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그 자체로 “혐오스러운 존재”이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⁸⁶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터이다. 근현대를 살다 간 한국의 역사학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가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변사학자로서의 이선근의 생애와 역사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⁸⁷

이러한 면에서 1950년대 ‘한국사’ 및 ‘한국사학사’⁸⁸에 새겨진 이선근의 삶의 궤적, 시대 담론, 역사 인식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살아가는 현재 한국인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여겨진다.

86 데이비드 맥렐런(David McLellan), 구승희 역, 2002,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이후, 194쪽.

87 박찬승, 2006, 앞의 글, 241쪽.

88 1950년대 한국 역사학계에서 학술 활동을 펼친 또 다른 인물로는 “문헌비판에 의한 실증사학을 정립하여 한국 근대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 받는 이병도(김두진, 2008, 「두계 이병도(1896~1989)의 사학과 근대 한국사학의 수립」, 『역사학보』 200집, 역사학회, 606쪽)나 국립박물관에 재직하면서 “문헌사학적인 연구 방법론”과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를 접목시”켜 『한국고문화논고』(을유문화사, 1954)를 집필함으로써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으로 알려진 이흥직(정운룡, 2009, 「남은 이흥직의 한국고대사 인식 : 《한국고대사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4호, 한국사연구회, 306쪽)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준만, 2014,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데이비드 맥렐런(David McLellan), 구승희 역, 2002,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이후.
이선근, 1956, 『한국독립운동사』, 상문사.

논문

- 김두진, 2008, 「두계 이병도(1896~1989)의 사학과 근대 한국사학의 수립」, 『역사학보』 200집, 역사학회.
박성현, 2015, 「박정희 정권의 ‘화랑동(花郎洞) 교육 : 내용의 연원과 관철의 방식」, 『역사와현실』 96집, 한국역사연구회.
박찬승, 2006,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와 역사관」, 김용덕 · 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근대 교류사와 상호인식 3』, 아연출판부.
손수범, 2009, 「이선근 저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연구 : 국사교과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논문.
_____, 2009, 「이선근의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사교과서」, 『역사와역사교육』 19집, 웅진사학회.
이선근, 1952a, 「우리나라 건국이념」, 『지방행정』 1권9호, 대한지방행정협회.
_____, 1952b, 「8.15」 7주년과 공무원이 가질 각오」, 『지방행정』 1권8호, 대한지방행정협회.
_____, 1953, 「휴전성립과 정치회담에 제하여 : 우리국민의 각오」, 『지방행정』 2권4호, 대한지방행정협회.
_____, 1954, 「갑오년사 : 동학난과 그 결과」, 『지방행정』 3권1호, 대한지방행정협회.
_____, 1957, 「문란해진 사회도덕과 정신무장의 긴급성」, 『지방행정』 6권7호, 대한지방행정협회.
_____, 1958, 「대원군 시대의 대 구미관계 연구」, 『논문집』 1집, 경희대학교.
_____, 1958, 「민주주의와 선거 : 5.2 총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 7권56호, 대한지방행정협회.
_____, 1959, 「국기(태극기)에 대한 고찰」, 『지방행정』 8권73호, 대한지방행정협회.

- _____, 1963, 「경진 수신사 김홍집과 황준헌 저『조선책략』에 관한 재검토 : 김홍집 자필 사본 「조선책략」을 보며」, 『동아논총』 1집, 동아대학교.
- _____, 1964, 「노일전쟁이후 일제 대한침략의 기본방향 : 한일의정서와 을사오조약 체결의 경위」, 『사학연구』 18집, 한국사학회.
- _____, 1966, 「기결했던 개화승 이동인의 업적과 생애」, 『동아논총』 3집, 동아대학교.
- 이택휘, 2010, 「한국의 역사가 이선근」, 『한국사 시민강좌』 46집, 일조각.
- 정운룡, 2009, 「남운 이흥직의 한국고대사 인식 : 《한국고대사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4호, 한국사연구회.
- 허 은, 2008, 「안보위기론의 주창자, 이선근」, 『내일을여는역사』 31집, 내일을여는역사.
- 후지이 다케시, 2013, 「1950년대 반공 교재의 정치학」, 『역사문제연구』 30호, 역사문제연구소.

신문 기사, 인터넷 사이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단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홈페이지(<http://www.poba.or.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library.snu.ac.kr/>)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

이선근의 삶의 궤적과 시대 담론, 그리고 역사 인식 -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함충범

본고에서는 역사학자 이선근의 1950년대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의 시대 담론과 역사 인식에 관해 탐구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역사학자 이외의 일들을 경험해 오던 이선근은, 1950년대 들어 대학 교수와 총장, 장관과 각종 단체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권력의 편에 다가섰다. 당시 이선근의 삶의 행로는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보다 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1950년대에 걸쳐 이선근은 대한지방행정협회에서 나온 『지방행정』에 글을 기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대 담론을 강화해 갔다. 여기에서 그의 이념과 사상은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로 요약된다. 한편, 이선근의 1950년대 한국사 연구는 대체로 근대사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는 대원군의 정치, 갑신정변, 동학운동, 독립협회, 3·1운동 등의 정치·사회적 혁신과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자신의 역사 인식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1950년대 이선근의 활동은 향후 그의 인생 족적과 유사한 궤도를 보이면서 하나의 좌표처럼 자리하게 되었다.

주제어: 이선근, 1950년대, (한국)사학, 반공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ABSTRACT

Lee Seon-geun's Life History, Periodic Discourse, and History Recognition: Focusing on the 1950s

Ham Chungbeom

In this article, I summarize Lee Seon -geun's life history during the 1950s, and explore his discourse and historical perceptions. Lee, who held positions other than historical scholarship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pproached power in earnest by serving as a university professor, a minister, and various group heads in the 1950s. His life course became more politicized as h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hee Seung -man government. In addition, Lee had strengthened the discourse of the period by writing in Local Administration, which was published by the 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POBA) in the 1950s. His ideas and thoughts were summed up in anti -communism and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Lee's research on Korean history in the 1950s mostly focused on modern history. He positively assessed political and social innovations (or

attempts) at the Daewang-gun's politics, the Gapsin Coup, the Donghak movement, the independent associations,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Through these, he established and maintained his own perception of history. These activities of Lee Seon-geun in the 1950s showed early marks of his later life.

Keyword: Lee Seon-geun, 1950s, (Korean) History, Anti-communism, Nationalism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잡지 『국제생활』 기사를 중심으로—

홍종욱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 I. 머리말
- II. 제네바 회담과 평화공존론
- III. 반동회의와 반식민주의의 고양
- IV. '수정주의' 비판과 비동맹운동의 비가시화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미소 냉전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중립, 평화, 반식민주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1955년 4월 반동회의로 이어졌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 벌여온 평화공세의 연장선상에서 반동회의 개최를 높게 평가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아프리카 세력이 분화하면서 비동맹운동이 대두하여, 1961년 9월에 제1회 비동맹제국정상회의가 열렸다. 1950년대는 ‘비동맹운동의 전사(前史)’ 혹은 ‘비동맹주의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¹ 당시 북한은 비동맹운동에 대해 침묵하였다. 이 글에서는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태도에 유의하여, 1950년대 북한의 아시아·아프리카 인식의 특징과 그 변천을 짚어보고자 한다.

북한 외교 노선은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에서 비동맹주의로 변화했다고 설명된다. 김태환은 1987년의 글에서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을 ‘진영외교기’(1955~1965), ‘자주외교기’(1966~1974), ‘성숙외교기’(1975~1987)로 구분하였다.² 김남식은 북한에서 비동맹운동이 1960년대까지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보다 하위의 것 혹은 그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과는 다른 독자적인 모습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였다.³ 김훈태는 북한의 대외정책노선이 대략 60년대 초반

* 투고: 2018년 5월 16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7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 2017년 동북아재단 기획연구로 진행되었음.

1 岡倉古志郎 외, 1977, 『非同盟・中立』, 新日本新書, 65쪽(한국어판은 편집부 엮음, 1985, 『비동맹운동』, 지양사, 발췌 번역).

2 金泰丸, 1987, 『北韓의 第3世界 外交政策』, 國際問題研究所.

3 金南植, 1986, 『北韓의 對非同盟 外交政策』,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논문, 21쪽.

까지 비교적 전통적 계급론에 입각했다고 보고, 1955년 반동회의를 계기로 비동맹 세력의 등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지만, 비동맹운동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하였다.⁴

외교 노선을 규정한 요소 혹은 변화의 동인과 관련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능동성에 주목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소련이나 중국의 노선을 추종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태환은 “북한의 대외 행태를 대 중·소 일변도 의존 외교로 단정”하는 견해를 “일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과신하는 냉전 구조적 분석 태도의 산물이며,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대 중소 예측성의 과대평가가 경향의 결과”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은 제3세계 외교정책 전개 초기에 확실히 소련 및 중공의 대 제3세계 외교에 의지하였다”고 보았다.⁵ 김훈태도 “북한의 대외정책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중소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냉전적 인식의 표현이고 북한의 독특성 즉, 중소와의 근접성과 역사적 관계에서 연유한 북한의 중소의존성을 과대평가한 결과”라고 비판했지만, 1960년대 초에 벌어진 노선 전환을 “소련의 대외정책 노선을 조심스럽게 일단 수용한 결과”라고 보았다.⁶

한국 학계의 북한 외교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인 냉전 연구의 흐름 속에서 놓고 보자면, 소련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전통주의’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냉전 연구는 전통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수정주의, 포스트수정주의를 거쳐 신냉전사의 출현으로 이어졌다.⁷ 한국의 북한 연구 또한 핵 위기

4 김훈태, 1991, 「북한 대외정책노선에 관한 연구 - 비동맹론 수용 이후 김일성의 대외관 변화를 중심으로 -」,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논문, 26쪽, 55쪽.

5 金泰丸, 1987, 앞의 책, 234~235쪽.

6 김훈태, 1991, 앞의 논문, 2쪽, 59쪽.

7 박인숙, 2003,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의 “탈 수정주의(post-revisionism)적” 냉전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We Now Know”를 중심으로 -」, 『大邱史學』 70; 노경덕, 2011, 「〈서평〉냉전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 - Odd Arne Westar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II, 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통일과

를 둘러싼 현상 분석의 필요성에 쫓기는 한편, 문화나 생활 영역으로 주제의 분화 및 심화가 이루어졌다. 다만 비동맹운동 인식과 같은 ‘낯은’ 주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신냉전사 연구를 주도하는 웨스타드(Odd Arne Westad)는, 전통주의, 수정주의, 포스트수정주의를 겪으면서 과도한 탈정치화가 벌어졌다고 비판하면서, 이념과 신념,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냉전에서 수행한 역할을 복권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⁸ 북한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반도의 냉전 그리고 북한에 관한 연구의 축적을 보자면, 이른바 수정주의 입장에 선 커밍스(Bruce Cummings)가 한국전쟁과 북한 정권의 내재적 기원에 관심을 기울인 것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더불어 한국 학계에서는 식민지기 사회주의 운동에서 북한 정권 수립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한 가운데 1950년대는 ‘북한 역사상 정치적으로 가장 풍부했던 시기’이며,⁹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도 단순히 종속이나 자립이냐로 단정 짓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졌다.¹⁰ 따라서 1950년대 북한 외교를 중소 의존적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으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동회회의와 비동맹운동은 중립, 평화 혹은 반식민주의 이념에 의해 냉전이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계기로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정용욱은 북한에

평화』 3-2 참조.

- 8 Odd Arne Westad, 2010, “The Cold War and the international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Odd Arne Westa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益田実, 2012, 「〈書評論文〉 冷戦史の転機, 冷戦史研究の転機 - ヨーロッパ・デタント研究の成果と可能性 - 」, 『国際政治』170, 日本国際政治学会.
- 9 서동만, 1998, 「1950년대 북한의 정치 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307쪽.
- 10 小此木政夫, 1972,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1953-1955 - 教条主義批判と主体概念 - 」, 『アジア経済』13-7;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1999(재판),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오름; 선즈화(沈志華)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天朝)』, 선인.

계 ‘평화운동’은 “한반도에서 탈식민 과제 해결과 진영외교를 결합하거나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이외의 지역·국가로 대외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자 무대”¹¹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없는 북한에서 발행한 ‘반월간 정치 시사 종합 잡지’ 『국제생활』의 1953~1961년 치를 분석하고자 한다.¹² 『국제생활』은 외교 문제에 관한 전문 잡지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를 봐도 정작 ‘외교’라는 단어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외교’라는 말이 가지는 ‘부르주아적’ 이미지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생활’이라는 작명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관을 엿볼 수 있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더욱이 발행소가 조선중앙통신사(1958년 이후 국제생활사)인 점을 고려할 때, 『국제생활』에는 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실렸을 것이다. 다만 ‘잡지’라는 성격상 개별 필자들의 기명 기사가 많이 실려 있는 등 풍부한 상황 인식이나 정세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생활』에 실린 기사들은 1950년대 북한이 냉전과 반식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제네바 회담과 평화공존론

연합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련은 승전을 사회주의 확산의 기회로 삼았다. 동유럽에는 소련의 지원 아래 일군의 ‘인

11 정용욱, 2014, 「6·25 전쟁~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 현실』 91, 287쪽.

12 『국제생활』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중국 연변대학교 소장본을 이용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는 1953년 14~19호, 1954년 1~8호, 1954년 9~15호, 1954년 17~24호, 1955년 1~8호, 1955년 9~16호, 1955년 17~24호, 1956년 4~14호, 1956년 15~24호가 소장되어 있다. 연변대학교 소장본 가운데는 1956년 1~3호, 1958년 5~14호, 1961년 1~24호를 이용하였다. 1957년과 1960년분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다. 아시아에서는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끈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한반도와 베트남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다. 1953년 7월에는 한국전쟁 정전이 결정되었고, 1954년 4월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와 베트남 문제 즉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의 정전을 다룰 제네바 회담이 열렸다.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대립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남북 분단이 고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차이나전쟁은 회의 기간 중인 5월에 프랑스군이 큰 패배를 당한 영향도 있어 정전이 합의되었다. 베트남에도 남북으로 분단된 두 개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을 구성원으로 하는 아시아 사회주의 진영이 성립한 셈이다.

『국제생활』은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조선 인민의 정당한 주장은 더욱더 권위를 획득”¹³하였다고 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쏘련,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영국, 불란서 등 5대 강국과 관계국의 참가하에 인도지나 문제를 토의한다는 그 자체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보았다.¹⁴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당당한 강대국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에 주목하고 주은래(周恩來) 총리의 활약상을 소개하였다.¹⁵

제네바 회담은 스탈린 사망 이후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해 소련이 벌인 평화 공세의 결과였다.¹⁶ 국공내전에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폐한 국내 경제를 복구할 필요에 쫓긴 중국은 제네바 회담에서 평화공존을 주장하였

13 「새해 - 1955년」, 『국제생활』 1955 - 1, 1955. 1. 15.

14 「인도지나에서의 평화 회복을 위하여」, 『국제생활』 1954 - 10, 1954. 5. 31.

15 「아세아에서 평화적 공존의 리념은 승리하고 있다」, 『국제생활』 1954 - 21, 1954. 11. 15.

16 김학재, 2015, 『판문점 체제의 기원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 -』, 후마니타스, 474쪽.

다.¹⁷ 북한 역시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는 ‘조국해방전쟁론’의 입장이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군의 폭격 피해를 입으면서 미국 중심의 전쟁세력 대 소련 중심의 평화·민주세력의 투쟁으로 한국전쟁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¹⁸ 이에 반해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과 중국의 평화공존 주장을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으로 규정하였고, 특히 보수세력은 공산권 국가를 인정하고 협상을 전개하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졌다. 한국 정부 역시 제네바 회담에 회의적이었다. 1954년 2월 변영태 외무장관은 “무력으로 해결 안 된 것을 정치회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¹⁹ 소련과 영국이 인도의 참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도가 불참하게 된 것은 “모든 중립주의는 비도덕적”이라는 이승만과 델레스의 의견이 관철된 결과였다.²⁰

『국제생활』은 ‘리승만 괴뢰 도당’이 “제네바 회의가 「아무리 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라고 미리부터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공산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다른 회의」에서도 여하한 합의도 도달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고 비판하고, 제네바 회담에서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힘의 정책’을 꺾었다고 평가하였다.²¹ 『국제생활』은 “워싱턴 상층부는 아세아에서 거대한 역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이를 ‘지배’해 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국 본토를 자유세계 측에 회복시킨다면 조선 및 인도지나의 전쟁은 자동적으로 승리로 종결될 것”이라는 이승만의 발언을 경계하였다.²² 『국제생활』에 실린 오순근의 글은 ‘힘의

17 김연철, 2011, 「1954년 제네바 회담과 동북아 냉전질서」, 『아세아연구』 54 - 1, 199쪽.

18 김태우, 2012,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83, 392~394쪽.

19 김연철, 2011, 앞의 글, 201~207쪽

20 김학재, 2015, 앞의 글, 473쪽.

21 「누가 아세아에서 평화를 반대하는가?」, 『국제생활』 1954 - 5, 1954. 3. 15.

22 「인도지나 정전과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음모」, 『국제생활』 1954 - 15, 1954. 8. 15.

정책'에 맞서 '회담'을 통한 평화의 확보를 강조하였다.²³

나아가 『국제생활』은 평화 추구하고 전쟁 회피가 사회주의 이념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강조하였다. 1955년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내적법칙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도가 장기간 평화적으로 공존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는 바르가의 글을 번역 소개하였다.²⁴ 류삼은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가 《우연적》이며 력사의 《실수》라고 떠들”지만, “두 진영간의 공존 문제는 우연한 것이 아니며 력사적 발전 조건들에 의하여 초래된 인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를 특징짓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²⁵ 차학호는 평화 공존을 제창한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행해진 흐루쇼프의 보고를 소개하면서, “현 사태에 있어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명제는 계속 의의를 가지면서도 《전쟁이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발전된 것이 마치 맑스-레닌주의의 수정인 듯이 떠드는 제국주의자들의 소동은 물론 그런 자들의 무식을 폭로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Ⅲ. 반동회익과 반식민주의의 고양

1. ‘평화공존 5원칙’의 확산

1950년대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성립되어 세계적인 확산을 보인 ‘평화공존 5원칙’은 1950년대 반식민주의 대두를 상징한다.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는 독립 직

23 오순근, 「평화는 또 한 번 승리하였다」, 『국제생활』 1954 - 14, 1954. 7. 31.

24 예·바르가, 한룡영 역,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하여」, 『국제생활』 1955 - 2, 1955. 1. 31.

25 류삼, 「평화적 공존에 대하여」, 『국제생활』 1956 - 1, 1956. 1. 15.

26 차학호,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국제생활』 1956 - 5, 1956. 3. 15.

후부터 ‘(군사)블록’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²⁷ 네루의 인도는 비사회주의국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먼저 승인하고 1950년 4월 국교를 수립하였다. 한국전쟁에서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의료부대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1950년 10월 유엔에서 미국 결의안에 기권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한국전쟁 정전 협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²⁸ 네루는 1953년 2월에 ‘제3지역론’을 주창하여 ‘평화지역 설정’ 필요성을 이야기하였고, 1954년 4월 인도차이나전쟁 종결을 위해 열린 제네바 회담에 영향을 미쳤다.²⁹ ‘평화공존 5원칙’은 1954년 4월 29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중국과 인도 간의 통상 및 교류협정에서 제시되었고, 제네바 회담 도중인 6월에 인도를 방문한 주은래와 네루의 공동성명에서 확인되었다. 해외 군사기지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며 공격이나 간섭이 없는 ‘평화지대’를 아시아에 건설하자는 네루의 제안에 대하여 주은래는 ‘평화공존’ 정책으로 응수한 것이다.³⁰

중국이 주창한 ‘평화공존 5원칙’의 내용은 ①영토 보전과 주권의 상호존중, ②상호불침략, ③상호불간섭, ④평등과 상호이익, ⑤평화공존이었다.³¹ 북한에서는 제1항을 ‘상대방의 영토 완전과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이라고 표시한다.³² ‘완정’이라는 조금 생소한 표현은 동 원칙 제1항의 중국어판 ‘호상존중주권화령토완정(互相尊重主权和领土完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영어판은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이다. 즉 ‘완정(完整)’은 ‘integrity’를 뜻하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전(保全)’과 비교할

27 岡倉古志郎 외, 1977, 앞의 책, 67쪽.

28 岡倉古志郎 외, 1977, 앞의 책, 68쪽.

29 정순영, 「비동맹운동과 남북한의 외교경합 - 비동맹의 성격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 『입법조사월보』 139, 1984. 4, 3쪽.

30 김학재, 2015, 앞의 글, 499쪽.

31 박봉식, 1980, 「중립주의정치 of 동태 - 비동맹운동의 성격변화와 관련하여 북괴의 비동맹노선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부설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6, 35쪽.

32 「아세아에서의 집단안전을 위하여」, 『국제생활』 1954 - 19, 1954. 10. 15.

때 더 적극적인 뉘앙스가 느껴진다. 1948년 9월 10일에 행해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 관한 김일성의 연설에는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³³ ‘완정’은 ‘통일’ 혹은 ‘완전한 해방’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당시 인도네시아 서부 이리안 지역은 구종주국인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남아 있었는데, 이를 두고 『국제생활』에서는 “아직 국토는 완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³⁴ 중국과 북한은 각각 대만과 남한을 의식하여 ‘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³⁵

1954년 4월 28일~5월 2일에는 실론(지금의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인도, 버마(지금의 미얀마), 인도네시아, 실론, 파키스탄 5개국 회의가 열렸다. 콜롬보 회의에서는 ①인도차이나전쟁의 중지과 인도차이나 3국의 완전독립, ②핵무기의 금지, ③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 ④식민주의 반대 등이 결의되었다. ‘평화공존 5원칙’과 콜롬보 회의 결과는 같은 해 7월 말 제네바 회담에서 체결된 인도차이나전쟁 정전협정에도 반영되었다. 동 협정은 인도차이나 3국의 독립, 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 군사동맹불참, 군사기지화 금지를 선언하였다.³⁶ 콜롬보 회의 참가 5개국은 1954년 12월 28일~29일에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다시 모여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초청국을 결정하였다. 『국제생활』에서는 중국이 초청된 것을 환영하였다.³⁷ 1955년 4월 18~24일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일명 반둥회의에는 콜롬보 회의 5개국을 포함하여 모두 29개국이 참가하였다. 참가국은 다음과 같다. 콜롬보 회의국인 인도·버마·인도네시아·실론·파키스탄,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중국·일본·라오스·네팔·필리핀·태국·북베트남·남베트남, 중동에서 이란·이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1948.9.10), 『인민』 3-4, 1948. 10. 같은 잡지 9월호에는 ‘안정’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10월호에서 ‘완정’으로 수정하였다.

34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 참가국들(상)」, 『국제생활』 1955-6, 1955. 3. 31.

35 최형남, 「반둥회의 후의 1년」, 『국제생활』 1956-7, 1956. 4. 15.

36 岡倉古志郎 외, 1977, 앞의 책, 69쪽.

37 「동남아세아 5개국 수상들의 보고르 회의」, 『국제생활』 1955-1, 1955. 1. 15.

라크·요르단·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터키·예멘,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수단·리비아·이디오피아·골드코스트(지금의 가나)·리베리아 등이다. 나세르의 이집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까지 반식민주의 연대가 확장된 것이 주목된다.

한편 제네바 회담을 실패로 규정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나름의 아시아 전략을 서둘렀다.³⁸ 그 결과 1954년 9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인 동남아조약기구(SEATO)가 결성되었다. 미국은 반동회의의 개최에 부정적이었다. 『국제생활』에서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참가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보고르 회의 참가국들에 압력을 가하였”다고 고발하였다.³⁹ 압력을 받은 나라는 동남아조약기구에 참가한 파키스탄이었을 것이다. 강태렬은 『국제생활』에 실은 글에서 미국이 “인도지나 3개국이 여하한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을 데 대한 정전 협정의 조항들을 무시하고 소위 「동남 아세아 동맹 기구」에 이 3개 괴뢰 국가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⁴⁰ 1955년 2월에는 역시 미국이 관여하는 중동조약기구(METO)도 발족하였다. 인도의 네루와 이집트의 나세르는 각각 동남아조약기구와 중동조약기구 결성에 강하게 반발하였다.⁴¹

우여곡절 끝에 반동회의는 열렸지만, 『국제생활』이 보기에, “파키스탄, 타이, 비루빈, 토이기 등과 같은 팔라에 예측되어 전쟁 정책에 추종하는 반동적인 정부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친미》, 《친서방 정책》에 많은 역량을 경주하는 일본과 같은 국가 대표들과 미국의 군사, 기술, 경제 《원조》들을 접수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⁴² 실제 회의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여

38 김학재, 2015, 앞의 책, 497쪽.

39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 소집을 지지한다」, 『국제생활』 1955-2, 1955. 1. 31.

40 강태렬, 「정전 후의 인도지나 정세」, 『국제생활』 1954-18, 1954. 9. 30.

41 박봉식, 1980, 앞의 글, 35쪽.

42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에 대하여」, 『국제생활』 1955-6, 1955. 3. 31.

진출한 파키스탄과 비루빈, 타이, 토이기 등 대표도 역시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난하는 무근거한 허위를 늘어놓음으로써 회의로 하여금 성과 없는 논쟁에 함입되도록 기도”하였다.⁴³ 북한은 반동회의에 대한 미국의 방해 공작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반동회의는 ‘평화공존 5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반동 10원칙을 결정하는 등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고 평가된다. 중국 대표 주은래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평화공존 원칙과 비동맹 원칙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식민주의적 논의를 지원하고 보충하며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은 물론 소련, 중국과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립주의와 비동맹 원칙을 내세운 네루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졌다.⁴⁴ 심지어 주은래는 “중국 인민은 미국 인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밝힘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⁴⁵ 『국제생활』에서도 회의를 성공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였다. 리재진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세계 각종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아세아 국가 특히 동남아세아 국가와 기타 린방들과의 평화적 협조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런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강화”하였다고 지켜세웠다.⁴⁶

북한은 반동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와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1954년 인도 뉴델리에서는 인도·북한 친선협회가 창설되었다. 또한 북한은 1955년 4월 6일~10일에는 같은 뉴델리에서 열린 ‘아세아 제국(諸國) 회의’에 참석하였다. 『국제생활』은 이 회의에 중국 대표단장 곽말약(郭沫若)을 비롯하여 16개국 대표가

43 「반동회의」, 『국제생활』 1955 - 9, 1955. 5. 15.

44 김학재, 2015, 앞의 책, 509~514쪽.

45 박봉식, 1980, 앞의 글, 36쪽.

46 리재진, 「중화인민공화국의 평화적 대외정책」, 『국제생활』 1955 - 5, 1955. 3. 15.

모여 ‘평화공존 5원칙’을 확인하였다고 소개하였다.⁴⁷ 아울러 『국제생활』은 반동회의의 “토론 과정에서 대표들이 조선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요망하여 나선 것을 환영”하였다.⁴⁸ 1956년 4월의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행한 보고에서 김일성은 반동회의에 대하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공고한 평화를 지향하는 수억만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을 표명하였으며 유명한 5개 원칙에 입각한 이 지역 인민들의 장성하는 단결을 뚜렷이 보여 주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구라파와 아세아의 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의 평화 애호 제국을 포괄하는 광대한 ‘평화 시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⁹ ‘평화 시대’는 네루가 사용한 표현이다.⁵⁰

1955년 6월에는 네루가 소련을 방문하였다. 1956년 흐루쇼프는 평화공존을 주창하면서, 비사회주의 국가라도 평화시대 혹은 평화역량이라는 범주를 통해 비적대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역량을 인정하였다.⁵¹ 『국제생활』은 소련이 제국주의 대 아시아·아프리카 구도를 지지한다고 인식하였다. 박원소는 소련이 제네바 회담에서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동정과 지지”를 보냈다고 평가하였다.⁵² 나아가 소련이 1955년 2월 ‘평화공존 5원칙’을 환영한다는 선언을 발표한 사실도 주목되었다.⁵³ 차학호는 “아세아 제국은 《평화 시대》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출현하였고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실망과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⁵⁴ 1955년 5월 소련

47 「아세아 제국 회의의 소집을 환영한다」, 『국제생활』 1955 - 6, 1955. 3. 31; 「력사적 결정들」, 『국제생활』 1955 - 8, 1955. 4. 30.

48 「반동회의의 성과를 환영한다」, 『국제생활』 1954 - 9, 1955. 5. 15.

49 편집부 엮음, 1988,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돌베개.

50 김훈태, 1991, 앞의 글, 56쪽.

51 김훈태, 1991, 앞의 글, 56쪽.

52 박원소, 「소련과 아세아 제국」, 『국제생활』 1955 - 6, 1955. 3. 31.

53 「아세아 평화와 안전의 길」, 『국제생활』 1955 - 7, 1955. 4. 15; 박봉식, 1980, 앞의 글, 35쪽.

54 차학호, 「평화 전선에 튼튼히 선 아세아 제국」, 『국제생활』 1956 - 8, 1956. 4. 30.

과 유고슬로비아의 화해도 평화 공존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리서룡은 “쏘련 - 유고슬라비아 회담이 전반적 평화를 공고히 하는 사업에 기여하는 영향과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면서 “서부 열강 지배층이 그렇게도 희구하던 쏘련과 유고슬라비아 간의 장벽은 깨쳐졌다”고 기뻐했다.⁵⁵

반동회의 이후 북한은 대아시아·아프리카 외교에 박차를 가하였다. 1957년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버마와 통상협정 혹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해인 1958년에는 세 나라에 각각 무역대표부를 개설하였다. 1958년에는 인도와 1959년에는 인도네시아와 각각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집트와도 1956년 8월에 수에즈운하 국유화 조치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한 이래, 1957년 12월에 무역협정을, 1959년에는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958년 1월에는 시리아와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1958년 7월에는 이라크 혁명정부를 승인하였다. 1958년 9월에는 독립운동을 벌이던 알제리 임시정부와 대사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1958년 10월에는 아프리카 기니의 독립을 승인하고 국교를 수립하였다.⁵⁶

2. 냉전 논리의 후퇴

1950년대 국제 정세를 둘러싼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 있었다. 자유 진영 대 공산 진영으로 보고자 하는 미국의 프레임과, 반동회의로 대표되고 사회주의 진영도 지지한 제국주의 대 아시아·아프리카라는 프레임이었다. 즉 냉전이나 반식민주의냐라는 문제였다. 『국제생활』은 미국의 반공주의가 기만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이 만든 동남아조약기구에 대해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낡은 간판 밑에 중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포위환을 형성하려는 것이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쫓겨나는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함으로써 동남아세아

55 리서룡, 「평화는 승리하고 있다」, 『국제생활』 1955 - 12, 1955. 6. 30.

56 金泰丸, 1987, 앞의 책, 245쪽.

지역을 영구한 미국 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침략적인 군사행력”이라고 규탄하였다.⁵⁷ 나아가 “미국 침략집단이 소위 「공산주의 침략」이라는 허위적 선전을 류포하면서 선동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린방 간의 관계를 리간시키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였다.⁵⁸

『국제생활』은 반식민주의를 강조하였다. 철민은 인도네시아 언론이 콜롬보 회의에 대하여 “아세아 인민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원수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식민지 제도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소개하였다.⁵⁹ 박원소는 “오늘날 아세아 인민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나 군사행력이 아니라 평화와 협조”라고 강조하였다.⁶⁰ 공산주의 운동보다 반식민주의 운동을 중시하는 듯한 서술도 눈에 띈다. 권창진은 “모든 나라 인민들은 인도지나 전쟁이 벌써 워싱턴 정책이 「공산주의 팽창」을 날조하기 전에 시작되었으며 독립을 위한 월남 인민의 용감한 투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기 전에 시작되었다는 력사적 사실을 미제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⁶¹ 송무열은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추진하는 “민족통일전선”을 “인도네시아의 완전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⁶² 실제로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1950년대 초부터 민족주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하는 전략을 폈다. 계급투쟁을 민족투쟁에 종속시킨 것이다.⁶³

제네바 회담 이후 강대국 간의 ‘사실상의 긴 평화’가 시작되면서 냉전은 ‘반

57 「아세아에서의 집단안전을 위하여」, 『국제생활』 1954 - 19, 1954. 10. 15.

58 「아세아에서 평화적 공존의 리념은 승리하고 있다」, 『국제생활』 1954 - 21, 1954. 11. 15.

59 철민, 「콜롬보 회의의 결과」, 『국제생활』 1954 - 9, 1954. 5. 15.

60 박원소, 「인도 수상 네루의 중국 방문」, 『국제생활』 1954 - 21, 1954. 11. 15.

61 권창진, 「최근의 인도 정치 정세」, 『국제생활』 1954 - 10, 1954. 5. 31.

62 송무열,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생활 형편」, 『국제생활』 1954 - 10, 1954. 5. 31.

63 박성관, 1998, 「인도네시아 공산주의운동의 전략분석, 1952 - 1965」, 『동북아연구』 4, 293~295쪽.

식민지' 지역에 대한 영향력 경쟁국면으로 전환되었다.⁶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은 평화와 중립을 평가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지지하였다. 미국도 반동회의 이후 비로소 아시아 정책에서 식민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영국의 완고함과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냉전 기간 내내 큰 진전은 없었다.⁶⁵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민족자결이라는 월슨주의적 사고 그리고 대서양헌장에 나타난 미국의 반식민주의 전통에 주목하면서도, 냉전이 확대됨에 따라 “식민주의 종식이 갖는 국가 안보 및 국제적 세력 균형에 대한 함의에 대해 우려”한 결과, “미국이 계속 반식민주의 정서에 몰입할 수는 없었”고 결국 “식민주의의 공범”이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⁶⁶

『국제생활』은 “일부 제국주의 사상가들은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해방 과정이 마치도 이 인민들의 투쟁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설을 류포시키고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자체의 이니셔티브로 낱아빠진 식민지 제도를 ‘청산’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번역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도 주재 미국 대사 체스터 보울즈가 미국의 아시아 외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가상적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⁶⁷ 최형남은 “세아토[동남아시아조약기구-인용자]와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되는 이에 류사한 군사 빨럭들은 붕괴되는 식민지 제도를 구출하여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⁶⁸

64 김학재, 2015, 앞의 책, 477쪽.

65 김학재, 2015, 앞의 책, 520쪽.

66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박건영 옮김, 2002(원저, 1997),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사회평론, 263~268쪽.

67 예·쥬꼬브, 한두형 역, 「미국과 식민주의」, 『국제생활』 1954-10, 1954. 5. 31. 체스터 보울즈에 대해서는 옥창준, 2015, 「미국으로 간 ‘반동 정신’: 체스터 보울즈의 제3세계」, 『사회와 역사』 108 참조.

68 최형남, 「반동회의 후의 1년」, 『국제생활』 1956-7, 1956. 4. 15.

냉전이나 반식민주의나라는 프레임 싸움에서 적어도 1950년대 중반에는 후자가 우세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브래들리(Mark Philip Bradley)는 1950~60년대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가 냉전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⁶⁹ 『국제생활』에서도 평화공존론의 영향 아래 반식민주의가 강조되면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은 무뎠다. 최인은 “인도는 ‘대체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연결되어 있으나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의 유지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최근 아세아의 평화 유지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에 대하여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⁰

북한과 달리 남한은 반동회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한국 정부의 갈홍기(葛弘基) 공보실장은 1955년 4월 반동회의를 “공산진영(共產陣營)과의 공존(共存)을 모색(摸索)하는 또 하나의 무모(無謀)한 기도(企圖)”라고 비판하고, “우리 정부(政府)는 공존사상(共存思想)이나 또는 유화정책(有和政策)에 지배(支配)되는 여하(如何)한 회의(會議)에도 참석(參席)하지 않을 것”을 “비극적(悲劇的)인 제네바 회의가 끝난 후(後) 이미 이를 전세계(全世界)에 선언(宣言)”하였다고 밝혔다.⁷¹ 냉전 진영 논리의 우등생이자 미국 측으로 완전히 경사되었던 한국으로서는 비동맹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려웠다.⁷² 이와 같은 남한의 냉전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북한에서 반식민주의 이념에 의해 냉전 논리가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는 사실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69 Mark Philip Bradley, “Decolonization, the global South, and the Cold War, 1919 -1962”, Odd Arne Westar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482~485쪽.

70 최인, 「아세아 평화에 기여하는 최근의 인도 정치의 동향」, 『국제생활』 1955 -5, 1955. 3. 15.

71 「對共存이란 無謀」, 『東亞日報』, 1955. 4. 25.

72 장세진, 2013,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사이間SAI』 15, 138~143쪽.

IV. ‘수정주의’ 비판과 비동맹운동의 비가시화

1958년에 발행된 『국제생활』에서는 논조의 변화가 감지된다. 먼저 유고슬로비아의 티토를 ‘수정주의’로 비판하는 허창봉의 글이 눈에 띈다. 허창봉은 유고슬로비아가 “현 세계가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 -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이를 다만 두 개의 《군사빨럭》의 존재로 묘사하면서 거기에 바로 현 국제 긴장 상태의 근원이 있는 듯이 주장”하고, “소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리익권》, 《세력권》의 분할을 위하여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듯이” 보는 것을 비판하였다. 중립 노선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루어졌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두 빨럭 밖에 남아 있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평화 공존 5원칙’의 의의를 제한하는 언급도 눈에 띈다. “사회주의 국가 호상 관계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가 아니라 다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는 데 있다”는 유고슬로비아의 주장에 대하여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을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에 고의적으로 들쭉우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글의 끝은 “조선 인민은 영원히 소련 인민과 함께 나갈 것이며 언제든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가치에 충직할 것”이라고 맺고 있다.⁷³

『국제생활』에 실린 티토 비판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끔 한다. 첫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예컨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군사빨럭’인가. 『국제생활』에 실린 리서룡의 글은 소련 등 8개국이 1955년 5월 바르샤바에 모여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동군 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평화진영의 응당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73 허창봉, 「국제 관계 문제에 대한 현대 수정주의의 《주장》을 배격한다.」, 『국제생활』 1958 - 8, 1958. 5. 16.

로 평가한 바 있다.⁷⁴ 나아가 북한은 1961년 7월에 소련 그리고 중국과 잇달아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두 조약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구성되었는데 예컨대 소련과의 조약에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⁷⁵ 바르샤바조약기구, 그리고 조소 및 중공동맹을 군사블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도 ‘평화공존 5원칙’이 적용되는가. 이는 1956년 10월 벌어진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다름 아니었다. 허창봉은 “웁그리야에서 중립을 운운하던 임레 나지의 반혁명적 정책과 그가 저질른 최악적 후과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비판하였다. 『국제생활』의 다른 글에서도 “임레 나지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을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규합된 국내외 반동세력”으로 규정하고, “쏘련 군대는 웁그리야 로농 혁명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반혁명 폭동을 진압하는데 무력으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의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⁶ 즉 중립을 주장한 헝가리 그리고 사회주의 사이에도 ‘평화공존 5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유고슬로비아의 주장은 가차 없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955년의 『국제생활』에는 소련과 북베트남이 공동성명에서 “량국 간의 관계가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였다고 지지하는 글이 실려 있다.⁷⁷ 1958년 『국제생활』의 태도는 역시 반동회의의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블록에 눈을 감은 채 ‘평화공존 5원칙’마저 뒤로 밀려

74 리서룡, 「평화는 승리하고 있다」, 『국제생활』 1955 - 12, 1955. 6. 30.

75 『국제생활』 1961 - 14, 1961. 7. 26.

76 「해방 13주년을 맞이하는 웁그리야」, 『국제생활』 1958 - 5, 1958. 4. 1.

77 「쏘련과 월남 간의 친선의 공고화」, 『국제생활』 1955 - 14, 1955. 7. 31.

난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만이 공허하게 외쳐졌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다소 퇴행적인 선전 문구도 남발되었다. 한국전쟁은 “사회주의의 대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평가되었고,⁷⁸ 헝가리 사태도 “웁그리아를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 속에서 떼어 내며 구라파에 전쟁 발원지를 만들어 놓으려고 시도”라고 비판되었다.⁷⁹ 『국제생활』에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동정을 전하는 「형제 나라들에서」라는 고정란이 설치되었다. 1961년 4월의 1961-7호부터 두 호에 한 번꼴로 소련, 중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불가리아, 헝가리, 북베트남, 몽골, 알바니아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⁸⁰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분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김봉태는 “우리나라 인민 경제가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협조를 받으면서 자립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며 사회주의 국제 분업의 우월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⁸¹ 김봉태는 다음 호에 실은 글에서도 유고슬로비아가 “다른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사회주의 나라의 착취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제분업과 달리 “사회주의 국제 분업은 뒤떨어진 나라의 기술 - 경제적 낙후성의 퇴치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여 선진 국가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데 그의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⁸² 수년 후 1963년 6월 12일자 『로동신문』이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라는 사설을 통하여 국제 분업이라는 이름 아래 부등가교환을 강요하는 소련의 태도를 비판하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⁸³ 1950년대 후반 『국제생활』 기사에서는 프롤레타

78 「평화의 벗, 『국제생활』 1958-5, 1958. 4. 1.

79 「해방 13주년을 맞이하는 웁그리아, 『국제생활』 1958-5, 1958. 4. 1.

80 「형제 나라들에서, 『국제생활』 1961-7, 1961. 4. 8.

81 김봉태, 「조 소 량국간의 경제적 협조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 『국제생활』 1958-8, 1958. 5. 16.

82 김봉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경제적 협조 관계의 새로운 발전, 『국제생활』 1958-9, 1958. 5. 31.

83 梶村秀樹, 1993(초출, 1969), 「朝鮮からみた現代東アジア」,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 236쪽.

리아 국제주의라는 일반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국제 정세 인식을 느낄 수 있다.

『국제생활』에서는 중국과 북베트남,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유고슬로비아 비판을 소개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⁸⁴ ‘평화공존 5원칙’과 반동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티토의 노선은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을 담고 있었다. 『국제생활』 지면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한 조급함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서는 1956년 8월에 벌어진 연안파와 소련파 숙청, 일명 ‘8월 종파 사건’의 영향이 느껴진다. 경직된 국제 정세 인식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 진행되던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과 연동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1958년 12월부터 중앙당에 의한 각 단위에 대한 집중지도가 실시되었다. 당시 『국제생활』에 실린 글에서는 유고슬로비아를 수정주의로 강하게 비판한 뒤, 같은 글 말미에서 “지난 시기 국제 수정주의를 도용하여 우리의 혁명을 파괴하려던 최창익, 박창옥을 두목으로 하는 반혁명 반당 종파분자들의 기도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우리 혁명에 해독적이었는가는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⁸⁵

한편 냉전 질서가 변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세력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났다. 인도와 중국은 반동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국경 분쟁 등을 거치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인도는 오히려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평화공존을 적극 모색하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1958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의 준비모임에서 중국과 버마가 ‘반식민주의’를 안전으로 제기하자 인도 대표

84 「통일을 위한 월남 인민의 투쟁」, 『국제생활』 1958-8, 1958. 5. 16; 안경현, 「사회주의 건설 완성의 기치를 높이든 승리자들의 대회」, 『국제생활』 1958-11, 1958. 7. 1; 「각국 형제 당들은 현대 수정주의를 일치하게 비판 배격하고 있다」, 『국제생활』 1958-12, 1958. 7. 16; 「각국 형제 당들은 현대 수정주의를 일치하게 비판 배격하고 있다」, 『국제생활』 1958-13, 1958. 8. 1.

85 「통일과 단결의 불패의 생활력」, 『국제생활』 1958-14, 1958. 8. 16.

가 이익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⁸⁶ 반동회의 이후 고양된 아시아·아프리카 운동은 1957년 12월 카이로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를 정점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복잡화, 다양화하면서 쇠퇴하였다고 평가된다.⁸⁷ 모두 44개국의 비정부 기구와 조직, 단체의 대표가 참가한 이 대회에 중국에서는 과학원 원장 광말약이 참가하였고,⁸⁸ 북한 대표단도 참가하였다.⁸⁹

1956년 7월 네루, 티토, 나세르 등 ‘중립주의 3거두’는 유고슬로비아의 브리오니 섬에서 회담을 가지고 반동 정신과 비동맹주의 견지, 그리고 군사동맹 반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⁹⁰ 1956년 10월에 발생한 이집트 수에즈 사태, 그리고 소련의 헝가리 침공은 비동맹운동을 가속화하는 변곡점이 되었다. “1956년(年) 스에즈운하(運河) 분쟁(紛爭)과 소련(蘇聯)의 헝가리 침공(侵略)을 계기(契機)로 이집트, 유고 및 인도(印度) 간(間)의 협력관계(協力關係) 심화(深化)”된 것이다.⁹¹ 비동맹운동이라는 말은 ‘non-aligned movement’(NAM)의 번역인 셈인데, 인도 독립 후 초대 수상인 네루가 1948년에 ‘non-alignment with blocs’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시초로 삼는다.⁹² 1960년 유엔 제15차 총회에서는 티토, 나세르, 네루, 수카르노, 그리고 가나의 앙크루마 등 비동맹 5개국 정상이 국제 긴장 완화를 위해 미소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1961년 초에는 티토가 아프리카를 순방하면서, 나세르, 수카

86 이병한, 2013, 「콜롬보의 유산 - 신중국과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 -」, 『중국현대문학』 65, 148~150쪽.

87 백원담, 2009, 「아시아에서 1960 - 70년대 비동맹/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중국현대문학』 49, 158쪽.

88 金東煥, 2009, 「1955 - 1962 기간의 중국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 반동회의와 아시아 - 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3 - 3.

89 임태균, 1983, 「북한의 대비동맹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요인을 중심으로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1쪽.

90 岡倉古志郎 외, 1977, 앞의 책, 70쪽.

91 外務部國際機構條約局, 1989, 『非同盟運動概觀』, 6쪽.

92 岡倉古志郎 외, 1977, 앞의 책, 67쪽.

르노와 만나 비동맹제국정상회의의 개최를 받기하였다. 1961년 6월 5일~13일에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가나, 유고슬로비아 등 22개국 대표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준비회의를 열었다.⁹³

카이로 회의에서 결정된 비동맹제국정상회의의 참가국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정치, 사회제도가 상이한 국가와의 평화공존 및 비동맹을 기초로 한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 ②민족독립운동을 일관하여 지지하는 국가, ③강대국의 각축과 관련되어 체결된 다자군사동맹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④강대국과의 양자군사조약 또는 지역방위조약 체결 당사국의 경우, 당해 조약이 강대국의 각축과 관련되어 체결된 것이 아니어야 함, ⑤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 국가의 경우, 동 제공이 강대국의 각축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야 함.⁹⁴

1961년 9월 1일~6일에 유고슬로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회 비동맹제국정상회의에는 모두 25개국이 참가하였다. 다만 『국제생활』에는 비동맹제국정상회의에 관한 기사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에 중점을 두었던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소련을 모두 군사블록으로 비판하면서 중립을 주장하는 회의에 동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정주의자로 비판하던 유고슬로비아의 티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동맹운동은 부담스러운 주제였다.

1960년은 비식민지화(decolonization)의 해였다. 그 해 열린 유엔 제15차 총회에서는 비식민지화 결의가 채택되었다. 『국제생활』에서는 제국주의 진영의 운명을 ‘서산락일’에 비유하며, “유엔 총회 제15차 회의 전반 회의는 제국주의가 발악을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그 영향력은 날을 따라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면서 “특히 식민지 국가 및 인민들에게 독립을 부여할 데 대한 문제의 표결 시에는 (중략) 반대한 것은 미, 영, 불 등 9개 서방 국가 뿐”이라고 지적

93 岡倉古志郎 외, 1977, 앞의 책, 13~14쪽.

94 外務部國際機構條約局, 1989, 앞의 책, 19쪽.

하였다.⁹⁵ 1960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만 17개국이 독립을 얻었다. 그 즈음 『국제생활』에는 아프리카 독립국에 대한 소개가 자주 실렸다. 북한은 1960년을 전후하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와 잇달아 영사 관계를 맺었지만, 적어도 『국제생활』에 실린 기사에서는 비동맹이나 중립의 가치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평화공존은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공세라는 성격을 잃고, 그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의 병립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었다. 남은 것은 체제 경쟁, 특히 근대화 혹은 산업화의 경쟁이었다. 『국제생활』은 1957년에 미국에 앞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한 사실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말해 주는 사례로서 크게 다뤘다. 『국제생활』은 “평화적 경쟁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⁹⁶ 엥거만(David C. Engerman)은 1960년대 초반의 두 위기, 즉 베를린장벽 건설(1961)과 쿠바 미사일 위기(1962)를 거치면서 ‘이데올로기 냉전’의 근원적인 전제가 흔들렸고, 양측은 체제 우월성의 증거로서 경제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분석하였다.⁹⁷ 경제 성장이 이념의 승리를 증명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소련의 평화공존론을 수정주의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국제생활』 지면에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 경쟁이 강조될 뿐이었다. 1960년 전후 『국제생활』의 논조는 냉전 진영 논리의 강화에 따른 반식민주의의 왜소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회주의 진영 옹호라는 지상의 목표 앞에서,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대한 태도에서 보이듯이, 반식민주의는 중립 혹은 평화와 분리되어 냉전 논리에 종속되었다. 한편 남한에서도, 일부 지식인들은 ‘형

95 「반월간 정세 동향」, 『국제생활』 1961-1, 1961. 1. 8.

96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력량의 결정적 우세」, 『국제생활』 1961-16, 1961. 8. 26.

97 David C. Engerman, “Ideology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17 - 1962”, Odd Arne Westar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41~43쪽.

가리 사태'에서 '반식민적 민족주의 문제'를 보고자 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공 의거'로 선전하는 데 그쳤다.⁹⁸ 남북한 정부 모두 냉전이라는 틀을 통하여 세계를 바라보고 있던 셈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잡지 『국제생활』을 분석함으로써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 및 비동맹운동 인식을 살폈다. 소련과 중국의 평화공세 속에 열린 제네바 회담의 결과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되고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의 정전이 성립함으로써 아시아 사회주의 진영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의 평화공세를 이어 제네바 회담을 지지하고 평화공존을 주창하였다.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중립, 평화, 반식민주의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1955년 반동회의의 개최로 이어졌다. 반동회의에 참가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주창하여 참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평화공세가 중립, 평화, 반식민주의와 어울려 냉전을 가로지르는 평화·민주 진영 대 제국주의 진영의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북한은 반동회의를 지지하고 그와 보조를 맞추고자 하였다. 반식민주의 이념이 냉전 논리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1956년은 하나의 획기가 되었다.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김일성 유일체제 수립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10월 소련의 헝가리 침공 이후 평화공존 5원칙은 형해화되고 사회주의 진영 논리가 강화되었다. 북한은 중립과 평화공존을 내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를 수정주의자로 비판하였다. 티토 등이 주도하여 1961년 제1차 비동맹제국정상회의가 열리지만 『국제생활』에서는 관련 기사를

98 김도민, 2017, 「1956년 헝가리 사태에 대한 남한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119 참조.

찾아볼 수 없다. 흐루쇼프가 평화공존론을 내걸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지만, 아직 북한은 이에 동조하지는 않고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조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의 사이의 체제 경쟁이 강조되면서, 1950년대 중반 정점에 달했던 반식민주의에 대한 공감은 1960년 전후에는 냉전 진영 논리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국제생활』 (1953~1961)

「對共共存이란 無謀」, 『東亞日報』, 1955. 4. 25.

金泰丸, 1987, 『北韓의 第3世界 外交政策』, 國際問題研究所.

김학재, 2015, 『판문점 체제의 기원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 -』, 후마니타스.

션즈화(沈志華) 지음, 김동길 · 김민철 · 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天朝)』, 선인.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1999(재판),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오름.

外務部國際機構條約局, 1989, 『非同盟運動概觀』.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박건영 옮김, 2002(원저, 1997),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사회평론.

편집부 엮음, 1988,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돌베개.

金南植, 1986, 『北韓의 對非同盟 外交政策』,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논문.

金東煥, 2009, 「1955-1962 기간의 중국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 반동회의와 아시아-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3-3.

김연철, 2011, 「1954년 제네바 회담과 동북아 냉전질서」, 『아세아연구』 54-1.

김태우, 2012,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 · 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 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83.

김훈태, 1991, 「북한 대외정책노선에 관한 연구 - 비동맹론 수용 이후 김일성의 대외관 변화를 중심으로 -」,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논문.

노경덕, 2011, 「〈서평〉 냉전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 - Odd Arne Westar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II, 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통일과 평화』 3-2.

박봉식, 1980, 「중립주의정치의 동태 - 비동맹운동의 성격변화와 관련하여 북괴의 비동맹노선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부설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6.

박성관, 1998, 「인도네시아 공산주의운동의 전략분석, 1952-1965」, 『동북아연구』 4.

박인숙, 2003,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의 ‘탈 수정주의(post-

- revisionism)적 냉전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大邱史學』 70.
- 백원담, 2009,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중국현대문학』 49.
- 서동만, 1998, 「1950년대 북한의 정치 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 옥창준, 2015, 「미국으로 간 '반동 정신': 체스터 보울즈의 제3세계」, 『사회와 역사』 108.
- 이병한, 2013, 「콜롬보의 유산 - 신중국과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 『중국현대문학』 65.
- 益田実, 2012, 「〈書評論文〉冷戦史の転機, 冷戦史研究の転機-ヨーロッパ・デタント研究の成果と可能性-」, 『国際政治』 170, 日本国際政治学会.
- 임태균, 1983, 「북한의 대비동맹정책에 관한 연구-정책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세진, 2013,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1955~1965)」, 『사이間SAI』 15.
- 정순영, 1984, 「비동맹운동과 남북한의 외교경합-비동맹의 성격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입법조사월보』 139.
- 정용욱, 2014, 「6·25 전쟁~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 현실』 91.
1948.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1948. 9. 10), 『인민』 3-4.
- 岡倉古志郎 외, 1977, 『非同盟・中立』, 新日本新書(한국어판은 편집부 역음, 1985, 『비동맹운동』, 지양사 발췌 번역).
- 梶村秀樹, 1993(초출, 1969), 「朝鮮からみた現代東アジア」,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
- 小此木政夫, 1972, 「北朝鮮における対ソ自主性の萌芽 1953-1955 -教条主義批判と主体概念-」, 『アジア経済』 13-7.
- David C. Engerman, 2010, "Ideology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17-1962", Odd Arne Westar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 Mark Philip Bradley, 2010, "Decolonization, the global South, and the Cold War,

1919–1962”, Odd Arne Westar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Odd Arne Westad, 2010, “The Cold War and the international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Odd Arne Westar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잡지 『국제생활』 기사를 중심으로

홍종욱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중립, 평화, 반식민주의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1955년 반동회의의 개최로 이어졌다. 반동회의에 참가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주창하여 참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평화공세가 중립, 평화, 반식민주의와 어울려 냉전을 가로지르는 평화·민주 진영 대 제국주의 진영의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북한은 반동회의를 지지하고 그와 보조를 맞추고자 하였다. 반식민주의 이념이 냉전 논리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김일성 유일체제 수립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10월 소련의 헝가리 침공 이후 평화공존 5원칙은 형해화되고 사회주의 진영 논리가 강화되었다. 중립과 평화공존을 내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수정주의자로 비판 받았다. 티토 등이 주도하여 1961년 제1차 비동맹제국정상회의가 열리지만 『국제생활』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1950년대 중반 반식민주의에 대한 공감의 정점에 달하지만, 1960년 전후가 되면 아시아라는 시점은 사라지고 사회주의 진영 논리만이 앞서게 된다.

주제어: 반둥회의, 평화공존, 반식민주의, 비동맹운동, 수정주의

ABSTRACT

North Korea's Recognition of the Bandung Conference and the Non-Aligned Movement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Magazine *International Life*

Hong Jongwook

As the Cold War deepened in many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many countries insisted on neutrality, peace, and anti-colonialism. This trend led to the 1955 Bandung Conference. China, which participated in the Bandung Conference, advocated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received the support of many countries. The “peace attack” of the socialist camp, being integrated with neutrality, peace, and anti-colonialism, created a picture of the peace and democratic camp versus the imperialist camp throughout the Cold War. The DPRK supported the Bandung Conference and tried to stay abreast.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anti-colonial ideology suppressed the Cold War logic to a certain extent.

In 1956, after the so-called August sectarian case, Kim Il Sung seized

sovereignty. In October of that same year, after the Soviet invasion of Hungary,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were broken down and the logic of the socialist camp was strengthened. Tito, in Yugoslavia, who supported neutrality and peaceful coexistence, was criticized as a revisionist. He and others led the first Non-Aligned Movement summit in 1961. However, no related articles are available in International Life. In the mid-1950s, sympathy for anti-colonialism peaked, but around 1960 the view of Asia disappeared and only the logic of the socialist camp lay ahead.

Keyword: Bandung Conference, peaceful coexistence, anti-colonialism, Non-Aligned Movement, revisionis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냉전과 지식정치

—박진환의 *Farm Management Analysis* (1966)의 성립

사정을 중심으로

김인수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냉전과 사회과학 지식생산
- II. 해방 이후 한국 농업경제학의 물질적 기반
- III. 농업경영 이론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전개
- IV. *Farm Management Analysis* (1966)와 ‘미국식 농업경영’ 지식의 정착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냉전과 사회과학 지식생산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냉전(Cold War)이 지역학, 인구학, 농업경제학 등으로 대표되는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생산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심대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탈식민화=정치적 독립을 얻었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매우 취약했다. 식민지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생산은 종종 식민국가와 식민지 지식인들의 독점물이었고, 그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의 접근은 아예 차단되거나 매우 한정된 영역으로 제한되기 일쑤였다. 특히, 사회과학의 토대이자 정당화 근거가 되는 조사, 다시 말해 사회를 계수화(enumeration)하여 재현(representation)해내는 각종 지식실천의 영역에서 식민국가의 지식자원 독점은 제법 심각한 것이었고, 따라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신생국가의 지식인들이 보유한 아카데미의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 예를 들어, 사회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지식생산의 이러한 한계적 조

* 투고: 2018년 5월 16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13일, 게재 확정: 2018년 8월 17일
** 본 연구는 《2017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로서 진행되었다. 이 글의 초고는 2017년 11월 20일에 동북아역사재단과 대만 중앙연구원대사연구소가 공동개최한 《동아시아 냉전사의 재구성: 사상, 학술, 이데올로기》에서 발표되었다. 토론을 통해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장세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 글은 또, 2018년 7월 6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AS in ASIA에서 “Knowledge Politics in Early Cold War Era: Focused on the Historical and Academic Meaning of *Farm Management Analysis* (1966) of Jin - Hwan Park”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외에, 이 글은 몇몇 공부모임을 통해 검토와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논평을 해주신 정진성, 정수복, 정근식, 김필동, 오병수, 윤해동, 홍종욱, 최정운, 이경목, 신주백, 송은영, 김성은, 옥창준, 박치현, 박동범, 허남혁, 김태호, 서호철, 권용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강점과 한계를 정확히 짚어 내면서 매우 생산적인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건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이들 사회에서 탈식민/냉전이 지식생산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독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탈식민 신생국가의 지식인들이 구(舊)제국과의 지적 네트워크로부터 단절·소외되는 한편, 지식의 새로운 발신지인 신(新)제국(미국)에 유학하여 그 네트워크에 접속·포섭되어 지식을 흡수하는 일을 의미했다. 그러나 사태는 단지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대하고 심원한 양상을 띠었다. 이들이 유학 이후 본국으로 회귀하여 여러 외원기관(外援機關)의 학술원조(기금, 인력, 이론/방법론의 제공)를 받아 연구소를 설립하고 사회조사를 수행하며 이로써 지식의 참조체계(references)를 직접 생산해내는 일련의 실천들, 다시 말해 지식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새롭게 구축해내는 과정이 뒤따랐다는 점에 이 사태의 핵심이 있다.¹ 이를테면 그것은 “지식생산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인식의 틀을 재정향(re-orientation)하는 과정”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는 어떤 힘과 의지에 의해 추동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기존에 제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식원조’(知識援助)의 주체인 미국의 문화기구 및 민간재단(록펠러재단, 포드재단, 카네기재단 등)의 취지와 의지에 방점을 두는 관점에서 ‘자선·박애(charity)와 과학(science)과 교육(education)의 삼위일체’²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또, 민간재단의 비국가성(non-state), 비정치성(non-political), 비영리성(non-business), 비이데올로기성(non-ideological)이 강조되었다. 한편, 이들 민간재단이 미국의 공식 정부기구를 대신하여 ‘문화외교’의 중요한 일익을

1 물론 그 의미는 다소 양의적인데, 탈식민/냉전기의 한국 지식인은 미국 유학과 외원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비로소, 비록 초기적 형태이기는 했지만, 20세기 이래 자신의 손으로 ‘사회조사다운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물론, 조사의 취지와 목적, 방법론은 제3세계 사회에 관해 호환가능한 지식을 필요로 했던 당시 미국의 정세, 재계, 학계의 필요에 종속된 것이었다.

2 이것은 록펠러재단에서 출연한 농업발전협회(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ADC)의 슬로건이다.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2011, *Rockefeller Philanthropy: A Selected Guide*, p.34.

담당했다는 점에 착목한 연구는 지식과 정책이 통괄된 제3세계에 대한 ‘근대화 기획’(modernization project)의 내면에 ‘미국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의식과 함께, 미국적 세계질서의 건설을 위한 문화통제, 헤게모니 전략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³ 이때, 이 근대화기획은 냉전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부상이 가시화된 시대 이래로 목격되어 온 미국적 발전양식(an American style of development)의 일면이다.⁴ 다음으로, 냉전의 지식체계가 남북문제(빈부격차)를 동서문제(진영논리)로 전치(displacement)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연구는 이 지식체계의 제3세계로의 확산에 이들 민간재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인구조절(birth control)과 식량증산(‘Green Revolution’)을 매개로 한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야말로 이 지식체계의 핵심이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계에 더 큰 불평등과 심화된 빈곤, 그리고 자연경관의 파괴를 불러왔다고 비판한다.⁵ 마지막으로, 이들 민간재단에 의한 지식원조 활동의 진정한 목적, 또는 이들이 제3세계에서 일궈낸 탁월한 성과는 실제로는 해당 사회가 처한 문제의 해결이기보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자네트워크를 구축해낸 일(Third World university network building) 그 자체에 있다고 평가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민간재단의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에 조응하는 사고프레임을 양산하고 강화했는데, 이 속에서 특정한 형태의 지식생산이 추장(推崇)되고 정당화(legitimation)되었다. 또, 이 네트워크는 제3세계 대

3 Edward H. Berman, 1983, *The Influence of the Carnegie, Ford, and Rockefeller Foundations o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Ideology of Philanthrop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pp.12~15.

4 David Ekbladh, 2010, *The Great American Mi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4.

5 Michael E. Latham, 2011, *The Right Kind of Revolution: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U.S. Foreign Policy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 Cornell University Press. 특히 제4장 “Technocratic Faith: From Birth Control to the Green Revolution”을 볼 것.

학의 중견학자, 정책관료, 언론인 등에게 중심의 코스모폴리탄 센터에 접근하여 경력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왔다. 네트워크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안전한 사유’(safe ideas) 속에서 고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혹은 ‘다른 생각’(other thoughts)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속성을 지닌 경험연구(empirical research)를 강화해왔다.⁶

다음으로, ‘지식수원’(知識受援) 측에 관한 분석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에 관한 몇몇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포드재단의 학술원조를 분석한 한 연구는 미국의 민간재단을 소셜파워(social power)로 개념화하면서, 1950년대 일본에서 포드재단이 수행한 기능은 일본 지식인의 의식구조 변혁,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비(非)마르크스주의적 인식으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여는 데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1960년에 일본의 고급휴양지 하코네(箱根)에서 일본근대화화를 주제로 개최된 일명 ‘하코네회의’(箱根會議)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⁷ 다음으로, 록펠러재단이 1945년 이후 대만의 농촌, 의료, 국제 학술문화 교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에

6 Inderjeet Parmar, 2014, *Foundations of the American Century: The Ford, Carnegie, and Rockefeller Foundations in the Rise of American Power*,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pp.14~15. 한편, 냉전의 지식체계로서 미국의 사회과학이 미국의 학계 내에서 어떤 역사적·정치적 경로를 거쳐 양적 방법(quantitative method)을 전면화한 사회과학으로 고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기흥, 2018, 「양적 방법은 미국 사회학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나?」, 『사회와 이론』 제32호(2018년 5월)을 참고할 것.

7 牧田東一, 2013, 「帝国の文化的な支配装置としての財団: 冷戦期日本におけるフォード財団の活動」, 平野健一郎 等, 『國際文化關係史研究』, 東京大学出版会, p.491. 마키타 도이치(牧田東一)의 박사논문은 「フォード財団と國際開發レジームの形成」(東京大学, 2005)이다. 다음의 글도 유용하다. 松田武, 2015, 『對米依存の起源: アメリカのソフト・パワー戦略』, 岩波書店. 이외에, 1945년 이후 록펠러재단의 일본 인구정책에의 개입에 관해서는, Deborah Oakley, 1978, “American - Japanese Interaction in the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in Ja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4 No.4; 김인수, 2018, 「출산력조사를 통해 본 일본의 인구정치, 1940~1950년대」, 『사회와 역사』 제118호(2018년 6월)를 참고할 것.

따르면 록펠러재단은 대만의 전염병 근절, 쌀 품종 개량과 생산량 개선, 가족·인구계획 등에 필요한 다수의 연구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였다.⁸

한국 학계의 경우, 냉전기 지식생산이 지나는 이러한 심대한 문제성, 그리고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해외에서의 여러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편이고 실증연구 역시 아직까지는 소략하고 간헐적인 편이다. 물론, 그동안 ‘문화냉전’(Cultural Cold War)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일련의 흥미로운 성과들을 얻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냉전이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지식생산에 미친 영향을 학문 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분석은 극히 드물다. 그것은 종종 학문의 ‘미국화Americanization’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연구흐름을 형성하기는 했지만, 그 ‘미국화’가 지식 내적으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낸 연구는 거의 축적되지 못했다.⁹ 조금 거칠게 말하면, 펠로십이나 연구비 편당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냉전기 지식생산의 골격을 드러낸 연구는 일부 있어 왔지만,¹⁰ 인문사회과학의 이론/방법론의 선택과 배제를 규정하는 내밀한 압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¹¹

8 우린춘, 2012, 「제5장 전후 대만에서 록펠러재단의 원조사업」, 기시 도시히코, 쓰치야 유카 엮음, 김려실 옮김, 『문화냉전과 아시아: 냉전 연구를 탈중심화하기』, 소명출판.

9 연구동향에 대한 개괄적 정리는 김인수, 2017,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 (196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間SAI』 제22호(2017년 5월), 42쪽을 참고할 것.

10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16, 『서울대학교 70년사 : 1946~2016』, 서울대학교; 김인수, 2015,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50년사, 1965~2015』, 한울아카데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사』, 한길사; 공임순, 2017, 「김학묵이라는 에이전시: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신설을 둘러싼 미국발 원조의 회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47집(2017년 11월).

11 본격적인 연구로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지식장에서 민간재단의 학술원조가 학문·정책 내적인 차원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신주백 편, 2018, 『근대화론과 냉전지식

한편, 최근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과학 지식생산의 구체적 양태를 다룬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부르디외(P. Bourdieu)의 상징권력(symbolic power) 개념¹²에 근거를 둔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¹³, ‘지배받는 지배자’¹⁴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상징폭력의 장 안에서 살아남은 이의 자기과시적 서사나,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비대칭적 지식권력 편중의 숙명론과 그 옹호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적 차원에서 비대칭적인 지식장 구조 그 자체가 지닌 정치적·물질적 힘, 메커니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누락시킨 채 행위자 분석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나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성이 많이 탈색되어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의 연구경향과 논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고자 하며, 해방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경제학자인 박진환 교수¹⁵의 초기 저작인 *Farm Management Analysis: For 84 Crop Farms in*

체계, 해안;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창비; 정문상, 2014,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동아시아 ‘냉전지식」, 『아시아문화연구』 36호; 정진아, 2015, 「해방 20년(1945~1965) 한국 경제학계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 『연세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이봉규, 2013, 「이승만정권기 행정분야 기술원조 도입과 행정개혁론의 성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 김현경 옮김, 2014,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 13 김경만, 2015,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문학동네. 김경만의 이 책에 대한 비판적 서평으로는, 정수복, 2015, 「김경만의 ‘지적 도발’에 대한 정수복의 ‘응답」, 『경제와사회』 108호(2015년 겨울호); 정태석, 2016, 「글로벌 지식장 논쟁과 사회(과)학의 의미: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 『경제와사회』 110호(2016년 여름호).
- 14 김종영, 2015, 『지배받는 지배자』, 돌베개.
- 15 박진환(1927~2016)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에서 수학(1948~1952)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박사학위논문은 Jin Hwan Park, 1963, *Economics of Resource Use on Rice Farms in Korea*, University of Minnesota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교수로 재직(1957~1970)했고,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특보(경제담당, 1970~1979)를 역임하면서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진환 교수는 록펠러재단, 특히 농업발전협회(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ADC, 전신은 The Council on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 CECA, 양 기관 모두 록펠러재단에서 출연

the Village of Chung Ja Ri, Kyung Ki Province, Korea, Su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6) (이하, *FMA* (1966)로 略記)의 성립사정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자리한 농정 이론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과학의 지식생산에서 지식네트워크, 연구비, 훈련기회를 무기로 냉전기 미국의 비대칭적인 학술권력이 지식 내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과학의 방향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¹⁶

II. 해방 이후 한국 농업경제학의 물질적 기반

박진환의 *FMA* (1966)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지식생산양식(the mode of knowledge production)의 차원에서 그 보고서의 성립경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을 위시한 모든 지식을 내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론/방법론, 자료(references)가 구성요소로 자리한다. 무릇 인간이란 존재가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오랜 격언(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처럼, 지식인 역시 자기 앞에 주어진 이론/방법론, 자료 위에서만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지식생산양식의 차원에서 박진환의 보고서를 분석하

한 기금으로 운영되었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자신이 미국유학을 통해 익힌 최신의 조사방법론을 통해 농업경영조사(1963년 겨울)를 실시했는데, *Farm Management Analysis* (1966)는 그 결과물 중 일부이다. 그는 ADC와는 꽤 인연이 깊었는데, ADC의 의장이었던 A. T. Mosher의 책으로 당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농업경영 기초교과서로 두루 활용된 *Getting Agriculture Moving: Essentials for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1965)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다(A. T. Mosher, 박진환 번역, 1971, 『농업근대화의 필수요인』, 서울대학교출판부).

- 16 본 연구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해가는 데에 주로 활용하는 자료는 미국 뉴욕에 소재한 록펠러재단문서고(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RAC)의 문서군이다. 저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외사료 수집 및 해제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7년 8월 28~9월 1일에 걸쳐 RAC를 방문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검색과 열람에는 RAC의 Lee R. Hiltzik 박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는 일은 그가 그러한 학술작업을 할 수 있었던 각종의 지식자원/재료 - 이론/방법론, 자료 - 의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전제로 한다. 박진환의 보고서에는 그가 미네소타대학 유학(석사, 박사)과, CECA/ADC¹⁷의 연구비 지원 및 방법론 훈련을 통해 얻게 된 각종 학술자원(academic resources)이 투영되어 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FMA* (1966)가 기반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개념은 ‘농업경영’(Farm Management)¹⁸이었다.

1. 사회과학/농업경제학 분야 영문서적의 유입, 혹은 요청

한국에서 미국 사회과학 지식의 수용 과정을 추적하는 일은 최근 들어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의 기관지 『한국사회학』에는 2015~2017년에 걸쳐 초기 한국사회학의 건립자들(Founding Fathers)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기획논문들이 다수 실렸는데, 이 가운데 일부 논문이 이 사회과학 지식수용 및 전

17 ADC(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농업발전협회. 1953년 11월 23일에 록펠러3세(John D. Rockefeller 3rd)가 “경제와 인간복지의 향상을 위한 자선, 과학, 교육의 조직”으로서 설립한 CECA(The Council on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 Inc.)의 후신으로 1963년에 ADC로 개칭하였다. 창립 당시부터 그 관심대상은 아시아 지역이었고, 농업 및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위에서 사회과학 인력의 양성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ADC는 1985년에 록펠러재단의 산하조직인 WILRTC(The Winrock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및 RFIADS(The Rockefeller Foundation’s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Service)와 통합하여 WIIAD(The Winroc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로 재출범하였다. ADC의 설립경위와 활동에 관한 상세한 통사로는 Russell, Stevenson and Virginia O. Locke, 1989,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A History*, Winroc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가 있다.

18 농업경영(Farm Management):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단위인 농가(農家)의 소득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하여 토지,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적절한 결합과 운용, 작물 및 가축의 선택과 농업조직을 다루는 과학. (출처: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50년대로 연구시기가 한정된 분석이기는 하지만 홍정완이 박사학위논문(2017)을 통해 당시 사회과학 이론의 흐름과 출처를 각종 잡지의 글을 소재로 삼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특히, 제2장).¹⁹ 이들 연구는 레퍼런스의 추적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번역서와 번역논문을 그 중요한 연구대상(이자, 주장의 근거)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 지식(이론/방법론)의 흐름과 확산을 측정할 때, 번역물 이상으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사람(유학, 파견을 통한 이동)과 물건(책, 조사장비의 이동)이라는 미디어, 그리고 제국 지식의 우위가 과시되면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사회조사의 현장, 심포지움, 워크숍)이다. 본 연구에서 박진환의 *FMA* (1966)의 성립사정을 확인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가운데 물건(책)과 장(워크숍)에 관한 것이다.

농업경영 관련 서적을 위시하여, 한국에서 미국 사회과학 서적의 도입의 양태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참조가 되는 몇몇 증언들이 존재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명예교수이자 미국의 코넬대학에서 사회조사방법론을 숙련하여 한국사회에 소개한 인물로 유명한 이만갑 교수는 해방 이후 학술도서의 수급문제를 언급하며, “그러나 다행히 매우 좁기는 하지만 해외의 학문적 동향을 볼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열려 있었으니 그것은 미국의 공보원”²⁰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미국 공보원은 당시 미도파백화점 옆에 자리하고 있었고, 사회과학 최신서적과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의 ‘최신 학술

19 홍정완, 2017,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다만 이 논문은 주로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어지식망’의 여전한 지속과 작동을 가시화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미국적 지식’(/영어지식망)으로의 전환과정을 담고 있다. 1950년대의 사회과학 지식풍경에 대한 분석이 주된 초점이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20 이만갑, 2004, 『삶의 뒤안길에서』, 세계일보, 14쪽. 사회조사 자료의 분석장비의 경우 미군부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 견학과 분석을 겸하는 일이 많았고, 책도 공보원을 통해 대학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김인수, 2015, 앞의 책, 174쪽, 321쪽).

서'의 도입은 언제나 난망한 과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이 외원기관의 도서지원(Book Grants)이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로 자료를 기증받는 사례(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의 Stuart A. Rice Collection, 논문/단행본 약 3,000건)도 있었지만, 그건 어지간한 행운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농업경제와 관련된 서적의 일반적인 유통과 그 입수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박진환 자신이 다음과 같이 고충을 표현한 적이 있다. 텍스트의 언어형태와 해당 사회의 농정관이 서로 맞물려 있는 언급이기도 하여 조금 길지만 인용해보기로 한다.

1945년 이후에는 한국말로 된 농업경제학 서적이 없었다. 수원고농(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인용자)의 도서관 자료는 주로 일본말로 된 것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말로 된 경제학과 농업사회학 분야의 서적들 중 상당 부분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맑스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적들이었다. 필자는 노동가치설을 기반으로 하는 맑스 경제학과 관련되는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다. 일본말로 되어 있는 노동가치설을 기준으로 하는 농업경제학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일본 농업은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계획경제 하에서 집단농업을 해야만 잘 살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책은 없었다. 노동가치설의 설정은 농촌의 빈곤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지만 농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50년대 당시 북한에서는 계획경제 하에서 집단농장들이 실시되고 있었다. 필자는 일본의 좌익 서적들을 읽으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공산품을 수출하는 시장경제로 발전되어야 농촌의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북한처럼 계획경제하에서 집단농장을 하게 되면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제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의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일본말로 되어 있는 농업경제 분야의 책들에서 멀어지게 되었다.²¹

21 박진환, 2009, 「회상」,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학생시대의 박진환이 일본어 텍스트로 된 농업경제학 서적을 읽고 있었다는 점, 그 텍스트에는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마르크스주의경제학이 투영되어 있었다는 점, 노동가치설의 실용적 효용에 대해 비교적 초기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점, 한국 농촌의 핵심문제인 과잉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본어로 된 농업경제학 서적은 그에게 별다른 울림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March 29, 1962

Title	Author	Publisher	
Farm Management	Blase, John H.	The Macmillan Co.	5.00
Science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dustries	Reed, Carl C.	Frontier-Pell	9.75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Beer, Peter T. J.	Univ. of Chicago Press	
Statistics in Research	DeLo, Edward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6.95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Samuel, Richard	John Wiley & Sons	10.00
Mathematical Procedures in the Economic Analysis of Fertilizer Use	Dean, W. L.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Economic Analysis Rev. ed.	Blasing, Kenneth L.	Harcourt	6.75
Introduction to Economics for Agriculture	Blase, John H.	Macmillan	6.75
Principles of Economics	Connors, William W.	McGraw-Hill	11.50
Principles of Economics	Connors, W. W.	Macmillan and Co.	7.50
Principles of Economics	Marshall, Alfred	Macmillan and Co.	7.5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Samuel, Richard	McGraw-Hill	6.75
World Population and Production	Winters, Lester A.	Frontier-Pell	12.00
Agricultural Price Analysis	Shapiro, Murray S.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Marketing and Finance	Shapiro, Murray S.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Marketing Research	Shapiro, Murray S.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Experimental Design	Shapiro, Murray S.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그림 1 Book Grants 도서목록(영어)
제공: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명칭	저자명	출판처	원가
농업경제학의 개론	대니얼 블레이스	매클리안	5.00
농업생산의 과학	찰스 리드	프론티어-펠	9.75
개발도상국의 경제학	피터 비어	芝加哥大學	
연구에 있어서의 통계학	에드워드 데로	아이오와 주립대학	6.95
통계분석의 방법	리처드 새뮤얼	존 Wiley & Sons	10.00
비료사용의 수학적 방법	윌리엄 L. 딘	아이오와 주립대학	5.00
경제분석의 개론	Kenneth L. 블레이싱	Harcourt	6.75
농업에 있어서의 경제학	John H. 블레이스	Macmillan	6.75
경제학의 원리	William W. 콘너스	McGraw-Hill	11.50
경제학의 원리	William W. 콘너스	Macmillan and Co.	7.50
경제학의 원리	Alfred Marshall	Macmillan and Co.	7.50
농업의 경제적 조직	Richard Samuel	McGraw-Hill	6.75
세계 인구와 생산	Lester A. Winters	Frontier-Pell	12.00
농업 가격 분석	Murray S. Shapiro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농업 마케팅과 금융	Murray S. Shapiro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농업 마케팅 연구	Murray S. Shapiro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실험적 설계	Murray S. Shapiro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5.00

그림 2 Book Grants 도서목록(일본어)
제공: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대로, 영어로 된 서적의 경우 입수경로가 넓지 못했고 특히 최신 사회과학 서적의 경우 구해서 읽기가 난망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 서적에의 갈증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시킨 것이 외원기관들의 서적구매기금(Book Grants)이었다. 박진환이 재직했던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17쪽.

를 포함하여, 몇몇 대학과 정부기관 - 예를 들어, 농림부 산하의 농촌진흥청(The Office of Rural Development, ORD) - 은 CECA/ADC에 도서구매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위의 <그림 1> <그림 2>는 그렇게 요청된 도서목록의 한 사례이다. <그림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들 기관은 CECA/ADC에 ‘농업경영’에 관련된 최신 영어서적의 구매와 발송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림 2>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당시 일본어로 나온 문헌들도 요청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 일본어 서적들은 일본의 농업경영 사례에 관한 조사서나 연구서들로서, CECA가 직접 구매할 수는 없어서 마루젠서점을 통해 대행구매하였다.²² 이외에 어떤 경우는 수업에 쓸 교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Economic Analysis* (C. E. Bishop, W. D. Toussaint)를 교재로 쓰려고 하고 있고 약 50부가 필요함. 지원을 해준다면 이 책을 학과자산으로 하고 매년 교재로 쓸 예정”²³이라는 식의 편지도 종종 발견된다. 이 영어, 일본어 서적을 통해 소개된 ‘농업경영’(Farm Management)의 이론은 ‘미국식 농정과학’의 핵심으로서, 박진환 등 당시 미국유학을 경험한 소장파 농업경제학자들²⁴에게 가장 첨단의 것이자 익숙한 것이었고, 또 한국농촌의

22 Letter (Nam Kyu Chung → A. B. Lewis, 1962-03-29),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13, Series 1, FA 078, Box 2, Folder 58. 정남규 박사는 당시 ORD의 오홍근 박사와 CECA의 도서구매 비용의 원조와 관련하여 토론했고, 이 편지에서의 도서구매 요청은 그 교섭의 산물이었다. 참고로, 이러한 영문서적의 유입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었고 당시 아시아 지역 대부분에서 마찬가지로의 모습이 목격되는데, 예를 들어 RAC의 일본의 교토대학과 관련된 문서군 안에서도 영문도서자료의 구매내역(Book Grants)이 등장한다.

23 Letter (Moon Shik Kim,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학과장 → A. B. Lewis, 1963-07-18),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13, Series 1, FA 078, Box 4, Folder 100.

24 미네소타대학 - 서울대학교의 교류프로그램에 따라 박홍래, 심영근, 주봉규, 반성환, 왕인근 교수 등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진 전체가 미네소타대학에서 2년간 유학하게 되었다. 당시 농업경제학과를 설립했던 김준보 교수의 경우 애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실행되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도 매우 유력한 무기로 간주되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협동농장화 사업(1953~58)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가지무라 히데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결과로 곡물수확량이 급격히 증가했다.²⁵ 박진환의 글에는 북한의 집단농장화 모델에 대한 의식과 비판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것은 1950~60년대 당시 한반도에서 이전의 식민지체제로부터 이어져온 일본식 농정 모델이 파산한 이후 대안적 농정모델의 주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남북 간 체제경쟁의 일단(一端)을 보여준다. 바꿔 말해, 토지혁명 이후로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소농 단위를 조직화, 협동화, 기계화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던 북한의 집단농장의 모델과, 농지개혁 이후로 새롭게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농업경영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고도화하고자 했던 한국의 모델이,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지식프레임의 자리를 두고 서로를 응시하며 경합하고 있었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농업경영 지식의 훈련소(Farm Management Training Center)

CECA/ADC의 학술원조는 도서구매, 펠로십, 국제회의의 여비지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또, 한국인 소장학자들에게 농업경영조사에 충당될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조사의 경우 단순한 금전적인 연구비 지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협회(Council)의 담당자 - 이들은 대체로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 들이 파견되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인의 조사, 연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를 띠었다는 점이다. 예

않았다고 한다(반성환, 2009, 「회상」,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지,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24쪽).

- 25 梶村秀樹, 1966, 「北朝鮮における農業協同化運動(1953~1958)についての一考察」, 358쪽(출전: 梶村秀樹, 1993, 『梶村秀樹著作集 第5巻: 現代朝鮮への視座』, 明石書店).

를 들어, 연구계획의 신청, 조사질문지의 작성, 척도의 구성, 개념(concepts)의 규정, 산술식의 선택 등 조사방법론 전반에 걸쳐 이들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CECA/ADC의 아시아 담당(Associate)이었던 A. B. Lewis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당시 농업경영 지식은 방콕과 델리에서 열린 몇몇 국제회의를 매개로 아시아 지역 안에서 전파, 공유되고 있었다. 한국의 농업경제학자들은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의에서 사용된 자료집(proceedings)을 Council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안에서는 1963년부터 수원에서 《Farm Management Training Center》가 개설되어, 대학의 연구자, 정부관료 가운데 선발된 인원에게 여름방학 1달여간의 집중 방법론 워크숍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농업경영 지식은 이러한 ‘훈련소’를 통해 교육, 전파되었고, 이 교육을 받은 인력은 이후 대학과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조사를 담당하였다. 또 그 가운데 몇몇의 두드러진 인물들은 이러한 경력을 쌓은 끝에 CECA/ADC의 평가와 보증 속에 미국유학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 여기서 ‘훈련소’ 개설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박진환은 미네소타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대학에 복귀하면서부터 ‘훈련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1957년 9월 3일에 미네소타를 떠나 11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학과에 돌아온 이후 곧바로 1주일에 10시간에 달하는 농업경영과 통계 수업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코넬대학의 여름학기를 통해 함께 농업경영을 연구했던 W. Y. Yang 박사(FAO의 Land and Water Use Branch, Agricultural Division에서 근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진환은, 중국 난징의 금릉대학에서 이루어졌던 J. L. Buck의 헌신적인 노력을 언급하면서, 자신 역시 앞으로 한국에서 농업경영이 뿌리를 내리도록 정진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겠노라 다짐하고 있다.²⁶

26 Letter (Jin H. Park → W. Y. Yang, 1957 - 10),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 3B1.13, Series 1, FA 078, Box 4,

그리고 끝이어서 보낸 편지에서 박진환은, 그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일전에 Yang 박사에게 말했던 그 조사를 한번 실시해볼 생각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는 농촌출신 학생 50여 명을 조사원으로 선발.
- 조사의 타이틀은 “Number of lots of fields that a farm operating and their distances from the farm houses.”
- 학교에 작은 학과도서관을 운영해볼 생각으로, 외국의 농업에 관한 자료, 통계 문헌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짐.²⁷

문면에서 드러나듯이 이 조사는 본격적인 농업경영조사는 아니고 단순히 농지분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만, 아시아의 농가가 지닌 일반적인 문제인 ‘경지의 분산’(fragment of land)이 농장의 효율적인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는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Yang 박사는 1957년 12월 31일 박진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조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신에게 보내온 편지들은 모두 사본을 만들어 사업지원의 결정권을 가진 CECA의 Buck, Lewis, Bratton(코넬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에게 전달해 보겠노라 약속했다.²⁸

농업경영조사와 그 훈련기관에 대한 이러한 박진환의 열망은 1960년대 초에 접어들어 한국정부 안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보다 깊어지면서 결실을 맺게

Folder 99.

27 Letter (Jin H. Park → W. Y. Yang, 1957-12-15),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13, Series 1, FA 078, Box 4, Folder 99.

28 Letter (W. Y. Yang → Jin H. Park, 1957-12-31),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13, Series 1, FA 078, Box 4, Folder 99.

된다.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The Office of Rural Development, ORD)의 오흥근 박사는 CECA/ADC와 교섭을 진행하여 ‘훈련소’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A. B. Lewis에게 보낸 편지에서 Council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An Introduction to Korean Agriculture*의 출간이 완료되어 이를 전달하겠다는 소식과, W. Y. Yang 박사의 *Methods of Farm Management Investigations*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부, 대학에 배포하여 교재로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1963년에 수원에 《Farm Management Training Center》를 개설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언급했다.²⁹ 회신에서 Lewis는 Farm Management Training Center의 개설에 관해 방콕에 있는 Shao - er Ong 박사(FAO Far East Regional Office 대표)와 상의를 마쳤고, CECA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알려왔다. 또, W. Y. Yang 박사의 책 *Methods of Farm Management Investigations*는 FAO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하되 CECA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³⁰

사업은 구체화되어 1963년 9월 23일~10월 4일에 걸쳐 수원의 ORD에서 국립농업경영분석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 in Farm Management Analysis, NTCFMA)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대학과 정부에서 총 40여 명의 한국인이 참가했고, A. B. Lewis는 Council을 대표하여 방문교수로 활동했다. Lewis 이외에도 3명의 외국인 방문교수가 더 참여했는데, FAO 방콕지부의 Dr. Sha - er Ong 박사, 일본의 Tohei Sawamura 박사, 대만의 농촌재건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ssion on Rural Reconstruction)의 S. C. Hsieh 박사가 그들이었다. 박진환은 당시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직후였

29 Letter (Heung Keun Oh → A. B. Lewis, 1962 - 07 - 05),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13, Series 1, FA 078, Box 2, Folder 58.

30 Letter (A. B. Lewis, → Heung Keun Oh 1962 - 07 - 16),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13, Series 1, FA 078, Box 2, Folder 58.

는데, 이 ‘훈련소’에서 강사와 매니저로 활동했다. 워크숍이 끝나갈 즈음,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로 워크숍의 개설이 필요하고 한국농촌에 대한 농업경영 자료를 실제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참가자들에 의해 공유되기도 했다.³¹

이처럼, 박진환의 *FMA* (1966) 집필의 기초가 된 농업경영조사(1963년 겨울에 실시)는 이 1963년 여름의 NTCFMA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기획되었다. 1963년 10월 23일에 박진환은 Lewis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85,000원(654달러)을 연구비로 요청했다.³² 이에 대해 Lewis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알려오면서 아래의 사항을 안내, 당부했다.

- 1960년에 일본에서 열렸던 농업경영훈련센터(farm management training center)에서 아야세마찌를 조사하는 데에 사용한 질문지(farm business survey form)를 함께 동봉함. 이 조사는 도쿄에 있는 Farm Management and Land Utilization Division of the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에서 작성하여 활용한 조사지임. 이 조사지는 코넬대학에서 사용된 것에 기초해 있음. 한국의 농촌을 조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직접적으로 질문지를 프린트하기 전에 먼저 농부들을 만나 질문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몇 차례 확인하기를 기대함.
- 질문지를 다 만들고 나서 내게 검토의 기회를 주면 좋을 듯.³³

31 Letter (Moon Shik Kim, 서울대 농과대학장 → A. B. Lewis, 1963 -12 -02),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7, Folder 363.

32 이 편지는 RAC 자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박진환에 대한 Lewis의 답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내용을 추정하였다.

33 Letter (A. B. Lewis → Jin H. Park, 1963 -11 -13),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7, Folder 363.

이 편지에는, 질문지의 참조체계로서 1960년 일본에서 시행한 농업경영조사의 질문지(코넬대학의 조사설문지가 원본origin)를 활용해보라는 제언, 본 조사에 앞서 파일럿(pilot) 조사를 해보라는 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찍어 조사에 돌입하기 전에 Lewis 자신에게 상담하라는 ‘제언’이 담겨 있다.

최종적으로 ADC는 박진환이 요청한 연구비를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1964년의 NTCFMA를 그의 감독하에 준비하는 것으로 해보자고 알려졌다.³⁴ 이에 대해, 김문협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Lewis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석균(의장, 한국 FAO 협회), 김호식(부의장, 서울대 농과대학 학장), 현신규(부의장, ORD), 박기혁(연세대), 박진환(서울대), 이덕영(농림부 농정국장)이위원을 맡기로 하고, 수원에서 1964년 7월 14일~8월 13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참가자는 25명 안팎으로 선정하는데, 대학(12), ORD(8), 농림부/수협(5)로 할당하기로 했다. 박진환이 이미 ADC에서 연구비를 승인받은 겨울의 농업경영조사를 주관하고 1964년의 NTCFMA에서는 그 조사자료를 실습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박진환은 대표강사를 맡기로 했다. 예산신청액은 2,560.49달러, 당시 한국 돈으로 332,864원으로 책정되었다.³⁵

이듬해 2월, Lewis는 1964년 NTCFMA의 지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며, 자신과 함께 코넬대학의 C. Arthur Bratton 교수가 워크숍에 함께 참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 편지에서 Lewis는 Bratton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하였는데, 그는 필리핀에 파견되어 일했고 교토대학에서 1년간 폴브라이트 방문교수로 농업경영을 강의했으며, 1960년 도쿄에서 Lewis 자신과 함께 일본농

34 Letter (A. T. Mosher → Jin H. Park, 1963-12-17),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7, Folder 363.

35 Letter (Moon Hyup Kim → A. B. Lewis, 1963-12-28),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8.

- 2 -

T. 35 COMPREHENSIVE SUMMARY OF INCOME AND EXPENSE. NET INCOME.

Receipts (Items sold or to be sold, not including items consumed by the farm family).

1. Crops sold or to be sold:	
a. Rice (T. 25)	7.10
b. Barley & Wheat (T. 25) (except labor)	7.10
c. Pulse (T. 25)	7.15
d. Potatoes (T. 25)	7.15
e. Misc. (T. 25) (rice paddies)	7.15
f. Vegetables (T. 25)	7.15
g. Special (T. 25)	7.10
h. Fruits (T. 25)	7.10
i. Seeds & seedlings (T. 28)	7.25
j. Total Crop Sales (1a + c + f + i):	7.25
2. Livestock	7.25
3. Livestock products	7.25
a. Total livestock and products (2 + 3):	7.25
4. Forest products sold or to be sold:	
5. Farm processing (gross revenue):	
6. Other home industry (gross revenue):	
7. Miscellaneous receipts (T. 27):	
8. Net increase in total farm capital during the year:	
9. Total Receipts (1j. + 2a + 4 + 5 + 6 + 7):	
B. Farm Privileges (Products and services produced on the farm and consumed by the farm family).	
1. Annual rental value of farm house (T. 3)	
2. Value of livestock consumed (T. 8)	7.20
3. Value of livestock products consumed (T. 9)	
4. Fuel for home use (T. 24)	7.20
5. Crops for home use (T. 25)	7.20
6. Fuel for home use	
7. Total farm privileges (1 + 2 + 3 + 4 + 5 + 6):	7.1
8. Rice for home use:	
9. Barley for home use:	
C. Gross Earnings A 9 + B 7):	
D. Expenses (In cash or the equivalent, excluding interest and labor)	
1. Building repairs (T. 3)	
2. Machinery repairs (T. 3)	
3. Rent paid (T. 3)	
4. Livestock purchased (T. 3)	
5. Farm family labor earnings (T. 3)	
6. Farm household's labor earnings (T. 3)	
7. Return on Farm Family Capital (T. 3)	

그림 3 Lewis가 박진환에게 보낸 편지에 제시된 산술식의 한 사례
(출처: Letter (A. B. Lewis → Jin H. Park, 1964-05-08),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8)

림성 산하 국립농업과학연구소(사와무라 박사팀)의 NTCFMA(일본)에서 한 달여 일해 본 인물이었다. Bratton은 박진환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는 데, 1957년 코넬대학의 여름학기 수업에서 Bratton, Lewis, Yang은 교수로, 박진환은 수강생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Lewis는 1964년 NTCFMA의 커리큘럼을 Bratton, 박진환, 그리고 자신까지 3명이 작성하겠다고 말했다.³⁶

36 Letter (A. B. Lewis → Ho Sik Kim, 1964-02-18), RAC Reference:

이어 박진환은 3월 23일 회신에서, 농업경영조사가 2월 말에 완료되어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알리면서, 같은 학과의 반성환 교수가 조사한 사례 -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했다 - 와 합치면 총 400여 케이스가 확보된 셈이라고 말했다. 박진환은 이 자료들을 워크숍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반성환 교수를 강사진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주간시간표계획’과 함께 Lewis, Bratton 교수 각각에게 세부 강의주제를 배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으로서, (1) 한국농업에서 농업경영의 역할 (2) 보다 확대된 목적을 위한 농업경영분석 (3) 통계에 대한 기초지식 (4) 농업경영에서 문제해결 과정 등 네 가지를 예시하였다.³⁷

Lewis는 자신의 강의는 1960년 일본에서 실시한 강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Yang 박사의 *Methods of Farm Management Investigations*를 교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일본의 발농사지대에 관한 조사자료(*An Economic Analysis of 343 Upland Farms in Japan*)도 함께 참고하기로 했다.³⁸ 나아가, Lewis는 농업경영조사에 활용되는 개념, 방법론, 수식, 공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두툽한 서류를 박진환에게 보내왔다. 위의 〈그림 3〉은 그가 박진환에게 보내온 농업경영조사에 사용될 개념과 산술식에 관한 예시이다.³⁹

1964년 NTCFMA는 실제로 7월 13일부터 8월 14까지 수원에서 개설되었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8.

37 Letter (Jin H. Park → A. B. Lewis, 1964-03-23),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8.

38 Letter (A. B. Lewis → Jin H. Park, 1964-04-28),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8.

39 Letter (A. B. Lewis → Jin H. Park, 1964-05-08),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8.



그림 4 1966년 8월 19일, 수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방법론워크숍

맨 앞 줄 앉은 이 왼쪽에서 2번째가 박진환 교수, 4번째가 H. M. Southworth 교수. (* 출전: RAC,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Box 13, Folder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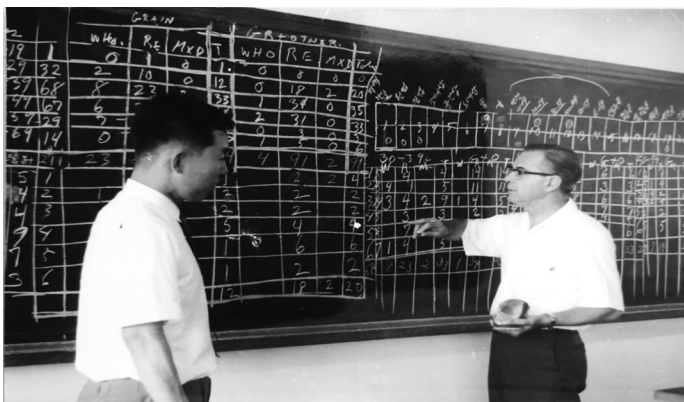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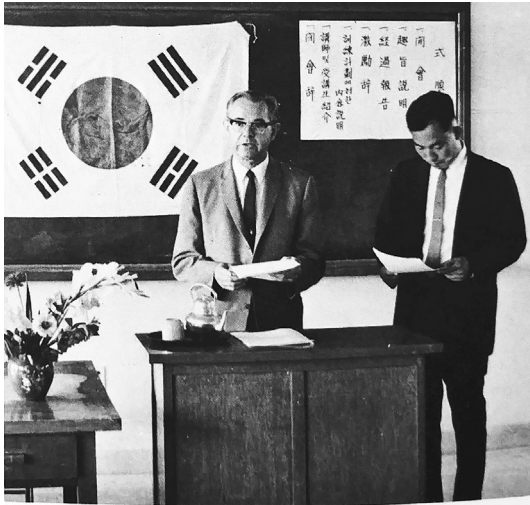


그림 5 1966년 8월, 수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방법론워크숍

(* 출전: RAC,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Box 13, Folder 159)



Dr. Lewis and Professor Shim open the 1966 summer course on Agricultural Marketing Research Methods in Suwan, Korea.

그림 6 1966년 여름학기. 수원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방법론워크숍(농업시장연구방법론)에서의 Lewis 박사와 심영근 교수

(* 출처: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port for 1966. RAC,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15, Box 1, Folder 3)

고, 한국대표에 의해 “한국에서 농업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핵심문제는 개별 농장에서 농업자원(farm resources)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작자의 경영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향후에도 NTCFMA가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⁴⁰

40 Letter (Ho Sik Kim → A. B. Lewis, 1964 -09 -25),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8.

Ⅲ. 농업경영 이론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전개

1. IPR과 CECA/ADC

이처럼 해방 이후 한국/아시아에서 ‘농업경영’ 이론은 미국의 외원기관으로부터 그 물질적 기초를 얻어 이른바 ‘냉전농정학’의 형태로 수용, 확대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해둘 점은 이 ‘농업경영’ 이론이 1930년대 한국/아시아 사회에 이미 소개된 바 있었다는 점이다.⁴¹

CECA의 초대의장은 John Lossing Buck(1954~57년간 CECA 의장)이었다. 선교사이자 교수로 중국 난징의 금릉대학(金陵大學)에 자리를 잡았던 그는 1920~30년대에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의 지원을 받아 중국농촌조사(Land Utilization Survey)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⁴² 이 조사는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那須皓)과 식민지 조선(Hoon K. Lee, 이훈구)에서도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그 안에 투영된 농정관이 바로 ‘농업경영’이었다.

이를 한갓 J. L. Buck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냉전기 CECA/ADC가 설파한 ‘농업경영’의 이론이 1930년대 IPR 주관 하에 실시된 토지이용조사와 그 농정관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뒤에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농업경영의 이론적 프레임은 경작토지의 규모(대규모 vs 영세성)나 소유형태(자작 vs 소작)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토지이용의 실제적 형태와 효율성/생산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국 일본 및 아시아마르크스주의의 농정인식과는 결을 달리한다. 또, IPR과

41 당시의 맥락성을 강조하며 이를 ‘헤게모니 경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 해석한 연구로서, 김인수, 2015,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이용조사와 그 정치적 의미」, 『사회와역사』 107(2015년 9월)을 참고할 것.

42 그 결과물은 J. Lossing, Buck, 1937, *Land Utilization in China: A Study of 16,786 Farms in 168 Localities, and 38,256 Farm Families in Twenty-two Provinces in China, 1929~1933 (I~Ⅲ)*, University of Nanking으로 간행되었다.

CECA/ADC 모두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이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단체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CECA/ADC는 여러 기금지원 - 연구인력 파견지원, 펠로십,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금, 사회조사 재원 등 - 을 통해 1945년 이후 전 세계에 미국식의 농정지식이 확산해가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960~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경제학자들 대다수 역시 이 CECA/ADC의 펠로십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1953년~83년간 이 펠로십을 수령한 국내 학자들의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³

〈표 1〉

이름	현직 (1983년 현재)	학력
반성환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미네소타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1~1963), 박사(1967~1971)
장동섭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과장	코넬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7~1969), 전남대학교 박사(1973)
진홍복	농협대학 교수	규슈대학 농업경제학 박사(1968~1971)
조성지*	1970년대에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영어과목담당 강사로 활동	규슈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5~1967)
최양부 ⁴⁴	한국농업경제연구소 농촌발전연구과 과장	미주리대학 농업경제학 박사(1972~1976)
최규섭	한국개발원(KDI) 연구원	필리핀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77~1979)
한규수	서울시립대학 학장	오하이오주립대학 수학(1966~1968)
홍기용	농촌진흥청(ORD)	필리핀대학 농업경제학 박사(1973~1975)
김동희	단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코넬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3~1965), 하와이대학 박사(1971)
김호택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펜실베이니아대학 농업경제학 박사(1967~1971)
김일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학과장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농촌사회학 박사 (1966~1970)
김성훈	중앙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하와이대학 농업경제학 박사(1968~1969)
김영철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인도 안드라대학 농업경제학 박사(1972~1978)
공종열	농업발전조합 과장	교토대학 농업회계 수학(1966~1967)
구천서	단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과장	메인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3~1965), 고려대학교 박사(1982)

43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1983, *Directory of Fellows, 1953~1983*, 72~76쪽.

권택진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일리노이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6~1968), 고려대학교 박사(1980)
이정환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농업경제학과 교수	아이오와주립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7~1969), 미시간주립대학 박사(1971~1974)
이길현*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코넬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5~1967), 서울대학교 박사(1975)
문재원	정보 未詳	규슈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8~1970)
문팔용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레곤주립대학 농업경제학 박사(1969~1972)
박홍래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컴퓨터과학통계학과 교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통계학 박사 (1963~1966)
박진환	농협대학 학장	미네소타대학 농업경제학 박사(1960~1963)
이재한*	미국 거주	메인대학 농업경제학 석사(1962~1964),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박사(1967~1971)
심영근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아리조나대학 및 미네소타대학 수학(1969~1971), 서울대학교 농학박사(1968)
송해균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 교수, 학과장	일리노이대학 농업교육학 박사(1968~1970)
왕인근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촌사회학 전공)	위스콘신대학 농촌사회학 박사(1963~1967)
유철호	Davis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대학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 (1974~1978)

*는 원 자료에 '정보미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권용대 교수(충남대학교)로부터 조언을 받아 추가·작성한 것이다.

44 이 가운데 최양부의 사례는 CECA/ADC의 학술지원이 가져온 또 다른 결과, 또는 미국식 농정지식의 다양성에 관한 예증으로 읽힌다. 그는 1968년에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ADC의 후원으로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김영삼정부에서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아르헨티나 대사를 지냈다. 최양부는 최근 『한국농어민신문』에 “가우농 최양부의 자전적 농정사”를 기고하여 한국농정의 역사적 흐름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찬찬히 짚어내고 있는데, 1960년대 당시 한국의 농업경제학의 지식생산과 관련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다. 최양부에 따르면, “김준보 교수는 한국의 농가는 가족적 소농으로 비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경제주체이며, 이를 연구하는 한국농업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용을 받는 일반경제학의 응용분과가 아니며 자기 독립성을 갖는 학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농생산양식은 기업생산양식과 다르다면서 …… 그러나 서울대 농경제학과는 1962년 김준보 교수가 학과를 떠난 후 김 교수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고, 내(최양부 - 인용자)가 학과에 입학한 1964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농업경제학 교육을 받은 김문식, 박진환, 반성환, 심영근 교수 등이 신주류를 형성하고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생산경제학, 농산물시장론 등을 강의하였다.”(최양부, 2018. 7. 10, 『한국농어민신문』 제 3023호, 14면) 최양부 역시 ADC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이때 그는 Herman M. Southworth 교수의 추천으로 미국 미주리대학교로 진학했다.

2. 연구비와 길들이기: 김준보/이필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진환의 농업경영조사는 1920년대로부터 발원하여 당시에까지 이른 록펠러재단 - IPR/CECA/ADC의 ‘단절 없는’ 농정관 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 IPR(Hoon K. Lee)의 토지이용조사는 전면적이기보다는 간헐적인 시도에 불과했다. 관변의 공식조사를 비판할 수 있는 대항조사가 거의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작에 비해 자작이 생산성이 우월하다는 믿음, 그리고 아시아농업의 비극은 경작규모의 영세성에 기인한다는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이 사회에 전면화되어 있었다.

박진환이 미국 유학을 통해 배웠고 또 한국사회에 설파하고자 했던 ‘농업경영’의 이론은, 그러나 해방 이전은 물론 해방 직후의 한국사회에서도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자리에 있었던 이론이었다. 그것은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관찰(empirical and practical investigations)을 지향했고, 이로써 농촌문제의 발견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신념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또 냉전기 미국의 학계가 전 세계의 지식엘리트들을 자국의 대학에 초빙하여 교육하여 확산시키고자 하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이 이론이 그저 우수성과 탁월성이라는 이론 내적인 우위를 통해 한국사회에 이식되고 확산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종전에 존재하던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이론 - 이를 제국 일본의 것,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자의 것이라 불

그는 “미국의 농업경제학자들은 ‘진정한 농업경제학자는 이제 멸종되었다’며 농가를 기업으로 ‘의제’하고 기업경제이론을 농가경제이론으로 간주하는 ‘의제주의 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나(최양부 - 인용자)는 ‘기업이 아닌 농민을 기업으로 보자’는 의제주의 방법론은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적 자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최양부, 2018-8-7, 『한국농어민신문』 제3030호, 14면)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데에 전념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안에는 농업을 소농경제론의 관점에서 비자본주의적/비시장적 단순상품생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경제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 영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학술적 논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당시 미국 유학파의 농정지식, 나아가 미국의 농업경제학의 지식체계가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러도 무방하다 - 과의 투쟁이 존재했다. 이 ‘이론전쟁’은 대체로 이론/방법론의 ‘강제적 제안’을 동반한 외원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농업경영’ 이론의 승리로 끝났다. 적어도 한국의 사회과학 아카데미즘 안에서는 그러했다.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와 이필규 교수와 전남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준보 교수의 사례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김준보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에서 재직하다가 전남대학의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고려대학교에 통계학과를 개설한 인물인 한편, 『농업경제학서설』이라는 작품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노농파로 불렸던 비판적 인물이다. 황연수에 따르면, 그 책은 1946년 이후 20년간의 연구업적을 보완하고 집대성한 것으로 나오자마자 운동서클의 필독서로 읽혔다.⁴⁵

전남대학 농업경제학과와 이필규 교수는 김준보 교수의 지도 및 소개로 CECA에 연구비를 신청했다. CECA/ADC의 한국/아시아 담당이었던 A. B. Lewis는 1963년 말에 의장인 A. T. Mosher에게 보낸 보고서간에서 전남대학 농업경제학과와 이필규 교수로부터 3건의 작은 연구비 요청과 전자계산기의 구매 요청을 받았음을 알리고 그 처분의 방법에 관해 상의를 했다. 그는 이미 1963년 NTCFMA(수원)에서 김준보, 이필규 교수를 면담한 적이 있었고 이들의 이력을 확인한 상태였다. Lewis는 이들의 과제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은 평을 하고 있다.

이필규 교수와 김준보 교수가 현장조사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기도 한데, 그들은 이전에는 필드조사를 해본 적이 없었던 인물들이기 때문

45 황연수, 2009, 「회상」,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133쪽. 비판적 서클의 필독서가 되었다는 논의는 다른 글에서도 확인된다. 김준보 교수의 『농업경제학서설』은 “월북 경제학자 전석담 교수의 『조선경제사』, 가와까미 하지메의 『경제학 대강』, 이영협 의 『일반 경제사요론』 등”과 함께 “농법회 내에서는 교과서처럼 통했다”(서울대학교 농촌법학회, 2012, 『고난의 꽃봉오리가 되다: 서울대학교 농촌법학회 50년사』, 572쪽)는 것이다.

이다. 이필규 교수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한 그의 조교 오근배는 해외에 나가 펠로십을 받고 싶어했고, 어느 정도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보였다. 그에게 연구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서울의 USOM 농촌발전부(The Rural Development Division, RDD) 부장인 Joe Motheral에게 연락을 해서 이필규와 그의 조교의 연구를 조언, 감독하게 하고 적절한 연구과제를 맡길 생각이 다. 필요하다면 그런 연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⁴⁶

Lewis는 곧바로 Joe Motheral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의 연구작업을 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필규 교수는 전남대학에 한국농촌발전연구소를 설립해서 그곳을 통해 필드 조사를 하고자 함. 김준보 교수나 이 교수는 일본의 농정 라인에서 다소 전통적인 훈련을 받은 나이든 축(older man)에 속함. 다만, 그들이 다소간의 실제적인 필드리서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됨. 김준보 교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필규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김준보 교수의 지원과 조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됨.
- 수원에서 이필규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3건의 연구계획을 나에게 건네줬음. 나는 그것을 A, B, C라고 표기해두었음. (* 자료첨부)
- 프로젝트 A는 농업조합과 전통적인 ‘계’를 조사하는 것. 20개 마을에서 5일간 조사하는 것. 나는 이것이 상당히 피상적인 조사라고 생각함. 그 결과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음. 이필규 교수나 그 동료들이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농민들과 가깝다고 생각되지도 않음.

46 Letter (A. B. Lewis → A. T. Mosher, 1963-11-22),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 프로젝트 B는 마케팅 영역, 마케팅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절실하지만 이것을 수행하는 이들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됨.
- 프로젝트 C는 농업경영(farm management)의 분야, 이 부분의 연구는 김준보 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 이필규 교수는 협동농업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음, 그의 생각은 매우 피상적임. 인과성이나 효율적 분석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함. 결국 프로젝트 C는 문제가 많음.
- 이들 기관은 이 조사를 통해 학생들을 훈련하고 국가정책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리서치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대해서는 무지함. 그들은 과학적 사고,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려는 사고와는 거리가 멀고 프로젝트를 수행해가는 능력 역시 별로 발전되지 못한 상태임. 특히, 그들의 사고에는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농업, 농민의 삶에의 친연성(acquaintance)이 전혀 없음.
-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전남대학에 내려가서 이들 이필규 교수와 그의 조교들의 연구사업을 조언하고 감독할 수 있는가의 여부. 만약 당신이 그럴 수 있다면 Council은 이들에게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예정.
- 이걸 나의 생각으로, Council은 이필규 교수와 그 동료들을 실용적으로 전환시켜(a practical turn) 효용이 큰 연구로 나아가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적절한 감독이 필요한데, 자칫 그들이 만약 잘못된 정신(wrong spirit)으로 암울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농민에게 접근한다면 그야말로 더 큰 위험(harm)이 될 것 같음.⁴⁷

여기에는 Lewis의 비교적 솔직담백한 평이 담겨 있는데, 그는 김준보, 이필규의 농촌조사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표명하면서도, 한국의 지명도 있는

47 Letter (A. B. Lewis → Joe Motheral, 주한미국대사관 USOM 농촌발전부장, 1963-11-25),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 3B1, 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비판적인 농업경제학자들이 새롭게 조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섭해갈 필요가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적절한 개입과 지도(guidance)가 요청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한번 연구비지원을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⁴⁸ 이에 대해, Motheral은 동의 를 표하며, Russell W. Bierman 박사를 광주로 파견해서 이필규 교수의 프로젝트를 점검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Bierman 박사는 “이필규 교수 등으로 하여금 피상적이고 모호한 인식을 버리고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프로젝트로 향하게끔(orient) 인도 할 것”이다.⁴⁹

Bierman 박사는 1963년 12월 중순에 이필규 교수팀을 면담했고,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Motheral에게 보고했다. Bierman은 이필규 교수 연구팀이 Lewis가 걱정하고 있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없으며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종합적인 논평을 냈다. 이필규 교수가 60세에 가까운 노인이라는 점은 한계가 되겠지만, 최신 연구기법을 어느 정도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인 답을 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간단한 조사는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이 교수팀이 제안한 개별 연구과제 3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농업시장구조에 관한 연구계획과 농업구조 향상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매우 비판적인 논평을 가했다.

○ 농업시장구조에 관한 연구(전남지역의 쌀시장).

－ 연구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큰 마진, 시즌에 따른 가격의 양등, 특히 농민

48 Letter (A. B. Lewis → Joe Motheral, 1963 -11 -25),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49 Letter (Joe R. Motheral → A. B. Lewis, 1963 -12 -16),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은 이득을 얻지 못하고 중간상인들이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구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그러나 나는 이 마진이 그 자체로 비효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조언함. 단순히 ‘사실들’을 모은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도 조언했음.

○ 농업구조의 향상을 위한 농촌조사

- 연구진은 농토의 필지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발농사를 발전시키려면 조합농업(cooperative farming)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음. 이 연구팀은 전라남도에서 발전하고 있는 공동 발농사의 초기형태를 연구하고 있음.
- 나는 조합농업을 전제한 ‘농업구조’에 관한 연구에는 반대했음. 이데올로기적 견지에서 이것은 “집단농장”(collective farms)에 가까운 것으로 들렸음. 그들의 답변은 “조합농업은 러시아적 의미에서의 집단농장이 아니고, 구태여 그 예를 외국에서 찾자면 이스라엘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음. 농민이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곡기, 트랙터 등 거대자본이 드는 것들을 공동으로 함께 쓰는 집단농업의 한 형태라는 것임.
- 나는 다섯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음. (1) 문제영역의 구체화와 대표성을 띤 촌락의 선택 (2) 시장, 마을의 장비 및 조직을 포함하여 농업, 농업자원, 농부 개인에 대한 연구 (3) 현행 농업시스템에 대한 세밀한 분석. 표본의 전형성을 확보하고 세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 마을당 6~8명의 농부들이 농장의 여러 형태와 규모, 또는 다양한 농업문제를 대표하는 이들로 추출되어야 함 (4) 농부 개인들의 예산분석을 통해 여러 대안적인 농업 및 생산 시스템을 평가해야 함 (5) 농부들이 어떻게 현재의 농업시스템에서 바람직한 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농가플랜을 만들어야 함 (6) 개인의 행동에서 시작해서 마을, 지역, 국가의 주체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마을의 농업발전플랜을 준비해야 함.⁵⁰

50 Letter (Russell W. Bierman (RDD) → Joe R. Motheral (RDD), 1963-12-

이필규 교수팀은 농업구조에 관한 분석에 관심이 가 있었고, Bierman은 그것이 자칫 집단농장의 지향을 갖는 연구로 흐를까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이필규 교수팀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1년 정도의 보류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필규는 1964년 2월 23일에 제출했던 연구계획서를 수정을 거쳐 1965년 2월 20일에 다시 제출하고 있다.⁵¹ 그 과정에서 연구주제는 “Field Survey on Farm Business for Improving Farm Management in Kwangju Area: ‘Woo - Chi Dong’ village near Kwangju, Chonnam Province”로 바뀌었다. 연구자로는 이필규, 김준보 이외에, 박진환(서울대), 박재룡(전라남도 PORD 대표)이 추가되었다. 조사의 목적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적절한 농가규모(moderate farming size)를 결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계획서의 수정과정에 Lewis, Bierman, 박진환의 조언, 검토가 있었음을 밝혀두었다. 연구비는 343,585원(1,394달러)을 청구했다.⁵²

이 연구계획 신청서를 검토한 후 Lewis는 박진환에게 편지를 보내 “이필규

31),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51 그 사이인 1964년 8월에 이필규는 A. B. Lewis에게 도서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ECEA/ADC에서 요구하는 방법론에 관한 학습, 적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다. W. Y. Yang, *Methods of Farm Management Investigations*, 1958; C. A. Bratton, *Ways Farm Management Research and Extension Contribute to Agricultural Progress*, 1960; G. A. Pond, *The Place of Farm Records in Farm Management Research*, 1955; Farm Management Study (필리핀대학 농과대학 위크숍 자료); G. F. Warren의 농업 조사 Bulletin; B. F. Stanton의 “Table Talk”; Bratton의 Studies on Dairy Farm Management(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13, Series 1, FA 078, Box 2, Folder 64).

52 Letter (Pil-Kyu Lee → A. B. Lewis, 1965-02-25),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교수팀은 여전히 비즈니스 단위이자 소비의 단위이기도 한 농가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하니,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했고 당신이 지도를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⁵³

결국 ADC의 Lewis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필규 교수팀에 대한 농업경영조사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졌던 셈인데, 방법론적인 불만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Lewis는 “한국의 모든 나이 든 농업경제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에 대한 이필규 교수의 아이디어는 주로 일본에서 온 것”으로, “생계비용을 뛰어넘는 농촌가족의 순저축(net savings)을 농업경영의 효율성의 여러 척도들과 연계시켜 하나의 종속변수로만 간주해온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⁵⁴ 이것은 한국/아시아의 농촌, 농업에 대한 상이한 이해방식의 갈등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필규 교수도 Lewis의 요구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불만을 제기했다. 이필규는 Lewis에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농업경영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수작업과 약 60~80%에 이르는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부불가족노동을 제외한 상태에서 농업소득(operator's farm income)만을 가지고 농촌사회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⁵⁵ 여기에서 이필규 교수의 논점은 러시아의 농정학자 차야노프(Alexander Chayanov)의 소농경제론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야노프의 소농경제론의 특징은 농민의 농업이 대체로 무급노동에 의존한다는 점,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충당하기보다는 주로 가

53 Letter (A. B. Lewis → Jin H. Park, 1965-04-05),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54 Letter (A. B. Lewis → Joe Motheral, (U.S. Operations Mission RDD 부장), 1965-04-06),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55 Letter (Pil-Kyu Lee → A. B. Lewis, 1966-02-28),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50.

족노동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있다. 가족노동의 경우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을 계산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차야노프의 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를 규율하는 질서화의 원리 - 예를 들어, 노동투입을 줄임으로써 이윤 극대화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한다는 것 - 가 농민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에 대해 자본주의적 이윤계산을 적용하는 것은 어폐이고 모순이다.⁵⁶ 다만, 연구비를 수령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이필규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코넬대학에서 펴낸 *Bulletin*에 소재한 논문 - 이것은 Lewis가 추천해준 논문이었다 - 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기로 Lewis와 타협하였다.⁵⁷

여담이지만, 박진환에게 자문을 맡기고 여러 방법론 논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필규 교수팀의 연구방향을 ‘지도’하고자 했던 Lewis의 의도는 그리 잘 충족되지 못하고 불만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ADC가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 파견한 한국책임자인 Herman M. Southworth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이필규 교수는 그의 일본식 훈련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측정하려고 한 변수들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기계적으로 합니다. 일반적 개념에 대한 일반적 원리라는 사고는 일본

56 양 다우 판 더르 플루흐, 김정섭·유찬희 옮김, 2018, 『농민과 농업: 차야노프의 사상을 재조명하다』, 따비, 64~65쪽, 생산단위이자 소비단위이며 자기소비와 자기고용이 이루어지는 농가(農家)의 개념을 적절히 도시(圖示)한 것으로, 生源寺眞一, 2013, 『農業と人間』, 岩波書店, 72쪽을 참고할 것.

57 Letter (Pil-Kyu Lee → A. B. Lewis, 1966-03-27),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50. 이필규의 이 연구는 “Summary and Analysis of Farm Management: Especially Some Measurement of Net Farm Income on 102 crop Farms in Uchidong, Kwangju, Korea, March 1964 February 1965”, 『농업경제연구』 제9권 제1호(1967)로 발행되었다. 이필규 교수는 이 글에서 ADC의 A. B. Lewis 박사로부터 방법론 교육을 받았음을 명기해두고 있다(40쪽).

식 전통적 사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개념과 원리를 재현한 변수가 측정될 수 있다는 사고는 이필규 교수의 입장에서는 배워 익히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전까지의 경력에서 벗어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는 있습니다. 나는 그와 편지를 통해 그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⁵⁸

참고로, 미국유학을 통해 미국식 농업경영 지식을 섭취한 한국의 신진 농업 경제학자들은 김준보, 이필규 등 선배 그룹에 대해 인간적인 신뢰와 존경의 념(念)을 보이는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그들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모순적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성환은 “김준보 교수님의 자존적 독학의 자신감이 넓은 세계의 저명교수들과의 교분을 쌓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감히 짐작해본다”⁵⁹고 했고, 구천서는 “김준보 교수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노동가치설’에 대한 집착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필자(구천서)로서는 엄청난 불행이었다. 불행히 필자는 미국과 영국의 대학원에서 그곳 석학들로부터 세뇌를 받았고 그러기에 김준보 교수님을 존경하면서도 교수님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오염되어 있었다”는 말로 스승을 회상했다.⁶⁰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상황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에서 CECA/ADC라는

58 Letter (A. B. Lewis → Herman M. Southworth, 1968-02-21),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50. ‘일본식 농정지식’의 한계, 문제점에 대한 이 언급은 Lewis의 오랜 지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진환은 1959년에 쓴 글에서 Lewis가 방한하여 자신에게 들려준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농업경제현상에 관한 자료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기는 일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이 총체적 또는 거시적 자료이지 그것들이 농민, 자식들의 영농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분석가공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적다.(박진환, 1959,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2권 제1호, 38쪽)

59 반성환, 2009, 「회상」, 앞의 글, 24쪽.

60 구천서, 2009, 「회상」,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40쪽.

외원기관을 매개로 진행된 농업경제학 전문지식의 급격하고도 치밀한 전환, ‘농업경영’ 이론으로의 정향(定向, orientation)의 양상을 확인하게 된다.

IV. Farm Management Analysis (1966)와 ‘미국식 농업경영’ 지식의 정착

1. 농업경영조사에 이르는 과정: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 대한 CECA/ADC의 지원

이필규 교수의 작업에 대해 CECA/ADC가 지속적으로 불신과 교정의 시선을 보낸 데에 비해, 박진환, 반성환 등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는 1960년대 초반에 해당 학과의 교수진에 지원된 연구비의 목록이다.⁶¹

〈표 2〉 Grant Awarded on Which Reports are Due

승인일	예산 (\$)	수령자	완료일	비고
1962-09-19	611.84	박홍래(서울대)	1963. 초반	Rice Yield Sample Method 연구
1962-09-24	271.00	왕인근(서울대)	1963.1	The Adoption of Farming and Home-making Practices 연구 ⁶²
1963-12-06	1,808.00	반성환(서울대)	1965.6	Farm Resource Use 연구 (4개 마을) ⁶³
1963-12-06	680.00	박진환(서울대)	1965. 여름	Farm Management 연구
1964-11-04	1,500.00	박진환(서울대)	-	위의 자료 분석에 필요한 추가 연구비
1964-11-04	2,325.00	박진환(서울대)	1965. 여름	Farm Management Research의 결과를 요약하는 저작의 발간비용 (한글 4, 영문 1)

61 “Grant Awarded on Which Reports are Due,”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7, Folder 363.

1964-06-17	3,043,67	구와하라(교토대)	1964-05-23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의 Farm Management 의 방법론에 관한 국제 회의(교토, 1964-05-17~23)
------------	----------	-----------	------------	---

* 박진환에 따르면, 1963년 환율은 “255원 = \$1.00 U.S.”였다(FMA, 1966, 11쪽).

그런데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 대한 이러한 연구비의 지원은 CECA/ADC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기획된 것이었다. 나아가, CECA/ADC는 학과의 ‘실질적인’ 연구, 교육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했다. Sherwood, O. Berg가 CECA, ICAE(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cs), 미네소타대학으로부터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촉받아 1958년에 작성한 보고서⁶⁴는 그 직접

- 62 해당 서류철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 Wang - Adoption of Farming and Homemaking Practices in Nucleated Villages, 1962 - 1963, 1966,”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7, Folder 367. 이 연구에는 왕인근 이외에, 홍준양, 허정옥, 구자룡, 임승환, 서문규, 이영재, 박형호, 박경한, 심정근, 윤상열 외 4명이 참여했다. 이 서류철에는 질문지인 「농사 및 농촌생활 개선 권장사항의 수용규제 제 요인에 관한 현지조사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표」(1962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와 연구결과물인 왕인근, 1962, 「장려농업기술의 농가수용과 그의 사회경제적 규제요인」,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2, 1962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 63 반성환의 연구는 박진환의 FMA (1966)에서 비교사례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 반성환의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조사의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는 서류철 - 박진환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농업경영조사표」를 포함 - 이 남아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AC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서류철의 서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 Ban, S. H. - Farm Resources, 1963~1966,”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7.
- 64 Sherwood, O. Berg, “Recommendations Pertaining to Teaching, Research and Staff Training in Agricultural Economics for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Korea, August 4 -16, 1958,”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9(Titl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 -Publications of

적인 근거가 된다. 이 보고서는 그 성격상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발전방안’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8년 당시 Berg가 접촉한 인물은 조백현(서울대 농과대학장), 김준보(농업경제학과장), 박진환, 김문식, 주봉규, 반성환, 왕인근 등이었고, OEC, USIS, The Asia Foundation에도 방문했다. Berg는 직접적으로 조언을 얻은 인물로서 Arthur E. Schneider 박사(미네소타-서울대 협력프로젝트 수석자문위원), Roy O. Bridgford 교수(농업부문 자문위원, 당시 수원에서 체재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 그리고 강사 박진환을 들고 있다. Berg는 특히 박진환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했는데, 그 둘은 1955~57년 사이에 미네소타대학 농업경제학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인연으로, 박진환에게 의존해가면서 학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했으며 학과 내의 프로젝트의 골격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Berg는 학과발전 계획으로서, (1) 강의프로그램 개선 (2) 학과의 연구활동 확대 (3) 각종 국내외 훈련프로그램 지원 (4) 미네소타대학 인원의 직접파견 프로그램 (5) 한국농업경제학회에의 국제적 교류협력 기회제공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강의프로그램의 개선은 당시 개설되어 있었던 8개 강좌의 강의노트를 개발, 발행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주로 미국의 농업경제학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의미했다. 다음의 책들이 그 물망에 올랐다.

- Heady, Earl O., *Economic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esource Use*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2)
- Chchrane, Willard W., and Walter W. Wilcox, *Economics of American Agriculture*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5)

Teaching Materials, 1958 - 1960”). 이 보고서의 작성일자는 1958년 8월 14일로 되어있고, 조백현에 관한 서류군 안에 포함되어 있다.

- Mills, Frederick C., *Statistical Method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55)
- Bishop, C. E. and W. D. Toussaint, *Agricultural Economic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58)

Berg는 이들 텍스트들의 한글번역을 위한 기금이 USIS(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the American - Korean Foundation, the Asia Foundation, Korean Agricultural Council, 그리고 한국으로부터의 대응자금(미네소타-서울대 협약에 의거)로부터 조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Berg는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와의 연구활동의 확대를 위해 한국 상황에 적합한 조사방법론 개발을 제안했다. 그것은 장차 다음의 파일럿조사를 통해 얻어질 것이었다.

- A Survey of Labor Earnings in Korean Farms (박진환 강사, 주봉규 조교)
- Survey of Invested Capital on Korean Farms (반성환 조교, 왕인근 조교)
- Statistical Analyses of Raw Data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gricultural Prices (김준보 교수, 박홍래 강사)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시 Berg가 만난 인물들은 서울대학교 농업경제과의 전통, 나아가 해방 이후 한국 농업경제학의 초기 설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특히 박진환이라는 인물에 대한 주목도, 집중도는 대단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RAC에 소장된 한국 관련 CECA/ADC 문서군에서 출공 확인되는 바, 박진환에 대한 CECA/ADC(동아시아 담당 Lewis 박사)의 신뢰는 대단히 강력한 것이었다. *FMA* (1966)으로 귀결되는 박진환의 작업은 한국의 농업, 농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자 인력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기대를 받았으며, 추후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높

았다. Lewis는 보고서류에서 “박진환 박사는 잘 훈련된 사람이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연구비(1963년 겨울의 농업경영조사의 비용)가 가급적 빨리 지급되어야 한다”⁶⁵고 추천의견을 적시했다.

이러한 경과 속에서 박진환은 1963년 겨울에 농업경영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이 자료를 1964년 하계워크숍(NTCFMA, 1964.7.13~8.14, 수원)의 교재로 활용했다. 그는 자신이 조사와 분석의 작업을 진행해간 궤적을 스스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조사의 주된 목적이었고, …… 농가(farm)를 하나의 경제단위(a business unit)로 간주하고 이들이 농업경영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탐문해갔다. 예를 들어, 논/밭의 이용, 가축, 비농업직업(off farm jobs)의 의미 등, 마을에서 전형적인 농가를 추출하여 예산기법(budgeting techniques)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경영분석의 방법론의 의미가 이를 다루는 학생들 안에서 보다 명확한 것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했다”는 따위였다.⁶⁶

2. 농가경제의 지표화 형태와 특이성: 탈-일본, 탈-마르크스주의 농정학의 구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기 미국의 농업경제학 지식의 ‘수출’과 ‘수입’은 지식의 내적 우월성/탁월성이나 해당 사회에의 적합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과 기금의 힘(power)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생산 조건, 토대, 시스템을 구성해감으로써 그 정당성의 자원을 확보해간 것이었다

65 Letter (A. B. Lewis → A. T. Mosher, 1963-11-22),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3, Folder 49.

66 Letter (Jin Hwan Park → A. B. Lewis, 1964-09-22),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7, Folder 363.

고 할 수 있다. 이런 속에서 농촌, 농업에 관한 인식체계, 다시 말해 문제를 발견(문제화, problematization)하고 해결하는 특정한 방식, 그러니까 ‘농업경영’의 지식체계가 점차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해 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농업경영의 지식체계가 갖는 특성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이전의 일본식 농정지식, 또는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의 농정지식과는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일까?

박진환은 ADC 의장인 A. T. Mosher가 쓴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농업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교육용의 대중판, 보급판의 형태로 서술한 것으로서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번역, 보급된 책, 『농업근대화의 필수요인』(원저는 1965, 한글번역은 1971)이 그것이다.⁶⁷

이 책에서는 “자작농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농민들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소작도 농업발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능률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 농토를 살 수 없는 유능한 농부들을 위해 소작은 더 많은 경지를 경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도가 된다”⁶⁸거나, “곡물과 양축의 결합, 또는 토지집약적인 작물의 생산여부에 따라 동일한 경지규모에서도 상이한 경영규모가 산출될 수 있다”⁶⁹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 수송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것은 소작이 갖는 농업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을 부각한 점, 경지규모와 경영규모를 상호 분리된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 시장과 교통에 의존한 교환경제 속에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본식 농정지식(자/소작 이분법 체계와 자작의 강조, 소농경제의 자급자족 지향성 강조)이나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의 농정지식(경작규모의 영세성 테제), 나아가 당시 북한에서 구축된 집단농장 체제의 농정지식과는 분명히 결을 달리하는 지식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67 박진환의 역자서문에 따르면, 당시 라틴아메리카, 중국, 버마,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번역판이 출간되었고, 일본, 뽕갈, 말레이시아, 타이, 포르투갈에서 번역이 진행 중이었다.

68 A. T. Mosher, 박진환 번역, 1971, 『농업근대화의 필수요인』, 서울대학교출판부, 53쪽.

69 A. T. Mosher, 박진환 번역, 1971, 위의 책, 61~62쪽.

박진환이 이러한 ‘농업경영’ 지식체계를 처음 접한 것은 미네소타대학의 석사과정 때였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으로서 획득하게 된 계기는 귀국 이후 다시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미네소타대학에 진학했을 때였다. 미네소타대학은 박진환의 박사과정 입학 이후 곧바로 1년 동안은 시카고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올 것을 명령했는데, 거기서 박진환은 Milton Friedman 교수, Theodore W. Schultz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된다.⁷⁰ Schultz 교수는 이른바 인적 자본(Human Capital) 이론⁷¹을 만들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의 이론은 종전까지 통상 ‘과잉인구’라는 운명적 명제로서 이해되어 온 후발국가들의 인구문제를 오히려 교육받은 인구를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여함으로써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발전의 자원으로 전치(displacement)했다는 점에서 이론 내적으로 대단히 전복적인 의미를 가졌다.⁷²

박진환은 후일 회고를 통해 그 자신이 시카고대학에서 1년 동안 배운 학습

70 “첫째는 노벨 경제학상을 탄 프리드만 교수. 그 코스를 다른 학생들은 무서워서 안 듣는데, 낙제할까봐. 나는 그것도 모르고서 들었어요. 그래도 학점이 나오기는 나왔어. 거기서 내가 탁 배운 게 모든 문제를 판단할 때 농부를 기준으로 할 거냐 평등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주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내가 참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 솔츠 교수라고 농업경제학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책을 다 읽고 남은 게 후진국개발에 있어서는 지하자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 그 나라의 Human Capital이 개발이 되어야 그 사회가 발전이 된다. 인적 자원의 선진화가 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후진국에. 그걸 내가 탁 하나 배웠어요. 하면서 한국 생각이 났어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있고 남한은 아무 것도 없고. 일제시대 한국의 식민지 정책이 북은 공업, 남은 농업. 청진제철소, 비료공장, 수력발전도 만들고……”(박진환 인터뷰 자료, 2011. 11. 22.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사아카이브: <https://mkoha.aks.ac.kr/oralRecord/OralRecordSelect.do>).

71 인적자본론은 교육 등 능력개발활동을 통해 축적된 생산력이 결국 노동소득과 연결된다는 주장이다(Kang - Sik Kim, 2012, “Perspectives on Human Capital in Transition”, 『질서경제저널』, Vol.15 No.4, 2012).

72 한국사회에서 과잉인구에 대한 이러한 반전적, 전복적 평가는 이미 1950년대에 너시의 개발이론을 매개로 학자들 안에 유포되고 있었다. 너시는 과잉인구와 결합된 농촌의 위장실업을 사회문제나 부정적 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 자본형성의 원천이 되는 잠재저축력으로 간주하였다(홍정완, 2017, 앞의 논문, 147쪽).

의 의미를 (1) 인력과 물자 배분에 능률위주가 나으리 평등위주가 나으리 판단을 정리할 수 있게 된 점 (2) 노동집약적인 공산품의 수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갖게 된 점 (3) 근면, 저축 등 자본주의 정신의 중요성을 알게 된 점을 꼽았다. 그가 얻은 최종적인 결론은, “인적 자원으로 수출주도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농촌의 과잉인구도 줄어들고 농가들의 영농규모도 커질 수 있으며 농외소득도 늘어날 수 있을 것”⁷³이라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FMA* (1966)에 이런 관점, 지식체계는 어떻게 투영되고 또 어떤 의미를 산출해냈던 것일까? 아니 그보다, 이미 박진환과 Lewis, 혹은 김준보/이필규와 Lewis의 서신교환을 들여다본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박진환이 조사, 관찰하려 했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관심 위에서 질문하여 얻어진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⁷⁴ 그리고 박진환은 이른바 ‘농업경영’의 프레임의 우월성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려 했던 것일까?

박진환은 *FMA* (1966)의 「서문」에서 한국에서 농업경영 연구가 거의 없었고, 교육도 경험적 관련성 없이 무매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FMA* (1966)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자신이 1963년에 실시한 농업경영조사 가운데 경기도 정자리⁷⁵의 사례를 뽑아 소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선, 박진환은 정자리의 경우 논에서 쌀의 단일경작(mono culture)이 일반화된 상황인데, 신품종의 선택, 방충, 비료, 토양, 유기물, 개토(top soil change), 조기파종, 경지정리(분산된 농토 필지에 인한 노동력의 소모를 절약하는 방법), 농한기 농토(논)의 활용, 봄채소(spring vegetables) 경작 등을 통해 토지

73 박진환, 2009, 앞의 글, 18~19쪽.

74 사회조사의 개념, 범주, 이론관심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결정되어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조사는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조사목적, 취지, 연구관심, 이론/개념/방법론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75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면적당 곡물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그 농가별 현황을 조사, 비교하였다(“제3장”). 이것은 경지면적과 경영면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이론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⁶

다음으로, 박진환은 밭(upland)의 경영방식에 관해, 정자리와 입지조건이 유사한 신천리⁷⁷의 사례를 가져와 비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의미를 부각하는 전략을 취했다(“제4장”). 거기에서 두 지역의 농가소득 격차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은 시장지향성의 차이와 정보의 편차였다. 그의 논의는 다음의 표로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정자리의 밭작물 생산성 (1963)

작물 Type	경작면적 (단보, %)	단보당 생산액(원)	단위면적당 투입액(원) (비료, 농약)
A (겨울보리, 콩)	168 (65.1)	8,200	1,799
B (봄가을 채소)	29 (15.1)	15,700	3,031
C (고추)	27 (10.5)	6,700	1,629
D (포도)	24 (9.3)	15,400	3,431
계	258 (100)	(평균) 8,600	—

출전: FMA, 1966, 67~73쪽, Table 31, 32, 34를 종합하여 정리.

- 76 일찍이 박진환은 농민의 순소득(the net income of farmer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1) 농업경영의 규모(the size of the farm business) (2) 주곡 작물의 경작규모나 가축의 생산성 (3) 노동력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Lewis는 “박진환 당신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장의 규모(the size of the farm)가 언제나 농장의 경제적 규모(economic size)를 측정하는 최상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Letter (A. B. Lewis → Jin H. Park, 1959 - 12 - 09),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26, Folder 359).
- 77 신천리는 입지조건이 정자리와 비슷하다. 서울의 남서쪽 20마일에 위치한 곳으로서, 서울과 인천을 잇는 곳에 자리했다. 신천리에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성원의 다수를 구성했다. 1963년에 74명의 농부가 있었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3.5단보로 정자리 농가에 비해 약 1/3 수준. 농지의 약 70%가 밭이었고, 생산물 대다수가 시장지향 작물로서, 현금소득을 얻는 것이 경작의 주된 목적이었다(FMA, 1966, 74~75쪽).

〈표 4〉 신천리의 발작물 생산성 (1963)

작물 Type	경작면적(단보, %)	단보당 생산액(원)
A (저울보리, 콩)	8.4 (5.5)	9,984
B (봄가을 채소)	114.7 (75.6)	20,200
C (고추)	12.7 (8.4)	12,577
D (포도)	16.0 (10.5)	42,773
계	151.8 (100)	(평균) 19,650

출전: FMA, 1966, 76~78쪽, Table 35, 36을 종합, 정리.

이 두 표에서 정자리는 발작물의 경우 자급을 위한 용도의 곡물 위주로 경작하고 있는 데 비해, 신천리는 대도시에 공급될 시장지향적인 채소 생산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러한 비교의 전략을 통해 박진환은 시장지향 작물의 선택 여부, 다시 말해 농업경영 방식의 차이가 마을 간의 소득격차를 발생시킨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진환은 이들 조사자료의 수치가 갖는 의미를 해석한 뒤, “경험적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반(半)자급농가(semi-subsistence farm organization)에서 시장화(commercialization)를 확대하면 생산성과 농가소득이 증대하는 결과”⁷⁸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해방 이후 한국의 토지개혁이 주로 평등과 사회정의에 치중한 나머지 농산업(agricultural industry)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에는 거의 무관심했다고 평가했다. 또 개인적으로 나눠 가진 땅이 크기가 너무 작아 농업생산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몇몇 학자들의 논의는 철저히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도시부가 성장해가면서 시장지향적인 농업경영의 흐름이 강화될 것”⁷⁹이라고 결론지었다.

78 FMA, 1966, 195쪽.

79 FMA, 1966, 200~204쪽.

V. 맺음말

1950~60년대 한국의 농업경제학의 제도화과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1945년은 정치적 해방이었지 지식과 학술은 여전히 과거와 동시대 일본의 지식생산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탈식민과 ‘지속되는/지연된 제국’)은 이상의 모든 논의와 그 평가에 앞서 감안해야 할 전제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로 공산주의적 분배, 사회주의적 농정에 대한 비판의식이 성장하였고 이것이 냉전 논리로 수렴되었다는 문제도 충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다.⁸⁰ 또, 지식생산의 물질 자원이 형편없이 부족한 조건 속에서 록펠러재단(CECA/ADC)으로 대표되는 외원기관의 학술지원을 토대로 경험적 조사에 기초한 본격적인 농업경제학이 이 시대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 두세 가지 계기가 서로 얹히고 묶여 그 다면성이 결정화되는 가운데 지식생산의 내실이 급격히 전환되어간 것이 1950~60년대 한국 농업경제학의 모습일 것이다. 이 사태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냉전이 학술공간에 깊이 작용했던 대단히 명징한 사례로서 언급될만한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이후 한국 농업경제학계가 수용한 미국식 농정, 다시 말해 농업경영의 이론은 (1) 과잉인구의 의미를 이전까지의 ‘부담’에서 새롭게 자원(인적자본론)이라는 의미로 전환시켰고, (2) 협소토지의 의미를 토지이용, 토지생산성, 시장지향 등을 매개로 가계수지 개선의 토대로 재설정하였다. (3) 방법론적으로 농업경영조사를 통해 이러한 의미의 전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고안하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시장화, 유통, 수송, 커뮤니케이션을 지수(index, indicators)로 표현하는 기법을 고안하고 이를 지역별로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들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중요성을 발굴, 강조하였다. 그것은

80 한국의 농지개혁(1950)과 한국전쟁으로 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작농화가 진전된 상황이었던 점도 지식전환의 중요한 배경, 계기가 되었다.

농업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체계 바깥에 두는 “소농경제/가족농 모델”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서, 농업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 위치시켜 소득과 이윤을 계측하는 일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농업경제학을 고유의 논리체계를 갖는 학문이 아니라 일반경제학의 하위분과에 위치시키는 사건을 의미했다.

이것은 일본식 농정이해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었고,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의 농정관과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이 한국의 학술공간에 미친 영향은 ‘지식교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재음미될 필요가 있고, 이를 주체적 차원에서 본다면 ‘식민주의를 넘어서 식민주의’(colonialism beyond colonialism),⁸¹ 다시 말해 제국 일본의 지식체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수단/자원으로 제국 미국의 지식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 활용, 내면화하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천형(天刑)이나 굴레와도 같은 것으로서, 지식자원이 부재/결핍되었거나 왜소한 비서구 제3세계가 공통으로 겪어온 일반적인 경험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새롭고 선진적인 기법의 도입을 통해 낡고 비실용적인 이전의 체제를 혁신한다는 수사(修辭) 안에는 실은,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 종속을 끌어안는 착잡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81 1968년의 ADC의 사업 가운데 한국인 교수들을 일본의 대학 - 교토대학(농가회계연구소 구와하라 교수), 홋카이도대학(야지마 교수), 규슈대학(이와카타 교수) - 으로 세미나 연수를 시키는 사업이 있었는데, Mosher는 Southworth에게 “한국인 교수들은 상대인 일본학자들로부터 학생처럼 취급받는 것을 꺼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주제는 한국인 교수들이 세미나를 리드하는 형태로 꾸려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Letter (A. T. Mosher → Herman M. Southworth, 1968 - 11 - 20), RAC referenc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records, RG IV.3B1.33, Series 3, FA 078, Box 16, Folder 221). 이것은 한국인 학자들이 CECA/ADC를 통해 학습하고 실행한 사회과학 지식을 어떤 위상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 식민지 시기에 제국 일본이 구축했고 조선인들 역시 그 안에서 숙련했던 특정한 농정 지식체계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냉전기 미국 사회과학에의 지향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농업경영 지식체계는 당시 최신, 최고의 지식체계로 인지되고 있었던 것은 물론, 반일대항(反日對抗)의 지식자원이 빈약한 속에서 일종의 대체재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안에는 ‘식민주의를 넘어서 식민주의’(colonialism beyond colonialism)의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세스의 열정적인 참여자/주체였던 한국의 신진 농업 경제학자(agent)들의 내면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일까? 또, 이 ‘식민주의를 넘어서 식민주의’, 그것이 갖는 용어상의 위화감은 어떻게 이해, 음미되어야 할 것인가? 냉전기 미국의 지식의 확산과정에서 공생산(共生産)의 형태로 박진환으로 대표되는 이들 신진학자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현재적 의미, 나아가 그로부터 연원하는 오늘날의 이 학술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이 되어야 온당할 것인가?

어쩌면 여기에는 20세기 한국사회가 걸어온 지식생산의 구조 전체를 조망하는 시점이 필요할지 모른다. 앞에서 언급한 ‘냉전농정학의 이식과 종속’이라는 프레임은 사태의 한 단면만을 의미할 뿐인데, 다시 말해 1950~60년대의 농업경영조사는 한국사회에서 ‘정말 조사다운 조사’를 최초로 실시해본 경험이었다는 사실이 갖는 무게 역시 작지 않기 때문이다. 식민지기에 한국인은 조사지식의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1930년대 초반의 『숫자조선연구』와 ‘조선사회성격논쟁’의 경우, 한국인들의 전문적인 통계지식이 총망라된 고도의 학술논쟁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원용한 조사자료는 모두 식민권력=조선총독부=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식민지기에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생산했던 경험으로는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 이 역시 록펠러재단으로부터 기금이 출연되어 설립된 단체이다)의 재정적, 학술적 후원을 통해 토지이용조사를 실시해왔던 이 훈구의 사례가 유일하다. 해방 이후의 학계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농정에 대한 지식은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동시대의 농촌사회, 농업생산에 대한 정부의 파악방식 역시 식민지 시대로부터 해오던대로 하는 답습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회조사의 수행성(performance)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관념화된 형태로 굳어져 있던 한국인들의 조사/통계에 관한 지식이, 냉전기 미국의 학술원조를 통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조사경험에 의해 갱신되고 그 실감이 채워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 지식구조 재편의 또 다른 의미로

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 한국의 신진 농업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조선인으로서 일제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조사다운 조사’를 비로소 처음 수행해본 것이며, 이 ‘지식제조 공정(工程)’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조사/통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감식안(鑑識眼)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² 나아가 농업경영조사와 방법론 훈련을 병행적으로 진행해가면서 학문후속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마련되었다. 그것은 현장(Field)을 틀어쥔 학계(Academia)의 등장을 의미했다.

이런 의미에서 1950~60년대 한국의 농업경제학의 갱신/출발을 마치 “사막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평가하면 어떨까? 한국사회 내적인 학술자원의 부재/결핍과 국제적 냉전의 권력성/비대칭성이 그 지식, 지성의 생산을 틀지우기는 했지만, 한국 학계의 모든 출발(연구자, 연구소, 연구기법)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지식체계의 현재적 지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성찰적이고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1950~60년대에 박진환을 비롯한 한국의 농업경제학자들이 처해 있었던 지식자원의 결핍/부재라는 ‘천형’에서 우리 시대 학술은 이미 멀리 벗어나 있다. 또, 현재의 전지구적 농업연쇄와 한국/아시아가 처한 농촌·농민·농업의 위기 속에

82 박진환은 실제 농업경영조사를 수행해가면서 A. B. Lewis가 요구한 계산식(공식)이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진환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농촌에서 가족노동을 다른 생산요소와 정확히 분리해서 측정하고 있는 농가는 현실적으로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었다(FMA, 1966, 144쪽). 이것은 한국 농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부불가족노동의 존재에 관한 이필규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진환은 또, “자급농가(Subsistence Farm)에서는 화폐액의 최대화만이 경영의 목표가 아닐 것은 사실”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는데(박진환, 1959, 앞의 논문, 39쪽), 이 역시 그가 한국 농업경영의 조건을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 감식안과 관련된 것으로서, 1971년 2월 26일~27일에 걸쳐, 1960년대 외원기관의 학술원조를 통해 사회조사를 경험한 학자들이 이 현장지식을 토대로 기존 정부의 통계자료가 갖는 오류와 한계를 공개적으로 논평한 회의가 있었다. 정부가 공표하는 농림통계의 문제점이 이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 이만갑, 김일철, 박홍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 -, 회의의 결과물은 유의영·석현호 편, 1971, 『한국정부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제1권 인구 및 경제통계)으로 간행되었다.

서 미국식 농업경영 이론이 갖는 한계와 문제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막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는 비유를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운운하면서 이전의 종속적 지식생산 모델을 답습하는 데에 그친다면, 그것은 학계의 지적 방종과 책무방기만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농업경제학, 나아가 사회과학 지식체계의 생애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봄으로써 현재의 한국 학술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가는 성찰적인 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꼭 언급해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RAC) Materials (Documents, Photographs etc.)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사아카이브: <https://mkoha.aks.ac.kr/oralRecord/OralRecordSelect.do>
- Mosher, A. T., 박진환 옮김, 1971, 『농업근대화의 필수요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만, 2015,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문학동네.
- 김인수, 2015,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50년사, 1965~2015』, 한울아카데미.
- 김종영, 2015, 『지배받는 지배자』, 돌베개.
- 박진환, 2005,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경제근대화와 새마을운동』,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 부르디외, 피에르(P. Bourdieu), 김현경 옮김, 2014,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16, 『서울대학교 70년사: 1946-2016』,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농촌법학회, 2012, 『고난의 꽃봉오리가 되다: 서울대학교 농촌법학회 50년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사』, 한길사.
- 신주백 편, 2018, 『근대화론과 냉전지식체계』, 해안.
- 안 다우 판 더르 플루흐, 김정섭 · 유찬희 옮김, 2018, 『농민과 농업: 차야노프의 사상을 재조명하다』, 따비.
- 유의영 · 석현호 편, 1971, 『한국정부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제1권 인구 및 경제통계).
- 이만갑, 2004, 『삶의 뒤안길에서』, 세계일보.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창비.
- 공임순, 2017, 『김학묵이라는 에이전시: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신설을 둘러싼 미국 발 원조의 회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47집.
- 구천서, 2009, 『회상』,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 김인수, 2015,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이용조사와 그 정치적 의미』, 『사회와역사』 제107호.
- _____, 2017,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

- 間SAI』제22호.
- _____, 2018, 「출산력조사를 통해 본 일본의 인구정치, 1940~1950년대」, 『사회와역사』 제118호.
- 박진환, 1959,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분석」, 『농업경제연구』 제2권 제1호.
- _____, 2009, 「회상」,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 반성환, 2009, 「회상」,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 우린춘, 2012, 「제5장 전후 대만에서 록펠러재단의 원조사업」, 기시 도시히코, 쓰치야 유카 엮음, 김려실 옮김, 『문화냉전과 아시아: 냉전 연구를 탈중심화하기』, 소명출판.
- 이기홍, 2018, 「양적 방법은 미국 사회학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나?」, 『사회와이론』 제32호.
- 이봉규, 2013, 「이승만정권기 행정분야 기술원조 도입과 행정개혁론의 성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상, 2014,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동아시아 ‘냉전지식」, 『아시아문화연구』 36호.
- 정수복, 2015, 「김경만의 ‘지적 도발’에 대한 정수복의 ‘응답」, 『경제와사회』 108호.
- 정진아, 2015, 「해방 20년(1945~1965) 한국 경제학계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 『연세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 정태석, 2016, 「글로벌 지식장 논쟁과 사회(과)학의 의미: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 『경제와사회』 110호.
- 홍정완, 2017,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연수, 2009, 「회상」,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 牧田東一, 2013, 「帝国の文化的な支配装置としての財団: 冷戦期日本におけるフォード財団の活動」, 平野健一郎 等, 『國際文化關係史研究』, 東京大学出版会.
- 梶村秀樹, 1966, 「北朝鮮における農業協同化運動(1953~1958)についての一考察」(出典: 梶村秀樹, 1993, 『梶村秀樹著作集 第5巻: 現代朝鮮への視座』, 明石書

店).

生源寺眞一, 2013, 『農業と人間』, 岩波書店.

松田武, 2015, 『對米依存の起源: アメリカのソフト・パワー戦略』, 岩波書店.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1983, *Directory of Fellows, 1953~1983*,

Berman, Edward H., 1983, *The Influence of the Carnegie, Ford, and Rockefeller Foundations o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Ideology of Philanthrop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Ekbladh, David, 2010, *The Great American Mi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Latham, Michael E., 2011, *The Right Kind of Revolution: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U.S. Foreign Policy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 Cornell University Press.

Park, Jin Hwan, 1966, *Farm Management Analysis: For 84 Crop Farms in the Village of Chung Ja Ri, Kyung Ki Province, Korea*, Su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mar, Inderjeet, 2014, *Foundations of the American Century: The Ford, Carnegie, and Rockefeller Foundations in the Rise of American Power*,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Stevenson, Russell and Virginia O. Locke, 1989,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A History*, Winroc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2011, *Rockefeller Philanthropy: A Selected Guide*.

Kim, Kang-Sik, 2012, "Perspectives on Human Capital in Transition", 『질서경제 저널』, Vol.15 No.4.

Lee, Pil-Kyu, 1967, "Summary and Analysis of Farm Management," 『농업경제연구』 제9권 제1호.

Oakley, Deborah, 1978, "American-Japanese Interaction in the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in Ja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4 No.4.

냉전과 지식정치

-박진환의 *Farm Management Analysis* (1966)의 성립사정을 중심으로

김인수

본 연구는 한국의 저명한 농업경제학자 박진환의 *Farm Management Analysis* (1966)가 성립되어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냉전기 지식정치의 일면을 드러냈다. 박진환은 미네소타대학 - 서울대학교의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농정지식체계의 핵심에 자리한 ‘농업경영’(Farm Management) 개념을 체득하였다. 록펠러재단에서 출연한 농업발전협회(CECA/ADC)는 박진환의 지식이 성립할 수 있었던 물질적 토대 - 도서구매, 유학비용, 펠로십, 사회조사 훈련비 및 연구비 등 - 를 마련해주었다. 박진환의 농업경영조사는 일본식 농업관(‘소작 vs. 자작 프레임’ ‘소농/가족농의 자급자족/가족노동 프레임’)과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의 농업관(규모확대를 지향하는 ‘경작규모의 영세성 프레임’)이 미국식의 농업관(‘농업경영 프레임’)으로 교체, 전환되어간 과정, 그 한복판에 자리했던 사건이었다(‘paradigm change’). 특히, 농업발전협회는 연구비 지원을 수단으로 이러한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본고는 록펠러재단문서고의 자료를 통해 이 과정을 생생하게 복원해냈다.

주제어: 냉전, 지식정치, 박진환, 농업경영, 록펠러재단, 농업발전협회, 마르크스주의, 록펠러재단문서고

ABSTRACT

Knowledge Politics in the Early Cold War Era: Focused on the Historical and the Academic Meaning of *The Farm Management Analysis*(1966) of Jin-Hwan Park

Kim Insoo

In this study, I showed one aspect of knowledge politics during the Cold War period by analyzing how *The Farm Management Analysis* (1966) could be written by Jin-Hwan Park, the prominent agricultural economist of Korea. Because of cooperative program of intellectual exchange betwee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acquired the concept of “Farm Management,” which was located at the core of the United States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 CECA/ADC, which was supported by the Rockefeller Foundation, provided a material basis on which Park’s knowledge could be established - for example, books, expenses for study abroad, fellowships, training expenses for social surveys, research grants, and others. The farm management survey conducted by Park

was an incident that replaced the Japanese and Marxist views of agriculture with the American view of agriculture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Academia (“paradigm shift/change”). In particular, CECA/ADC actively intervened in this conversion process by using “the weapon” of research funding. This article revealed vividly this process through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RAC) documents.

Keywords: Cold War, Knowledge Politics , Jin-Hwan Park, Farm Management,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e Council on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 (CECA),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ADC), Marxism,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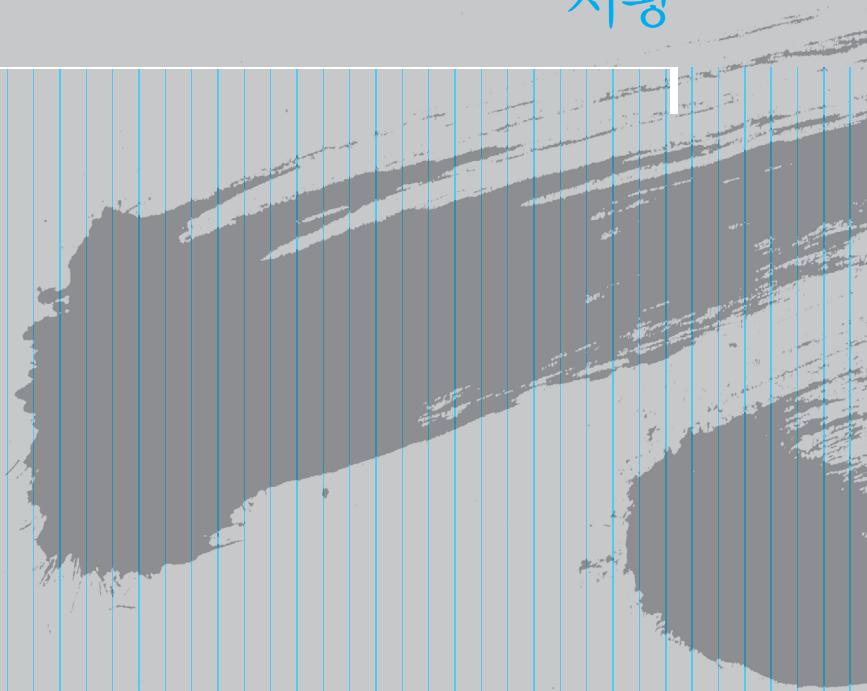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민주의 역사학, 극복의 대상인가, 성찰의 대상인가?

– 윤해동(2018),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2』, 소명출판

김종준 | 청주교육대학 사회과교육과 교수

- I. 들어가며
- II. 책의 구성
- III. '실증'과 '왜곡'의 관계
- IV.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
- V. 나가며



I. 들어가며

이 책은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팀의 2015년 공동 연구 성과물이다. ‘주요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식민주의 역사학의 특정 국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연구팀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기원 및 ‘근대역사학’과 ‘근대제국’이 맺는 내밀한 관계를 검토하여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 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이하 ‘1편’으로 지칭함)라는 단행본을 이미 2016년에 출간한 바 있다. 이 때 기존의 ‘식민사학’이라는 개념 대신 ‘식민주의 역사학’을 분석 개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선사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본 연구팀의 세 번째 공동연구(이하 ‘2편’으로 지칭함)에 해당된다.

이 책에서는 일본인 역사학자 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선사 연구자도 있지만 동양사학자와 고고학자도 있다. 앞서 1편에서도 역사학자들이 연구 대상이었다.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의 대표적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을 다룬 바 있다. 1편은 9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총론 이외 일본사, 동양사, 조선사 관련 논문이 각 2개씩, 그리고 경성제대 의학부와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의 문학이 별도로 다루어졌다. 2편은 다음과 같이 8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동양사’ 연구와 그 주변

「나이트 코난의 ‘동양문화’ 연구와 ‘근세론’의 명암」, 윤해동

「북방민족 고유성에 대한 탐색: 도리야마 키이치의 북방사 연구」, 정상우

「미시나 쇼에이의 신화 연구와 근대역사학: 식민주의 역사학의 사상사적 재구성」,

심희찬

제2부 ‘조선사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이케우치 히로시의 한국 고대사 시기구분과 고조선·한사군 연구」, 박찬홍

「미우라 히로유키의 조선사 인식과 『조선반도사』」, 장신

「오다 쇼고와 조선사학회, 혹은 식민사학의 차질과 제도화」, 정준영

「일제강점기 나주 반남면 고분의 발굴과 야쓰이 세이이쓰」, 정인성

「이마니시 류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정준영

2편은 1부에서 나이토 코난, 도리야마 키이치, 미시나 쇼에이 등 동양사학자 3명을, 2부에서 이케우치 히로시, 미우라 히로유키, 오다 쇼고, 야쓰이 세이이쓰, 이마니시 류 등 조선사학자 및 고고학자를 다루고 있다. 일본 근대의 주요 역사학자들이 구상했던 역사상에서 식민지의 의미에 대해 탐색한다는 점에서 1,2편 공통되지만, 1편이 일본 역사학 자체의 근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편은 상대적으로 식민주의에 방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물을 중시하느냐, 역사학의 성격을 중시하느냐는 1,2편 모두 논문별로 차이가 있다.

일단 본 ‘공동’ 연구자들은 모두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용어 사용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편의 총론에서 윤해동은 기존 연구들이 ‘침략과 지배를 위한 역사학’의 의미로 사용한 ‘식민사학’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식민주의에 입각한 근대역사학’이라는 의미로 ‘식민주의 역사학’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공동 연구자들의 문제 의식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는 일치한다. 첫째, ‘식민사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대역사학’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용어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식민주의 역사학’은 본 연구팀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오래 전부터 ‘식민사학’과 ‘식민주의 사관’ 또는 ‘식민주의 사학’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일본인 학자는 곧 ‘식민사학’, 한국인 학자는 곧 ‘민족사학’에 입각해 있다는 이분법에서 벗어

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식민주의’에 입각해 있지 않다면 일본인 역사학자도 근대성을 펼 수 있고, 반대로 한국인 역사학자 역시 ‘식민주의 역사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구분법에서 ‘식민주의’와 ‘근대주의’는 이념적 대립물로 파악된다. 서평자는 2013년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이라는 단행본에서 ‘일본 역사학의 근대성과 식민성(침략성)을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지’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식민사학’과 ‘식민주의 사학’의 구분은 모호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평자는 ‘일본의 근대 역사학이 식민지배라는 상황을 만나 성립시킨 역사학 연구’들을 ‘식민사학’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하였다.

서평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팀은 무엇보다 용어와 개념상의 혼란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었다. ‘사관’은 협소한 개념이고,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역사학만이 ‘식민주의 역사학’이 아니며, ‘식민주의’는 ‘제국주의’, ‘국민주의’, ‘근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였다고 명쾌하게 규정하였다. 근래 풍부하게 축적되어온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을 역사학에 온전히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물론 개념상의 규정만으로 기존 연구들을 단번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비판의 논리적 정합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 제시를 요구받게 마련이다. 이하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II. 책의 구성

먼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8명의 학자는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 본서의 연구 대상 인물들을 1편 총론에 나오는 ‘식민주의 역사학 계통도’ 도식에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분류		본서의 연구 대상 인물
일본	'국사(일본사)', 고고학		
	동양사-만선지리역사조사실, 동양협회, 동양문고		나이트 코난(内藤湖南) 도리아마 키이치(鳥山喜一)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사회경제사		
조선	관방사학	조선사편수회 계열(고적 조사 사업 포함)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오다 쇼고(小田省吾)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경성제대 계열	도리아마 키이치(鳥山喜一) 이마니시 류(今西龍)
	재야 민간사학		

도리아마 키이치는 기본적으로 동양사학자로 분류되지만, 조선사에도 연구 성과를 냈고 경성제대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집어넣었다. 사실 일본에서 조선사라는 분야는 20세기 초 동양사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 연구자들도 본래는 동양사 연구로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사 관련 논문을 주로 쓰고, 조선사편수회, 고적 조사 사업, 경성제대 등에 소속되어 활동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양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이케우치 히로시의 경우, 이 책에서 2부 '조선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선사편수회나 경성제대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동양사학자'로서 조선사를 연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편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특징을 꼽자면, 조선사와 연관된 동양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조선사편수회와 경성제대 등에서 관변 역사학에 종사한 이들 위주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관방사학'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1편에서는 구로이타 가쓰미, 쓰다 쇼키치 등의 일본사 학자들과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나바 이와키치 등 대표적 동양사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창기 일본 근대역사학 내 일본사, 동양사 분과의 성립 과정을 두루 살핀 후, 동양사를 매개로 한 조선사로의 확대 과정, 즉 식민주의 역사학의 본격적인 정립 양상을 다루는 모양새다. 한편 이마니시 류는 1편에서도 다룬 바 있다. 그런데 1,2편 모두 이마

니시 류라는 학자 개인의 연구 결과물 자체의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그의 조선 고대사에 관한 내러티브가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서 관심을 끈다.

III. '실증'과 '왜곡'의 관계

본서가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새롭고 유의미한 작업이었음은 분명하다. 특정 관점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 성과만 부각되기 마련인 학자들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본서의 필자들은 기존 한국사학계가 식민사학을 근대사학으로 보지 않은 점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은 식민사학을 근대사학으로 전제할 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명제가 본서 곳곳에서 반복하여 강조된다. 그런데 이 명제만으로 기존 학계의 논의들이 자동적으로 극복되는지는 의문이다. 기존 학계가 식민사학을 어떠한 지점에서 비판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1960, 70년대 이기백, 김용섭, 강만길 등 초창기 역사학자들의 논의가 이후 오랜 기간 그 권위를 잃지 않은 것은 나름의 논리적 정합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1편의 총론과 2편의 첫번째 논문인 나이토 코난의 '근세론' 연구에서 윤해동이 이기백, 김용섭, 한우근의 담론을 분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각론 필자들의 기존 연구사 이해도는 편차가 있는 듯 하다. 대개 자신이 다루고 있는 대상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 '식민사학자들의 왜곡'으로 여겨져 왔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직시하고 따져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각론에서 '왜곡' 여부는 느슨하고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를 테면 기존 학계에서 식민사학자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즉 실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잘못된’ 실증을 했기 때문에 ‘근대’ 역사학이 아니라는 논리에 바탕한다. 일단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는가? 서평자가 보기에 표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기존 한국사학자들은 끊임없이 식민사학자들의 실증이 어떤 지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밝히고자 했다. 심지어 본서의 필자들조차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증에 능했고, 그런 측면에서 ‘근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얼마나 실증을 ‘잘’ 했는지 따지는 구도에 머문다면 본서 역시 기존 학계의 식민사학 비판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정상우는 도리아마 키이치의 발해사 및 북방사 연구에 대한 분석에서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 - 문헌 사료를 망라하고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조밀한 연구 - 과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 확장 과정을 따라간 시야’를 구분한다. 그를 평가할 때 ‘시야’를 문제삼지 않고 ‘실증’에만 주목한다면 편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박찬홍의, 이케우치 히로시의 고조선·한사군 연구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 같은 구분법이 한결 더 뚜렷해진다. ‘서구에서 도입된 근대역사학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엄격한 사료 비판’을 했다는 점과 ‘식민 지배를 긍정하고 입증하려 했다’는 점이 대비된다. 그러면서 이케우치 히로시가 고려와 조선의 ‘국호 계승 인식’을 역사 계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한사군의 통폐합 과정에서 조선반도 남부에 살았던 한족(韓族)이 더 강력히 저항했다는 ‘사실’을, 미개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는다. 그렇다면 이케우치 히로시는 실증에 부족했던 것인가,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것인가? 아니면 두가지가 모두 작용하여, 식민주의 때문에 근대적 실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장신은 미우라 히로유키의 『조선반도사』 편찬에 대한 연구에서 ‘사료실증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우라 히로유키의 ‘사료실증주의’는 중국의 고증학이 아니라 유럽, 특히 독일의 역사연구법이라고 규정된다. 그런데 중국의 고증학과 독일의 사료실증주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미우라 히로유키가 중국 사서(史書)에 오염된 조선의 옛 기록을 신뢰하지 않았다는데, 필자는 그러한 방식의 ‘실증’이 ‘근대적’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실증주의가 근대적이라고 한다면, 식민사학자나 일제 시기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의 연구 역시 실증에 바탕하기 때문에 ‘근대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은, 1960, 1970년대 이기백, 김용섭, 강만길 등의 글에서 모두 확인되는 바다. 강만길은 『동아일보』 1978년 6월 17일자 투고문에서 학문의 현재성과 현실매몰성이 혼동된 예를 식민사학에서 찾고, 학문의 객관성과 현실유리성이 혼동된 예는 실증사학에서 찾았다. 현재성과 객관성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지만, 적어도 식민사학과 실증사학의 ‘근대성’ 여부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셈이다. 1편의 총론에서는 그러한 초기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의식되고 있지만, 2편의 각론에서는 얼핏 보면 식민주의 역사학의 근대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증’과 ‘왜곡’의 이분법적 구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즉, 실증 자체는 ‘근대적’이지만 관점의 측면에서 ‘왜곡’이 일어났다는 이분법적 구도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국가의 현재적 목적’에 따라 ‘왜곡’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미시나 쇼에이의 신화 연구에 대한 심희찬의 글에 식민주의 역사학이 내세운 현재성 강조가 잘 나타나 있다. 딜타이나 리케르트 논의를 수용한 니시다 나오지로(西田直二郎)로부터 독일 생철학을 받아들인 미시나 쇼에이가, 현재성으로 가득 찬 ‘의미적 세계’를 구축하였고, 그렇게 하여 식민주의 역사학과 파시즘이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서평자가 보기에 니시다 나오지로는 현재성을 강조하여 실증사학의 약점을 만회하려 하였다. 애초 랑케의 역사주의가 관념론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 반면 동양의 역사학자들은 고증학적 전통 때문에 실증사학을 받아들이기 쉬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증주의’와 ‘현재주의’의 관계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황국사관은 학문적 자기 성찰을 소홀히 한 근대역사학의 한 귀결점인 셈이다. 이를 근대역사학의 ‘변질’로 볼 것인지, ‘본질적 속성’으로 볼 것인지도 따져볼 문제다.

그렇다면 ‘국가적’ 관점, ‘현재적’ 관점에 따르는 것은 ‘근대’ 역사학이 갖추어서는 안되는 특성인가? 아니면 반대로 ‘근대’ 역사학의 중요한 특징인가? 여

기에서 강만길을 비롯한 한국사학자들의 자가당착이 드러난다. 동일한 ‘국가적’ 관점, ‘현재적’ 관점이라도, ‘침략’을 위한 것은 ‘근대적’이지 못하고, ‘저항’을 위한 것은 ‘근대적’이라는 ‘도덕적’ 판단이 그것이다. 만약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등치시킬 수 있다면,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거리 역시 멀지 않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자체는 거슬러 올라가면 1909년 5월 28일 『대한매일신보』 논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기본 틀이 동일함은 알지만 도덕적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은,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뿌리깊게 박혀 있다. 본서는 과연 그러한 역사 의식을 넘어서 수 있을까?

사실 가장 중요한 논점이 여기에 존재한다. 역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왜곡’이나 아니냐는 자의적으로 구분되기 쉽다. 이는 대개의 역사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바다.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할 때, ‘왜곡’으로 규정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10가지 일 중 역사학자의 입맛에 맞는 5가지만 언급하면 ‘왜곡’인가 아닌가? 기실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렇다면 본서에서 다루는 각각의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특정 부면에서 국가주의적·현재주의적 역사 인식을 지녔다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지점이 기존 연구에서 ‘왜곡’이라고 여겨지는 맥락 역시 비판적으로 짚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서의 작업이 결국은 기존 한국사학계의 맹점들을 파고드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서평자는 판단한다.

IV.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

지금까지 기존 연구사를 염두에 두고, ‘실증’과 ‘왜곡’의 의미를 좀 더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 1편 총론에서 도출된 명제-식민주의 역사학을 근대역사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각론에서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여기

서도 각론별로 편차를 드러낸다. 해당 명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넘어서는 각론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이를 기계적으로 전제한 채 연구대상에 대한 충실한 실증에 만족하는 각론도 있지 않나 싶다.

정인성의 나주 반남면 고분군 발굴과 야쓰이 세이이쓰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단 발굴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꽤 흥미롭다. 그러나 머리말만 놓고 보았을 때, 식민주의 역사학과 근대역사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뒷부분에 가서 야쓰이 세이이쓰가 ‘신공황후 삼한정벌설’과 ‘임나일본 부설’을 신봉하고 메이지의 상황과 오버랩시키는 역사관의 소유자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부족하다. 또한 하부 목차에서 ‘식민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1편 총론에 나온 용어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정준영의 두 논문은 식민주의 역사학과 근대역사학의 관계에 대한 도전적인 문제 제기들로 가득하다. 1편에서는 ‘제국주의의 착취와 차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평등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이소마에 준이치의 문제제기, ‘조선사 통사 서술 시도는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상황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근대역사학이면서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심희찬의 문제제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2편에서는 정준영의 논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논문은 「오다 쇼고와 조선사학회, 혹은 식민사학의 차질과 제도화」, 두 번째 논문은 「이마니시 류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인데, 두 논문은 『조선반도사』 편찬 사업 부분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미리 한 가지 지적하자면, 필자 자신의 우려대로 두 논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부 목차를 좀 더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첫 번째 논문에서 필자는 왜 관변적 성격의 『조선반도사』 편찬 대신 ‘통속역사학’ 형태의 ‘지상강의(紙上講義)’가 발간되었는지 추론하고 있다. 서평자가 이해하기에는 결국 정치적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근대적 연구방법론인 실증에서도 부족한 역사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이나 조선총독부 관계자들 역시 그대로 내놓기에 망설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식민주의 역사학은 나름 ‘현

재·국가의 정치적 목적’ + ‘실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점에서 ‘근대역사학’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좀 더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식민사학의 문제를 ‘진실/오류’의 규명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식민사학이 얼마나 오류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식민사학은 어찌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독자들에게 그것을 믿도록 만들었는지에 관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헤이든 화이트의 ‘메타역사론’을 인용하여 식민사학자들이 구축한 조선에 대한 ‘역사-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입론은, 앞서 서평자가 제기하였던 문제, 즉 얼마나 실증을 잘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기존 연구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현재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과 ‘왜곡’한다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진리’는 주장에 불과하고, 역사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좀 과격해 보인다. 그러나 식민사학자나 민족사학자들이 전유해 왔던 ‘근대역사학’의 신화를 깨기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토록 과감한 문제의식에 비해 정준영 글의 결론-일본 민족의 자기 서사라는 관점에서 국사학과 동양사학이 합치될 수 있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조선 내 ‘중국적인 것’에 대해 해석했다-은 좀 소박해 보인다.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위의 ‘도구’를 사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V. 나가며

결론적으로 서평자의 질문은 다시 1편 총론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간다. 본서의 공동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근대역사학의 특성들은 무엇인가? 일정 수준의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연구가 이루어졌겠지만, 각론들을 보고 나면 ‘근대역사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될 따름이다. 방대한 공동연구의 성

과들에 바탕하여, 다음 공동연구에서는 ‘근대역사학’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한 번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등 식민지 조선의 ‘재야 민간사학’은 식민주의 역사학을 어떻게 변용시켰는지, 특히 일반 대중들의 역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서평의 제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식민주의 역사학, 극복의 대상인가, 성찰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서의 공동연구자들은 당연히 ‘성찰의 대상’이라고 답할 듯하다. 그동안 ‘극복의 대상’으로 보아온 역사연구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평자는 본서의 공동연구자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식민사학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아온 역사연구자들, 이들은 ‘극복의 대상’인가, ‘성찰의 대상’인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규칙 제1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

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한중관계연구소장, 한일관계연구소장, 독도연구소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 and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내의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가입 후 투고논문원고(그림 또는 별도의 표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사통과 후의 최종원고 제출시에는 nonchong@nahf.or.kr로 제출하고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증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증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기획실장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1호(2018. 9)

초판 1쇄 인쇄 2018년 9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9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